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0273-01

외래어 표기 규범 영향 평가

연구 책임자
구 본 관

2010. 12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외래어 표기 규범 영향 평가’에 관하여 귀 부와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연구 책임자 : 구본관(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연구 기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 책임자 구본관

공동 연구원 박한상, 이진희, 박동열, 이만기, 조문환, 민광준, 손남호,
오현아

보조 연구원 권지영, 이미옥, 김요한, 박미진, 박혜숙, 김소정, 송아람,
노은정, 강순행, 엄현석, 고은숙, 이호수, 박선영, 이지영,
조진수

[국문 초록]

외래어 표기 규범 영향 평가

이 보고서는 국민의 국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래어 표기 규범 영향 평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국민들이 어떠한 표기를 사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업, 학술, 출판 세 분야에서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민들의 외래어 표기 규정과 용례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외래어 표기 규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영어권, 독일, 프랑스, 에스파냐어권, 이탈리아, 중국, 일본과 북한의 외래어 표기 규범을 비교 조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들의 실제적인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를 위해 기업, 학술, 출판의 분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총 조사 건수 대 총 오류 건수 비율이 에스파냐어(91.07%) > 중국어(43.83%) > 프랑스어(33.95%) > 일본어(30.65%) > 이탈리아어(22.70%) > 독일어(19.38%) > 영어(7.48%) 순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 조사 건수 대 오류 건수 비율 중 프랑스어(92.11%), 에스파냐어(100.0%), 이탈리아어(41.4%)의 경우는 학술 분야에서의 오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민들의 외래어 표기 규정과 용례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 조사를 위해 일반 국민 525명(남성 260명, 여성 265명), 전문인 103명(아나운서 24명, 신문기자 29명, 출판 종사자 25명, 국어 교사 2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7개 외래어 올바른 표기 전체 문항에 대한 인지율에 있어서, 일반인 68.61%, 전문인이 84.09%로 전문인이 15.48%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는 일반인 68.89%, 전문인 77.27%로 전문인이 8.38% 높았다. 또한, 일반인의 경우에 올바른 표기에 대한 인지율과 만족도가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에 전문인은 정인지율에 비해 만족도 수준이 6.82%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래어 표기 규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영어권, 독일, 프랑스, 에스파냐어권, 이탈리아, 중국, 일본과 북한의 외래어 표기 규범을 비교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럽 언어권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 주도적인 외래어 표기 정책이나 외래어 표기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있더라도 일반 표기법 규정 안에서 다루어지는 형태였다. 예외적으로 독일에서만 분단과 통일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외래어 표기 규범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아시아 언어권인 일본과 중국에서는 국가 주도적인 외래어 표기 정책과 외래어 표기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외래어 표기 규범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쟁점별 개별 언어권 정책 방향과 정인지 및 만족도 차이에 따른 언어별 정책 방향의 두 가지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쟁점별 개별 언어권 정책 방향 차원에서는 관용 표기·이중표기 문제, 원음주의 문제, 된소리 표기 문제, 한국식 한자음 표기 문제 등에 대해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결과와 외래어 표기 규정과 용례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개별 언어권의 입장과 관점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정인지 및 만족도 차이에 따른 언어별 정책 방향 차원에서는 정인지 및 만족도가 높은 언어(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정인지 및 만족도가 낮은 언어(영어, 독일어, 에스파냐

어)로 유형화하여 국민의 외래어 표기 규정과 용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보고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어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키 위한 기초 자료 확보 및 국어기본법에 따른 실태 조사를 통해 국어 사용 환경의 문제점을 진단, 분석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외래어 표기 규범, 규정, 용례, 일반인, 전문인,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 국어 실태, 국어 사용

[목 차]

제1장 서론	1
1.1. 연구 배경	1
1.1.1. 연구 목적	1
1.1.2. 연구 범위	2
1.1.3. 기존 연구 동향	3
1.2. 연구 개요	24
1.2.1. 연구 대상	24
1.2.2. 연구 추진 경위	24
1.2.3. 연구 방법	27
1.3.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에 대하여	28
1.3.1.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개발 틀	28
1.3.2.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진행 과정	28
1.4. 외래어 표기 규정과 용례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하여	36
1.4.1. 외래어 표기 규정과 용례에 대한 설문 조사 틀	36
1.4.2. 문항 개발 과정	36
1.5. 주요 국가의 외래어 표기 규범 관리 현황 조사에 대하여	45
1.5.1. 외래어 표기 규범 관리 현황 조사 개발 틀	45
1.5.2. 외래어 표기 규범 관리 현황 조사 진행 과정	45
제2장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45
2.1. 영어	46
2.2. 독일어	78
2.3. 프랑스어	89
2.4. 에스파냐어	101
2.5. 이탈리아어	114
2.6. 일본어	123
2.7. 중국어	187

제3장 외래어 표기 설문 조사 196

3.1. 일반 규정 196

3.2. 세부 규정 및 용례 200

 3.2.1. 영어 200

 3.2.2. 독일어 232

 3.2.3. 프랑스어 243

 3.2.4. 에스파냐어 261

 3.2.5. 이탈리아어 292

 3.2.6. 일본어 300

 3.2.7. 중국어 306

 3.2.8. 규정 관련 제안 321

제4장 주요 국가의 외래어 표기 규범 비교 조사 322

4.1. 영어권 322

4.2. 독일 325

4.3. 프랑스 332

4.4. 에스파냐 335

4.5. 이탈리아 349

4.6. 일본 350

4.7. 중국 357

4.8. 북한 361

제5장 결론 367

5.1. 쟁점별 개별 언어권 정책 방향 제안 367

 5.1.1. 관용 표기·이중표기 문제 367

 5.1.2. 원음주의 문제 373

 5.1.3. 된소리 표기 문제 376

 5.1.4. 한국식 한자음 표기 문제 379

 5.1.5. 기타 380

5.2. 정인지 및 만족도 차이에 따른 언어별 정책 방향 제안 382

 5.1.1. 정인지 및 만족도가 높은 언어 382

 5.1.2. 정인지 및 만족도가 낮은 언어 385

참고문헌	388
부록 1: 외래어 표기 규정과 용례에 대한 인지도·이해도·만족도 조사 설문지	391
부록 2: 외래어 표기 규정과 용례에 대한 인지도·이해도·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404

[표 차례]

[표 1]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코딩 예시	28
[표 2]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대상 목록	28
[표 3] 설문 조사 설계 절차	36
[표 4] 외래어 표기 인지 정도 측정 문항(영어)	37
[표 5] 외래어 표기 인지 정도 측정 문항(독일어)	38
[표 6] 외래어 표기 인지 정도 측정 문항(프랑스어)	38
[표 7] 외래어 표기 인지 정도 측정 문항(에스파냐어)	39
[표 8] 외래어 표기 인지 정도 측정 문항(이탈리아어)	39
[표 9] 외래어 표기 인지 정도 측정 문항(일본어)	40
[표 10] 외래어 표기 인지 정도 측정 문항(중국어)	41
[표 11] 외래어 표기 규정 조사 문항	42
[표 12] 국가별 외래어 표기 규정 존재 여부와 대상 자료	45
[표 13] 분야별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통계(영어)	46
[표 14]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영어-기업분야)	48
[표 15]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영어-기업분야)	57
[표 16]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영어-학술분야)	58
[표 17]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영어-학술분야)	69
[표 18]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영어-출판분야)	70
[표 19]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영어-출판분야)	77
[표 20] 분야별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통계(독일어)	78
[표 21]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독일어-기업분야)	80
[표 22]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독일어-기업분야)	80
[표 23]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독일어-학술분야)	81
[표 24]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독일어-학술분야)	81
[표 25]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독일어-출판분야)	82
[표 26]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독일어-출판분야)	87
[표 27] 분야별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통계(프랑스어)	89
[표 28]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프랑스어-기업분야)	96
[표 29]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프랑스어-기업분야)	96
[표 30]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프랑스어-학술분야)	97
[표 31]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프랑스어-학술분야)	97
[표 32]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프랑스어-출판분야)	100
[표 33]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프랑스어-출판분야)	100
[표 34] 분야별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통계(에스파냐어)	101
[표 35]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에스파냐어-기업분야)	103
[표 36]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에스파냐어-기업분야)	103
[표 37]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에스파냐어-학술분야)	104
[표 38]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에스파냐어-출판분야)	107

[표 39]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에스파냐어-출판분야)	107
[표 40] 분야별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통계(이탈리아어)	114
[표 41]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이탈리아어-기업분야)	115
[표 42]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이탈리아어-기업분야)	116
[표 43]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이탈리아어-학술분야)	117
[표 44]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이탈리아어-학술분야)	118
[표 45]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이탈리아어-출판분야)	120
[표 46]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이탈리아어-출판분야)	122
[표 47] 분야별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통계(일본어)	123
[표 48] 일본어 외래어의 한글 표기 실태 조사 결과	123
[표 49] 일본어 표기 규정에 맞지 않는 표기 사례 분석	123
[표 50]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일본어-기업분야)	124
[표 51]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일본어-기업분야)	126
[표 52]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일본어-학술분야)	126
[표 53]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일본어-학술분야)	156
[표 54]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일본어-출판분야)	167
[표 55]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일본어-출판분야)	181
[표 56] 분야별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통계(중국어)	187
[표 57]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중국어-기업분야)	189
[표 58]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중국어-기업분야)	189
[표 59]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중국어-학술분야)	189
[표 60]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중국어-학술분야)	191
[표 61]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중국어-출판분야)	191
[표 62]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중국어-출판분야)	195
[표 63] 전문인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 비교	197
[표 64] 일반 규정 및 영어 규정 설문 문항	200
[표 65] 영어 용례 설문 문항	201
[표 66] 프랑스어 규정 설문 문항	244
[표 67] 프랑스어 용례 설문 문항	244
[표 68] 프랑스어 응답 비율별 용례	247
[표 69]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몽타주)	249
[표 70]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양상블)	250
[표 71]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상송)	251
[표 72]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르네상스)	252
[표 73]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베르사유)	254
[표 74]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크루아상)	255
[표 75]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파리)	256
[표 76]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바캉스)	257
[표 77]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바게트)	259
[표 78] 에스파냐어 설문 용례	261
[표 79] 에스파냐어 응답 비율별 용례	264

[표 80]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카사 블랑카)	266
[표 81]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테킬라)	267
[표 82]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돈 키호테)	269
[표 83]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타코)	270
[표 84]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베네수엘라)	271
[표 85]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산 미겔)	273
[표 86]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야마)	274
[표 87]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세비야)	276
[표 88]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산호세)	277
[표 89]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아바나)	278
[표 90] 에스파냐어 규정1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280
[표 91] 에스파냐어 규정1 만족도 집단별 특성	280
[표 92] 에스파냐어 규정2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282
[표 93] 에스파냐어 규정2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282
[표 94] 에스파냐어 규정2 만족도 집단별 특성	283
[표 95] 에스파냐어 규정3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284
[표 96] 에스파냐어 규정3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285
[표 97] 에스파냐어 규정3 만족도 집단별 특성	285
[표 98] 에스파냐어 규정4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286
[표 99] 에스파냐어 규정4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287
[표 100] 에스파냐어 규정4 만족 정도 집단별 특성	287
[표 101] 에스파냐어 규정5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288
[표 102] 에스파냐어 규정 5 이해도 집단별 특성	288
[표 103] 에스파냐어 규정5 만족도 집단별 특성	289
[표 104] 이탈리아어 응답 비율별 용례	293
[표 105] 일본의 지명과 인명의 한글 표기 방법에 대한 설문	300
[표 106] 일본어 외래어의 한글 표기 규정과 용례	300
[표 107] 일본어 규정에 대한 전문인의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	304
[표 108] 외래어 규정에 따른 용례 정인지 비율(일본어)	305
[표 109] 용례에 대한 설문 문항 중 중국어와 관련된 부분	307
[표 110] 규정에 대한 설문 문항 중 중국어와 관련된 부분	309
[표 111] 영어의 응답 비율별 용례	311
[표 112] 중국어의 응답 비율별 용례	311
[표 113] 전문인의 외래어별 정인지와 만족도 차이의 순서	312
[표 114] 우리 한자음과 외래어 한자음의 선호도	312
[표 115] 외래어의 노출 정도	314
[표 116] 중국어 규정·용례의 인지도·이해도·만족도	315
[표 117] 일본의 에스파냐어 표기	337
[표 118] 중국어-에스파냐어 음역 대조표	342
[표 119] 영중 음역표	359
[표 120] 현행 표기 규정과 통용표기 및 최영애·김용욱 표기법의 비교	371

[그림 차례]

[그림 1] 일반규정 1 설문조사 결과	202
[그림 2] 일반규정 2 설문조사 결과	203
[그림 3] ‘콘텐츠’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204
[그림 4] ‘콘텐츠’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205
[그림 5] ‘소시지’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206
[그림 6] ‘소시지’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207
[그림 7] 일반 규정 3 설문조사 결과	208
[그림 8] ‘뉴욕’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209
[그림 9] ‘뉴욕’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210
[그림 10] 일반규정 4 설문조사 결과	211
[그림 11] 일반규정 5 설문조사 결과	212
[그림 12] ‘더그아웃’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213
[그림 13] ‘더그아웃’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214
[그림 14] ‘선글라스’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215
[그림 15] ‘선글라스’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216
[그림 16] ‘카세트’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217
[그림 17] ‘카세트’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218
[그림 18] ‘하이라이트’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219
[그림 19] ‘하이라이트’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220
[그림 20] 영어 규정 1 설문조사 결과	221
[그림 21] ‘잉글리시’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222
[그림 22] ‘잉글리시’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223
[그림 23] 영어규정 2 설문조사 결과	224
[그림 24] 영어규정 3 설문조사 결과	225
[그림 25] ‘로봇’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226
[그림 26] ‘로봇’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227
[그림 27] 영어 규정 4 설문조사 결과	228
[그림 28] ‘로브슨’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229
[그림 29] ‘로브슨’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230
[그림 30] ‘몽타주’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248
[그림 31] ‘몽타주’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248
[그림 32] ‘양상블’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249
[그림 33] ‘양상블’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249
[그림 34] ‘상송’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250
[그림 35] ‘상송’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251
[그림 36] ‘르네상스’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252
[그림 37] ‘르네상스’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252
[그림 38] ‘베르사유’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253

[그림 39] ‘베르사유’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253
[그림 40] ‘크루아상’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254
[그림 41] ‘크루아상’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255
[그림 42] ‘파리’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256
[그림 43] ‘파리’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256
[그림 44] ‘바캉스’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257
[그림 45] ‘바캉스’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257
[그림 46] ‘바게트’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258
[그림 47] ‘바게트’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258
[그림 48] ‘카사 블랑카’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265
[그림 49] ‘카사 블랑카’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266
[그림 50] ‘데킬라’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267
[그림 51] ‘데킬라’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267
[그림 52] ‘돈 키호테’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268
[그림 53] ‘돈 키호테’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268
[그림 54] ‘타코’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269
[그림 55] ‘타코’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270
[그림 56] ‘베네수엘라’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271
[그림 57] ‘베네수엘라’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271
[그림 58] ‘산 미겔’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272
[그림 59] ‘산 미겔’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272
[그림 60] ‘야마’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274
[그림 61] ‘야마’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274
[그림 62] ‘세비야’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275
[그림 63] ‘세비야’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275
[그림 64] ‘산호세’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276
[그림 65] ‘산호세’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277
[그림 66] ‘아바나’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278
[그림 67] ‘아바나’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278
[그림 68] 에스파냐어 규정 1에 대한 인지도·이해도·만족도 비율	280
[그림 69] 에스파냐어 규정 2에 대한 인지도·이해도·만족도 비율	282
[그림 70] 에스파냐어 규정 3에 대한 인지도·이해도·만족도 비율	284
[그림 71] 에스파냐어 규정 4에 대한 인지도·이해도·만족도 비율	286
[그림 72] 에스파냐어 규정 5에 대한 인지도·이해도·만족도 비율	288
[그림 73] 자모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결과	321

제1장 서론

1.1. 연구 배경

1.1.1. 연구 목적

이 과제의 목적은 ‘국어 기본법’ 제 12조에 근거하여 외래어 표기 규범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인의 인지도·이해도·만족도를 조사하고, 외래어 표기 실태와 주요 국가의 외래어 표기법 운용 현황을 조사하여 현 외래어 표기 규범이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는 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래어 표기 용례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이해도·만족도를 조사하고, 외래어 표기 규정과 용례에 대한 전문인의 인지도·이해도·만족도를 조사한다. 국민들이 외래어를 쉽고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외래어 표기를 국민들이 얼마나 접해 보았고, 이해하고 있으며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6년 고시한 7개 언어(영어, 독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를 대상으로 하여 각 언어의 주요 표기 용례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인의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일반인의 경우 용례만, 전문인의 경우 용례와 규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일반인과 전문인 모두 동일한 용례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외래어 표기 규정과 표기 용례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를 파악하여 외래어 표기 규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둘째, 기업, 학술, 출판의 영역을 구분하여 외래어의 표기 실태를 조사한다. 국어기본법에서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수용도는 실태 조사 결과로 대신한다.

셋째, 주요 국가의 외래어 표기 규범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외래어 표기 규범과 비교한다. 북한·중국·일본 등 10개국 내외의 외래어 표기 규범 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표기 규범 운용의 효율성을 비교한다.

넷째, 일반인이 외래어 표기 규범을 알기 쉽게 위계화·조직화하여 외래어 표기 규정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외래어 표기 규범과 표기 용례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인 집단의 인지도, 이해도, 수용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래어 표기 일반 규정과 7개 언어권별 표기 규범의 위계화 및 조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외래어 표기 규정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2. 연구 범위

이 연구는 앞서 살핀 연구 목표 중 다음과 같은 내용적 범위로 한정한다.

연구 목표	내용 범위
① 국민의 외래어 표기 규범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외래어 표기 규정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 및 외래어 표기 용례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6년 고시 7개 언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대상으로 한다. - 위 7개 언어의 주요 표기 용례에 대한 일반인, 전문인의 인지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 역대 용례 중 실제 다수 쓰임이 규범 표기와 다른 것을 추출하여 포함한다. - 일반인 대상 1종, 전문인 대상 7종의 설문지를 마련한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외래어 표기 규정과 표기 용례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를 파악하여 외래어 표기 규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②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표지판, 언론매체, 웹사이트, 교과서, 사전 및 지도 등 각종 출판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 교육, 언론, 출판, 외교, 기업, 공공기관 등의 영역을 구분해 진행한다.
③ 주요 국가의 외래어 표기 규범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중국·일본 등 8개국의 외래어 표기 규범 관리 현황을 조사한다. -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표기 규범 운용의 효율성을 비교한다.
[핵심 연구 목표]	
<p>객관적 타당성을 담보하고,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외래어 표기 규정의 위계화 및 조직화</p>	

1.1.3. 기존 연구 동향

기존 연구 동향을 국어 일반과 개별 언어권의 외래어 표기 규범 관련 논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래어 표기법 관련 연구>

- 1) 김수현 (2009), 외래어의 관용 표기에 관한 고찰, 이중언어학, 39권, 이중언어학회.
- 2) 김선철(2008), 외래어 표기법의 한계와 극복 방안, 언어학16-2, 한국언어학회.
- 3) 국어실태연구팀(2007), 외래어 인지도·이해도·사용도 및 태도 조사, 국립국어원.
- 4) 이홍식(2007), 외래어·외국어 사용 및 순화어 수용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5) 박종덕(2007), 외래어 및 그 표기법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 한민족문화연구, 23권, 한민족 문화학회.
- 6) 민현식(1999),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 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 7) 김세중 (1993), 외래어 표기 규범의 방향, 언어학, 15권, 한국언어학회.

<에스파냐어 표기 관련 연구>

유경숙(2000), "스페인계 인명, 지명의 한글 표기", 진주산업대학교논문집 21, 2.

<일본어 표기 관련 연구>

- 1) 김정례(1995), 일본문학작품의 한국어 번역상의 문제점 -가나와 고유명사의 한글표기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제1집, 한국일본어학회.
- 2) 강인선(1996), 현행일본어 표기법과 나의 의견, 새생활국어 6권 4호, 국립국어연구원.
- 3) 편무진(1999), 일본어 한글 표기의 합리적 방안 - 관용적 표기를 근간으로, 일어일문학연구 34집, 한국일어일문학회.
- 4) 최재철(1999), 일본문학 번역과 표기의 제문제, 일어일문학연구 34집, 한국일어일문학회.
- 5) 고수만(1999), 현행 일본어 한글표기법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 일어일문학연구 34집, 한국일어일문학회.
- 6) 민광준, 조남덕(2002), 일본어 가나의 한글 표기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일본어학연구 5집, 한국일본어학회.
- 7) 김용각(2008), 일본어 한글표기의 문제점 고찰 및 개선안, - 발음교육의 측면에서, 일어일문학 39집, 대한일어일문학회.

<중국어 표기 관련 연구>

- 1) 김진영(2002), 도서관 목록에서 중국어 문자 표기에 관한 연구, 부산대 문헌정보학 석사 논문.
- 2) 양세욱(2009), '다오위타이'와 '낙시터국빈관' 사이 - 중국어 고유명사 한글표기의 현황과

쟁점, 중국어문학논집 57호.

- 3) 裴宰奭(2002), Cyber 상의 중국어 표기법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19호.
- 4) 김희성(2008), 한국어 滑音을 활용한 중국어 표기법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5) 맹주역(2009), 중국어 한글 표기의 원칙과 방안, 중국어문학연구회 발표 논문.
- 6) 신경진(2009), 한국 언론의 한자어, 중국어 표기의 변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사례, 중국어문학연구회 발표 논문.
- 7) 양동숙(2009), 중국어 속의 한국, 한국인, 중국어문학연구회.
- 8) 김태성(2001), 중국어 한글표기법에 관하여, 한국중어중문학회 27집.
- 9) 김영만(2003), 중국어 한글표기법 현황과 개선방안, 중국어문논총 25집.
- 10) 장호득(2003), 중국어 한글표기법의 원칙과 한계, 중국어문논역총간 11집.
- 11) 도혜숙 외(2007), 중국어 한글 표기법 개선안, 중국학보 55집.
- 12) 강혜근(2008), 중국어 한글표기법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와 표기 방안, 중국어문학논집 50집.
- 13) 김태성(2008), 중국어 한글표기 : 혼돈에서 질서로, 중국인문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14) 엄익상(1996), 중국어 한글 표기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중국언어연구 4집.
- 15) 엄익상(2002), 중국어 한글 표기법의 원칙과 한계, 중어중문학 31집.
- 16) 엄익상(2009), 중국어 외래어 표기법 발음 피리의 문제, 중국어문학논집 54집.
- 17) 엄익상(2009), 중국어 외래어를 원지음으로 표기해야 하는 이유, 중국어문학논집 56집.

<외래어 표기법 관련 연구>

○ 김수현 (2009), 외래어의 관용 표기에 관한 고찰, 이중언어학, 39권, 이중언어학회.

외래어를 국어의 어휘로 사용하는 이상,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이해와 정확한 표기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외래어는 현재 표기상의 혼란을 겪고 있다. 원칙과 관용이 존재할 경우 관용의 허용 범위를 최소화하고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 **관용 표기 실태 분석** : 한, 중, 일 삼국에서 사용되는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 고찰한 후, 국어의 외래어 표기에서 관용 표기의 실태를 분석한다. 1986년 제정된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5항에는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주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외래어 표기가 하나의 규칙에 의해 일괄적으로 정해지기 어렵다는 것을 표기법 자체에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 표기에는 관용이 존재하지만, 설문 조사 결과 언중은 고유명사의 관용 표기 여부에 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또한 국어의 외래어 표기에서 일반 어휘 가운데 관용 표기를 허용하는 상당수는 외국어의 원지음이 아닌 철자를 표기에 반영한 경우이다. 철자에 따른 표기는 결과적으로 외국어 원지음을

적는 표기 원칙에 어긋나므로 정책적인 측면에서나 언어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 새로 유입되는 외래어의 경우는 규정에 의한 표기를 해야 할 것이다.

- **외래어 표기에서 된소리의 표기 여부** : 국어의 파열음은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의 3항 대립체계를 이룬다. 그러나 국내에 유입된 외래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어, 불어, 독어 등의 파열음은 유성과열음과 무성과열음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국어의 외래어는 된소리를 제외한 예사소리와 거센소리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발음이 된소리일 경우 그 표기 여부는 문제가 된다.
- **국어의 외래어 표기에서 관용 표기의 수용 방향** : 일반적으로 어떠한 원칙을 정했을 경우 가능한 그 원칙을 따라야 한다. 현행 외래어 표기는 관용을 인정하고 있어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표기가 존재하게 된다. 물론 외래어의 특수성으로 인해 규칙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관용을 허용하는 어휘의 증가는 표기 전반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이 제정된 지 20여년이 지났는데도 외래어 표기법에 관해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며 표기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의식도 최근 들어 생겨난 듯하다. 이는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 중요성을 간과한 데에서 기인한다. 외래어 표기는 홍보의 측면에서 언중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확한 표기를 모를 경우 확인이 수월하도록 해야 한다.

기준에 유입된 외래어 가운데 발음이나 표기를 변형하여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것들은 관용을 인정하는 것이 언어 현실에 부합할 것이나 관용의 허용은 결과적으로 규범 표기와 관용 표기의 구분을 어렵게 하여 표기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 비교적 최근에 국내에 유입되어 사용하기 시작한 외래어와 새로 유입되는 외래어는 표기법에 준하여 표기하여 가능한 관용을 줄이고 원칙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 김선철(2008), 외래어 표기법의 한계와 극복 방안, 언어학16-2, 한국언어학회.

이 연구는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쟁점별로 살펴보고, 지적된 대부분의 문제들이 대부분 규정의 개정이 아니라 운용 방식의 변화로써 해결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기존의 지적들을 ‘규정의 표현 영역’, ‘운영 영역’, ‘내용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 내에서 쟁점 사항들을 점검하고 그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외래어 표기법’의 대상이 되는 ‘외래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관용 표기의 수용 문제 행정적 조치의 문제, 차용원의 문제, 적용 시점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어 본 연구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국어실태연구팀(2007), 외래어 인지도·이해도·사용도 및 태도 조사, 국립국어원.

이 연구는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외래어, 외국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을 조사하여 외래어, 외국어의 수용 정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외래어 정책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말 속에 들어와 있는 외래어 단어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들어 봤는지 여부), 이해도(의미를 알고 있는지의), 사용도(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지의 여부) 및 태도(국어생활에서 이 말을 써도 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는 100개의 외래어를 선정하여 전국 1948명(내국인: 1579, 비내국인: 3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항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인지도, 이해도, 사용도, 태도 순으로 점차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 연구는 국민의 외래어 표기 규범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외래어 표기 규정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수용도 및 외래어 표기 용례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본 연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홍식(2007), 외래어·외국어 사용 및 순화어 수용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이 연구는 표기법과 순화 대책 연구에 경사되었던 기존의 연구 경향을 비판하고, 외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순화어 수용에 대한 국민의 태도에 주목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언중들이 외래어, 외국어, 순화어에 대해 갖는 인식을 조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언어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외래어, 외국어, 순화어에 대한 언중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법을 사용하고 있다. 설문 문항을 ‘외래어/외국어 표현에 대한 인식 조사’, ‘사회적 관계에 따른 외래어/외국어 사용 양상과 이유’, ‘외래어/외국어 표현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장소, 사용 분야’, ‘외래어 사용의 장점과 교육’, ‘외래어 표기 및 대체 방안’, ‘국어 순화 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의 여섯 영역으로 나누어서 외래어에 대한 언중의 인식을 다각도에서 분석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개인적, 사회적 변수를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설문 항목과 응답 대상자의 개인적, 사회적 변수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내었다. 외래어에 대한 언중의 인식을 분석할 때, 조사 대상자의 개인적, 사회적 변수를 고려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 박종덕 (2007), 외래어 및 그 표기법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 한민족문화연구, 23권, 한민족 문화학회.

이 연구는 외래어가 국어인가 아닌가의 문제,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분하는 기준에 관한 문제, 외래어 표기 원칙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 외래어는 국어인가, 아닌가에 관련된 문제 : 이 문제는 우리말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구

분한 기존의 분류를 인정/폐기할 것인가에 귀결된다.

- 외래어와 외국어를 가르는 기준에 관련된 문제 : 이 또한 국어 어휘가 삼중 체계로 되어있는 설에 접맥되어 있다.
- 외래어 표기 원칙에 관련된 문제 : 이는 본질적으로 외래어를 국어로 볼 것인가 외국어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외래어는 외국어이므로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들은말 표기법'으로 재정비되어야 하고, 그 경우 들은말은 적절한 국어로 순화된 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원지음대로 과학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허용해야 함.

※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

- 외래어를 국어로 인정할 경우 여러 형태의 어형 중에서 표준어형을 정하여 그에 맞게 각 어휘의 표기를 고정하는 문제.
- 외래어를 국어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외국말을 원지음대로 과학적으로 표기하는 문제, 또는 적절한 국어 순화 표기로 바꾸는 문제.

외래어를 국어로 인정하지 않고 외국어로 간주하고, '들은말 표기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토박이말 또는 한자말로 순화하여 표기하고, 순화어로 도저히 대체하여 적을 수 없는 경우 원지음에 충실하게 과학적으로 표기한다.

○ 민현식(1999),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 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이 연구는 '외래어 표기법(1986)'을 중심으로 현행 규정의 잘된 점과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외래어표기법'(1986)부터 주요 언어권별로 외래어표기법이 마련되어 과거의 외래어표기법 규정들보다 정교해졌지만, 여전히 외래어 표기법의 불통일이 존재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규정표기와 관용표기의 괴리가 심각해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정약용 저, 지석영 주석의 '아학편'(兒學編, 1907) 이래 이종극(1937) 사전의 표기, 조선어학회(1940)의 '외래어표기법통일안', 문교부(1958)의 '로마자자의 한글화표기법'과 '편수자료' 1-4집(1959-1963), 현행 문교부(1986)의 '외래어표기법'에 이르기까지 주로 쟁점이 된 p-b, t-d, k-g 파열음 구별과 된소리 표기 허용 여부, f, v, z 표기를 위한 고어자의 사용 여부, 장모음 반영 여부, 관용 외래어 발음 허용 범위, 중국과 일본의 인명, 지명 표기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 본 연구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김세중 (1993), 외래어 표기 규범의 방향, 언어학, 15권, 한국언어학회.

이 연구는 현재 외래어 표기에 있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의 원인이 외래어 표기의 규범에 일부 있음을 밝히고 바람직한 외래어 표기를 위해서 외래어 표기의 규범이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현행 외래어 표기 규범에 따르면 용례집에 실려 있으면 그 표기가 규범 표기이고 실려 있지 않으면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하여 얻게 되는 표기가 규범 표기가 된다.

1) 된소리 문제

가. 제4항 참조 : 외국어에서의 무성 파열음은 언어에 따라 우리말의 격음에 가깝기도 하고 된소리에 가깝기도 한데 어떤 때는 격음으로 어떤 때는 된소리로 적는다면 규정이 대단히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없는 것이 된다.

나. 된소리 기피 이유 : 된소리의 기능 부담량이 적으며, 인쇄에 지장을 초래한다.

다. 된소리 기능 부담량이 적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ㄱ. 된소리 어휘 사용빈도가 높으며 기초 어휘에도 등장. 개수로만 판정하기는 어려움.

ㄴ. 된소리 표기 허용 시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음절을 쓰므로 허용하지 말자는 주장의 비합리성. 격음으로 된 음절들도 국어에서 안 쓰이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유연히 국어에 그러한 음절이 안 쓰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ㄷ. 현대 전산 조판의 경우, 된소리 표기가 인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

라. 외래어 발음 처리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예외 : 껌, 빨치산, 히로뽕, 뼈라, 빵

- 영어의 무성/유성 파열음 : 각각 격음과 평음에 대응하는 것이 기본이나 유성 파열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예(까스, 게임, 까운, 땀, 딸러, 뺨스 등) 존재함. 그러나 된소리로 발음 나는 단어들도 표기는 평음으로 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으므로 표기는 그대로 유지. 다만 사전에는 현실 발음을 따로 표시해 주어야 함.

-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에스파냐어, 러시아어 등 : 원지음에 가깝게 적으려는 경향. 이들 언어를 접해보거나 해당 언어 전공자의 경우 무성 파열음을 된소리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임. 된소리 사용은 표기보다 발음에서 먼저 나타남.

- 현행 표기법 수정안 :

(1) 이탈리아어, 에스파냐어 : 해당 언어의 자모와 한글 대조표 변경.

(2) 러시아어 : 현재 미비. 러시아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를 만들 때 새로 반영.

(3) 프랑스어 :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 수정. ‘p, t, k’에 ‘ㅍ, ㅌ, ㅋ’을 ‘ㅍ, ㅍ’, ‘ㅌ, ㅌ’, ‘ㅋ, ㄱ’로 하고 언어에 따라 달리 선택됨을 명기.

2) **마찰음의 된소리** : 마찰음에 대해서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는 원칙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어두에서 바로 모음이 따를 때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자음 앞에서 [스], 음절 말(어말 포함)에서는 [쓰]로 발음된다. (예. 버스, 가스, 게임) 현실적으로 표기는 그대로 두되, 사전에 발음 표시가 따라야 할 것이다.

3) **관용에 관하여** :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한다. 이러한 원칙이 과연 ‘따로 정하는 범위와 용례’에 충실히 지켜지고 있는지 외래어 표기 용례집에서 살펴봐야 한다. 생소한 어형이 표준 외래어 정해져 있음은 언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일상 언어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는 관용 여부를 몇 사람이 개인적인 지식, 경험과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했기 때문

이다. 언중은 국어사전보다는 자신의 습관과 주위 사람들의 습관에 더 의존하므로 규범 변경이 불가피하다. 규범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언어현실에 대한 경험적이고 통계적인 조사가 행해져야 한다. 만일 여러 어형이 경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표기법의 원칙을 고려하여 표준어를 가려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외래어 표기 규범이 다음의 세 가지 방향에 따라 정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첫째,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에스파냐어, 러시아어 등의 무성 파열음은 된소리로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영어의 유성 파열음과 마찰음 [s]는 된소리로 발음 나는 경우도 평음으로 표기하고 사전에 따로 발음 표시를 한다.

둘째, 관용은 인정되어야 한다. 현재 관용과 어긋나는 예들은 일치하도록 바뀌어야 한다. 단 경험적이고 통계적인 언어조사가 선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셋째, 외래어는 표기법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하나 따로 사정해야 한다. 외래어 표기법을 외국어 표기법으로 바꾸어 지명, 인명 등의 고유명사의 표기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에스파냐어 표기 관련 연구>

○ 유경숙(2000), "스페인계 인명, 지명의 한글 표기", 진주산업대학교논문집 21, 2.

이 연구에서는 스페인 지명과 인명의 한글 표기법과 용례를 알아보고 외래어표기법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스페인어의 발음은 극히 규칙적이라 철자가 그대로 발음기호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사전에조차 발음기호가 나와 있지 않다. 그런 만큼 스페인어의 기본 발음규칙은 스페인어 자료를 다루는 사서로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외래어 표기법은 사전에 발음기호가 나와 있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의 한글 표기는 <국제 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를 사용하도록 했으나 스페인어는 <에스파냐어 자모와 한글대조표>를 따로 만들어 스페인어의 한글 표기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 스페인어의 표기의 문제점

- 인명을 표기할 경우 성을 잘못 선택해서 초래된 오류 : 스페인어계 성명의 경우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성명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부분이 일반적으로 성으로 사용되는 아버지의 성이고, 제일 마지막 부분은 어머니의 처녀 때 성이기 때문에 인명을 표기할 때 혼란 발생.
- 스페인식 발음과 중남미식 발음의 차이에서 비롯된 비일관적인 표기 규칙 : 외래어 표기법 해설 중에 스페인어 부분에 "다만 주의할 것은 에스파냐 본국의 발음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남미의 발음습관은 여기서 도외시되었다는 점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에스파냐어 자모와 한글대조표>에 나온 자모 중에서 "ll"에 대한 내용과 상반된다. 보기에서 'llama 야마', 'lluvia 유비아'라고 한 것은 중남미 스페인어 및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의 발음이며 스페인 본토 발음은 '라마', '류비아'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외래어표기법해설에 “단지 Ⅱ의 경우는 중남미의 발음습관을 따랐다”고 예외규정을 달아야 한다.

- 유의할 점 : 스페인어는 영어와는 달리 철자와 발음과의 관계에 일관성이 있어서 일련의 발음 규칙만 알고 있으면 한글 표기는 별로 어렵지 않다. 단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읽기 쉬운 외국어라고 지나치게 쉽게 생각하고 '적당히' 읽어서 한글로 표기하면 국적 불명의 몰상식한 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외국인명이나 지명도 한글로 표기하기 전에 우선 어느 언어의 것인가를 알아야 하고, 그 언어의 기초적인 발음상식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한글로 표기할 때 적용해야 할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 및 해당언어의 표기세칙도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일본어 표기 관련 연구>

○ 김정례(1995), **일본문학작품의 한국어 번역상의 문제점 -가나와 고유명사의 한글표기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제1집, 한국일본어학회.

이 논문은 일본문학 작품의 한국어 번역에 있어 가나와 고유명사의 한글표기의 혼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심각성을 환기시키려는 점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일본문학작품의 한국어 번역의 가나와 고유명사의 한글 표기의 혼란한 이유를 각 연구자가 번역에 직면해 그 표기 문제에 주의하지 않고 무심경하게 대처하고 있는 점과 그리고 현재의 외래어 표기법에서 일본어 표기 원칙의 문제점 중 ‘つ’를 ‘쓰’로 ‘ちゃ, ちゅ, ちょ’와 ‘じゃ, じゅ, じょ’를 ‘자, 주, 조’로 표기하는 점, ‘ん’을 일괄적으로 ‘ㄴ’으로 표기하는 점, 장음을 표기하지 않는 점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문학 작품 번역시 개선책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올바른 한국어 문장이 되도록 현행의 <한글맞춤법>의 외래어 표기법을 존중해야 한다. ② 현행의 외래어 표기법에 문제가 있다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를 거듭하여 앞으로 국어 학자들과 협력하여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일본어 교육에서 피교육자에게 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 ④ 일본어 고유명사의 표기는 각 분야의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토대로 하나의 전거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강인선(1996), **현행일본어 표기법과 나의 의견**, 새생활국어 6권 4호, 국립국어연구원.

이 논문은 현행 일본어 가나의 한글 표기법과 관련하여 그 체재와 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주로 처리에 있어 불비한 점과 원칙과의 상충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일본어 외래어 표기에 쓰이는 새로운 음절표를 소개하였다. 특히 일본의 인명과 지명의 표기에 외래어 표기법을 그대로 따라 장음을 무시할 때에 생기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체재상의 문제점으로 ‘일본어 가나와 한글 대조표’에서 ‘가나’ 난에 가타카나만 제시 한 것

은 불합리하며 우리가 한글과 대조해 보아야 할 것은 히라가나이며 세척이나 용례집의 예의 표기도 히라가나로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가나 항목에 현재 일본에서 쓰지 않는 ‘ㄱ, ㄷ, ㄴ, ㄹ’은 역사적 철자법에서 쓰였던 것이므로 표에서 삭제해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 그 외에도 외래어의 관용표기에 대해서 각 낱말마다 표기법에 따라 적을 것인지, 어떠한 어형을 택할 것인지 자세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 정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내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으로는 어두 유성자음과 무성자음의 표기, ‘ㄴ’의 표기, 요음과 직음의 표기, 장모음의 표기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현행 표기법에서 일본어 ‘か, き, く, け, こ를 어두에서는 ‘가, 기, 구, 게, 고’로 표기하고 어중·어말에서는 ‘카, 키, 쿠, 케, 코’로 표기하게 하여 출현환경에 따른 음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면서 출현환경에 따라 다양한 음가로 발음되는 ‘ㄴ’을 ‘ㄴ’받침 하나로 표기하도록 한 것은 일관성을 잃은 조치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어두의 유성자음과 무성자음을 구별하지 않는 현행 표기법으로는 동음이의어인 지명을 구별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본어의 요음절(拗音節)을 한글 ‘ㅈ, ㅊ, ㅌ’로 일관성 있게 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음과 직음을 구별하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점과 장모음을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혼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편무진(1999), 일본어 한글 표기의 합리적 방안 - 관용적 표기를 근간으로, 일어일문학연구 34집, 한국일어일문학회.

이 논문은 저자의 ‘일본의 한글 표기의 역사적 고찰’의 續稿로서, 관용적 표기를 근간으로 합리적인 일본어 표기의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음성, 음운 체계를 달리하는 일본어를 한글로 표기하고자 할 때 관용적 표기를 대상으로, 음성적인 표기를 우선으로 하면서 표기의 변별성과 사용상의 편의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그 결과 제시한 대조표는 현행 표기법과 비교하여 어중·어말의 된소리 표기와 장음 표기의 수용 등이 표준형으로서의 합리적인 표기에 나타나는 주된 특징임을 기술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어중과 어말의 か행음, た행음에 대해서는 우리 말 된소리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센소리를 이용한 표기도 허용한다. ② 요음 ‘じゃ, じゅ, じょ’는 ‘자, 쥬, 죠’로 ‘ちゃ, ちゅ, ちょ’는 현행 표기법대로 ‘차, 추, 초’로 표기한다. ③ ‘づ’는 어두와 어중, 어말에서 모두 ‘쯔’로 표기하고 ‘쯔’도 허용한다. ‘ち’는 ‘치’로 표기한다. ④ 특수음절 표기의 경우 발음 ‘ㄴ’은 ‘ㄴ, ㅇ’으로 표기하며, 특히 모음과 반모음, 문절말 등에서 실현되는 발음은 ‘ㅇ’으로 표기하여 ‘ㄴ’과 구별한다. 축음 ‘っ’은 ‘ㅅ’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⑤ 장음의 경우는 관용적 표기대로 형태음소적 장음 음절 단위인 ‘우, 오’를 사용한다.

○ 최재철(1999), 일본문학 번역과 표기의 제문제, 일어일문학연구 34집, 한국일어일문학회.

이 논문은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과 그 수정 보완 사항을 지적하고 <일본어와 한글 대조표(안)>을 새로운 기준에 맞춰 제시한 후, 일본문학의 번역과 표기의 제문제를 검토한 것이다. 지금까지 제각각 달리 써서 혼란이 생긴 일본문학 ‘작품명’ 번역표기의 기준과 구체적인 예를 제시함으로써 번역 표기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일본어의 장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일본어의 장단음은 각각 한 글자로 한 음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쓰기 때문에 한글 표기 시에도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합리적이다. ② 일본어의 어두와 어중·어말 표기를 달리하는 차별을 없애야 한다. 어두에서도 청·탁음의 구분이 분명해야 한다. ③ ‘つ’는 ‘츠’로 표기하여 ‘ち(치)’와 일치시키고, ‘く(쿠)’ ‘ふ(푸)’와 같이 거센소리 계열로 표기를 통일한다. ④ 축음(促音:っ)과 발음(撥音:ん)은 그 위치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축음은 바로 뒤의 음이 한글 표기 시 ‘ㄱ’이면 ‘ㄱ’으로, ‘ㄷ, ㅌ, ㅌ’이면 ‘ㅌ’으로, ‘ㄷ’이면 ‘ㅌ’으로 표기한다. 발음은 바로 뒤의 음이 한글 표기 시 ‘ㄴ ㄷ ㅌ ㅌ ㅌ ㅌ’이면 ‘ㄴ’으로 ‘ㄹ ㅌ ㅌ’이면 ‘ㄹ’으로, ‘ㄱ ㅋ ㅌ’이면 ‘ㅇ’으로 적는다. 그리고 어말의 발음 표기는 ‘ㄴ’ 또는 ‘ㅇ’으로 표기한다. ⑤ 요음은 모두 서로 구별되게 표기한다.

○ 고수만(1999), **현행 일본어 한글표기법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 일어일문학연구 34집, 한국일어일문학회.

일본어의 한글 표기 규범에 대하여 음운·음성학적 입장에서 그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본 논문이다. 현행의 한글 일본어 표기법은 음성적 표기법의 입장에서 한글 맞춤법에 맞춘 표기방식으로 일본어 음운체계의 특성이 무시된 채 우리말 맞춤법에 따르도록만 되어 있어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어의 음운체계의 상이점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음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현행 표기법의 틀을 유지하면서 최소한도의 일본어 음운체계의 특성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선, 보완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계적 처리가 용이한 표기법, 즉 음성적 표기의 틀에 필요한 경우 음소적 표기 방식을 가미하자는 새로운 표기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① 전체적인 개선 방향은 原音에 가깝게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일본어의 표기는 한글로도 한 가지 표기만으로 적는다고 하는 것이다. 一音一表記의 원칙 아래, 일본어의 파열유성음은 우리말의 연음으로, 무성음은 우리말의 유기음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② 파찰음 ‘치’는 어두, 어중 구별 없이 유기음인 ‘치’로 ‘つ’는 ‘츠’로 적는다. ③ 요음의 경우 ‘じゃ, じゅ, じょ, ちゃ, ちゅ, ちょ’는 각각 어두 어중 구별 없이 ‘자, 주, 조, 차, 추, 초’로 표기한다. ④ 특수음소 중 발음 ‘ん’과 축음 ‘っ’는 현행대로 각각 ‘ㄴ’과 ‘ㅌ’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⑤ 발음, 축음과는 달리 장음은 일본어에서 1拍의 길이를 갖는 중요한 변별요소이므로 일본어 한글 표기에서도 그대로 모음을 한 字씩 더 쓰도록 한다.

○ 민광준, 조남덕(2002), **일본어 가나의 한글 표기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일본어학연구 5집, 한국일본어학회.

이 논문은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본의 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를 한글로 표기하기 위한 규칙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래어 표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외래어의 음을 현실 발음에 가깝게 표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표기에 있어서 음성학적 기준과

음운론적 기준의 혼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표기에 사용되는 문자의 대응관계에서는 하나의 가나에 대응하는 한글이 하나인 것이 가장 이상적인 표기임을 제시하였다. 기존 표기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일부를 수정하여 만든 개정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일본어 가나를 가타카나에서 히라가나로 바꾸었다. ② 일본어 가나의 출현환경을 구별하지 않았다. ③ 장모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하나의 가나에 하나의 한글을 대응시켜 표기하도록 하였다. ④ 일본어에서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유성 파열음, 유성 파찰음과 무성 파열음 및 무성 파찰음을 구별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 ⑤ ‘つ’의 자음을 ‘ㅈ’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⑥ ‘う’단음의 모음 표기를 ‘ㅜ’로 통일하였다. ⑦ ‘っ’의 표기 규칙을 <일본어의 가나와 한글 대조표>에 포함시켰다. ⑧ 요음의 표기를 통일하여 ‘じゃ, じゅ, じょ, ちゃ, ちゅ, ちょ’를 ‘자, 쥬, 죠, 차, 츠, 초’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⑨ 현대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가나 문자를 삭제하였다.

○ 김용각(2008), 일본어 한글표기의 문제점 고찰 및 개선안, - 발음교육의 측면에서, 일어일문학 39집, 대한일어일문학회.

이 연구에서는 일본어 가나문자의 한국어 표기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자는 일본어 가나문자의 한국어 표기의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발음교육과 관련짓고 있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연구방법으로 일본노래 가사를 한국어로 표기한 자료와 한국 대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일본어 가나의 발음을 한국어 표기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① 외래어 표기법 규정에 따른 일본어 가나의 한글 표기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출현환경에 따라 어두와 어중, 어말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 ② う단의 모음표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ɯ]를 적용하지만, 현실음에 있어서 [-]에 가까운 ‘す’, ‘つ’의 경우에는 모음을 [-]로 표기하였다. ③ 한국어 자음과 비교했을 때 일본어 자음의 큰 특징의 하나인 청음과 탁음 대립을 표기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원칙적으로 청음과 탁음의 대립이 존재하는 발음의 경우 청음은 격음(거센소리)으로 표기하고, 탁음은 평음(예사소리)로 표기하였다. ④ ‘ち’, ‘つ’의 자음 표기는 [ㅈ]로 통일하였다. ‘ち’, ‘つ’는 음성적으로 파찰음에 해당하지만, 파열음 표기의 된소리 불사용 원칙에 준하여 여기서도 [ㅈ]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⑤ じゃ행과 ちゃ행의 요음 표기에서는 [ㅈ][ㅊ][ㅌ]를 인정하지 않고 [ㅈ][ㅊ][ㅌ]로 표기하였다.

<중국어 표기 관련 연구>

○ 김진영(2002), 도서관 목록에서 중국어 문자 표기에 관한 연구, 부산대 문헌정보학 석사 논문.

- 문제 제기 : 중국어 표기에 대한 기준과 규정이 모호하여 개별 도서관에서 적용하는 중국어 표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중국어 표기에 많은 문제점이 포함. 사서는 보통

중국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음.

- 해결 방안 : 국가적으로 목록 규칙의 재정비, 종합목록 구축 및 품질향상, 재교육의 기회제공. 개별 도서관 측면에서는 통일된 표기, 이용자 및 사서의 재교육 참여. 다양한 문자 표기가 가능한 편목 시스템 개발 및 동일 용어에 대한 다양한 표기법을 연결해주는 전거시스템의 활용 제안.

○ 양세욱(2009), '다오위타이'와 '낙시터국빈관' 사이 - 중국어 고유명사 한글표기의 현황과 쟁점, 중국어문학논집 57호.

- 문제 제기 : 남북한 중국어 표기법의 현황과 문제점 비교하여 한국어의 언어 현실에 부합하고 가능하면 남북한 언어 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중국어 표기법의 원칙과 방향 모색. 한 문헌에서 한자음과 원음을 혼용하는 문제도 제기
- 해결 방안 : 한자음과 원음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일관성 있고 음절수가 맞으며 문화주권을 살릴 수 있으며 인지에 어려움이 없는 방식을 채택해야 할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는 원음과 한자음 표기의 과도기 상태이고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언중들에게 선택의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

○ 裴宰奭(2002), Cyber 상의 중국어 표기법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19호.

- 문제 제기 : 현재 표기법 방안이 온라인상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새로운 표기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해결 방안 : 성조에 따라 1,4성은 경음으로 2,3성은 연음으로 처리하며 조선 후기 정음 표기법에서 힌트를 얻어 각기 성모와 운모를 한국어에 대비시켜 컴퓨터 사용에 편리함을 도모하려고 하였다.

○ 김희성(2008), 한국어 滑音을 활용한 중국어 표기법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제 제기 : C-K시스템을 비롯한 한국의 중국어 표기법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장점을 취해 문제가 되는 중국어 자음에 대해 한국어 화자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될 표기법을 제안
- 해결 방안 : 현행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모음-j-를 통해 설첨전음과 설첨후음을 구분하고 f-는 -w-를 붙여 한국인이 사용하기에 쉽고 체계적인 방법 제시하였다. 부록으로 역대 주요 표기법과 용례 적용법을 정리했는데 매우 체계적이고 잘 정리되어 있어 참고할 만하다.

○ 맹주억(2009), 중국어 한글 표기의 원칙과 방안, 중국어문학연구회 발표 논문.

- 문제 제기 : 중국어의 한글표기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문제와 고유명사와 일반명사가 섞여있는

경우 한글표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 해결 방안 : 규정상 한글 표기 대상이 고유명사 위주이나 체계적 범위 확정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에 대해 문제를 제시했으나 해결방안 없이 문제 제시에 그치고 있다. 해결 방안 대신 잠정적으로 최초로 출현하는 고유명사는 한자음을 쓰고 그 뒤 괄호 안에 원지음을 표기하며 두 번째 이후로 출현하는 것은 한자음을 표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예: 북경(베이징)) 그리고 음성적 유사성을 근거로 표기방안을 제시하였다.

○ 신경진(2009), 한국 언론의 한자어, 중국어 표기의 변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사례, 중국어문학연구회 발표 논문.

- 문제 제기 : 한국의 중국어 표기법의 발생과 역사를 설명하고 이에 따라 어떻게 두 신문에서 중국어 표기법을 적용하여 왔는지에 대해 분석
- 해결 방안 : 언어는 필연적이 아니라 언중에 의해 임의로 정한다는 자의성을 가지고 있다. 한자음과 원음, 원음이라면 원음 중 어떤 표기법으로 쓰인 것에 더욱 익숙하나에 따라 독자들의 가독성에 영향을 미친다. 원음주의 표기법은 한글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어를 외국어로 객체화를 시도한 것으로 주체적인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양동숙(2009), 중국어 속의 한국, 한국인, 중국어문학연구회.

- 문제 제기 : 한국에서 중국어 원음 표기에 있어 한국과 중국 간의 언어적 형평성 문제
- 해결 방안 : 한국어 속에서 중국 지명, 인명은 한국음으로 읽되 한자와 원음을 넣어줄 것. 그렇지 않으면 중국어 속에서 한국 원음을 살려야 함을 건의

○ 김태성(2001), 중국어 한글표기법에 관하여, 한국중어중문학회 27집.

- 문제 제기 : 어떻게 하면 한글 자모를 이용하여 중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어 한글 표기 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함
 - 1) /b//d//g/표기에 있어 경음을 사용할 것인가?
 - 2) /f/와/p/, /r/과/l/의 표기에 있어 한글 자모의 중복 문제 발생
 - 3) 영성모의 음절 축약 형태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 4) 단모음 /o/와 /ü/의 표기 형태는?
 - 5) 중국어 복모음의 한글 표기 음절의 수는 어떻게 대응시킬 것인가
 - 6) 복모음 /ao//uo//ou/의 음가 표기 문제
 - 7) 영성모만 있는 모음 표기에 일관성 없음. [er]은[얼]로, [-ueng]은[경]으로 표기함
 - 8) 四呼 문제 존재, [wen]은 [원], [-uen]은 [운]/[yong]은 [용], [-iong]은 [이옹]으로 표기
- 해결 방안 : 중국어 표기법은 한글 사용의 연장이 되어야 함

- 1) ‘한글 자모식 외국어 표기 방안’ 제정할 것: 한글 자모를 이용하여 몇몇 주요 외국어를 모두 표기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어야 함.
- 2) 원음표기의 정확도는 떨어지더라도 널리 쓰일 수 있고, 한글자모의 형태나 수, 체계 등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외국어 표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교육시켜야 함
- 3) 중국어 성모 표기 시 경음과 연음을 구분하여 표기할 것
- 4) 중국어 설면음과 설첨전·후음은 /ㄗ//ㅈ//ㅅ/으로 표기하고, 성조적 차이에 의해 경음과 연음을 사용하여 구분할 것
- 5) 중국어의 복모음은 이음절로 표기한다. 家:지아, 教:쟈오, 高:까오
- 6) 필요한 경우 성조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하며, 한어병음방안의 성조 표기를 활용한다.

○ 김영만(2003), 중국어 한글표기법 현황과 개선방안, 중국어문논총 25집.

- 문제 제기 : 국어 속에서 외래어나 외국어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한국어문 사용면에서 얼마나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함. 외래어 표기법은 국가적 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함

- 해결 방안

◦ 중국 지명이나 인명 표기 시 ‘중국어 한글 표기법 필요성 역설하고 그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1) 주음부호 체계에 의거할 것
- 2) 음소표기를 기준으로 삼되, 뚜렷한 음성적 차이 표기할 것
- 3) 중국어의 복운모를 포함한 음절은 이음절로 표기할 것
- 4) 현행 한글 자모만 사용할 것

◦ 중국의 한자 지명(특히 한국어에 익숙한 지명)은 한국 한자음으로 표기해도 무방하다.

◦ 중국어 단어 한글로 표기 시 한국 한자음과의 혼돈을 피하기 위한 세 가지 전사 방식 제시

- 1) 한국한자음을 쓰고 소괄호에 한자 적기: 주은래(周恩來)
- 2) 중국어발음으로 쓰고 대괄호에 한자 적기: 덩샤오핑[鄧小平]
- 3) 한국한자음을 쓰고 소괄호에 한자와 중국어발음 적기: 연변(涎邊 연벤)

○ 장호득(2003), 중국어 한글표기법의 원칙과 한계, 중국어문논역총간 11집.

- 문제 제기

◦ 중국어의 한글표기법은 통일되어야 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기본 원칙을 정해야 함

- 범국가적인 통일안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간략표기법’과 전공분야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정밀표기법’을 만들어야 함
- 중국어의 두 개 이상의 음소를 하나의 한글 자모로 표기해야 하는 한계 존재
- 중국어 음성요소 가운데 성조가 갖는 의미 변별 기능이 가장 크나 한글표기법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음
- 중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표기법과 실제 음소체계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고, 현행 중국어 표기법을 참고로 현행 한글로 전사해야 함
- 중국어 전사 시 한국어의 음성인식 내지 청각적 인상으로 중국어의 음소체계를 판단해서는 안 됨

- 해결 방안

- 1) 성조에 따른 음성의 차이는 음소의 차이가 아닌 변이음이므로, 여러 변이음에 맞추어 한글로 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b]는 [ㅂ]으로만, [d]는 [ㄷ]으로만 표기해야 함
- 2) [f]는 음성적 유사성에 따라 [ㅍ]으로 표기해야 함
- 3) [d][t]는 [ㄷ][ㅌ]으로, [l][r]은 [ㄹ]로 표기해야 함
- 4) [j][q][x][zh][ch][sh][z][c][s]는 현행 한글 자모만으로는 변별하여 표기하기 어려움. 따라서 [ㅈ][ㅊ][ㅍ]으로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 원어를 병기할 것
- 5) 중국어 단운모는 [아][오][어][에][이][우][위]로 표기
- 6) 복모음을 2음절이상의 한국어로 표기 시 빨리 붙여 읽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함 ‘~’ 기호 사용
- 7) [ao]의 /o/는 /u/에 접근하는 음이므로 [아우]로 표기해야 함
- 8) [ou]는 [오우]로 표기해야 함
- 9) 후향복모음은 1음절로 전사해야 함 [uan]은 [완]으로, [ian]은 [앤]으로 표기할 것
- 10) [-ueng][-ong]는 [웅]으로 표기/ [-iong]은 [용]으로 표기할 것

◦ 한글표기법의 한계 극복을 위한 보완책

- 1) 한글표기법 뒤에 중국어(원어) 병기할 것
- 2) 중국어 운모가 2음절 이상의 한글로 표기될 때에는 빨리 연결해서 발음해야 함
- 3) 정밀표기법에서는 반드시 성조 표기를 해야 함

○ 도혜숙 외(2007), 중국어 한글 표기법 개선안, 중국학보 55집.

- 문제 제기

- 중국어 한글 표기법의 통일성 결여로 인해, 일반대중들의 혼란 가중. 더욱 효율적인 표기형식 제시하고자 함
- 음소 귀납원칙을 활용하되, 음성적 유사성을 제1원칙으로, 실용성, 변별성, 체계성 등의 4가지 요소를 전사원칙과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중국어 한글표기법’ 개선안 제시

- 해결 방안

- 개선안 표기 세칙
 - 1) 중국어의 한 음절은 한국어로 2음절이 넘지 않도록 한다.
 - 2) 중국어 음절과 한국어 표기법의 1대1 대응을 원칙으로 하여, 중국어의 개별 음절이 한국어에서 동일한 표기법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 3) 음소 귀납원칙은 음성적 유사성을 우선으로 하며, 대립 및 상보적 분포도 고려한다.
 - 4) 한국어의 硬音과 軟音을 구분한다. 즉, [b·d·g·x]는 1/4성은 경음으로, 2/3성은 연음으로 표기함([j·zh]는 [ㅈ]으로, [z]는 [ㅉ]으로 표기함)
 - 5) [ch·zh·sh]는 음성적 유사성에 따라 [ㄱ·ㅋ·교·ㅍ]등의 복모음으로 표기한다. (1대1대응 원칙에 따라 [chi]는 [츠으]로, [ci]는 [츠]로 표기한다)
 - [r·l]은 한국어 자음체계에서 [ㄹ]로 전사되므로, 모음을 이용하여 구분해야 함. [lan]은 [란], [ran]은 [란]으로, [le]는 [러]로, [re]는 [러]로 표기
 - [f·p]는 [ㅍ]으로 전사되므로, 모음체계를 이용해 구분할 것 [fa]는 [파], [pa]는 [파]로, [feng]은 [펑], [peng]은 [펑]으로

○ 강혜근(2008), 중국어 한글표기법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와 표기 방안, 중국어문학논집 50집.

- 문제 제기

-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데에는 모순이 존재하므로, 원음보다는 체계성, 변별성, 간결성, 편의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합리적임
- 목적에 따라 중국어 한글표기법을 제정해야함(중국어 학습을 돕기 위한 것인지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것인지)
- 한글 표기와 그 실제 발음 및 한국인이 구분할 수 없는 발음 등을 고려하여 표기법을 만들어야 함
-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문제점 존재
 - 1)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을 사용한다: 실제 24자모 이상의 것들(ㄱ·ㄷ·ㅈ·ㅊ·ㅋ·ㆁ·ㅇ·ㅅ·ㅆ·ㅌ·ㄴ·ㄹ·ㄷ·ㄹ·ㄷ·ㄹ·ㄷ·ㄹ 등 16개)이 사용되고 있음
 - 2)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실제 수많은 예외 사항이 존재(t:ㅌ·ㅍ·ㅍ·ㅍ)

- 3) 제4항 과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원음과의 관련성을 포기한 것
- 4) 외래어 표기법과 일치하지 않는 잘못된 관용표현들이 다수 존재함(배갈/우롱차/자장면/쿵푸/깡뽕기 등등)

- 해결 방안

◦ 이견이 많은 중국어 한글 표기

- 1) 된소리는 한국어의 기본적인 음운이므로, 중국어 표기 시 ㄱ·ㄷ·ㅂ·ㅅ·ㅈ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옳음
- 2) /o/에 대한 표기법이 /오//어//우/세 가지로 나뉘어 불편함이 있으니, /오/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uo/는 예외로 /워/로 처리할 것)
- 3) /jian/·/qian/·/xian/과 /juan/·/quan/·/xuan/의 운모 표기가 통일되어야 함 따라서 /지엔//치엔//시엔/과/취엔//취엔//취엔/으로 통일하여 표기할 것
- 4) 설면음은 자(jia)·차(qia)·샤(xia)·자오(jiao)·차오(qiao)·샤오(xiao)로, 설첨전·후음은 자(zha/za)·차(cha/ca)·샤 sha/sa)·자오(zhao/zao)·차오(chao/cao)·샤오(shap/sao)로 표기해야 시각적 변별력이 생김
- 5) /자음+ㄷ/가 /자음+ㄷ/로 읽히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텐→/티엔/, 벤→/비엔/, 렌→/리엔/ 등으로 표기해야 함
- 6) /e/를 /어/나 /에/로 표기하고, /i+a+n/의 /a/는 /애/로 표기하는 것은 혼란을 유발시키므로, /위엔/→/위엔/으로, /- | 엔/→/- | 엔/으로 통일하여 표기해야 함
- 7) 운모 /ong/을 개구호에 포함시켜, /용/으로 표기해야 함
- 8) 운모 /iong/을 제치호에 포함시켜, /용/으로 표기해야 함
- 9) 중국어의 복모음을 한국어의 단모음으로 표기한다. /niang/→/냥/, /shuang/→/쌍/, /guan/→/관/

○ 김태성(2008), 중국어 한글표기 : 혼돈에서 질서로, 중국인문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문제 제기

- 중국의 인명 및 지명 등이 우리식 한자음으로 읽혀오다, 원음표기를 하면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중국어 원음 표기는 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표기인가? 고려되어야 함
- 중국어 한글 표기 시, 한글사용상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필요함

- 해결 방안

- 중국음과 한국 한자음 간의 처리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중국어 한글 표기는 중국인을 위한 것이 아닌 한국 내부의 문제이므로, 중국인을 고려할 필요 없음
- 대중이 따를 하나의 표준을 적용해야 하며, 한자음뿐만 아니라, 중국음도 함께 알아야 함

○ 엄익상(1996), 중국어 한글 표기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중국언어연구 4집.

- 문제 제기

- 한·중·일 삼국은 모두 한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발음이 다름, 한국 인명을 한자로 적을 시 중국 인명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중국 고유명사는 중국음을 한글로 적어야 함
- 중국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데 원칙이 필요함
- 중국어 한글 표기법이 발표된 지 십 수 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 표기법(최-김 표기법/정부 교육부 표기법)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보완된 표기법을 제정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함

- 해결 방안

◦ 표기법 제정 시 준수 사항

- 1) 일 음소 일 기호 원칙 탈피하되, 최대한 변별력을 유지할 것
- 2) 음성학적 분석에 근거하여 최대한 현실음에 가깝게 표기할 것
- 3) 중국어 일 음절을 일이 음절로 표기하여 최대한 간결성을 유지할 것

◦ 자음 표기법

- 1) /b//d//g/는 경음(된소리)으로 표기한다. 단, 경성일 경우에 /ㅃ//ㄸ//ㄱ/로 변하는 것을 부칙으로 추가할 것
- 2) 설면음(/j//q//x/)과 설첨전·후음(/z//c//s//zh//ch//sh/)은 결합하는 모음으로 구분이 가능함
- 3) 설첨전음과 후음은 인쇄체로 구분한다. /chong/→/충/, /cong/→/충/
- 4) /f/와/p/, /r/과/l/도 인쇄체로 구분한다. /fang/→/팡/, /pang/→/팡/, /rang/→/랑/, /lang/→/랑/

◦ 모음 표기

- 1) /o/는 /ㅏ/로 표기 함 /ou/→/ㅏ우/
- 2) /ao/와 /ong/은 실제음에 따라 /ㅏ우/와/ㅇ/으로 표기
- 3) /-iou/→/ㅛ우/로 표기한다.
- 4) /ian/→/ㅣ앤/으로 표기한다.
- 5) /-ie/→/ㅣ애/로 표기한다.
- 6) /iao/→/ㅣㅑ우/로 표기한다.
- 7) /uan/→/ㅓ안/ 이음절로 표기한다.

8) /üan/→/위앤/으로, /üe/→/위애/로 표기한다.

○ 엄익상(2002), 중국어 한글 표기법의 원칙과 한계, 중어중문학 31집.

- 문제 제기

- 중국어 인명과 지명을 한자음으로 읽는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음
- 외국어 한글 표기의 목적은 발음 교육보다는 원음 존중 원칙 준수와 완전한 한글 쓰기에 있음
- 표기법의 난립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공식적인 수정안 마련을 위해, 기존 표기법에 대한 문제점이 자꾸 지적되어야 함

- 해결 방안

- 엄익상(1996)의 표기법 개선 안의 세 가지 원칙 가운데 두 번째 원칙(음성학적 분석에 근거 최대한 실제 음에 가깝게 표기)을 폐기하고, “편의성 및 보급성 제고를 위하여 한어병음 표기를 존중한다.”는 원칙 제정

◦ 표기법 수정 사항

1) 1996: /ao·/ong/→/ㅏ우·/ong/

2002: /ao·/ong/→/ㅏ오·/ong/

2) 1996: /iao·/iong/→/ㅑ우·/iong/

2002: /iao·/iong/→/ㅑ오·/iong/

3) 1996: /-ie/→/ㅣ애/

2002: /-ie/→/ㅣ예/

4) 1996: /üe/→/기애/

2002: /üe/→/기에/

(영성모일 땀 /계/로 표기)

5) 1996: /üan/→/위앤/

2002: 위와 동일

6) 1996: /uei/→/게이/

2002: /uei/→/ㄱ이/

(영성모인 경우 /웨이/)

◦ 기타 부칙

1) 1996안에서 /b//d//g/는 경성일 경우에 /ㅃ//ㄸ//ㄱ/로 표기한다는 규칙 삭제

2) 산, 강, 호수, 섬 등은 중국 음 전체를 한글로 표기 후 산, 강, 호수, 섬 을 부가한다. (長江 창지양 강)

◦ 최-김 표기법과의 차이점

1) 성모 [f] 표기법이 다름

2) 성모가 [ch][r]인 경우 최-김안은 삼음절로 표기, 엄익상안은 이음절로 표기

3) 운모[o][ou][ian][uo][uei]표기법이 다름

○ 엄익상(2009), 중국어 외래어 표기법 발음 괴리의 문제, 중국어문학논집 54집.

- 문제 제기

◦ 중국의 인명과 지명을 원지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급속히 보급되어, 잘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

◦ 한자음표기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임

◦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한 이유는 중국어 발음을 정확히 한글로 표음하기 위한 것이 아님. 그러나 중국어 음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이 이상적

◦ 중국어 한글표기법의 정부안은 공신력을 지녀 언론매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1) 비현실적인 발음표기, 2)중국어 교육과 학습의 역기능, 3)불분명한 원칙과 세칙 등의 문제점이 있음

◦ 기존 표기법의 체계성은 유지하면서 현실음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하고자 함

- 해결 방안

◦ 수정안

1) 정부안: /b//d//g/→/ㅂ//ㄷ//ㄱ/

엄익상: /b//d//g/→/ㅃ//ㄸ//ㄲ/

2) 정부안: /ong/→/ㅇ/

엄익상: /ong/→/ㅇ/

3) 정부안: /uo/→/겨/

최-김안: /uo/→/우어/

엄익상: /uo/→/ㄷ오/

4) 정부안: /ou/→/어우/

최-김안: /ou/→/어우/

엄익상: /ou/→/오우/

5) 정부안: /ian/→/ㄱ엔/

최-김안: /ian/→/ㅣ엔/

엄익상: /ian/→/ㅣ엔/

6) 정부안: /iao/→/ㅈ오/

최-김안: /iao/→/ㅈ오/

엄익상: /iao/→/ㅈ오/

(/o/ 음가는 일관적으로 /ㅏ/로 표기해야 함)

○ 엄익상(2009), 중국어 외래어를 원지음으로 표기해야 하는 이유, 중국어문학논집 56집.

- 문제 제기

◦ 중국의 인명과 지명을 한자음으로 표기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지음으로 표기해야 한다.

- 해결 방안

◦ 중국어 원지음표기는 한국어 글쓰기의 일관성 유지와 문자로서의 한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함

◦ 표기법에 대한 다양한 견해의 난립은 혼란만을 초래하므로, 통일안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이 시급함

1.2. 연구 개요

1.2.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세부 연구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첫째, 국민의 외래어 표기 규범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외래어 표기 규정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 및 외래어 표기 용례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에서는 '86년 고시 7개 언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대상으로 하였으며, 위 7개 언어의 주요 표기 용례에 대한 일반인, 전문인의 인지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역대 용례 중 실제 다수 쓰임이 규범 표기와 다른 것을 추출하여 포함하였다.

둘째, 국민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 표기가 어떠한 형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산업, 학술, 출판 영역을 대상으로 산업 영역에서는 산업 관련 표기를, 학술 영역에서는 1990년 이후에 출간된 도서에 실린 표기를 출판 영역에서는 여행 안내 책자에 실린 표기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주요 국가의 외래어 표기 규범 비교 조사를 진행하여 한국어의 외래어 표기 규범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반으로 삼고자 하였다. 위의 7개국에 북한을 더하여 8개국의 외래어 표기 규범 관리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표기 규범 운용의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1.2.2. 연구 추진 경위

‘외래어 표기 규범 영향 평가’ 사업의 계획 수립에서 최종 보고서 제출까지의 추진 일정과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사업 수행 기간: 2010년 7월 01일 ~ 2010년 12월 29일(6개월)

- 7월 1일~7월 15일 : 1단계 기초 연구 진행
 - ①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한 시사점 도출 및 분석 틀 검토
 - ② 언어권별 외래어 표기법의 역사 정리
 - ③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 개념 정립
- 7월 16일 : 착수 보고회
- 7월 16일 : 1차 전문가 협의회 진행
- 7월 17일 : 연구 1차 작업 지침 배포
- 7월 17일~8월 18일 :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 유형화
설문 문항 구성을 위한 용례 1차 선정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 8월 19일 : 2차 전문가 협의회 진행
- 8월 19일 : 연구 2차 작업 지침 배포
- 8월 19일~9월 13일 : 외래어 표기 규정과 용례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 설문 조사 내용 구성
산업, 학술, 출판 분야별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 9월 16일 : 중간 보고 및 자문 위원 회의
- 9월 17일~9월 30일 : 설문 조사 내용과 방법에 자문위원 회의 내용 반영
- 10월 1일~10월 12일 : 전문인용, 일반인용 설문지 내용 검토 및 보완
- 10월 13일 : 외래어 표기 규범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 조사 설문지 완성
- 10월 14일~11월 3일 : 외래어 표기 규범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 설문 조사 실시
- 11월 4일~11월 8일 : 설문 결과 통계 작업 완료
- 11월 8일~11월 10일 : 각 언어권별로 설문 결과 분석
- 11월 11일 : 3차 전문가 협의회 진행
- 11월 12일~11월 30일 : 설문 결과 분석 및 집필
- 12월 3일 : 한국어언어학회에서 설문 결과에 대한 분석 내용 발표
- 12월 4일~12월 16일 : 최종 보고서 작성 및 검토
- 12월 17일 : 최종 보고회
- 12월 18일~12월 23일 : 외래어 표기 규범 설문 조사 분석 내용 최종 검토
외래어 표기 실태 및 주요 국가의 외래어 표기 규범 최종 검토
최종 검토 및 보고서 작성·제출

○ 연구진

1. 연구 책임자 : 구본관(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2. 공동 연구원 : 박한상(홍익대 영어교육과 교수)
이진희(영산대 유럽지역통상학과/유럽학과/학부대학 교수)
박동열(서울대 불어교육과 교수)
이만기(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조문환(한국외대 이탈리아 통번역학과 교수)
민광준(건국대 일어교육과 교수)
손남호(인천대 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오현아(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연구원)
3. 보조 연구원 : 권지영(홍익대 영어교육과 석사 과정)
이미옥(서울 상암중학교 교사)
김요한(한국외대 독어독문학과 강사)
박미진(부산대 독어독문학과 석사 과정)
박혜숙(서울대 불어교육과 박사 과정)

김소정(서울대 불어교육과 석사 과정)
 노은정(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박사 과정)
 송아람(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석사 과정)
 강순행(한국외대 이탈리아어과 강사)
 엄현석(한국외대 이탈리아어과 석사 과정)
 고은숙(건국대 일어교육과 강사)
 이호수(건국대 일본문화언어학과 석사 과정)
 이지영(연세대 중어중문학과 박사 과정)
 박선영(이화여대 중어중문학과 석사 과정)
 조진수(서울과학고등학교 교사)

○ 연구 추진 내용

1.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목록 선정 기준과 과정

(1) 대상 목록 1차 선정

착수보고회를 통해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영역은 산업, 학술, 출판의 세 영역으로 좁혀졌으며, 본격적인 진행 이전에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차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2) 2차 확정 과정

2차 전문가 회의였던 8월 19일에 산업 분야의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진행 과정에서의 논의 사항을 중심으로, 기업 분야는 2010년 7월~10월에 한정, 학술 분야는 1990년 이후 출간 도서로 한정, 출판 분야는 여행 안내 책자로 한정하여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2. 외래어 표기 규정과 용례에 대한 설문 조사 규정과 용례 선정 기준과 과정

(1) 일반인과 전문인의 구분

일반인과 전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설문 조사의 특성상, 일반인과 전문인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선행 과제로 떠올랐다. 1차 구분에서는 전문인은 해당 외국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춘 전문인으로 구분하고, 일반인과 차별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외래어 표기 규범이 국어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이때의 전문인은 국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아나운서(국어 어문 규정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 아나운서로 한정), 기자(교열, 편집 기자 중심), 교사(국어 교사에 한정), 출판업 종사자(교열, 편집부 직원으로 한정)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2) 규정과 용례 선정 기준과 제시 방법

개별 언어권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규정과 용례를 중심으로 일반인에게는 용례만을, 전문인에게
는 규정과 용례를 함께 묻는 방식을 취하였다.

3. 주요 외국의 외래어 표기 규범 비교 조사 과정

해당 외국의 외래어 표기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상황에 대해 기술하고 관용적으로
기준의 역할을 하는 사전이나 출판사의 외래어 표기 기준을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어의 외래
어 표기 규범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만한 참고사항을 추출하여 기술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1.2.3. 연구 방법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는 기업, 학술, 출판 분야의 세 분야에서 실제 외래어 표기를 추출하여
규정에 맞는 표기와 그렇지 못한 표기로 유형화하여 질적 방법에 의한 유형화와 기술 방법을 진행
하였고, 외래어 표기 규정과 용례에 대한 설문 조사는 양적 연구 방법으로 일반인의 경우 지역, 성
별, 연령 할당 표본 추출 방법으로, 전문가는 임의 할당 표본 추출 방법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
다. 그리고 외래어 표기 규범 비교 조사는 문헌 조사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1.3.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에 대하여

1.3.1.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개발 틀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는 엑셀에서 언어권별로 ‘분야’에 ‘기업(1), 학술(2), 출판(3)’으로 코딩하고, ‘외래어’에 ‘영어(1), 독일어(2), 프랑스어(3), 에스파냐어(4), 이탈리아어(5), 중국어(6), 일본어(7)’로 코딩하고, 대상 어휘, 자체 한글 표기, 현행 규정 표기, 일치 여부 순으로 코딩하였다. ‘일치여부’에서 ‘일치(1), 불일치(2)’로 코딩하였는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분야	외래어	대상 어휘	자체 한글 표기	현행 표기법에 따른 표기	일치여부
1	5	ALITALIA(항공)	알이탈리아	알이탈리아	1

[표 1]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코딩 예시

1.3.2.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진행 과정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영역은 기업, 학술, 출판의 세 영역으로 좁혀졌으며, 본격적인 진행 이전에 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1차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2차 전문가 회의였던 8월 19일에 기업 분야의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진행 과정에서의 논의 사항을 중심으로, 기업 분야는 2010년 7월 ~10월에 한정, 학술 분야는 1990년 이후 출간 도서로 한정, 출판 분야는 여행 안내 책자로 한정하여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자세한 언어권별 외래어 표기 실태 대상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대상 목록

영어	기업	한국휴렛팩커드: http://www8.hp.com/kr/ko/home.html 삼성전자: http://www.samsung.com/sec/
	학술	나종일, 송규범(2005), 『영국의 역사 (상)』, 한울아카데미 나종일, 송규범(2005), 『영국의 역사 (하)』, 한울아카데미
	출판	손주연(2009), 『런던을 거닐다』, 리스컴
독일어	기업	www.adidas.com www.aegkorea.com www.agfa.co.kr

	<p> www.allianzlife.co.kr www.audikorea.com www.basf-sea.com.sg www.bayer.com www.bookscan.co.kr www.bmw.co.kr www.boehringer-ingelheim.co.kr www.bosch.co.kr www.clariant.com www.commerzbank.com www.daimlerchrysler.co.kr www.de-consult.de www.degussa.de www.deutsche-bank.de www.dhl.co.kr www.fresenius-kabi.co.kr www.guhring.co.kr www.aventis.co.kr www.henkelkorea.co.kr www.kefico.co.kr www.kn-portal.com www.lufthansa-korea.com www.hansung.co.kr www.mantruck.co.kr www.merck.de www.osram.co.kr www.otto.co.kr www.porsche-korea.com www.sap.co.kr www.schott.com/korea/korean www.siemens.co.kr www.tuv.or.kr www.tuv-korea.com www.dongyang-elevator.com www.vwkorea.com www.weidmuller.co.kr www.wella.co.kr </p>
학술	<p> 서울대 독일학연구소 편저(2000), 『독일이야기 1』, 서울:기획출판 거름 서울대 독일학연구소 편저(2000), 『독일이야기 2』, 서울:기획출판 거름 </p>

		유시민(1998), 『유시민과 함께 읽는 유럽문화 이야기』, 서울: 푸른나무
	출판	No.1유럽, 투어닷컴코리아출판사업부, 2007 유럽아이, 꼭사요, 2004 (여행천하)유럽, 엘 까미노, 2000 (안녕.)유럽, 하나박스: 하나티앤미디어, 2009 유럽, 안그래픽스, 2008 (유럽 겁없이 떠나자)유럽아이, 타임투어, 2007 (이지)유럽, 트래블박스 블루, 2009 (코스따라 세계여행)유럽, 민서출판사, 2000
프랑스 어	기업	http://www.fkcci.com/ko.html http://www.airfrance.co.kr http://www.renaultsamsung.com/main/index.jsp http://www.bureauveritas.co.kr/wps/wcm/connect/bv_cokr/Local http://www.clestra.com/ko/contents.html http://www2.somfy.com/kr/index.cfm http://www.dpj-partners.com/dpj_kor/home/htm/home.htm http://www.parafe.co.kr/ http://www.lafargehalla.com/ http://www.cardif.co.kr/index.jsp http://www.bnpparibas.co.kr/kr/home/default.asp http://www.sgcib.co.kr/kr-kr/about_us/ACCEB783D370085301C1175A3BEEA6C5 http://www.sanofi-aventis.co.kr/live/kr/ko/index.jsp http://guerbet.co.kr/index.php?id=4335 http://www.samsungtotal.com/KR/main03.aspx http://www.asiance.com/kr/ http://www.saramin.co.kr/zf_user/recruit/companyInfoView/idx/3160594 http://www.biomerieux.com/servlet/srt/bio/portail/home http://www.lobel.co.kr/new/index.asp http://www.saramin.co.kr/zf_user/recruit/company-info-view/idx/4279152 http://www.clasquin.com/home.html http://www.lacoste.co.kr/ http://www.ipsoskorea.com/kr/kr_index.asp http://www.cordonbleu.edu/index.cfm?fa=FrontEndMod.CampusHomePage&SetCampusID=4 http://www.cofacerating.com/kr/home/group.html http://www.libra-conseils.com/index.php http://www.valtech.co.kr/ http://kr.bluebellgroup.com/ http://www.loreal.co.kr/_ko/_kr/index.aspx

		https://novotel.ambatel.com/FrontSite/novotel/gangnam/Default.aspx/english/index.php/ www.hermes.com www.loccitane.co.kr www.avene.co.kr www.uriage.co.kr www.mustelakorea.co.kr www.chanel.com www.laredoute.co.kr
	학술	라정기 편저(1994), 『프랑스 요리 기초 이론』, 서울:백산출판사
	출판	박성아, 곽정란(2003), 『프랑스』, 삼성출판사 홍연주, 홍수연(2009), 『PARIS 100배 즐기기』, 랜덤하우스코리아(주)
에스파 냐어	기업	아망떼- http://www.starterrace.net/ 아미고 - 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id=508436&news_area=110&news_divide=&news_local=20&effect=4 아미가 - http://www.imperialpalace.co.kr/restaurants/cafe.asp 바나맥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0418069 방코 산탄데르 -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00817000454 보데가 - http://www.bodega.co.kr/ 까르네 스테이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0430449 카사 블랑카 - http://www.casapension.kr/ 까사 로까 - http://www.casaloca.co.kr/ 까사 미아 - http://www.casamia.co.kr/ 까사 로사 - http://map.naver.com/local/company_view.nhn?code=13525449 츄파춥스 -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894262 엘 아모르 - http://map.naver.com/local/company_view.nhn?code=200684314 엘 꼬르떼 잉글레스 -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189 엘 문도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3342945

	<p> 엘 파이스 - http://100.naver.com/100.nhn?docid=794658 인터불고 - http://hotel.inter-burgo.com/ 리브로 - http://www.libro.co.kr/ 망고 -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070000&newsId=20100903000262 미엘 - http://www.miel.kr/ 프라자 -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53348 토다 코스 - http://www.todacosa.co.kr/ 베라노 - http://www.verano.kr 자라 - http://news.jkn.co.kr/article/news/20101004/5843610.htm 아반떼 - http://avante.hyundai.com 씨에로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4&aid=0000102730 다마스 - http://auto.naver.com/car/lineup.nhn?yearsId=12817 에스페로 - http://auto.naver.com/car/lineup.nhn?yearsId=13644 마티즈 - http://idc.gmdaewoo.co.kr/gmmcc/Matiz_Creative_BrandPage.jsp?carID=matiz_creative&contentsID=brandpage 리오 - http://auto.naver.com/car/lineup.nhn?yearsId=13021 산타 페 - http://auto.naver.com/car/lineup.nhn?yearsId=13834 티뷰론 - http://auto.naver.com/car/lineup.nhn?yearsId=13613 베라크루즈 - http://www.hyundai.com/kr/ShowRoom/ShowRoom.aspx?code=Veracruz&types=01 부에노 - http://www.buenocom.co.kr/ 코로나 -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3&docId=7460 디오스 - http://dios.lge.co.kr/ 에스테반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242539 후투로 - http://www.fnn.co.kr/content.asp?aid=22fb453c95604405a8f94d9a442b48c9 산 미구엘 - http://www.sanmi.co.kr/ 테킬라(데킬라) -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20000&newsId=20100608000212 트리벤토 -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1150232 부리토 - http://100.naver.com/100.nhn?docid=781954 엠파나다 - http://100.naver.com/100.nhn?docid=794466 </p>
--	--

		<p>가스파초 - http://100.naver.com/100.nhn?docid=794443</p> <p>하몽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81610153050715</p> <p>나초 -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1002675</p> <p>파에야(빠에야) - http://100.naver.com/100.nhn?docid=794442</p> <p>퀘사딜라, 퀘사디아 - http://weekly.hankooki.com/lpage/goodlife/201009/wk20100916112615105010.htm</p> <p>타코 - http://100.naver.com/100.nhn?docid=794114</p> <p>타파스 - http://www.naeil.com/news/Local_ViewNews_n.asp?bulyooid=5&nnum=549070</p>
	학술	<p>김상근(2009), 『엘 그레고』,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p> <p>김현창(1994), 『중남미 문학사』, 서울: 민음사</p> <p>민용태(2007), 『로르카에서 네루다까지』, 서울: 창작과비평사</p> <p>안영옥(1998),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서울: 예니</p> <p>애덤 펜스타인 저, 김현균 외 역(2005), 『빠블로 네루다』, 서울: 생각의 나무</p> <p>앤터니 비버, 김원중 역(2009), 『스페인 내전』, 서울: 교양인</p> <p>이강혁(2003), 『스페인역사 100장면』, 서울: 가람기획</p> <p>이성형(2001), 『배를 타고 아바나를 떠날 때』, 서울: 창작과비평사</p> <p>조돈문(2005),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정치경제학』, 서울: 오름</p> <p>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민용태 역(2008), 『로르카 시 선집』, 서울: 을유문화사</p>
	출판	<p>강원택(2004), 『내 딸들을 위한 여성사』, 서울: 푸른역사</p> <p>김문정(2009), 『스페인은 맛있다』, 서울: 예담</p> <p>김지영(2007), 『멈추지 않는 유혹, 스페인』, 서울: 넥서스BOOKS</p> <p>두근두근세계여행 편집부(2010), 『스페인』, 서울: 중앙북스</p> <p>대니얼 버트, 김지원 역(2000), 『호모 리테라리우스』, 서울: 세종서적</p> <p>윤진성 외(2008), 『멕시코 여행』, 서울: 나무도시</p> <p>전혜진(2008), 『핵심 중남미 100배 즐기기』,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p> <p>최명호(2008), 『플라멩코』, 서울: 살림</p> <p>카잔차키스, 송병선 역(2008), 『스페인 기행』, 서울: 열린책들</p> <p>KOTRA(2007), 『이 책 들고 해외출장 가자』, 서울: 넥서스BOOKS</p>
이탈리아어	기업	<p>http://www.ice.gov.it/paesiasia/coreadelsud/index.htm</p> <p>http://www.ice.gov.it/paesiasia/coreadelsud/upload/162/presenzasitoweb-%202010.pdf</p>
	학술	이탈리아어문학(2008), 한국이탈리아어학회 제24집 1권

		이탈리아어문학(2008), 한국이탈리아어문학회 제25집 1권 이탈리아어문학과 인생(2009), 한형곤교수 정년 퇴임 기념 논문집 이탈리아어문학과 사회(2009), 이성훈교수 정년 퇴임 기념 논문집
	출판	김미진(2002), 『로마에서 길을 잃다』, 해냄출판사 장열곤, 권혜숙(2003), 『문학과 음악과 미술이 있는 유럽 테마 여행』, 서울 문화사
일본어	기업	http://www.naver.com http://www.goo.ne.jp http://www.bridgestone.co.jp http://www.mazda.co.jp http://www.yokohamatire.jp http://www.mitsuoka-motor.com http://www.subaru.jp http://www.daihatsu.co.jp http://www.bobaedream.co.kr http://cafe.naver.com/realdsl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234 http://www.monitor4u.co.kr/NewProduct/content.asp?idx=3371&M_Code=02&S_Code=02&LeftCode=27&page=&List_Kind http://www.cosmeinjapan.com http://blog.naver.com/sonyongbum?Redirect=Log&logNo=70092348750 http://cafe.naver.com/myrestaurant.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482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9&docId=34252738&q_b=7J2867O47Iud7ZKI6riw7JeF&enc=utf8&section=kin&rank=7&search_sort=0&spq=0&sp=1&pid=g7Ezpsoi5TGssb9i98ssss--112467&sid=TLmgNpxquUwAACN9YN8 http://boom.naver.com/BoardRead.nhn?categoryId=1&articleNum=20050514212617060 http://cafe.naver.com/fashionchangup.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5262 http://blog.daum.net/mochaccino/6915199 http://www.kbn-japan.com/KN050303-01.htm http://danmee.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16/2009111601513.html http://search.daum.net/search?w=dir&m=site&nil_search=btn&enc=utf8&lp=10&q=%EB%8B%9B%EC%82%B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nil_ch=&rtupcoll=&w=tot&m=&f=&lpp=&q=%C8%F7%C5%B8%C4%A http://www.toshiba.co.kr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41019050255341 http://www.fnnews.com/view?ra=Sent1101m_View&corp=fnnews&arcid=0921912208&cDateYear=2010&cDateMonth=02&cDateDay=26 http://blog.daum.net/antimadeinjapan/5836148?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antimadeinjapan%2F583614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
	학술	최재철(1995), 『일본문학의 이해』, 민음사 최관(1999), 『일본문화의 이해』, 학문사
	출판	최영민(2006), 『인조이 도쿄』, 넥서스북스 중앙북스 편(2008), 『두근두근 일본여행시리즈2(후쿠오카)』, 중앙북스 백승기·이명원 (2002), 『Hello Japan 일본』, 김영사
중국어	기업	http://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5510 http://weekly.hankooki.com/lpage/08_life/200806/wk20080618105029100510.htm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46443 http://www.zdnet.co.kr/Contents/2010/10/25/zdnet20101025110822.htm http://sstv.freechal.com/index.html?page=news/flypage&cid=18&nid=86122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5&nid=133057 http://www.tsingtaobeer.co.kr
	학술	오가타 이사무 저, 이유영 역(2002), 『중국역사기행』, 시아출판사
	출판	론리 플래닛 2010년 개정2판

[표 2]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대상 목록

1.4. 외래어 표기 규정과 용례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하여

1.4.1. 외래어 표기 규정과 용례에 대한 설문 조사 틀

‘외래어 표기 규정과 용례에 대한 설문 조사’에 필요한 문항 개발 틀을 구성하기 위해 ‘조사 종류, 조사 목적, 조사 내용, 조사 방법, 조사자 교육’의 조사 기획 단계를 거쳤다.

첫째, 조사 종류 단계에서는 외래어 표기 규정과 용례에 대한 설문 조사이므로, 국민의 외래어 표기 규범에 대한 문해력 측정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둘째, 조사 목적 단계에서는 이론적인 차원에 그치는 연구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외래어 표기 규정과 용례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를 파악해 이 연구와 추후 정책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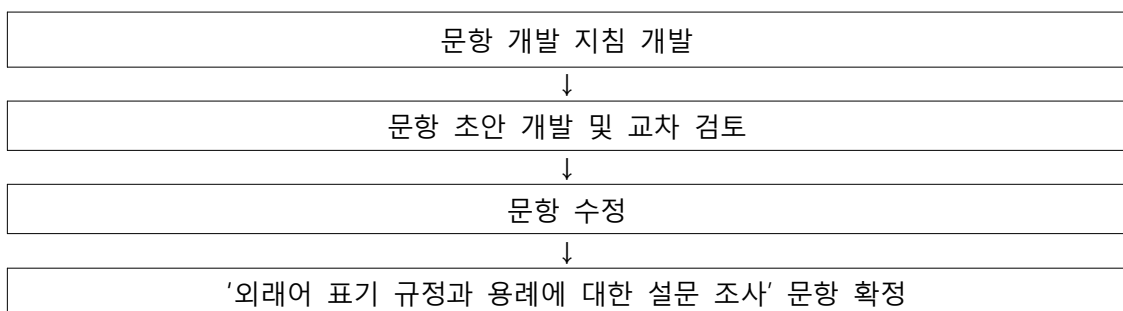
셋째, 조사 내용 단계에서는 일반인에게는 제시된 외래어 표기 용례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를 묻는 문항을, 전문인에게는 외래어 표기 규정과 용례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다섯째, 조사 방법 단계에서는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독서량, 인터넷 노출 정도에 따라 설문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를 변인으로 삼아 교차 분석을 진행하였다.

여섯째, 조사자 교육 단계에서는 기획을 철저히 해 조사 설문지를 좋게 만들었다고 해도 정작 조사 요원이 설문 조사를 배포 회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조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 요원에게 설문지의 의의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문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안내를 통해 조사자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1.4.2. 문항 개발 과정

연구진은 ‘외래어 표기 규정과 용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위한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항 개발 절차’를 마련하여, 문항의 개발 방향 및 구체적인 요소 설정에서부터 문항 개발, 문항 수정, 본 검사 문항 확정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쳤다.



[표 3] 설문 조사 설계 절차

우선,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문항 개발 지침을 마련하여 문항을 구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 조사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문의 의도가 명확하게 전달되는가?
- 일반인들이 자주 접하는 외래어 표기/ 자주 접하지 못한 낯선 외래어 표기의 예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전문가들이 익숙하거나/익숙하지 못한 외래어 표기의 예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외래어 표기 규정에서 논란이 될 만한 규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일반인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 외래어 표기 용례와 전문가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 외래어 표기 규정과 용례로 어떠한 것을 사용할 것인가?

문항 개발 틀과 고려 사항, 설문 문항 작성 시 소요 시간 등을 감안하여 개발된 문항의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외래어 표기 인지 정도 측정 문항

외래어 인지 및 만족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외래어 제시어를 주고 올바른 용례와 보기 좋거나 쓰기 편한 용례를 응답하도록 함.

영 어	1	①콘텐츠 ②컨텐츠 contents: 인터넷,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	2	①뉴욕 ②뉴욕 New York: (지명)미국의 최대 도시
	3	①선글라스 ②썬글라스 sunglass: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쓰는, 색깔 있는 안경	4	①더그아웃 ②덕아웃 dugout: 야구장의 선수 대기석
	5	①소시지 ②소세지 sausage: 으깨어 양념한 고기를 돼지 창자나 인공 케이싱에 채우고 삶은 서양식 순대	6	①로봇 ②로보트 robot: 인간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걷기도 하고 말도 하는 기계 장치
	7	①카셋 ②카세트 cassette: 소리를 녹음하거나 재생하는 기계 장치의 일종	8	①로브슨 ②롭슨 Robson: 산(山)이름
	9	①잉글리시 ②잉글리쉬 English: 영어	10	①하이라이트 ②하일라이트 highlight: 가장 흥미롭거나 두드러지는 장면

[표 4] 외래어 표기 인지 정도 측정 문항(영어)

독 일 어	1	①하이델베르크 ②하이델베르그	2	①도이칠란드 ②도이칠란트
		Heidelberg, 독일의 유명 대학도시		Deutschland, 독일의 국가명칭
	3	①홀몬 ②호르몬	4	①빈 ②비인
		Hormon, 의학용어로서 내분비물을 의미		Wien, 오스트리아의 수도
	5	①시멘스 ②지멘스	6	①모차르트 ②모짜르트
		Siemens 독일 최초의 전기기기 제조 회사		Mozart, 유명 작곡가
	7	①취리히 ②쾰리히	8	①바흐 ②바하
		Zürich, 스위스 동부의 대도시		Bach, 유명 작곡가
	9	①베토벤 ②베에토벤	10	①보슈 ②보쉬
		Beethoven, 유명 작곡가		Bosch, 독일의 공업화학자

[표 5] 외래어 표기 인지 정도 측정 문항(독일어)

프 랑 스 어	1	①파리 ②빠리	2	①바캉스 ②바깡스
		Paris: 프랑스의 수도		vacances: 방학, 휴가
	3	①바게트 ②바게뜨	4	①몽타주 ②몽타쥬
		baguette: 프랑스의 대표적인 막대기 모양 빵		montage: 범죄 수사에서 목격자의 증언을 모아 용의자의 수배 전단을 만드는 데에 이용하는 사진
	5	①크루아상 ②크루와쌍	6	①앙상블 ②앙쌍블
		croissant: 프랑스의 대표적인 초승달 모양 빵		ensemble: 합창, 합주
	7	①상송 ②상송	8	①베르사유 ②베르사이
		chanson: 가요, 노래		Versailles: 프랑스 파리 근교 지역으로, 유명한 궁전이 있다.
	9	①필름 누아르 ②필름 누와르	10	①르네상스 ②르네쌍스
		film noir: 암흑가를 다룬 범죄 영화		Renaissance: 문예부흥, 르네상스 시대

[표 6] 외래어 표기 인지 정도 측정 문항(프랑스어)

에스파냐어	1	①카사 블랑카 ②까사 블랑까 Casa blanca, 하얀 집. 영화제목 또는 노래제목	2	①테킬라 ②데킬라 tequila, 멕시코 고유의 술
	3	①돈 키호테 ②돈 끼호떼 Don Quijote, 작가 세르반테스의 소설	4	①타코 ②따꼬 taco, 멕시코 전통요리
	5	①베네주엘라 ②베네수엘라 Venezuela, 남아메리카 국가	6	①산 미겔 ②산 미구엘 San Miguel, 맥주 이름
	7	①야마 ②라마 ③랴마 llama, 낙타과에 속하는 동물	8	①세빌라 ②세비아 ③ 세빌라 Sevilla, 에스파냐 남부의 항구도시
	9	①싼호세 ②산호세 San José, 코스타리카의 수도	10	①하바나 ②아바나 Habana, 쿠바의 수도

[표 7] 외래어 표기 인지 정도 측정 문항(에스파냐어)

이탈리아어	1	①파스타 ②빠스타 pasta: 밀가루 반죽과 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이탈리아의 국수 요리	2	①포르테 ②포르떼 forte: (형용사)강하다
	3	①피자 ②피차 ③핏자 pizza: 밀가루 반죽 위에 토마토 소스, 모차렐라 치즈를 얹어서 둥글고 납작한 형태로 구운 빵	4	①구찌 ②구치 Gucci: 이탈리아의 유명 의류 브랜드
	5	①푸치니 ②푼치니 Puccini: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	6	①스파게티 ②스파갯티 spaghetti: 길고 가는 파스타의 일종
	7	①자코모 ②자코모 Giacomo (Casanova): 18세기 베네치아의 모험가이자 작가	8	①돈 조반니 ②돈 죠반니 Don Giovanni: 이탈리아어로 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2막 오페라
	9	①베네치아 ②베네찌아 Venezia: 이탈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	10	①피렌체 ②피렌찌 Firenze: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의 주도

[표 8] 외래어 표기 인지 정도 측정 문항(이탈리아어)

일본어 한자음 표기 관련	1-6. <한자 문화권 중 일본어의 경우, 한국식 한자음으로 외래어 표기하는 것에 대한 문항>			
	1-1) 일본의 인명과 지명을 한글로 어떻게 적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일본어 음대로 적는다 ② 우리식 한자음으로 적는다			
	1-2) 실제로 어느 표기를 사용하십니까? ① 도쿄 ② 동경			
	1-3) 실제로 어느 표기를 사용하십니까? ① 이토 히로부미 ② 이등박문			
일본어	1	①기모노 ②키모노 着物, kimono : 일본 전통 옷	2	①스모 ②스모오 相撲, sumoo : 일본 씨름
	3	①쓰나미 ②츠나미 津波, tsunami : 해일	4	①야스쿠니 ②야수쿠니 靖国, yasukuni : 일본 신사(神社)의 이름
	5	①신주쿠 ②신쥬쿠 新宿, shinjuku : <지명> 일본 도쿄에 있는 지역 이름	6	①홋카이도 ②흑카이도 北海道, hokkaidoo : <지명> 일본 북부의 큰 섬
	7	①신칸센 ②싱칸센 新幹線, shinkansen : 일본 고속 철도	8	①오사카 ②오오사카 大阪, oosaka : <지명>일본 지방 도시 이름
	9	①오кина와 ②오끼나와 沖縄, okinawa : <지명>일본 남부의 큰 섬	10	①삿포로 ②삼포로 札幌, sapporo : <지명>일본 지방 도시 이름

[표 9] 외래어 표기 인지 정도 측정 문항(일본어)

중 국 어 한 자 음 표 기 관 련	1-8. <한자 문화권 중 중국어의 경우, 한국식 한자음으로 외래어 표기하는 것에 대한 문항>			
	1-1) 중국의 인명과 지명을 한글로 어떻게 적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중국어 음대로 적는다 ② 우리식 한자음으로 적는다			
	1-2) 실제로 어느 표기를 사용하십니까? ① 쓰촨 ② 사천			
	1-3) 실제로 어느 표기를 사용하십니까? ① 장제스 ② 장개석			
중 국 어	1	①베이징 ②삐이징 北京, Beijing, <지명> 중국의 수도	2	①마오저둥 ②마오쩌둥 毛澤東, Mao Zedong, <인명> 중국의 정치가 (1893~1976)
	3	①톈진 ②티엔진 天津, Tianjin, <지명> 중국 북부에 있는 중앙 직할시	4	①광조우 ②광저우 廣州, Guangzhou, <지명> 중국 남부에 있는 도시. 2010년 아시안게임 개최지.
	5	①리우더화 ②류더화 劉德華, Liu Dehua, <인명> 중국 홍콩 출신의 영화배우, 가수. 영화 '천장지구'로 유명함.	6	①위안 ②위안 元, yuan, 중국의 화폐단위
	7	①리롄제 ②리롄제 李連傑, Li Lianjie, <인명> 중국의 영화배우, 무술인 영화 '소림사'로 유명함.	8	①청룽 ②청룽 成龍, Cheng Long, <인명> 중국 홍콩 출신의 영화배우, 감독. 영화 '취권'으로 유명함.
	9	①장쯔이 ②장찌이 章子怡, Zhang Ziyi, <인명> 중국의 영화배우. '영화 '와호장룡'으로 유명함.	10	①덩샤오핑 ②덩샤오핑 鄧小平, Deng Xiaoping <인명> 중국의 정치가 (1904~1997)

[표 10] 외래어 표기 인지 정도 측정 문항(중국어)

2) 외래어 표기 관련 조사

□ 외래어 표기 관련 조사는 외래어 규정에 대해 규정 인지 여부(이항 척도), 규정 이해정도(5점 척도), 표기 방식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를 전문가 집단만 응답하도록 설문을 구성하였음.

외래어	규정
1. 일반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외래어(외국어 낱말)는 한글 맞춤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본 자모 24개와 이를 바탕으로 한 16개 자모 등 총 40개 자모로 적는다]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외래어는 변이음이 아닌 음소 단위를 한글로 적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ㄱ/ㅋ/ㄲ, ㄷ/ㅌ/ㄸ, ㅂ/ㅃ/ㅍ과 같은 것을 파열음이라고 하며, 외래어 원음이 된소리처럼 들려도 된소리 글자로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2. 영어	어말의 [ʃ]는 '시'로 적는다.
	둘 이상의 낱말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pick 픽 + up 업 → 픽업(0), 피킵(X)).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는다.	
3. 독일어	[ʃ]의 경우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는 '슈'로 적는다.
	어말의 [r]와 '-er[r]'는 '어'로 적는다.
	복합어 및 파생어의 선행 요소가 [r]로 끝나는 경우는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음 앞의 [r]는 '으'를 붙여 적는다.
	[ʃ]의 경우 그 밖의 모음 앞에서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쇼, 슈' 등으로 적는다.
[ʃ]의 경우 [y], [ø] 앞에서는 '스'으로 적는다.	
4. 프랑스어	[R]이 [r], [l]과 음가가 다르지만 별도의 표기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르'로 표기한다.
	마찰음 [ʃ]와 [ʒ]는 어말과 자음 앞에 올 경우 '슈'나 '주'로 표기한다.

	반모음 [j]는 어말에 올 때에 ‘유’로 적는다,
	반모음 [w]는 ‘우’로 적는다.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에스파냐어	파열음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ll, y, ñ, w의 '이, 니, 오, 우'는 다른 모음과 결합할 때 합쳐서 1 음절로 적는다.(예: 에스파냐 España)
	gu, qu는 i, e 앞에서는 각각 ‘ㄱ, ㅋ’으로 적는다.
	‘z’는 ‘ㅅ’으로 표기한다.
	c와 g앞에 오는 n은 받침 ‘ㅇ’으로 적는다.(예: blanco 블랑코)
6. 이탈리아어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z’를 ‘ㅈ’로 표기한다.
	같은 자음이 겹쳤을 때에는 겹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적는다, 다만, -mm-, -nn-의 경우는 'ㄹㄹ', 'ㄴㄴ'으로 적는다.
	c와 g 다음에 ia, io, iu가 올 때에는 각각 '차, 초, 추', '자, 조, 주'로 적는다.
	이탈리아 내에서 쓰이는 낱말(이주민의 이름 등)이라도 원래 이탈리아어가 아니면 그것이 실제로 속하는 언어의 표기 원칙을 따른다.
7. 일본어	일본어 어두의 유성파열음(ガ, ヌ)과 무성파열음(カ, タ)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한국어 평음(가, 다)으로 표기한다.
	일본어 ‘ジャ, ジュ, ジョ’를 ‘자, 주, 조’로, ‘チャ, チュ, チョ’를 ‘차, 추, 초’로 표기한다.
	일본어 ‘ツ’를 ‘쓰’로 표기한다.
	일본어의 우(우)단음의 모음에 대해서 ‘う, く, ぬ, ふ, る’는 ‘우, 구, 누, 후, 무, 루’처럼 ‘ㄷ’로 표기하고 ‘ス, ズ, ツ’는 ‘스, 즈, 쓰’처럼 ‘ㄹ’로 표기한다.
	일본어 축음(ッ)은 받침 'ㅅ'으로, 발음(ン)은 받침 'ㄴ'으로 표기한다.
	일본어의 장모음을 표기하지 않는다.

8. 중국어	대조표 (성모)	한어병음 자모		한글	
		j	sh[shi]	ㅅ	ㅅ[스]
		q	z[zi]	ㅈ	ㅈ[즈]
		x	c[ci]	ㅅ	ㅈ[즈]
		zh[zhi]	s[si]	ㅈ[즈]	ㅈ[즈]
		ch[chi]		ㅈ[즈]	
	대조표 (운모)	한어병음 자모		한글	
단운모 e		yan(ian)	어	엔	
단운모 wu(u)		wei(ui)	우	웨이(우이)	
단운모 yu(u)		weng(ong)	위	웡(웅)	
ou		yuan(uan)	어우	위안	
ya(ia)			야		
you(iu)			유		
ㅈ, ㅈ, ㅈ'으로 표기되는 자음(j, zh, z, q, ch, c) 뒤의 'ㄱ, ㅋ, ㆁ, ㆁ' 음은 'ㄱ, ㅋ, ㆁ, ㆁ'로 적는다.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한자 사용 지역(일본, 중국)의 지명이 하나의 한자로 되어 있을 경우, '강', '산', '호', '섬' 등은 겹쳐 적는다.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					
9. 규정 관련 제안	f, v 등 국어에 없는 주요 외국어 음성을 적을 수 있는 한글 자모를 만들어서 실제로 외래어의 표기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예: file '파일' violin '바이올린' 등)				

[표 11] 외래어 표기 규정 조사 문항

1.4. 주요 국가의 외래어 표기 규범 관리 현황 조사에 대하여

1.4.1. 외래어 표기 규범 관리 현황 조사 개발 틀

외래어 표기 규범 관리 현황 조사는 1차로 문헌조사에 의거해 이루어졌다. 문헌 조사 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유럽 언어가 국가 차원의 외래어 표기 규범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의 외래어 표기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대체할 만한 자료를 찾기 위한 2차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외국의 외래어 표기 규범의 존재 여부와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외래어 표기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안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4.2. 외래어 표기 규범 관리 현황 조사 진행 과정

해당 외국의 외래어 표기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의 경우, 그러한 상황에 대해 기술하고 관용적으로 기준의 역할을 하는 사전이나 출판사의 외래어 표기 기준을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어의 외래어 표기 규범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만한 참고사항을 추출하여 기술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해당 외국의 외래어 표기 규정의 존재 여부와 해당 외국의 외래어 표기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다음 표와 같다.

언어권별	외래어 표기 규정 존재 여부	대상 자료
영어	×	영어에서의 외래어 수용방식을 대상으로 함
독일어	△	독일어 맞춤법 규정 중 외래어 관련 부분을 대상으로 함
프랑스어	△	프랑스어 표기법 중 외래어 표기 관련 부분을 대상으로 함 프랑스의 대표적인 국어사전 Le Petit Robert(2003)의 서문 중 음성학자 알리에뜨 Aliette Lucot-Sarir가 쓴 프랑스어의 ‘음성학적 표기의 선택 Choix de présentation de la phonétique’을 대상으로 함
에스파냐어	△	에스파냐어 표기법 중 외래어 표기 관련 부분을 대상으로 함
이탈리아어	△	이탈리아어 표기법 중 외래어 표기 관련 부분을 대상으로 함
중국어	○	
일본어	○	

[표 12] 국가별 외래어 표기 규정 존재 여부와 대상 자료

제2장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2.1. 영어

	조사 건수(개)	오류 건수(개)	오류 비율(%)
기업	379	34	8.97
학술	471	39	8.28
출판	312	14	4.49
계	1162	87	7.48

[표 13] 분야별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통계(영어)

기업 분야와 학술, 출판 분야에서의 영어권 외래어 표기의 실태를 조사하여 오류 유형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음운 1기호의 원칙

외래어 표기 규범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외래어를 표기할 1음운은 1기호로 표기되도록 되어있고, 국제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 표시하면 된다. 하지만, 영어의 경우 하나의 모음이 다양한 음운에 대응되고 강세에 따라서도 발음이 달라지므로 이에 따른 오류가 가장 많았다.

예) 현 표기 > 외래어표기법에 따른 표기

네비게이션>내비게이션(navigation), 넷탑>넛톱(net top), 레코더>리코더(recorder), 솔루션>설루션(solution), 액세서리>엑세서리(accessory), 기니아>기니(Guinea), 마가렛>마거릿(Margaret), 아이러니컬>아이로니컬(ironical), 앤소니 샬빈>앤터니 샬빈(Anthony Salvin), 케이트 윈슬렛>케이트 윈즐릿(Kate Winslet) 등

○ 무성파열음의 문제

무성파열음은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일 경우와, 짧은 모음과 유음·비음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경우는 받침으로 적고 그 외에는 ‘으’를 붙여야 하나 각 경우에 대하여 오류가 나타난다.

예) 현 표기 > 외래어표기법에 따른 표기

노샘턴>노샘프턴(Northampton), 칩셋>칩 세트(chip set), 도미니크>도미니크(Dominic), 노퍼크>노퍽(Norfolk), 엘리엇>엘리엇(Eliot) 등

○ 중모음과 반모음

중모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되, [ou]는 '오'로, [auə]는 '아워'로 적는다. 반모음[w]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wə], [wɔ], [wou]는 '위', [wa]는 '와', [wæ]는 '왜', [we]는 '웨', [wi]는 '위', [wu]는 '우'로 적는다. 자음 뒤에 [w]가 올 때에는 두 음절로 갈라 적되, [gw], [hw], [kw]는 한 음절로 붙여 적어야 하나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단어들에서도 오류가 보인다.

예) 현 표기 > 외래어표기법에 따른 표기

글로우브>글로브(Globe), 로우디언>로디언(Lothian), 스톤헨지>스톤헨지(Stonehenge), 그위네드>귀네드(Gwynedd) 등

○ 기타

위 경우 외에 어말의 [ʃ] 발음, 어말의 -s[z] 표기, 마찰음 [s] 등의 오류가 나타났다.

예) 현 표기 > 외래어표기법에 따른 표기

스타일리쉬>스타일리시(stylish), 콜린즈>콜린스(Collins), 비너스 윌리엄즈>비너스 윌리엄스(Venus Williams), 싸이클론>사이클론(cyclone) 등.

2.1.1. 기업 분야

1)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1	guide	가이드
2	gallery	갤러리
3	galaxy	갤럭시
4	game	게임
5	gold class	골드클래스
6	graphic	그래픽
7	grill	그릴
8	glass	글라스
9	global	글로벌
10	global network	글로벌네트워크
11	gigabit	기가 비트
12	nano	나노
13	nand flash	낸드플래시
14	network	네트워크
15	net book	넷북
16	Nobel	노벨
17	note	노트
18	notebook	노트북
19	news	뉴스
20	down	다운
21	download	다운로드
22	downloadcenter	다운로드센터
23	diamond	다이아몬드
24	diary	다이어리
25	diet	다이어트
26	diode	다이오드
27	doctor	닥터
28	desktop	데스크톱
29	data	데이터
30	door sensor	도어센서
31	driver	드라이버
32	drum	드럼
33	dreamers	드리머즈
34	device	디바이스
35	disk	디스크
36	display	디스플레이

37	design	디자인
38	digital	디지털
39	digital camera	디지털카메라
40	radio	라디오
41	lounge	라운지
42	live	라이브
43	life	라이프
44	lifestyle	라이프스타일
45	line	라인
46	lineup	라인업
47	ram	램
48	recipe	레시피
49	layout	레이아웃
50	laser	레이저
51	laser printer	레이저프린터
52	range	레인지
53	lens	렌즈
54	logout	로그아웃
55	login	로그인
56	robot	로봇
57	Renault	르노
58	remodeling	리모델링
59	remote control	리모컨
60	review	리뷰
61	research	리서치
62	real	리얼
63	report	리포트
64	refill	리필
65	rehearsal	리허설
66	master	마스터
67	my	마이
68	micro	마이크로
69	marketing	마케팅
70	mark	마크
71	manual	매뉴얼
72	magic	매직
73	magic station	매직스테이션
74	magic kids	매직키즈
75	map	맵
76	multi	멀티

77	multimedia	멀티미디어
78	menu	메뉴
79	memory	메모리
80	memory card	메모리카드
81	messenger	메신저
82	mail	메일
83	mailing	메일링
84	metallic	메탈릭
85	membership	멤버십
86	monitor	모니터
87	modern	모던
88	model	모델
89	mode	모드
90	mobile	모바일
91	motion control	모션컨트롤
92	motor	모터
93	musical	뮤지컬
94	music	뮤직
95	mini	미니
96	mininotebook	미니노트북
97	media	미디어
98	Barbie	바비
99	virus	바이러스
100	bias	바이어스
101	battery	배터리
102	backlight	백라이트
103	bubble	버블
104	bubble eco	버블 에코
105	bubble engine	버블엔진
106	bubble wash	버블워시
107	button	버튼
108	voice	보이스
109	ball	볼
110	booter	부터
111	booting	부팅
112	brand	브랜드
113	brush	브러시
114	blog	블로그
115	blue	블루
116	blueray	블루레이

117	blueray player	블루레이플레이어
118	blueray home theater	블루레이홈시어터
119	bluetooth	블루투스
120	bidet	비데
121	video	비디오
122	business	비즈니스
123	built-in	빌트인
124	sound	사운드
125	cyber	사이버
126	site	사이트
127	sitemap	사이트맵
128	server	서버
129	service	서비스
130	service center	서비스센터
131	supporter	서포터
132	support	서포트
133	sensor	센서
134	sense	센스
135	center	센터
136	cell	셀
137	self	셀프
138	shutter	셔터
139	software	소프트웨어
140	shopping	쇼핑
141	schneider	슈나이더
142	super	슈퍼
143	smart	스마트
144	smart eco	스마트 에코
145	smart sensor	스마트센서
146	smart oven	스마트오븐
147	scanner	스캐너
148	scan	스캔
149	screen	스크린
150	style	스타일
151	stylish	스타일리시
152	stand	스탠드
153	stand air conditioner	스탠드에어컨
154	station	스테이션
155	stealth	스텔스
156	store-in	스토어인

157	stick	스틱
158	still	스틸
159	steam	스팀
160	special	스페셜
161	sport	스포츠
162	sports game	스포츠게임
163	sports sponsorship	스포츠스폰서십
164	sponsorship	스폰서십
165	speaker	스피커
166	slim	슬림
167	series	시리즈
168	system	시스템
169	system air conditioner	시스템에어컨
170	system air conditioner home	시스템에어컨홈
171	season	시즌
172	simple	심플
173	Asian game	아시안게임
174	Africa	아프리카
175	allergy	알레르기
176	annual	애뉴얼
177	any	애니
178	any net	애니넷
179	any web	애니웹
180	anycall land	애니콜랜드
181	application	애플리케이션
182	accessory	액세서리
183	action	액션
184	active	액티브
185	aps	앱스
186	award	어워드
187	upgrade	업그레이드
188	update	업데이트
189	upload	업로드
190	upscale	업스케일
191	energy	에너지
192	energy mark	에너지마크
193	edition	에디션
194	air wash	에어워시
195	air conditioner	에어컨
196	eco	에코

197	eco design	에코디자인
198	eco mark	에코마크
199	eco partner	에코파트너
200	engine in	엔진인
201	entertainment	엔터테인먼트
202	audio	오디오
203	oven	오븐
204	auto closing	오토클로징
205	open	오픈
206	on	온
207	online	온라인
208	Olympiad	올림피아드
209	Olympic	올림픽
210	option	옵션
211	wide	와이드
212	wine	와인
213	wine cellar	와인셀러
214	ultra	울트라
215	water	워터
216	water clean	워터클린
217	one touch	원터치
218	well being	웰빙
219	web	웹
220	website	웹사이트
221	European	유러피안
222	Europe	유럽
223	ubiquitous	유비쿼터스
224	user	유저
225	utility	유틸리티
226	e-mail	이메일
227	image	이미지
228	event	이벤트
229	ionizer	이오나이저
230	ion	이온
231	easy handle	이지핸들
232	inch	인치
233	internet	인터넷
234	interspace	인터페이스
235	interior	인테리어
236	influenza	인플루엔자

237	ink	잉크
238	inkjet	잉크젯
239	zero	제로
240	zero filter	제로필터
241	zone	존
242	chart	차트
243	channel	채널
244	check	체크
245	camera	카메라
246	cassette player	카세트
247	cartridge	카트리지
248	calorie	칼로리
249	camcorder	캠코더
250	camcorder harddisk	캠코더하드디스크
251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
252	community	커뮤니티
253	cover	커버
254	color	컬러
255	color printing	컬러프린팅
256	computer	컴퓨터
257	cup	컵
258	care	케어
259	cable	케이블
260	course	코스
261	coating	코팅
262	contents	콘텐츠
263	cooling	쿨링
264	cooling cover	쿨링커버
265	cooling home bar	쿨링홈바
266	creative	크리에이티브
267	class	클래스
268	tower	타워
269	tango	탱고
270	turbo	터보
271	touch	터치
272	touch screen	터치스크린
273	turn	턴
274	test	테스트
275	telecom	텔레콤
276	toner	토너

277	two way	투웨이
278	trend	트렌드
279	team	팀
280	tip	팁
281	power	파워
282	file	파일
283	partnership	파트너십
284	panel	패널
285	paradigm	패러다임
286	fashion	패션
287	pattern	패턴
288	fax	팩스
289	facsimile	팩시밀리
290	furniture style	퍼니처스타일
291	firmware	펌웨어
292	page	페이지
293	forum	포럼
294	point color	포인트컬러
295	pocket	포켓
296	photo	포토
297	photo album	포토앨범
298	phone	폰
299	full	풀
300	full line up	풀라인업
301	pro	프로
302	program	프로그램
303	processor	프로세서
304	process	프로세스
305	prosumer	프로슈머
306	projector	프로젝터
307	premium	프리미엄
308	printer	프린터
309	print	프린트
310	printing	프린팅
311	plasma	플라즈마
312	flash	플래시
313	platform	플랫폼
314	plus	플러스
315	player	플레이어
316	flu	플루

317	filter	필터
318	finger	핑거
319	hard	하드
320	harddisk	하드디스크
321	hardware	하드웨어
322	highglossy	하이글로시
323	highlight	하이라이트
324	hybrid	하이브리드
325	hockey	하키
326	Hollywood	할리우드
327	hand	핸드
328	hand phone	핸드폰
329	handle	핸들
330	head phone	헤드폰
331	HEPA	헤파
332	HEPA filter	헤파필터
333	health care	헬스케어
334	host	호스트
335	hotel	호텔
336	home network	홈네트워크
337	home multi	홈멀티
338	homemulti airconditioner	홈멀티 에어컨
339	home bar	홈바
340	home bar sensor	홈바센서
341	home theater	홈시어터
342	home theater blueray	홈시어터블루레이
343	home entertainment	홈엔터테인먼트
344	homepage	홈페이지
345	human-tech	휴먼테크

[표 14]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영어-기업분야)

2)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오표기
1	navigation	내비게이션	네비게이션
2	net top	넷톱	넷탑
3	desk top	데스크톱	데스크탑
4	desk top display	데스크톱디스플레이	데스크탑디스플레이
5	recorder	리코더	레코더
6	remote control	리모컨	리모콘
7	body	보디	바디
8	shop	숍	샵
9	solution	솔루션	솔루션
10	super	슈퍼	수퍼
11	screw	스크루	스크류
12	stylish	스타일리시	스타일리쉬
13	cyclone	사이클론	싸이클론
14	scene	신	씬
15	avatar	애바타	아바타
16	accessory	액세서리	악세서리
17	allergy	알러지	알리지
18	aluminum	알루미늄	알미늄
19	edge style	엣지스타일	엣지스타일
20	organic	오르가닉	오가닉
21	chip set	칩 세트	칩셋
22	concept	콘셉트	컨셉
23	contents	콘텐츠	컨텐츠
24	conference	콘퍼런스	컨퍼런스
25	compact	컴팩트	컴팩트
26	compact camera	컴팩트 카메라	컴팩트카메라
27	cordless	코들리스	코드리스
28	crystal	크리스탈	크리스탈
29	top	톱	탑
30	total	토틸	토탈
31	twin chamber	트윈 체임버	트윈챔버
32	photoshop	포토숍	포토샵
33	prestige	프레스티지	프리스티지
34	presentation	프레젠테이션	프리젠테이션

[표 15]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영어-기업분야)

2.1.2. 학술 분야

1)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1	Gascogne	가스코뉴
2	Gower	가워
3	Guy	가이
4	Guyana	가이아나
5	Garter	가터
6	Catholic	가톨릭
7	Gallia	갈리아
8	Gallipoli	갈리폴리
9	Gambia	감비아
10	galleon	갤리언
11	Gulf	걸프
12	Germania	게르마니아
13	German	게르만
14	Godrich	고드리치
15	Godwin	고드윈
16	Gordon	고든
17	Gothic	고딕
18	Guadeloupe	과들루프
19	Goodwyn	구드윈
20	Guthrum	구스럼
21	Grafton	그래프턴
22	Grampian	그램피언
23	Gregorius	그레고리우스
24	Grenada	그레나다
25	Grey	그레이
26	Great	그레이트
27	Grenville	그렌빌
28	Grosseteste	그로스테스트
29	Grocyn	그로신
30	Greenwich	그리니치
31	Greece	그리스
32	Griffith	그리피스
33	Greenland	그린란드
34	Gladstone	글래드스톤
35	Gloucester	글로스터
36	geneat	기니트

37	Gyrth	기르스
38	Guyenne	기엔
39	guild	길드
40	Gilbert	길버트
41	Narvik	나르비크
42	Namur	나무르
43	Navarre	나바르
44	Nigeria	나이지리아
45	Nile	나일
46	Napoleon	나폴레옹
47	Nash	내쉬
48	Netherland	네덜란드
49	Neville	네빌
50	Naylor	네일러
51	Norman	노르만
52	Normandy	노르망디
53	Norway	노르웨이
54	Norwich	노리치
55	Novgorod	노브고로드
56	North	노스
57	Norseman	노스맨
58	Northington	노싱턴
59	Nottingham	노팅엄
60	Nottinghamshire	노팅엄셔
61	Knox	녹스
62	New	뉴
63	Newman	뉴먼
64	Newbury	뉴베리
65	Newfoundland	뉴펀들랜드
66	Niger	니제르
67	Darien	다리엔
68	Derby	다비
69	Derbyshire	다비셔
70	Downing	다우닝
71	Darwin	다윈
72	Dartford	다트퍼드
73	Darlington	달링턴
74	Danby	덴비
75	Dudley	더들리
76	Durham	더럼

77	Dublin	더블린
78	Dublin	더블린
79	Donne	던
80	Dunbar	던바
81	Dumfriesshire	덤프리셔
82	Derry	데리
83	Deva	데바
84	Devon	데번
85	Devonshire	데번셔
86	Despenser	데스펜서
87	David	데이비드
88	Danegeld	데인겔드
89	Danelaw	데인로
90	Denmark	덴마크
91	Delhi	델리
92	Dominica	도미니카
93	Dover	도버
94	Dorchester	도체스터
95	dolmen	돌멘
96	Domesday	돔즈데이
97	Drake	드레이크
98	Drogheda	드로이더
99	Druid	드루이드
100	Diocretianus	디오클레티아누스
101	Lagos	라고스
102	Lyons	라이언즈
103	Rising	라이징
104	Leipzig	라이프치히
105	Rhein	라인
106	Rheinland	라인란트
107	Lambeth	램버스
108	Langland	랭랜드
109	Reims	랭스
110	Lancashire	랭커셔
111	Lancaster	랭커스터
112	Langton	랭턴
113	Runnymede	러니미드
114	Luddite	러다이트
115	Ruthwell	러스웰
116	Russia	러시아

117	London	런던
118	Lennon	레논
119	Reynolds	레널즈
120	Levant	레반트
121	Leicester	레스터
122	Leicestershire	레스터셔
123	Leopold	레어폴트
124	Ravenspur	레이븐스퍼
125	Lacy	레이시
126	Reginald	레지널드
127	resistance	레지스탕스
128	Lexington	렉싱턴
129	Laud	로드
130	Roma	로마
131	Romanesque	로마네스크
132	Robert	로버트
133	Robinson	로빈슨
134	Roslin	로슬린
135	Royal	로열
136	Lowlands	로울랜드
137	Roger	로저
138	Rochester	로체스터
139	Locke	로크
140	Rockingham	로킹엄
141	Rolls-Royes	롤스로이스
142	Longford	롱퍼드
143	Rumania	루마니아
144	Rubens	루벤스
145	Rouen	루앙
146	Lewis	루이스
147	Luther	루터
148	Rupert	루퍼트
149	Renaissance	르네상스
150	Liverpool	리버풀
151	Libya	리비아
152	Livingstone	리빙스톤
153	Lisbon	리스본
154	Lear	리어
155	Richard	리처드
156	Richmond	리치먼드

157	Richfield	리치필드
158	Lincoln	링컨
159	Lincolnshire	링컨셔
160	magna	마그나
161	Magnus	마그누스
162	Manila	마닐라
163	Madras	마드라스
164	Madrid	마드리드
165	Marx	마르크스
166	Maria	마리아
167	Marshall	마셜
168	master	마스터
169	Michael	마이클
170	Magellan	마젤란
171	Maginot	마지노
172	March	마치
173	Maximilian	막시밀리안
174	Malawi	말라위
175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176	Macbeth	맥베스
177	Maxwell	맥스웰
178	Manchester	맨체스터
179	Malory	말러리
180	Malcolm	맬컴
181	Mary	메리
182	Mayflower	메이플라워
183	Morocco	모로코
184	moot	모트
185	Miinchen	뮌헨
186	Mule	물
187	Mirabeau	미라보
188	Milano	밀라노
189	Milton	밀턴
190	Milford	밀퍼드
191	baroque	바로크
192	Bath	바스
193	Bayern	바이에른
194	Viking	바이킹
195	Barton	바튼
196	ballad	발라드

197	Balkan	발칸
198	baron	배런
199	borough	버러
200	Birmingham	버밍엄
201	Virginia	버지니아
202	Buckingham	버킹엄
203	Buckinghamshire	버킹엄셔
204	Butler	버틀러
205	Benedictine	베네딕트
206	Venezia	베네치아
207	Berlin	베를린
208	Beowulf	베어울프
209	Bacon	베이컨
210	Balliol	베일리얼
211	bailiff	베일리프
212	Belfast	벨파스트
213	Borneo	보르네오
214	Bosnia	보스니아
215	Boston	보스턴
216	Boyle	보일
217	bot	보트
218	Baldwin	볼드윈
219	Bolshevism	볼셰비즘
220	Bolsheviki	볼셰비키
221	bourgeois	부르주아
222	bourgeoisie	부르주아지
223	Book	북
224	Bridge	브리지
225	Britain	브리튼
226	Byzantium	비잔티움
227	Beatles	비틀즈
228	Victorianism	빅토리아니즘
229	villa	빌라
230	Sarajevo	사라예보
231	South	사우스
232	Simon	사이먼
233	Saladin	살라딘
234	Saxon	색슨
235	Sandwich	샌드위치
236	shire	샤이어

237	Serbia	세르비아
238	Severn	세번
239	thegn	세인
240	sheriff	셰리프
241	Shakespeare	셰익스피어
242	Sheffield	셰필드
243	Shelburne	셸번
244	Salisbury	솔즈베리
245	Suez	수에즈
246	Smithfield	스미스필드
247	Sweden	스웨덴
248	Sweyn	스웨인
249	Swiss	스위스
250	Scaborough	스카버러
251	Scandinavia	스칸디나비아
252	Scotland	스코틀랜드
253	school	스쿨
254	stagflation	스태그플레이션
255	Stamford	스탬퍼드
256	stained glass	스테인드글라스
257	Stuart	스튜어트
258	Syria	시리아
259	Seymour	시모어
260	Sicilia	시칠리아
261	Argyllshire	아가일셔
262	Arras	아라스
263	Aristoteles	아리스토텔레스
264	America	아메리카
265	Avignon	아비뇽
266	Arthur	아서
267	Iceland	아이슬란드
268	Einstein	아인슈타인
269	Ireland	아일랜드
270	Ark	아크
271	Africa	아프리카
272	Amsterdam	암스테르담
273	Addison	애디슨
274	Arrow	애로우
275	Alice	앨리스
276	Albion	앨비언

277	Ulster	얼스터
278	Edmund	에드먼드
279	Edward	에드워드
280	Edwin	에드윈
281	Edith	에디스
282	Edington	에딩턴
283	Erasmus	에라스무스
284	esquire	에스콰이어
285	Espana	에스파냐
286	Edgehill	에지힐
287	Exeter	엑시터
288	End	엔드
289	Eleanor	엘리너
290	Elizabeth	엘리자베스
291	Empson	엠프슨
292	Jerusalem	예루살렘
293	Yeats	예이츠
294	Orleans	오를레앙
295	Oswald	오스월드
296	Oswiu	오스위
297	Austria	오스트리아
298	Austin	오스틴
299	Orwell	오웰
300	Osborne	오즈번
301	Orkney	오크니
302	Oakley	오클리
303	Ottawa	오타와
304	Oxbridge	옥스브리지
305	Oxford	옥스퍼드
306	York	요크
307	Yorkshire	요크셔
308	Washington	워싱턴
309	Wordsworth	워즈워스
310	Waterloo	워털루
311	West	웨스트
312	Westminster	웨스트민스터
313	Wesley	웨슬리
314	Weymouth	웨이머스
315	Wakefield	웨이크필드
316	Wales	웨일즈

317	Wexford	웍스퍼드
318	Wellington	웰링턴
319	William	윌리엄
320	Wilson	윌슨
321	Unitarians	유니테리언
322	euro	유로
323	euphuism	유티이즘
324	Innocent	이노센트
325	East	이스트
326	Italia	이탈리아
327	indulgence	인덜젠스
328	Indochina	인도차이나
329	Inverness	인버네스
330	enclosure	인클로저
331	inflation	인플레이션
332	England	잉글랜드
333	Jamaica	자메이카
334	Zanzibar	잔지바르
335	Zambia	잠비아
336	Jarrow	재로우
337	Jane	제인
338	James	제임스
339	Jamestown	제임스타운
340	Geoffrey	제프리
341	gentry	젠트리
342	Joyce	조이스
343	Joseph	조제프
344	George	조지
345	Zulu	줄루
346	Charles	찰스
347	Chatham	채텀
348	chaplain	채플린
349	Churchill	처칠
350	Chester	체스터
351	Chaucer	초서
352	Cardwell	카드웰
353	carta	카르타
354	Karl	카를
355	Caribbean	카리브
356	Cartwright	카트라이트

357	Catherine	카트린
358	Calvin	칼뱅
359	Caroline	캐럴라인
360	Carolina	캐롤라이나
361	Cavendish	캐븐디쉬
362	Canterbury	캔터베리
363	Calcutta	캘커타
364	Cambridge	케임브리지
365	Kent	켄트
366	cottager	코티저
367	Constantinus	콘스탄티누스
368	Cornwall	콘월
369	Columbus	콜럼버스
370	colonia	콜로니아
371	Colchester	콜체스터
372	Cromwell	크롬웰
373	Crimea	크리미아
374	cricket	크리켓
375	Clyde	클라이드
376	Club	클럽
377	Keats	키츠
378	kilt	킬트
379	turnpike	턴파이크
380	terror	테러
381	Tory	토리
382	Toynbee	토인비
383	Thomson	툼슨
384	Tudor	튜더
385	Panama	파나마
386	Parma	파르마
387	Paris	파리
388	Fascism	파시즘
389	pound	파운드
390	Palestine	팔레스타인
391	pop arts	팝아트
392	Public	퍼블릭
393	paternalism	퍼터널리즘
394	Pedro	페드로
395	Pale	페일
396	Fenland	펜랜드

397	Forest	포레스트
398	Formigny	포르미니
399	Portugal	포르투갈
400	Fawkes	포크스
401	Poland	폴란드
402	Puritan	퓨리턴
403	France	프랑스
404	franchise	프랜차이즈
405	Preston	프레스턴
406	Friedrich	프리드리히
407	Platonism	플라토니즘
408	Plymouth	플리머스
409	Pilgrim	필그림
410	Philippe	필리프
411	Howard	하워드
412	Hyde	하이드
413	Hamburg	함부르크
414	Harrison	해리슨
415	Hamilton	해밀턴
416	Hampshire	햄프셔
417	Huntington	헌팅턴
418	Hereford	헤리퍼드
419	Hague	헤이그
420	Haven	헤이븐
421	Henry	헨리
422	Holles	홀리스
423	Holstein	홀스타인
424	Hobbes	홉스
425	Hobson	홉슨
426	Hooker	후커
427	Hooper	후퍼
428	hooligan	홀리건
429	Whig	휘그
430	Hugh	휴
431	hippie	히피
432	Hilary	힐러리

[표 16]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영어-학술분야)

2)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오표기
1	Gwynedd	귀네드	그위네드
2	Globe	글로브	글로우브
3	Guinea	기니	기니아
4	Northampton	노샘프턴	노샘턴
5	Northamptonshire	노샘프턴셔	노샘턴셔
6	Norfolk	노퍽	노퍼크
7	Newark	뉴어크	뉴워크
8	Newcastle	뉴캐슬	뉴카슬
9	Dardanelles	다르데넬스	다다넬즈
10	Derby	더비	다비
11	Derbyshire	더비셔	다비셔
12	Douglas	더글러스	더글라스
13	Dickens	디킨스	디큰즈
14	Lambert	람베르트	램버트
15	Langley	랭글리	랭리
16	Lothian	로디언	로우디언
17	Lollards	롤러드	롤라드
18	Louisbourg	루이스버그	루이서버그
19	Maidstone	메이드스톤	메이드스턴
20	Boycott	보이콧	보이코트
21	Stonehenge	스톤헨지	스토운헨지
22	Edwards	에드워즈	애드워즈
23	Edgar	에드거	에드가
24	Eliot	엘리엇	엘리어트
25	yeoman	요먼	요우먼
26	Warwick	워릭	워리크
27	Warwickshire	워릭셔	워리크셔
28	Wessex	웨섹스	웨식스
29	gentleman	젠틀맨	젠틸먼
30	canton	칸턴	칸톤
31	college	칼리지	컬리지
32	Cumberland	컴벌랜드	컴벌런드
33	Collins	콜린스	콜린즈
34	Concord	콩코드	콩고드
35	Quebec	퀘벡	퀘베크
36	Thames	템스	템즈
37	Folk	퍽	포크
38	Harrow	해로	해로우
39	Hepburn	헵번	헵번

[표 17]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영어-학술분야)

2.1.3. 출판 분야

1)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1	guide	가이드
2	gay	게이
3	Gordon Ramsay	고든 램지
4	Gothic	고딕
5	Goldsmith	골드스미스
6	Gwynedd	귀네드
7	ground pass	그라운드 패스
8	graphic	그래픽
9	grand piano	그랜드 피아노
10	green	그린
11	glass	글라스
12	globe	글로브
13	Gloucester	글로스터
14	guitarist	기타리스트
15	Knightsbridge	나이츠브리지
16	nightingale	나이팅게일
17	narration	내레이션
18	national	내셔널
19	neon sign	네온사인
20	Nelson	넬슨
21	Norman Foster	노먼 포스터
22	Notting Hill Gate	노팅힐 게이트
23	knowhow	노하우
24	New York	뉴욕
25	Diana	다이애나
26	documentary	다큐멘터리
27	dandy	댄디
28	Damien Hirst	데미안 허스트
29	desk	데스크
30	David Beckham	데이비드 벅컴
31	decoration	데코레이션
32	drawing	드로잉
33	display	디스플레이
34	design	디자인
35	Lancaster	랭커스터
36	Russell	러셀

37	London Eye	런던 아이
38	Leicester	레스터
39	restaurant	레스토랑
40	lesbian	레즈비언
41	requiem	레퀴엠
42	road	로드
43	romantic	로맨틱
44	Romeo	로미오
45	Robert Taylor	로버트 테일러
46	lobby	로비
47	Royal Muse	로열 뮤즈
48	Royal Festival	로열 페스티벌
49	Lewis Carroll	루이스 캐럴
50	remote control	리모컨
51	Liverpool	리버풀
52	review	리뷰
53	Regent	리젠트
54	Richmond Park	리치먼드 파크
55	marshmallow	마시멜로
56	Marc Quinn	마크 퀸
57	Macbeth	맥베스
58	mansion	맨션
59	Manchester	맨체스터
60	Robert	로버트
61	muffler	머플러
62	multiplex	멀티플렉스
63	medal	메달
64	Maidstone	메이드스톤
65	metropolitan	메트로폴리탄
66	modernism	모더니즘
67	modern	모던
68	mode	모드
69	Moorgate	무어게이트
70	musical	뮤지컬
71	mystery	미스터리
72	millennium	밀레니엄
73	barbecue party	바비큐 파티
74	bandgroup	밴드그룹
75	bank	뱅크
76	bus station	버스 스테이션

77	Virginia Woolf	버지니아 울프
78	Buckingham	버킹엄
79	baker	베이커
80	bench	벤치
81	bodyguard	보디가드
82	bond	본드
83	Broadway	브로드웨이
84	brochure	브로슈어
85	bridge	브리지
86	blockbuster	블록버스터
87	blueberry jam	블루베리잼
88	Bloomsbury group	블룸즈버리 그룹
89	Vivian Leigh	비비안 리
90	The Beatles	비틀스
91	big match	빅 매치
92	Big Ben	빅 벤
93	big screen	빅 스크린
94	Victoria	빅토리아
95	Victoria Palace	빅토리아 팰리스
96	building	빌딩
97	Billy Elliot	빌리 엘리어트
98	South Fields	사우스 필즈
99	salami	살라미
100	sandwich	샌드위치
101	salad bar	샐러드바
102	Sharon Stone	샤론 스톤
103	sharp	샤프
104	Surrey	서리
105	circus	서커스
106	Circle Line	서클 라인
107	sunglass	선글라스
108	semi-state room	세미 스테이트 룸
109	St. James	세인트 제임스
110	St. George	세인트 조지
111	St. Paul	세인트 폴
112	section	섹션
113	sexy	섹시
114	center	센터
115	Central Line	센트럴 라인
116	shirts	셔츠

117	shutter	셔터
118	Sherlock Holmes	셜록 홈스
119	Shakespeare	셰익스피어
120	sausage	소시지
121	soprano	소프라노
122	Soho	소호
123	studio	슈튜디오
124	thriller	스릴러
125	Swiss Cottage	스위스 코티지
126	sketch	스케치
127	Scotland	스코틀랜드
128	style	스타일
129	staff	스태프
130	standing	스탠딩
131	Stirling	스털링
132	street	스트리트
133	spectacle	스펙터클
134	Spencer	스펜서
135	sports	스포츠
136	spoon	스푼
137	speaker	스피커
138	cynical	시니컬
139	Isaac Newton	아이작 뉴턴
140	icon	아이콘
141	Ireland	아일랜드
142	arch	아치
143	Academy	아카데미
144	arcade	아케이드
145	art director	아트 디렉터
146	artist	아티스트
147	Bristol	브리스틀
148	accent	악센트
149	abbey	애비
150	accessory	액세서리
151	antique	앤티크
152	Albert Bridge	앨버트 브리지
153	underground	언더그라운드
154	energy	에너지
155	Edward	에드워드
156	Edinburgh	에든버러

157	erotic	에로틱
158	Emily	에밀리
159	escalator	에스컬레이터
160	airconditioner	에어컨
161	ale	에일
162	audition	오디션
163	original	오리지널
164	Oyster Card	오이스터 카드
165	OK	오케이
166	opera	오페라
167	opening	오픈닝
168	off-line	오프라인
169	open	오픈
170	Oxford	옥스퍼드
171	on-line	온라인
172	wine shop	와인 숍
173	Waterloo	워털루
174	World Cup	월드컵
175	Wallace Collection	월리스 컬렉션
176	Walter Scott	월터 스콧
177	Westminster	웨스트민스터
178	Wayne Rooney	웨인 루니
179	Wales	웨일즈
180	Wellington	웰링턴
181	whisky	위스키
182	Windsor	윈저
183	William	윌리엄
184	William Wordsworth	윌리엄 워즈워드
185	Wimbledon Park Road	윌블던 파크 로드
186	uniform	유니폼
187	event	이벤트
188	Inverness	인버네스
189	interview	인터뷰
190	interior	인테리어
191	information	인포메이션
192	generation	제너레이션
193	Jamie Oliver	제이미 올리버
194	Jane Austen	제인 오스틴
195	Geffrye	제프리
196	Geoffrey Chaucer	제프리 초서

197	George Orwell	조지 오웰
198	zone	존
199	John Rich	존 리치
200	John Maynard Keynes	존 메이너드 케인스
201	jinx	징크스
202	Chinatown	차이나타운
203	Charles Dickens	찰스 디킨스
204	channel	채널
205	Churchill	처칠
206	Cheshire	체셔
207	Chelsea Bridge	첼시 브리지
208	Chelsea Physic Gardens	첼시 피직 가든
209	Caernarfon	카나번
210	camera	카메라
211	cartoon	카툰
212	carol	캐럴
213	caricature	캐리커처
214	canvas	캔버스
215	curriculum	커리큘럼
216	couple	커플
217	coffee	커피
218	color	컬러
219	collector	컬렉터
220	Kent	켄트
221	corner	코너
222	corduroy	코듀로이
223	comedy	코미디
224	course	코스
225	concert	콘서트
226	concept	콘셉트
227	Constantinople	콘스탄티노플
228	contents	콘텐츠
229	Colombia	콜롬비아
230	Christ Church College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
231	Christmas	크리스마스
232	club	클럽
233	clay court	클레이 코트
234	Tower Bridge	타워브리지
235	typewriter	타이프라이터
236	tap dance	탭댄스

237	tuxedo	턱시도
238	tungsten	텅스텐
239	terror	테러
240	Thema	테마
241	table	테이블
242	Tate Modern	테이트 모던
243	tent	텐트
244	Thames	템스
245	Tudor	튜더
246	tube	튜브
247	Travel Card	트래블 카드
248	Tracey Emin	트레이시 에민
249	trendy	트렌디
250	ticket	티켓
251	ticket shop	티켓 숍
252	teatime	티타임
253	pound	파운드
254	pipe organ	파이프 오르간
255	fine art	파인아트
256	panic	패닉
257	fashion	패션
258	fashion show	패션쇼
259	pamphlet	팸플릿
260	performance	퍼포먼스
261	punk	펑크
262	paint	페인트
263	force	포스
264	postmodernism	포스트모더니즘
265	pause	포즈
266	pocket	포켓
267	Paul McCartney	폴 매카트니
268	Pride London	프라이드 런던
269	project	프로젝트
270	princess	프린세스
271	flower	플라워
272	flat	플랫
273	platform	플랫폼
274	Piccadilly	피커딜리
275	Piccadilly Circus	피커딜리 서커스
276	Peter Pan	피터 팬

277	Philip	필립
278	Pink Floyd	핑크 플로이드
279	hard court	하드 코트
280	house	하우스
281	high	하이
282	Hyde	하이드
283	high-hill	하이힐
284	The Highlands	하일랜드
285	Hollywood	할리우드
286	hot dog	핫도그
287	handbag	핸드백
288	Hamlet	햄릿
289	Hampton	햄프턴
290	Harold Pinter	헤럴드 핀터
291	Handel	헨델
292	horse guard	호스 가드
293	hostel	호스텔
294	hotel	호텔
295	Whitechapel	화이트채플
296	white chocolate	화이트 초콜릿
297	White Cube	화이트 큐브
298	hip hop	힙합

[표 18]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영어-출판분야)

2)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오표기
1	Duncan	던컨	턴컨
2	Dominic	도미니크	도미닉
3	lobster	로브스터	랍스터
4	Margaret	마거릿	마가렛
5	Venus Williams	비너스 윌리엄스	비너스 윌리엄즈
6	Serena Williams	세레나 윌리엄스	세레나 윌리엄즈
7	suit	슈트	수트
8	suitcase	슈트케이스	수트케이스
9	state apartment	스테이트 아파트	스테이트 아파트먼트
10	outlet	아웃렛	아울렛
11	ironical	아이로니컬	아이러니컬
12	Anthony Salvin	앤터니 샬빈	앤소니 샬빈
13	Kate Winslet	케이트 윈즐릿	케이트 윈슬렛
14	Trafalgar	트라팔가르	트라팔가

[표 19]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영어-출판분야)

2.2. 독일어

	조사 건수(개)	오류 건수(개)	오류 비율(%)
기업	25	11	44.00
학술	27	7	25.92
출판	264	44	16.67
계	316	62	19.62

[표 20] 분야별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통계(독일어)

기업 분야와 학술, 출판 분야 등에서의 독일어권 외래어 표기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논쟁대상을 중심으로 표기 사례 유형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규범의 준수성

Philharmonie의 경우 현행 규정 “자음 앞의 [r]는 ‘으’를 붙여 적는다(제3장 2절 1항)”라는 내용에 따르면 ‘필하르모니’라고 적는 것이 맞다. 그런데 학술분야에서는 ‘필하모니’라고 표기하는데 이는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현상임이 틀림없다. 다만 그 배경에 원음에 가까운 표기를 하려는 의도가 있음은 이해가 된다. 이러한 유형으로 출판 분야에서 Merkur ‘멜쿠르’가 있다. 반대로 출판 분야에서 나타난 Garten ‘가르텐’, Wurst ‘부르스트’는 규정을 준수한 표기에 해당된다.

Boehringer Ingelheim이라는 제약회사의 경우 한글표기로 ‘베링거 인겔하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외래어 표기 용례의 표기 원칙>에서 “독일어에서 모음 또는 l 앞의 ng[ŋ]에는 ‘ㄱ’을 첨가하여 표기한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표기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사례는 출판 분야의 Sprengel ‘슈프렝겔’, Zwinger ‘츠빙거’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원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출판 분야의 표기 사례에서는 Göttingen을 ‘괴팅겐’ 대신 ‘괴팅엔’으로 표기한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외래어 표기 규정에서는 독일어 [ʃ]의 경우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는 ‘슈’로 적는다(제3장 2절 4항)”라는 규정이 있는데 자동차부품 및 전동공구 전문회사인 Bosch의 경우 현행 규정 표기인 ‘보슈’ 대신 원음에 가까운 ‘보쉬’를 한글 회사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Hirschgarten의 경우 출판 분야에서는 ‘히르슈가르텐’으로 표기하여 규정을 따르고 있다.

○ 독일어 원음의 반영

심리학자 Freud를 학술분야에서 ‘프로이드’라고 표기하고 있는 이는 ‘프로이트’에 대한 잘못된 표기이다. 독일어에서는 어말에 오는 , <d>, <g>의 경우 무성음화되어 [p], [t], [k]로 발음되는 특징이 있다. 이런 독일어 음운체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표기상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로 출판분야에서 Bad Godesberg ‘바드 고데스베르크’라는 사례가 있다.

이와 달리 출판 분야에서 Nürnberg ‘뉘른베르크’, Nymphenburg ‘뉘펜부르크’, Marienberg ‘마리엔베르크’, Niederwald ‘니더발트’, Augsberg ‘아우구스부르크’와 같은 지명은 원음을 반영하여 규정을 준수한 표기가 나타난다.

○ 영어식 발음 표기

대표적으로 독일의 은행 명칭인 Deutsche Bank를 해당 기업체는 현행 표기규정을 따른 ‘도이체뱅크’와 달리 ‘도이치뱅크’로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영어에서 [ʃ]의 경우 ‘치’로 표기하는 현상을 유추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학술분야에서 Schiller를 ‘실러’로 표기하는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Doppelgänger에 대한 표기로 학술분야에서는 ‘도플갱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도펠갱어’에 대한 잘못된 표기이다. 또한 출판 분야에서 Zone의 경우 ‘존’이라는 표기가 나오는데 이는 현행 표기법에 따르면 ‘초네’라고 해야 한다. 영어식 발음의 간섭 현상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출판 분야에서 Semperoper ‘셈퍼로퍼’라는 표기도 ‘젼퍼오퍼’를 잘못 발음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Eiszeit를 ‘아이즈자이트’라고 표기한 사례도 ‘아이스차이트’를 잘못 표기한 경우이다. 출판 분야에서 Oberwesel ‘오버베셀’, Zugspitze ‘죽스피제’ 등도 이와 같은 오류에 포함된다.

○ 장음표기

독일의 철학자 Nietzsche에 대한 표기를 학술분야에서는 ‘니체’로 표기하여 장음을 원칙적으로 표기하지 않는 현행 규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출판 분야 Chiemsee에서도 ‘킴제’로 표기함으로써 장음 표기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 된소리 표기

음악가 Mozart에 대한 표기도 학술분야에서는 ‘모차르트’로 표기함으로써 된소리 표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출판 분야에서도 Leipzig ‘라이프치히’, Residenz ‘레지덴츠’, Mainz ‘마인츠’, Weizenbier ‘바이첸비어’, Berg ‘베르크’등에서 된소리를 표기하지 않은 표기가 나타나고 있다.

2.2.1. 기업 분야

1)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대상 어휘	규범 표기
1	Lufthansa	루프트한자
2	MAN	만
3	BASF	바스프
4	Bertelsmann	베르텔스만
5	Schott	쇼트
6	adidas	아디다스
7	AEG	아에게
8	Audi	아우디
9	Allianz	알리안츠
10	Osram	오스람
11	OTTO	오토
12	Siemens	지멘스
13	Porsche	포르쉐
14	puma	푸마

[표 21]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독일어-기업분야)

2)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오표기
1	Guhring	구링	게링
2	Deutsche Bank	도이체뱅크	도이치뱅크
3	Mercedes-Benz	메르체데스-벤츠	메르세데스-벤츠
4	Bayer	바이어	바이엘
5	BoehringerIngelheim	뵐링어 잉겔하임	베링거 인겔하임
6	Bosch	보슈	보쉬
7	Wella	벨라	웰라
8	ThyssenKrupp	튀센크루프	티센크루프
9	Volkswagen	폴크스바겐	폭스바겐
10	Fresenius Kabi	프레제니우스 카비	프레지니우스 카비
11	Henkel	헥켈	헨켈

[표 22]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독일어-기업분야)

2.2.2. 학술 분야

1)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1	Genom	게놈
2	Gutenberg	구텐베르크
3	Neurose	노이로제
4	Nietzsche	니체
5	Röntgen	뢴트겐
6	Mozart	모차르트
7	Waldorf	발도르프
8	Arbeit	아르바이트
9	Eisen	아이젠
10	Allergie	알레르기
11	Ideologie	이데올로기
12	Seil	자일
13	Thema	테마
14	These	테제
15	Trauma	트라우마
16	Heidegger	하이데거
17	Halogen	할로겐
18	Hegemonie	헤게모니
19	Hof	호프
20	Hysterie	히스테리

[표 23]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독일어-학술분야)

2)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오표기
1	Doppelgänger	도펠갱어	도플갱어
2	Motiv	모티프	모티브
3	Schiller	실러	실러
4	Joghurt	요구르트	야쿠르트
5	Typhus	튀푸스	티푸스
6	Freud	프로이트	프로이드
7	Philharmonie	필하르모니	필하모니

[표 24]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독일어-학술분야)

2.2.3. 출판 분야

1)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1	Garten	가르텐
2	Gastehaus	가스테하우스
3	Gastsätze	가스트슈테테
4	Gasthaus	가스트하우스
5	Gasthof	가스트호프
6	Goethe	괴테
7	Göttingen	괴팅엔
8	Grosses Fass	그로세스 파스
9	Grünwald	그뤼네발트
10	Glockenspiel	글로켄슈필
11	Neckar	네카
12	Neckarzimmern	네카침머른
13	Neumünster	노이뮌스터
14	Neuschwanstein	노이슈반스타인
15	Neuer Wall	노이어 발
16	Neue Pinakothek	노이에 피나코테크
17	Neuenstein	노이엔슈타인
18	Neuhauser	노이하우저
19	Nürnberg	뉘른베르크
20	Niederwald	니더발트
21	Niederegger	니더에거
22	Nikolai	니콜라이
23	Nyphenburg	뉘펜부르크
24	Deusche Guggenheim	도이치 구겐하임
25	Dunkels	둔켈스
26	Düsseldorf	뒤셀도르프
27	Dresden	드레스덴
28	Drosselgasse	드로셀가쎄
29	Dinkelsbühl	딩켈스뵐
30	Rauchbier	라우흐비어
31	Reisewelt	라이제벨트
32	Leipzig	라이프치히
33	Rhein	라인
34	Rheinturm	라인투름
35	Ratzkeller	라츠크러
36	Ratstrinkstube	라트스트링크스투베

37	Lahn	란
38	Reeperbahn	래퍼반
39	Remagen	레마겐
40	Residenz	레지덴츠
41	Lenbach-Haus	렌바흐 하우스
42	Lorelei	로렐라이
43	Roseliushaus	로젤리우스 하우스
44	Rotenburg	로텐부르크
45	Roland	롤란트
46	Römerberg	뢰머베르크
47	Löwenbraukeller	뢰벤브로이켈러
48	Röntgen	뢴트겐
49	Luitpoldhain	루이트폴트하인
50	Ludwig Beck	루트비히 벡
51	Rüdesheim	뤼데스하임
52	Lübeck	뤼베크
53	Rickmer Rickmers	리크머 리크머스
54	Lichtenberg	리히텐베르크
55	Marienberg	마리엔베르크
56	Marienbrücke	마리엔브뤼케
57	Meistertrunk	마이스터트룽크
58	Mainz	마인츠
59	Maximilian	막시밀리안
60	Mannheim	만하임
61	Mediahafen	메디아하펜
62	Märchen	메르헨
63	Mensa	멘자
64	Mosbach	모스바흐
65	Mozarthaus	모차르트하우스
66	Mönkeberg	뮌케베르크
67	München	뮌헨
68	Mühlenhof	뮐렌호프
69	Mittenwald	미텐발트
70	Baden-Baden	바덴바덴
71	Warschteiner Pilsner	바르슈타이너 필스너
72	Bauhaus Archiv	바우하우스 아키브
73	Weizenbier	바이첸비어
74	Bamberg	밤베르크
75	Berg	베르크
76	Berggarten	베르크가르텐

77	Berchtesgaden	베르히테스가덴
78	Berliner Jazztage	베를리너 재즈타게
79	Berliner Festwochen	베를리너 페스트보헨
80	Berlinerweisse	베를리너바이세
81	Bebel	베벨
82	Beethovenhalle	베토벤 할레
83	Bellevue	벨레뷰
84	Bode	보데
85	Bockenheimer	보켄하이머
86	Boppard	보파르트
87	Bonn	본
88	Böttcher	뵘트허
89	Burg Maus	부르크 마우스
90	Burg Katz	부르크 카츠
91	Würzburg	뷔르츠부르크
92	Braubach	브라우바흐
93	Bremen	브레멘
94	Wiener Schnitzel	비너 슈니첼
95	Wismar	비스마르
96	Wilmersdorf	빌머스도르프
97	Charlottenburg	샤를로텐부르크
98	Schöneberg	췌네베르크
99	schütting	슈팅
100	Schildergasse	실더가췌
101	Schnutgen	슈누트겐
102	Schneeball	슈니발
103	Schwaben Brau	슈바벤 브로이
104	Schwabing	슈바빙
105	Schweinshaxe	슈바인스학세
106	Schwerin	슈베린
107	Schtadel	슈타델
108	Stasi	슈타지
109	Schtanberger	슈탄베르거
110	Stahleck	슈탈레크
111	Stuttgart	슈투트가르트
112	Spaten Gold	슈파텐 골트
113	Sprengel	슈프렝겔
114	Spitaler	슈피탈러
115	Schlachte	슐라흐테
116	Schlossgarten	슐로스가르텐

117	AGFA Photo-Historama	아그파 포토 히스토라마
118	Amalienburg	아말리엔부르크
119	Augustus	아우구스투스
120	Augustiner	아우구스티너
121	Auer Dult	아우어 뉘트
122	Augsburg	아우크스부르크
123	Autobahn	아우토반
124	Eisbein	아이스바인
125	Apfelwein	아펠바인
126	Antonstadt	안톤슈타트
127	Albertinum	알베르티눔
128	Alsterarkaden	알스터아르카덴
129	Alte Pinakothek	알테 피나코테크
130	Altmarkt	알트마르크트
131	Altbier	알트비어
132	Erotik	에로틱
133	Odeon	오데온
134	Oranienburger	오라닌부르거
135	Oberammergau	오버아머가우
136	Ost West	오스트 베스트
137	Europa Center	오이로파 센터
138	Oktoberfest	옥토버페스트
139	Ohringen	외링엔
140	Unter den Linden	운터 덴 린덴
141	Ulm	울름
142	Jugendgastehaus	유겐트 가스테 하우스
143	Jugendherberger	유겐트 헤르베르거
144	ICE	이체
145	Imbis	임비스
146	Sauerkraut	자우어크라우트
147	Zeil	자일
148	Sachsenhausen	작센하우젠
149	Zone	존
150	Süllberg	쉴베르크
151	Cecilienhof	체칠리엔호프
152	Zum Kaffeebaum	쑤름 카페바움
153	Zwinger	츠빙거
154	Chile Haus	칠레 하우스
155	Karneval	카니발
156	Kadewe	카데베

157	Kaub	카우브
158	Kaufhaus	카우프하우스
159	Kaiser-Wilhelm	카이저 빌헬름
160	Kaiserburg	카이저부르크
161	Karl Theodor	칼 테오도르
162	Commerzbank	코메르츠뱅크
163	Koblenz	코블렌츠
164	Kochbrunnen	코흐부룬넨
165	Konzerthaus	콘체르트하우스
166	Königstuhl	코니히슈톨
167	Köln	콜른
168	Kudamm	쿠담
169	Kurfürstendamm	쿠르퓌르스텐담
170	Kur Park	쿠어 파크
171	Kunsthalle	쿤스트할레
172	Kulturforum	쿨투어포름
173	Kreuzberg	크로이츠베르크
174	Kleinmarkthalle	클라인마르크트할레
175	Chiemsee	킴제
176	Tacheles	타헤레스
177	Tegelberg	테겔베르크
178	Theresienwiese	테레지엔비제
179	Tempelhof	템펠호프
180	Topographie des Terrors	토포그라피 데스 테러
181	Tübingen	튀빙엔
182	Trier	트리어
183	Tiergarten	티어가르텐
184	Pagodenburg	파고덴부르크
185	Palmengarten	팔멘가르텐
186	Pfalz	팔츠
187	Pergamon	페르가몬
188	Fernsehturm	페른제투름
189	Porta Nigra	포르타 니그라
190	Porta Praetoria	포르타 프라에토리아
191	Potsdam	포츠담
192	Portikus	포르티쿠스
193	Poppelsdorfer	포펠스도르퍼
194	Volkswagen	폴크스바겐
195	Fuggerei	푸거라이
196	Fürstenbau	퓌르스텐바우

197	Füssen	퓌센
198	Freiburg	프라이부르크
199	Frankfurt	프랑크푸르트
200	Frankfurter Wurst	프랑크푸르터 부르스트
201	Prenzlauer Berg	프렌츠라우어베르크
202	Privatzimmer	프리카트침머
203	Platzl	플라츨
204	Pilsner	필스너
205	Philharmonie	필하모니
206	Hagenbeck	하겐베크
207	Hanau	하나우
208	Hannover	하노버
209	Hameln	하멜른
210	Hauptwache	하우프트바헤
211	Heidelberg	하이델베르크
212	Heilbronn	하일브론
213	Handkäse mit Musik	한트케제 미트 무지크
214	Herberge	헤르베르게
215	Hertie	헤르티
216	Hellesbier	헬레스비어
217	Hofgarten	호프가르텐
218	Hofbrauhaus	호프브로이하우스
219	Holsten	홀스텐
220	Hirschgarten	히르슈가르텐

[표 25]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독일어-출판분야)

2)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오표기
1	Gänsemarkt	겐제마르크트	간제마르크트
2	Glythek	글리토테크	글립토테크
3	Dachau	다카우	다하우
4	Dortmunder Union Spezial	도르트문더 유니온 슈페치알	도르트문더 유니온 스페치알
5	Deutshces Eck	도이체스 에크	도이체스 에그
6	Dunkelsbier	둔켈스비어	둔켈스비어
7	Rattenfängerhaus	라텐퐁어하우스	라텐헝거하우스

8	Rothenburg ob der Tauber	로텐부르트 옴 데어 타우버	로텐부르크 오브 데어 타우버
9	Marktschreier	마르크트슈라이어	마르크트쉬라이어
10	Merkur	메르쿠어	멜쿠르
11	Bad Godesberg	바트 고데스베르크	바드 고데스베르크
12	Balding Tor	발딩 토어	발딩 토르
13	Blunnenkolonnaden	블룬넨콜론나덴	부른넨콜론나덴
14	Bungelösen	붕겔뢰젠	붕겔로젠
15	Brömserburg	브롬저부르크	브롬저부르그
16	Wiessenthurm	비센투름	비젠토름
17	Wilhelmshöhe	빌헬름스회에	빌헬름쇠헤
18	Scharspielhaus	샤우스필하우스	샤우스필하우스
19	Semperoper	젼퍼오퍼	젼퍼로퍼
20	Speicherstadt	슈파이허슈타트	슈파이셔슈타트
21	Auerbachs Keller	아우어바흐스 켈러	아우엘바흐스 켈러
22	Eisemer Steg	아이제머 스텝	아이젤너 스텝
23	Eiszeit	아이스차이트	아이즈자이트
24	Andernach	안데르나흐	안데르나하
25	Eschenheimer	에센하이머	에센하이머
26	Oberwesel	오버베젤	오버베셀
27	Jungfernstieg	용페른스티크	용페른스티그
28	Gendarmen Markt	겐다르멘 마르크트	젠다르멘 마르크트
29	Zugspitze	죽스피제	죽스피제
30	Zoologischer Garten	츨로기셔 가르텐	츨로기셔 가르텐
31	Kaiser Friedrich	카이저 프리드리히	카이서 프리드리히
32	Königstor	코니히스토어	코니히스토르
33	Kölschbier	콜시비어	콜슈비어
34	Klockenspiel	클로켄슈필	크로켄슈필
35	Torturm	토어투름	토르투름
36	Paula-Becker Modersohn haus	파울라베카 모데르존 하우스	파울라베카 모데르손 하우스
37	Pension	펜지온	펜시온
38	Frauen	프라우엔	푸라우엔
39	Fische Markt	피셰 마르크트	피슈 마르크트
40	Philippstraße	필립스뤼에	필립술뢰
41	Hackescher Markt	하케셔 마르크트	하케쉴 마르크트
42	Herrenhausen	헤렌하우젠	헬렌하우젠
43	Hohenschwangau	호엔슈방가우	호엔슈방가우
44	Hochzeitshaus	호흐차이트하우스	호흐차이트하우스

[표 26]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독일어-출판분야)

2.3. 프랑스어

	조사 건수(개)	오류 건수(개)	오류 비율(%)
기업	25	9	36.00
학술	38	35	92.11
출판	99	11	11.11
계	162	55	33.95

[표 27] 분야별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통계(프랑스어)

○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결과 분석 - 기업 분야

현행 외래어 표기법(프랑스어)의 활용 실태 조사 및 관찰을 위해 범위를 한정된 ‘기업’, ‘학술’, ‘출판’의 세 개 영역 중, ‘기업’과 관련하여, 프랑스어 팀은 2010년 10월을 기점으로 주한 혹은 주불에 관계없이 무작위 방법으로 기업의 공식 홈페이지를 검색 및 조회하여 데이터를 수합, 산출하였다. 그 결과, 총 26 개의 프랑스어로 된 기업명을 조사할 수 있었고, 그 중 10 개가 한국 외래어 표기법에 의한 표기와 기업 자체에 의한 표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표에서 숫자 2 로 표시된 기업명들)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약 38.4% 이상의 비율로 과반수에 미치지 않는다.

한국 외래어 표기법에 의한 표기와 기업 자체에 의한 표기가 서로 일치하는 기업명들의 특징을 말하자면, 항상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지만, 기업의 대외적인 규모(세계적인가 국내 자생기업인가 등)가 크거나 동종업계 기업들 중 위상이 높은 경우에 기업 명칭의 한글 표기가 표기법이 정하는 규정을 되도록 준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샤넬, BNP 파리바, 디올, 로레알, 르노, 라 코스테 등의 기업명은 기업의 규모 및 대외적 위상이 높아 그 노출도와 인지도 또한 함께 높은 경우의 예들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국내 자생기업보다는 프랑스 혹은 다국적 운영기업과 같이 외국계열 기업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단, 파리 바게트의 경우 국내 자생기업으로 표기법을 준수하고 있는데, 그 명칭이 이미 상당부분 노출되고 인지된 ‘파리’와 ‘바게트’라는 두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서 기업은 소비자들의 보다 나은 선호도를 끌어내고 접근 용이성을 추구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예로 파리 바게트와 동종업계에 속하며 역시 국내 자생기업인 ‘Tous les jours’는 표기법을 준수한 ‘투 레 주르’보다 프랑스어 원음에 가까운 ‘뚜레쥬르’를 기업명으로 선택한 것이 흥미롭다. 실제로 경쟁관계에 있는 두 기업의 국내 점포 점유율만 보아도 ‘파리 바게트’가 ‘뚜레쥬르’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대상 어휘	자체 한글 표기	규범 표기	일치여부
Cardif	카디프	카르디프	불일치
LIBRA Conseils	리브라 콩세이	리브라 콩세유	불일치
BluebellKorea	블루벨 코리아	블루벨 코리아	불일치
Société Générale	소시에테 제네랄	소시에테 제네랄	불일치

bioMérieux <i>Korea</i>	비오메리외 코리아	비오메리외 코리아	불일치
Le Cordon Bleu	르 꼬르동 블루	르 코르동 블루	불일치
La Redoute	라흐두뜨	라르두뜨	불일치
Le coq sportif	르 꼬크 스포르티프	르 코크 스포르티프	불일치
Tous les jours	뚜레쥬르	투 레 주르	불일치
Loccitane	룩시땅	룩시탄	불일치
Lacoste	라코스테	라코스테	일치
Avène	아벤느	아벤느	일치
Dior	디올	디올	일치
L'Oréal	로레알	로레알	일치
Novotel <i>Ambassador</i>	노보텔 앰배서더	노보텔 앰배서더	일치
Hermès	에르메스	에르메스	일치
Renault	르노	르노	일치
Paris Baguette	파리 바게트	파리 바게트	일치
S.T Dupont	에스.티.듀퐁	에스.티.듀퐁	일치
Rhodia	로디아	로디아	일치
Parafe	파라프	파라프	일치
Chanel	샤넬	샤넬	일치
BNP Paribas	BNP 파리바	BNP 파리바	일치
Uriage	유리아쥬	유리아쥬	일치
Mustela	무스텔라	무스텔라	일치

○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결과 분석 - 학술 분야

현행 외래어 표기법(프랑스어)의 활용 실태 조사 및 관찰을 위해 범위를 한정된 ‘기업’, ‘학술’, ‘출판’의 세 개 영역 중, 두 번째 학술 분야의 외래어 표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우리는 전문요리 책자 [프랑스요리 기초 이론(라정기, 1994)]을 선택하였다. 본 도서를 학술 도서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본 저서의 저자가 프랑스 요리전문 학교에서 수학한 전문 경험과 언어 지식을 바탕으로 집필하였을 뿐 아니다. 저서의 내용 또한 단지 레시피를 소개하는 차원이 아니라 프랑스 요리 설비 및 도구부터 기술, 재료 다루기 등 국내 관련 대학이나 사설 요리기관에서 실제 교재로 삼고 있는 도서이다. 프랑스어 팀은 저서 안의 외래어 표기 용례를 무작위 방법으로 총 38 개의 단어를 추려내어, 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래어 표기법에 의한 표기와 도서 저자 자체에 의한 표기가 서로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표의 가장 오른쪽 기둥에 일치하는 경우는 숫자 1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숫자 2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관찰 결과는 일치하는 경우(1)가 약 7.9%(총 38 개 중 단 3 개) 일치하지 않는 경우 (2)보다 그 수치가 월등히 낮았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국내 요리분야의 특성상 외래어 유입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제한이 덜하고, 특히 영어의 점유율이 월등하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프랑스 요리를 소개하는 책자임에도 불구하고, 읽는 이들의 이해력을 위해 프랑스어가 아닌 (이미 외국어처럼 자리 잡은) 영어로 표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저자 또한 저서 안에서 프랑스어와 영어를 혼

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 몇 가지 실례가 표의 특별히 노란색으로 표시한 단어들이다. 이 단어들은 이미 영어가 국어의 외국어로 자리 잡아 굳이 프랑스로 표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다.

특별히 표기법과 저자 자체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정도(약 92.1%)가 일치하는 정도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나머지 다른 연구 분야(기업, 출판)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그야말로 학술과 관련된 전문서적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저자의 주장이 가장 존중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게다가 실제로 한국어에는 없는 프랑스 요리재료 및 요리행위들을 한글로 표기 하는데 있어서 현지에서 수학한 저자가 표기법에 의한 표기보다 원음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대상 어휘	자체 한글 표기	규범 표기	일치여부
noisette	느와제트	누아제트	불일치
soupe	쑤	수프	불일치
riz	리	리	불일치
saignant	세냥앙	세냥	불일치
griller	그리이에	그리이에	불일치
saumon fumé	쏘몽퐁메	소몽퐁메	불일치
gratin	그라땡/ 그레땡	그라탕	불일치
épice	에삐스	에피스	불일치
hors-d' œuvre	오-되브르	오르되브르	불일치
fromage	프로마쥐	프로마주	불일치
lentilles	랑띠이이/랑띠이	랑티유	불일치
ratatouille	라따뚜이이	라타투유	불일치
foie gras	프와그라	푸아그라	불일치
mousse	무쓰	무스	불일치
jus	쥬	주	불일치
chef	셰프	세프	불일치
fondue	퐁뒤	퐁듀	불일치
brocolis	브로콜리	브로콜리	불일치
artichaut	아띠쇼	아티쇼	불일치
pâté	빠떼	파테	불일치
essences	에썩스	에센스	불일치
purée	뿌레	퐁레	불일치
potage	뽀따쥐	포타주	불일치
fourchette	푹쉐뜨	푸르세트	불일치
veloutés	벨루떼	벨루데	불일치
croûton	크루똥	크루통	불일치
crème	크렘	크렘	불일치
pot au feu	뽀 또 뽀	포토펬	불일치
tartare	따따르	타르타르	불일치
coq au vin	꼬크 오 뵁	코코뱅	불일치
beurre	뵈르	버터	불일치
cumin	퀴멩	커민	불일치
oignon	오뉴옹	어니언/ 오니언	불일치
salade	살라드	샐러드	불일치
amande	아망드	아몬드	불일치
consommés	콩쏘메	콩소메	일치
œuf	어프/ 어	외프	일치
crêpe	크레프	크레프	일치

* 이탤릭체 - 영어식 표기 선호

○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결과 분석 - 출판 분야

현행 외래어 표기법(프랑스어)의 활용 실태 조사 및 관찰을 위해 범위를 한정된 ‘기업’, ‘학술’, ‘출판’의 세 개 영역 중, 두 번째 학술 분야의 외래어 표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우리는 프랑스 관광 책자 [프랑스,2003,박성아; 광정란 공저, 삼성출판사]와 [PARIS 100배 즐기기, 2009, 홍연주/홍수연, 랜덤하우스코리아(주)]을 선택하였다. 외래어 표기규범 실태조사를 위해 각 언어권별로 출판 분야에서 관광 책자를 선택하게 된 것은 이것이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화되어 있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관광 책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최근 2000년대 이후에 출간이 된 책을 선정하려 했으며, 거의 같은 어휘와 관광명소들의 설명이 들어있는 두 책을 비교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려 노력하였다. 프랑스어 팀은 저서 안의 외래어 표기 용례를 두 책에서 모두 언급되는 경우를 최대한 고려해 총 100 개의 단어를 선정하여 외래어 표기 규범과의 일치 여부를 표시하여 정리해보았다.

또한 일치 여부를 떠나 참고를 통해 몇몇 용례들에 대한 더 적절한 표기를 제시한 아래의 경우들을 통해 외래어 표기 규범에 있어 문제시되는 몇몇 쟁점을 살펴볼 수 있다.

1. [souffle, tasse]의 경우 마지막에 오는 모음의 발음을 하지 않는 프랑스어의 발음 규정을 무시한 결과 원음과 떨어진 발음이 오는 경우로 들 수 있다.

대상 어휘	자체 한글 표기	규범 표기	일치여부	참고
tasse	타세	타스	불일치	따스
Souffle	수플레	수플르	불일치	수플르

2. [SR store, carnet, carrousel, les cars rouges, Palais Royal, rue de Commerce]의 경우 R의 발음의 특유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L과 같은 [리] 발음을 쓴 결과 원음과 떨어진 경우이다.

대상 어휘	자체 한글 표기	규범 표기	일치여부	참고
SR store	에스 알 스토어	에스 알 스토르	일치	에스 에흐 스토어
Palais Royal	루아얄 궁전	루얄 궁정	불일치	호얄
Carnet	카르네	카르네	일치	까흐네
Carrousel	카루젤	카루젤	일치	까후젤
Les cars Rouges	레카루주	레카루주	일치	레까후즈
Rue de Commerce	코메르스 거리	코메르스 거리	일치	꼬메흐스 거리

3. [Tours, Coq au Vin, Ateliers, couteau, Pont neuf] 의 경우는 된소리 표기를 할 경우 원음에 더 가까워지는 예들이라 할 수 있다.

대상 어휘	자체 한글 표기	규범 표기	일치 여부	참고
Tours	투르	투르	일치	뚜르
Coq au Vin	콕 오뱅	콕 오뱅	일치	꼬꼬뱅
Atelier	아틀리에	아틀리에	일치	아뜰리에
couteau	쿠토	쿠토	일치	꾸또
Pont neuf	퐁네프	퐁네프	일치	뽕네프

4. 마지막으로 [Boulevard de la Croisette] 의 경우 외래어 표기 규범과 일치를 하나 참고로 제언을 한 것은 프랑스어 표기 세칙 중 [w]를 ‘우’ 로 표기하는 세칙과 R 발음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을 보충한 표기이다.

대상 어휘	자체 한글 표기	규범 표기	일치 여부	참고
Boulevard de la Croisette	크루아제트 거리	크루아제트 거리	일치	크화제뜨

이러한 쟁점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결과적으로 외래어 표기 규범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는 관광 명소의 소개가 대부분인 관광 책자의 경우는 기업이나 학술 분야와 달리 11개의 불일치 용례를 제외하고 거의 90% 에 가까운 높은 비율로 외래어 표기 규범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명과 관광 명소가 대부분인 관광 책자의 특징과 출판업계의 외래어 표기 규범 준수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대상 어휘	자체 한글 표기	규범 표기	일치 여부	참고
Conciergerie	콩시에르주리	콩시에르주리	일치	
Pont neuf	퐁네프	퐁네프	일치	뽕네프
Cartier Latin	카르티에라탱	카르티에라탱	일치	
St-Sulpice	생쉴피스	생쉴피스	일치	
Delacroix(Musée)	들라크루아	들라크루아	일치	
Batobus	바토뷔스	바토뷔스	일치	
Les cars Rouges	레카루주	레카루주	일치	레까후즈
Invalides	앵발리드	앵발리드	일치	
Palais de Chaillot	샤이요궁전	샤요 궁정	불일치	
Panthéon	팡테옹	팡테옹	일치	
Palais Royal	루아얄 궁전	루알 궁정	불일치	호얄

Place de la Concorde	콩코르드 광장	콩코르드 광장	일치	
Avenue Montaigne	몽테뉴 거리	몽테뉴	일치	
Grand Palais	그랑 팔레	그랑 팔레	일치	
Montmartre	몽마르뜨르	몽마르뜨르	일치	
Sacré-Coeur	사크레퇴르	사크레퇴르	일치	
Moulin Rouge	물랭 루주	물랭 루주	일치	
Place de la Bastille	바스티유 광장	바스티유 광장	일치	
Place des Vosges	보주 광장	보주 광장	일치	
Centre Georges Pompidou	퐁피두 센터	퐁피두 센터	일치	
La Défence	라데팡스	라데팡스	일치	
La Grande Arche	라 그랑드 아르슈	라 그랑드 아르슈	일치	
Montparnasse	몽파르나스	몽파르나스	일치	
Catacombs	카타콤브	카타콤브	일치	
Galleries Lafayette	갈러리 라파예트	갈러리 라파예트	일치	갈러리 라파예트
Printemps	프랭탕	프랭탕	일치	
Bon Marché	봉 마르셰	봉 마르셰	일치	
Forum des Halles	포럼 데 알	포럼 데 알	일치	
Chantilly	샹티이	샹티이	일치	
Radio France Salle Oliver Mesiiian	라디오 프랑스 잘 올리베르 메시앙	라디오 프랑스 살 올리베르 메시앙	불일치	
Versailles	베르사유	베르사유	일치	
Fontainebleau	퐁텐블로	퐁텐블로	일치	
Barbizon	바르비종	바르비종	일치	
Giverny	지베르니	지베르니	일치	
Mont-Saint-Michel	몽생미셸	몽생미셸	일치	
Tours	투르	투르	일치	뚜르
Place Plumereau	플뤼므로 광장	플뤼므로 광장	일치	
Rue de Commerce	코메르스 거리	코메르스 거리	일치	꼬메흐스 거리
Musée de l'Orangerie	오랑주리 박물관	오랑즈리 박물관	일치	
Rue de Buci	뷔시거리	뷔시거리	일치	
La Merveille	라 메르베유	라 메르베유	일치	
Fondation Maeght	마그 재단 (미술관)	마그 재단(미술관)	일치	
Boulevard de la Croisette	크루아제트 거리	크루아제트 거리	일치	크화제뜨
Mont Chevalier	슈발리에 산	슈발리에 산	일치	
Avignon	아비뇽	아비뇽	일치	
Cour Jean Jaurés	장죄레 대로	장조레 대로	불일치	
Place de l'Horloge	오를로주 광장	오를로주 광장	일치	
Rue Voltaire	볼테르 거리	볼테르 거리	일치	
Pont de Trinquetaille	트랭크타유 다리	트랭크타유 거리	일치	

Le Train Bleu	르 트랭 블루	르 트랭 블루	일치	
Luxembourg	뤽상부르	뤽상부르	일치	
Noctambus	녹탕뷔스	녹탕뷔스	일치	
Étoile	에투알	에투알	일치	에뚜알
Azais	아제	아제	일치	
Tertre	테르트르	테르트르	일치	
Saules	쉴르	술르	불일치	
Agile	아질	아질	일치	
Carnaulet	카르나발레	카르나발레	일치	까르나발레
La Villette	라빌레트	라빌레트	일치	
Père-Lachaise	페르 라셰즈	페르 라셰즈	일치	
Jacquemart-André	자크마르 앙드레	자크마르 앙드레	일치	
Marmottan	마르모탕	마르모탕	일치	
Bourdelle	부르델	부르델	일치	
Edith Piaf	에디트 피아프	에디트 피아프	일치	
Allard	알라르	알라르	일치	
Escargots	에스카르고	에스카르고	일치	
Foie Gras	푸아그라	프아그라	일치	
Cassoulet	카술레	카술레	일치	
Coq au Vin	콕 오뱅	콕 오뱅	일치	꼬꼬뱅
Souffle	수플레	수플르	불일치	수플르
Diane	다이애나	디안	불일치	
Apollon	아폴론	아폴론	일치	
Atelier	아틀리에	아틀리에	일치	아뜰리에
Rennes	렌	렌	일치	
Blois	블루아	블루아	일치	
Chambord	상보르	상보르	일치	
Carnet	카르네	카르네	일치	까흐네
Carrousel	카루젤	카루젤	일치	까후젤
Tuileries	튀일리	튀일리	일치	
Mitterand	미테랑	미테랑	일치	
tasse	타세	타스	불일치	따스
paille	파이외	파이외	일치	
couteau	쿠토	쿠토	일치	꾸또
Chez Paul	쉐 폴	쉐 폴	일치	
Ladurée	라뒤레	라뒤레	일치	
Chenonceau	쉬농소	쉬농소	일치	
Vendôme	방돔	방돔	일치	
SR store	에스 알 스토어	에스 알 스토르	일치	에스에흐스뚜어
métro	메트로	메트로	일치	
Cité	시테	시테	일치	
Cluny	클뤼니	클뤼니	일치	
Poilane	푸알란	푸알란	일치	
casino	카지노	카지노	일치	
Porte Maillot	포르트 마이요	포르트 마요	불일치	
Sorbonne	소르본	소르본	일치	
Rive Droite	리브드루아	리브드뤼트	불일치	
Grand Trianon	그랑 트리아농	그랑 트리아농	일치	
Petit Trianon	프티 트리아농	프티 트리아농	일치	
Forun	포랭	포렁	불일치	

2.3.1. 기업 분야

1)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1	BNP Paribas	BNP 파리바
2	Novotel <i>Ambassador</i>	노보텔 앰배서더
3	Dior	디올
4	Lacoste	라코스테
5	Rhodia	로디아
6	L'Oréal	로레알
7	Loccitane	룩시땅
8	Renault	르노
9	Mustela	무스텔라
10	Chanel	샤넬
11	Avène	아벤느
12	Hermès	에르메스
13	S.T Dupont	에스.티.듀퐁
14	Uriage	유리아쥬
15	Parafe	파라프
16	Paris Baguette	파리 바게트

[표 28]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프랑스어-기업분야)

2)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오표기
1	Tous les jours	투 레 주르	뚜레쥬르
2	La Redoute	라르두트	라흐두뜨
3	Le Cordon Bleu	르 코르동 블루	르 꼬르동 블루
4	Le coq sportif	르 코크 스포르티프	르 꼬크 스포르티프
5	LIBRA Conseils	리브라 콩세유	리브라 콩세이
6	Bluebell <i>Korea</i>	블루벨 코리아	부루벨 코리아
7	bioMérieux <i>Korea</i>	비오메리외 코리아	비오메리외 코리아
8	Société Générale	소시에테 제네랄	소시에떼 제네랄
9	Cardif	카르디프	카디프

[표 29]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프랑스어-기업분야)

2.3.2. 학술 분야

1)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1	riz	리
2	crêpe	크레프
3	crème	크렘

[표 30]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프랑스어-학술분야)

2)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오표기
1	gratin	그라탱	그라땡/ 그레땡
2	griller	그리이에	그리이에
3	coq au vin	코코뱅	꼬크 오 뱅
4	consommés	콩소메	공소메
5	cumin	커민	귀멩
6	noisette	누아제트	느와제트
7	tartare	타르타르	딱따르
8	ratatouille	라타투유	라따뚜이이
9	lentilles	랑티유	랑띠이이/랑띠이
10	mousse	무스	무쓰
11	veloutés	벨루테	벌루떼
12	beurre	버터	보르
13	brocolis	브로콜리	브로꼴리
14	pâté	파테	빠떼
15	pot au feu	포토피	뽀 또 피
16	potage	포타주	뽀따쥬
17	purée	튀레	뽀레
18	soupe	수프	쑤
19	chef	셰프	쎄프
20	salade	샐러드	쌀라드
21	saignant	세냥	세냥양
22	saumon fumé	소몽퐁메	쏘몽퐁메
23	artichaut	아티쇼	아띠쇼
24	amande	아몬드	아망드
25	œuf	외프	어프/ 어
26	épice	에피스	에삐스
27	essences	에센스	에쌩스

28	oignon	어니언/ 오니언	오뉴옹
29	hors-d'œuvre	오르되브르	오-되브르
30	jus	주	쥬
31	croûton	크루통	크루퐁
32	fondue	퐁듀	퐁뒤
33	fourchette	푸르셰트	푹셰뜨
34	fromage	프로마주	프로마쥬
35	foie gras	푸아그라	프와그라

[표 31]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프랑스어-학술분야)

2.3.3. 출판 분야

1)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연번	대상 어휘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표기
1	Galleries Lafayette	갈르리 라파예트
2	Grand Trianon	그랑 트리아농
3	Grand Palais	그랑 팔레
4	Noctambus	녹탕뷔스
5	(Musée) Delacroix	들라크루아
6	La Grande Arche	라 그랑드 아르슈
7	La Merveille	라 메르베유
8	La Défence	라데팡스
9	Ladurée	라뒤레
10	La Villette	라빌레트
11	Les cars Rouges	레카루주
12	Rennes	렌
13	Luxembourg	뤽상부르
14	Le Train Bleu	르 트랭 블루
15	Fondation Maeght	마그 재단(미술관)
16	Marmottan	마르보탕
17	métro	메트로
18	Montmartre	몽마르트르
19	Mont-Saint-Michel	몽생미셸
20	Avenue Montaigne	몽테뉴
21	Montparnasse	몽파르나스
22	Moulin Rouge	물랭 루주
23	Mitterand	미테랑
24	Barbizon	바르비종
25	Place de la Bastille	바스티유 광장
26	Batobus	바토뷔스

27	Vendôme	방돔
28	Versailles	베르사유
29	Place des Vosges	보주 광장
30	Rue Voltaire	볼테르 거리
31	Bon Marché	봉 마르셰
32	Bourdelle	부르델
33	Rue de Buci	뷔시거리
34	Blois	블루아
35	Sacré-Coeur	사크레귀르
36	St-Sulpice	생쉴피스
37	Chambord	상보르
38	Chantilly	상티이
39	Sorbonne	소르본
40	Chez Paul	췌 폴
41	Chenonceau	쉬농소
42	Mont Chevalier	슈발리에 산
43	Cité	시테
44	Avignon	아비뇽
45	Azais	아제
46	Agile	아질
47	Atelier	아틀리에
48	Apollon	아폴론
49	Allard	알라르
50	Invalides	앵발리드
51	Edith Piaf	에디트 피아프
52	SR store	에스 알 스토르
53	Escargots	에스카르고
54	Étoile	에투알
55	Musée de l'Orangerie	오랑즈리 박물관
56	Place de l'Horloge	오를로주 광장
57	Jacquemart-André	자크마르 앙드레
58	Giverny	지베르니
59	Carrusel	카루젤
60	Carnavalet	카르나발레
61	Carnet	카르네
62	Cartier Latin	카르티에라탱
63	Cassoulet	카술레
64	casino	카지노
65	Catacombs	카타콤브
66	Rue de Commerce	코메르스 거리

67	Coq au Vin	콕 오뱅
68	Conciergerie	콩시에르주리
69	Place de la Concorde	콩코르드 광장
70	couteau	쿠토
71	Boulevard de la Croisette	크루아제트 거리
72	Cluny	클뤼니
73	Tertre	테르트르
74	Tours	투르
75	Tuileries	틸리리
76	Pont de Trinquetaille	트랭크타유 거리
77	paille	파이오
78	Panthéon	판테옹
79	Père-Lachaise	페르 라세즈
80	Forum des Halles	포럼 데 알
81	Pont neuf	퐁네프
82	Fontainebleau	퐁텐블로
83	Centre Georges Pompidou	퐁피두 센터
84	Foie Gras	프아그라
85	Poilane	푸알란
86	Printemps	프랭탕
87	Petit Trianon	프티 트리아농
88	Place Plumereau	플뤼므로 광장

[표 32]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프랑스어-출판분야)

2)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오표기
1	Diane	디안	다이애나
2	Radio France Salle Oliver Mesiiian	라디오 프랑스 살 올리베르 메시앙	라디오 프랑스 잘 올리베르 메시앙
3	Palais Royal	루알 궁정	루아알 궁전
4	Rive Droite	리브드라트	리브드루아
5	Palais de Chaillot	샤요 궁정	샤이요궁전
6	Saules	솔르	쉴르
7	Souffle	수플르	수플레
8	Cour Jean Jaurés	장조레 대로	장죄레 대로
9	tasse	타스	타세
10	Forun	포렁	포랭
11	Porte Maillot	포르트 마요	포르트 마이요

[표 33]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프랑스어-출판분야)

2.4. 에스파냐어

	조사 건수(개)	오류 건수(개)	오류 비율(%)
기업	35	20	57.14
학술	54	54	100
출판	247	232	93.93
계	336	306	91.07

[표 34] 분야별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통계(에스파냐어)

에스파냐어 표기 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의 경우 외래어 표기 규범에 맞는 표기를 따르고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처럼 외래어 표기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표기의 경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 된소리 표기

외래어 표기 규범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외래어를 표기할 때 된소리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파냐어의 파열음은 'ㄸ, ㅌ, ㅌ' 대신 'ㄷ, ㅌ, ㅋ'로 표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상호와 기업명에 에스파냐어가 사용될 때 거센소리 대신 된소리를 쓰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특히 에스파냐어 전공자의 경우, 여행 책자나 번역서에 지명이나 인명, 또는 일반명사를 한글로 표기할 때 원지음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거센소리 대신 된소리로 표기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는 한국어에 엄연히 존재하는 겹자음을 사용한 것으로서 에스파냐어 원음을 존중한 표기 방식이지만, 실제 외래어 표기 규범에는 어긋난다. 그러나 겹자음을 허용함으로써 에스파냐어의 실제 발음에 가장 가깝게 표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이중표기에 따른 대중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된소리 표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직하다.

예) 현 표기 > 외래어표기법에 따른 표기

까르네 스테이션>카르네 스테이션(Carne Station), 까사 로까>카사 로카(Casa Loca), 까사 미아>카사 미아(Casa Mía), 까사 로사>카사 로사(Casa Rosa), 엘 꼬르떼 잉글레스>엘 코르테 잉글레스(El Corte Inglés), 아반떼>아반테(Avante), 씨에로>시엘로(Cielo), 아망떼>아만테(Amante), 또띠야>토르티야(Tortilla), 빠에야>파에야(Paella) 등

○ 영어의 영향

몇몇 에스파냐어 단어들은 영미권을 통해 전해져 영어식 발음으로 표기되고 있다. 실제 에스파

냐어에서 철자 'z'는 '스'으로 표기되어야 하고 'h'는 묵음으로 발음되지 않으며, 'll'는 뒤에 모음 'a,o,u'가 뒤따를 때 '야, 요, 유'와 같이 표기된다고 표기법 상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용례에서는 'z'가 영어처럼 '즈'으로 표기되거나 'h'는 'ㅎ'으로 표기되고, 'll'는 '르'로 표기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에스파냐어와 영어가 알파벳이라는 철자를 공통으로 사용하고는 있으나 발음은 상이하므로, 이처럼 영어식으로 일괄적으로 표기할 경우 에스파냐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예) 현 표기 > 외래어표기법에 따른 표기

자라>사라(Zara), 마티즈>마티스(Matiz), 티뷰론>티부론(Tiburón), 베라크루즈>베라크루스(Veracruz), 하바나>아바나(Habana), 라마>야마(llama), 퀘사딜라>케사디아(Quesadilla), 인터불고>인테르부르고(Interburgo) 등

○ 잘못된 표기

에스파냐어 단어들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를 통해 국내에 먼저 전해지는 등의 이유로 인해 대중의 언어습관에서 오인지형이 굳어져 규정에 맞지 않는 잘못된 표기를 보이는 사례들이 있다. 이들 사례의 경우 영어의 영향으로 단정 짓기 어려우며, 무슨 이유에서인지 외래어표기법에 맞지 않는 표기형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 한번 정해지고 나면 다시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처음에 대중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외래어 표기를 얼마나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들이라고 하겠다.

예) 현 표기> 외래어표기법에 따른 표기

산 미구엘>산 미겔(San Miguel), 데킬라>테킬라(Tequila), 하몽>하몬(Jamón), 아망테/아망떼>아만테(Amante), चुपाचुप्स>추파츄프스(Chupa Chups), 프라자>플라사(Plaza), 후라밍고/플라밍고>플라멩코(Flamenco), 씨에로>시엘로(Cielo), 후투로>푸투로(Futuro)

2.4.1. 기업 분야

1)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1	Casa Blanca	카사 블랑카
2	Miel	미엘
3	Damas	다마스
4	Dios	디오스
5	Libro	리브로
6	Río	리오
7	Mango	망고
8	BancoSantander	방코 산탄데르
9	Bodega	보데가
10	Santa Fe	산타페
11	Amiga	아미가
12	Espero	에스페로
13	Corona	코로나
14	Toda Cosa	토다 코사
15	Tico	티코

[표 35]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에스파냐어-기업분야)

2)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오표기
1	CarneStation	카르네 스테이션	까르네 스테이션
2	Casa mía	카사 미아	까사 미아
3	Trivento	트리벤토	뜨리벤또
4	Esteban	에스테반	에스테반
5	Chupa Chups	추파츨스	츄파츨스
6	Camper	캠퍼	깜빠르
7	Borges	보르헤스	보르제스
8	el camino	엘카미노	엘까미노
9	Tiburón	티부론	티뷰론
10	Tequila	테킬라	데킬라, 테킬라
11	Matiz	마티스	마티즈
12	BanaMex	바나멕스	배너멕스
13	Veracruz	베라크루스	베라크루즈
14	San Miguel	산 미겔	산 미구엘
15	Cielo	시엘로	씨에로

16	Amante	아만테	아망떼
17	Avante	아반테	아반떼
18	ElCorteInglés	엘 코르테 잉글레스	엘 꼬르떼 잉글레스
19	Zara	사라	자라
20	Plaza	플라자	프라자

[표 36]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에스파냐어-기업분야)

2.4.2. 학술 분야

1)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 조사 범위 내에서는 발견되지 않음.

2)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오표기
1	González, Felipe	곤살레스, 펠리페	곤살레스, 펠리빠
2	Castro-Ruz, Fidel	카스트로 루스, 피델	까 스프로 루스, 피델
3	Caputo, Dante	카푸토, 단테	까뿌또, 단떼
4	Colón, Cristóbal	콜론, 크리스토팔	꼴론, 끄리스또발
5	Dominic	도미니크	도미니꼬
6	Duarte, José Napoleón	두아르테, 호세 나폴레온	두아르떼, 호세 나뽄레온
7	Teran, Edgar	테란, 에드가르	떼란, 에드가르
8	Terry, Fernando Belaúnde	테리, 페르난도 벨라운데	떼리, 페르난도 벨라운데
9	Trujillo, Rafael Leonidas	트루히요, 라파엘 레오니다스	뜨루히요, 라파엘 레오니다스
10	Ramirez-Ocampo, Augusto	라미레스 오캄포, 아우구스토	라미레스 오깜뽀, 아우구스토
11	Lopez, Fernando Moran	로페스, 페르난도 모란	로빠스, 페르난도 모란
12	Malmierca, Isidoro	말미에르카, 이시도로	말미에르까, 이시도로
13	Barnica, Edgardo Paz	바르니카, 에드가르도 파스	바르니까, 에드가르도 빠스
14	Barcelo, Carlos Romero	바르셀로, 카를로스 로메로	바르셀로, 까를로스 로메로
15	Barletta, Nicolas	바를레타, 니콜라스 아르디토	바를레따, 니꼴라스

	Ardito		아르디또
16	Betancur, Balisario	베탄쿠르, 발리사리오	베땅꾸르, 발리싸리오
17	Velasquez, Diego R. de Silva	벨라스케스, 디에고 데 실바	벨라스깨스, 디에고 데 실바
18	Velasco-Alvarado, Juan	벨라스코 알바라도, 후안	벨라스꼬 알바라도, 후안
19	Brockman, Miguel d'Escoto	브록만, 미겔 데스코토	브로그만, 미겔 데스꼬또
20	Blanco, Salvador Jorge	블랑코, 살바도르 호르헤	블랑꼬, 살바도르 호르헤
21	Paul, Isidoro Morales	파울, 이시도로 모랄레스	빠울, 이시도로 모랄레스
22	Pedro	페드로	빠드로
23	Perón, Juan Domingo	페론, 후안 도밍고	빠론, 후안 도밍고
24	Percovich, Luis	페르코비치, 루이스	빠르꼬비치, 루이스
25	peseta	페세타	빠세따
26	Picasso, Pablo	피카소, 파블로	빠까소, 빠블로
27	Zamora, Jaime Paz	사모라, 하이메 파스	사모라, 하이메 빠스
28	Saldival, Carols	살디발, 카를로스	살디발, 까를로스
29	Sanguinetti, Julio	상기네티, 훌리오	상기네띠, 훌리오
30	Somoza-Debayle, Anastasio	소모사 데바일레,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데바일레, 아나스따시오
31	Zuazo, Hernan Siles	수아소, 에르난 실레스	수아소, 에르난 쉘레스
32	Stroessner, Alfredo	스트로에스네르, 알프레도	스트르에스네르, 알프레도
33	Salesio 수도회	살레시오	쌀레시오
34	Cervantes Saavedra, Miguel de	세르반테스 사아베드라, 미겔 데	쎄르반테스 사아베드라, 미겔 데
35	Arriola, Eduardo Castillo	아리올라, 에두아르도 카스티요	아리올라, 에두아르도 까스띠요
36	Obando, Marcos	오반도, 마르코스	오반도, 마르꼬스
37	Hurtado, Miguel de la Madrid	우르타도, 미겔 데 라 마드리드	우르따도, 미겔 데 라 마드리드
38	Imbert, José Vega	임베르트, 호세 베가	임베르뜨, 호세 베가
39	Fabrega, Fernando Cardoze	파브레가, 페르난도 카르도세	파브레가, 페르난도 까르도세
40	Felipe	펠리페	펠리빠
41	Xavier, Francis	하비에르, 프란시스	하비에르, 프란씨스
42	Juan Carlos I, Don	후안 카를로스 1세	후안 까를로스 1세
43	Gutierrez, Carlos	구티에레스, 카를로스 호세	구띠에레스, 까를로스 호세

	Jose		
44	Cordero, Leon Febres	코르데로, 레온 페브레스	꼬르데로, 레온 페브레스
45	Cordova, Roberto Suazo	코르도바, 로베르토 수아소	꼬르도바, 로베르또 수아소
46	Tenorio, Jorge Eduardo	테노리오, 호르헤 에두아르도	떼노리오, 호르헤 에두아르도
47	Batista-Zaldivar, Fulgencio	바티스타 살디비바르, 풀헨시오	바띠스따 살디비바르, 풀헨씨오
48	Victores, Oscar Humberto Mejia	빅토레스, 오스카르 움베르토 메히아	빅또레스, 오스까르 움베르또 메히아
49	Saavedra, Daniel Ortega	사아베드라, 다니엘 오르테가	샤아베드라, 다니엘 오르떼가
50	Arbenz-Guzman, Jacobo	아르벤스 구스만, 하코보	아르벤스 구스만, 하꼬보
51	Amor, Bernardo Sepullveda	아모르, 베르나르도 세풀베다	아모르, 베르나르도 세뽀베다
52	Alvares, Luis Alberto Monge	알바레스, 루이스 알베르토 몽헤	알바레스, 루이스 알베르또 몽헤
53	Ugarte, Augusto Pinochet	우가르테,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우가르떼, 아우구스또 삐노체뜨
54	Franco-Bahamonde, Francisco Paulino Hermenegildo Teódulo	프랑코 바아몬데, 프란시스코 파울리노 에르메네힐도 테오둘로	프랑꼬 바아몬데, 프란씨스꼬 빠울리노 에르메네힐도 떼오둘로

[표 37]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에스파냐어-학술분야)

2.4.3. 출판 분야

1)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1	empanada	엠파나다
2	salsa	살사
3	cafetería	카페테리아
4	tapas	타파스
5	gaspacho	가스파초
6	rumba	룸바
7	burrito	부리토
8	Amado Nervo	아마도 네르보
9	Alfonso Reyes	알폰소 레예스
10	Eugenio Florit	에우헤니오 플로리트
11	El Paso	엘 파소
12	cha cha	차차
13	taco	타코
14	tapioca	타피오카
15	jamón	하몬

[표 38]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에스파냐어-출판분야)

2)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오표기
1	guerilla	게리야	게릴라
2	Guadalupe	과달루페	과달루뻬
3	guanaco	과나코	구아나꼬
4	Guatemala	과테말라	구아떼말라
5	Caquetá	카케타	까께따
6	Canarias, Islas	카나리아 제도	까나리아 제도
7	Cañar	카냐르	까냐르
8	Canelones	카넬로네스	까넬로네스
9	Cádiz	카디스	까디스
10	Catamarca	카타마르카	까따마르까
11	Caracas	카라카스	까라까스
12	Carabobo	카라보보	까라보보
13	Carazo	카라소	까라소
14	Cartago	카르타고	까르따고

15	Cartagena	카르타헤나	까르따헤나
16	Carmen	카르멘	까르멘
17	Carch	카르치	까르치
18	Camagüey	카마구에이	까마구에이
19	Cabañas	카바냐스	까바냐스
20	Cáceres	카세레스	까세레스
21	Castilla	카스티야	까스띠야
22	Casillas	카시야스	까시야스
23	Caaguazú	카아과수	까아구아수
24	Caacupé	카아쿠페	까아꾸뻬
25	Caazapá	카아사파	까아사빠
26	Callao	카야오	까야오
27	Cauca	카우카	까우까
28	Cauquenes	카우케네스	까우께네스
29	Cautín	카우틴	까우띤
30	cachucha	카추차	까추차
31	cancion	칸시온	깐시온
32	Caldas	칼다스	깔다스
33	Caldera	칼데라	깔데라
34	caldera	칼데라	깔데라
35	Calamar	칼라마르	깔라마르
36	Cali	칼리	깔리
37	Campeche	캄페체	깜뻬체
38	Coclé	코클레	꼬플레
39	cocuina	코키나	꼬끼나
40	Coquimbo	코킴보	꼬깬보
41	Córdoba	코르도바	꼬르도바
42	Cortés	코르테스	꼬르떼스
43	corrido	코리도	꼬리도
44	Comayagua	코마야과	꼬마야구아
45	Cobán	코반	꼬반
46	Cobija	코비하	꼬비하
47	Copán	코판	꼬뻬
48	Copiapó	코피아포	꼬뻬아뻬
49	Costa Rica	코스타리카	꼬스따리까
50	Coatzacoalcos	코아트사코알코스	꼬아뜨사꼬알꼬스
51	Cochabamba	코차밤바	꼬차밤바
52	Cojedes	코헤데스	꼬헤데스
53	Cojutepeque	코후테페케	꼬후떼뻬께

54	Concepción	콘셉시온	콘셉시온
55	Colonia	콜로니아	콜로니아
56	Colón	콜론	콜론
57	Colombia	콜롬비아	콜롬비아
58	Colima	콜리마	콜리마
59	Colchagua	콜차과	콜차구아
60	Concordia	콩코르디아	콩코르디아
61	Cuba	쿠바	쿠바
62	Cuzco	쿠스코	꾸스꼬
63	criollo	크리오요	끄리오요
64	Quito	키토	끼또
65	Nicaragua	니카라과	니까라구아
66	Dominica	도미니카	도미니까
67	Don Quijote	돈 키호테	돈 끼호떼
68	Don Bosco	돈 보스코	돈 보스꼬
69	tango	탱고	땅고
70	Tegucigalpa	테구시갈파	떼구씨갈빠
71	Teresa	테레사	떼레싸
72	Totonicapán	토토니카판	또또니까뻘
73	Torres	토레스	또레스
74	Toledo	톨레도	톨레도
75	Trujillo	트루히요	뜨루히요
76	Trinidad	트리니다드	뜨리니닷
77	La Paz	라파스	라빠스
78	Madrid	마드리드	마드릿
79	maracas	마라카스	마라까스
80	medias	메리야스	메디아스
81	mestizo	메스티소	메스띠쏘
82	México	멕시코	메히꼬
83	Montevideo	몬테비데오	몬떼비데오
84	Barranquilla	바랑키야	바랑끼야
85	Barquisimeto	바르키시멘토	바르끼시멘또
86	Barcelona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87	Valledupar	바예두파르	바예두빠르
88	Bahoruco	바오루코	바오루꼬
89	Vaupés	바우페스	바우빠스
90	Bahía Blanca	바이아 블랑까	바이아 블랑카
91	Baja California Sur	바하 칼리포르니아 수르	바하 깔리포르니아 쉐르
92	Valparaíso	발파라이소	발빠라이소

93	Bogota	보고타	보고따
94	Bocas del Toro	보카스 델 토로	보까스 델 또로
95	Boquerón	보케론	보께론
96	Boaco	보아코	보아꼬
97	Boyacá	보아카	보야까
98	Bucaramanga	부카라망가	부까라망가
99	Buenaventura	부에나벤투라	부에나벤뚜라
100	Vizcaya	비스카야	비스까야
101	Villa Concepción	비야 콘셉시온	비야 곤셉씨온
102	Villadel Pilar	비야 델 필라르	비야 델 벨라르
103	Villarica	비야리카	비야리까
104	Villavicencio	비야비센시오	비야비쎬시오
105	Victoriade Durango	빅토리아 데 두랑고	빅또리아 데 두랑고
106	Paco	파코	빠꼬
107	Panama	파나마	빠나마
108	Paraguay	파라과이	빠라구아이
109	Paramaibo	파라마이보	빠라마이보
110	Pablo Picasso	파블로 피카소	빠블로 빼까소
111	paso doble	파소 도블레	빠소 도블레
112	paella	파에야	빠에야, 파에야
113	Penélope Cruz	페넬로페 크루스	빼넬로빼 그루스
114	Perú	페루	빼루
115	peso	페소	빼소
116	Popocatepetl Mt	포포카테페틀 산	뽀뽀까떼빼뜰 산
117	Prado 미술관	프라도	쁘라도
118	primera liga	프리메라 리가	쁘리메라 리가
119	Pilar	필라르	벨라르
120	Zacatecas	사카테카스	사까떼까스
121	Zacatecoluca	사카테콜루카	사까떼꼴루까
122	Zacapa	사카파	사까빠
123	Santo Domingo	산토도밍고	산또도밍고
124	Cerro de Pasco	세로 데 파스코	세로 데 빠스꼬
125	Ceuta	세우타	세우따
126	Central	센트랄	센뜨랄
127	Ciudad Victoria	시우다드 빅토리아	시우닷 빅또리아
128	zapateado	사파테아도	싸빠떼아도
129	San Salvador	산살바도르	싼쌀바도르
130	cinemá	시네마	씨네마
131	Aguascalientes	아과스칼리엔테스	아구아스칼렌떼스

132	Atacama	아타카마	아따까마
133	Atlántico	아틀란티코	아뜰란띠꼬
134	Atlántida	아틀란티다	아뜰란띠다
135	Aragua	아라과	아라구아
136	Aragua de Barcelona	아라과 데 바르셀로나	아라구아 데 바르셀로나
137	Arequipa	아레키파	아레끼빠
138	Artigas	아르티가스	아르띠가스
139	Archipiélago de Colón	아르치베엘라고 데 콜론	아르치피엘라고 데 콜론
140	Argentina	아르헨티나	아르헨띠나
141	Abancay	아방카이	아반까이
142	Apure	아푸레	아뿌레
143	Apurimac	아푸리막	아뿌리막
144	Asunción	아순시온	아순씨온
145	hacienda	아시엔다	아씨엔다
146	Ayacucho	아야쿠초	아야꾸초
147	Ahuachapán	아우아차판	아우아차뻐
148	Andalucía	안달루시아	안달루씨아
149	Antonio Gaudí	안토니오 가우디	안또니오 가우디
150	Antofagasta	안토파가스타	안또파가스타
151	Antigas	안티가스	안띠가스
152	Antigua	안티과	안띠구아
153	Antigua Guatemala	안티과 과테말라	안띠구아 과떼말라
154	Antioquia	안티오키아	안띠오끼아
155	Anzoátegui	안소아테기	안소아떼기
156	Altamira	알타미라	알따미라
157	Alto Paraná	알토 파라나	알또 빠라나
158	Alicante	알리칸테	알리칸떼
159	Albacete	알바세테	알바세떼
160	Ambato	암바토	암바또
161	Ancash	앙카시	앙까시
162	Ancud	앙쿠드	앙꾸드
163	Yaracuy	야라쿠이	야라꾸이
164	Ecuador	에콰도르	에꾸아도르
165	estancia	에스탄시아	에스딴싸
166	España	에스파냐	에스빠냐
167	encomienda	엔코미엔다	엔꼬미엔다
168	El Salvador	엘살바도르	엘쌀바도르

169	Yucatán Pen.	유카탄 반도	유카탄 반도
170	Yuscarán	유스카란	유스까란
171	Ignacio	이그나시오	익나씨오
172	Chachapoyas	차차포야스	차차뽀야스
173	Chalatenango	찰라테낭고	찰라떼낭고
174	Chetumal	체투말	체뚜말
175	Chocó	초코	초꼬
176	Chontales	촌탈레스	촌달레스
177	Choluteca	출루테카	출루떼까
178	Chuquisaca	추키사카	추끼사까
179	Chubut	추부트	추부뜨
180	Chiclayo	치클라요	치끌라요
181	Chiquimula	치키물라	치끼물라
182	Chitré	치트레	치뜨레
183	Chiriqui	치리키	치리끼
184	Chimaltenango	치말테낭고	치말떼낭고
185	Chiapas	치아파스	치아빠스
186	Chilpancingo de los Bravos	칠판싱고 데 로스 브라보스	칠뽀싱고 데 로스 브라보스
187	flamenco	플라멩코	플라멘꼬
188	jalapa	할라파	할라빠
189	Gabriela Mistral	가브리엘라 미스트랄	가브리엘라 미스뜨랄
190	Castellón de la Plana	카스테온 데 라 플라나	가스떼온 데 라 뽀라나
191	canal	카날	까날
192	Carthago Nova	카르타고 노바	까르따고 노바
193	Camilo Jose Cela	카밀로 호세 셀라	까밀로 호세 셀라
194	Cajamarca	카하마르카	까하마르까
195	canto genera	칸토 헤네랄	간또 헤네랄
196	Cordillera	코르디에라	꼬르디에라
197	Nicanor Parra	니카노르 파라	니까노르 빠라
198	tanquetazo	텅케타소	땅께따쏘
199	Llama	야마	라마
200	Leopoldo Rugones	레오폴도 루고네스	레오뽀도 루고네스
201	Leopoldo Panero	레오폴도 파네로	레오뽀도 뽀네로
202	León Felipe	레온 펠리페	레온 뽀리뽀
203	Lope de Vega	로페 데 베가	로뽀 데 베가
204	Rocinante	로시난테	로시난떼
205	Luis Cernuda	루이스 세르누다	루이스 쎄르누다

206	Baja California Norte	바하 칼리포르니아 노르테	바하 깔리포르냐 노르떼
207	Baja Verapaz	바하 베라파스	바하 베라빠스
208	Valencia	발렌시아	발렌샤
209	Bogota	보고타	보고따
210	Vicente Aleixandre	비센테 알레익산드레	비센떼 알레익산드레
211	Vicente Huidobro	비센테 우이도브로	비센떼 우이도브로
212	Pablo Neruda	파블로 네루다	빠블로 네루다
213	Santa Cruz	산타 크루스	싼따 크루스
214	Santiago de Compostela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싼띠아고 데 콤포스텔라
215	Cesar Vallejo	세사르 바예호	쎬사르 바예호
216	Acapulco	아카풀코	아까뿔꼬
217	Aconcagua	아콩카과	아공까구아
218	Asturias	아스투리아스	아스뚜리아스
219	Antonio Machado	안토니오 마차도	안또니오 마차도
220	Alta Verapaz	알타 베라파스	알따 베라빠스
221	Octavio Paz	옥타비오 파스	옥따비오 빠스
222	humilitas	우밀리타스	우밀리따스
223	Chilpansingo	칠판싱고	칠뽀싱고
224	quesadilla	케사디아	퀘사딜라
225	tortilla	토르티야	토티야, 또띠아
226	Federico García Lorca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페데리꼬 가르시아 로르까
227	Federico de Onís	페데리코 데 오니스	페데리꼬 데 오니스
228	Francisco Franco	프란시스코 프랑코	프란시스꼬 프랑꼬
229	jota	호타	호따
230	José Juan Tablada	호세 후안 타블라다	호세 후안 따블라다
231	Juan de la Cuesta	환 데 라 쿠에스타	후안 델 라 꾸에스타
232	jitanjafora	히탄하포라	히뽀하포라

[표 39]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에스파냐어-출판분야)

2.5. 이탈리아어

	조사 건수(개)	오류 건수(개)	오류 비율(%)
기업	30	2	6.67
학술	99	41	41.41
출판	99	8	8.08
계	228	51	22.37

[표 40] 분야별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통계(이탈리아어)

이탈리아어 표기 실태조사는 한국에 진출한 이탈리아 기업 및 학술, 출판 분야로 나누어 진행을 하였다. 한국에 진출한 이탈리아 기업을 이탈리아 무역공사(ICE)에 등록된 기업으로 한정하여 전체 32개사를 조사하였다. 거의 모든 기업에서 외래어 표기 규정을 준수하여 기업명을 표기하였으나, 유일하게 한 기업 ‘Intesa San Paolo(은행)’만 현행 표기규정 “인테사 산 파올로”가 아닌, 원음을 따른 “인떼사 산 빠올로”로 표기하였다.

출판 분야에서도 100개의 단어를 임의로 선정하여 표기실태를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단어들이 표기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학술관련 서적에서의 이탈리아어 표기실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이탈리아 정치, 경제, 문화, 문학, 언어 등 이탈리아어 전문가들의 글을 실는 논문들에서 원음표기주의를 따라서 표기되는 경우와 외래어 표기 규정을 따라 표기하는 경우로 확연히 구분되어졌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관용에 의한 용례는 없었고, 겹자음과 된소리 관련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총 40개(100%)의 용례 중 겹자음과 관련된 문제는 13개(32.5%), 된소리 관련 문제는 20개(50%), 그 외 7개(17.5%)가 있었다. 그 외라 함은 자체한글 표기와 현행표기법에 따른 표기가 일치하는 경우이다. 참고로 용례 중 ‘Napoletano’의 경우는 자체한글표기에서는 ‘나폴리타노’라고 하고 현행표기법에 따른 표기는 ‘나폴레타노’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오타에서 비롯된 문제일 것 같다.

겹자음 용례			된소리 용례		
대상어휘	자체한글표기	현행 표기법에 따른 표기	대상어휘	자체한글표기	현행 표기법에 따른 표기
Mussolini	뭇솔리니	무솔리니	Trieste	트리에스떼	트리에스테
Pizzetti	피젯티	피체티	Manzoni	만쥬니	만초니
Ungaretti	웅가렛티	웅가레티	Corti	꼬르티	코르티
Riotto	리오토	리오토	Marco	마르꼬	마르코
Abruzzo	아브루초	아브루초	Carpi	까르빠	카르피
Marinetti	마리네티	마리네티	Como	꼬모	코모
Fillippo	필립보	필리포	Vicenza	비첸짜	비첸자

Carducci	카르둣치	카르두치	Treviso	뜨레비조	트레비소
Mottetto	못텃토	모테토	Carpi	까르삐	카르피
Gabinetto	가비넛토	가비네토	Benetton	베네통	베네통
Matteo	맛테오	마테오	Marzotto	마르쫌또	마르조토
Tozzi	툏치	토치	Cantoni	칸또니	칸토니
			Stefanel	스떼파넬	스테파넬
			Comune	꼬무네	코무네
			Arezzo	아레쫌	아레초
			Massimo	마씨모	마시모
			Prato	쁘라또	프라토
			Ettore	에또레	에토레
			Clizia	클리찌아	클리치아
			Zampa	잠빠	잠파

기업명과 출판 분야에서 이탈리아어를 한국어로 표기하는 경우에 거의 100% 외래어 표기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은 외래어 표기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거나 관련규정에 대해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학술분야에서의 원음을 따른 표기와 외래어 표기 규정을 따른 표기가 혼재하고 있다는 것은 학술분야에 글을 기고하는 학자들이 외래어 표기규정을 이해 혹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외래어 표기규정을 이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원음표기주의를 고집하여 사용하였다면, 현행 외래어 표기규정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볼 수 있으므로 외래어 표기 규정이 개선된다면 이탈리아어 전문가들이 원하는 원음표기주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2.5.1. 기업 분야

1)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1	GAVAKorea(운송)	가바코리아
2	DanieliKorea(철강)	다니엘리코리아
3	LoroPianaKorea(섬유)	로로피아나코리아
4	RINAKorea(해운검사및인증)	리나코리아
5	ManuliHydraulicsKorea(제조)	마누리코리아
6	BacardiMartiniAsiaPacific(주류)	바카르디마르티니아시아퍼시픽
7	BenettonKorea(의류)	베네통코리아
8	BottoLuigiHK(섬유)	보투루이지HK
9	BulgariKorea(보석)	불가리코리아
10	BreviniKorea(기계)	브레비니코리아

11	SavinodelBeneKorea (운송)	샤비노 델베네코리아
12	SalvagininiKorea(기계)	살바지니니코리아
13	Sun-BMaccaferri(철강)	선비마카페리
14	ArnegKorea(냉장기계)	아르넥코리아
15	ArmaniCasa(가구)	아르마니카사
16	ATestoniKorea(피혁)	아테스토니코리아
17	ALITALIA (항공)	알이탈리아
18	AlfagommaKorea (제조)	알파곰마코리아
19	Alpi Korea(운송)	알피코리아
20	IVECOKorea(자동차)	이베코코리아
21	ZegnaKorea(의류)	제냐코리아
22	CasappaHydraulicsKorea(제조)	카사파코리아
23	PanalpinaIAF(운송)	파날피나
24	FabraKorea(제조)	파브라코리아
25	FerragamoKorea (의류)	페라가모코리아
26	FendiKorea(의류)	펜디코리아
27	PradaKorea(의류)	프라다코리아
28	Francovago Korea(운송)	프랑코바고 코리아

[표 41]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이탈리아어-기업분야)

2)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오표기
1	Intesa San Paolo(은행)	인테사 산 파올로	인떼사 산 빠올로
2	FilaKorea(의류)	필라코리아	힐라(필라)코리아

[표 42]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이탈리아어-기업분야)

2.5.2. 학술 분야

1)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1	Gozzi	고치
2	D'Annunzio	단눈치오
3	De Grazia	데 그라치아
4	De Rosa	데 로사
5	Decamerone	데카메론
6	Diaspora	디아스포라
7	Rinascimento	리나쉬멘토
8	Risorgimento	리소르지멘토
9	Mazzini	마치니
10	Morante	모란테
11	Mosca	모스카
12	Montale	몬탈레
13	Montepulciano	몬테풀치아노
14	Monti	몬티
15	Battistini	바티스티니
16	Benedetto	베네데토
17	Becattini	베카티니
18	Bellissima	벨리시마
19	Bossi	보시
20	Bottai	보타이
21	Bonsanti	본산티
22	Visconti	비스콘티
23	Satura	사투라
24	Sapegno	사페뇨
25	Scapigliatura	스카필리아투라
26	Scola	스콜라
27	Straparola	스트라파롤라
28	Sforzi	스포르치
29	Alessandro	알레산드로
30	Ermetismo	에르메티즈모
31	Enrico	엔리코
32	Elisa	엘리사
33	Orvieto	오르비에토
34	Umberto	움베르토
35	Istria	이스트리아
36	Inventario	인벤탐타리오

37	Gentile	젠틸레
38	Zucchini	주끼니
39	Giuseppe	쥬세페
40	Carpine	카르피네
41	Carlo	카를로
42	Caritas	카리타스
43	Cavalcanti	카발칸티
44	Cattani	카타니
45	Calvino	칼비노
46	Campiello	캄피엘로
47	Cosmo	코스모
48	Contini	콘티니
49	Toscana	토스카나
50	Pasolini	파솔리니
51	Pascoli	파스콜리
52	Palmieri	팔미에리
53	Pentamerone	펜타메로네
54	Pratolini	프라톨리니
55	Franco	프랑코
56	Pirandello	피란델로
57	Pivano	피바노
58	Piemonte	피에몬테

[표 43]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이탈리아어-학술분야)

2)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오표기
1	Gabinetto	가비네토	가비넬토
2	Carpi	카르피	까르삐
3	Carpi	카르피	까르삐
4	Cantoni	칸토니	깐또니
5	Corti	코르티	꼬르티
6	Como	코모	꼬모
7	Comune	코무네	꼬무네
8	Napoletano	나폴레타노	나폴리타노
9	Treviso	트레비소	뜨레비조
10	Rovezzano	로베차노	로벳짜노
11	Riotto	리오토	리오토

12	Marco	마르코	마르꼬
13	Marzotto	마르조토	마르쭈토
14	Marinetti	마리네티	마리네티
15	Massimo	마시모	마씨모
16	Manzoni	만초니	만쭈니
17	Matteo	마테오	맛테오
18	Mottetto	모테토	못텃토
19	Mussolini	무솔리니	못솔리니
20	Varese	바레세	바라제
21	Basile	바실레	바질레
22	Benetton	베네통	베네퐁
23	Vicenza	비첸자	비첸짜
24	Prato	프라토	쁘라또
25	Stefanel	스테파넬	스떼파넬
26	Arezzo	아레초	아레쭈
27	Abruzzo	아브루초	아브룻초
28	Ettore	에토레	에도레
29	Ungaretti	웅가레티	웅가렛티
30	Zampa	잠파	잠빠
31	Giacomo	자코모	쟈코모
32	Giustizia	주스티치아	쥬스티치아
33	Svevo	스베보	즈베보
34	Carducci	카르두치	카르뒏치
35	Clizia	클리치아	클리찌아
36	Tozzi	토치	툏치
37	Turco	투르코	투르꼬
38	Trieste	트리에스테	트리에스떼
39	Pavese	파베세	파베제
40	Pizzetti	피체티	피젯티
41	Fillippo	필리포	필립보

[표 44]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이탈리아어-학술분야)

2.5.3. 출판 분야

1)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1	(Raffaello)Sanzio	(라파엘로)산치오
2	Greco	그레코
3	Ghiberti	기베르티
4	Dante	단테
5	Donatello	도나텔로
6	Duccio	두초
7	Ducale	두칼레
8	La Traviata	라 트라비아타
9	Lazio	라치오
10	Repubblica	레푸블리카
11	Lorenzetti	로렌체티
12	Rossini	로시니
13	Rotondo	로톤도
14	Lucca	루카
15	Rigoletto	리골레토
16	Rialto	리알토
17	Martini	마르티니
18	Maggiore	마조레
19	Mozzarella	모차렐라
20	Monte	몬테
21	Missoni	미소니
22	Bartolomeo	바르톨로메오
23	Basilica	바실리카
24	Vapporetto	바포레토
25	Venezia	베네치아
26	Vespucci	베스푸치
27	Vecchio	벤키오
28	Borghese	보르게세
29	Botticelli	보티첼리
30	Busseto	부세토
31	Buon appetito	부온 아페티토
32	Brunelleschi	브루넬레스키
33	Bianca	비안카
34	Vittorio	비토리오
35	San Lorenzo	산 로렌초
36	San Marco	산 마르코

37	San Pietro	산 피에트로
38	Santa Maria delle Grazie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39	Sorrento	소렌토
40	Scala	스칼라
41	Sistina	시스티나
42	Accademia	아카데미아
43	Antonio	안토니오
44	Antigone	안티고네
45	Ostello	오스텔로
46	Ostia Antica	오스티아 안티카
47	Uffici	우피치
48	Gelateria	젤라테리아
49	Gelato	젤라토
50	Giovanni	조반니
51	Giotto	조토
52	Cavour	카보르
53	Catacombe	카타콤베
54	Caterina	카테리나
55	Caffè	카페
56	Cappuccino	카푸치노
57	Corso	코스소
58	Corporazioni	코르포라치오니
59	Condotti	콘도티
60	Conciliazione	콘칠리아치오네
61	Compagna	컴파냐
62	Cupola	쿠포라
63	Termini	테르미니
64	Tevere	테베레
65	Tempera	템페라
66	Torre	토레
67	Torcello	토르첼로
68	Torino	토리노
69	Tosca	토스카
70	Tramontano	트라몬타노
71	Trevi	트레비
72	Tritone	트리토네
73	Tirrenia	티레니아
74	Tiberina	티베리나
75	Tivoli	티볼리
76	Tiziano	티치아노

77	Parma	파르마
78	Palatina	팔라티나
79	Pesaro	페사로
80	Petrarca	페트라르카
81	Foscari	포스카리
82	Popolo	포폴로
83	Puccini	푸치니
84	Freddo	프레도
85	Fresco	프레스코
86	Firenze	피렌체
87	Pisa	피사
88	Pieta	피에타
89	Pietra	피에트라
90	(Palazzo) Pitti	피티(궁전)
91	Fila	필라

[표 45]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이탈리아어-출판분야)

2)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오표기
1	Gucci	구치	구찌
2	Lasagna	라자냐	라자니아
3	Buon giorno	부온 조르노	본 조르노
4	Giorgione	조르지오네	지오르지오네
5	Caravaggio	카라바조	카라밧지오
6	Campidoglio	캄피돌리오	카피톨리노
7	Camposanto Monumentale	캄포산토 모뉴멘탈레	캄포산토 모뉴멘탈레
8	Patricia	파트리치아	파트리시아

[표 46]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이탈리아어-출판분야)

2.6. 일본어

	조사 건수(개)	오류 건수(개)	오류 비율(%)
기업	78	25	32.05
학술	1678	521	31.05
출판	782	232	29.67
계	2538	778	30.65

[표 47] 분야별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통계(일본어)

기업, 학술, 출판 분야로 나누어 실시된 일본어 외래어의 한글 표기 실태 조사 결과를 <표 5>에 제시한다. 현행 표기 규범과 실제 표기가 일치하는 단어의 비율이 세 분야 평균 69%로, 분야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분야	조사 단어 수	일치 단어 수	불일치 단어 수	일치 비율(%)
기업	78	53	25	68
학술	1,678	1,157	521	69
출판	782	550	232	70
합계	2,538	1,760	778	69

[표 48] 일본어 외래어의 한글 표기 실태 조사 결과

한편, 현행 표기 규범과 실제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단어(778개)에 대해서 그 실태를 일본어 표기 규정별로 집계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한다. <표 6>의 단어 수의 합계가 907개로 조사대상 단어 수(778개)보다 많은 것은 하나의 단어에 복수의 표기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 6>에 나타난 경향을 보면 일본어 규정 1, 2, 4의 경우는 현행 규정에 맞지 않게 표기된 단어 수가 각각 251개, 209개, 199개로 높게 나타났고, 일본어 규정 3의 경우도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표기 사례가 117개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서 일반 규정 4와 일본어 규정 4의 경우는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표기 사례가 매우 적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현행 표기 규정을 둘러싸고 쟁점이 되고 있는 일본어 표기 규정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규정	규정 내용	단어 수	비율(%)
일반 4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0.88

일본어 1	일본어 어두의 유성과열음(カ, ク)과 무성과열음(カ, タ)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한국어 평음(가, 다)으로 표기한다.	251	27.67
일본어 2	일본어 ‘ジャ, ジュ, ジョ’를 ‘자, 주, 조’로, ‘チャ, チュ, チョ’를 ‘차, 추, 초’로 표기한다.	209	23.04
일본어 3	일본어 ‘ツ’를 ‘쓰’로 표기한다.	117	12.90
일본어 4	일본어의 우단음의 모음에 대해서 ‘ウ, ク, ヌ, フ, ム, ル’는 ‘우, 구, 누, 후, 무, 루’처럼 ‘ㅍ’로 표기하고 ‘ス, ズ, ツ’는 ‘스, 즈, 쓰’처럼 ‘ㅍ’로 표기한다.	2	0.22
일본어 5	일본어 축음(ッ)은 받침 ‘ㅍ’으로, 발음(ン)은 받침 ‘ㄴ’으로 표기한다.	75	8.27
일본어 6	일본어의 장모음을 표기하지 않는다.	199	21.94
기타	기타 표기 오류	46	5.07
합계		907	100

[표 49] 일본어 표기 규정에 맞지 않는 표기 사례 분석

2.6.1. 기업 분야

1)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1	兼松	가네마쓰
2	カネボウ	가네보
3	カルビー	가루비
4	川崎	가와사키
5	ケンゾー	겐조
6	共同ピーアール	교도피알
7	京セラ	교세라
8	九州おぎはら産業	규슈오기하라
9	キリンビール	기린
10	Niigata Prefecture	니이가타
11	ニコン	니콘
12	日本郵船	니혼유센
13	日本興業銀行	니혼코교
14	任天堂	닌텐도
15	日産	닛산
16	日清食品	닛신

17	日東電工	닛토덴코
18	ダイソー	다이소
19	ダイハツ	다이하쓰
20	東芝	도시바
21	ドコモ	도코모
22	松田	마쓰다
23	松下	마쓰시타
24	ミツミ	미쓰미
25	三菱	미쓰비시
26	三菱モーター	미쓰비시
27	三井物産	미쓰이
28	三井住友銀行	미쓰이스미토모
29	ミズノ	미즈노
30	ミチコロンドン	미치코런던
31	ミキモト	미키모토
32	Sanwa Money	산와
33	三洋	산요
34	サントリー	산토리
35	セガ	세가
36	セイコー	세이코
37	ソニー	소니
38	シュウウエムラ	슈에무라
39	スバル	스바루
40	スズキ	스즈키
41	資生堂	시세이도
42	旭電化	아사히덴카
43	吉田工業	요시다
44	ヨコハマタイヤ	요코하마
45	イセイミヤケ	이세이 미야케
46	いすゞ	이스즈
47	伊藤忠商事株式会社	이토추
48	丸紅	마루베니
49	住友商社	스미토모
50	本間	혼마
51	富士通	후지쓰
52	日立	히타치
53	ヒタチ	히타치

[표 50]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일본어-기업분야)

2)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오표기
1	大日本スクリーン	다이니혼, 다이닛폰	다이니폰스크린코리아
2	マジョリカ マジョルカ	마조리카마조루카	마조리카마조루카
3	マツダ	마쓰다	마쯔다
4	ミットヨ	미쓰토요	미쓰도요
5	光岡自動車	미쓰오카	미쯔오카 모터
6	三菱鉛筆	미쓰비시	미츠비시연필
7	エヴィスジーンズ	에비스	에비수
8	オニツカタイガー	오니쓰카타이가	오니츠키타이가
9	オルピス	오루비스	오르비스
10	大塚製薬	오쓰카	오츠키제약
11	鶴見曹達株式会社	쓰루미소다	쯔루미소다코리아
12	ツモリチサト	쓰모리치사토	츠모리치사토
13	カシオ	가시오	카시오
14	コナミ	고나미	코나미코리아
15	コニカミノルタ	고니카미노루타	코니카미놀타코리아
16	koeiテクモ	고에이테크모	코에이테크모코리아
17	coco壱番屋	코코이치방야	코코이찌방야
18	タカシマヤ	다카시마야	타카시마야
19	テルモ	테루모	테루마
20	東綿	도멘	토오멘
21	豊田	도요타	토요타
22	トンボ鉛筆	돈보	툼보연필
23	第一三共	다이이치산쿄	한국다이이찌산쿄
24	三菱重工	미쓰비시	한국미쯔비시중공업
25	双日	소지쓰	한국소지쯔

[표 51]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일본어-기업분야)

2.6.2. 학술 분야

1)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연번	대상 어휘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표기
1	香川	가가와
2	加賀一向	가가잇코
3	景清	가게기요
4	蜻蛉日記	가게로닛키
5	影武者	가게무샤

6	鹿児島	가고시마
7	神奈川	가나가와
8	金森	가나모리
9	仮名草子	가나조시
10	兼松	가네마쓰
11	嘉納治五郎	가노 지고로
12	荷田春満	가다노 아즈마마로
13	門松	가도마쓰
14	唐津焼	가라쓰야키
15	枯山水	가레산스이
16	軽口	가루쿠치
17	鎌倉	가마쿠라
18	上方	가미가타
19	上山春平	가미야마 슌페이
20	神風	가미카제
21	歌舞伎	가부키
22	歌舞伎踊り	가부키오도리
23	化政	가세이
24	可笑記	가소기
25	勝海舟	가스 가이슈
26	桂太郎	가쓰라 다로
27	桂文治	가쓰라 분지
28	かつら物	가쓰라모노
29	葛飾北齋	가쓰시카 호쿠사이
30	河出書房新社	가와데쇼보신샤
31	川端康成	가와바타 야스나리
32	川崎	가와사키
33	河内	가와치
34	甲斐	가이
35	介錯	가이샤쿠
36	介錯人	가이샤쿠닌
37	懷石	가이세키
38	回遊	가이유
39	開高健	가이코 다케시
40	懷風藻	가이후소
41	上総	가즈사
42	加持祈祷	가지기도
43	佳人之奇遇	가진노키구
44	花鏡	가쿄
45	隠れキリシタン	가쿠레키리시탄

46	柿本人麻呂	가키노모토노 히토마로
47	片仮名	가타카나
48	加藤周一	가토 슈이치
49	加藤弘之	가토 히로유키
50	閑吟集	간긴슈
51	桓武	간무
52	官房	간보
53	關西	간사이
54	寛政	간세이
55	觀阿弥	간아미
56	閑雨	간우
57	菅家文草	간케분소
58	菅家後集	간케코슈
59	關東	간토
60	竿灯祭	간토마쓰리
61	毛拔	게누키
62	解脫	게다쓰
63	戲作	게사쿠
64	戲作	게사쿠
65	芸者	게이샤
66	經国集	게이코쿠슈
67	下座	게자
68	建仁寺	겐닌지
69	元祿	겐로쿠
70	元明	겐메이
71	建武	겐무
72	檢使	겐시
73	硯有社	겐유샤
74	源氏	겐지
75	源氏物語	겐지모노가타리
76	御記録物	고기로쿠모노
77	小西甚一	고니시 진이치
78	弘仁	고닌
79	五人組	고닌구미
80	講談	고단
81	講談社	고단샤
82	子供組	고도모구미
83	碁所	고도코로
84	御靈会	고료에
85	広隆寺	고류지

86	高麗	고마
87	駒沢	고마자와
88	光明	고묘
89	小林多喜二	고바야시 다키지
90	小林一茶	고바야시 잇사
91	碁盤太平記	고반다이헤이키
92	五番立	고반다테
93	神戸	고베
94	光文社	고분샤
95	御山	고산
96	講釈師	고샤쿠시
97	後撰和歌集	고센와카슈
98	後拾遺和歌集	고슈이와카슈
99	後白河	고시라카와
100	甲子園	고시엔
101	弘安の役	고안노 에키
102	高野聖	고야히지리
103	子を貸し屋	고오카시야
104	御恩	고온
105	幸若舞	고와카마이
106	五位	고이
107	鯉のぼり	고이노보리
108	小泉八雲	고이즈미 야쿠모
109	恋川春町	고이카와 하루마치
110	五山	고잔
111	上野	고즈케
112	古事記	고지키
113	古事記伝	고지키덴
114	高知	고치
115	効果	고카
116	御家人	고케닌
117	心	고코로
118	国分寺	고쿠분지
119	国性爺合戦	고쿠센야캇센
120	古今和歌集	고킨와카슈
121	幸徳	고토쿠
122	幸徳秋水	고토쿠 슈스이
123	金剛	곤고
124	金剛峰寺	곤고부지
125	金色夜叉	곤지키야샤

126	金春	곤파루
127	滑稽本	곯케이본
128	狂言	교겐
129	狂歌	교카
130	曲亭馬琴	교쿠테이 바킨
131	京都	교토
132	享保	교호
133	公家	구게
134	宮内省	구나이쇼
135	国木田独歩	구니키다 돗포
136	百濟	구다라
137	九段下	구단시타
138	蔵原惟人	구라하라 고레히토
139	黒田清輝	구로다 세이키
140	黒潮	구로시오
141	黒沢明	구로자와 아키라
142	黒船	구로후네
143	熊野	구마노
144	隈取り	구마도리
145	熊本	구마모토
146	熊襲	구마소
147	熊井啓	구마이 게이
148	草野心平	구사노 신페이
149	鎖連歌	구사리렌가
150	草双紙	구사조시
151	楠木正成	구스노키 마사시게
152	桑原武夫	구와바라 다케오
153	空海	구카이
154	愚管抄	구칸쇼
155	九鬼周造	구키 슈조
156	軍記物語	군기모노가타리
157	群馬	군마
158	九州	규슈
159	畿内	기나이
160	紀貫之	기노 쓰라유키
161	義太夫節	기다유부시
162	木戸孝允	기도 다카요시
163	キリシタン大名	기리시탄다이묘
164	着物	기모노
165	君が代	기미가요

166	黄表紙	기보시
167	吉備真備	기비노 마키비
168	吉備子洲	기비노코시마
169	紀州	기슈
170	岸信介	기시 노부스케
171	祇園祭り	기온마쓰리
172	祇園絵	기온에
173	紀伊	기이
174	義経記	기케이키
175	義経記	기케이키
176	菊地寛	기쿠치 간
177	喜多川歌麿	기타가와 우타마로
178	北野武	기타노 다케시
179	北村透谷	기타무라 도코쿠
180	北山	기타야마
181	北原白秋	기타하라 하쿠슈
182	岐阜	기후
183	金葉和歌集	긴요와카슈
184	金座	긴자
185	金槐和歌集	긴카이와카슈
186	近畿	긴키
187	金金先生栄花夢	긴킨센세이에이가노유메
188	近鉄	킨테쓰
189	長野	나가노
190	長坂覚	나가사카 사토루
191	長崎	나가사키
192	永井荷風	나agai 가후
193	長門	나가토
194	名古屋	나고야
195	七つ面	나나쓰멘
196	奈良	나라
197	奈良	나라
198	檜山節孝	나라야마부시코
199	成田	나리타
200	南無妙法蓮華經	나무묘호렌게쿄
201	並木宗輔	나미키 소스케
202	夏の陳	나쓰노 진
203	夏目漱石	나쓰메 소세키
204	直木	나오키
205	中上健次	나카가미 겐지

206	中河与一	나카가와 요이치
207	中根千枝	나카네 치에
208	中野重治	나카노 시게하루
209	中野重治	나카노시게하루
210	中大兄皇子	나카노에노오지
211	中臣鎌足	나카도미노 가마타리
212	仲間	나카마
213	仲間外れ	나카마하즈레
214	中村正直	나카무라 마사나오
215	中曾根康弘	나카소네 야스히로
216	中島敦	나카지마 아쓰시
217	那覇	나하
218	南総里見八犬伝	난소사토미핫켄덴
219	ねぶた祭	네부타마쓰리
220	能	노
221	野上	노가미
222	能楽堂	노가쿠도
223	能楽社	노가쿠샤
224	乃木希典	노기 마레스케
225	野々宮	노노미야
226	野間宏	노마 히로시
227	野間宏	노마 히로시
228	能面	노멘
229	野村	노무라
230	信長	노부나가
231	伸子	노부코
232	野ざらし	노자라시
233	覗きや	노조키야
234	野島	노지마
235	能登	노토
236	邇邇藝命	니니기노 미코토
237	偽紫田舎源氏	니세무라사키이나카겐지
238	西田幾多郎	니시다 기타로
239	西村京太郎	니시무라 교타로
240	西宮	니시미야
241	西尾	니시오
242	丹羽文雄	니와 후미오
243	新嘗祭	니이나메사이
244	日蓮	니치렌
245	ニチメン	니치멘

246	日本	니혼
247	日本靈異記	니혼료이키
248	日本書紀	니혼쇼키
249	日本經濟	니혼케이자이
250	日産	닛산
251	日商岩井	닛쇼이와이
252	日活	닛카쓰
253	日海	닛카이
254	日経	닛케이
255	新田義貞	닛타 요시사다
256	日本永代蔵	닛폰에이다이구라
257	七夕祭	다나바타마쓰리
258	田中	다나카
259	種子島	다네가시마
260	田沼	다누마
261	田沼意次	다누마 오키쓰구
262	玉の小串	다마노 오구시
263	玉勝間	다마카쓰마
264	為永春水	다메나가 슌스이
265	田山花袋	다야마 가타이
266	平清盛	다이라노 기요모리
267	大老	다이로
268	大正	다이쇼
269	大政奉還	다이쇼호칸
270	代助	다이스케
271	大化	다이카
272	太閤	다이코
273	太閤記	다이코키
274	太平記	다이헤이키
275	太宰治	다자이 오사무
276	太宰治	다자이 오사무
277	但馬	다지마
278	太宰府	다자이후
279	貴ノ花	다카노하나
280	高松	다카마쓰
281	高村光太郎	다카무라 고타로
282	高砂	다카사고
283	高瀬舟	다카세부네
284	高杉晋作	다카스기 신사쿠
285	竹田出雲	다케다 이즈모

286	竹本義太夫	다케모토 기다유
287	竹下登	다카시타 노보루
288	竹取物語	다케토리모노가타리
289	拓殖	다쿠쇼쿠
290	滝廉太郎	다키 렌타로
291	滝沢馬琴	다키자와 바킨
292	建前	다테마에
293	丹後	단고
294	壇ノ浦	단노우라
295	短連歌	단렌가
296	丹波	단바
297	短冊	단자쿠
298	檀家	단카
299	寺請	데라우케
300	寺子屋	데라코야
301	貞門俳諧	데이몬하이카이
302	手塚治虫	데즈카 오사무
303	出島	데지마
304	田楽	덴가쿠
305	天元	덴겐
306	天竜寺	덴류지
307	天明	덴메이
308	天武	덴무
309	天保	덴보
310	天竺徳兵	덴지쿠 도쿠베
311	天神祭	덴진마쓰리
312	天保	덴포
313	道元	도겐
314	東大寺	도다이지
315	棟梁	도료
316	トーマン	도멘
317	土佐	도사
318	土佐日記	도사닛키
319	当世書生氣質	도세이쇼세이카타기
320	東洲齋写楽	도슈사이 샤라쿠
321	東芝	도시바
322	同志社	도시샤
323	年寄組	도시요리구미
324	年越しそば	도시코시소바
325	富山	도야마

326	外山正一	도야마 마사카즈
327	東映	도에이
328	豊国	도요쿠니
329	豊田	도요타
330	豊臣秀吉	도요토미 히데요시
331	土居健郎	도이 다케오
332	土井晩翠	도이 반스이
333	外様	도자마
334	栃木	도치기
335	東海道四谷怪談	도카이도요쓰야 괴담
336	東京	도쿄
337	東京外国語	도쿄가이코쿠고
338	東京道立	도쿄도리쓰
339	徳川家康	도쿠가와 이에야스
340	徳川家康	도쿠가와 이에야스
341	徳永直	도쿠나가 스나오
342	徳島	도쿠시마
343	徳富廬花	도쿠토미 로카
344	道程	도테이
345	遠江	도토우미
346	東宝	도호
347	東北	도호쿠
348	東北学院	도호쿠가쿠인
349	どんたく	돈타쿠
350	鳥取	돗토리
351	羅生門	라쇼몬
352	落語	라쿠고
353	落語	라쿠고
354	レイテ戦記	레이테센키
355	連歌	렌가
356	鹿鳴館	로쿠메이칸
357	竜安寺	료안지
358	凌雲集	료운슈
359	梁塵秘抄	료진히쇼
360	竜谷	류코쿠
361	琉球	류큐
362	力士	리키시
363	立正	릿쇼
364	立教学院	릿쿄가쿠인
365	真名	마나

366	真名	마나
367	丸紅	마루베니
368	丸谷才一	마루야 사이이치
369	丸山健二	마루야마 겐지
370	馬淵	마부치
371	正岡子規	마사오카 시키
372	正岡子規	마사오카 시키
373	増鏡	마스카가미
374	増鏡	마스카가미
375	松川	마쓰가와
376	松永貞徳	마스나가 데이토쿠
377	松の内	마쓰노 우치
378	松平定信	마쓰다이라 사다노부
379	祭り	마쓰리
380	松下	마쓰시타
381	松山	마쓰야마
382	松江	마쓰에
383	松尾芭蕉	마쓰오 바쇼
384	真山青果	마야마 세이카
385	宮崎	미야자키
386	前頭	마에가시라
387	前橋	마에바시
388	毎日	마이니치
389	町田伸	마치다
390	町衆	마치슈
391	枕草子	마쿠라노소시
392	幕内	마쿠시타
393	牧口常三郎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394	的野	마토노
395	万延	만엔
396	万葉仮名	만요가나
397	万葉集	만요슈
398	明月記	메이게쓰키
399	冥途の飛脚	메이도노히카쿠
400	明六社	메이로쿠샤
401	明治	메이지
402	明治	메이지
403	明治学院	메이지가쿠인
404	明治座	메이지자
405	名人	메이진

406	物語	모노가타리
407	物語	모노가타리
408	物部	모노노베
409	物のあわれ	모노노아와레
410	森英恵	모리 하나에
411	盛岡	모리오카
412	森内	모리우치
413	森田たま	모리타
414	桃の節句	모모노셋쿠
415	桃山	모모야마
416	森鷗外	모리 오가이
417	本居宣長	모토오리 노리나가
418	本居宣長	모토오리 노리나가
419	文部省	문부쇼
420	宗行	무네유키
421	紫式部	무라사키 시키부
422	紫式部	무라사키 시키부
423	紫野	무라사키노
424	村山	무라야마
425	村山知義	무라야마 도모요시
426	村上龍	무라카미 류
427	村上春樹	무라카미 하루키
428	村上春樹	무라카미 하루키
429	村八分	무라하치부
430	室町	무로마치
431	室町	무로마치
432	室田義文	무로타
433	武蔵	무사시
434	武蔵野	무사시노
435	武蔵丸	무사시마루
436	武者小路実篤	무샤노코지 사네아쓰
437	武者少路千家	무샤노코지 센케
438	娘組	무스메구미
439	無心連歌	무신렌가
440	陸奥	무쓰
441	婿	무코
442	源実朝	미나모토노 사네토모
443	源頼朝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444	水無瀬	미나세
445	水無瀬三吟百韻	미나세산긴하쿠인

446	峯子	미네코
447	美濃	미노
448	緑の日	미도리노 히
449	美作	미마사카
450	三島由起夫	미시마 유키오
451	三島由紀夫	미시마 유키오
452	三菱	미쓰비시
453	三井	미쓰이
454	宮城	미야기
455	宮本百合子	미야모토 유리코
456	宮本百合子	미야모토 유리코
457	宮沢賢治	미야자와 겐지
458	宮崎駿	미야자키 하야오
459	三宅雪嶺	미야케 세쓰레이
460	三重	미에
461	三好行雄	미요시 유키오
462	三浦綾子	미우라 아야코
463	水鏡	미즈카가미
464	三河	미카와
465	神輿	미코시
466	三木露風	미키 로후
467	三谷	미타니
468	三田文学	미타문학
469	三田文学	미타분가쿠
470	水戸	미토
471	伴天連	바테렌
472	弁慶	벤케이
473	盆踊り	본오도리
474	本因坊	본인보
475	蕪村七部集	부순시치부슈
476	豊前	부젠
477	豊後	분고
478	文楽座	분라쿠자
479	文緑の役	분로쿠노 예키
480	文永の役	분에이노 예키
481	文華秀麗集	분카슈레이슈
482	文鏡秘府論	분쿄히후론
483	仏教	붓쿄
484	ビルマの豎琴	비루마노타테고토
485	備前	비젠

486	備後	빈고
487	佐賀	사가
488	相模	사가미
489	鷺流	사기류
490	佐野学	사노 마나부
491	讃岐典侍	사누키노스케
492	佐渡	사도
493	更級日記	사라시나 일기
494	更級日記	사라시나닛키
495	申楽	사루가쿠
496	猿楽	사루가쿠
497	猿蓑	사루미노
498	侍所	사무라이도코로
499	さび	사비
500	細雪	사사메유키
501	細雪	사사메유키
502	佐々木	사사키
503	薩摩	사쓰마
504	薩摩焼	사쓰마야키
505	薩英	사쓰에이
506	西郷隆盛	사이고 다카모리
507	西翁十百韻	사이오토쓰바쿠인
508	西鶴置土産	사이카쿠오키미야게
509	埼玉	사이타마
510	西芳寺	사이호지
511	坂口安吾	사카구치 안고
512	坂上田村麻呂	사카노우에노 다무라무로
513	坂本竜馬	사카모토 료마
514	境	사카이
515	坂井	사카이
516	榊原	사카키바라
517	佐藤忠信	사토 다다노부
518	珊瑚集	산고슈
519	三人吉山廓初買	산닌키치사쿠루와노하쓰가이
520	三段目	산단메
521	山椒大夫	산쇼 다유
522	三笑亭可樂	산쇼테이 가라쿠
523	三四郎	산시로
524	三四郎	산시로
525	山家集	산카슈

526	産経	산케이
527	参勤交代	산킨코타이
528	札幌	삿포로
529	洒落本	샤레본
530	三味線	샤미센
531	沙石集	샤세키슈
532	积台	샤쿠다이
533	借景	샷케이
534	節分	세쓰분
535	世話物	세와모노
536	西南	세이난
537	清少納言	세이쇼나곤
538	清和	세이와
539	征夷大將軍	세이이타이쇼군
540	世間胸算用	세켄무네잔요
541	関ヶ原の戦い	세키가하라 전투
542	関脇	세키와케
543	千利休	센노 리큐
544	仙台	센다이
545	川柳	센류
546	千載和歌集	센자이와카슈
547	戦国大名	센코쿠다이묘
548	戦旗	센키
549	雪舟	셋슈
550	摂津	셋쓰
551	切腹	셋푸쿠
552	蘇我	소가
553	草仮名	소가나
554	曾我物語	소가모노가타리
555	草月流	소게쓰류
556	曾野綾子	소노 아야코
557	早慶戦	소케이센
558	外	소토
559	將軍	쇼군
560	性靈集	쇼료슈
561	生類哀れみの令	쇼루이아와레미노 레이
562	松林伯圓	쇼린 하쿠엔
563	聖武	쇼무
564	小説神髓	쇼세쓰신즈이
565	正倉院	쇼소인

566	昭和	쇼와
567	書院造	쇼인즈쿠리
568	松竹	쇼치쿠
569	続後拾遺和歌集	쇼쿠고슈이와카슈
570	続千載和歌集	쇼쿠센자이와카슈
571	続拾遺和歌集	쇼쿠슈이와카슈
572	続古今和歌集	쇼쿠코킨와카슈
573	織豊	쇼쿠호
574	聖徳	쇼토쿠
575	修験道	슈겐도
576	守護大名	슈고다이묘
577	修羅物	슈라모노
578	集英社	슈에이사
579	拾遺和歌集	슈이와카슈
580	春色梅児譽美	슌쇼우메고요미
581	春色梅児譽美	슌쇼쿠우메고요미
582	春琴抄	슌킨쇼
583	菅原道真	스가와라노 미치자네
584	駿河	스루가
585	相撲	스모
586	住友	스미토모
587	スバル	스baru
588	須佐之男命	스사노오노 미코토
589	推古	스이코
590	鈴木	스즈키
591	鈴木三重吉	스즈키 미에키치
592	鈴木三重吉	스즈키 미에키치
593	助六	스케로쿠
594	周防	스호
595	スッポン	숫폰
596	滋賀	시가
597	志賀直哉	시가 나오야
598	志賀直哉	시가 나오야
599	狭衣	샤고로모
600	品川	시나가와
601	信濃	시나노
602	品子	시나코
603	志太野坡	시다 야바
604	白樺	시라카바
605	白樺	시라카바

606	白河上皇	시라카와 상황
607	白川丸	시라카와마루
608	白桃	시로모모
609	城山	시로야마
610	志摩	시마
611	島根	시마네
612	島根	시마네
613	島原	시마바라
614	島崎藤村	시마자키 도손
615	島木健作	시마키 겐사쿠
616	島木赤彦	시마키 아키히코
617	馬関	시모노세키
618	下関	시모노세키
619	下田	시모다
620	下野	시모쓰케
621	下総	시모우사
622	暫	시바라쿠
623	刺青	시세이
624	塩原	시오하라
625	静岡	시즈오카
626	穆	시즈카
627	七五三	시치고산
628	鹿野武左衛門	시카노 부자에몬
629	仕懸文庫	시카케분코
630	四国	시코쿠
631	四国	시코쿠
632	シテ	시테
633	シテ	시테
634	新後撰和歌集	신고센카슈
635	新後拾遺和歌集	신고슈이와카슈
636	新古今和歌集	신고킨와카슈
637	神殿造	신덴즈쿠리
638	新藤兼人	신도 가네히토
639	親鸞	신란
640	新町	신마치
641	新撰菟玖波集	신센쓰쿠바슈
642	新千載和歌集	신센자이와카슈
643	新続古今和歌集	신쇼쿠코킨와카슈
644	新拾遺和歌集	신슈이와카슈
645	新葉和歌集	신요와카슈

646	新片町	신카타마치
647	新幹線	신칸센
648	新香	신코
649	親藩	신포
650	執權	싯켄
651	津	쓰
652	通言総籬	쓰겐소마가키
653	津田左右吉	쓰다 소키치
654	徒然草	쓰레즈레구사
655	鶴屋南北	쓰루야 난보쿠
656	坪内逍遙	쓰보우치 쇼요
657	対馬	쓰시마
658	筒井康陸	쓰쓰이 요시타카
659	筑波	쓰쿠바
660	菟玖波集	쓰쿠바슈
661	月に吠える	쓰키니호에루
662	築山	쓰키야마
663	安愚楽鍋	아구라나베
664	姉崎	아네자키
665	荒正人	아라 마사히토
666	荒正人	아라 마사히토
667	荒事	아라고토
668	新井白石	아라이 하쿠세키
669	新井白石	아라이 하쿠세키
670	荒木田守武	아라키다 모리타케
671	有島武郎	아리시마 다케오
672	有明集	아리아게집
673	有吉佐和子	아리요시 사와코
674	現人神	아리히토가미
675	甘え	아마에
676	天草	아마쿠사
677	天照大神	아마테라스오가미
678	雨森芳洲	아메노모리 호슈
679	安部	아베
680	安部公房	아베 고보
681	安倍能成	아베 요시시게
682	浅野	아사노
683	浅草	아사쿠사
684	麻原彰晃	아사하라 쇼코
685	朝日	아사히

686	朝日	아사히
687	飛鳥	아스카
688	飛鳥井雅世	아스카이 마사요
689	飛鳥寺	아스카테라
690	足利尊氏	아시카가 다카우지
691	足利義滿	아시카가 요시미쓰
692	足利義昭	아시카가 요시아키
693	青森	아오모리
694	青山学院	아오야마가쿠인
695	阿波	아와
696	安房	아와
697	阿波踊り	아와오도리
698	淡路	아와지
699	淡路洲	아와지노시마
700	鮎川信夫詩集	아유키와 노부오 시집
701	間狂言	아이교겐
702	愛知	아이치
703	吾妻問答	아즈마몬도
704	安土	아즈치
705	安土城	아즈치성
706	赤松滿祐	아카마쓰 미쓰스케
707	曙	아케보노
708	明智光秀	아케치 미쓰히데
709	赤穂浪士	아코로시
710	芥川竜之介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711	安芸	아키
712	秋山駿	아키야마 슌
713	晶子	아키코
714	秋田	아키타
715	吾恥	아하지
716	安樂庵策伝	안라쿠안 사쿠덴
717	安政	안세이
718	山羊の歌	야기노우타
719	柳田国男	야나기다 구니오
720	柳橋新誌	야니기바시 신지
721	矢野	야노
722	矢の根	야노네
723	山鹿素行	야마가 소코
724	山懸	야마가타
725	山形	야마가타

726	山口	야마구치
727	山梨	야마나시
728	山上億良	야마노우에 오쿠라
729	山之井	야마노이
730	山田	야마다
731	山室静	야마시로 시즈카
732	山鉾	야마보코
733	山伏	야마부시
734	山城	야마시로
735	山一	야마이치
736	山崎正和	야마자키 마사카즈
737	山崎宗鑑	야마자키 소칸
738	大和	야마토
739	大和	야마토
740	日本	야마토
741	大和撫子	야마토나데시코
742	大和絵	야마토에
743	藪の中	야부노야카
744	保教本	야스노리본
745	安田	야스다
746	安岡章太郎	야스오카 쇼타로
747	弥生	야요이
748	矢数	야카즈
749	薬師寺	야쿠시지
750	やくざ	야쿠자
751	犬子集	에노코슈
752	江戸	에도
753	江戸川亂歩	에도가와 란보
754	絵巻物	에마키모노
755	栄西	에이사이
756	蝦夷島	에조가시마
757	蝦夷地	에조치
758	越後	에치고
759	越前	에치젠
760	穢多	에타
761	江藤新平	에토 신페이
762	絵本	에혼
763	絵踏	에후미
764	愛媛	에히메
765	延喜式	엔기시키

766	円仁	엔닌
767	遠藤周作	엔도 슈사쿠
768	延暦寺	엔랴쿠지
769	円通寺	엔쓰지
770	円地文子	엔치 후미코
771	円地文子	엔치 후미코
772	小川国夫	오가와 구니오
773	小川未明	오가와 미메이
774	小倉	오구라
775	萩原浅男	오기와라
776	小野岑守	오노노 미네모리
777	小野峯守	오노노 미네모리
778	鬼	오니
779	応仁	오닌
780	織田信長	오다 노부나가
781	小田切秀雄	오다기리 히데오
782	御田	오덴
783	踊念仏	오도리넨부쓰
784	おらが春	오라가하루
785	折りたく柴の記	오리타쿠 시바노키
786	折りたく柴の記	오리타쿠시바노쿠
787	於母影	오모카게
788	於母影	오모카게
789	表千家	오모토센케
790	近江	오미
791	お盆	오본
792	大阪	오사카
793	お節	오세치
794	お正月	오쇼가쓰
795	大隅	오스미
796	大島渚	오시마 나기사
797	押戻	오시모도시
798	大塩平八郎	오시오 헤이하치로
799	大津	오쓰
800	お安	오야스
801	大江健三郎	오에 겐자부로
802	応永の外寇	오에이노 가이코
803	大岡昇平	오오카 쇼헤이
804	尾張	오와리
805	お雪	오유키

806	笈の小文	오이노코부미
807	大石内蔵助良雄	오시이 구라노스케요시오
808	大分	오이타
809	王座	오자
810	尾崎紅葉	오자키 고타
811	大関	오제키
812	お雑煮	오조니
813	小津安二郎	오즈 야스지로
814	落窪物語	오차쿠보 이야기
815	落ち	오치
816	落合直文	오치아이
817	落窪物語	오치쿠보모노가타리
818	大鏡	오카가미
819	岡場所	오카바쇼
820	をかし	오카시
821	岡山	오카야마
822	大川隆法	오카와 류호
823	岡倉天心	오카쿠라 덴신
824	奥	오쿠
825	奥野	오쿠노
826	奥の細道	오쿠노 호소미치
827	奥の細道	오쿠노호소미치
828	阿国かぶき	오쿠니카부키
829	大倉	오쿠라
830	大蔵虎明本	오쿠라도라아키라본
831	大蔵流	오쿠라류
832	大蔵省	오쿠라쇼
833	大隈重信	오쿠마 시게노부
834	隠岐	오키
835	沖繩	오키나와
836	沖繩	오키나와
837	大王	오키미
838	大谷	오타니
839	伽婢子	오토기보코
840	御伽衆	오토기슈
841	御伽草子	오토기조시
842	落しばなし	오토시바나시
843	小原流	오하라류
844	女歌舞伎	온나가부키
845	女方	온나가타

846	女手	온나데
847	女舞	온나마이
848	和事	와고토
849	わび	와비
850	早稲田	와세다
851	早稲田	와세다
852	和辻哲朗	와쓰지 데쓰로
853	技あり	와자아리
854	和歌	와카
855	和歌	와카
856	若菜集	와카나슈
857	若ノ花	와카노하나
858	若年寄	와카도시요리
859	若者組	와카모노구미
860	若狭	와카사
861	和歌山	와카야마
862	若山牧水	와카야마 보쿠스이
863	和漢朗永集	와칸로에이슈
864	ワキ	와키
865	脇能	와키노
866	わっしょい	왓쇼이
867	米沢彦八	요네자와 히고히치
868	頼政	요리마사
869	読売	요미우리
870	読売	요미우리
871	読本	요미혼
872	夜這い	요바이
873	予備校	요비코
874	与謝野鉄幹	요사노 텃칸
875	与謝野晶子	요사노 아키코
876	寄席	요세
877	吉野作造	요시노 사쿠조
878	吉野弘	요시노 히로시
879	吉田兼好	요시다 겐코
880	吉田精一	요시다 세이이치
881	吉本バナナ	요시모토 바나나
882	吉本ばなな	요시모토 바나나
883	義経千本桜	요시쓰네센본자쿠라
884	吉原	요시와라
885	吉井勇	요시이

886	吉池勇	요시이케
887	芳子	요시코
888	吉原幸子	요시하라 사치코
889	世繼曾我	요스기소가
890	杏子	요코
891	横須賀	요코스가
892	横綱	요코즈나
893	横浜	요코하마
894	謡曲	요쿄쿠
895	横浜	요코하마
896	雨月物語	우게쓰모노가타리
897	雨後	우고
898	うなぎ	우나기
899	恨の介	우라미노스케
900	裏千家	우라센케
901	浦島明神	우라시마 묘진
902	浦島太郎	우라시마타로
903	浦和	우라와
904	梅原猛	우메하라 다케시
905	有心連歌	우신렌가
906	宇都宮	우쓰노미야
907	宇津保物語	우쓰호모노가타리
908	上野	우에노
909	上田敏	우에다 빈
910	上田秋成	오에다 아키나리
911	上村正久	우에무라 마사히사
912	植村文樂軒	우에무라 분라쿠겐
913	外郎売	우이로우리
914	羽前	우젠
915	宇品	우지나
916	宇治拾遺物語	우지슈이모노가타리
917	氏寺	우지테라
918	内	우치
919	内田	우치다
920	浮雲	우키구모
921	浮世	우키요
922	憂き世	우키요
923	浮世床	우키요도코
924	浮世風呂	우키요부로
925	浮世絵	우키요에

926	浮世草子	우키요조시
927	歌声よ、おこれ	우타고에요 오코레
928	歌物語	우타모노가타리
929	烏亭馬琴	우테이 바킨
930	幽玄	유겐
931	弓子	유미코
932	唯円	유이엔
933	床	유카
934	湯川秀樹	유카와 히데키
935	浴衣	유카타
936	有効	유코
937	伊賀	이가
938	医学所	이가쿠쇼
939	因幡	이나바
940	伊能忠敬	이노 다다타카
941	井上哲次郎	이노우에 데쓰지로
942	井上靖	이노우에 야스시
943	井上ひさし	이노우에 히사시
944	犬菟玖波集	이누쓰쿠바슈
945	伊良子清白	이라코 세이하쿠
946	色川	이로카와
947	以呂波	이로하
948	伊萬里焼	이마리야키
949	今村昌平	이마무라 쇼헤이
950	今鏡	이마카가미
951	今鏡	이마카가미
952	井本	이모토
953	茨城	이바라키
954	井伏鱒二	이부세 마사지
955	井伏鱒二	이부세 마사지
956	伊勢	이세
957	伊勢	이세
958	伊勢物語	이세모노가타리
959	伊勢神宮	이세진구
960	伊曾保物語	이소호모노가타리
961	石黒忠恵	이시구로
962	石井漢	이시이 바쿠
963	石川	이시카와
964	石原慎太郎	이시하라 신타로
965	五木寛之	이쓰키 히로유키

966	家元	이에모토
967	家光	이에미쓰
968	飯尾宗氏	이오 소기
969	岩波書店	이와나미쇼텐
970	岩本	이와모토
971	岩見	이와미
972	岩代	이와시로
973	岩倉	이와쿠라
974	岩倉具視	이와쿠라 도모미
975	磐城	이와키
976	岩手	이와테
977	伊予	이요
978	伊予の二名洲	이요노후다나오시마
979	伊邪那岐	이자나기
980	イザナギの尊	이자나기노미코토
981	伊邪那美	이자나미
982	イザナミの尊	이자나미노미코토
983	伊豆	이즈
984	伊豆	이즈
985	出雲	이즈모
986	出雲	이즈모
987	出雲風土記	이즈모후도키
988	和泉	이즈미
989	泉鏡花	이즈미 교카
990	和泉式部	이즈미 시키부
991	泉流	이즈미류
992	和泉式部日記	이즈미시키부닛키
993	イジメ	이지메
994	一握の砂	이치아쿠노스나
995	市川左団次	이치카와 사단지
996	池坊流	이케노보류
997	池田大作	이케다 다이사쿠
998	池内	이케우치
999	壱岐	이키
1000	いき	이키
1001	生き盆	이키본
1002	板垣退助	이타가키 다이스케
1003	伊藤左千夫	이토 사치오
1004	伊藤仁齋	이토 진사이
1005	伊藤博文	이토 히로부미

1006	井原西鶴	이하라 사이카쿠
1007	井原西鶴	이하라 사이카쿠
1008	院政	인세이
1009	一茶発句集	잇사훗쿠슈
1010	一寸法師	잇순보시
1011	一向宗	잇코슈
1012	一揆	잇키
1013	一遍	잇펜
1014	一本勝	잇폰가치
1015	世阿弥	제아미
1016	世阿弥	제아미
1017	禅智内供	젠치 나이구
1018	像引	조히키
1019	序ノ口	조노구치
1020	中国	주고쿠
1021	時代物	지다이모노
1022	千葉	지바
1023	近松門左衛門	지카마쓰 몬자에몬
1024	筑後	지쿠고
1025	筑前	지쿠젠
1026	神皇正統記	진노쇼토키
1027	神武	진무
1028	カタカナ	가타카나
1029	パンの会	판노카이
1030	芳賀矢一	하가 야이치
1031	葉隠	하가쿠레
1032	萩原朔太郎	하기와라 사쿠타로
1033	花御所	하나노고쇼
1034	花道	하나미치
1035	噺	하나시
1036	花園	하나조노
1037	花鏡	하나카가미
1038	壇谷雄高	하니야 유타카
1039	腹切	하라키리
1040	播磨	하리마
1041	波沙寐錦	하사무킨
1042	長谷川町子	하세가와 마치코
1043	橋掛り	하시가카리
1044	羽柴秀吉	하시바 히데요시
1045	初詣	하쓰모데

1046	葉山嘉樹	하야마 요시키
1047	葉山嘉樹	하야마 요시키
1048	林羅山	하야시 라잔
1049	林子平	하야시 시헤이
1050	林芙美子	하야시 후미코
1051	林房雄	하야시 후사오
1052	林房雄	하야시 후사오
1053	林広守	하야시 히로모리
1054	俳諧	하이카이
1055	俳諧	하이카이
1056	俳諧連歌	하이카이렌가
1057	俳句	하이쿠
1058	俳句	하이쿠
1059	諧風柳多留	하이후야나기타루
1060	八文字屋	하치몬지야
1061	八文字屋本	하치몬지야본
1062	博多	하카타
1063	白羊宮	하쿠요큐
1064	白鳳	하쿠호
1065	旗本	하타모토
1066	平成	헤이세이
1067	平成	헤이세이
1068	平安	헤이안
1069	平安京	헤이안쿄
1070	平治	헤이지
1071	平家	헤이케
1072	平家女護島	헤이케노고노시마
1073	平家物語	헤이케모노가타리
1074	保元の乱	호겐
1075	法然	호넨
1076	法隆寺	호류지
1077	堀辰雄	호리 다쓰오
1078	堀口大学	호리구치 다이가쿠
1079	泡鳴詩集	호메이시슈
1080	法政	호세이
1081	宝生	호쇼
1082	星野	호시노
1083	北陸	호쿠리쿠
1084	伯耆	호키
1085	仏様	호토케사마

1086	不如婦	호토토기스
1087	ホトトギス	호토토기스
1088	ホトトギス	호토토기스
1089	本狂言	혼교겐
1090	本音	혼네
1091	本能寺	혼노지
1092	本多	혼다
1093	本多庸一	혼다 요이치
1094	本州	혼슈
1095	北海道	홋카이도
1096	北海道ウタリ	홋카이도우타리
1097	発句	훗쿠
1098	堀田あけみ	훗타 아케미
1099	堀田善衛	훗타 요시에
1100	兵庫	효고
1101	風雅和歌集	후가와카슈
1102	譜代	후다이
1103	不動	후도
1104	風土記	후도키
1105	古井由吉	후루이 요시키치
1106	古井由吉	후루이 요시키치
1107	古川	후루카와
1108	古川宣譽	후루카와
1109	古河	후루카와
1110	振袖	후리소데
1111	風姿花伝	후시카덴
1112	不破	후와
1113	富士	후지
1114	富士山	후지산
1115	藤原為時	후지와라노 다메토키
1116	藤原俊成	후지와라노 도시나리
1117	藤原道長	후지와라노 미치나가
1118	藤原通俊	후지와라노 미치토시
1119	藤原良房	후지와라노 요시후사
1120	深川	후카가와
1121	福田	후쿠다
1122	福島	후쿠시마
1123	福岡	후쿠오카
1124	福井	후쿠이
1125	福沢諭吉	후쿠자와 유키치

1126	福武書店	후쿠타케쇼텐
1127	二葉亭四迷	후타바테이 시메이
1128	日向	휴가
1129	東山	히가시야마
1130	彼岸	히간
1131	肥後	히고
1132	肥後	히고
1133	非御家人	히고케닌
1134	樋口一葉	히구치 이치요
1135	雛祭り	히나마쓰리
1136	火野葦平	히노 아시헤이
1137	日の丸	히노마루
1138	非人	히닌
1139	飛彈	히다
1140	秀吉	히데요시
1141	秀忠	히데타다
1142	平仮名	히라가나
1143	平仮名	히라가나
1144	平野謙	히라노 겐
1145	平田拊石	히라타 후세키
1146	広島	히로시마
1147	広島	히로시마
1148	広島女学院	히로시마조가쿠인
1149	卑弥呼	히미코
1150	日比谷	히비야
1151	稗田阿礼	히에다노 아레
1152	比叡山	히에이잔
1153	肥前	히젠
1154	光源氏	히카루 겐지
1155	常陸	히타치
1156	日立	히타치
1157	一橋	히토쓰바시

[표 52]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일본어-학술분야)

2)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오표기
1	仮名手本忠臣蔵	가나데혼추신구라	가나데혼츄신구라
2	鴨長明	가모노 조메이	가메노 조메이
3	上方	가미가타	가미가다
4	歌舞伎十八番	가부키주하치반	가부키쥬하치반
5	歌舞伎町	가부키초	가부키쵸
6	葛飾北齋	가쓰시카 호쿠사이	가쓰시카 흑사이
7	開成所	가이세이조	가이세이쵸
8	海潮音	가이초온	가이초온
9	梶井基次郎	가지이 모토지로	가지이 모토지로우
10	角川書店	가도가와쇼텐	가토가와쇼텐
11	勸進帳	간진초	간진쵸
12	活水女学院	갓스이조가쿠인	갓스이쵸가쿠인
13	慶應義塾	게이오기주쿠	게이오기쥬쿠
14	慶應義塾大学	게이오기주쿠대학	게이오기쥬쿠대학
15	慶長の役	게이초노 에키	게이초노 에키
16	契沖	게이추	게이츄
17	源平盛衰記	겐페이조수이키	겐페이쵸수이키
18	小結	고무스비	고무스미
19	古浄瑠璃	고조루리	고쵸루리
20	古今和歌六帖	고킨와카로쿠조	고킨와카로쿠쵸
21	後藤明生	고토 아키오	고토오 아키오
22	後藤宙外	고토 추가이	고토오 츄우가이
23	国性爺合戦	고쿠센야캇센	곡센야캇센
24	今昔物語集	곤자쿠모노가타리슈	곤자쿠모노가타리슈
25	長尾龍一	나가오 류이치	나가오 류우이치
26	永井荷風	나가이 가후	나가이 카후우
27	長塚節	나가쓰카 다카시	나가츠카 타카시
28	檜山節考	나라야마부시코	나라야마부시고
29	成島柳北	나루시마 류호쿠	나루시마 류우호쿠
30	夏目漱石	나쓰메 소세키	나츠메 소오세키
31	夏目伸六	나쓰메 신로쿠	나츠메 신로쿠
32	夏目金之介	나쓰메 긴노스케	나츠메 킨노스케
33	中勘助	나카 간스케	나카 칸스케
34	中上健次	나카가미 겐지	나카가미 켄지
35	中村光夫	나카무라 미쓰오	나카무라 미츠오
36	中村真一郎	나카무라 신이치로	나카무라 신이치로오
37	中江兆民	나카에 조민	나카에 쵸민
38	中原中也	나카하라 추야	나카하라 츄우야
39	野上豊一郎	노가미 도요이치로	노가미 토요이치로오
40	能	노	노오
41	新潟	니이가타	니가타
42	西脇順三郎	니시와키 준사부로	니시와키 쥬사부로오
43	新原敏三	니이하라 빈조	니이하라 빈조오
44	二条良基	니조 요시모토	니쵸 오시모토
45	二条良基	니조 요시모토	니쵸오 요시모토
46	新渡戸稻造	니토베 이나조	니토베 이나쵸

47	日本永代蔵	닛폰에이다이구라	니폰에이타이구라
48	人形浄瑠璃	닌교조류리	닌교조류리
49	人情本	닌조본	닌조본
50	人情本	닌조훈	닌조훈
51	谷崎潤一郎	다니자키 준이치로	다니자키 준이치로
52	大導寺信転	다이도사 신스케	다이도오사 신스케
53	太政官	다조간	다조간
54	手塚治虫	데즈카 오사무	데쓰카 오사무
55	天地有情	덴치우조	덴치우조
56	田楽	덴가쿠	덴카쿠
57	とはずがたり	도하즈가타리	도와즈가타리
58	トイツ	도이쓰	도이치
59	東条英幾	도조 히데키	도조 히데키
60	栃木	도치기	도치기
61	東海道中膝栗毛	도카이도추히자쿠리게	도카이도츠히자쿠리게
62	篤次郎	도쿠지로	도쿠지로오
63	連歌	렌가	렝가
64	浪人	로닌	로오닝
65	老中	로주	로쥬
66	凌雲集	료운슈	료운슈우
67	柳亭種彦	류데이 다네히코	류우데이 타네히코
68	陸中	리쿠추	리쿠츄
69	丸山薫	마루야마 가오루	마루야마 카오루
70	正宗白鳥	마사무네 하쿠초	마사무네 하쿠초오
71	松下	마쓰시타	마쓰시다
72	松田修	마쓰다 오사무	마츠다 오사무
73	松本清張	마쓰모토 세이초	마츠모토 세이초오
74	松尾芭蕉	마쓰오 바쇼	마츠오 바쇼오
75	枕草子	마쿠라노 소시	마쿠라노 소오시
76	めざまし草	메자마시소	메자마시소오
77	森林太郎	모리 린타로	모리 린타로오
78	森鷗外	모리 오가이	모리 오오가이
79	森田草平	모리타 소헤이	모리타 소오헤이
80	明星	묘조	묘조
81	村上龍	무라카미 류	무라카미 류우
82	村田珠光	무라타 주코	무라타 쥬코
83	室生犀星	무로 사이세이	무로오 사이세이
84	武者小路実篤	무샤노코지 사네아쓰	무샤노코오지 사네아츠
85	向井去来	무카이 교라이	무카이 쿄라이
86	源順	미나모토노 시타고	미나모토노 시타고오
87	源俊頼	미나모토노 도시요리	미나모토노 토시요리
88	水上勉	미나카미 쓰토미	미나카미 츠토무
89	宮本顯治	미야모토 겐지	미야모토 겐지
90	宮沢賢治	미야자와 겐지	미야자와 겐지
91	三好達治	미요시 다쓰지	미요시 타츠지
92	三木露風	미키 로후	미키 로후우
93	三木清	미키 기요시	미키 키요시
94	文芸春秋	분게이슌주	분게이슌쥬
95	備中	빗추	빗쥬

96	讃岐	사누키	사누
97	佐々木基一	사사키 기이치	사사키 키이치
98	佐伯彰一	사에키 쇼이치	사에키 쇼오이치
99	西行	사이교	사이교오
100	最澄	사이초	사이초
101	斎藤緑雨	사이토	사이토오
102	斎藤清衛	사이토 세이에이	사이토오 세이에이
103	サザエさん	사자에산	사자에상
104	佐久間柳居	사쿠마 류쿄	사쿠마 류우쿄
105	里見弴	사토미 돈	사토미 톱
106	佐藤春夫	사토 하루오	사토오 하루오
107	佐橋甚五郎	사하시 진고로	사하시 징고로
108	佐橋甚五郎	사하시 진고로	사하시 징고로오
109	佐橋慶女	사하시 게이쥬	사하시 케이쥬
110	山椒大夫	산쇼 다유	산쇼오 다유우
111	三遊亭円朝	산유테이 엔초	산유테이 엔초
112	三太郎	산타로	산타로오
113	山東京伝	산토 교덴	산토 교덴
114	山東京伝	산토 교덴	산토오 교오덴
115	薩長	삿초	삿초
116	釈迢空	샤쿠 조쿠	샤쿠 초오쿠우
117	瀬川丑松	세가와 우시마쓰	세가와 우시마츠
118	清少納言	세이 쇼나곤	세이 쇼오나공
119	醒睡笑	세이스이쇼	세이스이쇼오
120	西洋道中膝栗毛	세이요도추히자쿠리게	세이요도츠히자쿠리게
121	川柳	센류	센류우
122	曾根崎心中	소네자키신쥬	소네자키신쥬
123	宗義智	소 요시토시	소오 요시토시
124	宗祇	소기	소오기
125	宗鑑	소칸	소오칸
126	將門記	쇼몬기	쇼오몽기
127	昭和	쇼와	쇼오와
128	続日本記	쇼쿠니혼키	쇼쿠니혼키
129	宗門改め	슈몬아라타메	슈몬아라다메
130	拾遺和歌集	슈이 와카집	슈우이 와카집
131	春琴抄	슌킨쇼	슌킨쇼오
132	菅原伝授手習鏡	스가와라덴쥬테나라이카가미	스가와라덴쥬테나라이카가미
133	菅原孝標	스기와라노 다카스에	스기와라노 타카스에
134	薄田泣薫	스스키다 규킨	스스키다 큐우킨
135	末広鉄腸	스에히로 뎃초	스에히로 뎃초
136	末広鉄腸	스에히로 뎃초	스에히로 뎃초오
137	しがらみ草紙	시가라미 조시	시가라미 조오시
138	四国	시코쿠	시고쿠
139	椎名麟三	시이나 린조	시나 린조
140	島村抱月	시마무라 호게쓰	시마무라 호오게츄
141	島尾敏雄	시마오 도시오	시마오 토시오
142	島崎藤村	시마자키 도손	시마자키 토오송
143	司馬療太郎	시바 료타로	시바 료오타로오
144	柴田翔	시바타 쇼	시바타 쇼오

145	渋江抽齋	시부에 추사이	시부에 추우사이
146	鹽田良平	시오다 료헤이	시오다 료오헤이
147	椎名麟三	시이나 린조	시이나 린조오
148	式亭三馬	시키테이 산바	시키테이 삼바
149	信州	신슈	신슈우
150	新拾遺和歌集	신슈이와카집	신슈우이와카집
151	心中	신주	신주
152	心中天網島	신주덴노아미지마	신주덴노아미지마
153	心中物	신주모노	신주모노
154	新宿	신주쿠	신주쿠
155	新宿	신주쿠	신주쿠
156	新潮社	신초샤	신초샤
157	新勅撰和歌集	신초쿠센와카슈	신초쿠센와카슈
158	新花摘	신하나쓰미	신하나쓰미
159	堤中納言物語	쓰쓰미츄나곤모노가타리	쓰쓰미츄나곤모노가타리
160	有島武郎	아리시마 다케오	아리시마 타케오
161	阿部次郎	아베 지로	아베 지로오
162	安部公房	아베 고보	아베 코오보오
163	阿仏尼	아부쓰니	아부츄니
164	浅井了意	아사이 료이	아사이 료오이
165	赤川次郎	아카가와 지로	아카가와 지로오
166	芥川龍之介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아쿠타가와 류우노스케
167	秋庭太郎	아키바 타로	아키바 타로오
168	安楽庵策伝	안라쿠안 시쿠덴	안라쿠안 시쿠덴
169	柳田国男	야나기다 구니오	야나기다 쿠니오
170	矢野龍溪	야노 류케이	야노 류우케이
171	野郎歌舞伎	야로카부키	야로가부키
172	山田美妙	야마다 비묘	야마다 비묘오
173	山本有三	야마모토 유조	야마모토 유우조오
174	山本荷兮	야마모토 가케이	야마모토 카케이
175	山本健吉	야마모토 겐키치	야마모토 켄키치
176	安岡章太郎	야스오카 쇼타로	야스오카 쇼오타로오
177	靖国神社	야스쿠니진자	야스쿠니진자
178	石川啄木	이시카와 다쿠보쿠	야시카와 타쿠보쿠
179	江藤淳	에토 준	에토오 준
180	江藤淳	에코 준	에토오 준
181	遠藤周作	엔도 슈사쿠	엔도오 슈우사쿠
182	越中	옛츄	옛츄
183	小笠原克	오가사하라 가쓰	오가사하라 카츄
184	尾形仂	오가타 쓰토무	오가타 츄토무
185	阿国歌舞伎	오쿠니카부키	오쿠니가부키
186	お旅所	오타비쇼	오타비쇼
187	小山内薫	오사나이 가오루	오사나이 카오루
188	大阪外国語	오사카가이코쿠고	오사카가이코쿠고
189	大野縫殿之助	오노 누이노스케	오오노 누이노스케
190	太安満侶	오노 야스마로	오오노 야스마로
191	大西巨人	오니시 교진	오오니시 교진
192	大村	오무라	오오무라
193	大庭みな子	오바 미나코	오오바 미나코

194	大林	오바야시	오오바야시
195	大阪	오사카	오오사카
196	大阪毎日新聞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	오오사카 마이니치 신문
197	大宅壯一	오야 소이치	오오야 소오이치
198	大日本豊秋津洲	오야마토토요아키쓰시마	오오야마토토요아키쓰시마
199	大八洲国	오야시마노쿠니	오오야시마노쿠니
200	大江健三郎	오에 겐자부로	오오에 겐자부로우
201	大岡昇平	오오카 쇼헤이	오오오카 쇼오헤이
202	大石路花	오이시 로카	오오이시 로카
203	大津順吉	오쓰 준키치	오오쓰 중키치
204	大塚	오쓰카	오오쓰카
205	太田豊太郎	오타 도요다로	오오타 토요타로오
206	大伴家持	오토모노 야카모치	오오토모노 야카모치
207	尾崎紅葉	오자키 고요	오자키 코오요오
208	お茶の水女子	오차노미즈조시	오차노미즈쵸시
209	おちゃら	오차라	오차라
210	大岡昇平	오오카 쇼헤이	오카 쇼헤이
211	興津弥五右衛門	오키쓰 야고에몬	오키츠 야고에몽
212	伽婢子	오토기 보코	오토기 보오코
213	御伽婢子	오토기보코	오토기보오코
214	尾張	오와리	오하리
215	女浄瑠璃	온나조루리	온나쵸루리
216	越智治雄	오치 하루오	웃치 하루오
217	若菜集	와카나슈	와카나슈우
218	渡辺淳一	와타나베 준이치	와타나베 준이치
219	渡辺淳一	와타나베 준이치	와타나베 준이치
220	与謝野鉄幹	요사노 뎃칸	요사노 텍칸
221	与謝蕪村	요사부손	요사부송
222	吉増剛造	요시마스 고조	요시마스 고오조오
223	吉行淳之介	요시유키 준노스케	요시유키 준노스케
224	吉行淳之介	요시유키 준노스케	요시유키 준노스케
225	杏子	요코	요오코
226	謡曲	요쿄쿠	요오쿄쿠
227	横光利一	요코미쓰 리이치	요코미츠 리이치
228	横光利一	요코미쓰 리이치	요코미치 리이치
229	上田敏	우에다 빈	우에다 빙
230	魚住折蘆	우오즈미 세쓰로	우오즈미 세츠로
231	宇津宮	우쓰노미야	우츠노미야
232	宇津物語	우쓰보 이야기	우츠보 이야기
233	内村鑑三	우치무라 간조	우치무라 간조
234	浮世草子	우키요조시	우키요조오시
235	有楽座	유라쿠자	유우라쿠자
236	茨城	이바라키	이바라기
237	石垣りん	이시가키 린	이시가키 링
238	石坂洋次郎	이시자카 요지로	이시자카 요오지로오
239	石川淳	이시카와 준	이시카와 쥰
240	石川淳	이시카와 준	이시카와 쥰
241	石川達三	이시카와 다쓰조	이시카와 타쓰조오
242	石川天崖	이시가와 덴가이	이시카와 텡가이

243	石原慎太郎	이시하라 신타로	이시하라 신타로오
244	岩野泡鳴	이와노 호메이	이와노 호오메이
245	飯島耕一	이시마 고포치	이시마 코오이치
246	泉鏡花	이즈미 교카	이즈미 쿄오카
247	五木寛之	이쓰키 히로유키	이츠키 히로유키
248	一條兼良	이치조 가네라	이치조오 카네라
249	市古貞次	이치코 데이지	이치코 테이지
250	市川段十郎	이치카와 단주로	이치키와 단주로
251	伊藤	이토	이토오
252	伊藤整	이토 세이	이토오 세이
253	伊藤博文	이토 히로부미	이토오 히로부미
254	伊藤左千夫	이토 사치오	이토우 사치오
255	伊藤忠商社	이토추상사	이토츄상사
256	邪宗門	자슈몬	자슈몬
257	邪宗門	자슈몬	자슈우몽
258	蛇柳	자야나기	자야나기
259	貞観	조간	쇼간
260	序二段	조니단	쇼니단
261	町人	조닌	쇼닌
262	女孺子	조라이시	쇼라이시
263	浄瑠璃	조루리	쇼루리
264	浄瑠璃節	조루리부시	쇼루리부시
265	縄文	조몬	쇼몬
266	長州	조슈	쇼슈
267	貞永式目	조에이시키키모쿠	쇼에이시키키모쿠
268	浄瑠璃	조루리	쇼오루리
269	上智	조치	쇼치
270	城下町	조카마치	쇼카마치
271	情海波瀾	조카이하란	쇼카이하란
272	丁髷	존마게	존마게
273	中国地方	주고쿠 지방	쥬고쿠 지방
274	中日	주니치	쥬니치
275	中日新聞	주니치 신문	쥬니치 신문
276	十段	주단	쥬단
277	中老	주로	쥬로
278	十両	주료	쥬료
279	中部	주부	쥬부
280	忠臣蔵	주신구라	쥬신구라
281	仲哀	주아이	쥬아이
282	中央公論	주오코론	쥬오코론
283	塾	주쿠	쥬쿠
284	十八番	주하치반	쥬하치반
285	チパンク	지판쿠	지팡구
286	神社	진자	진자
287	十返舎一九	짚펜샤 잇쿠	집펜샤 익쿠
288	町人	조닌	쇼오닝
289	中部地方	주부 지방	쥬부 지방
290	津軽	쓰가루	츠가루
291	TUGUMI(ツグミ)	쓰구미	츠구미

292	徒然草	쓰레즈레구사	츠레즈레구사
293	鶴田	쓰루다	츠루다
294	鶴屋南北	쓰루야 난보쿠	츠루야 남보쿠
295	坪内逍遙	쓰보우치 쇼요	츠보우치 쇼오요
296	坪井栄	쓰보이 사카에	츠보이 사카에
297	律島	쓰시마	츠시마
298	対馬島	쓰시마	츠시마
299	津島佑子	쓰시마 유코	츠시마 유우코
300	津和野	쓰와노	츠와노
301	堤中納言物語	쓰쓰미 주나곤	츠츄미 추우나공
302	筒井康隆	쓰쓰이 야스타카	츠츄이 야스타카
303	土井晩翠	쓰치이 반스이	츠치이 반스이
304	菟玖波集	쓰쿠바집	츄쿠바집
305	月草	쓰키쿠사	츄키쿠사
306	千葉	치바	치바
307	千島	치시마	치시마
308	智恵子抄	지에코초	치에코초
309	千代田区	치요다구	치요다구
310	千代子	치요코	치요코
311	近松門左衛門	지카마쓰 문자에몬	치카마쓰 문자에몽
312	筑摩	지쿠마	치쿠마
313	千曲川	지쿠마가와	치쿠마가와
314	筑摩書房	지쿠마쇼보	치쿠마쇼보
315	竹齋	지쿠사이	치쿠사이
316	香川	가가와	카가와
317	蜻蛉日記	가게로 일기	카게로오 일기
318	鹿兒島	가고시마	카고시마
319	仮名	가나	카나
320	仮名垣魯文	가나가키 로분	카나가키 로붕
321	仮名草子	가나조시	카나조오시
322	金子光春	가네코 미쓰하루	카네코 미츠하루
323	角川	가도가와	카도가와
324	角川書店	가도가와 서점	카도가와 서점
325	門野	가도노	카도노
326	柄井川柳	가라이 센류	카라이 센류우
327	柄谷行人	가라타니 고진	카라타니 코오징
328	枯山水	가레산스이	카레산스이
329	歌留多	가루타	카루타
330	鎌倉	가마쿠라	카마쿠라
331	亀井俊介	가메이 슌스케	카메이 슌스케
332	亀井勝一郎	가메이 가쓰이치로	카메이 카츠이치로오
333	鴨長明	가모노 초메이	카모노 초오메이
334	歌舞伎	가부키	카부키
335	葛西善蔵	가사이 겐조	카사이 겐조오
336	笠原淳	가사하라 준	카사하라 준
337	川西	가와니시	카와니시
338	川村湊	가와무라 미나토	카와무라 미나토
339	川端康則	가와바타 야스노리	카와바타 야스노리
340	川合貞一	가와이 데이이치	카와이 데이이치

341	川副国基	가와모토 구니모토	카와조에 쿠니모토
342	川上眉山	가와카미 비잔	카와카미 비잔
343	河竹黙阿弥	가와타케 모쿠아미	카와타케 모쿠아미
344	河東碧梧桐	가와히가시 헤키고도	카와히가시 헤키고도오
345	開高健	가이코 겐	카이코오 켄
346	開高健	가이코 다케시	카이코오 타케시
347	懷風藻	가이후소	카이후우소오
348	梶井基次郎	가지이 모토지로	카지이 모토지로오
349	勝本清一郎	가쓰모토 세이이치로	카츠모토 세이이치로오
350	片山	가타야마	카타야마
351	片仮名	가타카나	카타카나
352	加藤愀邨	가토 슈손	카토오 슈우송
353	神田区錦城	간다구 긴조	칸다구 킨조오
354	蒲原有明	칸바라 아리아케	캄바라 아리아케
355	河童	갓파	캅파
356	慶應	게이오	케이오오
357	慶長	게이초	케이초오
358	敬太郎	게이타로	케이타로오
359	建礼門院右京大夫集	겐레이몬인 우쿄다이부집	켄레이몽잉 우쿄오노다이부집
360	兼行法師	겐코 법사	켄코오 법사
361	小金井	고가네이	코가네이
362	駒子	고마코	코마코
363	小宮	고미야	코미야
364	小宮豊陸	고미야 도요타카	코미야 토요타카
365	小林一茶	고바야시 잇사	코바야시 잇사
366	小林多喜二	고바야시 다키지	코바야시 타키지
367	小林秀雄	고바야시 히데오	코바야시 히데오
368	小堀	고보리	코보리
369	小堀桂一郎	고보리 게이이치로	코보리 게이이치로오
370	小杉天外	고스기 덴가이	코스기 텡가이
371	河野多恵子	고노 다에코	코오노 타에코
372	幸田露伴	고다 로한	코오다 로항
373	紅露	고로	코오로
374	神戸	고베	코오베
375	高野聖	고야산	코오야산
376	小泉純一	고이즈미 준이치	코이즈미 준이치
377	恋川春町	고이카와 하루마치	코이카와 하루마치
378	小池正直	고이케	코이케
379	小島信夫	고지마 노부오	코지마 노부오
380	心	고코로	코코로
381	小倉	고쿠라	코쿠라
382	近藤芳美	곤도 요시미	콘도오 요시미
383	金色夜叉	곤지키야샤	콘지키야샤
384	去来抄	교라이초	쿄라이초
385	虚子句集	교시하이쿠집	쿄시하이쿠집
386	狂言	교겐	쿄오겐
387	狂歌	교카	쿄오카
388	景戒	고카이	쿄오카이

389	京極為兼	교코쿠 다메카네	쿄오코쿠 타메카네
390	京都	교토	쿄오토
391	曲亭馬琴	교쿠테이 바킨	쿄쿠테이 바킨
392	国枝	쿠니에다	쿠니에다
393	国木田独歩	쿠니키다 돛보	쿠니키다 돛보
394	蔵原惟人	쿠라하라 고레히토	쿠라하라 코레히토
395	黒田勝弘	쿠로다 가쓰히로	쿠로다 카츠히로
396	黒井千次	쿠로이 센지	쿠로이 센지
397	熊本	쿠마모토	쿠마모토
398	隈本	쿠마모토	쿠마모토
399	久米正雄	쿠메 마사오	쿠메 마사오
400	久保田	쿠보타	쿠보타
401	草野心平	쿠사노 신페이	쿠사노 신페이
402	九州	큐슈	큐슈슈우
403	紀貫之	기노 쓰라유키	키노 츠라유키
404	城の崎	기노사키	키노사키
405	木下尚江	기노시타 나오에	키노시타 나오에
406	木下杢太郎	기노시타 모쿠타로	키노시타 모쿠타로오
407	木下順二	기노시타 준지	키노시타 준지
408	砧	기누타	키누타
409	桐壺	기리쓰보	키리쓰보
410	吉里吉里人	기리기리 사람	키리키리 사람
411	木村達	기무라	키무라
412	君が代	기미가요	키미가요
413	喜美子	기미코	키미코
414	清子	기요코	키요코
415	菊屋太兵衛	기쿠야 다헤	키쿠야 타헤에
416	菊地	기쿠치	키쿠치
417	菊地寛	기쿠치 칸	키쿠치 칸
418	菊子	기쿠코	키쿠코
419	北杜夫	기타 모리오	키타 모리오
420	北村太郎	기타무라 다로	키타무라 타로오
421	北村透谷	기타무라 도코	키타무라 토오코
422	北島親房	기타바타케 지카후사	키타바타케 치카후사
423	北原白秋	기타하라 하쿠슈	키타하라 하쿠슈우
424	キッチン	킷친	킷친
425	田子浦丸	다고우라마루	타고우라마루
426	田邊聖子	다나베 세이코	타나베 세이코
427	田中明	다나카 아키라	타나카 아키라
428	谷崎潤一郎	다니자키 준이치로	타니자키 준이치로오
429	谷川俊太郎	다니카와 슌타로	타니카와 슌타로오
430	玉勝間	다마카쓰마	타마카쓰마
431	為永春水	다메나가 슌스이	타메나가 슌스이
432	田宮虎彦	다미야 도라히코	타미야 토라히코
433	田山花袋	다야마 가타이	타야마 카타이
434	俵万智	다와라 마치	타와라 마치
435	平清盛	다이라노 기요모리	타이라노 키요모리
436	大正	다이쇼	타이쇼오
437	立原正秋	다치하라 마사아키	타치하라 마사아키

438	立原道造	다치하라 미치조	타치하라 미치조오
439	高村光太郎	다카무라 고타로	타카무라 코오타로오
440	高見順	다카미 준	타카미 준
441	高瀬舟	다카세부네	타카세부네
442	高山樗牛	다카야마 조규	타카야마 초규우
443	高井有三	다카이	타카이
444	高樹のぶ子	다카키 노부코	타카키 노부코
445	高浜虚子	다카하마 교시	타카하마 교시
446	高橋和己	다카하시	타카하시
447	竹田泰淳	다케다 다이준	타케다 타이준
448	竹内好	다케우치	타케우치
449	竹取	다케토리	타케토리
450	滝沢馬琴	다키자와 바킨	타키자와 바킹
451	短冊	단자쿠	탄자쿠
452	寺田寅彦	테라다 도라히코	테라다 토라히코
453	寺内	테라우치	테라우치
454	心中天の網島	덴노아미지마	텐노아미지마
455	天正	덴쇼	텐쇼오
456	天津	덴진	텐진
457	舎人	도네리	토네리
458	鳥居	도리이	토리이
459	富山道治	도미야마 도야	토미야마 도오야
460	富岡多恵子	도미오카 다에코	토미오카 타에코
461	土佐	도사	토사
462	外山正一	도야마 마사카즈	토야마 마사카즈
463	外山慈比古	도야마 시게히코	토야마 시게히코
464	峠三吉	도게 산키치	토오게 상키치
465	東海散士	도카이 산시	토오카이 산시
466	豊崎	도요사키	토요사키
467	豊臣	도요토미	토요토미
468	徳川	도쿠가와	토쿠가와
469	徳川家康	도쿠가와 이에야스	토쿠가와 이에야스
470	徳永直	도쿠나가 스나오	토쿠나가 스나오
471	徳田秋声	도쿠다 슈세이	토쿠다 슈우세이
472	徳富蘆花	도쿠토미 로카	토쿠토미 로카
473	徳富健次郎	도쿠토미 겐지로	토쿠토미 겐지로오
474	時雄	도키오	토키오
475	パチンコ	파친코	파칭코
476	萩原朔太郎	하기와라 사쿠타로	하기와라 사쿠타로오
477	花田清輝	하나다 기요테라	하나다 키요테루
478	華岡青洲	하나오카 세이슈	하나오카 세이슈우
479	原民喜	하라 다미키	하라 타미키
480	原宿	하라주쿠	하라쥬쿠
481	針生一郎	하류	하류우
482	浜松	하마마쓰	하마마츠
483	浜松中納言	하마마쓰 주나곤	하마마츠 쥬우나공
484	長谷川天渓	하세가와 덴케이	하세가와 텡케이
485	俳文	하이분	하이붕
486	俳諧七部集	하이카이시치부슈	하이카이시치부쇼

487	服部土芳	핫토리 도호	핫토리 도호오
488	服部沾圃	핫토리 설편	핫토리 설편오
489	平城京	헤이조쿄	헤이조쿄
490	平中物語	헤이추 이야기	헤이츄우 이야기
491	碧梧桐句集	헤키고도 하이쿠집	헤키고도오 하이쿠집
492	堀辰雄	호리 다쓰오	호리 타츠오
493	北条霞亭	호조 가테이	호오쥬오 카테이
494	方丈紀	호조키	호오쥬오키
495	北条侍從	호조 도키무네	호쥬 도키무네
496	北条義時	호조 요시도키	호쥬 요시도키
497	方丈紀	호조키	호쥬키
498	北海道	홋카이도	훅카이도오
499	本多秋五	혼다 슈고	혼다 슈우고
500	本地垂迹	혼지스이자쿠	혼지스이자쿠
501	本朝三国志	혼조산코쿠시	혼쵸산코쿠시
502	本郷	혼고	홍고오
503	二葉亭四迷	후타바테이 시메이	후다바테이 시메이
504	古山高麗雄	후루야마 고마오	후루야마 코마오
505	後拾遺和歌	후슈이 와카	후슈우이 와카
506	風姿花伝	후시카텐	후우시카텐
507	藤原公任	후지와라 킨토	후지와라 킨토오
508	藤原長子	후지와라노 초시	후지와라노 초오시
509	藤原定家	후지와라노 데이카	후지와라노 데이카
510	深沢七郎	후카자와 시치로	후카자와 시치로오
511	福永武彦	후쿠나가 다케히코	후쿠나가 타케히코
512	福沢諭吉	후쿠자와 유키치	후쿠자와 유키치
513	樋口一葉	히구치 이치요	히구치 이치요오
514	日夏	히나쓰	히나츠
515	日野啓三	히노 게이조	히노 케이조오
516	平野謙	히라노 겐	히라노 켄
517	平林初之輔	히라바야시 하쓰노스케	히라바야시 하츠노스케
518	平塚らいてふ	히라쓰카 라이초	히라츠카 라이쵸오
519	広津柳浪	히로쓰 류로	히로츠 류우로오
520	久松潜一	히사마쓰 센이치	히사마츠 센이치
521	光君	히카루노 기미	히카루노 키미

[표 53]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일본어-학술분야)

2.6.3. 출판 분야

1)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1	鹿児島本線	가고시마본선
2	唐門	가라몬
3	唐戸地区	가라토지구
4	かろのうろん	가로노우론
5	我流風	가루후
6	鎌倉	가마쿠라
7	鎌倉	가마쿠라
8	鎌倉大仏	가마쿠라다이부쓰
9	雷門	가미나리몬
10	雷門	가미나리몬
11	歌舞伎座	가부키자
12	歌舞伎座	가부키자
13	歌舞伎町	가부키초
14	かさの家	가사노야
15	花椒亭	가쇼테이
16	霞ヶ関	가스미가세키
17	香椎線	가시이선
18	替え玉	가에다마
19	川端	가와바타
20	川端ぜんざい広場	가와바타젠자이히로바
21	戎壇院	가이단인
22	海鮮食堂すいか	가이센쇼쿠도스िका
23	海響館	가이쿄칸
24	飾り山	가자리야마
25	風見鶏	가자미도리
26	各駅停車	가쿠에키테이샤
27	昇き山	가키야마
28	片瀬江ノ島	가타세에노시마
29	堅田橋	가타타바시
30	観音堂	간논도
31	神田祭り	간다마쓰리
32	神田名神	간다메이신
33	神田神社	간다신사
34	巖流島連絡船	간류지마연락선
35	元祖長浜屋	간소나가하마야
36	寛永寺	간에이지

37	觀世音寺	간제온지
38	華嚴滝	계곤노타키
39	けやき坂通り	게야키자카도리
40	京成線	게이세이선
41	京成線	게이세이선
42	慶應大学	게이오대학
43	慶應大学	게이오대학
44	京王百貨店	게이오백화점
45	京王線	게이오선
46	源平池	겐페이이케
47	月食	겟쇼쿠
48	強羅	고라
49	高麗門	고라이몬
50	光明禪寺	고묘젠지
51	虎夢	고무
52	小結	고무스비
53	交番	고반
54	神戸らんぷ亭	고베란푸테이
55	甲州街道	고슈카이도
56	腰越駅	고시고에역
57	麴町	고지마치역
58	皇嘉門	고카몬
59	合格ちくわ	고카쿠치쿠와
60	皇居	고쿄
61	皇居	고쿄
62	皇居外苑	고쿄가이엔
63	国学院大学	고쿠가쿠인대학
64	小倉	고쿠라
65	極楽寺駅	고쿠라쿠지역
66	国際新赤坂ビル	고쿠사이신아카사카빌딩
67	国体道路	고쿠타이도로
68	呉服町	고후쿠마치
69	京俵	교다와라
70	ぎょうぎ案努竜	교자안도류
71	経藏	교조
72	京都	교토
73	京風もつ処越後屋	교후모쓰도코로에치고야
74	蔵前駅	구라마에역
75	倉吉	구라요시
76	蔵王	구로오

77	櫛田神社	구시다신사
78	元祖くじら屋	구지라야
79	空港線	구코선
80	牛井	규돈
81	休暇村志賀島	규카무라시카노시마
82	急行	규코
83	帰源院	기겐인
84	紀伊國屋	기노쿠니야
85	紀伊國屋書店	기노쿠니야서점
86	鬼怒川	기누가와
87	きらめき通り	기라메키도리
88	木村屋総本店	기무라야소혼텐
89	祇園祭り	기온마쓰리
90	清水観音堂	기요미즈관음당
91	清水谷公園	기요미즈타니코엔
92	北の丸公園	기타노마루코엔
93	鬼多郎親富孝通り店	기타로오야후코도리점
94	北里大学病院	기타사토대학병원
95	北千住	기타센주
96	金印公園	긴인공원
97	銀座	긴자
98	銀座	긴자
99	銀座線	긴자선
100	銀座線	긴자선
101	流れ	나가레
102	長浜とん吉総本店	나가하마돈키치소혼텐
103	七隈線	나나쿠마선
104	那の川	나노카와
105	成田空港	나리타공항
106	並木通り	나미키도리
107	中野	나카노
108	中目黒	나카메구로
109	中村屋	나카무라야
110	仲見世	나카미세
111	中州	나카스
112	中州ぜんざい	나카스젠자이
113	なん伝馬家	난덴우마카
114	南洋堂書店	난요도서점
115	男体山	난타이산
116	男体山	난타이산

117	根津神社	네즈신사
118	乃木神社	노기신사
119	乃木坂駅	노기자카역
120	のりかえ	노리카에
121	乗り越し	노리코시
122	乗り放題	노리호다이
123	飲み放題	노미호다이
124	のぞみ	노조미
125	女峰山	뇨보산
126	女峯山	뇨보산
127	二の丸	니노마루
128	西馬込	니시마고메
129	西新	니시진
130	西鉄	니시테쓰
131	西鉄天神大牟田線	니시테쓰 덴진오무타선
132	西鉄貝塚線	니시테쓰가이즈카선
133	西船橋	니시후나바시
134	二重橋前	니주바시마에
135	二天門	니텐몬
136	日本橋	니혼바시
137	日本酒	니혼슈
138	日本興業銀行	니혼코교은행
139	日産	닛산
140	日生劇場	닛세이극장
141	日清食品	닛신쇼쿠힌
142	日刊現代	닛칸겐다이
143	日光	닛코
144	日光	닛코
145	日光多母沢御用邸記念公園	닛코다모자와기념공원
146	日暮里駅	닛포리역
147	七夕祭り	다나바타마쓰리
148	多摩地区	다마지구
149	田町駅	다마치역
150	溜池山王駅	다메이케산노역
151	食べ放題	다베호다이
152	大老	다이로
153	大明坦坦麵	다이메탄탄멘
154	大名	다이묘
155	台場一丁目	다이바잇초메
156	大盛堂書店	다이세이도서점

157	大正通り	다이쇼도리
158	大谷川	다이야가와
159	第一生命館	다이이치세이메이칸
160	第一岩屋	다이이치이와야
161	代官山	다이칸야마
162	代官山	다이칸야마
163	太閤町割	다이코마치와리
164	大黒屋	다이코쿠야
165	第八たこ花丸	다이하치타코하나마루
166	大博通り	다이하쿠도리
167	大宰府線	다자이후선
168	田島	다지마
169	高輪消防署	다카나와소방서
170	鷹観音	다카네
171	高田馬場駅	다카다노바바역
172	竹むら	다케무라
173	竹橋	다케바시
174	竹芝	다케시바
175	竹下通り	다케시타도리
176	多慶屋	다케야
177	旦過市場	단가시장
178	暖手	단테
179	定食	데이쇼쿠
180	帝国劇場	데이코쿠극장
181	帝国ホテル	데이코쿠호텔
182	出初式	데조메시키
183	天井	덴돈
184	天州	덴슈
185	天守閣	덴슈가쿠
186	天守台	덴슈다이
187	點心世界	덴신세카이
188	天神	덴진
189	道玄坂	도겐자카
190	東郷神社	도고신사
191	東大寺	도다이지
192	虎の門病院	도라노몬병원
193	どらえもん	도라에몬
194	東方書店	도보서점
195	東武	도부
196	東照宮	도쇼구

197	豊島園 庭の湯	도시마엔 니와노유
198	都営浅草線	도에이아사쿠사센
199	東陽堂書店	도요도서점
200	東横線	도요코센
201	東横イン	도요코인
202	豊田	도요타
203	土居通り	도이도리
204	東西線	도자이센
205	東海道	도카이도
206	東慶寺	도케이지
207	東慶寺	도케이지
208	東京みなと館	도쿄미나토칸
209	東京鳩居堂	도쿄큐쿄도
210	徳川家康	도쿠가와이에야스
211	徳川家康	도쿠가와이에야스
212	東急ハンズ	도큐한즈
213	都府桜前駅	도후로마에역
214	特急	dotkyu
215	楽水園	라쿠스이엔
216	落花生	랏카세
217	煉瓦亭	렌가테이
218	浪人	로닌
219	六本木	롯폰기
220	輪王寺	린노지
221	輪王寺	린노지
222	臨港パーク	린코파크
223	まぐろ井	마구로돈
224	丸の内線	마루노우치센
225	丸の内線	마루노우치센
226	枅形門	마스가타몬
227	松屋	마쓰야
228	松坂屋	마쓰자카야
229	松崎せんべい	마쓰자키센베이
230	前頭	마에가시라
231	舞殿	마이덴
232	まじとん	마지톤
233	幕の内	마쿠노우치
234	まんだらけ	만다라케
235	めがね橋	메가네바시
236	姪浜	메이노하마역

237	明倫館書店	메이린칸서점
238	明治通り	메이지도리
239	明治神宮	메이지신궁
240	森の湯	모리노유
241	森鷗外旧居	모리오우가이옛집
242	門司港	모시코
243	本八幡	모토야와타
244	元箱根	모토하코네
245	もんじゃやき	몬자야키
246	妙見通り	묘켄도리
247	麦茶	무기차
248	宗	무네
249	室見	무로미
250	無印良品	무지루시료힌
251	源頼義	미나모토요리요시
252	源頼朝の墓	미나모토요리토모의무덤
253	みなとみらい	미나토미라이
254	味噌や博多龍龍軒	미소야하카타류류켄
255	三越	미쓰코시
256	瑞穂	미즈호
257	三田線	미타센
258	三岳山	미타케산
259	波羅門	바라몬
260	幕府	바쿠후
261	万能藥	반노야쿠
262	弁天窟	벤텐구쓰
263	防塁前	보루이마에
264	妙園寺	묘엔지
265	文扇堂	분센도
266	文化学院	분카가쿠인
267	文華堂書店	분카도서점
268	文化村通り	분카무라도리
269	篠栗線	사사구리선
270	西郷山公園	사이고야마공원
271	西郷隆盛	사이고타카모리
272	坂下門	사카시타몬
273	榊田町	사카키다마치
274	さけ	사케
275	桜田門	사쿠라다몬
276	さくらや	사쿠라야

277	桜坂	사쿠라자카
278	三の丸	산노마루
279	山王祭り	산노마쓰리
280	山王帽子山	산노보시산
281	三社祭り	산샤마쓰리
282	三社際	산샤사이
283	三省堂書店	산세이도서점
284	三和銀行	산와은행
285	山陽	산요
286	産経新聞	산케이신문
287	舎利殿	샤리덴
288	清道	세도
289	西武	세이부
290	関が原	세키가하라
291	関脇	세키와케
292	泉岳寺	센가쿠지
293	浅草寺	센소지
294	浅草寺	센소지
295	専修大学	센슈대학
296	煎茶	센차
297	相輪棟	소린토
298	そば	소바
299	そば半	소바한
300	総武線	소부센
301	早雲山	소운잔
302	将軍	쇼군
303	湘南江ノ島	쇼난에노시마
304	初代だるま	쇼다이다루마
305	勝道上人	쇼도쇼닌
306	尚武苑	쇼부엔
307	正倉院	쇼소인
308	昭和バス	쇼와버스
309	昌平坂学問所	쇼헤이자카학문소
310	旬里	슌리
311	住吉通り	스미요시도리
312	住友銀行	스미토모은행
313	水天宮前	스이텐구마에
314	品川駅	시나가와역
315	不忍の池	시노바즈의연못
316	不忍池	시노바즈이케

317	白木屋	시로키야
318	下関	시모노세키
319	芝公園駅	시바코엔역
320	渋谷	시부야
321	渋谷	시부야
322	汐留	시오도메
323	潮見公園	시오미공원
324	七五三	시치고산
325	七里ヶ浜駅	시치리가하마역
326	志賀島センター	시카노시마센터
327	下町	시타마치
328	新橋	신바시
329	新橋	신바시
330	新宿	신주쿠
331	神橋	신쿄
332	新木場	신키바
333	新天町倶楽部	신텐초쿠라부
334	鶴岡八幡宮	쓰루가오카하치만구
335	司	쓰카사
336	荒津大橋	아라쓰오하시
337	有栖川宮記念公園	아리스가와노미야기념코엔
338	有明	아리아케
339	浅野長矩	아사노나가노리
340	朝倉街道駅	아사쿠라가이도역
341	浅草	아사쿠사
342	浅草線	아사쿠사센
343	朝日新聞	아사히신문
344	旭軒	아사히켄
345	青海	아오미
346	青海駅	아오미역
347	青山学院大学	아오야마가쿠인대학
348	青山霊園	아오야마레이엔
349	阿波踊り	아와오도리
350	味の正福	아지노마사후쿠
351	明るい農村	아카루이노손
352	赤間神宮	아카마진구
353	赤坂	아카사카
354	赤坂駅	아카사카역
355	赤穂藩	아코오한
356	秋葉原駅	아키하바라역

357	櫓門	야구라몬
358	八木書店	야기서점
359	柳小路駅	야나기코지역
360	山の手線	야마노테센
361	山の手線	야마노테센
362	山菅橋	야마스게바시
363	山下公園	야마시타공원
364	山笠	야마카사
365	大和政權	야마토정권
366	やすらぎ丸	야스라기마루
367	安岡	야스오카
368	靖国神社	야스쿠니신사
369	八重洲口	야에스구치
370	弥生祭り	야요이마쓰리
371	藥院駅	야쿠인역
372	やきとり横丁	야키토리요코초
373	八幡	야하타
374	江ノ電	에노덴
375	江ノ島	에노시마
376	江戸	에도
377	江戸流しびな	에도나가시비나
378	恵比寿	에비스
379	恵比寿	에비스
380	園覚寺	엔가쿠지
381	小笠原諸島	오가사와라제도
382	荻窪	오기쿠보
383	御成門駅	오나리문역
384	織田信長	오다노부나가
385	小田原	오다와라
386	お台場	오다이바
387	お台場海浜公園	오다이바카이힌코엔
388	お台場海浜公園駅	오다이바카이힌코엔역
389	小田急百貨店	오다큐백화점
390	表門	오모테몬
391	表参道	오모테산도
392	表参道	오모테산도
393	お水	오미즈
394	御水舎	오미즈야
395	押上	오시아게
396	親富孝通り	오야후코도리

397	大江戸	오에도
398	尾張	오와리
399	大涌谷	오와쿠다니
400	追い山	오이야마
401	大関	오제키
402	お茶の水駅	오차노미즈역
403	御徒町駅	오카치마치역
404	お好み焼きさぼう	오코노미야키 사보
405	大隈重信	오쿠마시게노부
406	奥社	오쿠샤
407	太田道灌	오타도칸
408	大手町駅	오테마치역
409	大手門	오테몬
410	大塚公園	오후리공원
411	大塚公園駅	오후리코엔역
412	大船	오후네
413	笑笑	와라와라
414	和らく	와라쿠
415	早稲田大学	와세다대학
416	若宮大路	와카미야오지
417	和光	와코
418	和光百貨店	와코백화점
419	和光市	와코시
420	渡辺通り	와타나베도리
421	和民	와타미
422	洋画	요가
423	陽名門	요메이몬
424	読売新聞	요미우리신문
425	吉野家	요시노야
426	吉野屋	요시노야
427	代々木公園	요요기공원
428	代々木上原	요요기우에하라
429	代々木公園	요요기코엔
430	横須賀線	요코스카센
431	横須賀線	요코스카센
432	横綱	요코즈나
433	横浜	요코하마
434	鶯谷駅	우구이스다니역
435	うなぎ井	우나기돈
436	うま馬大名店	우마우마다이묘점

437	海の中道線	우미노나카미치선
438	上野	우에노
439	上野	우에노
440	上野忍ヶ岡	우에노시노부가오카
441	上野広小路駅	우에노히로코지역
442	魚民	우오타미
443	湯の里おかだ	유노사토오카다
444	有楽町線	유라쿠초센
445	ゆりかもめ線	유리카모메센
446	夢屋	유메야
447	湯本温泉	유모토온센
448	弓始神社	유미하지메신지
449	湯島聖堂	유시마성당
450	由比ヶ浜駅	유이가하마역
451	悠久堂書店	유쿠도서점
452	湯~とびあ	유포피아
453	稲村ヶ崎駅	이나무라가사키역
454	入谷駅	이리야역
455	今泉	이마이즈미
456	今川氏	이마카와씨
457	伊勢丹	이세탄
458	石の上駅	이소노카미역
459	石橋正二郎	이시바시쇼지로
460	石蔵デイトス店	이시쿠라 데이트스점
461	家光	이에미쓰
462	家光廟大ゆ院	이에미쓰묘타이유인
463	岩田屋本店	이와타야혼텐
464	伊豆七島	이즈7도
465	いずみ田	이즈미다
466	池袋	이케부쿠로
467	板垣退助	이타가키타이스케
468	一心堂書店	잇신도서점
469	一心不乱	잇신후란
470	一幸舎	잇코샤
471	善光寺	젠코지
472	中央線	주오센
473	逗子	즈시
474	自由が丘	지유가오카
475	筑肥線	지쿠히선
476	神宮橋	진구바시

477	羽子板市	하고이타이치
478	羽子板市	하고이타이치
479	原宿	하라주쿠
480	はるにれの湯	하루니레노유
481	春祭り	하루마쓰리
482	晴海	하루미
483	晴海通り	하루미도리
484	浜離宮	하마리큐
485	長谷	하세
486	長谷川	하세가와
487	長谷寺	하세데라
488	長谷観音	하세칸논
489	林羅山	하야시라잔
490	八幡通り	하치만도리
491	ハチ公	하치코
492	博多	하카타
493	博多ラーメンしばらく	하카타라멘시바라쿠
494	博多町家ふるさと館	하카타마치야후루사토칸
495	博多南線	하카타미나미선
496	博多そば鈴木商店	하카타소바스즈키쇼텐
497	博多一風堂大名本店	하카타잇푸도다이묘혼텐
498	博多座	하카타자
499	博多っこ家	하카타코트코야
500	博多通りもん	하카타토리몬
501	箱根	하코네
502	箱根町	하코네마치
503	箱根湯本	하코네유모토
504	箱崎線	하코자키선
505	幡生駅	하타부역
506	はんごう雑炊の店山	한고조스이노미세야마
507	藩主	한슈
508	半蔵門線	한조몬선
509	阪急	한큐
510	八景島	핫케이지마
511	邦画	호가
512	法政大学	호세이대학
513	護国寺	호코쿠지
514	本宮	혼구
515	本丸	혼마루
516	本村小学校	혼무라소학교

517	本場所	혼바쇼
518	本地堂	혼지도
519	本地堂	혼지도
520	ひょうたんの回転寿司	효탄노카이텐즈시
521	船の科学館駅	후네노카가쿠칸역
522	二日市	후쓰카이치
523	風俗	후조쿠
524	富士見櫓	후지미야구라
525	藤沢	후지사와
526	富士山	후지산
527	ふじ屋	후지야
528	富士銀行	후지은행
529	藤井ビル	후지이빌딩
530	ふくの関火の山店	후쿠노세키히노야마점
531	福錦	후쿠니시키
532	福岡三越	후쿠오카미쓰코시
533	福浜	후쿠하마
534	二荒山神社	후타라산신사
535	双葉	후타바
536	東御苑	히가시교엔
537	東銀座	히가시긴자
538	雛祭り	히나마쓰리
539	日の出	히노데
540	日の出棧橋	히노데산바시
541	広尾	히로오
542	ひまわり	히마와리
543	ひめしゃらの湯	히메샤라노유
544	日比谷線	히비야센
545	日比谷線	히비야센
546	日比谷公園	히비야코엔
547	比恵	히에
548	比恵第一	히에다이이치
549	日枝神社	히에신사
550	ひかり	히카리

[표 54]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일본어-출판분야)

2)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오표기
1	鎌倉大仏	가마쿠라다이부쓰	가마쿠라다이부츠
2	神谷町駅	가미야초역	가미야초역
3	春日通り	가스가도리	가스가도오리
4	外苑西通り	가이엔니시도리	가이엔니시도오리
5	カツ井	가쓰돈	가츠동
6	観月堂	간게쓰도	간게츄도
7	神田際	간다마쓰리	간다마츄리
8	神田町一丁目	간다마치잇초메	간다마치잇초메
9	神田古本まつり	간다후루혼마쓰리	간다후루혼마츄리
10	元日	간지쓰	간지쯔
11	韓国映画	간코쿠에이가	강코쿠에이가
12	警固	게이고	게고
13	京浜東北線	게이힌도호쿠센	게이힌도호쿠센
14	建長寺	겐초지	겐초지
15	建長寺	겐초지	겐초지
16	呉朝明	고초메	고초메
17	国際展示場正門駅	고쿠사이텐지조세이문역	고쿠사이텐시조세이문역
18	国会議事堂前駅	고쿠카이기지도마에역	고쿠카이기지토마에역
19	言問通り	고토토이도리	고토토이도오리
20	後北条氏	고호조씨	고호쵸씨
21	共立女子大学	교리쓰여자대학	교리츄여자대학
22	経蔵	교조	교쵸
23	黒千代香	구로조카	구로쵸카
24	牛井	규돈	규동
25	紀文堂	기분도	기분도우
26	北通り	기타도리	기타도오리
27	銀座三越百貨店	긴자미쓰코시백화점	긴자미츄코시백화점
28	永田町駅	나가타초역	나가타초역
29	那の津四丁目	나노쓰온초메	나노쓰온초메
30	中津宮	나카쓰노미야	나카츄노미야
31	中津宮	나카쓰노미야	나카츄노미야
32	南北線	남보쿠센	남복센
33	野間三丁目	노마산초메	노마산초메
34	西高島平	니시타카시마다이라	니시다카시마다이라
35	二重橋	니주바시	니쵸바시
36	日本丸メモリアルパーク	닛폰마루메모리얼파크	니폰마루 메모리얼파크
37	日本経済新聞	니혼케이자이신문	니혼케이자이신문

38	にんにくや五右衛門	닌니쿠야고와에몬	닝니쿠야고와에몬
39	大丸東京	다이마루토쿄	다이마루도쿄
40	第一勸業銀行	다이이치칸교은행	다이이치강교은행
41	太宰府天満宮	다자이후텐만구	다자이후텐만구
42	太政官	다조칸	다조칸
43	竹下通り	다케시타도리	다케시타도오리
44	照ちゃん	데루찬	데루창
45	動物園通り	도부쓰엔도리	도부쓰엔도오리
46	豆源	도겐	도우겐
47	都庁通り	도초도리	도초도오리
48	東京都	도쿄토	도쿄도
49	東京三菱銀行	도쿄미쓰비시은행	도쿄미쓰비시은행
50	東京女学館	도쿄조가쿠칸	도쿄조가쿠칸
51	東京中日スポーツ	도쿄추니치스포츠	도쿄주니치스포츠
52	徳川家光	도쿠가와이에미쓰	도쿠가와이에미츠
53	徳川綱吉	도쿠가와쓰나요시	도쿠가와쓰나요시
54	東急電鉄	도큐덴테쓰	도큐덴테츠
55	東急東横線	도큐토요코센	도큐도요코센
56	東方見聞録	도호쿠켄분로쿠	도호쿠켄부로쿠
57	とんかつ茶づけすずや	돈카쓰차즈케스즈야	돈까스차즈케스즈야
58	とんこつ	돈코쓰	돈코츠
59	ロマンスカー	로만스카	로망스카
60	六本木	롯폰기	룩폰기
61	六本木通り	롯폰기도리	룩폰기도오리
62	六本松	롯폰마쓰	룩폰마쓰
63	両国	료고쿠	료코쿠
64	松本清張記念館	마쓰모토세이초기념관	마쓰모토세초기념관
65	松島茶店	마쓰시마차텐	마쓰시마차텐
66	前川町	마에카와초	마에카와초
67	松の廊下遺跡	마쓰노로카유적	마츠노로카유적
68	松屋	마쓰야	마츠야
69	松屋百貨店	마쓰야백화점	마츠야백화점
70	松坂屋百貨店	마쓰자카야백화점	마츠자카야백화점
71	目玉商品	메다마쇼힌	메다마쇼힝
72	麦田	무기바타케	무기파타케
73	無印良品	무지루시료힌	무지루시료힝
74	南通り	미나미도리	미나미도오리
75	別府六丁目	베후롯초메	베후롯초메
76	ぼんぼり祭	본보리마쓰리	본보리마츠리
77	仏殿	부쓰덴	부츠덴

78	文化村通り	분카무라도리	분카무라도오리
79	文京つつじまつり	분쿄쓰쓰지마쓰리	분쿄츠허지마쓰리
80	美食家ちゃんと	비쇼쿠야찬토	비쇼쿠야찬토
81	ビックカメラ	빅크카메라	빅크카메라
82	早良街道	사와라카이도	사와라가도
83	栄通り	사카에도리	사카에도오리
84	桜まつり	사쿠라마쓰리	사쿠라마쓰리
85	さくらや新宿本店	사쿠라야신주쿠본점	사쿠라야신주쿠본점
86	山王まつり	산노마쓰리	산노마쓰리
87	三茶書房	산차쇼보	산차쇼보
88	三仏堂	산부쓰도	삼부쓰도
89	札幌一番	삿포로이치반	삿포로이치방
90	節分	세쓰분	세쓰분
91	選仏場	센부쓰조	센부츠허
92	戦場ヶ原	센조가하라	센조가하라
93	節ちゃんラーメン	셋찬라멘	셋찬라멘
94	しょうゆうラーメン	쇼유라멘	쇼유라멘
95	外堀通り	소토보리도리	소토보리도오리
96	すし京辰	스시쿄타쓰	스시쿄타츈
97	末広町駅	스에히로초역	스에히로초역
98	すうぶ屋	스푸야	스우푸야
99	清水四丁目	시미즈욘초메	시미즈욘초메
100	私鉄	시테쓰	시테츈
101	私鉄	시테쓰	시테츈
102	私鉄	시테쓰	시테츈
103	新宿御苑	신주쿠교엔	신주쿠교엔
104	新宿中村屋本店	신주쿠나카무라야본점	신주쿠나카무라야본점
105	新宿高島屋	신주쿠타카시마야	신주쿠다카시마야
106	新宿三越	신주쿠미쓰코시	신주쿠미츈코시
107	新宿線	신주쿠센	신주쿠센
108	新宿住友ビル	신주쿠스미토모빌딩	신주쿠스미토모빌딩
109	新宿中央公園	신주쿠추오코엔	신주쿠추오코엔
110	新富町駅	신토미초역	신토미초역
111	浅草ちょうちんもなか	아사쿠사초친모나카	아사쿠사초우친모나카
112	青山通り	아오야마도리	아오야마도오리
113	青山一丁目	아오야마잇초메	아오야마잇초메
114	麻布	아자부	아자부
115	麻布十番	아자부주반	아자부쥬방
116	赤レンガ	아카렌가	아카렝가
117	赤坂見付駅	아카사카미쓰케역	아카사카미츈케역

118	赤坂風月堂	아카사카후게쓰도	아카사카호게쓰도
119	曙二丁目	아케보노니초메	아케보노니초메
120	あんよの湯	안요노유	앙요노유
121	山の口町	야마노쿠치초	야마노쿠치초
122	山手通り	야마테도리	야마테도오리
123	八幡通り	야와타도리	야와타도오리
124	焼鳥ことぶき	야키토리코토부키	야키토리고토부키
125	駅南三丁目	에키미나미산초메	에키미나미산초메
126	お盆	오본	오봉
127	大相撲	오즈모	오스모
128	大宮	오미야	오오미야
129	大江戸線	오에도센	오오에도센
130	大相撲	오즈모	오오즈모
131	大蔵幕府跡	오쿠라바쿠후아토	오오쿠라바쿠후아토
132	大戸屋	오토야	오오토야
133	小笹二丁目	오자사니잇초메	오자사니잇초메
134	おつまみ	오쓰마미	오츠마미
135	奥津宮	오쿠쓰노미야	오쿠츠노미야
136	奥津宮	오쿠쓰노미야	오쿠츠노미야
137	和田塚駅	와다쓰가역	와다츠가역
138	渡辺通一丁目	와타나베도리잇초메	와타나베도리잇초메
139	和風茶寮扉	와후사료토비라	와후사료도비라
140	米山町	요네야마초	요네야마초
141	歌い放題	우타이호다이	우다이호다이
142	うどん	우돈	우둥
143	烏龍茶	우론차	우롱차
144	宇都宮	우쓰노미야	우츠노미야
145	内山三条線	우치야마산조선	우치야마산조선
146	ゆとりの空間	유토리노쿠칸	유도리노쿠칸
147	有楽町線	유라쿠초센	유락초센
148	ゆいあん	유이안	유이앙(음식점이름)
149	豊一丁目	유타카잇초메	유타카잇초메
150	稲荷町駅	이나리초역	이나리초역
151	井の頭通り	이노카시라도리	이노카시라도오리
152	伊勢丹新宿店	이세탄신주쿠점	이세탄신쥬쿠점
153	一の鳥居	이치노토리이	이치노도리이
154	一蘭天神店	이치란덴진점	이치란덴진점
155	伊藤博文	이토히로부미	이토오히로부미
156	一步亭	잇푸테이	잇푸테
157	増上寺	조조지	조쥬지

158	浄妙寺	조묘지	쵸묘지
159	城西三丁目	조세산초메	쵸세산초메
160	女子学院	조시가쿠인	쵸시가쿠인
161	浄智寺	조치지	쵸치지
162	城下町	조카마치	쵸카마치
163	中央区城内	주오쿠조나이	쵸오구조나이
164	じゅうに号線	주니고센	쵸니고센
165	十両	주료	쵸료
166	忠臣蔵	주신쿠라	쵸신쿠라
167	中央線	주오센	쵸오센
168	中華	주카	쵸카
169	中華そば郷家	주카소바고야	쵸카소바고야
170	中華そばいちや	주카소바이치야	쵸카소바이치야
171	寿福寺	주후쿠지	쵸후쿠지
172	準急	준큐	쵸큐
173	地球屋川端店	지큐야카와바타점	쵸큐야가와바타점
174	神保町駅	진보초역	쵸보초역
175	深沙王	진자오	쵸자오
176	調布市	조후시	쵸후시
177	中央通り	주오도리	쵸오도리
178	中禅寺	주젠지	쵸젠지
179	鶴岡八幡宮	쓰루가오카하치만구	쵸루가오카하치만구
180	つゆ	쓰유	쵸유
181	佃	쓰쿠다	쵸쿠다
182	月島	쓰키시마	쵸키시마
183	築地玉寿司	쓰키지다마스시	쵸키지다마스시
184	築地本願寺	쓰키지혼간지	쵸키지혼간지
185	稚児ヶ淵	지고가후치	치고가후치
186	千鳥橋	지도리바시	치도리바시
187	千代田線	지요다센	치요다센
188	千代田線	지요다센	치요다센
189	千代町	지요마치	치요마치
190	千代県庁	지요켄초	치요켄초
191	辛子高菜	가라시타카나	카라시타카나
192	カツ丼	가쓰돈	카쓰돈
193	回転寿司	가이텐즈시	카이텐스시
194	海浜公園	가이힌코엔	카이힌코엔
195	勝時駅	가치도키역	카치도키역
196	小山駅	고야마역	코야마역
197	公園通り	고엔도리	코엔도오리

198	久里浜	구리하마	쿠리하마
199	旧山手通り	큐야마테도리	큐야마테도리
200	きらら館	기라라칸	키라라칸
201	金竜舞	킨류노마이	킨류노마이
202	太郎山	다로산	타로산
203	太郎山	다로산	타로산
204	多摩川	다마가와	타마가와
205	天井	덴돈	텐동
206	天屋	덴야	텐야
207	天神祭り	덴진마쓰리	덴진마쓰리
208	天ぶら天成	덴푸라텐세이	덴푸라텐세이
209	東郷神社	도고신사	토고신사
210	鳥越神社	도리고에신사	토리고에신사
211	花まつり	하나마쓰리	하나마츠리
212	浜松町	하마마쓰초	하마마츠초
213	浜松町駅	하마마쓰초역	하마마츠초역
214	浜松町駅	하마마쓰초역	하마마츠초역
215	長谷観音	하세칸논	하세간논
216	博多からしめんたい せんべい	하카타카라시멘타이센베이	하카타가라시멘타이센베이
217	博多屋台バーえびちゃん	하카타야타이바에비찬	하카타야타이바에비창
218	半蔵門線	한조몬센	한조몬센
219	平和一丁目	헤이와잇초메	헤와잇초메
220	辺津宮	헤쓰노미야	헤츠노미야
221	辺津宮	헤쓰노미야	헤츠노미야
222	細江町	호소에초	호소에초
223	方丈	호조	호조
224	本鶴沼駅	혼쿠게누마역	혼구게누마역
225	本郷通り	혼고도리	홍고도오리
226	ふれあい通り	후레아이도리	후레아이도오리
227	普通	후쓰	후츠우
228	二荒山神社神苑	후타라산진자신엔	후타라산진자신엔
229	埠頭五丁目	후토고초메	후토고초메
230	東通り	히가시도리	히가시도오리
231	平川門	히라카와문	히라가와문
232	一ツ木通り	히토쓰기도리	히토츠키도오리

[표 55]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일본어-출판분야)

2.7. 중국어

	조사 건수(개)	오류 건수(개)	오류 비율(%)
기업	7	4	57.14
학술	79	6	7.59
출판	149	93	62.42
계	235	103	43.83

[표 56] 분야별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통계(중국어)

중국어 부분 외래어 표기 실태를 기업, 학술, 출판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는 기업 7개 중 오류 4개(57.1%), 학술 79개 중 오류 6개(7.6%), 출판 149개 중 오류 93개(62.4%)이었으나 각 항목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분별 오류 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에 대한 결과를 부합하지 않는 표기에 대한 결과 역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간단하게 하위 유형화하였다.

중국어의 외래어 표기의 오류는 1) 파열음 된소리 표기 오류(표기법 제1장 제4항), 2) 성모 오류(표기법 제2장 표5 성모), 3) 운모 오류(표기법 제2장 표5 운모), 4) 파찰음과 ‘ㅣ’선행 모음 연쇄 오류(제7절 제2항), 5) 한국 한자음 표기 오류(제4장 제2절), 6) 기타 오류로 하위 유형화할 수 있겠다. 1의 파열음 된소리 표기 오류는 다른 언어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파열음 된소리 표기 불허 원칙을 의미하고, 2의 성모 오류는 된소리 표기 오류를 제외한 중국어 음절의 두음 자음 표기와 관련된 오류를 의미하는데, 모두 설첨성(z, c, s), 설면성(j, q, x) 성모와 교설첨성(zh, ch, sh, r) 성모의 표기를 혼동한 것이다. 3의 운모 오류는 중국어 음절의 운, 즉 핵모음과 말음에 관련된 오류를 의미하는데, 대부분 이중 모음과 삼중 모음의 표기 오류이다. 4의 파찰음과 ‘ㅣ’ 선행 모음 연쇄 오류는 규정 상 ‘ㅣ’ 선행 모음의 ‘ㅣ’ 부분이 탈락되어야 하지만 탈락되지 않고 남아있는 표기이다. 5의 한국 한자음 표기 오류는 규정상 중국어 원음으로 표기하여야 하지만 한국 한자음으로 표기한 것과 그 반대의 경우를 의미하는데 실제 조사의 표기 오류에는 한국 한자음으로 표기된 것은 대부분 누락된 것으로 보여 중국어 원음이 한국 한자음으로 나타난 것만 나타내었다. 6의 기타 오류는 단순 오타 및 기타 원인을 가진 오류이다. 이상 여섯 가지의 오류들은 중복되어 나타날 수 있는데 아래의 표에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아래의 오류 건수는 103개의 오류 항목 중 중복을 허용하여 계산된 124개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다만 외래어 표기법 제4장 제3절의 ‘바다, 섬, 강, 산 등의 표기 세칙에 따른 오류’는 편의상 오류로 산정하지 않았다.

결과를 보면 운모 오류 및 운모 오류와 유사한 오류 유형을 가진 파찰음과 ‘ㅣ’ 선행 모음 연쇄 오류가 전체 오류의 62.1%를 차지하고 있고 파열음 된소리 오류가 그 뒤를 이어 30.6%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성모 오류, 한국 한자음 오류, 기타 오류 등은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한국 한자음 오

류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가정하면 중국어 원음으로 표기된 외래어 표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은 운모와 관련된 오류임을 알 수 있다.

중국어의 성모 표기 오류의 대부분은 파열음 된소리 표기 오류이다. 이것은 중국어 원음에 가깝게 표현하려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어의 운모 표기 오류의 대부분은 운모를 중국어 원음에 비교적 가까운 2음절로 나타낸 것이다. 현행 표기법 규정은 한자 한 자에 한글 1음절로 나타내려는 경향이 높은 표기법 규정이기 때문에 2음절 운모 표기가 오류로 나타난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의 대상인 기업, 학술, 출판(특히 저자)에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중국어의 원음에 익숙한 사람들일 것이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오류 유형	오류 건수 (개)	오류 비율 (%)	오류 유형 (정→오)
1) 파열음 된소리 오류	38	30.6%	ㅃ(b), ㄸ(d), ㄱ(g) → ㅍㅍ, ㄸ, ㄱ
2) 성모 오류	4	3.2%	산(shan)→산, 쯔(zi)→즈, 스(shi)→쓰, 쭈(zu)→주
3) 운모 오류	63	50.8%	1,2음절→2,3음절(샤(xia)→시아 등): 32개, 위안(yuan)→위엔 3개, 어우(-ou)→오우 17개, 웅(-ong)→웅 11개
4) 파찰음과 ‘ㄹ’선행 모음 연쇄 오류	14	11.3%	자(jia), 제(jie), 장(jiang), 주(jiu) → 지아, 지에, 지양, 지우
5) 한국한자음 표기 오류	2	1.6%	허시(河西)→하서, 송화(松花)→송화
6) 기타 오류	3	2.4%	오타 2개, 웨이드자일즈식 표기에 이끌림 1개(칭타오)
계	124	100.0%	

2.7.1. 기업 분야

1)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1	茅台酒	마오타이 주
2	普洱茶	푸얼차
3	海爾	하이얼

[표 57]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중국어-기업분야)

2)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오표기
1	高粱酒	가오량 주	까오량 주
2	烏龍茶	우룽차	우룽차
3	靑島맥주	칭다오 맥주	칭타오 맥주
4	孔府家酒	쿵푸자 주	쿵푸자 주

[표 58]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중국어-기업분야)

2.7.2. 학술 분야

1)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1	南京	난징
2	敦煌	둔황
3	東北	둥베이
4	蘭州	란저우
5	遼寧	랴오닝
6	洛陽	뤄양
7	李燦	리찬
8	毛澤東	마오쩌둥
9	麥積	마이저
10	邙山	망산
11	孟津	멍진
12	北京	베이징
13	亳州	보저우
14	山東	산둥
15	陝西	산시
16	商邱	상추
17	上海	상하이

18	瀋陽	선양
19	宣武	쉬안우
20	徐州	쉬저우
21	許昌	쉬창
22	西安	시안
23	西湖	시후
24	新疆	신장
25	三峽	싼샤
26	蘇州	쑤저우
27	泗州	쓰저우
28	四川	쓰촨
29	揚州	양저우
30	五台	우타이
31	武漢	우한
32	蕪湖	우후
33	渭水	웨이수이
34	雲崗	윈강
35	殷墟	은허
36	银川	인촨
37	江南	장난
38	鄭州	정저우
39	曹操	조조
40	濟南	지난
41	吉林	지린
42	秦陵	진릉
43	荊州	징저우
44	長沙	창사
45	長江	창장
46	長江之聖	창장즈싱
47	長春	창춘
48	成都	청두
49	重慶	중칭
50	曲阜	취푸
51	開封	카이펑
52	泰山	타이산 산
53	太原	타이위안
54	汾水	펀수이
55	汾河	펀허
56	費縣	페이 현
57	費州	페이저우

58	平遙	핑야오
59	合爾濱	하얼빈
60	海拉爾	하이러얼
61	漢渝	한위
62	韓家場	한자창
63	杭州	항저우
64	河南	허난
65	黑龍江	헤이룽장
66	華北	화베이
67	華清池	화칭츠
68	黃山	황산
69	黃河	황허
70	湖北	후베이
71	呼和浩特	후허하오터
72	火焰	휘옌
73	松花	송화

[표 59]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중국어-학술분야)

2)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오표기
1	大足	다쭈	다주
2	大興安嶺	다싱안링	대싱안링
3	都江堰	더우장옌	두장옌
4	威爾	웨이얼	웨이어
5	蛟河	자오허	지아오허
6	九龍	주룽	지우룽

[표 60]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중국어-학술분야)

2.7.3. 출판 분야

1)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1	南寧	난닝
2	南京	난징
3	南昌	난창
4	拉薩	라싸
5	郎木寺	랑무쓰
6	遼寧	랴오닝

7	樂山	러산
8	廬山	루산
9	沙溪	사시
10	莎車	사처
11	山西	산시
12	陝西	산시
13	上海	상하이
14	紹興	샤오싱
15	沈陽	선양
16	深圳	선전
17	石林	스린
18	西寧	시닝
19	西安	시안
20	西藏	시짱
21	阿尼瑪卿山	아니마칭산
22	安順	안순
23	安徽	안후이
24	峨眉山	어메이산
25	烏魯木齊	우루무치
26	武夷山	우이산
27	烏鎮	우전
28	武漢	우한
29	威寧	웨이닝
30	魚木寨	위무자이
31	玉樹	위수
32	雲南	윈난
33	英吉沙	잉지샤
34	肇慶	자오칭
35	鎮山	전산
36	濟南	지난
37	吉林	지린
38	集安	지안
39	景洪	징홍
40	長沙	창사
41	長春	창춘
42	承德	청더
43	曲阜	취푸
44	青海	칭하이
45	喀什	카스
46	開平	카이핑

47	庫車	쿠처
48	昆明	쿤밍
49	泰山	타이산
50	吐魯番	투루판
51	平遙	핑야오
52	海拉爾	하이러얼
53	河南	허난
54	衡山	형산
55	湖南	후난
56	呼和浩特	후허하오터

[표 61]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표기 목록(중국어-출판분야)

2)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연번	대상 어휘	규범 표기	오표기
1	甘谷	간구	깐구
2	甘肅	간쑤	깐쑤
3	甘孜	간쯔	깐쯔
4	格爾木	거얼무	꺼얼무
5	廣東	광둥	꾸앙퉁
6	廣西	광시	꾸앙시
7	廣州	광저우	꾸앙조우
8	桂林	구이린	꾸이린
9	貴陽	구이양	꾸이양
10	貴州	구이저우	꾸이조우
11	內蒙古	네이멍구	네이멍꾸
12	大理	다리	따리
13	大連	다렌	따리앤
14	大足縣	다쭈셴	따쭈쉬앤
15	大同	다퉁	따퉁
16	丹東	단둥	딤퉁
17	德欽	더친	띠친
18	登封	덩펑	땡펑
19	敦煌	둔황	똤후앙
20	蘭州	란저우	란조우
21	龍南	룽난	롱난
22	瀘沽湖	루구후	루꾸후
23	洛陽	뤄양	루오양
24	麗江	리장	리지양

25	馬尼幹戈	마니간거	마니깐꺼
26	滿洲里	만저우리	만조우리
27	白玉	바이위	빠이위
28	北京	베이징	빠이징
29	炳靈寺	빙링쓰	뵙링쓰
30	山東	산둥	산똥
31	汕頭	산더우	산터우
32	神農架	선농자	선농지아
33	水簾洞	수이렌둥	수이리엔똥
34	西雙版納	시쌍반나	시수앙뵘나
35	廈門	샤먼	시아먼
36	夏河	샤허	시아허
37	香格里拉	샹거리라	시앙꺼리라
38	新疆	신장	신지앙
39	三江	산장	싼지앙
40	嵩山	송산	쑹산
41	松潘	송판	쑹판
42	蘇州	쑤저우	쑤조우
43	四川	쓰촨	쓰추안
44	石渠	스취	쓰취
45	陽朔	양취	양수오
46	揚州	양저우	양조우
47	延吉	옌지	옌지
48	永定縣	용딩셴	용똥시옌
49	武當山	우당산	우똥산
50	武陵源	우링위안	우링위옌
51	溫州	윈저우	윈조우
52	月亮峽	위에량샤	위에리양시아
53	張家界	장자제	장지아지에
54	浙江	저장	저지앙
55	鄭州	정저우	정조우
56	嘉峪關	자위관	지아위꾸안
57	江西	장시	지앙시
58	江蘇	장쑤	지앙쑤
59	九門口長城	주먼커우 창청	지우먼코우 창청
60	九寨溝	주자이거우	지우자이꼬우
61	九華山	주후이산	지우후이산
62	井岡山	징강산	징강산
63	景德鎮	징더전	징똥전

64	荊州	징저우	징조우
65	鄒城	쩌우청	쪄우청
66	潮州	차오저우	차오조우
67	長白山	창바이 산	창빠이 산
68	成都	청두	청뚜
69	崇左	충쥘	충쭈오
70	重慶	충칭	총칭
71	青島	칭다오	칭따오
72	清遠	칭위안	칭위앤
73	康定	캉딩	캉땡
74	太原	타이위안	타이위앤
75	通道	통다오	통따오
76	同仁	통런	통런
77	天水	텐수이	티앤수이
78	天津	텐진	티앤진
79	天河潭	텐허탄	티앤허탄
80	鳳凰	펑황	펑후황
81	福州	푸저우	푸조우
82	福建	푸젠	푸지앤
83	普陀山	푸튀산	푸투오산
84	平涼	핑량	핑리양
85	河西走廊	허시쩌우랑	하서쪄우랑
86	合爾濱	하얼빈	하얼뻬
87	杭州	항저우	항조우
88	河北	허베이	허뻬이
89	黑龍江	헤이룽장	헤이룽지양
90	湖北	후베이	후뻬이
91	黃山	황산	후양산
92	黃姚	황야오	후양야오
93	虎跳峽	후타오샤	후타오시아

[표 62]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목록(중국어-출판분야)

제3장 외래어 표기 설문 조사

3.1. 일반 규정

3.1.1. 설문 구성의 개요

본 설문조사는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전문인의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전문인 아나운서, 신문기자, 출판사 종사자, 국어교사의 네 집단으로 구성되었는데, 아나운서의 경우에는 어문규범 관련 부서, 신문 기사의 경우에는 교열 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인과 달리 전문인에게서는 용례뿐만 아니라 규정에 대한 내용도 제시하여 반응을 확인하였다. 이는 외래어 표기 규정에 대한 전문인의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를 확인하고, 동시에 언어권별 세부 규정에 대한 반응과 용례에 대한 반응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이다. 설문지에 포함된 일반 규정 다섯 개는 다음과 같다.

1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외래어(외국어 낱말)는 한글 맞춤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본 자모 24개와 이를 바탕으로 한 16개 자모 등 총 40개 자모로 적는다]
2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외래어는 변이음이 아닌 음소 단위를 한글로 적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가 있을 수 있다]
3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4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ㄱ/ㅋ/ㆁ, ㄷ/ㅌ/ㄸ, ㅂ/ㅃ/ㅍ과 같은 것을 파열음이라고 하며, 외래어 원음이 된소리처럼 들려도 된소리 글자로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5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3.1.2. 설문 결과 개요

설문 조사 결과 일반 규정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가 각각 82.7%, 66.9%, 49.9%로 전체 평균인 51.7%, 48.9%, 36.0%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반 규정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 평균보다 30%

이상 높게 나타나, 전문인들이 외래어 표기법의 일반 규정을 접해 본 경험이 많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해도와 만족도 역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평균과의 차이가 인지도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
전 체	51.7	48.9	36.0
일반	82.7	66.9	49.9
영어	67.2	53.5	41.7
독일어	40.0	39.9	30.8
프랑스어	55.0	50.4	37.5
에스파냐어	43.7	43.4	32.3
이탈리아어	41.2	46.6	31.3
일본어	43.4	45.3	31.9
중국어	49.1	48.9	35.8

[표 63] 전문인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 비교(단위 %)

3.1.3. 설문 결과의 특징

1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외래어(외국어 낱말)는 한글 맞춤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본 자모 24개와 이를 바탕으로 한 16개 자모 등 총 40개 자모로 적는다]

규정을 인지하고 있다는 반응이 86.4%, 규정을 이해한다는 반응이 69.9%, 규정에 만족한다는 반응이 55.3%로 나타났다. 규정 관련 설문조사의 전체 평균에서 인지도와 이해도의 차이가 2.8%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1번 규정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의 차이인 16.5% 차이는 매우 큰 것이라 볼 수 있다. 단, 이러한 경향은 일반 규정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일반 규정의 경우 인지도 평균이 82.7%, 이해도 평균이 66.9%로 15.8%의 차이를 보인다.

인지도와 이해도 간의 차이가 큰 것은 해당 규정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전문인이 많음을 의미한다. 규정 1의 ‘국어의 현용 24자모’라는 표현이 실제로는 총 40자모를 의미한다는 점이 정확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추측된다.

구성원 간의 반응 결과를 비교해 보면, 규정 인지도는 비언론인(94.0%)이 언론인(79.2%)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규정에 대한 만족정도는 인문계열 전공자가 다른 전공계열에 전공자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외래어는 변이음이 아닌 음소 단위를 한글로 적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규정을 인지하고 있다는 반응이 75.7%, 규정을 이해한다는 반응이 57.3%, 규정에 만족한다는 반응이 48.5%로 나타났다. 인지도와 이해도의 차이가 18.4%, 인지도와 만족도의 차이는 27.2%로 나타나, 규정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이해도와 만족도가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성원 간의 반응 결과를 비교해 보면, 만족도에 있어서 국어교사가 68.0% 다른 직업군보다 만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국어교사의 경우 이해도에 있어서도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60%에 달해 아나운서(25.0%), 신문기자(20.7%), 출판사 종사자(8.0%)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해도가 높은 국어교사 집단이 만족도도 높은 현상은 이해도와 만족도가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실은 규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 그 원인이 규정의 내용에 있을 수도 있지만 표현 방식에 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규정의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내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3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규정을 인지하고 있다는 반응이 79.6%, 규정을 이해한다는 반응이 68.0%, 규정에 만족한다는 반응이 52.4%로 나타났다. 인지도와 이해도의 차이가 11.6%로 크지 않았다. 전문인 대다수가 규정을 들어본 적이 있고, 이해에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단, 만족도는 다른 일반 규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지도, 이해도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4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ㄱ/ㅋ/ㄲ, ㄷ/ㅌ/ㄸ, ㅂ/ㅃ/ㅍ과 같은 것을 파열음이라고 하며, 외래어 원음이 된소리처럼 들려도 된소리 글자로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규정을 인지하고 있다는 반응이 83.5%, 규정을 이해한다는 반응이 67.0%, 규정에 만족한다는 반응이 38.8%로 나타났다. 인지도와 이해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만족도가 38.8%로 인지도와 44.7%의 차이를 보였다. 즉, 전문인 다수가 이 규정을 인지하고 있으나, 만족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언어에 따라 파열음이 우리말의 된소리에 더 가깝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결과나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구성원 간의 반응 결과를 비교해 보면, 20대의 만족도가 22.2%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규정을 인지하고 있다는 반응이 88.3%, 규정을 이해한다는 반응이 68.9%, 규정에 만족한다는 반응이 50.5%로 나타났다. 인지도, 이해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일반 규정의 전반적 경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이미 굳어진 외래어의 경우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를 따로 정한다는 규정을 들어 보았고, 이해하고 있으나 만족하지는 않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외래어의 관용 표기의 허용 범위에 뚜렷한 기준이 없어, 올바른 관용 표기 사용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1.4. 외래어 표기 규범에 대한 제안

외래어 표기법 일반 규정은 외래어 표기의 대원칙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 규정에 관한 설문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인지도(82.7%)가 높은 반면 만족도(49.9%)는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족도의 경우 전체 규정의 평균(36.0%)보다는 높으나, 인지도와의 차이가 32.8%나 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규정에 대한 불만은 규정의 내용에 관한 것과 표현 방식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불만족’을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내용의 타당성은 단순히 사용자의 만족도에 의해 평가될 사항이 아니고, 관련 전문가들이 외래어 표기의 목적과 사용 방식,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게 고쳐야 한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불만족 여부의 구체적 내용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여 외래어 표기법을 정비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2. 세부 규정 및 용례

3.2.1 영어

영어 용례는 일반 규정에 해당하는 항목도 있고 영어 규정에만 해당되는 항목도 있다. 모든 영어 항목에 대해 전문인의 결과와 일반인의 결과를 분석한다.

분석 방법은 전문인의 규정 내용 자체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에 대한 결과의 의미를 설명하고 전문인 및 일반인의 용례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에 대한 결과의 의미를 설명한다. 그리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 특이한 반응을 보인 집단이 있을 경우 그 의미를 기술한다.

3.2.1.1 관련된 일반 규정 및 영어 규정

1 일반	1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외래어(외국어 낱말)는 한글 맞춤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본 자모 24개와 이를 바탕으로 한 16개 자모 등 총 40개 자모로 적는다]
	2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외래어는 변이음이 아닌 음소 단위를 한글로 적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가 있을 수 있다]
	3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4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ㄱ/ㅋ/ㄲ, ㄷ/ㅌ/ㄸ, ㅂ/ㅃ/ㅍ과 같은 것을 파열음이라고 하며, 외래어 원음이 된소리처럼 들려도 된소리 글자로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5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2 영어	1	어말의 [ʃ]는 '시'로 적는다.
	2	둘 이상의 낱말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pick 픽 + up 업 → 픽업(0), 피컵(X)).
	3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4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는다.

[표 64] 일반 규정 및 영어 규정 설문 문항

3.2.1.2 설문 조사 항목

1	①콘텐츠 ②컨텐츠
	contents: 인터넷,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
2	①뉴욕 ②뉴욕
	New York: (지명)미국의 최대 도시
3	①선글라스 ②썬글라스
	sunglass: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쓰는, 색깔 있는 안경
4	①더그아웃 ②덕아웃
	dugout: 야구장의 선수 대기석
5	①소시지 ②소세지
	sausage: 으깨어 양념한 고기를 돼지 창자나 인공 케이싱에 채우고 삶은 서양식 순대
6	①로봇 ②로보트
	robot: 인간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걸기도 하고 말도 하는 기계 장치
7	①카셋 ②카세트
	cassette: 소리를 녹음하거나 재생하는 기계 장치의 일종
8	①로브슨 ②롭슨
	Robson: 산(山)이름
9	①잉글리시 ②잉글리쉬
	English: 영어
10	①하이라이트 ②하일라이트
	highlight: 가장 흥미롭거나 두드러지는 장면

[표 65] 영어 용례 설문 문항

3.2.1.3 조사 결과의 항목별 분석

1-1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외래어(외국어 낱말)는 한글 맞춤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본 자모 24개와 이를 바탕으로 한 16개 자모 등 총 40개 자모로 적는다]



[그림 1] 일반규정 1 설문조사 결과

전문인들은 전반적으로 이 규정이 있음을 잘 알고 그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해도와 만족도가 규정 인지도보다 낮게 나온 것은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규정 내용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어 규정 준수 의지가 낮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집단별 특성]

- 인지여부는 비언론인이 언론인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각각 94.0%, 79.2%), 이 규정에 대한 만족정도는 인문계열 전공자가 다른 계열에 전공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언론인들은 표기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늘 규정을 가까이 하는 업종인데 인지 여부가 낮은 것은 의외다. 인문 계열 전공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그 내용이 인문학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1-2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외래어는 변이음이 아닌 음소 단위를 한글로 적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림 2] 일반규정 2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규정이 있음을 잘 알고 그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해도와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것은 규정 내용이 전문적이어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규정에 대한 준수 의지가 낮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표기법에 얽매이기보다는 실제 발음에 가깝게 적겠다는 생각이 있음을 암시하는 측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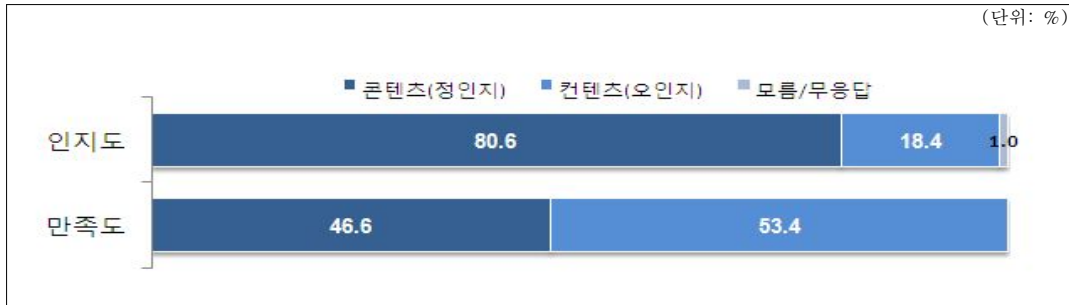
[집단별 특성]

- 인지 여부는 비언론인이 전체 평균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에 있어서 국어교사가 68.0%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 만족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비언론인이 규정보다는 현실 발음에 더 끌리는 경향이 있음을 암시한다. 국어교사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실제 발음을 있는 그대로 표기하기보다는 국어의 특성에 따라 표기하는 것에 대한 호감 때문으로 보인다.

전1-1

①콘텐츠

②컨텐츠



[그림 3] ‘콘텐츠’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전문가 집단의 정인지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표기법 규정 준수와 노출도 때문으로 보인다. 철자를 음소로 인식할 경우 정인지 항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영국 영어에 익숙한 사람들은 정인지 항목 비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영어에서는 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어 “컨텐츠”에 가까운 발음을 하지만 강세의 위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컨텐츠”로 표기하여 대중을 오도하고 그 표기에 노출이 된 사람들이 오인지 항목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능성이 만족도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컨텐츠”라는 표기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 알기 힘든 면이 있다. 이를 통해 규정과 용례의 홍보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외래어 항목 도입 초기에 표기 의도와 이유를 제대로 널리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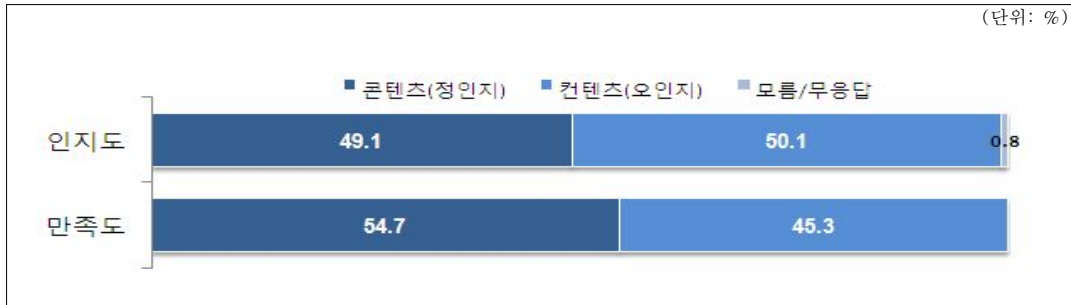
[집단별 특성]

□ 콘텐츠 정인지 비율은 30대(94.1%)가 전체 평균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인문계열 전공자가 사회과학계열 전공자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만족도의 경우 언론인이 비언론인보다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일1-1

①콘텐츠

②컨텐츠



[그림 4] '콘텐츠'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노출도에 따라 혹은 각자의 경험에 따라 둘 중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이나 전문인이나 만족도는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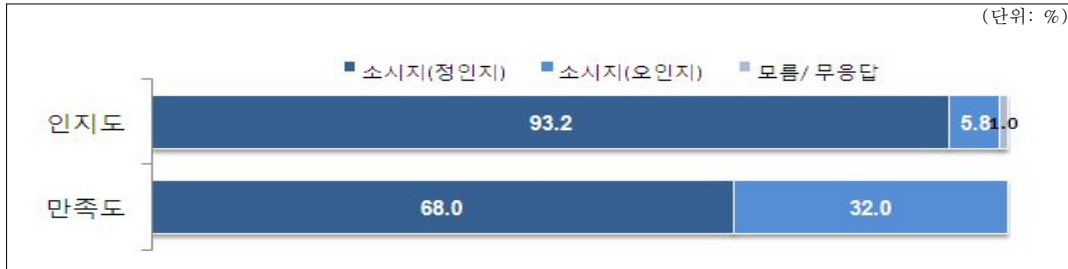
[집단별 특성]

- 콘텐츠를 정인지한 비율은 중졸이하(66.7%), 고졸이하(54.4%), 독서량이 2권 미만인 사람들(56.0%)에서 높았으며, 컨텐츠 오인지 응답은 20대(58.7%), 대졸 이상(60.6%)에서 높게 나타남.
- 콘텐츠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0대(45.9%), 대졸 이상(48.1%)학력자 집단에 낮은 것으로 조사됨.

전1-5

①소시지

②소세지



[그림 5] ‘소시지’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전문가 집단의 정인지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표기법 준수 및 제대로 된 실제 발음에 대한 지식 때문으로 보인다. 만족도를 보면 인지도와 큰 차이가 나는데 인지도에 비해 만족도에서 “소세지”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표기법이나 현지 발음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현재 한국인들이 발음하고 있는 것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쏘세지”라고 발음하고 “소세지”라는 표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어의 영향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표기법과 원어에 대한 지식과는 별개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식 발음이 있다. 오인지 표기는 문자(-age)에 바탕을 둔 발음일 가능성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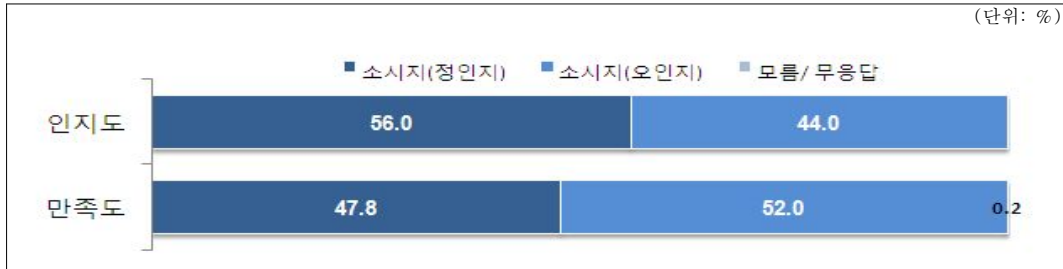
[집단별 특성]

□ 소시지 표기와 관련하여 남성(100.0%), 언론인(98.1%) 계층이 전체 평균 비율보다 높았고, 만족도의 경우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일1-5

①소시지

②소세지



[그림 6] ‘소시지’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일반인 집단의 정인지 비율과 오인지 비율이 이렇게 비슷한 것은 노출도에 따라 선택했거나 혹은 둘 중에 하나를 임의로 선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이나 전문인이나 만족도 패턴은 비슷하다. 이는 현지음을 알고 있고 그것에 가장 가까운 표기를 따르거나 현실적으로 많이 발음되는 “소세지”에 익숙한 사람들의 비율이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도에서 전문인과 일반인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표기법 및 현지 발음에 대한 지식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규정과 용례의 홍보가 중요하다. 특히 외래어 도입 초기에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단별 특성]

- 소시지 용례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비율은 모든 계층에서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1-3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그림 7] 일반 규정 3 설문조사 결과

전문인들은 전반적으로 이 규정이 있음을 알고 있으며 그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족도가 비교적 낮은 것은 규정에 대한 준수 의지가 낮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집단별 특성]

- 인문계열 전공자가 인지와 이해정도 및 만족도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됨. (각각89.4%, 80.3%, 62.1%)

전1-2

①뉴욕

②뉴욕



[그림8] '뉴욕'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규정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문인조차도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문가 집단의 정인지도와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 것은 표기법을 준수해서라기보다는 정인지 표기 항목의 노출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히려 현지음은 “뉴욕”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용례에 대한 노출도가 중요함을 증명하는 예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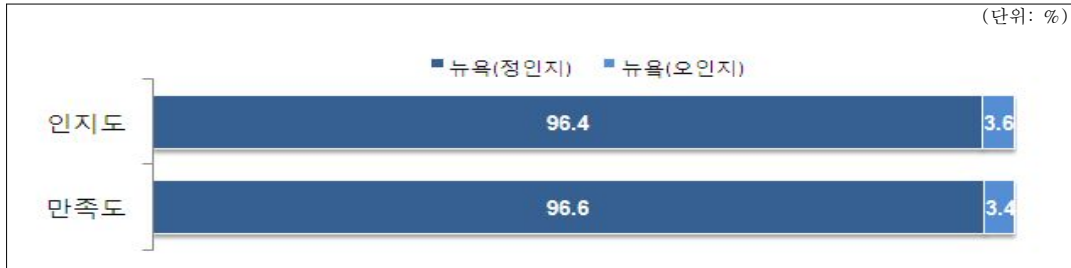
[집단별 특성]

- 뉴욕 표기의 정인지와 만족도의 경우 전체 평균 비율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일1-2

①뉴욕

②뉴욕



[그림 9] '뉴욕'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일반인의 반응 패턴도 전문가 집단의 반응 패턴과 다르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용례의 노출도가 중요함을 증명하는 예로 볼 수 있다.

[집단별 특성]

□ '뉴욕' 표기에 대해서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정인지와 만족도 비율이 높게 나타남.

1-4 과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ㄱ/ㅋ/ㄲ, ㄷ/ㅌ/ㄸ, ㅂ/ㅃ/ㅍ과 같은 것을 과열음이라고 하며, 외
 래어 원음이 된소리처럼 들려도 된소리 글자로 적지 않는 것이 원
 칙이다]



[그림 10] 일반규정 4 설문조사 결과

전문인들은 전반적으로 이 규정이 있음을 잘 알고 그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족도가 낮게 나온 것은 규정에 대한 준수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집단별 특성]

□ 인문계열 전공자가 인지와 이해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각각 90.9%, 75.8%), 이 규정의 만족도의 경우 20대가 22.2%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1-5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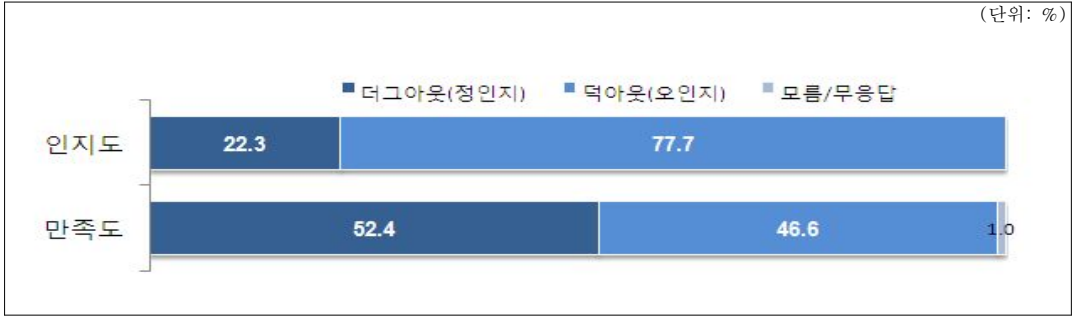
[그림 11] 일반규정 5 설문조사 결과

전문인들은 전반적으로 이 규정이 있음을 잘 알고 그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족도가 낮게 나온 것은 규정에 대한 준수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집단별 특성]

□ 인지도 및 이해도가 높음. 전체 평균 비율과 비교해 뚜렷한 차이는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남성이 58.2%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1-4 ①더그아웃 ②덕아웃



[그림 12] '더그아웃'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표기법에 따른 정답이 “더그아웃”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집단에서 오인지인 “덕아웃”의 선택이 많은 것은 규정이 전문가들의 지적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전문가들조차 오인지 항목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족도를 보면 인지도와 큰 차이를 보이며 정인지가 더 높는데 이는 전문인들은 규정에 따라 표기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전문인이 만족할 만한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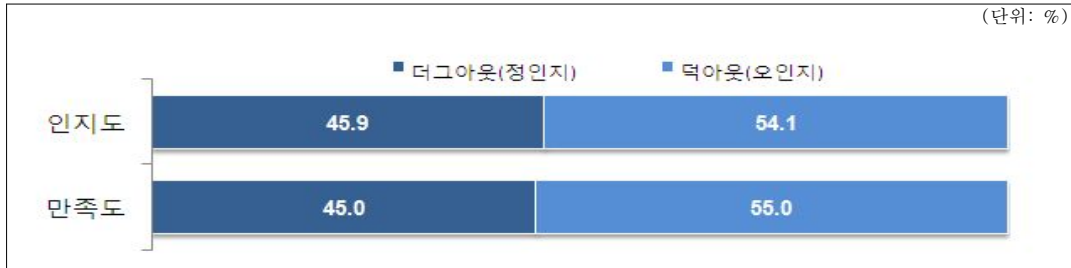
[집단별 특성]

- 더그아웃 표기에 대해 남성이 63.6%로 전체 평균 비율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만족도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이 용어가 야구 관련 용어로서 남성들에게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1-4

①더그아웃

②덕아웃



[그림 13] ‘더그아웃’ 인지도 · 만족도 비율(일반인)

일반인 집단에서 정인지와 오인지가 비슷한 것은 둘 중 아무거나 하나를 고른 결과로 보인다. 노출도가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만족도와 인지도에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것 역시 답을 선택할 때 아무거나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혼란이 심한 항목이며 규정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집단별 특성]

- 더그아웃이라는 정인지 응답은 모든 응답자 계층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만족도에 있어서 60대 이상이 54.4%로 전체 평균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비록 유의하게 높다하나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그 의미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전1-3 ①선글라스 ②썬글라스



[그림 14] ‘선글라스’ 인지도 · 만족도 비율(전문인)

실제 발음은 “썬글라스”에 가까운데도 정인지 항목의 인지도가 높은 것은 표기 규정의 준수, 된소리 표기의 생소함, 정인지 항목에의 노출도 때문으로 보인다. 만족도에서도 정인지 항목의 비율이 높은 것은 노출도 및 표기 규정의 준수 때문으로 보인다. 만족도가 인지도에 비해 오인지 항목 선택 비율이 높은 것은 현지의 실제 발음에 대한 고려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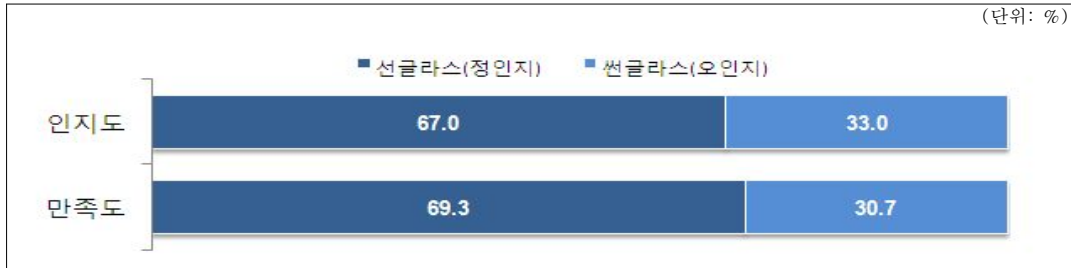
[집단별 특성]

- 선글라스 표기의 경우 인문계열(95.5%)이 전체 평균 비율보다 정인지율이 높았고, 만족도의 경우 전체 평균 비율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비록 정인지 비율이 인문계열에서 높다 하나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그 의미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일1-3

①선글라스

②썬글라스



[그림 15] ‘선글라스’ 인지도 · 만족도 비율(일반인)

실제 발음이 “썬글라스”에 가까워 오인지 항목의 비율이 전문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만족도는 전문가 집단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정인지 항목의 인지도가 높은 것은 정인지 항목에의 노출도 때문으로 보인다. 인지도와 만족도 모두 오인지 항목 선택 비율이 일정 비율 있다는 것은 실제 발음이 오인지 항목에 가깝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발음 선호도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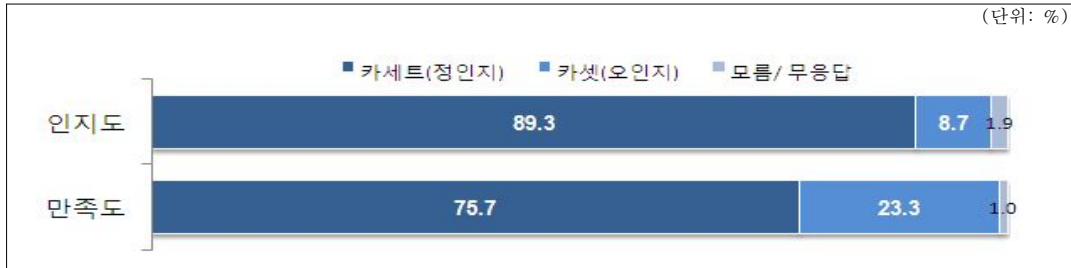
[집단별 특성]

□ 선글라스 정인지 응답은 20대만이 78.0%로 조사되었고, 남성이 여성보다 정인지 비율이 높았음.

전1-7

①카셋

②카셋



[그림 16] '카세트'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정인지 비율이 높은 것은 규정의 인지 및 정인지 항목에 대한 노출도의 결과로 보인다. 만족도도 규정의 인지 및 정인지 항목에 대한 노출도의 결과로 보인다. 인지도에 비해 만족도에서 오인지 항목의 비율이 높은 것은 현실 발음에서 폐음절로 발음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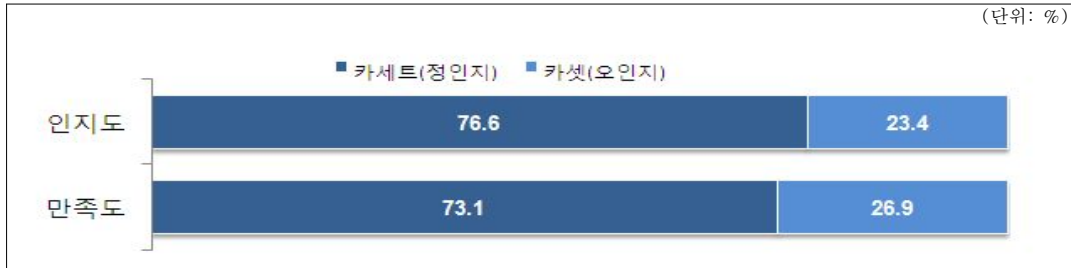
[집단별 특성]

□ 카세트 표기의 정인지와 만족도의 경우,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일1-7

①카셋

②카셋



[그림 17] ‘카세트’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전문가 집단의 인지도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 외에는 만족도와 인지도 모두 특별한 패턴의 차이를 볼 수 없다. 정인지 비율이 높은 것은 정인지 항목에 대한 노출도의 결과로 보인다. 만족도도 정인지 항목에 대한 노출도의 결과로 보인다. 인지도와 만족도 모두에서 오인지 항목의 비율이 일정 부분 있는 것은 현실 발음에서 폐음절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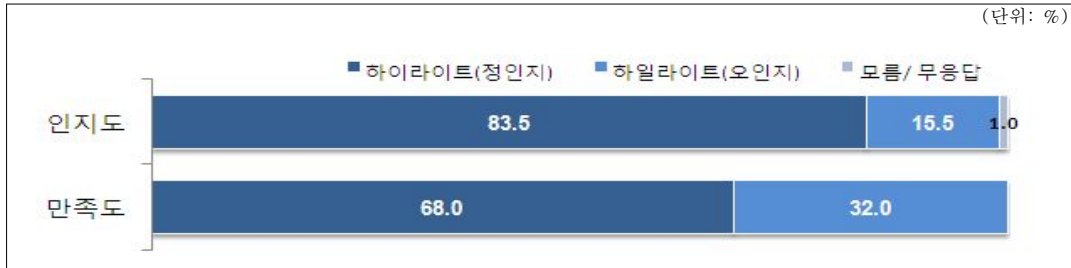
[집단별 특성]

- 카세트 용례에 대한 인지도는 모든 계층에서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만족도에 있어서 남성(77.7%)이 여성(68.7%)보다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20대 이하(84.4%)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1-10

①하이라이트

②하일라이트



[그림 18] ‘하이라이트’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복합어의 경우 결합요소의 표기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규정 때문에 실제 발음과 동떨어진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인지도에서 정인지 비율이 높은 것은 규정의 인지와 표기법의 준수 또는 노출도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만족도에서는 정인지의 비율이 떨어지는데 두 번째 형태소의 발음이 [l]이고 그 경우 선행음절의 받침에 “ㄹ”이 나타난다는 실제 발음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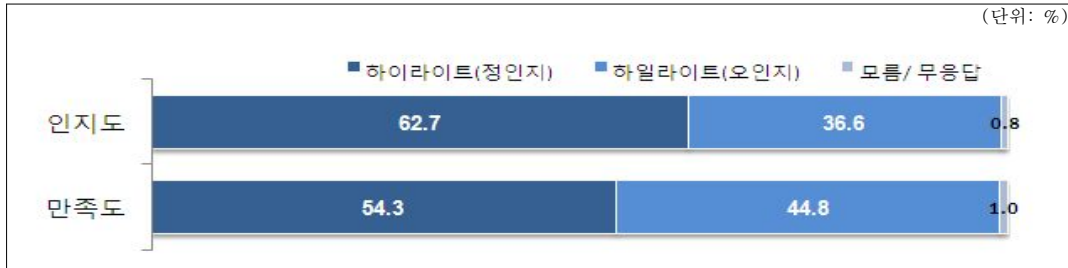
[집단별 특성]

- 하이라이트 표기 정인지율에서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언론인이 56.6%로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일1-10

①하이라이트

②하일라이트



[그림 19] ‘하이라이트’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인지도와 만족도 모두 전문인에 비해 정인지 비율이 낮다. 인지도와 만족도 간 차이는 전문인 집단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인지도에서 정인지 비율이 높은 것은 규정의 인지와 표기법의 준수 또는 노출도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만족도에서는 정인지의 비율이 떨어지는데 두 번째 형태소의 발음이 []이고 그 경우 선행 음절의 받침에 “ㄹ”이 나타난다는 실제 발음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집단별 특성]

□ 하이라이트 정인지 비율은 30대(72.9%), 화이트칼라(79.4%)에서 높았고, 40대(37.0%), 자영업자(45.4%)에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낮았음.

2-1

어말의 [ʃ]는 '시'로 적는다.



[그림 20] 영어 규정 1 설문조사 결과

전문인들은 전반적으로 이 규정이 있음을 잘 알고 그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족도가 낮게 나온 것은 규정에 대한 준수 의지가 낮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집단별 특성]

- 이 규정에 대한 인지율은 집단 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문계열 전공자의 만족도 비율이 69.7%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만족정도와 관련하여 사회과학계열 전공자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는데 반해 인문계열 전공자는 만족하는 응답이 더 많았음.

전1-9

①잉글리시

②잉글리쉬



[그림 21] ‘잉글리시’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전문인 집단에서 정인지 비율이 높은 것은 규정 준수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인지 항목이 어느 정도 선택된 것은 실제 발음이 오인지 항목의 표기에 가깝고 그렇게 배워왔으며 그런 표기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지도와 만족도에서 그 구성 비율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표기 규범은 정인지 항목이지만 실제 발음은 오인지 항목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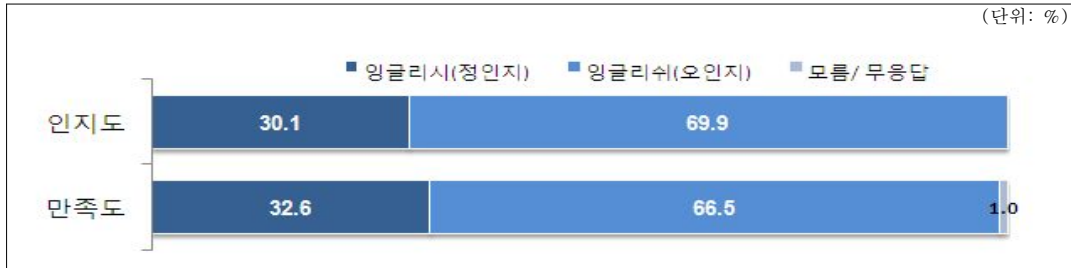
[집단별 특성]

- 잉글리시 표기 정인지율은 남성이 85.5%로 전체 평균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만족도의 경우 30대가 41.2%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됨.

일1-9

①잉글리시

②잉글리쉬



[그림 22] ‘잉글리시’ 인지도 · 만족도 비율(일반인)

전문인 집단과 비교하면 거의 정반대 패턴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오인지 항목이 실제 발음 및 영어 발음 교육에서 경험한 것과 가깝고 그 표기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표기 규범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일반인은 실제 발음과 노출도에 따라 답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집단별 특성]

- 잉글리시 용례에 대한 정인지는 중졸 이하의 학력자를(46.7%)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35% 내외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고, 모든 계층에서 잉글리쉬라는 표현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남.

2-2

둘 이상의 낱말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pick 픽 + up 업 → 픽업 (O), 피킵(X)).



[그림 23] 영어규정 2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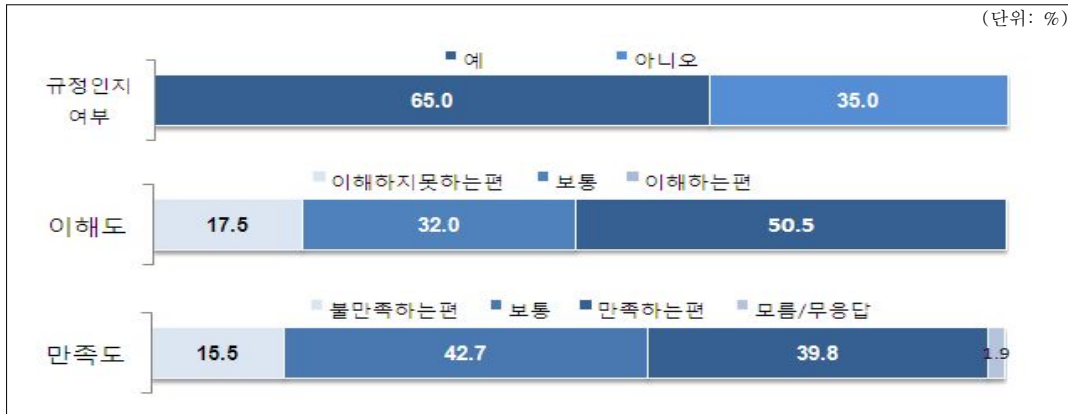
전문인들은 전반적으로 이 규정이 있음을 잘 알고 있고 그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은 규정에 대한 준수 의지가 높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집단별 특성]

□ 이 규정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자들에 있어서 전체 평균 비율과 비교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인문계열 전공자가 이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4.2%로 유의미하게 높았고, 만족도의 경우 20대에서 만족하는 정도가 높았음 (41.7%).

2-3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그림 24] 영어규정 3 설문조사 결과

전문인들은 전반적으로 이 규정이 있음을 알고 있고 그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족도가 낮게 나온 것은 규정에 대한 준수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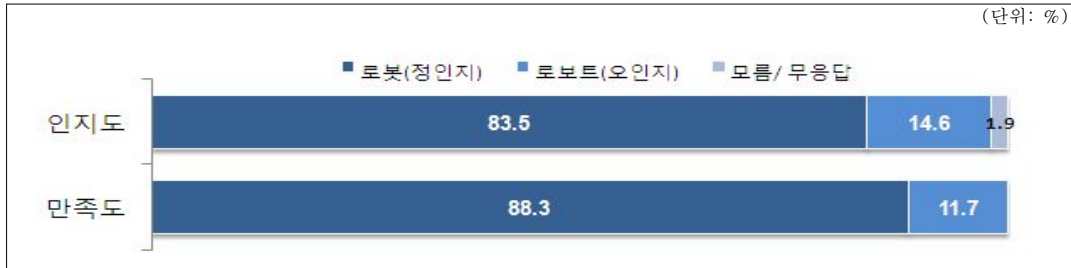
[집단별 특성]

□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과 이해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인문계열 전공자가 각각 72.7%, 59.1%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규정에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20대가 22.2%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전1-6

①로봇

②로봇트



[그림 25] '로봇'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인지도와 만족도 모두 정인지 항목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규정 준수 및 노출도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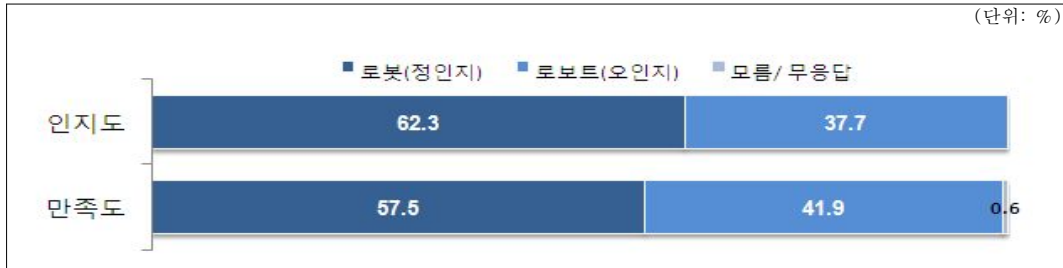
[집단별 특성]

- 로봇 표기와 관련하여 40대 이상이 96.8%로 전체 평균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만족도의 경우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일1-6

①로봇

②로보트



[그림 26] ‘로봇’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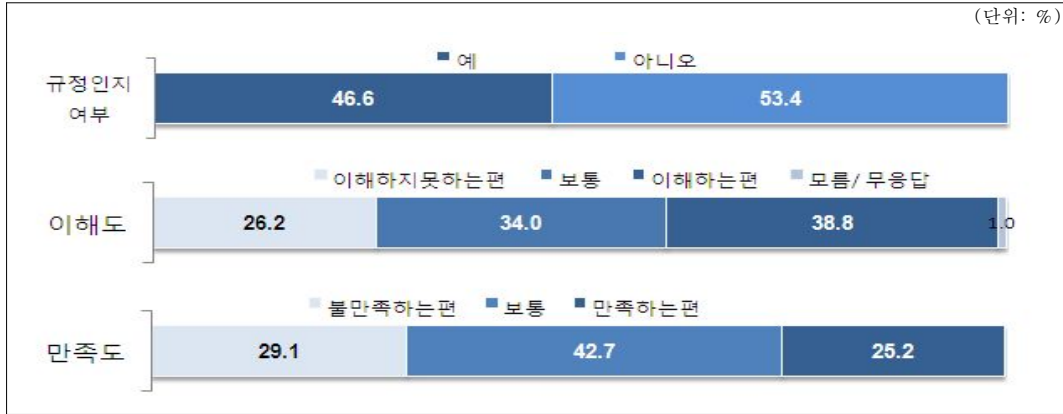
전문인 집단에 비해 인지도와 만족도 모두 정인지 항목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진 것은 노출도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동일한 내용을 담은 “카세트”의 경우와 정반대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노출도에 따라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된다.

[집단별 특성]

- 로봇 용례에 인지도 및 만족도에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 신문기사 및 공공기관 문서를 하루 평균 5건 이하로 읽는 집단에서 각각 57.1%와 55.0%로 전체 평균비율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됨.

2-4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는다.



[그림 27] 영어 규정 4 설문조사 결과

전문인들은 전반적으로 이 규정이 있는 것도 잘 모르고 그 내용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족도도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규정에 대한 준수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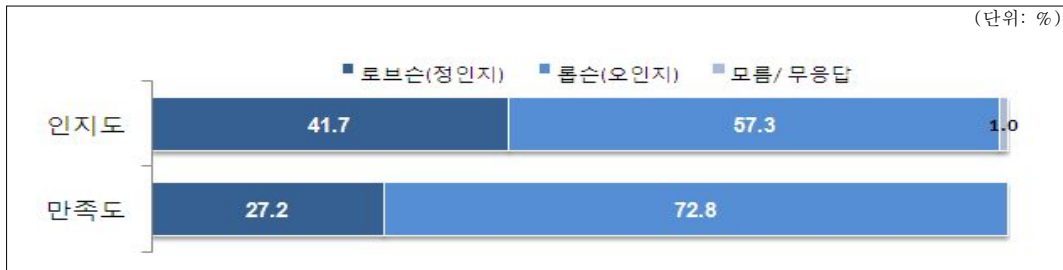
[집단별 특성]

- 인지 여부의 경우 전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았으며, 특히, 언론인 (67.9%), 사회과학계열 전공자에서 비인지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이해도의 경우 인문계열 전공자가 이해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는데 반해 사회과학 전공자의 경우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더 높았음.

전1-8

①로브슨

②롭슨



[그림 28] '로브슨'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인지도를 보면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표기는 오인지 항목인데 규정의 준수 때문에 정인지를 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만족도를 보면 실제 발음에 가깝게 발음하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영어의 겹자음 대응 표기가 국어에 허용되는 경우 그대로 적는다”는 내용으로 표기 규정의 손질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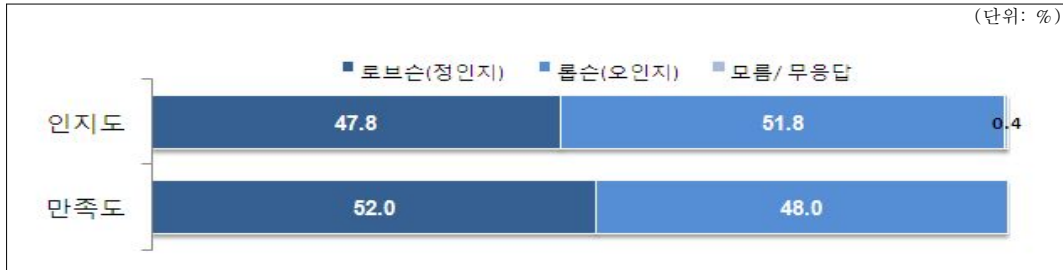
[집단별 특성]

- 로브슨 표기 정인지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언론인들이 롭슨 표기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일1-8

①로브슨

②롭슨



[그림 29] ‘로브슨’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일반인의 경우 오히려 반반의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둘 다 본 적이 있거나 잘 모르지만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무거나 선택한 결과로 보인다. 규정을 모르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표기된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어느 것을 더 많이 보았느냐 또는 언어 지식에 입각하여 스스로 발음을 해 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표기에 답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지도에서 오인지가 더 높는데 이것은 “로브슨”보다는 “롭슨”으로 쓰는 경우를 더 많이 보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족도는 둘 중 어느 것을 쓰고 있거나 쓸 예정이냐를 묻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미국 영어 발음에 익숙한 사람들이 “롭슨”으로 발음하는 것을 경험한 응답자들이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두 표기 모두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말의 자음연쇄체로 영어의 자음연쇄체의 발음을 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음 ‘으’를 삽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어색한 표기를 만들어 낸 것이다. “영어의 겹자음 대응 표기가 국어에 허용되는 경우 그대로 적는다”는 내용으로 표기 규정의 손질이 필요하다.

[집단별 특성]

- 로브슨 용례에 대한 정인지 비율은 20대에서 38.5%로 전체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낮았고, 가정주부가 56.3%로 다른 계층보다 높았으며, 이 표기법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서비사업 종사자(61.4%)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됨.

3.2.1.3 요약 정리

전문인 집단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정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인지도는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표기법에 따라 외래어를 표기해야 하는 직종도 있는 반면에 표기법을 전혀 본 적이 없는 직종도 있다. 이해도는 규정 내용의 전문성과 규정 표현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족도는 규정 내용의 이해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방식으로 표기할 수도 있고 규정 내용의 이해와 관련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전문인 집단은 규정의 존재를 인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조항에 따라 이해도와 만족도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이해도가 낮으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함으로써 이해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고 만족도가 낮으면 그 이유를 찾아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표기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전문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용례 설문조사에서 전문인의 경우 인지도는 상당히 높으나 만족도는 그에 못 미치는 경향이 있다. 전문인 집단의 오인지는 그 비율이 낮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은 대체로 표기법 내용의 미비, 외국어 발음의 실제와 관용 사이의 혼란, 표기에 대한 노출도 등으로 보인다. 반면 일반인은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인지도와 만족도 모두 거의 반반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며 제시된 표기 항목의 선택이 개인의 경험과 노출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에게는 표기법에 따라 표기되는 항목을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표기법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규정 내용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작성하여 규정에 따라 표기된 항목들을 외래어 항목 도입의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도 널리 홍보하는 방향으로 언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2.2 독일어

3.2.2.1. 설문 구성의 개요

1) 설문의 목적

19세기 말 서구문물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에 독일어에서 유래한 단어들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일찍이 서구문물을 받아들여 서구화를 진행한 이웃나라 일본을 통해 서구문화를 접한 우리나라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독일어에서 유래한 외래어들도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주로 생물학과 화학으로 대표되는 자연과학과 의학, 공학 등 분야에서 주로 활용도가 높았던 독일어 외래어들은 차츰 그 영역을 넓혀 법학, 사회과학, 예술 분야 등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이렇듯 신문명의 도입과 함께 유입된 독일어 외래어들이 시대적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면서 우리 표기체계에 어느 정도 동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어 표기법은 음운체계를 잘 반영한 경우가 많아 세계 언어들 중에서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표기체계 중의 하나이다. 이런 독일어 표기체계의 특징이 우리나라의 표기체계에서 어떻게 동화되고 때로는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언어 대중들의 표기 실태를 조사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 되어야한다. 이번 기회에 독일어에서 유래한 외래어 단어들을 대상으로 표기 실태와 그 만족도를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독일어 표기에 대한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 표기 규정에 포함된 독일어 분야의 규정 내용에 대해서도 전문가에게 한정된 경우이나 그 인지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규범의 적합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설문에 포함된 규정과 용례 선정 기준

설문에 포함되는 규정들은 독일어 분야에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상들을 주로 선정하여 오늘날 우리 언어생활에서 전문가들의 인식과 반응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때로는 잘 정리된 내용을, 때로는 내용상 정리가 필요한 대상을, 때로는 다소 지나친 감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는 듯한 내용들을 설문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설문조사 대상 외래어 단어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으면서도 표기에 혼란이 있거나 난해하게 여겨지는 대상들을 주로 선정하였다. 설문 대상 단어들 중 일부 일상적으로 쉽게 파악되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주로 우리 표기체계에서 외래어가 지닌 이질성으로 인해 동화가 되지 못한 표기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단어들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나아가 일반인들이나 전문가 집단이 다소 난해하게 생각하며 표기상 오류 가능성이 높은 단어들도 일부 설문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관용표기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존 관습으로 내려오는 표기와 현행 표기 규정 사이에 경쟁관계를 보이는 갈

등적 표기 사례도 일부 포함시켰다. 이는 우리의 현행 외래어 표기체계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파악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외래적 요소를 지닌 외래어 표기를 동화시킬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성격을 지닌다.

3.2.2.2. 설문 결과 개요

전반적으로 독일어 분야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는 다른 분야 언어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일반인의 독일어 표기 사례에 대한 평균 인지도는 56.1%에 해당되어 에스파냐어의 58.5%나 영어의 59.4%보다도 낮은 결과이다. 일반인의 현행 독일어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만족도도 54.3%로 영어의 58.3%나 에스파냐어의 59.4%보다 다소 낮았다. 반면에 전문가들이 느끼는 독일어 분야 외래어의 인지도는 75.8%로 에스파냐어(65%)보다 높고 영어(79.1%)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전문가들의 표기 사례에 대한 만족도는 70.4%로 에스파냐어(61%)나 영어(62.3%)보다 높은 편이다. 이는 독일어가 지닌 음운체계의 특수성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음운체계와 표기체계를 일치시키고자 꾸준히 노력한 결과 독일어의 표기체계는 기본적인 발음의 특징만을 익히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어에 대한 지식이 일반인보다 풍부한 전문가 집단에서는 인지도와 만족도에서 높은 결과가 나온 듯하다. 독일어에 대한 언어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의 경우 같은 알파벳 언어이며 우리에게 익숙한 영어 지식을 기초로 하여 독일어를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그 결과 독일어 고유의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번 설문 조사에서 일반인의 인지도와 만족도가 다른 언어에 비해 낮게 나온 결과는 설문 대상의 단어선정 기준을 규범 이탈성이 적은 평이한 단어들보다는 표기법상 다소 특수성을 띤 표기 용례들을 포함시킨 결과로 보인다. 독일어 분야의 경우 이번 설문 조사의 목적을 표기법의 인식 문제와 그 문제점 파악에 두었다. 그러므로 이번 설문 조사에서 독일어 표기 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와 만족도 수준보다는 개별 표기 사례에 대한 실태 파악에 더 큰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3.2.2.3. 설문 결과의 특징

1) 일반인과 전문인의 용례 설문 결과의 특징

(1) 규범의 준수성

2-3 ‘호르몬’은 내분비물을 의미하는 의학용어 Hormon을 우리글로 표기한 경우로서 현행 외래어 표기 규정 “자음 앞의 [r]는 ‘으’를 붙여 적는다(제3장 2절 1항)”라고 명시한 내용에 따라 표기한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일반인 75.6%가 ‘호르몬’을 올바른 표기법으로 인식하였으며, 전문가의 경우는 64.2%가 올바르게 인지하였다. 만족도면에서도 ‘홀

문'에 비해 '호르몬'을 선호하는 경우가 일반인의 경우 77.3%, 전문가 86.4%로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는 표기 사례라고 판단된다. 또한 계층별로도 큰 특징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2-10 '보슈'의 설문 조사 결과는 이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공업화학자 Bosch를 현행 규정은 '보슈'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래어 표기 규정에서 독일어 [ʃ]의 경우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는 '슈'로 적는다(제3장 2절 4항)"라는 규정을 준수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원음에 대한 표기와 거리가 멀어 현실성이 결여된 규정으로서 언어 실생활에서 규범 준수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독일어의 경우 [ʃ]는 우리말로 '쉬'에 가깝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언어 사용자들은 '보슈'라는 표기 대신 '보쉬'를 선호하며 올바른 표기법으로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일례로 우리나라에 진출에 있는 자동차부품 및 전동공구로 유명한 독일 Bosch 회사의 경우 한국 공식명칭으로 '보쉬'라는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슈'라는 표기는 현실성이 매우 떨어져 보인다. 그러므로 이런 사례를 계속 방치할 경우 언어규범을 무시하는 경향이 팽배해지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규범을 무시하는 풍조 속에서는 합리적인 표기 규정의 마련이 불가능해진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원음에 가깝고 언어 실생활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표기법과 이를 반영한 표기규범의 도출이 필요해 보인다.

(2) 외래어 표기에서 독일어 원음의 반영

독일어 음운체계에서 어말에 오는 , <d>, <g>의 경우 무성음화되어 [p], [t], [k]로 발음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이를 우리말로 옮겨 적을 때는 'ㅍ', 'ㅌ', 'ㄱ'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를 알파벳 표기만을 그대로 반영해 'ㅂ', 'ㄷ', 'ㄱ'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용례를 2개 포함시켰다. 2-1 독일의 유명 대학도시 Heidelberg에 대한 표기 설문사례 ①하이텔베르크와 ②하이텔베르그, 2-2 독일의 국가명칭 Deutschland에 대한 설문사례 ①도이칠란드와 ②도이칠란트가 이에 해당된다.

2-1의 경우 일반인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정인지 표기인 '하이텔베르크'라는 답이 61.1%로 오인지 표기 사례(37.5%)보다 월등히 높은 결과가 나왔다. 또한 표기 만족도에서도 '하이텔베르크'가 67.8%로 원음에 가까운 표기를 선호하는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정인지 표기가 57.3%로 일반인들보다는 다소 뒤쳐진 결과이긴 하나 절반이상이 올바르게 답하였다. 표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하이텔베르크'를 67%의 전문가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일반인들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이다. 다만 특징적인 현상은 학력 계층별로 응답에 다소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이텔베르크'라는 표기에 대해 중졸이하의 경우 76.7%가 바르게 답한 반면 대졸자(57.1%)나 대학원 졸업자(66.7%)는 이보다 낮은 대답이 나왔다. 반면에 중졸이하의 경우 80%가 '하이텔베르크'라는 표기에 만족하는 것과 달리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66.7%가

‘하이델베르크’라는 표기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물론 고졸자(287명)나 대졸자(205명)에 비해 중졸이하(30명)나 대학원 졸업자(3명)의 경우 그 사례수가 매우 적지만 극단적으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례가 눈에 띈다. 전반적으로 대다수 응답자는 ‘하이델베르크’를 올바른 표기법으로 선택하였으며(61.1%), 만족하고 있다(67.8%). 전문가 그룹에서는 계층별로 특이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없다. 다만 신문기자들(72.4%)과 출판사 종사자들(68%)의 경우에서 ‘하이델베르크’를 올바른 표기로 인식한 경우가 두드러졌다. 반대로 국어교사(60%)나 아나운서(54.2%)의 경우 평균 이상의 응답자가 ‘하이델베르크’를 바른 표기라고 답하였다. 만족도 평가에서 전문가 그룹은 계층적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

2-2는 독일의 국가명칭인 ‘도이칠란트 Deutschland’에 대한 표기를 설문 조사한 경우로 2-1 ‘하이델베르크’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 2-1의 경우 Heidelberg의 발음 -g[k]를 ‘ㄱ’로 표기하며, 2-2의 경우 Deutschland의 발음 -d[t]를 ‘ㅌ’로 표기하는 것으로 이는 독일어 고유 음운체계의 특징을 나타내는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칠란트’를 올바른 표기법으로 인정한 경우가 일반인의 경우 20.8%로 낮은 수준이었다. 만족도 또한 17.3%로서 대다수인 82.5%의 일반인이 ‘도이칠란트’라는 표기에 만족했다. 학력 계층별로 살펴보면 매우 특이한 결과가 나타난다. 중졸이하의 경우 83.3%가 ‘도이칠란트’를 올바른 표기로 인식한 반면 대학원 졸업자는 66.7%가 이에 해당된다. ‘도이칠란트’라는 원음을 반영한 표기에 대해 중졸이하 16.7%가 옳다고 인식하였으나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33.3%가 맞게 인지하였다. 이는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독일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도이칠란트’를 바르게 인정한 경우가 중졸이하 16.7%, 고졸 21.3%, 대졸 20.5%, 대학원졸 33.3%로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인지도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만족도에서는 두 그룹 모두 ‘도이칠란트’를 높게 평가했는데 중졸이하의 경우 73.3%,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66.7%가 선호하였다. 전문가들도 ‘도이칠란트’를 올바른 표기법으로 인식한 경우가 40.8%에 불과했다.

‘하이델베르크’에서는 76.7%가 ‘하이델베르크’보다는 ‘하이델베르크’를 올바른 표기로 인식한 중졸이하의 응답자가 ‘도이칠란트’에서는 정반대로 ‘도이칠란트’라는 틀린 표기법을 올바른 답으로 인지하고 있다. 또한 만족도에서도 ‘하이델베르크’를 80%가 선호한 중졸이하 응답자가 ‘도이칠란트’에서는 ‘도이칠란트’라는 표기에 대해 56.7%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는 독일어에서 유래한 외래어의 경우 원어의 알파벳 표기에서 독일적 색채가 뚜렷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반인들이 다르게 반응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하이델베르크’의 경우 ‘베르크 -berg’나 ‘부르크 -burg’로 끝나 독일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쉽게 인식하고 나아가 독일어의 발음 특징을 인지한 결과로 판단된다. 반면에 ‘도이칠란트’의 경우 우리에게 익숙한 영어 단어인 ‘land’의 영향으로 영어식 발음 표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결과라고 생각된다. 물론 표기규정 제2절 3항 “철자 ‘berg’, ‘burg’는 ‘베르크’, ‘부르크’로 통일해서 적는다”라는 항목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이칠란트’의 경우 ‘도이칠란트’ 표기에 대한 만족도가 82.5%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결과를 보면 독일어 표기에 대한 영어식 발음의 영향은 지대하다고 판단된다. 전문가들도 68.9%가 ‘도이칠란트’라

는 표기에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표기법상 독일어 색채가 잘 나타나는 ‘하이델베르크’의 경우 대체적으로 독일식 발음 특성이 외래어 표기법에도 잘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독일어에서 같은 음운체계 특징을 지닌 ‘도이칠란트’에 대한 표기에서는 독일어 원음에 가까운 ‘도이칠란트’라는 표기보다는 ‘도이칠란트’라는 표기가 올바르게 인식되며, 그 만족도 또한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외래어 표기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영어식 발음을 표기에 반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현상은 그 유래를 잘 알지 못하거나 영어와 유사성이 나타나는 표기의 경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도이칠란트’라는 표기가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 보인다.

(3) 영어식 발음의 표기

위에서 언급했듯이 독일어 고유의 발음 특성이 무시되고 영어식으로 발음되어 표기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용례로 2-5 Siemens를 선정하였다. 독일 최초의 전기기기 제조회사인 Siemens는 오늘날 독일 최대의 전기, 의료기, 원자력발전 관련 설비 제조회사로서 세계적 명성이 자자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이다. 독일어에서 <s>가 모음 앞에 오는 경우 유성음화 되어 [z]로 발음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외래어에서는 ‘ㄷ’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멘스’라는 단어를 일반인들은 58.7%가 올바르게 인식한 반면 41.3%는 ‘시멘스’를 바른 표기라고 답하였다. 이 경우 오답률이 매우 높다. 이와 반대로 언어적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은 78.6%가 ‘지멘스’를 바른 표기라고 답하여 독일어의 발음 특성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만족도의 경우도 일반인과 전문가들은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일반인 58.3%가 ‘지멘스’라는 표기에 만족한 반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76.7%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이는 표기법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한 비율과 만족도가 거의 유사한 결과로 일반인이나 전문가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멘스’라는 표기에 대해 자신이 답한 표기법에 만족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멘스’를 올바른 표기로 인지하는 일반인(41.3%)과 전문가(20.4%)들은 독일어에 대한 지식 없이 영어식 발음을 기준하여 발음한 결과임에 틀림없다.

계층별 특징적인 현상은 직업 분류에서 블루칼라(63.6%)나 자영업 종사자(63.9%), 서비스업 종사자(67.5%)에서 ‘지멘스’를 바른 표기로 인식하는 경우가 평균(58.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직업적으로 ‘지멘스’라는 단어와 접촉이 많아 다른 직업 계층보다 풍부한 정보를 지닌 결과인 듯하다. 만족도에서도 ‘지멘스’를 선호하는 결과가 이들 계층에서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멘스’라는 표기를 올바르게 인지한 경우가 남성(90.9%)과 언론인(94.3%)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29명의 신문기자 전원(100%)이 ‘지멘스’를 바른 표기로 인식하였다. 연령층에서도 경제적 활동이 두드러진 30대(82.4%)

와, 40대(95%), 50대 이상(90.9%)에서 평균이상의 정인지율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4) 장음표기

일반적으로 현행 외래어 표기규정에서는 장음의 표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독일어에서는 모음의 장음을 표기법에 따로 반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같은 모음을 중복하여 표기하는 경우로 <aa>, <ee>, <oo>와 같은 표기법이 이에 속한다. 또한 모음 뒤에 -h를 첨가하거나 <ie>같은 경우가 장모음을 나타내는 표기법이다. 2-4 오스트리아의 수도 Wien ‘빈’에 대한 표기사례 조사나, 2-9 유명작곡가 Beethoven ‘베토벤’에 대한 설문조사가 바로 장음표기에 대한 우리 외래어 표기법의 현 상황을 평가해보기 위한 것이다.

2-4의 경우 일반인의 77%, 전문가의 94.2%가 ‘빈’을 올바른 표기로 인식하여 매우 높은 정인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만족도 또한 장모음 표기를 반영하지 않은 ‘빈’에 대해 일반인(70.9%)과 전문가(92.2%) 모두 압도적인 지지를 나타냈다.

2-9 ‘베토벤’에 대한 표기에 대해 일반인 65.1%, 전문가 94.2%가 옳은 표기라고 답하였다. 이는 전문가의 경우는 변화가 없으나 일반인은 ‘빈’에서보다 다소 ‘베토벤’에서 장음표기를 반영한 ‘베에토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이 만족도면에서는 더욱 두드러져 일반인의 60.6%가 ‘베토벤’ 표기를 선호하며, 반면에 39.4%는 ‘베에토벤’ 표기에 만족한다는 답을 내놓았다.

이러한 특징은 “표기법의 보수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베에토벤’이라는 표기를 올바르다고 인식한 연령층은 주로 50대 이상에서 나타난다. 40대의 경우 전체 평균(34.9%)을 다소 상회하는 35.4%가 ‘베에토벤’ 표기를 바른 표기법으로 인식한 반면, 50대에서는 39.1%, 60대 이상에서는 48.5%로 연령층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베토벤’이라는 작곡가는 클래식 음악의 성인이다. 연령층으로는 장년층이상에서 클래식 음악의 선호가 두드러지는데 이들은 기존의 표기법에 익숙한 특징이 있다. 한 때 우리나라 외래어 표기규정에서 장음표기를 표기법에 반영하여 인정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런 장음표기의 일부 선호 결과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 강한 연령층에서 기존의 익숙한 표기법을 옳다고 생각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한 클래식 음악에 조예가 깊은 층이 독일어에 대한 지식도 남달라 원음표기에 가까운 외래어 표기를 선호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독일어에서 유래한 외래어 표기법에서 장음표기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은 잘 지켜지고 있다. 다만 일부 소수 계층에서 장음을 반영한 표기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고집하는 경우 있으나 이는 그 정도가 미미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5) 된소리표기

독일어 <z/ts/>의 경우 우리말 ‘ㅈ’와 ‘ㅉ’음의 중간적 성격이나 ‘ㅉ’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 외래어 표기 규정(제1장 4항)에서는 된소리 표기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현행 표기규정의 표기 일람표에서도 /ts/를 ‘ㅈ’로 발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어 <z>는 ‘ㅈ’로 표기하는 것이 현행 규범에서는 올바른 표기법이다. 2-6의 ‘모차르트’와 2-7의 ‘취리히’가 이에 해당되는 설문 대상이다.

2-6 독일의 유명 작곡가 Mozart에 대한 표기로 ‘모차르트’를 옳다고 대답한 일반인이 45.3%로 절반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78.6%가 ‘모차르트’를 올바른 표기라고 답하여 일반인들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문가(68.9%)에 반해 일반인들(42.9%)이 ‘모차르트’라는 표기를 선호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은 ‘모차르트’라는 표기를 올바르게 인지한 반면 일반인들은 ‘모짜르트’라는 표기를 옳다고 믿고 있으며(54.7%),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57.1%).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문가 그룹에서는 정인지 비율이나 만족도에서 특별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20대 미만(51.4%)과 학생층(56.4%)에서 ‘모차르트’라는 표기를 올바른 표기법으로 답한 경우가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에 ‘모짜르트’를 바른 표기법으로 인지한 경우는 30대(57.4%)와 60대 이상(58.8%)에서 높았으며, 직업계층에서는 블루칼라가 61.4%로 평균치를 웃돌았다.

2-7 스위스 동부의 대도시 Zürich를 ‘취리히’가 올바른 표기라고 인식한 일반인은 68.8%이며, 전문가는 88.3%였다. 만족도에서도 일반인은 70.5%가, 전문가 그룹에서는 78.6%가 ‘취리히’를 선호하는 결과가 나왔다. 계층별로 보면 ‘취리히’라는 표기에 대해 전문가의 경우 그리 큰 특징을 보이지 않으나 남성(96.4%) 경우 인지도 면에서 평균 이상이었으며, 만족도면에서는 비언론인이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일반인의 경우에서는 20대 미만(76.1%)과 30대(78.3%)에서 ‘취리히’에 대한 인식률이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79.4%)와 학생층(74.4%)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만족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 다만 학력계층별로는 특징적인 면이 나타나는데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취리히’를 바른 표기로 인식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중졸이하의 경우 56.7%였던 인지도가, 고졸 67.2%, 대졸 72.2%로 상승하더니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는 100% 전원이 ‘취리히’를 올바른 표기로 인식하였다. 이는 외래어 표기법의 경우 학습효과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강한 학습효과가 인지도 향상에 기여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외래어 표기법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지대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 분야에서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z>의 된소리 표기를 지양하여 ‘취리히’, ‘모차르트’라고 표기하는 경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전문가 집단에서는 대체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에는 도시명칭인 ‘취리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음악가의 이름인 ‘모차르트’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표기법의 보수성”이 작용

한 결과로 보인다. ‘빈’과 ‘베토벤’의 경우에서처럼 경제적 또는 사회적 접촉이 빈번한 외래어의 경우에는 우리말 표기법에 동화된 표기가 언어 실생활에서도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클래식 음악가의 이름처럼 학문적 성격과 역사성을 띠는 분야에서는 단어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표기에 대한 보수성, 다시 말해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의 표기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6) 관용표기와 이중표기

2-8 독일의 유명 작곡가 Bach에 대한 올바른 표기로 ‘바흐’를 선택한 경우가 일반인의 경우 52.6%이며, 전문가의 경우 93.2%이다. 만족도의 경우에서도 일반인의 경우 42.9%가 ‘바흐’를 선호했으며, 전문가의 경우는 83.5%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이런 설문 결과를 볼 때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현행 규정에 따른 ‘바흐’ 표기를 인정하는 입장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바흐’라는 현행 규정상 바른 표기 이외에 ‘바하’라는 기존의 표기 관행도 선호하고 있다. 일반인의 47.4%가 ‘바하’를 올바른 표기라고 답했으며, 만족도에서는 절반이 넘는 57.1%가 ‘바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외래어 표기법을 분석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결과임에 틀림없다.

이번 일반인 대상의 결과를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층에서는 ‘바흐’를 올바르게 인지한 경우가 20대 미만에서 63.3%로 가장 많았다. 40대(47.2%)와 50대(44.6%), 60대 이상(42.65)에서는 차츰 그 인지도가 하락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60대 이상에서 ‘바하’라는 표기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또한 직업별로는 학생층에서 ‘바흐’를 바른 표기로 가장 많이 인식하였으며(69.2%), 블루칼라층이 ‘바하’라는 표기를 올바른 표기로 가장 많이 인지하였다(72.7%). 학력별로는 대졸자가 60.5%로 ‘바흐’ 표기를 올바른 표기로 인식하였으며, 반면에 중졸이하의 경우는 ‘바하’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70%). 만족도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 이는 분명 ‘바흐’와 ‘바하’ 표기가 우리 언어 실생활에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바흐’와 ‘바하’ 표기는 우리 외래어 표기법에서 관용표기의 문제에 속한다. 독일어에서 <ch>는 발음상 독특한 특징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ch>가 모음 a, o, u 뒤에 오는 경우 [x]로 발음하며, 그 외의 경우는 [ç]로 발음한다. 여기서 [x]는 우리말로 ‘흐’에 가깝고, [ç]는 ‘히’와 유사하여 그렇게 표기한다. 그러므로 Bach의 경우는 ‘바흐’로 표기하는 것이 독일어 원음에 가까운 표기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어의 영향에서인지 오랜 동안 ‘바하’로 표기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를 원음에 가까운 ‘바흐’로 고쳐 표기하려는 노력이 1980년대에 왕성히 전개되어 최근에 ‘바흐’를 올바른 표기법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번 설문 결과는 우리 현행 규정(제1장 5항)이 관용표기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관행 표기법을 무시한데서 온 문제라고 보여 진다.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인터넷판)을 보면 ‘바하’를 인정하지 않고 ‘바흐’만을 표준 표기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관용 표기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번 설

문 결과처럼 표기법에 다소 해박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 집단이나 교육정도가 높은 계층, 그리고 학습활동이 왕성한 계층에서 ‘바흐’를 올바른 표기로 인지하고 있다. 반면에 교육정도가 낮고, 보수적 성향을 띠는 계층에서는 기존에 익숙한 표기법인 ‘바하’를 올바른 표기로 인식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표기법이 언어대중 간에 계층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이다. 언어 표기법에서는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고 모든 언어사용자가 두루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표기규범의 창출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중표기의 허용 문제를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관용표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새로 체계화된 원음표기와 함께 기존의 표기법도 인정하는 이중표기의 허용을 과감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전문인의 규정과 용례의 상관관계의 특징

(1) 규정: [ʃ]의 경우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는 ‘슈’ 로 적는다(제3장 2절 4항)

전문가들의 경우 이 규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반응이 39.8%로 대체적으로 비인식 응답(60.2%)이 높게 나왔다. 위에서 보았듯이 실제로 Bosch라는 용례에 대해 ‘보슈’라는 현행 규정상 바른 표기를 선택한 전문가가 38.8%로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에 반해 ‘보쉬’라는 응답자는 60.2%로 높게 나왔다. 규정에 대한 만족도가 33%인데, 표기법상 ‘보슈’에 대한 만족도도 30.1%로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다. 이는 현행 규정에 대해 만족도가 낮으며 실제 표기사례에서도 현행 규정에 따른 표기방식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 규정은 독일어 원음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규범에 대한 실효성이 취약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2) 규정: 어말의 [r]와 ‘-er[ər]’ 는 ‘어’ 로 적는다(제3장 2절 1항)

이 규정은 Herr나 Razer, Tür, Vater 등을 ‘헤어’나 ‘라주어’, ‘튀어’, ‘파터’ 등으로 표기한다는 원칙으로서 독일어 원음을 충실히 반영한 내용이다. 전문가들도 이 규정을 57.3%가 안다고 답하여 대체적으로 잘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해도 또한 49.5%, 만족도 37.9%로 대체적으로 대중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규정으로 판단된다.

(3) 규정: 복합어 및 파생어의 선행 요소가 [r]로 끝나는 경우는 2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장 2절 1항)

이 규정은 Fürsorge, Vorbild, Urkunde와 같은 단어를 ‘퓌어조르게’, ‘포어빌트’, ‘우어쿤데’와 같이 쓰도록 하여 독일어 원음에 충실한 표기를 구현하고자한 내용으로 해석된다.

이는 ‘튀르조르게’, ‘포르빌트’, ‘우르쿤데’ 와 같은 과거 일본식 발음에 영향을 받은 잘못된 표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목적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지도는 34%로 매우 미흡하였다. 이해도 또한 31.1%, 만족도도 27.2%로 그리 높지 않다. 전반적으로 이 규정은 지나치게 규정을 세분화한 느낌이 든다. 규정집 용례에서 든 사례들처럼 이런 단어들은 우리나라 외래어에서는 사용빈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염려에서 규정을 만들다 보니 언어 대중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내용으로 남게 된 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 규정은 다소 불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4) 규정: 자음 앞의 [r]는 ‘으’ 를 붙여 적는다(제3장 2절 1항)

이 규정은 그 내용상으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그 용례를 보면 쉽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독일어 발음상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규정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Hormon이나 Hermes 같은 경우 ‘호르몬’이나 ‘헤르메스’로 표기하며 ‘홀몬’이나 ‘헬메스’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65%가 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만족도도 25.2%로 낮은 편에 속한다. 이 규정은 설명상의 한계뿐만 아니라 독일어 음운구조상의 특징을 나타내고자한 표기 규정의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결과를 보이는 듯하다.

(5) 규정: [ʃ]의 경우 그 밖의 모음 앞에서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쇼, 슈’ 등으로 적는다(제3장 2절 4항)

이 규정은 Schatz, schon, Schule, Schelle와 같은 용례들을 ‘샤츠’, ‘숀’, ‘슐레’, ‘셀레’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규정에 대해 44.7%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그 내용을 45.6%가 이해하는 편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전문가의 37.9%가 이 규정에 만족한다고 답하여 다른 독일어 표기 사례에 대한 규정에 비해 대체적으로 만족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위의 1)의 규정과 관련된 이 내용은 독일어의 원음을 표기에 반영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sch>가 보통 [ʃ]로 발음되는데 이 기본음 [ʃ]를 ‘쉬’로 표기하게 되면 이 규정에는 다소 맞지 않는 내용이 남게 된다. Schelle의 경우 ‘셀레’가 합당한 표기가 되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쉬’를 기본 표기로 규정하면 모음과 합성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합당한 음이 도출되고 이를 표기에 반영하면 되는데 이를 굳이 따로 정해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규정을 다소 복잡하게 만드는 잉여적 요소가 농후한 규정이란 느낌이 든다.

(6) 규정: [ʃ]의 경우 [y], [ø] 앞에서는 ‘ㅅ’ 으로 적는다(제3장 2절 4항)

이 규정은 이번 설문 조사에서 제시된 규정 중 인지도가 가장 낮은 규정에 해당된다. 전문가의 30.1%만이 이 규정을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그 내용을 이해한다는 응답도 32%에 그치고 있다. 또한 만족도는 22.3%로 다른 규정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이 규정은 Schiller와 schön과 같은 표기 사례를 염두에 둔 사항이다. 이에 합당한 표기로 ‘셀러’와 ‘뢴’을 규정하는 이 내용은 분명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 또한 위의 5)에서 언급한대로 [ʃ]의 기본음을 ‘쉬’로 하고 이와 결합되는 음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면 되는 문제를 굳이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활용도도 떨어지는 문제를 초래한 듯하다. 이 규정은 분명 언어생활에서 인지도도 떨어지고 만족도도 빈약하며 나아가 그 활용도도 의심스러운 매우 빈약한 규정이라는 인상이 든다.

3.2.3. 프랑스어

3.2.3.1. 설문 구성의 개요

1) 설문의 목적과 내용

프랑스어 표기 규범 영향 평가는 ‘국민의 외래어 표기 규범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외래어 표기 규정에 대한 인지도·이해도,·수용도 및 외래어 표기 용례에 대한 인지도·만족도를 조사’하고,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주요 국가의 외래어 표기 규범을 비교’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10년 10월 15일부터 11월 2일까지 약 3주 동안 전문조사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를 통하여 실시된 “프랑스어 표기 규정 및 용례에 대한 인지도·이해도·만족도 조사”는 프랑스어 표기 규범 영향 평가 용역의 사업 영역 중 ‘프랑스어 표기 실태 조사’의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프랑스어 규정과 용례를 나누고 일반인 집단과 전문가 집단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규정에 대한 설문조사는 전문가 집단에만 실시하였고, 용례에 대한 설문조사는 일반인과 전문가 두 집단 모두에 실시하였다. 프랑스어 표기 규정에 대한 설문은 프랑스어 표기 전체에 해당하는 일반 규정 5개에 대한 설문 문항과, 프랑스어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규정 5개에 대한 설문 문항, 그리고 10개의 프랑스어 어휘로 구성된 설문 문항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조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프랑스어 규정에 관한 인지 여부(이항 척도), 규정 이해도(5점 척도), 표기 방식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 조사이다. 이 조사는 전문가 집단에게만 설문조사했으며, 응답자는 일반인의 경우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수도권 성인 남녀를 표본 추출한 것이고, 전문가의 경우 아나운서, 신문기자, 출판사 편집관련 종사자, 국어교사를 대상으로 임의 할당 표본 추출한 것이다. 둘째, 프랑스어 표기 인지 정도 측정이다. 이것은 프랑스어 인지 및 만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프랑스어를 제시하고 올바른 용례와 보기 좋거나 쓰기 편한 용례를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다.

2) 프랑스어의 설문 구성

프랑스어의 설문 구성은 프랑스어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규정 5개에 대한 설문 문항과 그 규정과 관련된 용례에 대한 설문 문항 10개로 구성되었다. 규정에 대한 설문 문항은 용례에 대한 설문 문항이 있는 것이 모두 4개이고, 용례에 대한 설문 문항이 없는 것이 1개이며, 용례는 있지만 규정이 없는 것이 1개 있다. 용례선정에 관해서는 본 설문의 취지에 맞추어 철저하게 대중에게 알려져 있으며 프랑스어 표기 규정 인지도 파악에 용이한 용례 중에서 선정하였다. 특히 프랑스어 발음지식이 없는 화자들에게도 전혀 낯설지 않은 용례들만을 선정했다. 본 연구를 위해 선정한 설문 규정과 용례는 다음과 같다.

4. 프랑스어	1	[R]이 [r], [ʀ]과 음가가 다르지만 별도의 표기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르'로 표기한다.
	2	마찰음 [ʃ]와 [ʒ]는 어말과 자음 앞에 올 경우 '슈'나 '주'로 표기한다.
	3	반모음 [j]는 어말에 올 때에 '유'로 적는다.
	4	반모음 [w]는 '우'로 적는다.
	5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66] 프랑스어 규정 설문 문항

1	①파리 ②빠리
	Paris: 프랑스의 수도
2	①바캉스 ②바깡스
	vacances: 방학, 휴가
3	①바게트 ②바게뜨
	baguette: 프랑스의 대표적인 막대기 모양 빵
4	①몽타주 ②몽타쥬
	montage: 범죄 수사에서 목격자의 증언을 모아 용의자의 수배 전단을 만드는 데에 이용하는 사진
5	①크루아상 ②크루와쌍
	croissant: 프랑스의 대표적인 초승달 모양 빵
6	①앙상블 ②앙쌍블
	ensemble: 합창, 합주
7	①상송 ②상쑹
	chanson: 가요, 노래
8	①베르사유 ②베르사이
	Versailles: 프랑스 파리 근교 지역으로, 유명한 궁전이 있다.
9	①필름 누아르 ②필름 누와르
	film noir: 암흑가를 다룬 범죄 영화
10	①르네상스 ②르네쌍스
	Renaissance: 문예부흥, 르네상스 시대

[표 67] 프랑스어 용례 설문 문항

각각의 규정에 따른 용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R]이 [r], [l]과 음가가 다르지만 별도의 표기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르’로 표기한다.

- **표기 세칙의 문제점** : 프랑스어 자음 중 가장 독특한 음인 [R]의 경우, 프랑스어 표기 세칙에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표기 일람표에 따라 ‘르’로 표기하고 있다. 이런 규정은 프랑스어 표준 발음과 거리가 너무나 멀어지며, [l]발음과 두 음의 구별이 없어져 프랑스어 자음 체계상 완전히 독립적인 음소를 똑같이 표기하고 발음함으로써 의사소통에 많은 혼란이 생기게 된다.
- **해당용례** : 용례로써 [R] 발음을 ‘르’로 표기하는 경우와 ‘ㅎ’으로 표기하는 경우를 제시하였으나, ‘ㅎ’으로 표기하는 것이 국어현실과 괴리가 커서 설문의 의미가 없다는 문체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용례를 제시하지 않았다.

2 마찰음 [ʃ]와 [ʒ]는 어말과 자음 앞에 올 경우 ‘슈’나 ‘주’로 표기한다.

- **표기 세칙의 문제점** : 실제로 망슈 manche나 피에주 piège의 경우 마찰음 [ʃ]와 [ʒ]의 발음은 ‘슈’와 ‘쥬’로 통일해 주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발음에 가깝다.
- **해당용례** : ①몽타주 ②몽타쥬

2 마찰음[s]의 경우 ‘스’로 표기한다.

- **표기 세칙의 문제점** : 실제로 [쓰]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발음에 가깝다.
- **해당용례** : ①양상블 ②양쌍블, ①르네상스 ②르네쌍스, ①상송 ②상쑹

3 반모음 [j]는 어말에 올 때에 ‘유’로 적는다.

- **표기 세칙의 문제점** : 타이 taille와 피이 fille의 경우 ‘따유’와 ‘피유’로 적어야 하는 잘못된 표기 결과가 나온다.
- **해당용례** : ①베르사유 ②베르사이

4

반모음 [w]는 ‘우’로 적는다.

- 표기 세척의 문제점 : ‘우와’로 표기해야 현실적인 발음에 가깝다.
- 해당용례 : ①크루아상 ②크루와쌍, ①필름 누아르 ②필름 누와르

5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표기 세척의 문제점: 파열음 [p], [t], [k]의 경우 된소리에 가깝게 소리 내는 것이 원음에 가까운데 불구하고 표, 트, 크로 표기함으로써 현실적인 발음과 멀어진다.
- 해당용례 : ①파리 ②빠리, ①바캥스 ②바깡스, ①바게트 ②바게뜨

3.2.3.2. 설문 결과 개요

- 1) 프랑스어 올바른 표기 전체 문항에 대한 인지율과 만족도에 있어서, 일반인 정인지율 76.5%, 전문인이 92.1%로 전문인이 15.6%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는 일반인 78.3%, 전문인 81.6%로 전문인이 3.3% 높았다. 일반인 경우 올바른 표기에 대한 인지율과 만족도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만족도가 좀 더 높고, 전문인은 정인지율에 비해 만족도 수준이 10.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프랑스어 용례에 대한 정인지율에서 일반인의 경우 독일어(56.1%), 에스파냐어(58.5%)보다 높고, 이탈리아어(82.5%)보다는 낮다. 일반인 만족도의 경우 독일어(54.3%), 에스파냐어(59.4%)보다 높으며 이탈리아어(83.7%)보다는 낮다. 전문인 정인지율의 경우 독일어(70.4%), 에스파냐어(65.0%), 이탈리아어(91.7%)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인 만족도의 경우는 독일어(70.4%), 에스파냐어(61.0%)보다 높으며 이탈리아어(87.9%)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 3) 결과적으로 프랑스어의 경우 대체적으로 정인지율과 만족도가 이탈리아어와 일본어에 비하여 낮으나 영어, 독일어, 에스파냐어, 중국어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3.2.3.3. 설문 결과의 집단별 특성

먼저 프랑스어의 응답 비율별 용례는 다음과 같다.

응답 비율	일반인		전문인	
	정인지	만족도	정인지	만족도
90% 이상	파리, 바캉스, 앙상블, 샹송, 베르사유	파리, 바캉스	바캉스, 샹송, 앙상블, 파리, 베르사유, 크루아상, 르네상스	베르사유, 바캉스, 앙상블,
80% 이상 90% 미만		앙상블, 샹송, 베르사유,	몽타주, 바게트	샹송, 르네상스, 파리
70% 이상 80% 미만	크루아상, 르네상스	크루아상, 르네상스, 몽타주,	필름 누아르	몽타주, 크루아상,
60% 이상 70% 미만	바게트, 몽타주	바게트		바게트
50% 이상 60% 미만		필름 누아르		필름 누아르
50% 미만	필름 누아르,			

[표 68] 프랑스어 응답 비율별 용례

1) [R]의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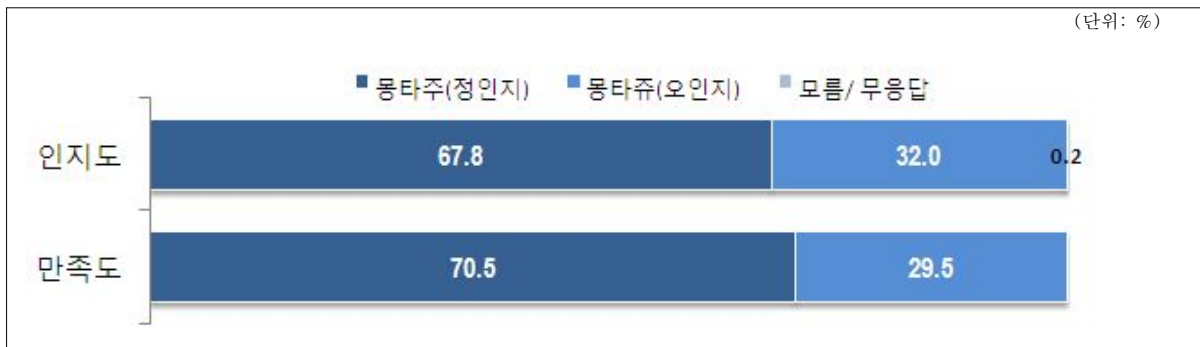
남성이 76.4로 여성보다 규정 인지도가 높고, 사회계열이 73.1로 인문계열보다 인지도가 높다. 또한 신문기자, 출판사 종사자가 각각 79.3, 72.0으로 인지도가 높다. 이해도는 인문계열과 국어교사, 신문기자가 매우 높으나, 상대적으로 아나운서는 매우 낮다. 만족도는 인문계열, 국어교사, 신문기자가 높고 아나운서는 낮다. 아나운서의 이해도와 만족도가 낮은 것이 눈에 띈다.

2) 마찰음 [ʃ]와 [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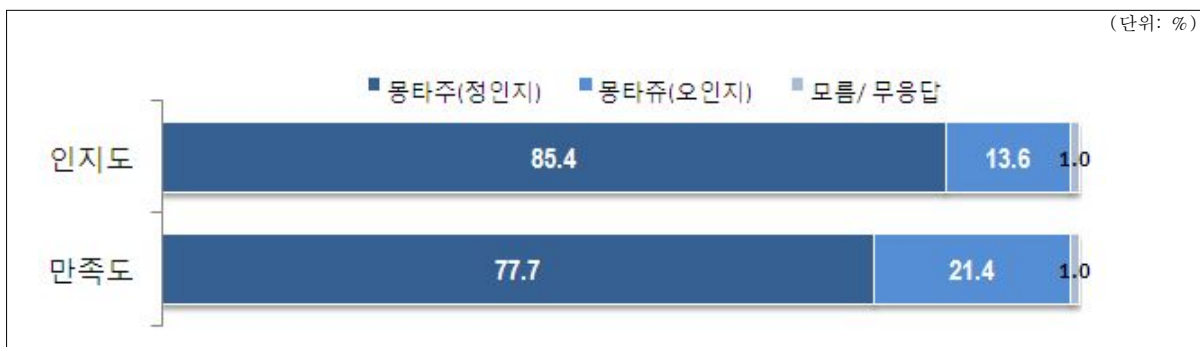
전반적인 규정 인지도가 낮고 이해도는 높으며 만족도는 보통이다. 사회계열이 50.0으로 인지도가 인문계열보다 높으나 이해도, 만족도는 인문계열보다 눈에 띄게 낮다고 볼 수 있다. 국어교사와 아나운서가 신문기자와 출판사종사자보다 인지도가 유의미적으로 낮다. 이해도는 아나운서가 매우 낮다. 그리고 언론인이 비언론인보다 낮다. 만족도 역시 아나운서와 언론인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1) 몽타주

규정 인지도는 낮음에도 불구하고 ‘몽타주’의 정인지율과 만족도는 높다.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 정인지율이 국어교사가 92.0으로 가장 높았고, 만족도는 출판종사자가 96.0으로 월등히 높았다. 일반인의 경우, 연령별로, 20대미만이 정인지 비율이 제일 높았고, 만족도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30] '몽타주'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그림 31] '몽타주'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몽타주	몽타쥬	모름/무응답	몽타주	몽타쥬	모름/무응답		
■ 전 체 ■	(103)	85.4	13.6	1.0	77.7	21.4	1.0	100.0	
■ 성 별 ■	남성	(55)	87.3	12.7	0.0	74.5	23.6	1.8	100.0
	여성	(48)	83.3	14.6	2.1	81.3	18.8	0.0	100.0
■ 연 령 ■	20대	(36)	83.3	13.9	2.8	83.3	16.7	0.0	100.0
	30대	(34)	88.2	11.8	0.0	76.5	23.5	0.0	100.0
	40대 이상	(31)	87.1	12.9	0.0	74.2	22.6	3.2	100.0
	무응답	(2)	50.0	50.0	0.0	50.0	5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3	16.7	0.0	58.3	41.7	0.0	100.0
	신문기자	(29)	82.8	17.2	0.0	79.3	17.2	3.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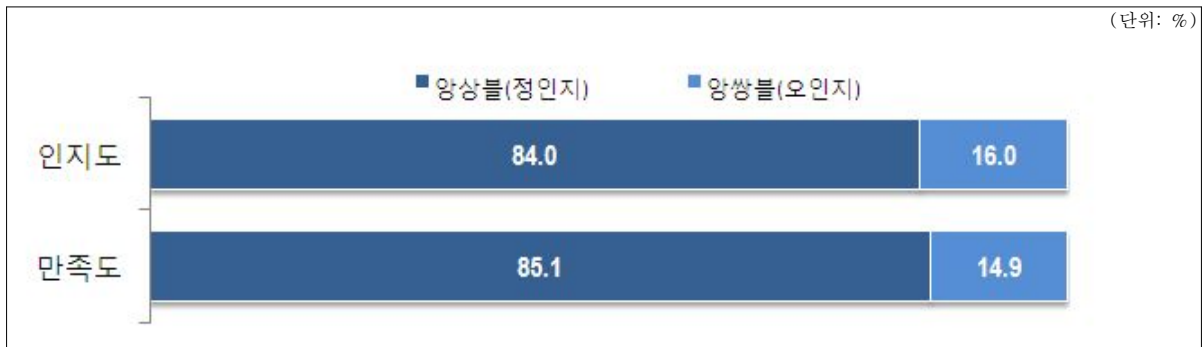
	출판사종사자	(25)	84.0	16.0	0.0	96.0	4.0	0.0	100.0
	국어교사	(25)	92.0	4.0	4.0	76.0	24.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83.0	17.0	0.0	69.8	28.3	1.9	100.0
	비언론인	(50)	88.0	10.0	2.0	86.0	14.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87.9	10.6	1.5	81.8	16.7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84.6	15.4	0.0	76.9	23.1	0.0	100.0
	기타	(8)	75.0	25.0	0.0	50.0	50.0	0.0	100.0

[표 69]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몽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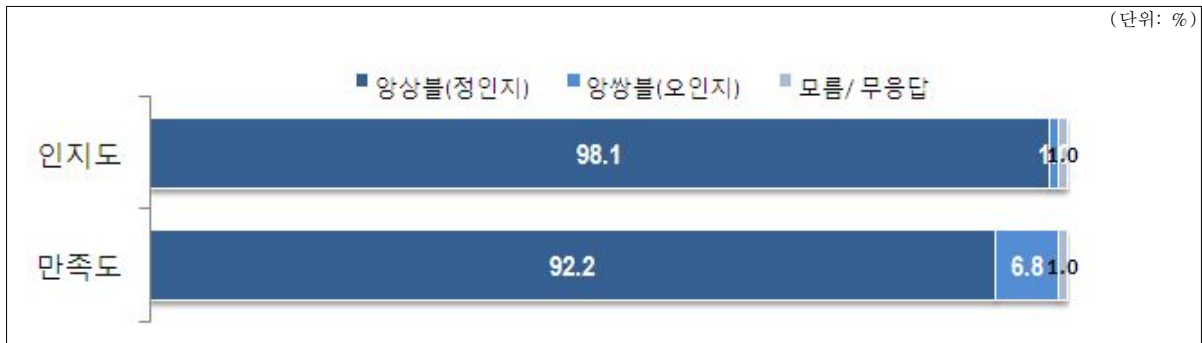
3) 마찰음 [s]

(1) 앙상블

전문가 집단의 정인지 비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다. 그러나 전문인 만족도에서 아나운서가 만족도가 낮고 무직도 낮게 나타났다. 일반인의 인지도의 경우 자영업자와 중졸이하가 75.9와 73.3으로 낮게 나타났다. 예체능은 인지도 만족도가 92.9와 96.4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 '앙상블'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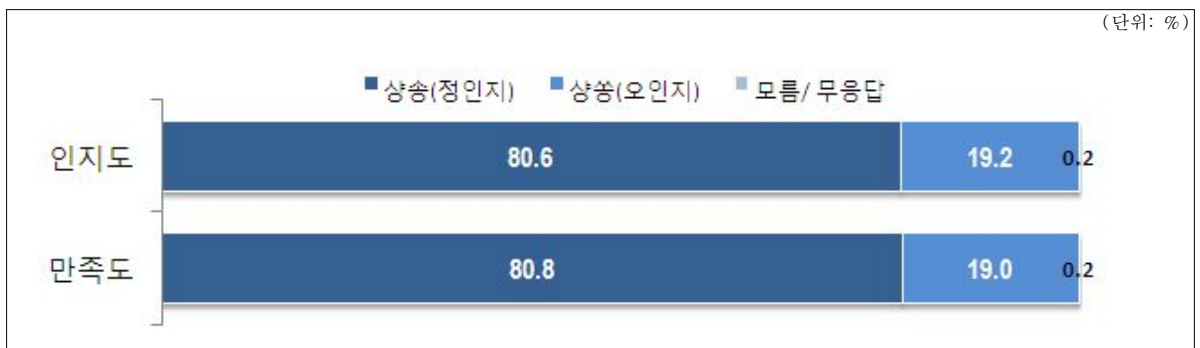
[그림 33] '앙상블'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양상블	양쌍블	모름/무응답	양상블	양쌍블	모름/무응답	
■ 전 체 ■		(103)	98.1	1.0	1.0	92.2	6.8	1.0	100.0
■ 성 별 ■	남성	(55)	100.0	0.0	0.0	92.7	5.5	1.8	100.0
	여성	(48)	95.8	2.1	2.1	91.7	8.3	0.0	100.0
■ 연 령 ■	20대	(36)	94.4	2.8	2.8	91.7	8.3	0.0	100.0
	30대	(34)	100.0	0.0	0.0	94.1	5.9	0.0	100.0
	40대 이상	(31)	100.0	0.0	0.0	93.5	3.2	3.2	100.0
	무응답	(2)	100.0	0.0	0.0	50.0	5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95.8	4.2	0.0	75.0	25.0	0.0	100.0
	신문기자	(29)	100.0	0.0	0.0	96.6	0.0	3.4	100.0
	출판사종사자	(25)	100.0	0.0	0.0	100.0	0.0	0.0	100.0
	국어교사	(25)	96.0	0.0	4.0	96.0	4.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8.1	1.9	0.0	86.8	11.3	1.9	100.0
	비언론인	(50)	98.0	0.0	2.0	98.0	2.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7.0	1.5	1.5	95.5	3.0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100.0	0.0	0.0	88.5	11.5	0.0	100.0
	기타	(8)	100.0	0.0	0.0	75.0	25.0	0.0	100.0

[표 70]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양상블)

(2) 상송

상송 표기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인지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다. 만족도는 아나운서와 사회계열이 75.0과 76.9로써 낮고, 일반인 경우에 중졸이하가 인지도 만족도 모두 낮게 나타났다.



[그림 34] '상송'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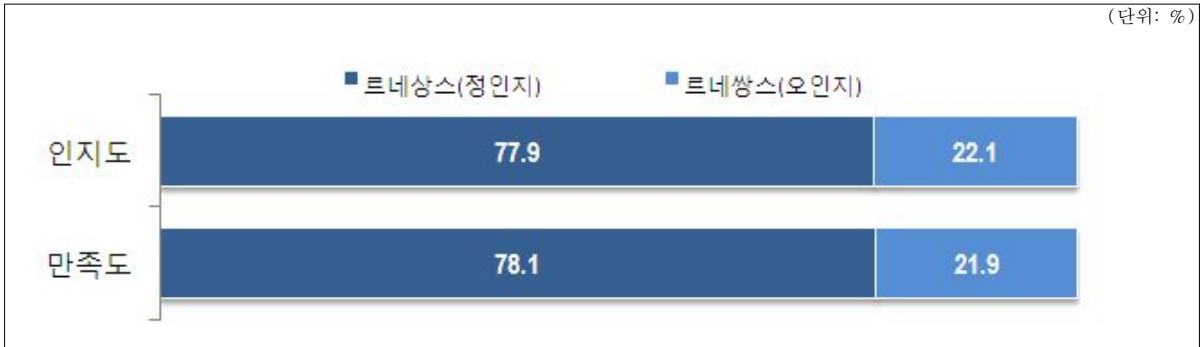
[그림 35] '상송'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상송	상송	상송	상송		
■ 전 체 ■	(103)	99.0	1.0	88.3	11.7	100.0	
■ 성 별 ■	남성	(55)	100.0	0.0	87.3	12.7	100.0
	여성	(48)	97.9	2.1	89.6	10.4	100.0
■ 연 령 ■	20대	(36)	97.2	2.8	91.7	8.3	100.0
	30대	(34)	100.0	0.0	88.2	11.8	100.0
	40대 이상	(31)	100.0	0.0	87.1	12.9	100.0
	무응답	(2)	100.0	0.0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00.0	0.0	75.0	25.0	100.0
	신문기자	(29)	96.6	3.4	89.7	10.3	100.0
	출판사종사자	(25)	100.0	0.0	96.0	4.0	100.0
	국어교사	(25)	100.0	0.0	92.0	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8.1	1.9	83.0	17.0	100.0
	비언론인	(50)	100.0	0.0	94.0	6.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100.0	0.0	95.5	4.5	100.0
	사회과학계열	(26)	96.2	3.8	76.9	23.1	100.0
	기타	(8)	100.0	0.0	75.0	2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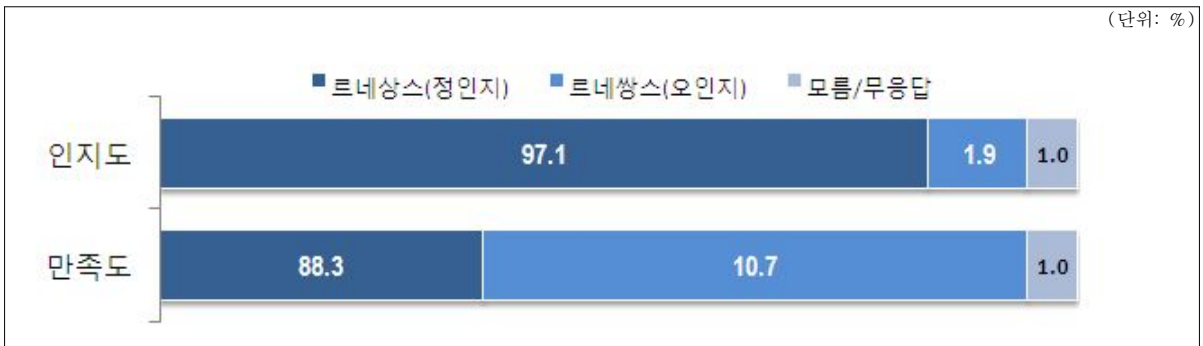
[표 71]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상송)

(3) 르네상스

전문인과 일반인 간의 인지도가 큰 차이가 난다. 전문인 인지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다. 단지 만족도에서 아나운서가 75.0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반인 가운데는 인지도에서 60대 이상, 중졸이하가 각각 64.7과 56.7로 낮게 나타났다. 만족도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다.



[그림 36] '르네상스'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그림 37] '르네상스'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르네상스	르네상스	모름/무응답	르네상스	르네상스	모름/무응답		
■ 전 체 ■	(103)	97.1	1.9	1.0	88.3	10.7	1.0	100.0	
■ 성 별 ■	남성	(55)	98.2	1.8	0.0	89.1	9.1	1.8	100.0
	여성	(48)	95.8	2.1	2.1	87.5	12.5	0.0	100.0
■ 연 령 ■	20대	(36)	97.2	0.0	2.8	91.7	8.3	0.0	100.0
	30대	(34)	100.0	0.0	0.0	91.2	8.8	0.0	100.0
	40대 이상	(31)	96.8	3.2	0.0	83.9	12.9	3.2	100.0
	무응답	(2)	50.0	50.0	0.0	50.0	5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95.8	4.2	0.0	75.0	25.0	0.0	100.0
	신문기자	(29)	100.0	0.0	0.0	93.1	3.4	3.4	100.0
	출판사종사자	(25)	100.0	0.0	0.0	96.0	4.0	0.0	100.0
	국어교사	(25)	92.0	4.0	4.0	88.0	12.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8.1	1.9	0.0	84.9	13.2	1.9	100.0
	비언론인	(50)	96.0	2.0	2.0	92.0	8.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7.0	1.5	1.5	90.9	7.6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96.2	3.8	0.0	80.8	19.2	0.0	100.0
	기타	(8)	100.0	0.0	0.0	87.5	12.5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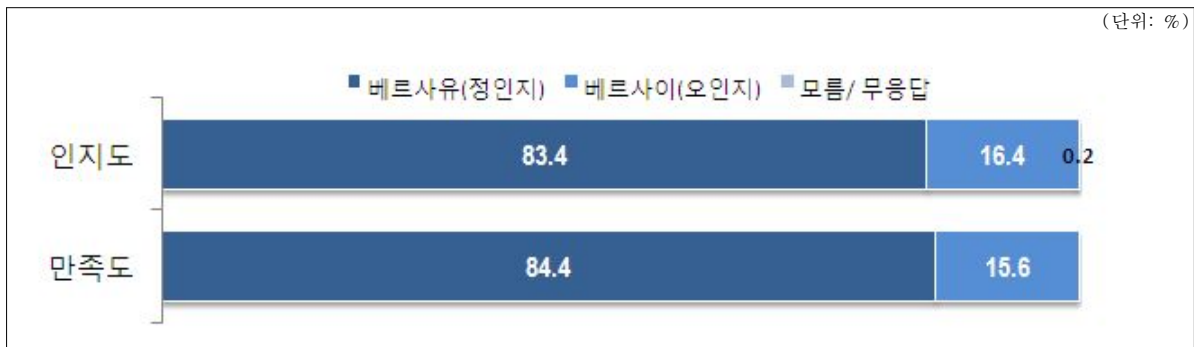
[표 72]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르네상스)

4) 반모음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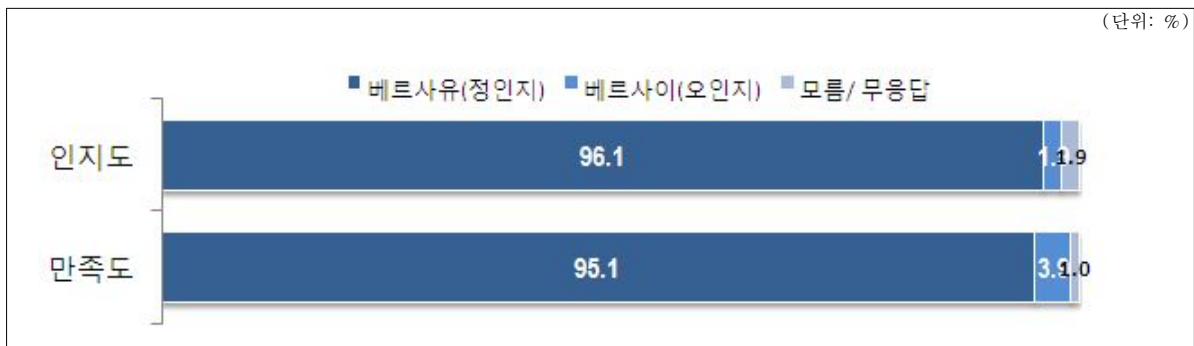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규정의 비인지도가 높다. 특히 국어교사의 규정에 대한 비인지도가 매우 높으나 이해도는 괜찮은 편이며, 만족도는 보통이다. 아나운서의 이해도가 낮고, 사회과학계열이 인문계열보다 명백히 낮다. 만족도 역시 아나운서가 눈에 띄게 낮고 신문기자가 높다. 또한 인문계열이 사회계열보다 만족도가 높다.

(1) 베르사유

전문인 일반인의 인지도와 만족도 모두 높은 편이다. 전문인의 인지도의 경우 전체평균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으며, 만족도는 아나운서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비언론인은 만족도가 100으로서 언론인보다 높다. 한편 일반인의 경우 중졸이하가 인지도와 만족도가 가장 낮고 화이트칼라가 만족도가 90.7로 높다. 인지도 역시 화이트칼라, 고학력자가 높다.



[그림 38] '베르사유'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그림 39] '베르사유'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베르사 유	베르사 이	모름 /무응답	베르사 유	베르사 이	모름/무 응답	
■ 전 체 ■	(103)	96.1	1.9	1.9	95.1	3.9	1.0	100.0
■ 성 별 ■	남성 (55)	98.2	1.8	0.0	96.4	1.8	1.8	100.0
	여성 (48)	93.8	2.1	4.2	93.8	6.3	0.0	100.0
■ 연 령 ■	20대 (36)	91.7	5.6	2.8	94.4	5.6	0.0	100.0
	30대 (34)	100.0	0.0	0.0	97.1	2.9	0.0	100.0
	40대 이상 (31)	96.8	0.0	3.2	93.5	3.2	3.2	100.0
	무응답 (2)	100.0	0.0	0.0	10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95.8	4.2	0.0	87.5	12.5	0.0	100.0
	신문기자 (29)	96.6	3.4	0.0	93.1	3.4	3.4	100.0
	출판사종사자 (25)	100.0	0.0	0.0	100.0	0.0	0.0	100.0
	국어교사 (25)	92.0	0.0	8.0	100.0	0.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6.2	3.8	0.0	90.6	7.5	1.9	100.0
	비언론인 (50)	96.0	0.0	4.0	100.0	0.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3.9	3.0	3.0	95.5	3.0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100.0	0.0	0.0	96.2	3.8	0.0	100.0
	기타 (8)	100.0	0.0	0.0	87.5	12.5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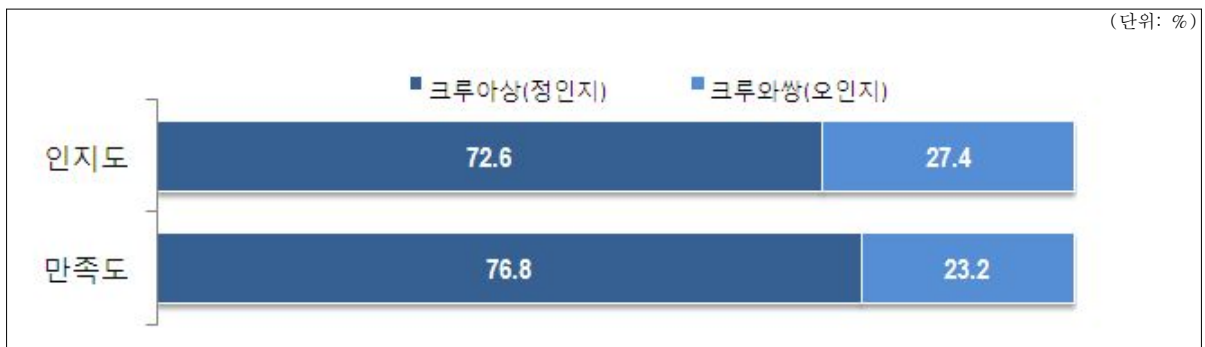
[표 73]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베르사유)

5) 반모음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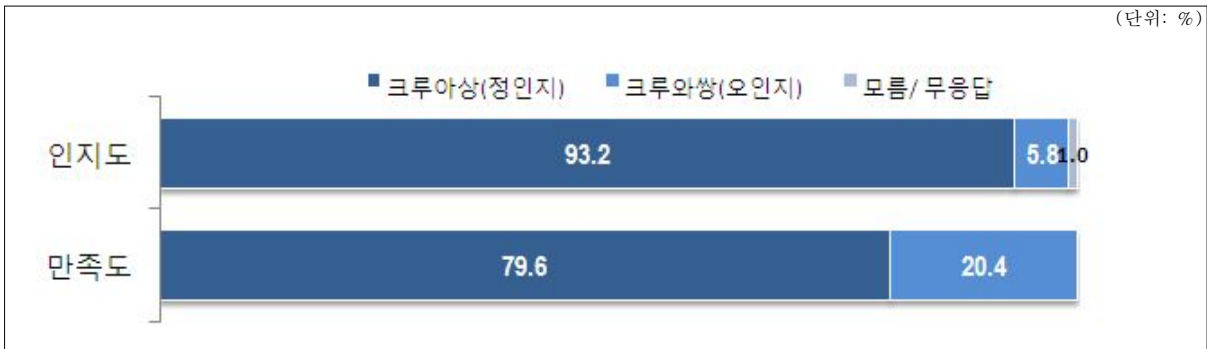
규정의 인지도에 관하여 신문기자가 62.1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아나운서가 낮고 40대 이상이 잘 인지하고 있다. 아나운서는 이해도와 만족도 모두 떨어지며 사회계열이 인문계열보다 이해도와 만족도가 눈에 띄게 낮다. 또한 출판 종사자의 만족도가 떨어지며, 언론인이 비언론인보다 만족도가 높다.

(1) 크루아상

크루아상 표기에 관하여 전문인의 경우 이해도,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인지도가 20대가 82.2%로 가장 높으며, 중졸이하가 50.0으로 가장 낮고 60대 이상도 60.3으로 낮다. 만족도는 60대, 자영업자, 중졸이하가 낮다.



[그림 40] '크루아상'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그림 41] '크루아상'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크루아상	크루아쌍	모름/ 무응답	크루아상	크루아쌍		
■ 전 체 ■	(103)	93.2	5.8	1.0	79.6	20.4	100.0	
■ 성 별 ■	남성	(55)	96.4	1.8	1.8	83.6	16.4	100.0
	여성	(48)	89.6	10.4	0.0	75.0	25.0	100.0
■ 연 령 ■	20대	(36)	88.9	11.1	0.0	77.8	22.2	100.0
	30대	(34)	97.1	2.9	0.0	82.4	17.6	100.0
	40대 이상	(31)	96.8	0.0	3.2	80.6	19.4	100.0
	무응답	(2)	50.0	50.0	0.0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91.7	8.3	0.0	62.5	37.5	100.0
	신문기자	(29)	96.6	0.0	3.4	89.7	10.3	100.0
	출판사종사자	(25)	96.0	4.0	0.0	88.0	12.0	100.0
	국어교사	(25)	88.0	12.0	0.0	76.0	2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4.3	3.8	1.9	77.4	22.6	100.0
	비언론인	(50)	92.0	8.0	0.0	82.0	1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2.4	6.1	1.5	81.8	18.2	100.0
	사회과학계열	(26)	96.2	3.8	0.0	76.9	23.1	100.0
	기타	(8)	87.5	12.5	0.0	62.5	37.5	100.0

[표 74]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크루아상)

6) 파악음

규정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높고 이해도와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특히 규정에 대해 출판 종사자가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 모두 높았다. 또한 비언론인이 언론인보다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가 높았다. 아나운서는 이해도 만족도 모두가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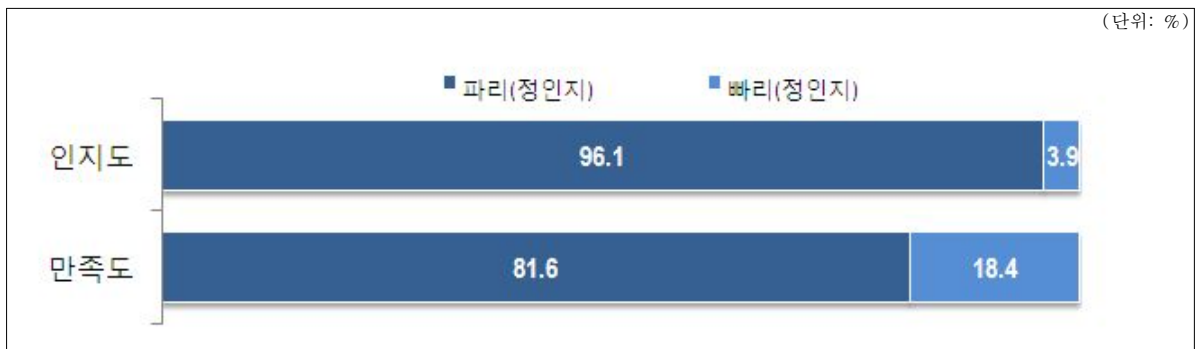
(1) 파리

인지도는 전문인, 일반인 모두 매우 높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이 없다. 전문인 인지도에서 신문기자, 출판종사자, 사회과학 계열 모두 100이 나왔다. 만족도는 아나운서가 66.7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고, 언론인과 사회과학 계열이 낮게 조사되었다. 일반인 만

족도는 예체능, 중졸이하에서 낮게 나타났다.



[그림 43] '파리'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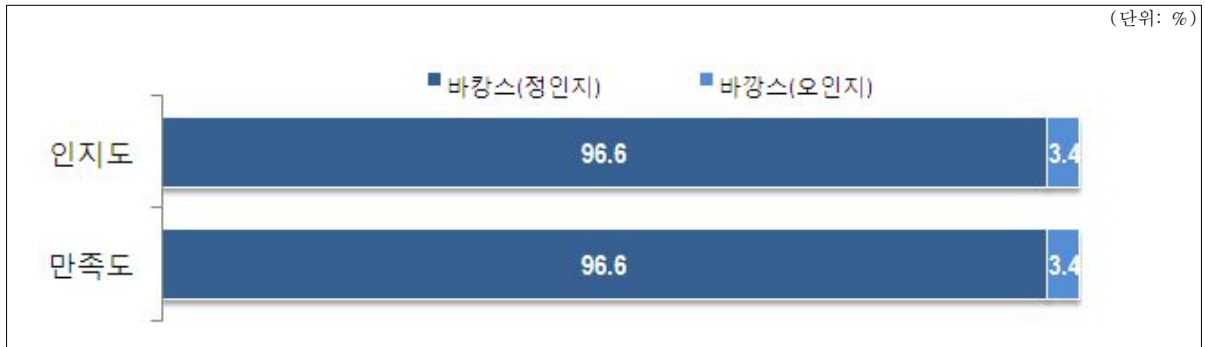
[그림 44] '파리'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파리	빠리	파리	빠리		
■ 전 체 ■	(103)	96.1	3.9	81.6	18.4	100.0	
■ 성 별 ■	남성	(55)	98.2	1.8	85.5	14.5	100.0
	여성	(48)	93.8	6.3	77.1	22.9	100.0
■ 연 령 ■	20대	(36)	94.4	5.6	80.6	19.4	100.0
	30대	(34)	97.1	2.9	76.5	23.5	100.0
	40대 이상	(31)	96.8	3.2	90.3	9.7	100.0
	무응답	(2)	100.0	0.0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91.7	8.3	66.7	33.3	100.0
	신문기자	(29)	100.0	0.0	79.3	20.7	100.0
	출판사종사자	(25)	100.0	0.0	96.0	4.0	100.0
	국어교사	(25)	92.0	8.0	84.0	16.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6.2	3.8	73.6	26.4	100.0
	비언론인	(50)	96.0	4.0	90.0	1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5.5	4.5	87.9	12.1	100.0
	사회과학계열	(26)	100.0	0.0	61.5	38.5	100.0
	기타	(8)	87.5	12.5	87.5	12.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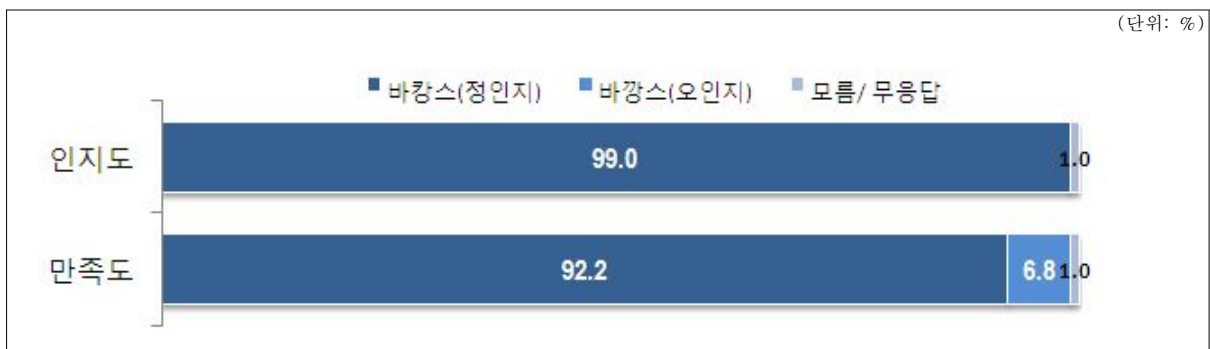
[표 75]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파리)

(2) 바캉스

바캉스 표기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으며, 인지도, 만족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나운서가 전문직에서 만족도가 낮으며, 일반인에서는 60대 이상, 중졸이하, 예체능계열에서 낮게 나타났다.



[그림 44] '바캉스'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그림 45] '바캉스'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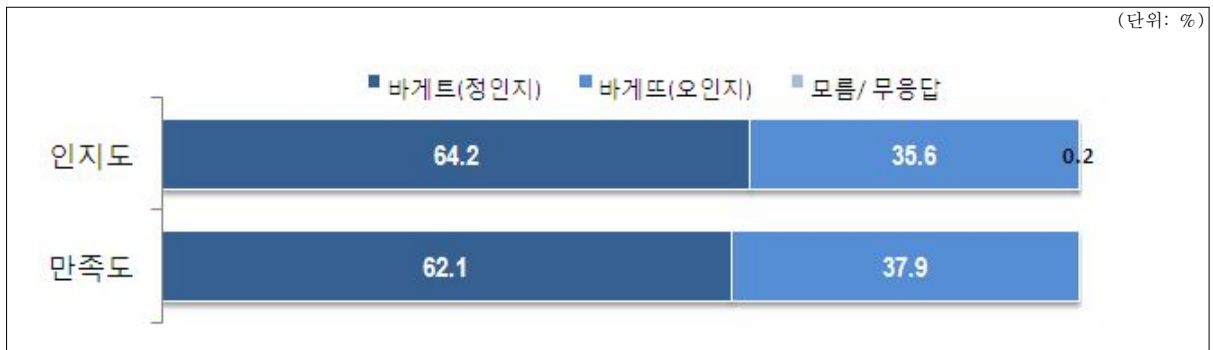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바캉스	모름/무응답	바캉스	바캉스	모름/무응답		
■ 전 체 ■	(103)	99.0	1.0	92.2	6.8	1.0	100.0	
■ 성 별 ■	남성	(55)	100.0	0.0	92.7	5.5	1.8	100.0
	여성	(48)	97.9	2.1	91.7	8.3	0.0	100.0
■ 연 령 ■	20대	(36)	97.2	2.8	97.2	2.8	0.0	100.0
	30대	(34)	100.0	0.0	94.1	5.9	0.0	100.0
	40대 이상	(31)	100.0	0.0	87.1	9.7	3.2	100.0
	무응답	(2)	100.0	0.0	50.0	5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00.0	0.0	79.2	20.8	0.0	100.0
	신문기자	(29)	100.0	0.0	96.6	0.0	3.4	100.0
	출판사종사자	(25)	100.0	0.0	96.0	4.0	0.0	100.0

	국어교사	(25)	96.0	4.0	96.0	4.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100.0	0.0	88.7	9.4	1.9	100.0
	비언론인	(50)	98.0	2.0	96.0	4.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8.5	1.5	95.5	3.0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100.0	0.0	88.5	11.5	0.0	100.0
	기타	(8)	100.0	0.0	75.0	25.0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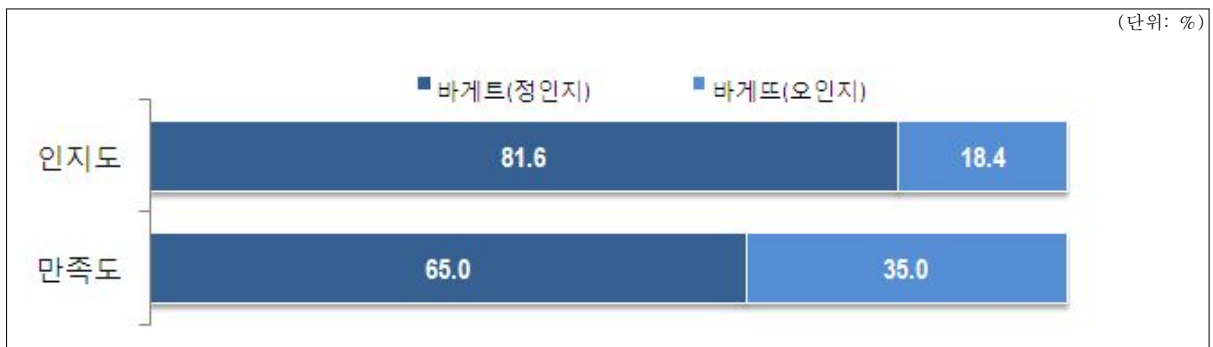
[표 76]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바캉스)

(3) 바게트

비언론인이 인지도와 만족도가 언론인보다 높게 나타났고, 아나운서와 사회과학계열이 인지도와 만족도에서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반면 출판사종사자는 인지도, 만족도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일반인 중에서 블루칼라 인지도가 화이트칼라보다 더 높았다. 전체적으로 ‘바게트’는 전문인과 일반인의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6] '바게트'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그림 47] '바게트'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파리	빠리	파리	빠리		
■ 전 체 ■	(103)	81.6	18.4	65.0	35.0	100.0	
■ 성 별 ■	남성	(55)	83.6	16.4	69.1	30.9	100.0
	여성	(48)	79.2	20.8	60.4	39.6	100.0
■ 연 령 ■	20대	(36)	83.3	16.7	63.9	36.1	100.0
	30대	(34)	79.4	20.6	52.9	47.1	100.0
	40대 이상	(31)	83.9	16.1	80.6	19.4	100.0
	무응답	(2)	50.0	50.0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66.7	33.3	41.7	58.3	100.0
	신문기자	(29)	86.2	13.8	65.5	34.5	100.0
	출판사종사자	(25)	88.0	12.0	80.0	20.0	100.0
	국어교사	(25)	84.0	16.0	72.0	2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7.4	22.6	54.7	45.3	100.0
	비언론인	(50)	86.0	14.0	76.0	2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86.4	13.6	74.2	25.8	100.0
	사회과학계열	(26)	76.9	23.1	46.2	53.8	100.0
	기타	(8)	50.0	50.0	37.5	62.5	100.0

[표 77]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바케트)

3.2.3.4.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

1) 규정과 용례 인지도 높음

한국어와 한국인의 삶의 환경 속에 프랑스어 어휘는 매우 많이 노출되어 있어 한국인에게 프랑스어 표기가 낯설지 않다는 사실을, 규정 인지도, 용례 정인지율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언론이나 출판을 통한 표기규범에 대한 준수가 일반 대중들에게는 잘 전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규범표기와 원음표기 간의 차이: ‘베르사유’의 경우

Versailles를 규범에 따라 표기한다면 ‘베르사유’가 된다. 그러나 원음표기원칙을 따른다면 ‘베흐싸이’가 된다. 한국어로 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프랑스어 어휘의 표기를 원음표기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프랑스어의 경우, 현행 프랑스어 규범표기와 원음표기 간의 차이가 매우 커서 외래어 원음표기 원칙이 무색하다고 볼 수 있다. 급하게 원음표기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서양어와 비교하여 공통적으로 표기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3) 프랑스어 표기법 규정의 타당성 검토

본 연구와 설문은 외래어 표기법 규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과 전혀 상관

이 없다고 판단된다. 연구자는 설문대상자들이 해당언어를 잘 모르는 일반인과 전문인들로 대부분 구성되었다고 된 생각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 표기법 규정 중 원음표기에 충실하지 않은 규정 <파열음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에 대해 프랑스어를 알고 있는 전문가라면 “빠리”, “바깡스”, “바게뜨”, 된소리 표기를 선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10%미만이 된소리로 표기를 선택하였다는 사실은 응답자들의 프랑스어 발음 지식에 관한 이해에 대해 회의적이게 만든다. 이제 수 십 년을 고수했던 외국어표기법 규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프랑스어에 있는 발음의 특수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된소리 표기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재고해야만 한다.

3.2.4. 에스파냐어

3.2.4.1. 설문 구성의 개요

1) 설문의 목적

본 설문조사는 전공인 연구자가 선정한 에스파냐어 용례를 바탕으로 실제 표기 규정에 대하여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와 표기 용례에 대한 국민 일반의 인지도 및 만족도를 파악하여 현행 에스파냐어 표기 규범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이다.

2) 설문에 포함된 규정과 용례 선정 기준 및 과정

(1) 용례선정 기준

국립국어원이 명시하고 있는 6가지 에스파냐어 표기 세칙과 에스파냐어 자모 표기법 (참조:http://www.korean.go.kr/09_new/dic/rule/rule_foreign_0102.jsp#prviewContent)을 고려하여 일반 대중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에스파냐어 표기 규정 인지도 파악에 유리한 용례 중에서 선정하되, 중복되는 요소나 에스파냐어 발음지식이 없는 화자들에게 지나치게 낯선 용례들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선정하고 작성한 설문 용례는 다음과 같다.

1	①카사 블랑카 ②까사 블랑까 Casa blanca, 하얀 집. 영화제목 또는 노래제목
2	①테킬라 ②데킬라 tequila, 멕시코 고유의 술
3	①돈 키호테 ②돈 끼호떼 Don Quijote, 작가 세르반테스의 소설
4	①타코 ②따꼬 taco, 멕시코 전통요리
5	①베네주엘라 ②베네수엘라 Venezuela, 남아메리카 국가
6	①산 미겔 ②산 미구엘 San Miguel, 맥주 이름
7	①야마 ②라마 ③라마 llama, 낙타과에 속하는 동물
8	①세빌라 ②세비아 ③ 세빌라 Sevilla, 에스파냐 남부의 항구도시
9	①산호세 ②산호세 San José, 코스타리카의 수도
10	①하바나 ②아바나 Habana, 쿠바의 수도

[표 78] 에스파냐어 설문 용례

(1) 과정

- 용례 선정은 국내 번역서와 여행관련 서적, 사회과부도 및 언론이나 기업 홍보물을 참고하였다.
-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에스파냐어 표기 규정 인지도 파악에 유리한 용례로 여겨지는 어휘들을 모두 수집한다. 한국에서 상용되는 에스파냐어 어휘가 거의 없는 바, 주로 음식 이름과 지명에서 용례를 추출하였다.
- 국립국어원에서 규정한 외래어 표기 규범 중, 에스파냐어 표기 규정에 상응하는 동일군의 예를 대표할 수 있는 용례를 규정별로 각각 선별하였다. 또한 설문외 취지에 맞게, 에스파냐어 전문가가 보기에 애매하고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는 에스파냐어 표기법 규정을 골라 이 규정에 해당하는 설문외 용례를 결정하여 에스파냐어 표기 규범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규정 1: 규정과열음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해당 용례: 카사 블랑카(Casa blanca), 테킬라(Tequila), 돈 키호테(Don Quijote), 타코(Taco)
- 문제점: 에스파냐어 표기법이 원음표기주의를 따른다면 된소리 표기를 허용하여 다 음과 같이 표기해야 한다. 까사 블랑까, 떼킬라, 돈 끼호떼, 따꼬

<규정 2: ll, y, ñ, w의 '이, 니, 오, 우'는 다른 모음과 결합할 때 합쳐서 1 음절로 적는다.(예: 에스파냐 España)>

- 해당 용례: 야마(Llama), 세비야(Sevilla)
- 문제점: ll의 경우, 에스파냐어 표준 발음의 원음표기주의를 따른다면 '랴마', '세빌라'로 표기해야 한다. '야마', '세비야'는 중남미 에스파냐어의 발음에 가까운 표기법이다.
- 참고: <스페인어 외래어 표기법 해설>에도 다음과 같이 에스파냐 본국의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에스파냐 본국의 발음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남미의 발음 습관은 여기서 도외시되었다는 점이다.”

<규정 3: gu, qu는 i, e 앞에서는 각각 '기, 쿨'으로 적는다.>

- 해당 용례: 산 미겔(San Miguel)
- 이 규정은 원음표기주의에 충실한 것으로 설문에서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규정 4: 'z'는 '스'으로 표기한다.>

- 해당 용례: 베네수엘라(Venezuela)
- 문제점: 표기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설문조사에서는 에스파냐어와 영어가 혼동될 여지가 있는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일반인들의

경우, 스페인어에서 온 외래어인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법을 영어식으로 표기하는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어와 에스파냐어가 혼돈될 여지가 있는 용례로 아바나(Habana)를 설문에 추가하였다.

<규정 5: c와 g앞에 오는 n은 받침 ‘ㅇ’으로 적는다.(예:blanco 블랑코)>

- 이 규정과 관련한 용례는 혼하지 않기 때문에 설문에 넣지 않았다.

○ 규정으로 성문화되어 있지 않거나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규정 또는 용례가 혼하지 않은 규정(예: k는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 ‘크’로 적는다; j가 어말에 오면 표기하지 않는다; 단어내 l은 ‘르르’로 표기한다)은 국어연구원과의 논의를 통해 삭제하였다. 그리고 잘못 표기된 상표명(예: 씨에로(시엘로) Cielo, 마티즈(마티스) Matiz, 티뷰론(티부론) Tiburón, 아망떼(아만테) Amante, 자라(사라) Zara, 까사미아(카사미아) Casa mía, 하몽(하문) Jamón)의 경우도 용례에서 삭제하였으며, 영어로 알려져 있는 고유명사(라스베이거스 Las Vegas, 바스크 Vasque, 세너제이 San José)도 삭제하였다. 산 호세(San José)의 경우 미국 도시명이 아닌 코스타리카 수도로 간주하여 설문의 용례로 선정하였다.

○ 10문항 안팎의 최종 설문지를 완성한다.

○ <에스파냐어>와 <스페인어>

본 연구는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된 규정과 용례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들의 인지도 및 수용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였기 때문에, 특정 어휘에 대한 선호도 여부 조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스페인>과 <에스파냐>라는 국가명에 대한 선호도 조사는 설문 용례에서 빠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일반국민이 <스페인>이라는 명칭을 더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표기법 규정이 개정된다면, <에스파냐(어)>라는 명칭은 <스페인(어)>라는 명칭으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표기법 규정에 <에스파냐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때문에, 현행 중등 국정, 검정 교과서와 사회과부도에 <에스파냐>라는 명칭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외래어 표기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으며, <에스파냐>와 같이 일반국민들에게 생소한 명칭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3.2.4.2. 설문 결과 개요

전체 설문 결과 평균은 다음과 같다. 올바른 표기 전체 문항에 대한 인지율에 있어서 일반인 68.61%, 전문인이 84.09%로 전문인이 15.48%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는 일반인 68.89%, 전문인 77.27%로 전문인이 8.38% 높았다. 일반인의 경우 올바른 표기에 대한 인지율과 만족도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전문인은 정인지율에 비해 만족도 수준이 6.8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파냐어 용례에 대한 정인지율에서, 일반인의 경우 58.5%로, 83.3%의 일본어나 82.5%의 이탈리아어, 76.5%의 프랑스어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의 올바른 표기에 대한 전체 만족도에 있어서는 59.4%를 기록하여 54.3%의 독일어와 58.3%의 영어 다음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전문인이 올바른 표기를 맞춘 비율은 일본어가 95.7%로 가장 높았고, 에스파냐어가 65.0%로 가장 낮았다. 또한 전문인의 올바른 표기에 대한 만족도 역시 일본어가 91.5%로 가장 높았고, 에스파냐어가 61.0%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일반인들이 올바른 표기를 응답한 비율 및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7개 외래어 모두에서 정인지와 만족도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전문인의 경우 에스파냐어는 중국어와 함께 정인지율과 만족도 비율의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외국어에 비해 전문인들의 에스파냐어 규정에 대한 비인지율이 전체적으로 높았다. 다른 외국어에 비해서 다음과 같은 에스파냐어 용례는 일반인과 전문인 모두에게 정인지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테킬라, 산 미겔, 야마, 아바나) 정인지율이 매우 낮은 ‘테킬라’와 ‘산 미겔’의 경우, 해당 표기법 규정을 인지하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정인지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2.4.3. 설문 결과의 특징

응답 비율별 용례 도표 중 에스파냐어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발췌하였다.

응답 비율	일반인		전문인	
	정인지	만족도	정인지	만족도
90% 이상	카사 블랑카, 돈 키호테, 타코		타코, 산호세, 카사 블랑카, 돈 키호테,	타코, 산호세
80% 이상 90% 미만		카사 블랑카, 돈 키호테, 타코	베네수엘라	돈 키호테, 카사 블랑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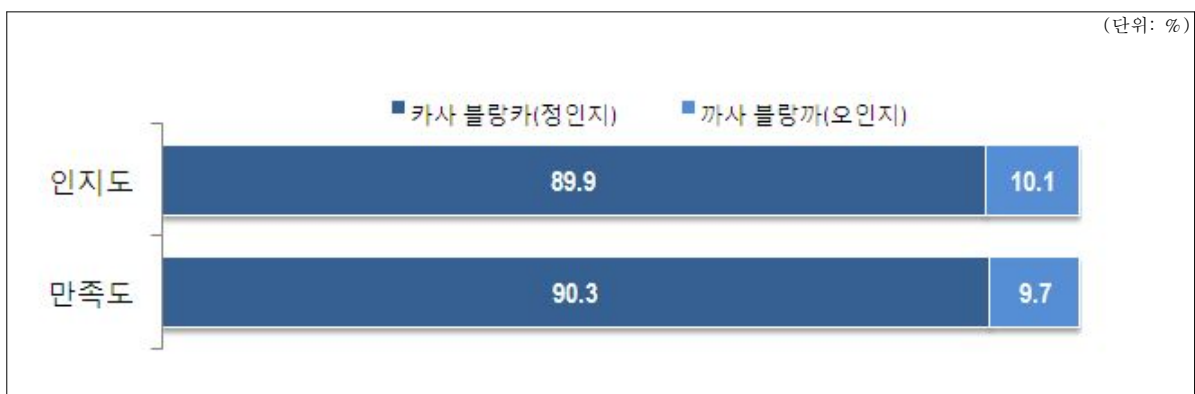
70% 이상 80% 미만	산호세	산호세	세비야	베네수엘라, 세비야
60% 이상 70% 미만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50% 이상 60% 미만		산 미겔		
50% 미만	테킬라, 산 미겔, 야 마, 세비야, 아바나	테킬라, 야마, 세비야, 아바나	테킬라, 산 미겔, 야마, 아바나	테킬라, 산 미겔, 야마, 아바나

[표 79] 에스파냐어 응답 비율별 용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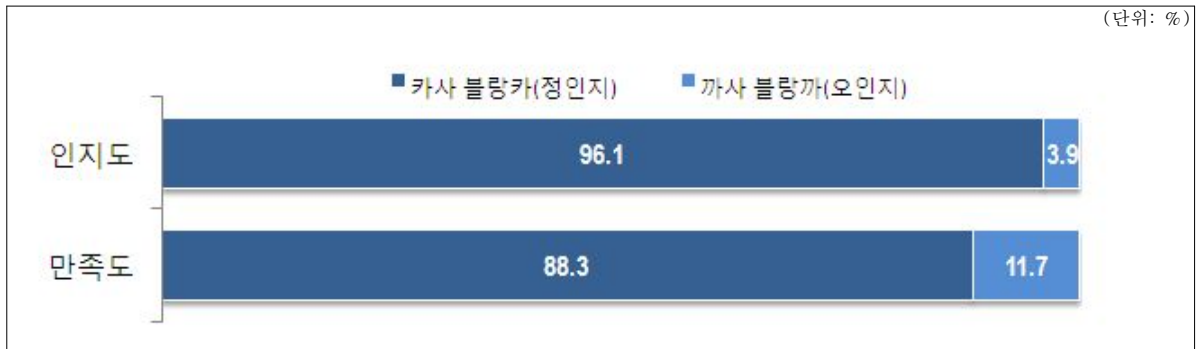
1) 일반인과 전문인의 용례 설문 결과의 특징

(1) 카사 블랑카(Casa blanca)

“카사 블랑카(Casa blanca)”의 정인지 표기는 50대 이상과 화이트칼라에서 전체 평균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경우 정인지의 비율은 89.9%, 만족한다는 비율은 90.3%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인 집단의 경우 정인지율은 96.1%,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88.3%로 나타났다. 업종별 정인지율은 비언론인이 100.0%로 유의미하게 높았고, 만족도의 경우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일반 대중(특히 중년 이상의 성인)이 동명의 모로코의 도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와 노래제목의 영향으로 해당 어휘에 친숙해져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림 48] '카사 블랑카'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그림 49] '카사 블랑카'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카사 블랑카	까사 블랑카	카사 블랑카	까사 블랑카		
■ 전 체 ■	(103)	96.1	3.9	88.3	11.7	100.0	
■ 성 별 ■	남성	(55)	98.2	1.8	90.9	9.1	100.0
	여성	(48)	93.8	6.3	85.4	14.6	100.0
■ 연 령 ■	20대미만	(36)	94.4	5.6	86.1	13.9	100.0
	30대	(34)	97.1	2.9	88.2	11.8	100.0
	40대	(20)	100.0	0.0	95.0	5.0	100.0
	50대이상	(11)	90.9	9.1	90.9	9.1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7.5	12.5	79.2	20.8	100.0
	신문기자	(29)	96.6	3.4	89.7	10.3	100.0
	출판사종사자	(25)	100.0	0.0	96.0	4.0	100.0
	국어교사	(25)	100.0	0.0	88.0	12.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2.5	7.5	84.9	15.1	100.0
	비언론인	(50)	100.0	0.0	92.0	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8.5	1.5	92.4	7.6	100.0
	사회과학계열	(26)	92.3	7.7	80.8	19.2	100.0
	기타	(8)	87.5	12.5	75.0	2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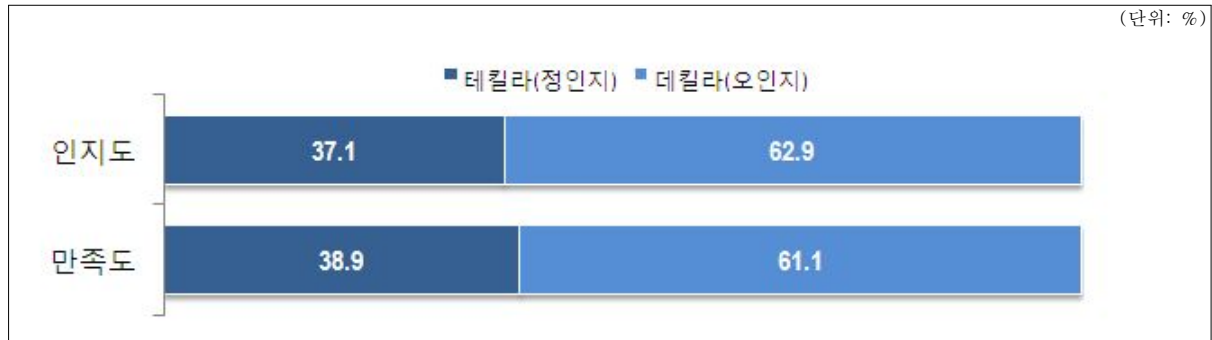
[표 80]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카사 블랑카)

(2) 테킬라(tequi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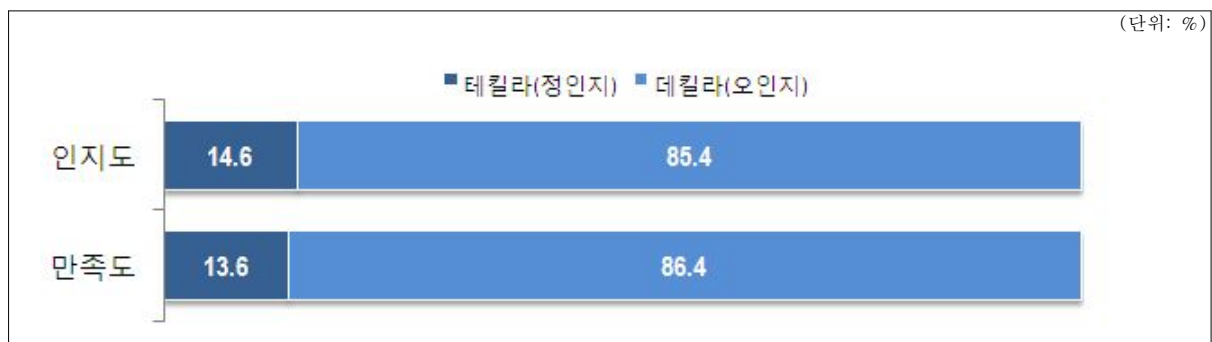
“테킬라(tequila)”와 “테킬라” 용례의 경우 가정주부의 정인지 비율이 높았고, 만족도의 경우 가정주부와 중졸이하의 학력자들에서 높았다. 그리고 표기 인지도 및 만족도에서 전체 평균 비율과 유의미한 차이를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인 중 정답을 맞힌 사람들의 비율은 37.1%,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38.9%로 나타나 전문인들보다 더 높은 정답률을 나타냈다. 전문인들의 경우 정인지인 테킬라를 선택한 사람들의 비율은 14.6%, 오인지인 테킬라를 선택한 사람들의 비율은 85.4%로 나타났다. 만족도의 표기에 있어서도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13.6%,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86.4%로 나타났다.

설문지상에 ‘tequila’라는 원어 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인지인 ‘테킬라’를 선택한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점은 사람들이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된 에스파냐어 규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기법에 대해 자세히 생각해보지 않고 평소에 많이 듣고 보던 표기를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주류(멕시코 고유의 술)를 뜻하는 이 어휘의 경우, 일반 대중(특히 성인 남성)의 언어 습관에서 흔히 후자인 ‘데킬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 언어 습관으로 인한 오인지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0] '테킬라'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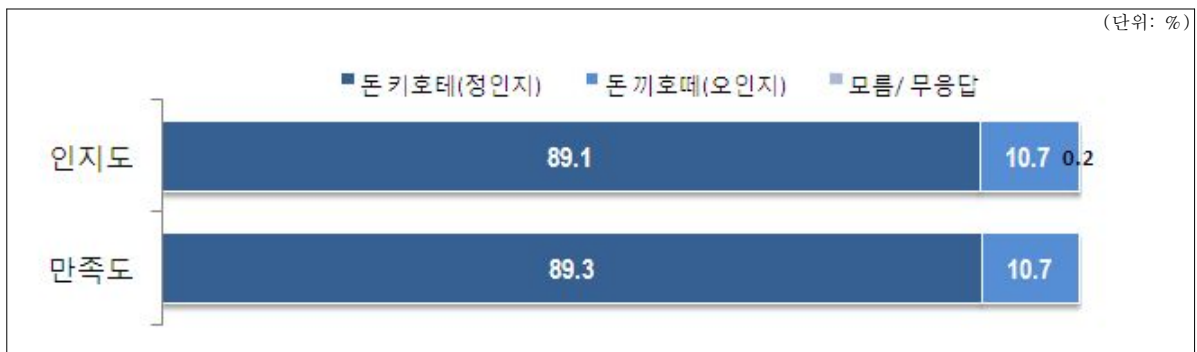
[그림 51] '테킬라'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테킬라	데킬라	테킬라	데킬라		
■ 전 체 ■	(103)	14.6	85.4	13.6	86.4	100.0	
■ 성 별 ■	남성	(55)	16.4	83.6	18.2	81.8	100.0
	여성	(48)	12.5	87.5	8.3	91.7	100.0
■ 연 령 ■	20대미만	(36)	2.8	97.2	5.6	94.4	100.0
	30대	(34)	20.6	79.4	17.6	82.4	100.0
	40대	(20)	25.0	75.0	15.0	85.0	100.0
	50대이상	(11)	18.2	81.8	27.3	72.7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0.0	100.0	16.7	83.3	100.0
	신문기자	(29)	34.5	65.5	20.7	79.3	100.0
	출판사종사자	(25)	12.0	88.0	12.0	88.0	100.0
	국어교사	(25)	8.0	92.0	4.0	96.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18.9	81.1	18.9	81.1	100.0
	비언론인	(50)	10.0	90.0	8.0	9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15.2	84.8	13.6	86.4	100.0
	사회과학계열	(26)	11.5	88.5	11.5	88.5	100.0
	기타	(8)	12.5	87.5	12.5	87.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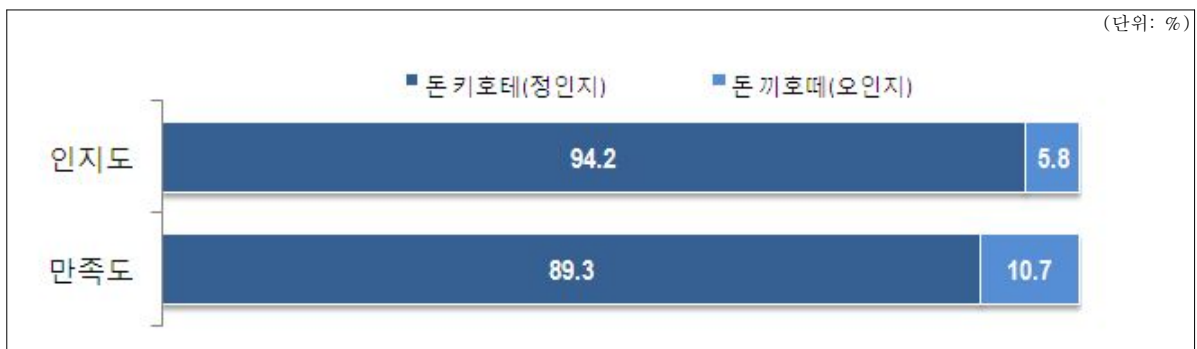
[표 81]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테킬라)

(3) 돈 키호테(Don Quijote)

“돈 키호테”(Don Quijote) 표기의 정인지 비율은 모든 계층에서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만족도 비율은 남성(92.3%) 화이트칼라 직종(96.3%)에서 높게 나타났다. 일반인의 경우 정인지 선택 비율은 89.1%, 만족도는 89.3%로 나타났으며, 전문인들의 경우 정답률은 94.2%, 표기에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89.3%로 상당히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돈 키호테 인지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족도의 경우 인문계열 전공자가 93.9%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스페인의 문호 세르반테스의 유명한 소설이라는 점에서 해당 도서를 접할 기회가 많은 인문계열 전공자들의 경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외래어 표기에 있어서, 과거 ‘동키호테’나 ‘돈끼호떼’ 등 다양한 표기가 존재하였는데 언론과 출판물 통해 표기의 순화와 통일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52] '돈 키호테'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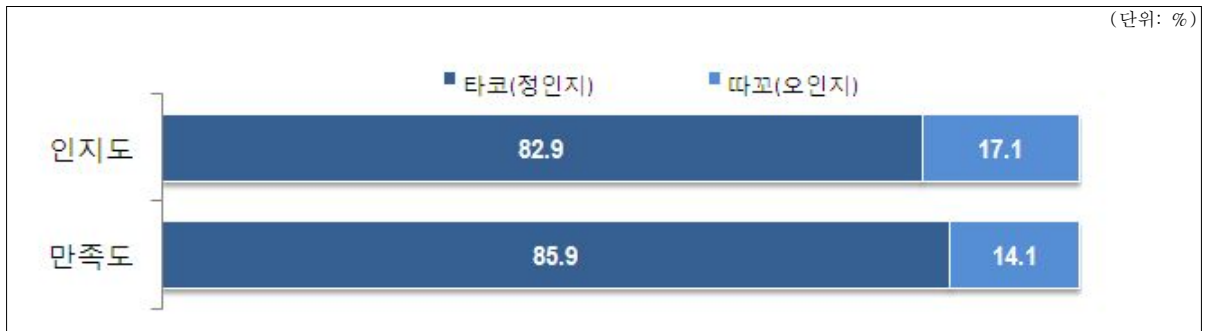
[그림 53] '돈 키호테'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돈 키호테	돈 끼호떼	돈 키호테	돈 끼호떼		
■ 전 체 ■	(103)	94.2	5.8	89.3	10.7	100.0	
■ 성 별 ■	남성	(55)	96.4	3.6	89.1	10.9	100.0
	여성	(48)	91.7	8.3	89.6	10.4	100.0
■ 연 령 ■	20대미만	(36)	91.7	8.3	91.7	8.3	100.0
	30대	(34)	94.1	5.9	85.3	14.7	100.0
	40대	(20)	100.0	0.0	95.0	5.0	100.0
	50대이상	(11)	90.9	9.1	90.9	9.1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7.5	12.5	79.2	20.8	100.0
	신문기자	(29)	96.6	3.4	93.1	6.9	100.0
	출판사종사자	(25)	96.0	4.0	88.0	12.0	100.0
	국어교사	(25)	96.0	4.0	96.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2.5	7.5	86.8	13.2	100.0
	비언론인	(50)	96.0	4.0	92.0	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7.0	3.0	93.9	6.1	100.0
	사회과학계열	(26)	88.5	11.5	80.8	19.2	100.0
	기타	(8)	87.5	12.5	75.0	2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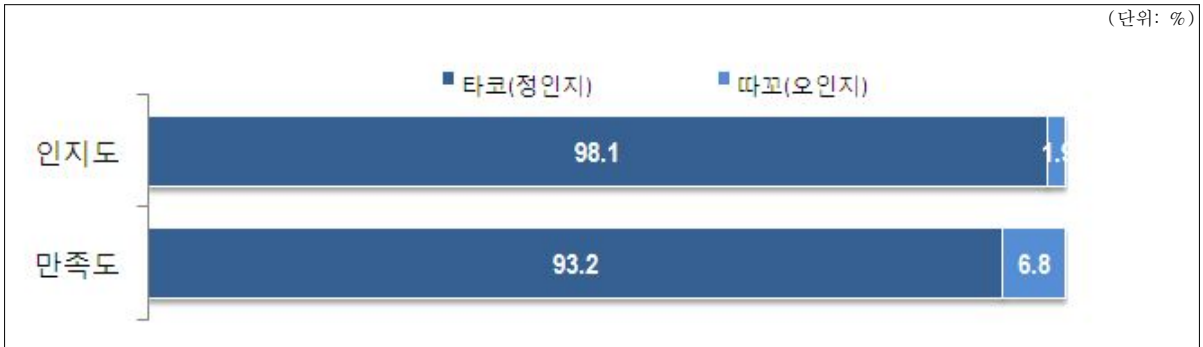
[표 82]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돈 키호테)

(4) 타코(taco)

“타코”(taco) 정인지 비율은 중졸이하의 학력자에 낮게 나타났고, 만족도 비율은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인의 경우, 정인지의 비율은 82.9%, 만족한다는 비율은 85.9%로 나타났다. 전문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98.1%가 정답을 표기하였고, 만족한다는 비율도 93.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타코” 표기 정인지율은 인문계열 전공자가 100.0%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계층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음식을 가리키는 이 어휘의 경우, 실제로 들어보거나 접해보지 않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음식이 영미권을 통해 더 많이 알려져 있어 일반 대중들은 ‘타코’라는 발음과 표기에 더 익숙해져 있는 경향을 보였다고 판단된다. 즉, ‘타코’와 같이 생소한 에스파냐어 어휘의 정인지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해당 어휘의 영어 표기가 에스파냐어의 표기와 동일하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그림 54] ‘타코’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그림 55] '타코'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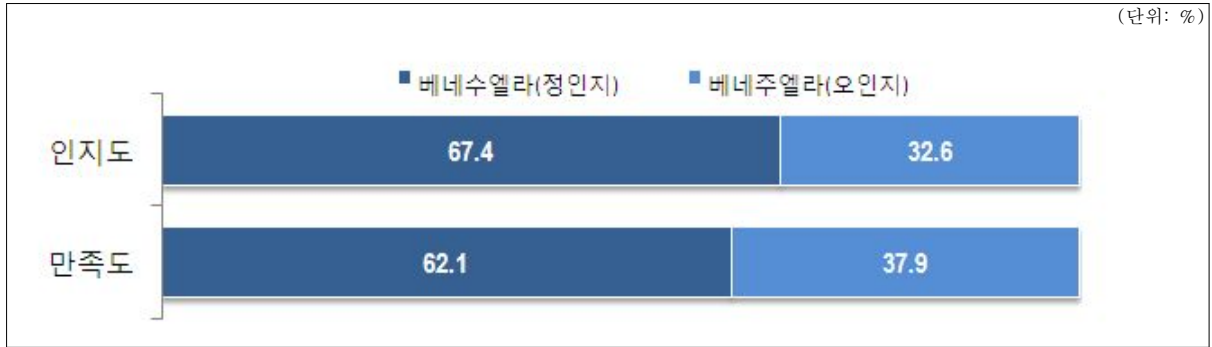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타코	따꼬	타코	따꼬		
■ 전 체 ■	(103)	98.1	1.9	93.2	6.8	100.0	
■ 성 별 ■	남성	(55)	98.2	1.8	94.5	5.5	100.0
	여성	(48)	97.9	2.1	91.7	8.3	100.0
■ 연 령 ■	20대미만	(36)	100.0	0.0	91.7	8.3	100.0
	30대	(34)	97.1	2.9	97.1	2.9	100.0
	40대	(20)	100.0	0.0	95.0	5.0	100.0
	50대이상	(11)	90.9	9.1	81.8	18.2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91.7	8.3	91.7	8.3	100.0
	신문기자	(29)	100.0	0.0	96.6	3.4	100.0
	출판사종사자	(25)	100.0	0.0	96.0	4.0	100.0
	국어교사	(25)	100.0	0.0	88.0	12.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6.2	3.8	94.3	5.7	100.0
	비언론인	(50)	100.0	0.0	92.0	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100.0	0.0	90.9	9.1	100.0
	사회과학계열	(26)	96.2	3.8	96.2	3.8	100.0
	기타	(8)	87.5	12.5	100.0	0.0	100.0

[표 83]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타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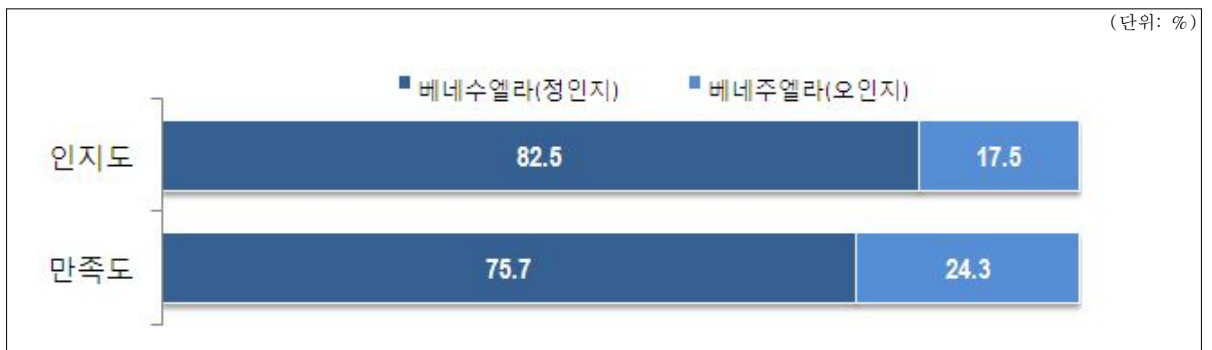
(5) 베네수엘라(Venezuela)

“베네수엘라”(Venezuela) 표기 설문 문항은 에스파냐어 z를 ‘s’으로 표기하는 규정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으며, 해당 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27.2%로서 상당히 낮았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해당 어휘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정인지를 택한 전문인의 비율이 82.5%로, 오인지인 ‘베네주엘라’를 택한 사람들의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만족도에 있어서도 정인지의 만족도(75.7%)가 오인지의 만족도(24.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네수엘라 인지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에 있어서 비언론인이 86.0%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인의 경우 정인지 선택률이 67.4%, 오인지 선택률이 32.6%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에 있어서 정인지에 대한 만족도가 62.1%, 오인지의 만족도가 37.9%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베네수엘라 표기와 관련하여 가정주부가 42.9%로 전체 평균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었다.



[그림 56] '베네수엘라'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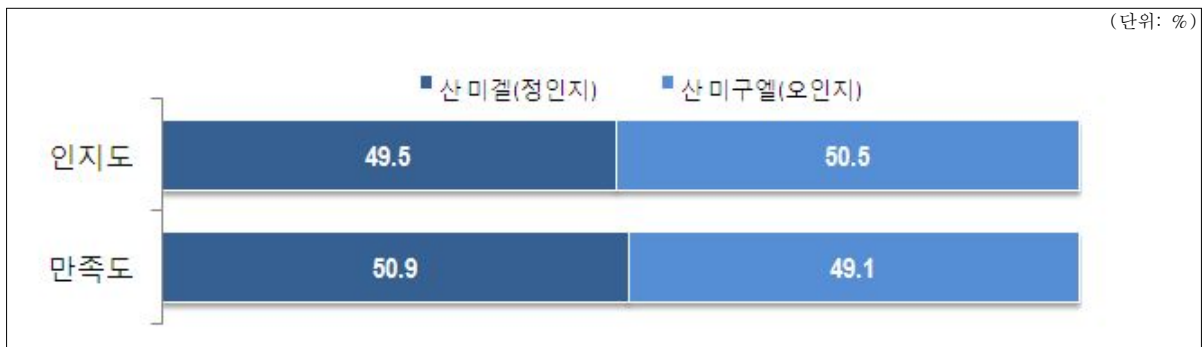
[그림 57] '베네수엘라'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 전 체 ■	(103)	17.5	82.5	24.3	75.7	100.0	
■ 성 별 ■	남성	(55)	18.2	81.8	27.3	72.7	100.0
	여성	(48)	16.7	83.3	20.8	79.2	100.0
■ 연 령 ■	20대미만	(36)	13.9	86.1	22.2	77.8	100.0
	30대	(34)	11.8	88.2	23.5	76.5	100.0
	40대	(20)	25.0	75.0	30.0	70.0	100.0
	50대이상	(11)	27.3	72.7	27.3	72.7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33.3	66.7	37.5	62.5	100.0
	신문기자	(29)	10.3	89.7	31.0	69.0	100.0
	출판사종사자	(25)	16.0	84.0	12.0	88.0	100.0
	국어교사	(25)	12.0	88.0	16.0	8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20.8	79.2	34.0	66.0	100.0
	비언론인	(50)	14.0	86.0	14.0	86.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13.6	86.4	19.7	80.3	100.0
	사회과학계열	(26)	23.1	76.9	38.5	61.5	100.0
	기타	(8)	37.5	62.5	25.0	7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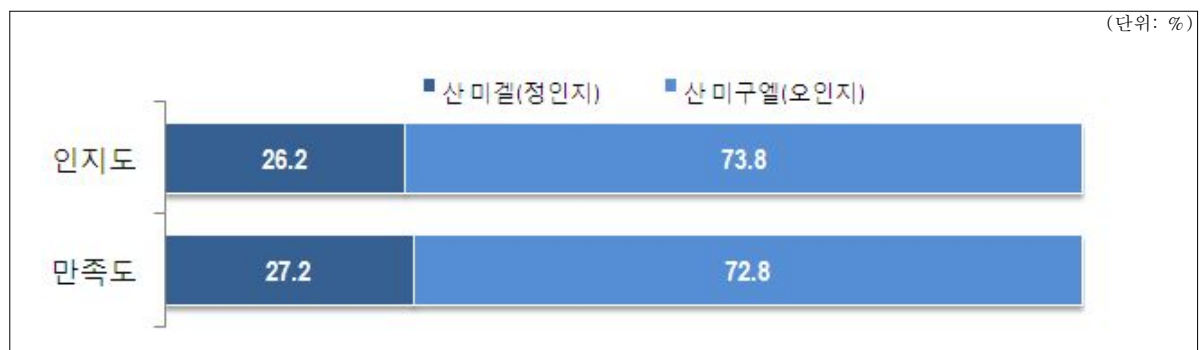
[표 84]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베네수엘라)

(6) 산 미겔(San Miguel)

“산 미겔”(San Miguel) 용례와 관련하여 인지도 및 만족도에서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인지를 택한 사람들의 비율은 49.5%, 오인지를 택한 사람들의 비율은 50.5%로 조사되었으며, 만족도에 있어서도 정인지에 대한 만족도는 50.9%, 오인지에 대한 만족도는 49.1%로 인지도와 만족도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산 미겔 용례와 관련하여 중졸이하의 학력자가 73.3%로 전체 평균 비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블루칼라가 36.4%로 유의하게 낮았다. 한편, 정인지인 ‘산 미겔’을 택한 전문인의 비율은 26.2%, 오인지인 ‘산 미구엘’을 택한 사람들의 비율은 73.8%로 오인지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 역시 ‘산 미겔’이 27.2%, ‘산 미구엘’이 72.8%로 오인지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규정의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자주 노출된 어휘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산 미겔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산 미구엘’이라고 잘못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영향을 받아 ‘산 미구엘’로 잘못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8] ‘산 미겔’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그림 59] ‘산 미겔’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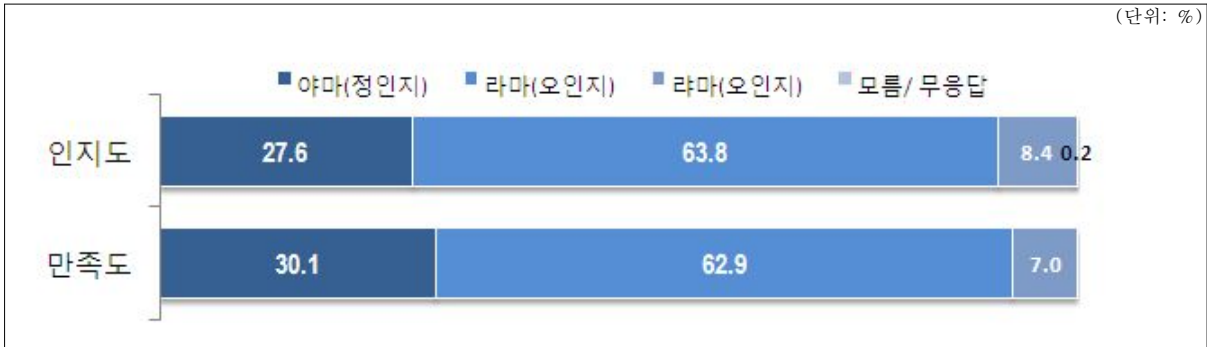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산 미겔	산 미구엘	산 미겔	산 미구엘		
■ 전 체 ■	(103)	26.2	73.8	27.2	72.8	100.0	
■ 성 별 ■	남성	(55)	30.9	69.1	30.9	69.1	100.0
	여성	(48)	20.8	79.2	22.9	77.1	100.0
■ 연 령 ■	20대미만	(36)	19.4	80.6	19.4	80.6	100.0
	30대	(34)	35.3	64.7	32.4	67.6	100.0
	40대	(20)	20.0	80.0	30.0	70.0	100.0
	50대이상	(11)	27.3	72.7	27.3	72.7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29.2	70.8	33.3	66.7	100.0
	신문기자	(29)	34.5	65.5	34.5	65.5	100.0
	출판사종사자	(25)	24.0	76.0	24.0	76.0	100.0
	국어교사	(25)	16.0	84.0	16.0	8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2.1	67.9	34.0	66.0	100.0
	비언론인	(50)	20.0	80.0	20.0	8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25.8	74.2	27.3	72.7	100.0
	사회과학계열	(26)	26.9	73.1	23.1	76.9	100.0
	기타	(8)	25.0	75.0	37.5	62.5	100.0

[표 85]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산 미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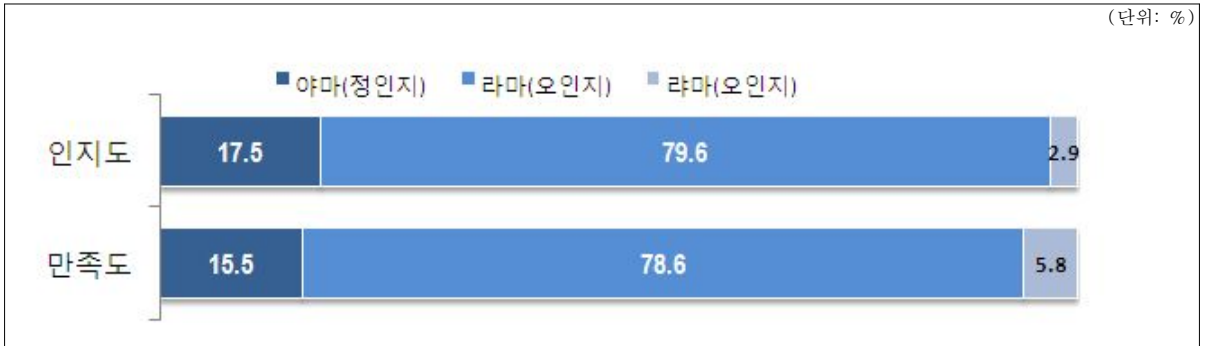
(7) 야마(llama)

“야마”(llama) 표기에서 전 응답자 계층이 만족도 및 인지도 응답에서 30% 내외로 응답하여 특별히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인의 경우 정인지인 ‘야마’를 선택한 사람들은 27.6%, ‘라마’를 택한 사람들은 63.8%, ‘라마’는 8.4%, 모름/무응답은 0.2%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있어서 ‘야마’에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들은 30.1%, ‘라마’의 경우에는 62.9%, ‘라마’는 7%인 것으로 나타났다. 옳게 답한 전문인의 비율도 17.5%에 그쳤고, 오인지인 라마(79.6%), 라마(2.9%)를 선택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볼 수 있다. 만족도에 있어서도 ‘야마’의 표기에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15.5%, ‘라마’ 표기는 78.6%, ‘라마’는 5.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야마’ 표기에서 인지도 및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마’의 경우, 사람들이 지칭하는 대상(낙타과에 속하는 동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원래 표기는 ‘야마’가 맞지만, ‘ll’로 시작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영어식으로 생각해서 ‘라마’라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라고 추정된다. 또한 네이버 백과사전 같은 경우 ‘라마’를 옳은 표기로 등재하였는데,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야마’가 맞는 표기이기 때문에 개정될 필요가 있다.



[그림 60] '야마'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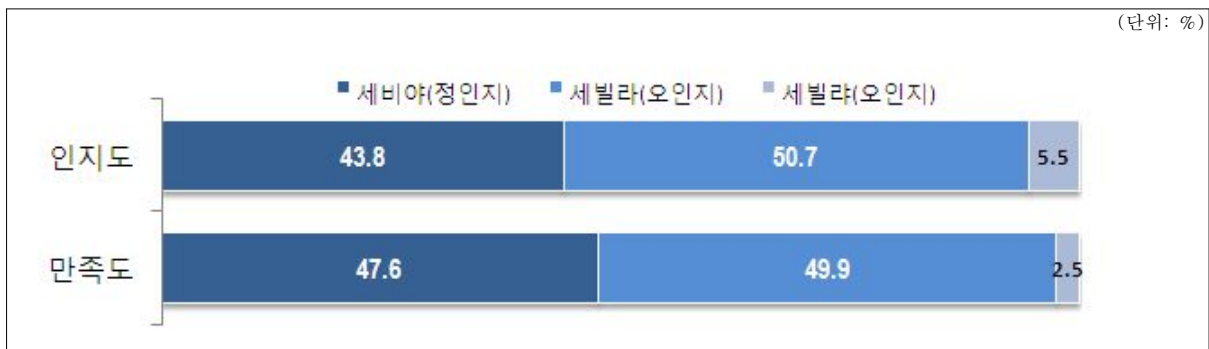
[그림 61] '야마'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라마	야마	라마	라마	야마	라마		
■ 전 체 ■	(103)	79.6	17.5	2.9	78.6	15.5	5.8	100.0	
■ 성 별 ■	남성	(55)	85.5	10.9	3.6	85.5	10.9	3.6	100.0
	여성	(48)	72.9	25.0	2.1	70.8	20.8	8.3	100.0
■ 연 령 ■	20대미만	(36)	77.8	19.4	2.8	86.1	11.1	2.8	100.0
	30대	(34)	85.3	11.8	2.9	79.4	14.7	5.9	100.0
	40대	(20)	80.0	15.0	5.0	75.0	15.0	10.0	100.0
	50대이상	(11)	63.6	36.4	0.0	54.5	36.4	9.1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75.0	20.8	4.2	70.8	20.8	8.3	100.0
	신문기자	(29)	72.4	24.1	3.4	75.9	20.7	3.4	100.0
	출판사종사자	(25)	92.0	4.0	4.0	84.0	8.0	8.0	100.0
	국어교사	(25)	80.0	20.0	0.0	84.0	12.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3.6	22.6	3.8	73.6	20.8	5.7	100.0
	비언론인	(50)	86.0	12.0	2.0	84.0	10.0	6.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80.3	19.7	0.0	83.3	13.6	3.0	100.0
	사회과학계열	(26)	76.9	19.2	3.8	69.2	23.1	7.7	100.0
	기타	(8)	87.5	0.0	12.5	75.0	12.5	12.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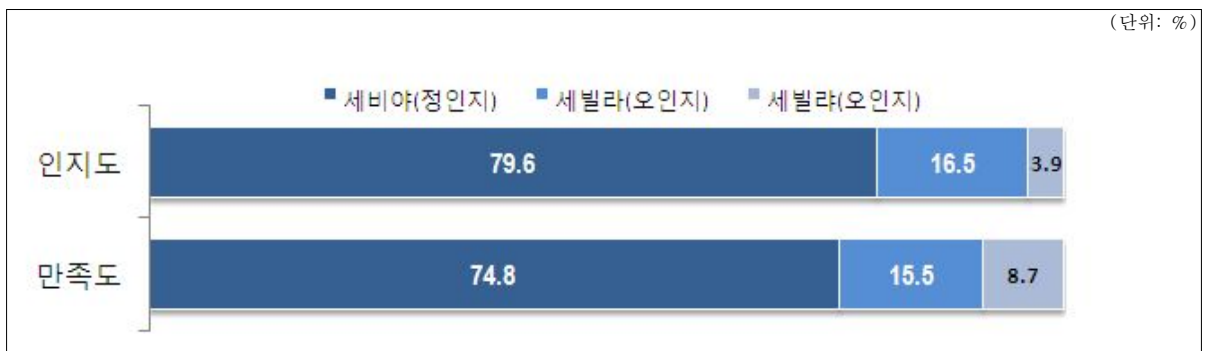
[표 86]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야마)

(8) 세비야(Sevilla)

“세비야”(Sevilla) 용례의 경우 남성과 학생에서 정인지 비율이 높았고, 만족도의 경우 학생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일반인의 경우 정인지의 비율이 43.8%, ‘세빌라’는 50.7%, ‘세빌라’는 5.5%로 집계되었다. 만족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세비야’는 47.6%, ‘세빌라’는 49.9%, ‘세빌라’는 2.5%로 조사되었다. 한편, 전문인 중 정인지인 ‘세비야’를 선택한 전문인의 비율은 79.6%, 오인지인 ‘세빌라’를 선택한 사람들은 16.5%, ‘세빌라’는 3.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족도에 있어서 74.8%의 사람들이 ‘세비야’ 표기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세빌라’의 경우 15.5%, ‘세빌라’는 8.7%로 나타났다. 세비야 표기의 정인지율은 언론인과 사회과학 전공자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만족도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용례의 경우 ‘II’ 철자를 사용하는 것이 앞에서 살펴본 ‘야마’와 같지만, 여행 책자나 각종 TV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진 도시 이름이기 때문에 ‘야마’보다 정인지를 선택한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 62] ‘세비야’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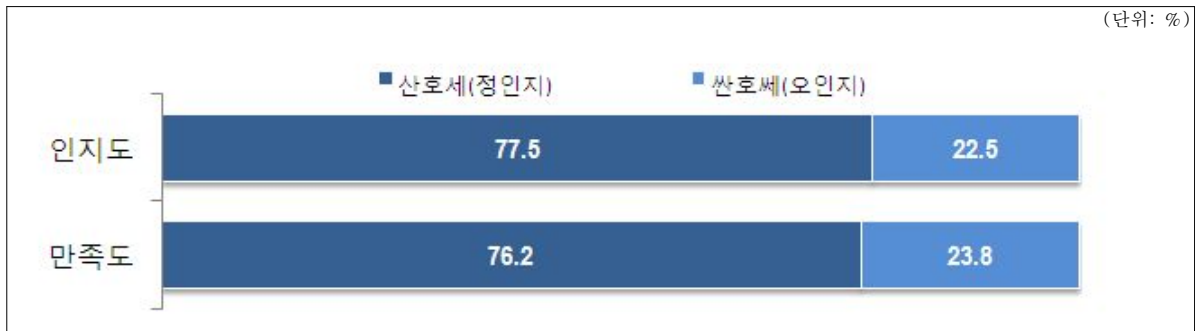
[그림 63] ‘세비야’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모름/ 무응답	계	
		세비야	세빌라	세빌라	세비야	세빌라	세빌라			
■ 전 체 ■	(103)	79.6	16.5	3.9	74.8	15.5	8.7	1.0	100.0	
■ 성 별 ■	남성	(55)	85.5	12.7	1.8	87.3	7.3	3.6	1.8	100.0
	여성	(48)	72.9	20.8	6.3	60.4	25.0	14.6	0.0	100.0
■ 연 령 ■	20대미만	(36)	77.8	19.4	2.8	72.2	16.7	8.3	2.8	100.0
	30대	(34)	88.2	11.8	0.0	79.4	11.8	8.8	0.0	100.0
	40대	(20)	70.0	20.0	10.0	65.0	20.0	15.0	0.0	100.0
	50대이상	(11)	72.7	18.2	9.1	81.8	18.2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91.7	0.0	8.3	91.7	0.0	8.3	0.0	100.0
	신문기자	(29)	86.2	13.8	0.0	69.0	20.7	6.9	3.4	100.0
	출판사종사자	(25)	80.0	16.0	4.0	76.0	12.0	12.0	0.0	100.0
	국어교사	(25)	60.0	36.0	4.0	64.0	28.0	8.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88.7	7.5	3.8	79.2	11.3	7.5	1.9	100.0
	비언론인	(50)	70.0	26.0	4.0	70.0	20.0	10.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72.7	24.2	3.0	71.2	21.2	7.6	0.0	100.0
	사회과학계열	(26)	96.2	0.0	3.8	84.6	3.8	7.7	3.8	100.0
	기타	(8)	87.5	0.0	12.5	75.0	0.0	25.0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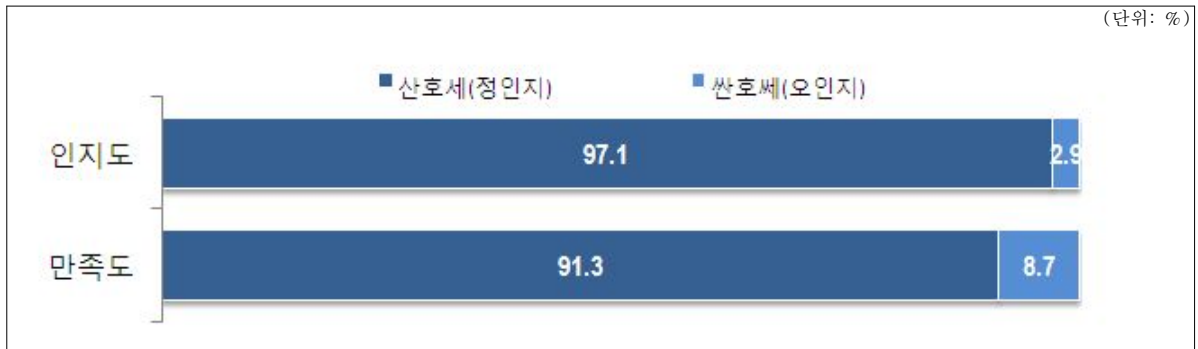
[표 87]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세비야)

(9) 산호세(San José)

“산호세”(San José) 표기의 인지도 및 만족도에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모두 75%이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경우 정인지 선택률이 77.5%, 오인지는 22.5%로 전문인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에 있어서는 정인지 만족률이 76.2%, 오인지 만족률이 23.8%로 조사되었다. 산호세 표기에 있어서 인지도 및 만족도 비율 모두 75%내외로 응답자군 간의 두드러진 차이는 없었다. 정인지인 ‘산호세’를 선택한 전문인의 비율은 97.1%로, 오인지인 ‘싼호쎬’를 선택한 사람들(2.9%)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만족도에 있어서도 정인지에 대한 만족도가 91.3%로 나타나 오인지에 대한 만족도(8.7%)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밝혔듯이, 용례를 선정할 때 같은 어휘의 미국 도시명인 ‘세너제이’를 삭제하였기 때문에 에스파냐 표기인 ‘산호세’(코스타리카 수도)를 선택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림 64] ‘산호세’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그림 65] '산호세'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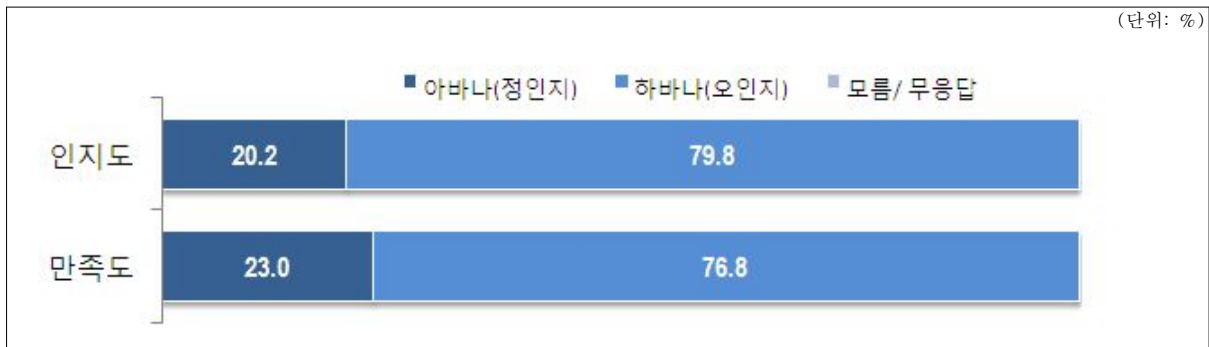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산호세	산호세	산호세	산호세	
■ 전 체 ■	(103)	2.9	97.1	8.7	91.3	100.0
■ 성 별 ■	남성 (55)	1.8	98.2	5.5	94.5	100.0
	여성 (48)	4.2	95.8	12.5	87.5	100.0
■ 연 령 ■	20대미만 (36)	5.6	94.4	11.1	88.9	100.0
	30대 (34)	2.9	97.1	5.9	94.1	100.0
	40대 (20)	0.0	100.0	5.0	95.0	100.0
	50대이상 (11)	0.0	100.0	9.1	90.9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4.2	95.8	16.7	83.3	100.0
	신문기자 (29)	3.4	96.6	3.4	96.6	100.0
	출판사종사자 (25)	0.0	100.0	4.0	96.0	100.0
	국어교사 (25)	4.0	96.0	12.0	8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8	96.2	9.4	90.6	100.0
	비언론인 (50)	2.0	98.0	8.0	9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1.5	98.5	7.6	92.4	100.0
	사회과학계열 (26)	3.8	96.2	11.5	88.5	100.0
	기타 (8)	12.5	87.5	12.5	87.5	100.0

[표 88]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산호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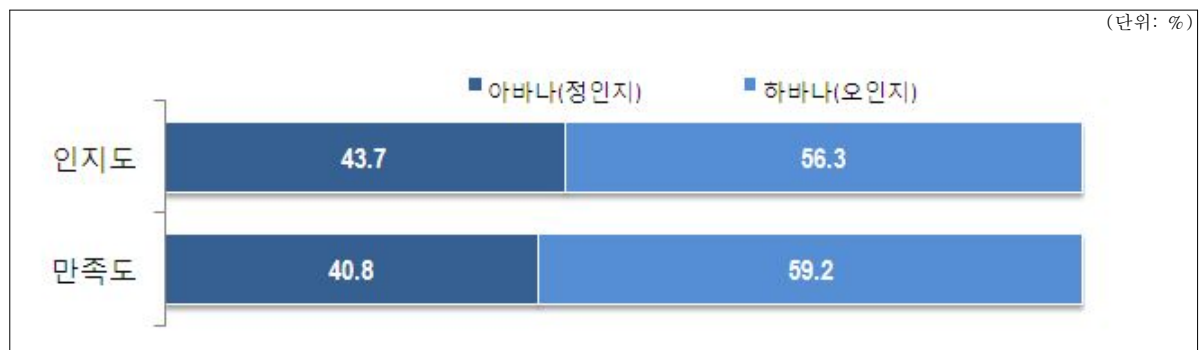
(10) 아바나(Habana)

“아바나”(Habana) 표기의 경우 모든 계층에서 20%내외로 정인지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고, 만족도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문인에 대한 ‘아바나’ 표기와 인지도 및 만족도에 있어서, 언론인이 각각 64.2%, 56.6%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인의 경우, 정인지인 ‘아바나’를 택한 비율이 43.7%에 머물렀고, 오인지인 ‘하바나’를 택한 비율은 56.3%에 달했다. 만족도에 있어서 정인지에 대한 만족도가 40.8%, 오인지에 대한 만족도가 59.2%로 오인지에 대한 인지도나 만족도가 정인지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인의 경우, 정인지에 대한 인지도가 20.2%, 오인지가 79.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도에 있어서 정인지에 대한 만족도가 23%, 오인지는 76.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바나’ 표기의 경우 모든 계층에서 20%내외로 정인지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고, 만족도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아바나’가 ‘Habana’로 표기되

기 때문에 영어의 영향으로 오인지인 ‘하바나’를 선택한 사람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설문에서는 해당 규정을 조사하지 않았지만, ‘Habana’는 에스파냐어 자모 표기법 <‘h’는 표기하지 않는다>에 따라 ‘아바나’로 표기해야 한다.



[그림 66] '아바나' 인지도·만족도 비율(일반인)



[그림 67] '아바나' 인지도·만족도 비율(전문인)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하바나	아바나	하바나	아바나		
■ 전 체 ■	(103)	56.3	43.7	59.2	40.8	100.0	
■ 성 별 ■	남성	(55)	47.3	52.7	52.7	47.3	100.0
	여성	(48)	66.7	33.3	66.7	33.3	100.0
■ 연 령 ■	20대미만	(36)	75.0	25.0	75.0	25.0	100.0
	30대	(34)	61.8	38.2	64.7	35.3	100.0
	40대	(20)	30.0	70.0	40.0	60.0	100.0
	50대이상	(11)	36.4	63.6	36.4	63.6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45.8	54.2	33.3	66.7	100.0
	신문기자	(29)	27.6	72.4	51.7	48.3	100.0
	출판사종사자	(25)	64.0	36.0	60.0	40.0	100.0
	국어교사	(25)	92.0	8.0	92.0	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5.8	64.2	43.4	56.6	100.0
	비언론인	(50)	78.0	22.0	76.0	2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57.6	42.4	63.6	36.4	100.0
	사회과학계열	(26)	46.2	53.8	50.0	50.0	100.0
	기타	(8)	75.0	25.0	50.0	50.0	100.0

[표 89] 집단별 인지도·만족도 응답 비율(아바나)

2) 전문인의 규정과 용례의 상관관계의 특징

(1) (전체 외래어) 일반규정에 대한 전문인 설문 결과

일반규정에 대해서 인지여부는 비언론인이 언론인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이 규정에 대한 만족정도는 인문계열 전공자가 다른 전공계열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여부는 비언론인이 전체 평균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에 있어서 국어교사가 다른 직업군에 만족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인문계열 전공자가 인지와 이해정도 및 만족도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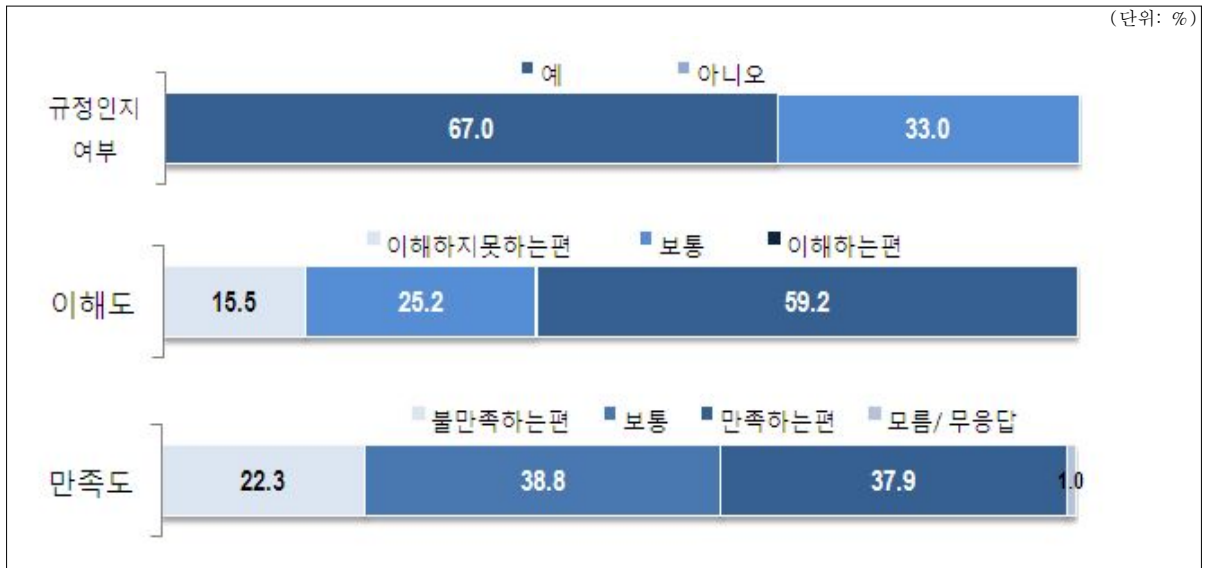
(2) 에스파냐어 표기 규정에 관한 설문 결과

1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ㄱ/ㅋ/ㆁ, ㄷ/ㅌ/ㄸ, ㅂ/ㅃ/ㅍ과 같은 것을 파열음이라고 하며, 외래어 원음이 된소리처럼 들려도 된소리 글자로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규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67%,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은 33%로 나타났다.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15.5%, 보통이라는 사람들은 25.2%, 이해하는 편이라는 사람들의 비율은 59.2%로 조사되었다. 만족도에 있어서 불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22.3%, 보통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38.8%,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37.9%, 그리고 모름/무응답자의 비율은 1%로 조사되었다. 비언론인(국어 교사 및 출판사 교열 종사자)에서 이해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았고(72.7%), 인문계열 전공자에서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48.5%) 높게 나타났다. 해당 용례로는 카사 블랑카, 돈 키호테, 테킬라, 타코가 있다.

흥미로운 점은, 본 규정에 대한 인식도나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례에 대한 정인지율은 용례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즉, 카사 블랑카, 돈키호테, 타코와 같은 용례는 정인지율이 높았으나, 테킬라의 경우 정인지율이 상당히 낮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반 국민이 규정과는 별도로 용례를 인지하고 있음을 추정케 한다.



[그림 68] 에스파냐어 규정 1에 대한 인지도·이해도·만족도 비율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5.8	9.7	25.2	29.1	30.1	100.0
■ 성 별 ■	남성	(55)	7.3	18.2	20.0	27.3	27.3	100.0
	여성	(48)	4.2	0.0	31.3	31.3	33.3	100.0
■ 연 령 ■	20대미만	(36)	5.6	2.8	27.8	30.6	33.3	100.0
	30대	(34)	2.9	8.8	29.4	29.4	29.4	100.0
	40대	(20)	5.0	25.0	15.0	35.0	20.0	100.0
	50대이상	(11)	9.1	9.1	18.2	18.2	45.5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6.7	16.7	29.2	16.7	20.8	100.0
	신문기자	(29)	3.4	13.8	24.1	27.6	31.0	100.0
	출판사종사자	(25)	0.0	4.0	28.0	44.0	24.0	100.0
	국어교사	(25)	4.0	4.0	20.0	28.0	4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4	15.1	26.4	22.6	26.4	100.0
	비언론인	(50)	2.0	4.0	24.0	36.0	3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0	7.6	16.7	34.8	37.9	100.0
	사회과학계열	(26)	11.5	15.4	26.9	26.9	19.2	100.0
	기타	(8)	12.5	12.5	75.0	0.0	0.0	100.0

[표 90] 에스파냐어 규정1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7.8	14.6	38.8	28.2	9.7	1.0	100.0
■ 성 별 ■	남성	(55)	9.1	18.2	34.5	21.8	14.5	1.8	100.0
	여성	(48)	6.3	10.4	43.8	35.4	4.2	0.0	100.0
■ 연 령 ■	20대미만	(36)	13.9	13.9	36.1	30.6	5.6	0.0	100.0

	30대	(34)	2.9	8.8	52.9	29.4	5.9	0.0	100.0
	40대	(20)	5.0	25.0	20.0	35.0	15.0	0.0	100.0
	50대이상	(11)	9.1	9.1	36.4	9.1	27.3	9.1	100.0
■ 직업 ■	아나운서	(24)	4.2	25.0	41.7	20.8	8.3	0.0	100.0
	신문기자	(29)	10.3	24.1	34.5	17.2	13.8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8.0	0.0	48.0	36.0	8.0	0.0	100.0
	국어교사	(25)	8.0	8.0	32.0	40.0	8.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5	24.5	37.7	18.9	11.3	0.0	100.0
	비언론인	(50)	8.0	4.0	40.0	38.0	8.0	2.0	100.0
■ 전공 ■	인문계열	(66)	10.6	9.1	30.3	34.8	13.6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0.0	26.9	46.2	23.1	3.8	0.0	100.0
	기타	(8)	12.5	12.5	75.0	0.0	0.0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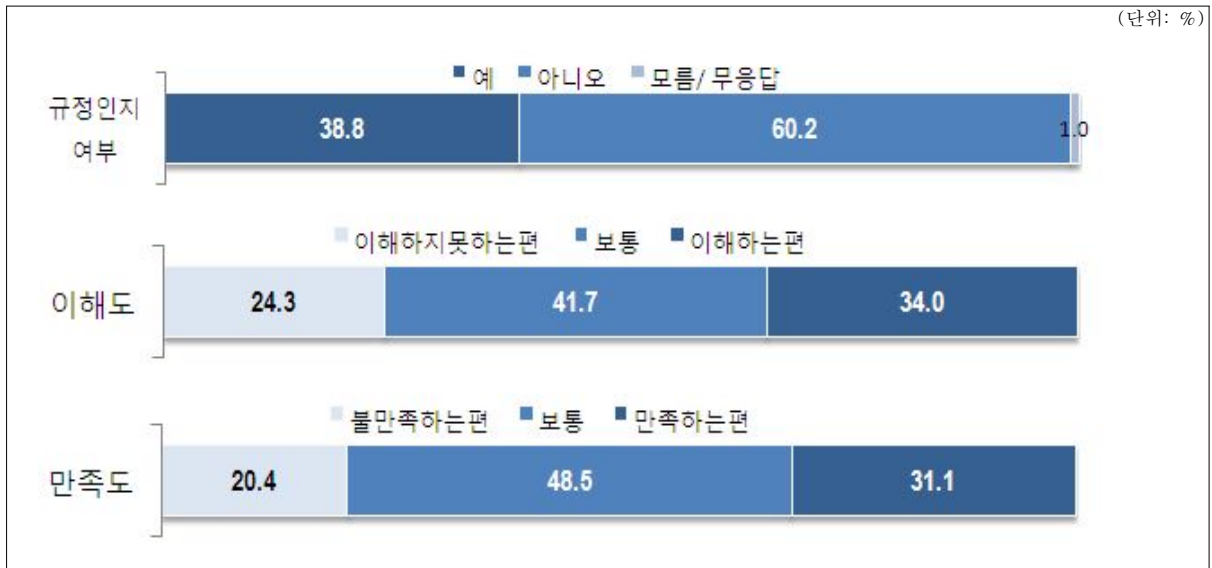
[표 91] 에스파냐어 규정1 만족도 집단별 특성

2

“ll, y, ñ, w의 '이, 니, 오, 우'는 다른 모음과 결합할 때 합쳐서 1 음절로 적는다.(예: 에스파냐 España)”

규정을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38.8%, 알고 있지 않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60.2%, 모름/무응답은 1%로 조사되어, 사람들이 이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해도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24.3%, 보통은 41.7%, 이해하는 편이라는 사람들은 34%로 조사되었다. 만족도에 있어서는 불만족하는 편이라는 사람들의 비율은 20.4%, 보통은 48.5%,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31.1%로 집계되었다. 비언론인에서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높았고(70.0%), 인문계열 전공자들이 이 규정을 이해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았다(42.4%). 이와 관련된 용례로는 야마, 세비야가 있다.

이와 같이, 본 규정에 대한 인지율이 낮은 이유는 일반인이나 전문인이 해당 언어(에스파냐어)를 모르기 때문에 규정자체가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규정과 용례의 인지도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앞의 규정과 해당 용례(‘테킬라’)와 마찬가지로, 본 규정에 대한 인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노출도가 높은 ‘세비야’와 같은 용례는 인지도는 높았으며, 노출도가 비교적 낮은 ‘야마’와 같은 용례는 인지도가 낮았다는 점에서 규정과 관계없이 용례의 노출도가 인지도를 좌우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9] 에스파냐어 규정 2에 대한 인지도·이해도·만족도 비율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무응답	계
■ 전 체 ■		(103)	38.8	60.2	1.0	100.0
■ 성 별 ■	남성	(55)	36.4	61.8	1.8	100.0
	여성	(48)	41.7	58.3	0.0	100.0
■ 연 령 ■	20대미만	(36)	30.6	69.4	0.0	100.0
	30대	(34)	41.2	58.8	0.0	100.0
	40대	(20)	45.0	50.0	5.0	100.0
	50대이상	(11)	54.5	45.5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37.5	58.3	4.2	100.0
	신문기자	(29)	55.2	44.8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32.0	68.0	0.0	100.0
	국어교사	(25)	28.0	72.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47.2	50.9	1.9	100.0
	비언론인	(50)	30.0	70.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40.9	57.6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42.3	57.7	0.0	100.0
	기타	(8)	25.0	75.0	0.0	100.0

[표 92] 에스파냐어 규정2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5.8	18.4	41.7	19.4	14.6	100.0
■ 성 별 ■	남성	(55)	9.1	27.3	32.7	20.0	10.9	100.0
	여성	(48)	2.1	8.3	52.1	18.8	18.8	100.0
■ 연 령 ■	20대미만	(36)	0.0	16.7	50.0	19.4	13.9	100.0
	30대	(34)	8.8	14.7	47.1	20.6	8.8	100.0
	40대	(20)	5.0	35.0	25.0	15.0	20.0	100.0

	50대이상	(11)	9.1	9.1	27.3	27.3	27.3	100.0
■ 직업 ■	아나운서	(24)	12.5	29.2	41.7	8.3	8.3	100.0
	신문기자	(29)	3.4	24.1	27.6	20.7	24.1	100.0
	출판사종사자	(25)	8.0	12.0	48.0	24.0	8.0	100.0
	국어교사	(25)	0.0	8.0	52.0	24.0	16.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5	26.4	34.0	15.1	17.0	100.0
	비언론인	(50)	4.0	10.0	50.0	24.0	12.0	100.0
■ 전공 ■	인문계열	(66)	1.5	13.6	42.4	24.2	18.2	100.0
	사회과학계열	(26)	15.4	23.1	38.5	11.5	11.5	100.0
	기타	(8)	0.0	37.5	50.0	12.5	0.0	100.0

[표 93] 에스파냐어 규정2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체 ■		(103)	3.9	16.5	48.5	20.4	10.7	100.0
■ 성 별 ■	남성	(55)	7.3	21.8	38.2	20.0	12.7	100.0
	여성	(48)	0.0	10.4	60.4	20.8	8.3	100.0
■ 연 령 ■	20대미만	(36)	2.8	16.7	55.6	13.9	11.1	100.0
	30대	(34)	2.9	8.8	58.8	23.5	5.9	100.0
	40대	(20)	5.0	35.0	25.0	20.0	15.0	100.0
	50대이상	(11)	0.0	9.1	36.4	36.4	18.2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2.5	16.7	50.0	12.5	8.3	100.0
	신문기자	(29)	0.0	24.1	34.5	24.1	17.2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12.0	52.0	28.0	4.0	100.0
	국어교사	(25)	0.0	12.0	60.0	16.0	12.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5.7	20.8	41.5	18.9	13.2	100.0
	비언론인	(50)	2.0	12.0	56.0	22.0	8.0	100.0
■ 전공 ■	인문계열	(66)	3.0	12.1	47.0	22.7	15.2	100.0
	사회과학계열	(26)	3.8	26.9	46.2	19.2	3.8	100.0
	기타	(8)	12.5	12.5	62.5	12.5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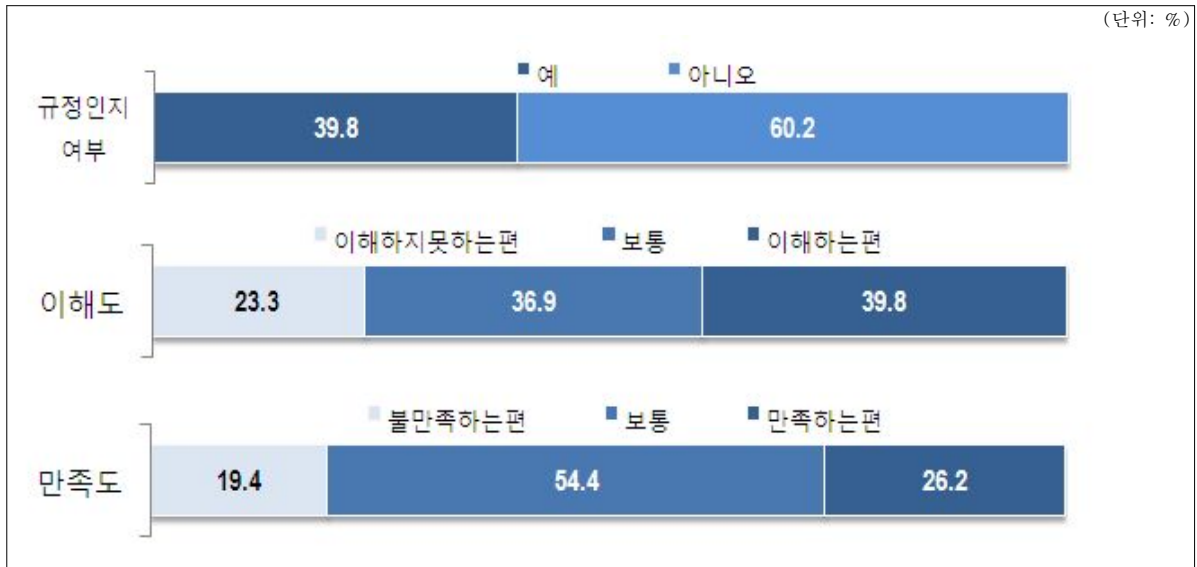
[표 94] 에스파냐어 규정2 만족도 집단별 특성

3

“gu, qu는 i, e 앞에서는 각각 ‘ㄱ, ㅋ’으로 적는다.”

규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39.8%, 알고 있지 않다고 답한 사람들은 60.2%로 나타났다. 이해도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23.3%, 보통은 36.9%, 이해하는 편이라는 사람들은 39.8%로 조사되었다. 만족도에 있어서 불만족하는 편이라는 사람들의 비율은 19.4%, 보통은 54.4%, 만족하는 편이라는 사람들은 26.2%로 나타났다. 이 규정에 전반적으로 비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고, 인문계열 전공자에서 이해하고 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48.5%). 해당 용례인 산 미겔/산 미구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후자의 틀린 표기를 선택하여 이 규정 및 바른 표기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규정도 해당 언어를 모르는 전문인들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규정의 인지도 여부와 상관없이 더 익숙하고 노출되어 있는 ‘산 미구엘’로 잘못 선택했을 가능성이 컸으리라 추정한다.



[그림 70] 에스파냐어 규정 3에 대한 인지도·이해도·만족도 비율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무응답	계
■ 전 체 ■		(103)	38.8	60.2	1.0	100.0
■ 성 별 ■	남성	(55)	36.4	61.8	1.8	100.0
	여성	(48)	41.7	58.3	0.0	100.0
■ 연 령 ■	20대미만	(36)	30.6	69.4	0.0	100.0
	30대	(34)	41.2	58.8	0.0	100.0
	40대	(20)	45.0	50.0	5.0	100.0
	50대이상	(11)	54.5	45.5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37.5	58.3	4.2	100.0
	신문기자	(29)	55.2	44.8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32.0	68.0	0.0	100.0
	국어교사	(25)	28.0	72.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47.2	50.9	1.9	100.0
	비언론인	(50)	30.0	70.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40.9	57.6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42.3	57.7	0.0	100.0
	기타	(8)	25.0	75.0	0.0	100.0

[표 95] 에스파냐어 규정3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5.8	18.4	41.7	19.4	14.6	100.0
■ 성 별 ■	남성	(55)	9.1	27.3	32.7	20.0	10.9	100.0
	여성	(48)	2.1	8.3	52.1	18.8	18.8	100.0
■ 연 령 ■	20대미만	(36)	0.0	16.7	50.0	19.4	13.9	100.0
	30대	(34)	8.8	14.7	47.1	20.6	8.8	100.0
	40대	(20)	5.0	35.0	25.0	15.0	20.0	100.0
	50대이상	(11)	9.1	9.1	27.3	27.3	27.3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2.5	29.2	41.7	8.3	8.3	100.0
	신문기자	(29)	3.4	24.1	27.6	20.7	24.1	100.0
	출판사종사자	(25)	8.0	12.0	48.0	24.0	8.0	100.0
	국어교사	(25)	0.0	8.0	52.0	24.0	16.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5	26.4	34.0	15.1	17.0	100.0
	비언론인	(50)	4.0	10.0	50.0	24.0	1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1.5	13.6	42.4	24.2	18.2	100.0
	사회과학계열	(26)	15.4	23.1	38.5	11.5	11.5	100.0
	기타	(8)	0.0	37.5	50.0	12.5	0.0	100.0

[표 96] 에스파냐어 규정3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3.9	16.5	48.5	20.4	10.7	100.0
■ 성 별 ■	남성	(55)	7.3	21.8	38.2	20.0	12.7	100.0
	여성	(48)	0.0	10.4	60.4	20.8	8.3	100.0
■ 연 령 ■	20대미만	(36)	2.8	16.7	55.6	13.9	11.1	100.0
	30대	(34)	2.9	8.8	58.8	23.5	5.9	100.0
	40대	(20)	5.0	35.0	25.0	20.0	15.0	100.0
	50대이상	(11)	0.0	9.1	36.4	36.4	18.2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2.5	16.7	50.0	12.5	8.3	100.0
	신문기자	(29)	0.0	24.1	34.5	24.1	17.2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12.0	52.0	28.0	4.0	100.0
	국어교사	(25)	0.0	12.0	60.0	16.0	12.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5.7	20.8	41.5	18.9	13.2	100.0
	비언론인	(50)	2.0	12.0	56.0	22.0	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0	12.1	47.0	22.7	15.2	100.0
	사회과학계열	(26)	3.8	26.9	46.2	19.2	3.8	100.0
	기타	(8)	12.5	12.5	62.5	12.5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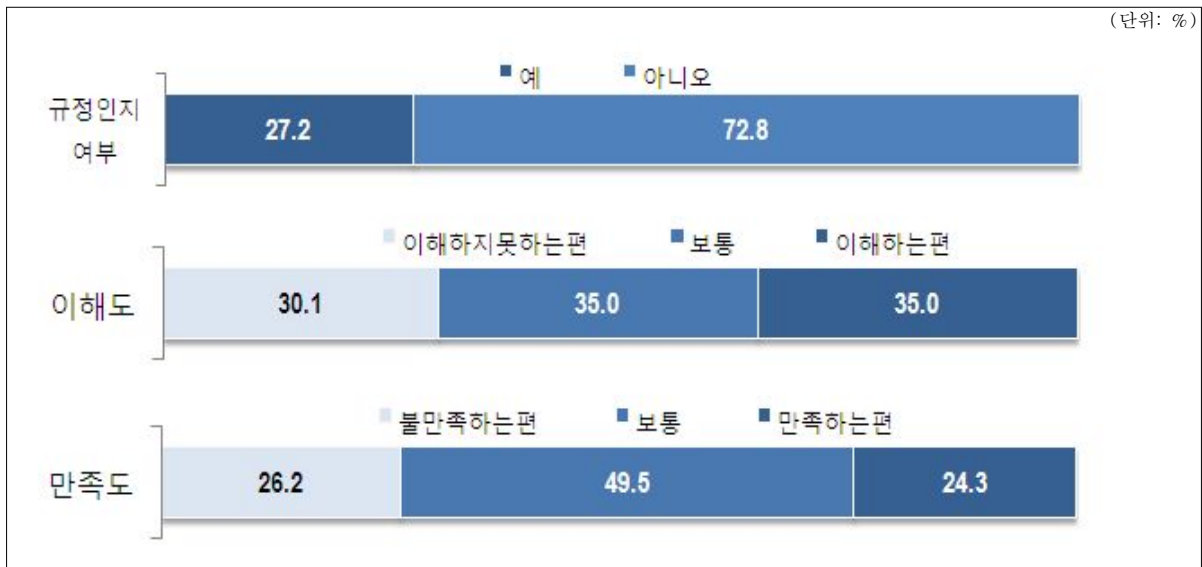
[표 97] 에스파냐어 규정3 만족도 집단별 특성

4

“에스파냐어에서 ‘z’는 ‘s’으로 표기한다.”

규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27.2%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답한 사람들(72.8%)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해도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라는 사람들이 30.1%, 보통이라는 사람들이 35%, 이해하는 편이라는 사람들의 비율이 35.5%로 집계되었다. 만족도에 있어서 불만족하는 편이라는 사람들의 비율이 26.2%, 보통은 49.5%, 만족하는 편이라는 사람들의 비율은 24.3%로 나타났다. 이 규정을 비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이해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인문계열 전공에서 (43.9%), 만족 정도는 비언론인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60.0%)되었다.

한편, ‘베네수엘라/베네주엘라’ 표기에 있어서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베네수엘라 표기를 선택하여 규정에 대한 지식은 없으나 언중이 이미 올바른 표기에 익숙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규정과 상관없이 해당 용례가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에 따라 표기의 선호도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 71] 에스파냐어 규정 4에 대한 인지도·이해도·만족도 비율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39.8	60.2	100.0
■ 성 별 ■	남성	(55)	40.0	60.0	100.0
	여성	(48)	39.6	60.4	100.0
■ 연 령 ■	20대미만	(36)	33.3	66.7	100.0
	30대	(34)	41.2	58.8	100.0
	40대	(20)	50.0	50.0	100.0

	50대이상	(11)	45.5	54.5	100.0
■ 직업 ■	아나운서	(24)	29.2	70.8	100.0
	신문기자	(29)	51.7	48.3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0	60.0	100.0
	국어교사	(25)	36.0	6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41.5	58.5	100.0
	비언론인	(50)	38.0	62.0	100.0
■ 전공 ■	인문계열	(66)	39.4	60.6	100.0
	사회과학계열	(26)	46.2	53.8	100.0
	기타	(8)	37.5	62.5	100.0

[표 98] 에스파냐어 규정4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8.7	14.6	36.9	24.3	15.5	100.0
■ 성 별 ■	남성	(55)	12.7	18.2	29.1	29.1	10.9	100.0
	여성	(48)	4.2	10.4	45.8	18.8	20.8	100.0
■ 연 령 ■	20대미만	(36)	2.8	11.1	38.9	25.0	22.2	100.0
	30대	(34)	14.7	14.7	35.3	29.4	5.9	100.0
	40대	(20)	5.0	25.0	35.0	20.0	15.0	100.0
	50대이상	(11)	9.1	9.1	36.4	18.2	27.3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6.7	29.2	29.2	16.7	8.3	100.0
	신문기자	(29)	6.9	13.8	37.9	17.2	24.1	100.0
	출판사종사자	(25)	12.0	4.0	48.0	32.0	4.0	100.0
	국어교사	(25)	0.0	12.0	32.0	32.0	2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11.3	20.8	34.0	17.0	17.0	100.0
	비언론인	(50)	6.0	8.0	40.0	32.0	1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0	12.1	36.4	28.8	19.7	100.0
	사회과학계열	(26)	19.2	19.2	30.8	19.2	11.5	100.0
	기타	(8)	12.5	25.0	50.0	12.5	0.0	100.0

[표 99] 에스파냐어 규정4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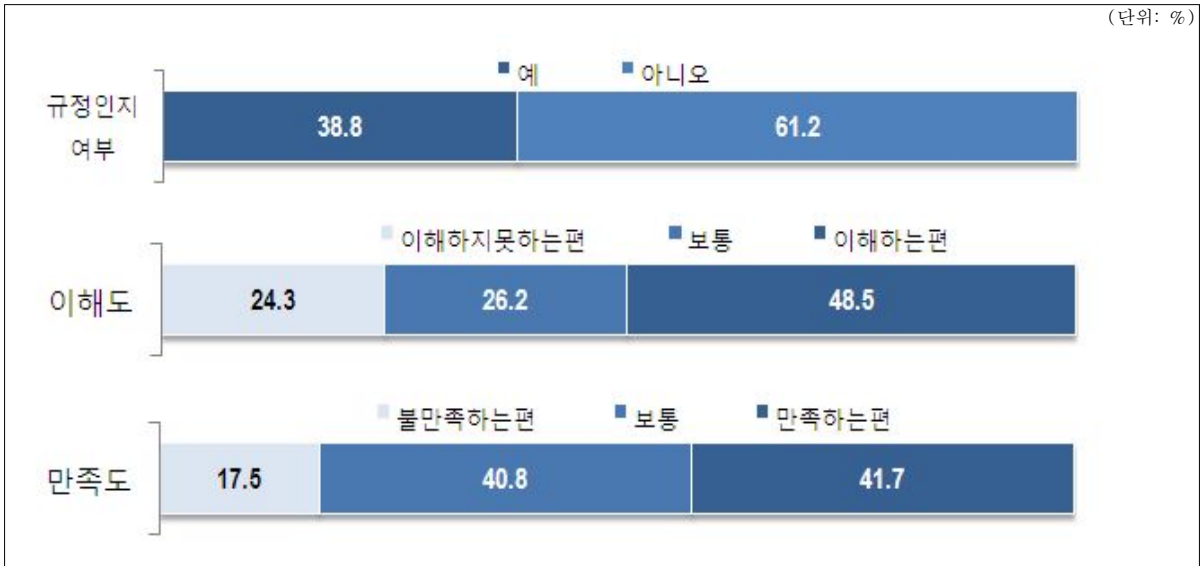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6.8	19.4	49.5	13.6	10.7	100.0
■ 성 별 ■	남성	(55)	10.9	20.0	43.6	9.1	16.4	100.0
	여성	(48)	2.1	18.8	56.3	18.8	4.2	100.0
■ 연 령 ■	20대	(36)	0.0	25.0	52.8	11.1	11.1	100.0
	30대	(34)	5.9	14.7	58.8	14.7	5.9	100.0
	40대 이상	(31)	12.9	19.4	35.5	16.1	16.1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2.5	25.0	45.8	12.5	4.2	100.0
	신문기자	(29)	10.3	20.7	34.5	13.8	20.7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16.0	60.0	16.0	4.0	100.0
	국어교사	(25)	0.0	16.0	60.0	12.0	12.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11.3	22.6	39.6	13.2	13.2	100.0
	비언론인	(50)	2.0	16.0	60.0	14.0	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7.6	12.1	50.0	13.6	16.7	100.0
	사회과학계열	(26)	3.8	30.8	46.2	19.2	0.0	100.0
	기타	(8)	0.0	37.5	62.5	0.0	0.0	100.0

[표 100] 에스파냐어 규정4 만족 정도 집단별 특성

5

“c와 g앞에 오는 n은 받침 ‘ㅇ’으로 적는다.(예:blanco 블랑코)”

규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38.8%, 알지 못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61.2%로 나타났다. 이해도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라는 사람들의 비율은 24.3%, 보통이라는 사람들은 26.2%, 이해하는 편이라는 사람들은 48.5%로 조사되었다. 만족도에 있어서 불만족하는 편이라는 사람들은 17.5%, 보통은 40.8%, 만족하는 편이라는 사람들의 비율은 41.7%로 조사되었다. 인문계열 전공자에서 이해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57.6%),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신문기자 직종에서 높게 나타났다. 본 규정에 해당하는 적절한 용례가 없어서 용례설문은 하지 않았다.



[그림 72] 에스파냐어 규정 5에 대한 인지도·이해도·만족도 비율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27.2	72.8	100.0
■ 성 별 ■	남성	(55)	25.5	74.5	100.0
	여성	(48)	29.2	70.8	100.0
■ 연 령 ■	20대미만	(36)	22.2	77.8	100.0
	30대	(34)	26.5	73.5	100.0
	40대	(20)	30.0	70.0	100.0
	50대이상	(11)	45.5	54.5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25.0	75.0	100.0
	신문기자	(29)	37.9	62.1	100.0
	출판사종사자	(25)	28.0	72.0	100.0
	국어교사	(25)	16.0	8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2.1	67.9	100.0
	비언론인	(50)	22.0	7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28.8	71.2	100.0

	사회과학계열	(26)	34.6	65.4	100.0
	기타	(8)	0.0	100.0	100.0

[표 101] 에스파냐어 규정5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6.8	23.3	35.0	14.6	20.4	100.0
■ 성 별 ■	남성	(55)	9.1	27.3	30.9	16.4	16.4	100.0
	여성	(48)	4.2	18.8	39.6	12.5	25.0	100.0
■ 연 령 ■	20대미만	(36)	0.0	25.0	41.7	8.3	25.0	100.0
	30대	(34)	11.8	17.6	32.4	23.5	14.7	100.0
	40대	(20)	5.0	30.0	35.0	10.0	20.0	100.0
	50대이상	(11)	9.1	27.3	18.2	18.2	27.3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2.5	37.5	29.2	12.5	8.3	100.0
	신문기자	(29)	6.9	17.2	27.6	17.2	31.0	100.0
	출판사종사자	(25)	8.0	12.0	56.0	16.0	8.0	100.0
	국어교사	(25)	0.0	28.0	28.0	12.0	32.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4	26.4	28.3	15.1	20.8	100.0
	비언론인	(50)	4.0	20.0	42.0	14.0	2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0	21.2	31.8	16.7	27.3	100.0
	사회과학계열	(26)	15.4	26.9	34.6	11.5	11.5	100.0
	기타	(8)	0.0	37.5	50.0	12.5	0.0	100.0

[표 102] 에스파냐어 규정 5 이해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6.8	19.4	49.5	13.6	10.7	100.0
■ 성 별 ■	남성	(55)	10.9	20.0	43.6	9.1	16.4	100.0
	여성	(48)	2.1	18.8	56.3	18.8	4.2	100.0
■ 연 령 ■	20대미만	(36)	0.0	25.0	52.8	11.1	11.1	100.0
	30대	(34)	5.9	14.7	58.8	14.7	5.9	100.0
	40대	(20)	15.0	25.0	30.0	15.0	15.0	100.0
	50대이상	(11)	9.1	9.1	45.5	18.2	18.2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2.5	25.0	45.8	12.5	4.2	100.0
	신문기자	(29)	10.3	20.7	34.5	13.8	20.7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16.0	60.0	16.0	4.0	100.0
	국어교사	(25)	0.0	16.0	60.0	12.0	12.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11.3	22.6	39.6	13.2	13.2	100.0
	비언론인	(50)	2.0	16.0	60.0	14.0	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7.6	12.1	50.0	13.6	16.7	100.0
	사회과학계열	(26)	3.8	30.8	46.2	19.2	0.0	100.0
	기타	(8)	0.0	37.5	62.5	0.0	0.0	100.0

[표 103] 에스파냐어 규정5 만족도 집단별 특성

4. 에스파냐어 표기 규범에 제안할 만한 사항

1) 원지음 반영

아직 에스파냐어는 일반 대중에게 친숙한 편이 아니지만 에스파냐어 발음 지식을 갖고 있는 화자들은 표기 규정을 아는 것과 별개로, 실제 발음은 원지음에 가깝게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전공서적이나 번역서, 여행안내 책자 중에는 그렇게 표기하기도 한다. 비록 된소리가 첫 자음에 올 수 없다는 현 외래어 표기법 규정이 있으나 된소리 발음을 원래 음에 가깝게 표기할 수 있다는 한국어 자음의 장점이나 요즈음 일부 언어에 대해 원지음 중심 표기를 인정하는 추세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에스파냐어 표기 역시 실제 발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것이 어떠할지 조심스레 제안해본다.

2) 스페인/에스파냐 대중 선호도 조사 필요

일반 대중은 물론 전공자조차도 에스파냐라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기보다는 스페인으로 부르거나 적는 것이 더 익숙하다. 비록 성문화된 규정은 아니라고 하나, 연구자가 초기에 제출한 설문 문항에서 '에스파냐'와 '스페인' 표기의 인지도와 수용도 측정 문항이 삭제된 것은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에스파냐어 표기 규범에 대해서는 다른 언어권에 비해 인지도와 수용도가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언어와 국가명칭의 규정상 표기부터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였다면 보다 유의미한 결과 평가 및 제안서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해당 어휘에 대한 조사와 연구결과가 차후에라도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3) 개선 방안 논의

(1) 설문조사의 취지와 용례선정 문제

본 설문조사는 외래어 표기법 영향평가를 주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본 연구자는 에스파냐어 표기법 규정의 타당성을 검증할 목적 역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규정과 용례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설문대상자들이 해당언어를 잘 모르는 일반인과 전문가들로 대부분 구성된 관계로 외래어 표기법 규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설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에스파냐어 표기법 규정 중 원지음에 충실하지 않은 규정 1 <파열음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의 경우, 에스파냐어를 알고 있는 전문가라면 “까사 블랑까”, “돈 기호페”, “따꼬”와 같은 된소리 표기를 선호했을 것이나, 대부분의 설문대상자들은 된소리로 표기를 선택한 경우가 20% 미만으로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즉, 일반인이나 전문가 모두 규정 1에 충실하여 된소리를 쓰지 않는 용례를 선택한 결과 정인지율이 80% 이상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로, 규정 2 <II의 ‘이, 니, 오, 우’는 다른 모음과 결합할 때 1음절로 적는다> 역시 에스파냐 표준발음에 충실하지 않은 규정이어서, 에스파냐어를 알고 있는 전문가라면 “라마”, “세빌라”로 표기한 용례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이러한 표기를 선택한 본 설문 대상자들은 전문인과 일반인 모두 5% 미만으로 극히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본 설문이 일반인이든, 전문이든 간에 모두 에스파냐어를 잘 알지 못하는 대상자들로 구성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설문을 통하여, 에스파냐어 표기법의 영향보다는 대중 매체를 통한 용례의 노출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도 인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의 설문대상자들이 에스파냐어 표기법 규정이나 원지음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오인지 용례[예: ‘데킬라’(전문인: 85.4%, 일반인: 62.9%)와 ‘라마’(전문인: 79.6%, 일반인: 63.8%)]를 선택했다는 점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국민들이 해당 언어를 잘 모르더라도 대중매체에 노출되는 표기에 충실히 따른다는 ‘학습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대중매체나 인터넷에는 ‘데킬라’와 ‘라마’라는 잘못된 표기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이번 설문조사를 통하여 일반국민들은 대중매체를 통한 용례 표기의 노출도와 익숙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요약하자면, 본 설문결과에서는 실제 표기 규범에 맞지 않으나 이미 굳어진 기업 명칭이나 상표명, 동물명으로 인해 오류를 발생하는 예들도 목격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외래어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 올바른 외래어 표기 규범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거나, 가능한 경우 상용 중인 명칭을 바꾸는 등의 방법을 통해 대중들에게 올바른 외래어 표기에 자주 노출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2) 표기법 규정의 타당성

현행 외래어 표기법 규정이 원음 표기주의를 충실히 따르고자 한다면, 해당 언어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표기법 규정과 용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언어의 표기법 규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2.5. 이탈리아어

3.2.5.1. 설문 구성의 개요

국립국어원에서 규정한 외래어 표기 규범 중, 이탈리아어 표기 규정에 상응하는 이탈리아 지명, 인명, 음식명을 용례로 선정하였다. 또한 원음과 다르게 표기 되어지는, 애매하고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는 이탈리아어 표기법 규정을 설문규정에 넣음으로서 이탈리아어 표기 규범의 인지도와 이해도 및 만족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규정 1: 규정과열음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해당 용례: 파스타(pasta), 포르테(forte)
- 문제점: 원음표기를 따른다면 된소리 표기를 허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한다.
빠스따(pasta), 포르떼(forte)

<규정 2: ‘z’를 [츠]로 표기한다.>

- 해당 용례: 베네치아(Venezia), 피렌체(Firenze)
- 문제점: 원음표기를 따른다면 ‘z’를 [짜]가 되어 ‘베네찌아’, ‘피렌제’로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위의 외래어 표기 규정으로 베네치아, 피렌체로 표기 및 사용되어지고 있다.
- 참고: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어 전공자들까지도 위의 표기규정 때문에 ‘Venezia’, ‘Firenze’를 베네치아, 피렌체라고 발음하며, ‘Venecia’와 ‘Firence’로 잘 못 쓰는 경우가 있다.

<규정 3: 같은 자음이 겹쳤을 때에는 겹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적는다. 다만, -mm-, -nn-의 경우는 ‘ㅁㅁ’, ‘ㄴㄴ’으로 적는다.>

- 해당 용례: 푸치니(Puccini), 스파게티(Spaghetti)
- 문제점: 원음표기를 따른다면 ‘푼치니’ 혹은 ‘스파갯티’라고 해야 한다. 외래어 표기규정에서는 같은 자음이 겹쳤을 때와 겹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주지 않고 있다.

<규정 4: c와 g 다음에 ia, io, iu가 올 때에는 각각 ‘차, 초, 추’, ‘자, 조, 주’로 적는다.>

- 해당 용례: 자코모(Giacomo), 돈 조반니(Don Giovanni)
- 문제점: 원음표기를 따른다면 ‘자코모’ 혹은 ‘돈 조반니’라고 해야 한다.

<규정 5: 이탈리아 내에서 쓰이는 낱말(이주민의 이름 등)이라도 원래 이탈리아어가 아니면 그것이 실제로 속하는 언어의 표기 원칙을 따른다.>

해당 용례: 없음

<관련규정 없음>

- 해당 용례: 피자(Pizza), 구찌(Gucci)
- 문제점: Pizza는 원음표기로는 ‘핏자’ 혹은 ‘피차’, 외래어표기로는 규정2에 따라 ‘피차’가 된다. ‘Gucci’도 원음표기로는 ‘구치’, 또한 국립국어원 외래어용례표기에도 외래어표기규정을 따르면서 ‘구치’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상표명으로 ‘구찌코리아’로 되어 있어 ‘Gucci’는 ‘구찌’로 표기 하는 것이 맞는 규정이다.
- 참고: 언론에서는 ‘구치’로 사용되고 있어 ‘구찌’와 ‘구치’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3.2.5.2. 설문 결과 개요

1) 설문 결과

응답 비율	일반인		전문인	
	정인지	만족도	정인지	만족도
90% 이상	파스타(93.7%), 포르테(91.8%) 스파게티(90.3%) 베네치아(90.1%)	파스타(93.9%) 피자(91.4%) 포르테(90.9%)	파스타(99%) 스파게티(98.1%) 포르테(98.1%) 피자(97.1%) 베네치아(97.1%) 푸치니(97.1%) 피렌체(95.1%)	스파게티(96.1%) 파스타(94.2%) 베네치아(91.3%) 피렌체(91.3%) 포르테(90.3%)
80% 이상 90% 미만	피자(86.5%) 피렌체(84.6%)	베네치아(88.2%) 스파게티(87.8%) 피렌체(82.3%)	돈 조반니(86.4%) 자코모(84.5%)	피자(89.3%) 푸치니(89.3%) 구찌(88.3%) 자코모(73.8%)
70% 이상 80% 미만	구찌(82.7%) 푸치니(72.2%)	구찌(89.0%) 푸치니(74.3%) 자코모(71.0%)		돈 조반니(74.8%)
60% 이상 70% 미만	돈 조반니(66.9%) 자코모(66.3%)	돈 조반니(67.8%)	구찌(64.1%)	

[표 104] 이탈리아어 응답 비율별 용례

2) 설문 결과 개요

이탈리아어 용례에 대한 정인지율에서, 일반인의 경우 82.5%로 스페인어 58.5%, 프랑스어 76.5%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의 올바른 표

기에 대한 전체 만족도에 있어서는 83.7%를 기록하여 스페인어 59.4%, 독일어 54.3%, 영어 58.3%보다 훨씬 높은 분포를 보였다. 전문인이 올바른 표기를 맞춘 비율은 91.7%로 스페인어가 65.0%, 독일어 75.8%, 영어 79.1%로 프랑스어 92.1%와 함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인의 올바른 표기에 대한 만족도 역시 일본어가 91.5%를 제외한 기타의 언어에서 이탈리아어가 87.9%로 가장 높았다.

일반인들의 올바른 표기에 대한 정인지율과 만족도는 82.5%와 83.7%로 거의 차이가 없이 나타났다. 전문인의 경우에는 정인지율이 91.7%, 만족도가 87.9%로 일반인의 경우보다 정인지율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일반인의 경우에는 만족도가 정인지율보다 높고, 전문인의 경우에는 만족도가 정인지율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다른 외국어에 비해 일반인이나 전문인들의 이탈리아어 표기규정에 대한 인지율과 만족도가 높았다. 그 이유는 ‘파스타’와 ‘피자’, ‘스파게티’는 음식명, ‘포르테’는 자동차명 등 일상생활에 친숙하게 다가오는 어휘들이기 때문이다.

3.2.5.3. 설문 결과의 특징

1) 일반인의 정인지율의 경우 (참고: 일반인의 만족도 비율은 정인지 비율과 동일)

일반인의 정인지율의 경우 음식명과 자동차명 그리고 베네치아와 같은 도시명이 높게 나타났으며 인명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음식명의 경우 파스타, 스파게티, 피자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의 노출 빈도와 친숙도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참고: 파스타는 드라마명으로 사용.) 또한 ‘파스타’를 ‘빠스타’로 오인할 가능성이 적고, 상대적으로 ‘스파게티’는 ‘스파갯티’로 오인할 비율이 ‘파스타’보다는 높고, ‘핏자’와 ‘피차’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피자’보다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표명으로는 ‘포르테’가 ‘구찌’보다 약 9%정도 정인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포르테’의 광고를 통한 노출정도가 ‘구찌’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구찌’는 언론, 출판, 인터넷에서 ‘구치’와 혼용되어 사용되므로 정인지율이 낮게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2) 전문인의 정인지율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은 ‘구찌’의 정인지 비율이 64.1%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전문인들이 이탈리아어로 쓰인 ‘Gucci’를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구치’로 인지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인의 경우 정인지율과 만족도 비율이 거의 같게 나타난다. 하지만 ‘구찌’의 경우 만족도가 정인지율보다 24.2%가량 높다. 이는 외래어표기규정을 준수한 경우보다 원음표기주의에 따른 표현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푸치니’, ‘돈 조반니’, ‘자코모’에 대한 정인지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전문인이 이탈리아 인명(예술, 음악, 문학)에 대한 친숙도가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용례별 설문결과 특성

(1) 파스타(pasta)

전문인의 경우 파스타 표기의 인지도 및 만족도에서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인 파스타 용례의 경우 고졸 학력자 집단에서 정인지 및 만족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포르테(forte)

일반인의 경우 중졸이하의 학력자가 80.0%로 전체 평균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30대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중졸 이하의 학력자들은 다른 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동차에 관심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연령별로는 30대의 정인지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이유는 ‘포르테’라는 자동차의 준중형적 특성이 30대와 맞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전문인의 경우 포르테 표기 인지도 및 만족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베네치아(Venezia)

전문인의 경우 베네치아 표기 인지도 및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인의 경우에는 30대가 95.3%로 다른 계층보다 정인지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만족도의 경우 화이트칼라가 94.4%로 다른 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4) 피렌체(Firenze) (참고: 베네치아 설문결과와 동일)

전문인의 경우 피렌체 표기 인지도 및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인의 경우 피렌체의 경우 화이트칼라가 90.7%로 다른 계층에 비해 정인지 비율이 높았고, 만족도에 있어서는 30대(90.7%)에서 높게 나타났다.

(5) 푸치니(Puccini)

전문인의 경우 푸치니 표기의 인지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비언론인이 81.1%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경우 푸치니 표기의 경우 20대(81.7%), 화이트칼라(81.3%), 대졸 학력자(78.5%)에서 높았고, 만족도의 경우 전체 평균 비율에 대해 두드러지는 계층은 없었다.

(6) 스파게티(spaghetti)

전문인의 경우 스파게티 표기 정인지율은 집단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비언론인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경우 스파게티 용례에 있어서, 중졸이하 학력자가 76.7%로 전체 평균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의 경우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 자코모(Giacomo)

전문인의 경우 자코모 표기와 관련하여 인지도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30대 61.8%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경우 자코모 표기에 있어서, 60대 이상(54.4%), 중졸이하의 학력자(46.7%)에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돈 조반니(Don Giovanni)

전문인의 경우 돈 조반니 표기의 인지도 및 만족도에서 전체 평균 비율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인의 경우 돈 조반니 표기에 있어서, 30대(76.0%), 화이트칼라(77.6%)에서 정인지 비율이 전체 평균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만족도의 경우 블루칼라에서 만족한다는 비율이(84.1%)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9) 피자(Pizza)

전문인의 경우 피자의 정인지율에서 전체 평균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의 경우 비언론인이 96.0%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인의 경우 피자 표기는 전 응답자 군에서 85%내외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만족도의 경우 중졸이하의 학력자가 76.7%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구찌(Gucci)

전문인의 경우 구찌 표기의 인지율은 인문계열 전공자가 56.1%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일반인의 경우 구찌 표기의 경우 정인지 비율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만족도의 경우 인문사회과학 전공자들이 전체 평균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규정과 용례의 상관관계

(1) (전체 외래어) 일반규정에 대한 전문인 설문 결과

일반규정에 대해서 인지여부는 비언론인이 언론인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이 규정에 대한 만족정도는 인문계열 전공자가 다른 전공계열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여부는 비언론인이 전체 평균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에 있어서 국어교사가 다른 직업군에 만족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인문계열 전공자가 인지와 이해정도 및 만족도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2. 개별 표기 규정에 관한 설문 결과

1

“과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을 인지하는 비율은 68.0%, 그렇지 못한 비율은 32.0%로 나타났다.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편은 14.6%, 보통 25.2%, 이해하는 편은 60.2%로 조사되었다. 만족도에 있어서 불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23.3%, 보통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38.8%,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37.9%로 조사되었다.

비언론인(국어 교사 및 출판사 교열 종사자)에서 이해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았고(72.7%), 인문계열 전공자에서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48.5%) 높게 나타났다. 해당 용례로는 파스타, 포르테가 있다.

특이한 점은 본 규정에 대한 인식도(68.0%)나 만족도(76.7%보통 포함)에 비하여, 해당 용례에 대한 정인지율이 파스타(99%), 포르테(98.1%)로 높아 그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는 규정으로서의 외래어표기 인지보다는 광고나 TV드라마를 통한 규정의 간접적 인지와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한다.

2

“‘z’를 ‘츠’로 표기한다”

정인지 비율 42.7%, 비인지 비율 57.3%, 모름/무응답은 1.0%로 조사되어, 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해도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편은 17.5%, 보통 32.0%, 이해하는 편은 50.5%로 조사되었다. 만족도에 있어서는 불만족 18.4%, 보통은 49.5%, 만족하는 편은 32.0%로 집계되었다. 관련된 용례로는 베네치아, 피렌체가 있다. 비언론인에서 인지율이 높았고(70.0%), 인문계열 전공자들에게서 이해도가

높았다(42.4%).

본 규정이 이탈리아어 개별 표기에 대한 규정이므로 인지율이 낮다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반면, 용례의 인지도는 베네치아(97.1%), 피렌체(95.1%)로 관련 규정과 용례의 인지도 비율이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3

“같은 자음이 겹쳤을 때에는 겹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적는다, 다만, -mm-, -nn-의 경우는 '口口', 'ㄴㄴ'으로 적는다.”

정인지 비율 26.2%, 비인지 비율 73.8%로 나타났다. 이해도에 있어서 이해도는 27.2%, 보통 30.1%, 이해하는 편은 42.7%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있어서 불만족도의 비율은 19.4%, 보통 51.5%, 만족하는 편은 29.1%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비인지율이 높았고, 인문계열 전공자에서 이해하고 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48.5%). 해당 용례에서 인지율은 푸치니(97.1%), 스파게티(98.1%)로 매우 높았다. 이는 규정과 용례의 인지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4

“c와 g 다음에 ia, io, iu가 올 때에는 각각 '차, 초, 추', '자, 조, 주'로 적는다.”

정인지 비율은 34.0%로, 비인지 비율 66.0%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해도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라는 사람들이 26.2%, 보통이라는 사람들이 32%, 이해하는 편이라는 사람들의 비율이 41.7%로 집계되었다. 만족도에 있어서 불만족하는 편이라는 사람들의 비율이 24.3%, 보통은 51.5%, 만족하는 편이라는 사람들의 비율은 24.3%로 나타났다.

이 규정을 비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이해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인문계열 전공에서(43.9%), 만족 정도는 비언론인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60.0%)되었다. 관련용례인 자코모와 돈 조반니에서 정인지 비율은 각각 84.5%, 86.4%로 규정인지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규정과 용례는 상관관계가 없다.

5

“이탈리아 내에서 쓰이는 낱말(이주민의 이름 등)이라도 원래 이탈리아어가 아니면 그것이 실제로 속하는 언어의 표기 원칙을 따른다.”

정인지 비율은 35.0%, 비인지 비율은 65.0%로 나타났다. 이해도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라는 사람들의 비율은 25.2%, 보통이라는 사람들은 36.9%, 이해하는 편이라는

사람들은 37.9%로 조사되었다. 만족도에 있어서 불만족하는 편이라는 사람들은 25.2%, 보통은 41.7%, 만족하는 편이라는 사람들의 비율은 33%로 조사되었다. 인문계열 전공자에서 이해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57.6%),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신문기자 직종에서 높게 나타났다.

본 규정에 해당하는 적절한 용례가 없어서 용례설문은 하지 않았다.

3.2.5.4. 설문조사결과와 시사점

1) 규정과 용례 인지도 불일치: 언론, 출판, 방송매체의 표기규범 준수 중요성

한국인의 생활과 문화에 많이 침투해 있는 이탈리아어는 직접적인,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간접적인 노출도가 매우 높아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이는 규정과 상관없이 정인지율과 만족도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언론이나 출판을 통한 표기규범에 대한 준수여부를 권장하고 확인하는 것은 일반 대중들에게는 외래어 표기 규범에 대한 간접 홍보와 교육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 현재, 음식과 패션 그리고 커피관련 용어에서 이탈리아의 원음을 따른 표기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2) 관용표현의 인정범위(규범표기를 포기): ‘피자’의 경우

Pizza를 규범에 따라 표기한다면 ‘피차’가 된다. 하지만 ‘피자’가 이미 널리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피차’가 아닌 ‘피자’가 규범표기가 된다. 하지만 원음표기원칙을 따른다면 ‘피짜’ 혹은 ‘핏자’가 되어야 하며, 이 중에서 ‘핏자’는 실제 생활에서 많이 사용된다. 따라서 ‘관용어의 범위와 한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규범표기의 관용화: ‘베네치아’와 ‘피렌체’의 경우

원음표기를 따르면 각각 ‘베네찌아’와 ‘피렌체’이지만, 규범에 따른 표기가 관용화된 경우이다. 같은 도시를 두고 영어로는 ‘베니스’, ‘플로렌스’, 이탈리아로는 ‘베네치아’와 ‘피렌체’로 전공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상표등록을 규범 표기로 인정(규범표기의 대상): ‘구찌’의 경우

Guccio Gucci가 ‘구치오 구치’로 국립국어원에 외래어표기로 등록되어있어 Gucci는 ‘구치’가 규범표기라고 예상되지만 ‘구찌 코리아’로 상표등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규범표기로 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인정한다면 표기규범을 따르지 않고, 원음을 따라 표기한 수많은 상표들을 개별적으로 각각 인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3.2.6. 일본어

3.2.6.1. 설문 구성의 개요

1) 설문 목적

이 조사는 현행 일본어 외래어의 한글 표기 규범에 대한 전문인 및 일반 국민의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현행 일본어 표기 규범의 타당성 검증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일본어 규정과 용례 선정

현행 일본어 외래어의 한글 표기 규범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일반 규정 1개와 일본어 규정 6개를 선정하고, 각 규정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용례를 추출하였다. 또한, 일본어의 경우는 일본의 지명과 인명을 한글로 표기할 때 일본어 음대로 표기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한국식 한자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은지를 묻는 설문을 추가하였다

설문 내용	용례
1. 일본의 인명과 지명을 한글로 어떻게 적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일본어 음대로 적는다 ②우리식 한자음으로 적는다
2. 실제로 어느 표기를 사용하십니까?	①도쿄 ②동경 ①이토 히로부미 ②이등박문

[표 105] 일본의 지명과 인명의 한글 표기 방법에 대한 설문

규정	규정 내용	용례
일반 4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오키나와 ②오끼나와
일본어 1	일본어 어두의 유성파열음(ガ, 夕)과 무성파열음(カ, 夕)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한국어 평음(가, 다)으로 표기한다.	①기모노 ②키모노
일본어 2	일본어 'ジャ, ジュ, ジョ'를 '자, 주, 조'로, 'チャ, チュ, チョ'를 '차, 추, 초'로 표기한다.	①신주쿠 ②신쥬쿠

일본어 3	일본어 'ッ'를 '쓰'로 표기한다.	①쓰나미 ②츠나미
일본어 4	일본어의 우단음의 모음에 대해서 'ウ, ク, コ, フ, ム, ル'는 '우, 구, 누, 후, 무, 루'처럼 'ㅍ'로 표기하고 'ス, ズ, ツ'는 '스, 즈, 쓰'처럼 'ㅍ'로 표기한다.	①야스쿠니 ②야수쿠니
일본어 5	일본어 축음(ッ)은 받침 'ㅍ'으로, 발음(ン)은 받침 'ㄴ'으로 표기한다.	①홋카이도 ②혹카이도 ①삿포로 ②삽포로 ①신칸센 ②싱칸센
일본어 6	일본어의 장모음을 표기하지 않는다.	①오사카 ②오오사카 ①스모 ②스모오

[표 106] 일본어 외래어의 한글 표기 규정과 용례

각 규정에 따른 표기 용례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나, 언어권별로 용례 수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각 용례의 음성 조건(출현 위치, 변이음의 종류)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표기 규범에 대응되는 표기 형태는 복합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설문 조사에서는 대표적인 것을 하나만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일본어 규정 3의 경우 현행 규정에 맞는 표기인 '쓰나미'에 대응되는 표기는 '츠나미, 쓰나미, 쑤나미, 추나미, 쑤나미' 등과 같이 다양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대응 표기로서 '츠나미'를 선정하였다. 용례의 ①은 현행 표기 규범에 따른 표기이고 ②는 그에 대응되는 표기이다.

3.2.6.2. 설문 결과 개요

일본어 지명과 인명 등의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본어 음대로 적는다'(82.5%)가 '우리식 한자음으로 적는다'(2.9%)에 비해서 지배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로 일본어 음대로 표기한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도쿄 : 82.5%, 이토 히로부미 : 85.4%)도 한국식 한자음대로 표기한다고 대답한 사람(동경 : 2.9%, 이등박문 : 0%)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일본어 외래어의 한글 표기 규범에 대해서 구체적인 표기 규정 7개 항목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어 외래어의 표기 규정에 대한 인지도(일반인 83.3%, 전문인 95.7%)와 만족도(일반인 84.5%, 전문인 91.5%)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인의 인지도(83.3%)와 만족도(84.5%)에 비해서 전문인의 인지도(95.7%)와 만족도(91.5%)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과 전문인 모두에서 현행 일본어 표기 규정과 그에 따른 용례 표기 방식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이번 조사에서 표기 용례로 제시된 일본어 외래어의 일상생활에서의 노출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3.2.6.3. 설문 결과의 특징

이하에서는 일본어 외래어의 한글 표기 규범과 관련된 표기 규정과 용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일반인과 전문인의 용례 설문 결과와 전문인의 표기 규정과 용례의 상관관계로 나누어서 기술하고자 한다.

1) 일반인과 전문인의 용례 설문 결과의 특징

일반 규정4	과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일반규정) (용례 : ①오키나와 ②오끼나와)
-------------------	---

표기 용례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일반인의 경우에 현행 표기 규범에 따른 표기(오키나와)의 인지도는 73.9%, 만족도는 74.9%로 나타났으며, 정인지 비율에서는 중졸 이하의 학력자(50.0%)가 다른 계층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고, 만족도에서 있어서 연령에서는 30대(81.4%)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에서는 화이트칼라(86.3%)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일본어 어두의 유성과열음(カ, タ)과 무성과열음(カ, タ)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한국어 평음(가, 다)으로 표기한다. (용례 : ①기모노 ②키모노)
----------	--

이 규정의 용례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90.5%)와 만족도(91.6%)는 모든 집단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인의 인지도(99.0%)와 만족도(94.2%)가 모든 집단에서 일반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본어 ‘ジャ, ジュ, ジョ’를 ‘자, 주, 조’로, ‘チャ, チュ, チョ’를 ‘차, 추, 초’로 표기한다. (용례 : ①신주쿠 ②신쥬쿠)
----------	---

전문인의 인지도(96.1%)와 만족도(88.3%)가 일반인의 인지도(73.3%)와 만족도(80.0%)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인의 경우는 집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일반인의 경우는 정인지 비율에서는 60대 이상(60.3%)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고, 만족도에 있어서는 30대(86.0%)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일본어 ‘ッ’를 ‘쓰’로 표기한다. (용례 : ①쓰나미 ②츠나미)
----------	--------------------------------------

일반인의 경우에는 정인지 비율이 87.2%로 응답자군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만족도에 있어서는 화이트칼라(96.3%)와 인문사회과학 전공자(98.1%)에서 전체 평균 비율(90.5%)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인의 경우는 정인지 비율(90.3%)과 만족도(87.4%)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일본어의 우단음의 모음에 대해서 ‘ウ, ク, ヌ, フ, ム, ル’는 ‘우, 구, 누, 후, 무, 루’처럼 ‘ㅍ’로 표기하고 ‘ス, ズ, ツ’는 ‘스, 즈, 쓰’처럼 ‘ㅌ’로 표기한다. (용례 : ①야스쿠니 ②야수쿠니)

일반인의 경우는 정인지 비율(81.9%)에서 자영업자(75.0%)가 다른 계층보다 낮게 나타났고, 만족도(83.25)에서는 남성(86.9%)이 여성(79.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인의 경우는 정인지 비율(96.1%)과 만족도(94.2%)에서 전체적으로 일반인(81.9%와 83.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100%)이 여성(91.7%)에 비해서 정인지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만족도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 일본어 축음(ッ)은 받침 ‘ㅌ’으로, 발음(ン)은 받침 ‘ㄴ’으로 표기한다. (용례 : ①삿포로 ②삿포로, ①홋카이도 ②홋카이도, ①신칸센 ②신칸센)

먼저, 일본어 축음(ッ)의 한글 표기에 관해서 살펴보면 인지도와 만족도에서 일반인(삿포로 : 89.9%와 87.6%, 홋카이도 : 85.7%와 83.6%)에 비해서 전문인(삿포로 : 98.1%와 95.1%, 홋카이도 : 98.1%와 93.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인의 경우는 두 용례 모두 인지도와 만족도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인의 경우는 ‘삿포로’에서 60대 이상(82.4%), 중졸 이하 학력자(76.7%)의 정인지 비율이 다른 계층보다 낮고, 만족도에서는 30대(91.5%)와 화이트칼라(89.7%)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음에, 일본어 발음(ン)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축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문인의 정인지 비율(97.1%)과 만족도(94.2%)가 일반인(각각 81.1%와 81.5%)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인에서는 정인지 비율과 만족도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일반인의 경우는 화이트칼라(89.7%)가 다른 계층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고, 60대 이상(70.6%)과 중졸 이하 학력자(63.3%)에서 낮게 나타났다. 만족도에서는 60대 이상(72.1%)과 중졸 이하 학력자(66.7%)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어의 장모음을 표기하지 않는다.
(용례 : ①오사카 ②오오사카, ①스모 ②스모오)

인지도와 만족도에서 일반인(오사카78.3%와 81.9%, 스모90.7%와 89.9%)에 비해서 전문인(오사카93.2%와 90.3%, 스모 : 96.1%와 94.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인의 경우는 두 용례 모두 인지도와 만족도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인의 경우는 '오사카'에서 60대 이상(69.1%)과 중졸 이하 학력자(63.3%)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모'의 경우는 인지도와 만족도 모두 계층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전문인의 규정과 용례의 상관관계의 특징

외래어 규정에 대한 전문인의 인지도, 이해도, 표기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표 107>과 같다. 6개의 일본어 규정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43.3%로 규정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으며, 규정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 또한 평균 45.1%로 낮게 나타났다. 표기 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78.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일본어 규정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
1	45.6	52.4	74.7
2	41.7	42.7	77.7
3	40.8	43.7	76.7
4	37.9	38.8	83.0
5	37.9	42.7	82.5
6	56.3	50.5	76.7
평균	43.4	45.1	78.6

[표 107] 일본어 규정에 대한 전문인의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

한편, 외래어 규정에 따른 용례의 정인지 비율을 도표로 나타내면 <표 108>과 같다. <표 108>에 따르면 전문인 전체의 용례 문항에 대한 정인지 비율은 평균 95.7%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해당 규정을 인지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규정 관련 용례를 맞춘 평균 비율은 97.6%, 해당 규정을 이해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규정 관련 용례를 맞춘 평균 비율은 95.3%, 해당 규정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규정 관련 용례를 맞춘 평균 비율은 97.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일본어 규정에 대한 전문인의 인지도, 이해도가 5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난데 비해서(표 107), 일본어 규정에 따른 용례에 대한 정인지 비율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번 조사에서 표기 용례로 제시된 일본어 외

래어는 일상생활에서의 노출 빈도가 매우 높아 표기 형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규정 * 용례	용례	정인지	규정 인지	규정 이해	표기방식 만족
일반4 * 일어9	오키나와	93.2	94.2	95.7	92.7
일어1 * 일어1	기모노	99.0	100	98.1	100
일어2 * 일어5	신주쿠	96.1	100	97.7	100
일어3 * 일어3	쓰나미	90.3	97.6	93.5	94.1
일어4 * 일어4	야스쿠니	96.1	94.9	92.5	97.1
일어5 * 일어10	삿포로	98.1	97.4	95.5	100
일어5 * 일어6	홋카이도	98.1	97.4	95.5	100
일어5 * 일어7	신칸센	97.1	100	97.7	100
일어6 * 일어2	스모	96.1	98.3	96.2	100
일어6 * 일어8	오사카	93.2	96.6	90.6	94.7
평균		95.7	97.6	95.3	97.9

*정인지 : 전문인 전체 용례 문항 정인지 비율

*규정 인지 : 해당 규정을 인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규정 관련 용례를 맞춘 비율

*규정 이해 : 해당 규정을 이해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규정 관련 용례를 맞춘 비율

*표기방식 만족 : 해당 규정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규정 관련 용례를 맞춘 비율

[표 108] 외래어 규정에 따른 용례 정인지 비율(일본어)

3.2.7. 중국어

3.2.7.1. 설문 구성의 개요

1) 설문의 목적과 내용

외래어 표기 규범 영향 평가는 ‘국민의 외래어 표기 규범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외래어 표기 규정에 대한 인지도·이해도,·수용도 및 외래어 표기 용례에 대한 인지도·수용도를 조사’하고,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주요 국가의 외래어 표기 규범을 비교’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각 언어권의 설문 조사 내용을 취합하고 재구성하여 2010년 10월 15일부터 11월 2일까지 약 3주 동안 전문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 통하여 실시된 “외래어 표기 규정 및 용례에 대한 인지도·이해도·만족도 조사”는 외래어 표기 규정 영향 평가 용역의 사업 영역 중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와 관련된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7개 외국어별로 규정과 용례를 나누고 일반인 집단과 전문가 집단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규정에 대한 설문조사는 전문가 집단에만 실시하였고, 용례에 대한 설문조사는 일반인과 전문가 두 집단 모두에 실시하였다. 외래어 표기 규정에 대한 설문은 외래어 표기 전체에 해당하는 일반 규정 5개에 대한 설문 문항과, 7개 외국어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외국어별로 4개에서 7개 정도의 규정에 대한 설문 문항, 그리고 규정과 관련된 제안 3문항을 포함하여 총 45개 문항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외래어 표기 용례에 대한 설문조사는 7개 언어별로 각 10개의 설문 문항과 중국어와 일본어의 외래어에 대하여 우리 한자 음이나 해당 외래어 음으로 읽는 것에 대한 선호도 및 해당 용례 조사 설문 문항 각 3개를 포함하여 총 76개 문항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조사 내용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이었다. 첫째, 외래어 표기 인지 정도 측정인데 이것은 외래어 인지 및 만족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외래어 제시어를 주고 올바른 용례와 보기 좋거나 쓰기 편한 용례를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외래어 표기 관련 조사인데 이것은 외래어 규정에 대해 규정 인지 여부(이항 척도), 규정 이해정도(5점 척도), 표기 방식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를 전문가 집단만 응답하도록 설문을 구성한 것이었다. 자료의 처리 방법은 검증, 편집, 데이터 입력, 데이터의 오류 제거, 자료 분석 과정을 통해 최종 분석 결과물 제출하는 것이었다. 응답자 특성은 일반인의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표본 추출한 것이고, 전문가의 경우 아나운서, 신문기자, 국어교사, 출판사 편집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임의 할당 표본 추출한 것이다.

2) 중국어의 설문 구성

이 설문조사의 내용 중 중국어의 설문 구성은 중국어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규정 6개에 대한 설문 문항과 그 규정과 관련된 용례에 대한 설문 문항 10개, 그리고 우리 한자음과 중국어 음으로 읽은 것에 대한 선호도 및 용례 조사 3개 문항을 포함하여 총 19개에 대하여 진행되었다. 규정에 대한 설문 문항은 용례에 대한 설문 문항이 있는 것이 모두 4개이고, 용례에 대한 설문 문항이 없는 것이 모두 2개이다. 용례가 있는 규정 관련 설문 문항 중 1개는 일반 규정 1개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어에 특수한 규정에 관한 설문 문항은 모두 3개이다.

용례 9-1	①베이징 ②뻬이징 北京, Beijing	용례 9-2	①마오저둥 ②마오쩌둥 毛澤東, Mao Zedong
용례 9-3	①텐진 ②티엔진 天津, Tianjin	용례 9-4	①광조우 ②광저우 廣州, Guangzhou
용례 9-5	①리우더화 ②류더화 劉德華, Liu Dehua	용례 9-6	①위엔 ②위안 元, yuan
용례 9-7	①리롄제 ②리롄제 李連傑, Li Lianjie	용례 9-8	①청룽 ②청룽 成龍, Cheng Long
용례 9-9	①장쯔이 ②장찌이 章子怡, Zhang Ziyi	용례 9-10	①덩샤오핑 ②덩샤오핑 鄧小平, Deng Xiaoping

[표 109] 용례에 대한 설문 문항 중 중국어와 관련된 부분

표 109에 나타난 여러 규정들은 모두 중국어의 외래어 표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일반규정 1-4의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은 중국어뿐만 아니라 무성무기파열음이 있는 언어에 대부분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 일반규정 외에도 다른 일반 규정 네 가지가 중국어에 포괄적으로 적용되지만 그 내용을 모두 언급하지는 않겠다. 중국어는 유기파열음과 무기파열음이 음소적으로 대립하는 언어이다. 따라서 청각적 인상으로는 중국어의 무기파열음이 된소리로 표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지만 일반규정 1-4에 따라 중국어의 무기파열음은 된소리가 아닌 여린 소리로 표기하도록 되어있고 대립쌍이 되는 유기파열음은 거센소리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규정과 규정의 용례 적용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 항목에 포함하였다. 전문인을 대상으로는 규정과 용례 모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용례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되는 용례는 용례9-1 (뻬이징:뻬이징)이다.

중국어규정 8-1은 중국어 외래어 표기에 필수적인 중국어 성모 대조표의 이해와 관련된 규정이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기일람표의 표5에는 중국어의 성모 대조표 전

체가 나타나 있는데 이번 설문조사에는 용례와 관련된 성모 대조표 부분을 발췌하여 규정으로 표시하였다. 발췌된 부분은 한글 ‘ㄗ[즈], ㅈ[즈], ㅅ[스], ㅆ[쓰]’으로 표기할 수 있는 중국어 표기 ‘j, q, x, zh[zhi], ch[chi], sh[shi], z[zi], c[ci], s[si]’이다. 중국어의 이 발음은 현행 중국어 외래어 표기 규정에 따르면 일반규정 2의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으로, 규정과 규정의 용례 적용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서 이번 설문조사 항목에 포함하였다. 전문인을 대상으로는 규정과 용례 모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용례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되는 용례는 용례9-2(마오쩌둥:마오저둥), 용례9-9(장쩌이:장찌이)이다.

규정	내 용																													
일반규정 1-4	과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ㄱ/ㅋ/ㆁ, ㄷ/ㅌ/ㄴ, ㄹ/ㄹ/ㄴ과 같은 것을 과열음이라고 하며, 외래어 원음이 된소리처럼 들려도 된소리 글자로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중국어규정 8-1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대조표 (성모)</th> <th colspan="2">한어병음 자모</th> <th colspan="2">한글</th> </tr> </thead> <tbody> <tr> <td>j</td> <td>sh[shi]</td> <td>ㅈ</td> <td>ㅅ[스]</td> </tr> <tr> <td>q</td> <td>z[zi]</td> <td>ㅊ</td> <td>ㅆ[쓰]</td> </tr> <tr> <td>x</td> <td>c[ci]</td> <td>ㅅ</td> <td>ㅈ[즈]</td> </tr> <tr> <td>zh[zhi]</td> <td>s[si]</td> <td>ㅈ[즈]</td> <td>ㅆ[쓰]</td> </tr> <tr> <td>ch[chi]</td> <td></td> <td>ㅊ[츠]</td> <td></td> </tr> </tbody> </table>	대조표 (성모)	한어병음 자모		한글		j	sh[shi]	ㅈ	ㅅ[스]	q	z[zi]	ㅊ	ㅆ[쓰]	x	c[ci]	ㅅ	ㅈ[즈]	zh[zhi]	s[si]	ㅈ[즈]	ㅆ[쓰]	ch[chi]		ㅊ[츠]					
대조표 (성모)	한어병음 자모		한글																											
	j	sh[shi]	ㅈ	ㅅ[스]																										
q	z[zi]	ㅊ	ㅆ[쓰]																											
x	c[ci]	ㅅ	ㅈ[즈]																											
zh[zhi]	s[si]	ㅈ[즈]	ㅆ[쓰]																											
ch[chi]		ㅊ[츠]																												
중국어규정 8-2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대조표 (운모)</th> <th colspan="2">한어병음 자모</th> <th colspan="2">한글</th> </tr> </thead> <tbody> <tr> <td>단운모 e</td> <td>yan(ian)</td> <td>어</td> <td>옌</td> </tr> <tr> <td>단운모 wu(u)</td> <td>wei(ui)</td> <td>우</td> <td>웨이(우이)</td> </tr> <tr> <td>단운모 yu(u)</td> <td>weng(ong)</td> <td>위</td> <td>왕(웅)</td> </tr> <tr> <td>ou</td> <td>yuan(uan)</td> <td>어우</td> <td>위안</td> </tr> <tr> <td>ya(ia)</td> <td></td> <td>야</td> <td></td> </tr> <tr> <td>you(iu)</td> <td></td> <td>유</td> <td></td> </tr> </tbody> </table>	대조표 (운모)	한어병음 자모		한글		단운모 e	yan(ian)	어	옌	단운모 wu(u)	wei(ui)	우	웨이(우이)	단운모 yu(u)	weng(ong)	위	왕(웅)	ou	yuan(uan)	어우	위안	ya(ia)		야		you(iu)		유	
대조표 (운모)	한어병음 자모		한글																											
	단운모 e	yan(ian)	어	옌																										
단운모 wu(u)	wei(ui)	우	웨이(우이)																											
단운모 yu(u)	weng(ong)	위	왕(웅)																											
ou	yuan(uan)	어우	위안																											
ya(ia)		야																												
you(iu)		유																												
중국어규정 8-3	‘ㅈ, ㅆ, ㅊ’으로 표기되는 자음(j, zh, z, q, ch, c) 뒤의 ‘ㄴ, ㄷ, ㄹ, ㅁ’ 음은 ‘ㄴ, ㄷ, ㄹ, ㅁ’로 적는다.																													
중국어규정 8-4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중국어규정 8-5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규정관련제 안 8-6	한자 사용 지역(일본, 중국)의 지명이 하나의 한자로 되어 있을 경우, ‘강’, ‘산’, ‘호’, ‘섬’ 등은 겹쳐 적는다.																													

규정관련제 안 8-7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
-------------------	--

[표 110] 규정에 대한 설문 문항 중 중국어와 관련된 부분

중국어규정 8-2는 중국어 외래어 표기에 필수적인 중국어 운모 대조표의 이해와 관련된 규정이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기일람표의 표5에는 중국어의 운모 대조표 전체가 나와 있는데 이번 설문조사에는 용례와 관련된 운모 대조표 부분을 발췌하여 규정으로 표시하였다. 중국어의 운모는 그 숫자가 많고 복잡할 뿐 아니라 중국어의 알파벳 표기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가 비교적 어렵다. 발췌된 부분은 이 운모 표기 중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을 간추려 넣은 것이다. 중국어의 원래 발음을 생각하지 않고 중국어의 알파벳 표기만으로 외래어 표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응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쌍들이 대부분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위의 8-2규정의 ‘ou’의 외래어 표기는 ‘ㄴ우’이며, ‘iu’의 외래어 표기는 ‘ㅠ’이다. 전문인을 대상으로는 규정과 용례 모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용례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되는 용례는 용례9-3(텐진:티엔진), 용례9-4(광조우:광저우), 용례9-5(류더화:리우더화), 용례9-6(위안:위앤), 용례9-7(리렌제:리렌제), 용례9-8(청룽:청룽), 용례9-10(딩샤오팡:딩샤오팡)이다.

중국어규정 8-3은 ‘ㄐ, ㄑ, ㄒ’으로 표기되는 자음(j, zh, z, q, ch, c) 뒤의 ‘ㅏ, ㅑ, ㅓ, ㅕ’ 음은 ‘ㅓ, ㅑ, ㅓ, ㅕ’로 적는다’는 규정이다. 즉, 중국어 외래어 표기에 필수적인 중국어 성모, 운모 대조표를 이용하여 외래어 표기를 하였을 때, ‘ㄐ, ㄑ, ㄒ’와 ‘ㅏ, ㅑ, ㅓ, ㅕ’가 결합한 ‘자, 제, 주, 차, 체, 추’ 등이면 한글로 표시된 모음을 단모음 ‘ㅓ, ㅑ, ㅓ, ㅕ’로 적는 규정이다. 이것은 한국어에서 ‘자, 차’류와 ‘자, 차’류의 발음이 크게 차이나지 않고 ‘자, 차’ 등의 표기가 주는 복잡한 느낌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규정 8-1과 규정 8-2와는 관련이 없어서 외래어 표기법 제3장 표기 세칙의 제7절 중국어의 표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 표기 세칙의 적용으로 중국어의 외래어 표기는 시각적인 변별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기도 하고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규정이어서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설문을 실시한 것이다. 전문인을 대상으로는 규정과 용례 모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용례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되는 용례는 용례9-7(리렌제:리렌제)이다.

중국어규정 8-4는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는 규정이다.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오래된 지명이지만 현재 쓰이지 않고 현재는 ‘西安’으로 불리는 ‘長安’은 우리 한자음대로 ‘장안’으로 표기하고 ‘창안’으로 표기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공자의 고향으로서 역사적으로 오래된 지명이지만 현재까지도 쓰이는 지명인 ‘曲阜’은 중국어 음대로 ‘취푸’로 표기하고 ‘곡부’로 표기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 규정은 전문인을 대상으로 용례 없이 규정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국어 규정 8-5는 ‘중국어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 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는 규정이다. 과거인과 현대인을 나누는 기준은 현재 중국의 신해혁명(1911)인데, 중국어를 표기할 때 과거와 현재의 한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신해혁명이 발발한 해에 걸쳐 있는 ‘쑨원’, ‘장제스’, ‘마오쩌둥’은 중국어 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지만 해당하는 우리 한자음인 ‘손문’, ‘장개석’, ‘모택동’은 모두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도 표제어로 실려 있다. 한편 ‘공자’나 ‘맹자’와 같은 과거인은 ‘콩쯔’, ‘멍쯔’와 같이 중국어 음으로 표기하지 않으며, ‘후진타오’나 ‘윈자바오’와 같은 현대인은 ‘호금도’, ‘온가보’와 같이 우리 한자음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전문인을 대상으로 용례 없이 규정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규정 관련 제안 설문 문항인 8-6, 8-7는 각각 ‘한자 사용 지역(일본, 중국)의 지명이 하나의 한자로 되어 있을 경우, ‘강’, ‘산’, ‘호’, ‘섬’ 등은 겹쳐 적는다.’는 규정,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는 규정인데 특히 8-7은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의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규정 관련 제안 9번 설문 문항은 ‘f, v 등 국어에 없는 주요 외국어 음성을 적을 수 있는 한글 자모를 만들어서 실제로 외래어의 표기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예: file ‘퐁 ㅏ 일’ violin ‘바이올린’ 등)’이고 이 세 가지 규정 관련 제안은 모두 전문인을 대상으로 용례 없이 규정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2.7.2. 설문 결과 개요

1) 일반인 및 전문인 전체 결과

일반인 및 전문인 전체 결과를 보면 7개 외래어 표기 전체 문항에 대한 인지율에서 일반인은 68.61%, 전문인 84.09%로 전문인이 15.48%p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는 일반인 68.89%, 전문인 77.27%로 전문인이 8.38%p 높았다. 일반인 경우 올바른 표기에 대한 인지율과 만족도가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전문인은 정인지율에 비해 만족도 수준이 6.82%p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 언론, 출판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이 일반인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인지율을 보인 것은 예측 가능한 결과이지만, 전문인에게 정인지율보다 만족도 비율 낮게 나타난 것은 일반인은 외래어 표기에 그 표기가 익숙하여 알고 있으면 만족을 하는 반면, 전문인은 외래어 표기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기법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의 설문 조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일반인들은 외래어별 정인지 및 만족도가 전체 결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반면, 전문인은 전체 결과에서 나타난 낮은 만족도가 언어나 다른 분포를 보인다. 즉, 전문인의 경우 영어가 정인지율은 79.1%인데 반해, 그

표기에 만족하는 비율은 62.3%로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에스파냐어와 중국어가 정인지율과 만족도 비율의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것은 전문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언어이면서 연령 및 학습 과정에 따라 다르게 발음할 가능성이 높은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표 111와 표 112은 이 현상에 대한 개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 비율	일반인		전문인	
	정인지	만족도	정인지	만족도
90% 이상	(1) 뉴욕	(1) 뉴욕	(3) 뉴욕, 소시지, 선글라스	(1) 뉴욕
80% 이상 90% 미만			카세트, 로봇, (4) 하이라이트, 콘 텐츠	(1) 로봇
70% 이상 80% 미만	(1) 카세트	(1) 카세트	(1) 잉글리시	(2) 선글라스, 카세트
60% 이상 70% 미만	(3) 선글라스, 로봇, 하이라이트	(1) 선글라스,		(3) 소시지, 하이라이트
50% 이상 60% 미만	(1) 소시지	(4) 로봇, 하이라이트, 콘텐츠, 로브슨	(1) 더그아웃	(1) 잉글리시
50% 미만	(4) 콘텐츠, 더그아웃, 로브슨, 잉글리시	(3) 소시지, 더그아웃, 잉글리시	(1) 로브슨	(3) 콘텐츠, 더그아웃, 로브슨

[표 111] 영어의 응답 비율별 용례
(괄호 안은 개수, 굵은 글씨는 응답 비율의 차이가 큰 단어)

응답 비율	일반인		전문인	
	정인지	만족도	정인지	만족도
90% 이상			(8) 덩샤오핑, 베이징, 텐진, 장쯔이, 광저우, 위안, 마오쩌둥, 청룽	(5) 덩샤오핑, 베이징, 텐진, 장쯔이, 광저우
80% 이상 90% 미만	(2) 베이징, 장쯔이	(3) 베이징, 장쯔이, 텐진		(3) 마오쩌둥, 위안, 청룽
70% 이상 80% 미만	(1) 텐진		(1) 리렌제	(1) 리렌제
60% 이상 70% 미만	(1) 덩샤오핑	(3) 덩샤오핑, 류더화, 위안		(1) 류더화
50% 이상 60% 미만	(5) 마오쩌둥, 광저우, 류더화, 위안, 청룽	(2) 광저우, 청룽	(1) 류더화	
50% 미만	(1) 리렌제	(2) 마오쩌둥, 리렌제		

[표 112] 중국어의 응답 비율별 용례 (괄호 안은 개수)

표 113은 외래어별 정인지 및 만족도 차이의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중국어는 7개 외래어 중에서 가장 낮은 정인지 및 만족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전문인들이 일반인들보다 정인지율이 높기는 하지만 중국어의 외래어 표기에 더 많이 노출되었을 뿐이고 그 표기의 문제점 등 만족도는 일반인 수준임을 의미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것은 영어가 가장 익숙하고 상대적으로 에스파냐어와 중국어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에스파냐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정인지 및 만족도 차이	16.8	10.5	5.4	4.2	4.0	3.8	2.9

[표 113] 전문인의 외래어별 정인지와 만족도 차이의 순서

2) 우리 한자음과 외래어 음에 대한 선호도 및 용례조사

중국어는 한자를 표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이고, 일본어와 한국어는 한자어가 많은 언어이다. 중국어는 살아있는 언어로 그 한자음 역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중국어의 변화 속에서, 일본어와 한국어는 중국 특정 시기의 한자음을 차용한 후 그 한자음이 내부적으로 변화한 상태이므로 이 세 언어의 현재 한자음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외래어 표기에서 이러한 언어 현상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어의 모든 단어와 일본어 한자어의 경우 대부분 우리 한자음으로 표기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면 일본어의 ‘東京(とう-きょう)’와 ‘伊藤博文(いとうひろぶみ)’은 일본어 한자음의 원음에 가까운 ‘도쿄’와 ‘이토 히로부미’로 나타내거나 한국어 한자음인 ‘동경’과 ‘이등박문’으로 각각 나타낼 수 있다. 중국어의 ‘四川(Sichuan)’과 ‘蔣介石(Jiang Jieshi)’ 역시 중국어의 원음에 가까운 ‘쓰촨’과 ‘장제스’로 나타내거나 한국어 한자음인 ‘사천’과 ‘장개석’으로 각각 나타낼 수 있다.

		설문 문항	응답자	외래어 한자음	우리 한자음
6-1	선호도	일본어 인명의 우리 한자음 표기	일반인	55.6	42.5
			전문인	82.5	2.9
6-2	용례 (지명)	도쿄 : 동경	일반인	69.0	29.3
			전문인	82.5	2.9
6-3	용례 (인명)	이토 히로부미 : 이등박문	일반인	72.6	25.3
			전문인	85.4	0.0
8-1	선호도	중국어 인명의 우리 한자음 표기	일반인	31.2	68.2
			전문인	73.8	22.3
8-2	용례 (지명)	쓰촨 : 사천	일반인	30.9	68.8
			전문인	68.9	29.1
8-3	용례 (인명)	장제스 : 장개석	일반인	39.6	59.8
			전문인	71.8	26.2

[표 114] 우리 한자음과 외래어 한자음의 선호도

표 114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이와 관련된 설문 조사에서는 중국어와 일본어가 한국식 한자음 표기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중국어는 ‘중국의 인명과 지명을 한글로 어떻게 적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답으로 한국식 한자음으로 적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68.2%로 나타났지만, 일본어에 대한 유사한 질문에는 한국식 한자음으로 적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42.5%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 조사 결과는 실제 표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중국어는 선호도와 용례 모두에서 한국식 한자음으로 표시해야한다는 결과가 훨씬 높았고, 일본어는 그와 반대였다. 이 현상은 중국어의 경우 한국식 한자음을 선호하는 경향이 일본어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일본어의 경우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 규정에 따라 지명과 인명을 시대 구분 없이 모두 원음표기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중국어의 발음이 일본어의 발음에 비해 한글로 적어놓았을 때 생소하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보인다.

일반인의 경우 한자음 관련 용례를 살펴보면 ‘쓰촨’과 ‘사천’ 중 어떤 표기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사천’으로 표기한다는 응답이 68.8%로 나타났다. 대졸학력자가 61.0%로 다른 계층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대졸학력자의 경우 ‘쓰촨’으로 표기된 언론이나 저작물에 더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학력에 따라 ‘쓰촨’을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또한 대졸 이상 학력자 중에서 ‘장제스’가 ‘장개석’ 중 어떤 표기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장개석’으로 표기한다는 응답이 59.8%로 ‘장제스’로 표기한다는 응답보다 높았고, 20대 미만(49.5%)과 대졸 학력자(49.8%)가 다른 집단보다 ‘장개석’으로 표기한다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을 보면 언론이나 저작물에 노출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일본어의 경우 일반인과 전문인의 선호도 차이가 전문인의 비율이 더 높았을 뿐 선호하는 표기에는 차이가 없는 반면, 중국어의 경우에는 전문인의 한자음 선호도와 그에 따른 용례의 선택이 일반인과 정반대로 나타난다. 일반인의 경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국어 외래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언론이나 저작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일반인 중 고학력자보다 전문인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3) 전문인의 규정과 용례의 상관관계의 특징

중국어의 규정에 대한 인지도·이해도·만족도와 용례에 대한 인지도·만족도, 그리고 규정과 용례의 상호 관계를 이번 설문 조사에서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다. 중국어에 나타나는 개략적인 경향은 규정의 인지·이해·만족 정도와 용례의 인지도가 연관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전문인에게만 실시한 중국어의 규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 규정 1-4, 즉 ‘파열음 표기에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는 규정을 제외하고 용례가 있고 중국어에 특수한 규정은 인지도가 모두 30%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편 용례가 없는 중국어 지명, 인명, 관용 한자음 관련 규정 등은 60% 수준의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그러나 규정의 이해와 관계없이 용례에 대한 인지도는 대단히 높게 나타난다. 이 현상

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중국어의 경우 규정을 이해하기보다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대조표를 통해 기계적으로 외래어를 만들어 쓰는 경우이다. 이 경우 규정을 이해하느냐는 설문조사의 응답률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전문인의 경우 중국어 외래어 표기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용례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졌지만 그 규정은 잘 모르는 경우이다. 일반인의 경우 중국어 용례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는 반면 전문인은 언론이나 저작물에 더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높은 인지도를 보인다고 분석할 수 있다.

어떤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는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실험적으로 아래 표 115는 세계적인 인터넷 검색 도구인 Google사 사이트에서 설문 조사 항목에 있는 단어를 검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중국어는 한자음에 대한 선호도도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한자음에 대한 검색도 같이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용례	정인지	오인지	한국어 한자음	일반인		전문인	
				외래어	한국음	외래어	한국음
도쿄 : 동경	8,700	없음	7,830	69.0		82.5	
이토 히로부미 : 이등박문	166	없음	29	72.6		85.4	
쓰촨 : 사천	154	없음	6,310	68.8		68.9	
장제스 : 장개석	44	없음	95	59.8		71.8	

용례	정인지	오인지	한국어 한자음	일반인		전문인	
				인지도	만족도	인지도	만족도
광저우 : 광조우	14,000	30,700	없음	56.6	57.5	95.1	90.3
위안 : 위엔	6,870	36	없음	58.5	61.0	93.2	84.5
베이징 : 뻬이징 : 북경	5,780	68	6,020	85.7	85.1	91.7	93.2
장쯔이 : 장찌이 : 장자이	282	0	13	85.5	83.4	96.1	91.3
류더화 : 리우더화 : 유/류덕화	256	1	263	56.2	61.0	56.3	69.9
텐진 : 티엔진 : 천진	174	1,220	1,270	78.7	82.1	97.1	91.3
마오쩌둥 : 마오저둥 : 모택동	127	2	221	50.1	44.8	92.2	89.3
덩샤오핑 : 덩샤오핑 : 등소평	90	2	593	69.1	67.6	100.0	98.1
청룽 : 청롱 : 성룽	41	27	556	53.9	54.5	90.3	82.5
리렌제 : 리렌제 : 이연결	7	1	223	45.0	41.5	74.8	72.8

[표 115] 외래어의 노출 정도 (구글 검색 결과 횟수, 2010.11.30 현재, 단위: 천개)

표 116은 중국어 규정의 인지도·이해도·만족도와 중국어 용례의 인지도·만족도를 나타낸 것이다. 전문인의 인지도가 일반인의 인지도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규정에 대한 인지도와 용례와의 상관관계는 일반 규정 1-4를 제외한다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설문 문항 (규정에 맞는 용례를 왼쪽으로 정리함)		응답자	인지도	만족도	이해도
용례 9-1	베이징 : 빼이징	일반인	85.7	85.1	-
		전문인	91.7	93.2	-
규정 1-4	일반 4. 파열음 표기에 된소리를 쓰지 않음 (중국어의 무성무기파열음 ‘b’는 ‘ㄸ’이고 ‘ㅃ’이 아님)	전문인	83.5	38.8	67.0
용례 9-2	마오쩌둥 : 마오저둥	일반인	50.1	44.8	-
		전문인	92.2	89.3	-
규정 8-1	중국어 1. 성모 대조표의 이해 (성모 표기에서 설치성 파찰음 ‘z’는 ‘ㄷ’이고 ‘ㄸ’이 아님)	전문인	32.0	25.2	30.1
용례 9-3	텐진 : 티엔진	일반인	78.7	82.1	-
		전문인	97.1	91.3	-
규정 8-2	중국어 2. 운모 대조표의 이해 (운모 표기에서 제치류 결합운모 ‘ian’은 ‘ㄹ’이고 ‘ㅣ엔’이 아님)	전문인	31.1	28.2	21.4
용례 9-4	광저우 : 광조우	일반인	56.6	57.5	-
		전문인	95.1	90.3	-
규정 8-2	중국어 2. 운모 대조표의 이해 (운모 표기에서 복운 ‘ou’는 ‘ㅣ우’이고 ‘ㅜ우’가 아님)	전문인	31.1	28.2	21.4
용례 9-5	류더화 : 리우더화	일반인	56.2	61.0	-
		전문인	56.3	69.9	-
규정 8-2	중국어 2. 운모 대조표의 이해 (운모 표기에서 제치류 결합운모 ‘iu’는 ‘ㅍ’이고 ‘ㅣ우’가 아님)	전문인	31.1	28.2	21.4
용례 9-6	위안 : 위앤	일반인	58.5	61.0	-
		전문인	93.2	84.5	-
규정 8-2	중국어 2. 운모 대조표의 이해 (운모 표기에서 활구류 결합운모 ‘yuan’은 ‘ㄱ안’이고 ‘ㄱ앤’이 아님)	전문인	31.1	28.2	21.4
용례 9-7	리렌제 : 리렌제	일반인	45.0	41.5	-
		전문인	74.8	72.8	-
규정 8-2	중국어 2. 운모 대조표의 이해 (운모 표기에서 제치류 결합운모 ‘ian’은 ‘ㄱ’이고 ‘ㄱ’가 아님)	전문인	31.1	28.2	21.4
규정 8-3	중국어 3. ‘ㄷ, ㄸ, ㅌ’으로 표기되는 성모 뒤 운모 (‘ㅏ, ㅑ, ㅓ, ㅕ’이고 ‘ㅗ, ㅛ, ㅜ, ㅠ’가 아님)	전문인	34.0	38.8	31.1
용례 9-8	칭룽 : 칭룽	일반인	53.9	54.5	-
		전문인	90.3	82.5	-
규정 8-2	중국어 2. 운모 대조표의 이해 (운모 표기에서 함구류 결합운모 ‘uan’은 ‘ㅍ안’이고 ‘ㅍ앤’이 아님)	전문인	31.1	28.2	21.4

8-2	결합운모 'ong'은 'ㅇ'이고 'ㅇ'이 아님)				
용례 9-9	장쯔이 : 장찌이	일반인	85.5	83.4	-
		전문인	96.1	91.3	-
규정 8-1	중국어 1. 성모 대조표의 이해 (성모 표기에서 설치성 파찰음 'zi'는 '쯔'이고 '찌'가 아님)	전문인	32.0	25.2	30.1
용례 9-1	덩샤오핑 : 덩샤오핑	일반인	69.1	67.6	-
0		전문인	100.0	98.1	-
규정 8-2	중국어 2. 운모 대조표의 이해 (운모 표기에서 제치류 결합운모 'iao'는 '야오'이고 '야오'가 아님)	전문인	31.1	28.2	21.4
규정 8-4	중국어 4. 역사 지명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함)	전문인	63.1	41.7	59.2
규정 8-5	중국어 5. 인명의 과거인과 현대인 구분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중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함)	전문인	66.0	38.8	62.1
제안 8-6	규정 관련 제안 1. 한자 한 자인 지명 겹쳐 적기 (한자 사용 지역(일본, 중국)의 지명이 하나의 한자로 되어 있을 경우, '강', '산', '호', '섬' 등은 겹쳐 적음)	전문인	51.5	41.7	54.4
제안 8-7	규정 관련 제안 2. 관용 한자음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함)	전문인	66.0	48.5	60.2
제안 9	규정 관련 제안 3. 외래어 표기에 특수한 문자 제정 (f, v 등 국어에 없는 주요 외국어 음성을 적을 수 있는 한글 자모를 만들어서 실제로 외래어의 표기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예: file '풍 ㅣ 일' violin '바이 올린' 등))	전문인	16.5	20.4	46.6

[표 116] 중국어 규정·용례의 인지도·이해도·만족도

부록 1. 중국어의 성모표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기일람표, 표5 중국어의 주음부호(注音符號)와 한글 대조표)

성모(聲母)									
음의 분류	주음부호	한어병음 자모	웨이드식 로마자	한글	음의 분류	주음부호	한어병음 자모	웨이드식 로마자	한글
중순성 (重脣聲)	ㄅ	b	p	ㅂ	설면성 (舌面聲)	ㄐ	j	ch	ㄱ
	ㄆ	p	p'	ㅍ		ㄑ	q	ch'	ㅋ
	ㄇ	m	m	ㅁ		ㄒ	x	hs	ㅅ
순치성 (脣齒聲)	ㄈ	f	f	ㅍ	교설 첨성 (翹舌 尖聲)	ㄗ	zh [zhi]	ch [chih]	ㄱ [즈]
설첨성 (舌尖聲)	ㄊ	d	t	ㄷ		ㄘ	ch [chi]	ch' [ch'ih]	ㅋ [즈]
	ㄊ	t	t'	ㅌ		ㄑ	sh [shi]	sh [shih]	ㅅ [스]
	ㄋ	n	n	ㄴ		ㄱ	r [ri]	j [jih]	ㄴ [르]
ㄌ	l	l	ㄹ	설치성 (舌齒聲)	ㄗ	z [zi]	ts [tzü]	ㅈ [즈]	
설근성 (舌根聲)	ㄍ	g	k		ㄱ	ㄘ	c [ci]	ts' [tz'ü]	ㅋ [즈]
	ㄎ	k	k'		ㅋ	ㄑ	s [si]	s [ssü]	ㅅ [쓰]
	ㄏ	h	h	ㅎ					

부록 2. 중국어의 운모표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기일람표, 표5 중국어의 주음부호(注音符號)와 한글 대조표)

운모(韻母)									
음의 분류	주음부호	한어병음 자모	웨이드식 로마자	한글	음의 분류	주음부호	한어병음 자모	웨이드식 로마자	한글
단운 (單韻)	ㄚ	a	a	아	결 합 모	ㄚ	yai	yai	야이
	ㄛ	o	o	오		ㄚㄛ	yao (iao)	yao (iao)	야오
	ㄜ	e	ê	어		ㄚㄜ	you (ou, iu)	yu (iu)	유
	ㄝ	ê	e	에		ㄚㄝ	yan (ian)	yen (ien)	옌
	ㄨ	yi (i)	i	이		ㄚㄨ	yin (in)	yin (in)	인
	ㄨ	wu (u)	wu (u)	우		ㄚㄨ	yang (iang)	yang (iang)	양
	ㄨ	yu (u)	yü (ü)	위		ㄚㄨ	ying (ing)	ying (ing)	잉
복운 (複韻)	ㄚㄨ	ai	ai	아이	합 구 류 합 구 류	ㄨㄚ	wa (ua)	wa (ua)	와
	ㄚㄨ	ei	ei	에이		ㄨㄛ	wo (uo)	wo (uo)	워
	ㄚㄛ	ao	ao	아오		ㄨㄚㄨ	wai (uai)	wai (uai)	와이
	ㄚㄜ	ou	ou	어우		ㄨㄚㄨ	wei (ui)	wei (uei, ui)	웨이 (우이)
부성운 (附聲韻)	ㄚㄢ	an	an	안	합 구 류 합 구 류	ㄨㄚㄢ	wan (uan)	wan (uan)	완
	ㄚㄢ	en	ên	언		ㄨㄚㄢ	wen (un)	wên (un)	윈(운)
	ㄚㄢ	ang	ang	앙		ㄨㄚㄢ	wang (uang)	wang (uang)	왕
	ㄚㄢ	eng	êng	엥		ㄨㄚㄢ	weng (ong)	wêng (ung)	웡(웅)
권설운 捲舌韻	ㄚㄣ	er (r)	êrh	얼	합 구 류 합 구 류	ㄨㄚㄣ	yue (ue)	yüeh (üeh)	웨
결 합 운 모	제 치 류	ㄚㄚ	ya (ia)	야		ㄨㄚㄢ	yuan (uan)	yüan (üan)	위안
		ㄚㄚ	yo	요		ㄨㄚㄢ	yun (un)	yün (ün)	윈
		ㄚㄚ	ye (ie)	yeh (ieh)		예	ㄨㄚㄢ	yong (iong)	yung (iung)

부록 3. 중국어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 유형화: 규정별 (수정 및 보완)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 중국어의 경우 성조 기호를 적지 않는다(제3장 표기세칙과 관련)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 중국어는 표기세칙 규정(‘ㄐ, ㄑ, ㄒ’으로 표기되는 자음(j, zh, z, q, ch, c) 뒤의 ‘ㄗ, ㄘ, ㄙ, ㄥ’ 음은 ‘ㅈ, ㅊ, ㅌ, ㄱ’로 적는다)으로 여러 음소가 국어의 한 자모로 적는다. 예를 들면 zhang, jiang은 모두 ‘장’, zhong, jiong은 모두 ‘중’이다.

→ 충분히 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표기를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음. 예를 들어 ‘ou’를 ‘어우’로 표기한다면 ‘you’는 ‘여우’로 표기할 수 있고 발음도 유사하지만 ‘유’로 표기함.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 쟁점 사항 없음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무기무성음에 된소리를 써야 한다는 의견 다수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 이미 굳어진 외래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모호함. 특히 중국어는 한국 한자어와 중국 현지음과의 대응관계가 대단히 많이 존재함. 예를 들면 모택동-마오쩌둥, 남경-난징, 작장면-자장면-짜장면, 모태주-마오타이주, 오룡차-우룡차-우롱차. 인명, 지명과 관련하여서도 1) 공자-쿵쯔, 유비-류베이, 이백-리바이, 손문-쑤원, 모택동-마오쩌둥, 호금도-후진타오, 2) 열하-러허-승덕-칭더, 3) 황하-황허, 상해-상하이, 북경-베이징, 대만-타이완, 중국-중궈 등.

제2장 표기 일람표

→ 허용하는 음질의 개수가 적은 중국어는 한어병음-한글 대조표를 여러 외래어 표기 안에서 제 안하고 있으므로 용례 선정 시 반영이 용이함

→ 현재 외래어 표기규범 중국어 표기 일람표에 틀린 곳과 빠져있는 곳이 존재함

1. 운모표의 ‘yai’는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운모임.
2. 운모표의 ‘yu(u)’ 란은 ‘ü’가 첨가되어 yu(u, ü)로 기술되어야 함.
3. 운포표의 ‘yue(ue)’ 란은 ‘ü’가 첨가되어 yue(ue, üe)로 기술되어야 함.
4. 운모표의 ‘you(ou, iu)’ 란은 ‘ou’가 ‘유’가 아닌 ‘어우’로 표기되므로 빠져야 함.
5. 권설운모에 대한 표기 규정이 없음. 예를 들면 ‘huar’은 ‘화얼’, ‘hual’ ‘beir’은 ‘베이얼’, ‘bel’인지.

제3장 표기 세칙은 단순화 경향이 높음

제4장 인명, 지명의 표기의 원칙은 다소 자의적임

쟁점사항 일람

1. 분절음

- | | |
|-----------|-------------------------|
| - b, d, g | ㅂ, ㄷ, ㄱ - <ㅂ>, <ㄷ>, <ㄱ> |
| - f | ㅎ - <ㅍ> |
| - o | 워 - <오> |

- ong	옹 - <옹>
- ou	오우 - <어우>
- ia	이아 - <야/아>
- iao	야오 - <야오/아오>
- ie	이에 - <예/에>
- i(o)u	이우 - <유/우>
- ian	이엔/이앤 - <엔>
- iong	이옹 - <용>
- ua	우아 - <와>
- uo	우어 - <워>
- u(e)i	웨이/우에이/외이 - <우이>
- uan	우안 - <완>
- uang	우앙 - <왕>
- üe	위예 - <웨>
- üan	위엔 - <위안>

2. 음절수 및 음절 조합 표기의 문제: 원음 및 변별성을 중시하는 표기 방안은 중국어 한 음절에 최대 한국어 3음절(ruo:르우어)을 대응시키고, 정부안을 포함하여 간결함을 중시하는 안은 중국어 한 음절에 원칙적으로 한국어 1음절을 대응시키고(ruo:뤄) 부득이한 경우 최대 2음절 내에서 대응시킨다.

3. 한국 한자음 및 표기 세칙 문제: 한국 한자음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

3.2.8. 규정 관련 제안

1) 배경

외국과의 교류 및 방문이 늘고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외국어 지식이 보편화되었다. 이에 따라 원음에 대한 정보도 획득하면서 원음 표기 욕구도 증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국어원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원음 표기를 위한 자모 신설을 건의하는 민원서류가 적지 않게 접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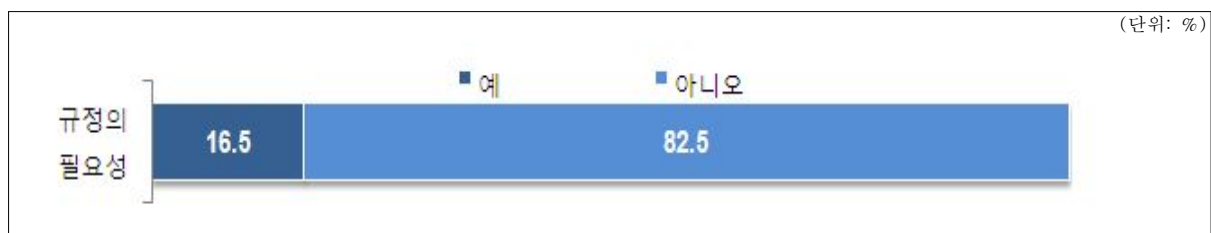
2) 의도

위와 같은 일각의 요구에 대해 어문정책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이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이 사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조사를 기획하였다.

3) 절차

일반인의 경우 어문정책에 대한 배경지식과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으므로 설문 의도를 더욱 잘 추론할 수 있는 집단인 전문인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4) 결과 해석



[그림 73] 자모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결과

우리에게 알려진 모든 언어들에서 자국어에 없는 음성을 표기하기 위한 자소를 규범화하지 않는 현실에 맞게 대다수 전문인들이 그러한 자모 신설에 반대하였다.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대다수 전문인들이 어문정책의 일반언어학적 기초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16% 정도의 전문인이 필요성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컴퓨터 등 산기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표기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수단을 제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강제적 어문규범화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의도가 파악되지 않았다.

제4장 주요 국가의 외래어 표기 규범 비교 조사

4.1. 영어권

한국어에서 영어와 관련된 외래어 표기의 역사는 외래어 표기법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데 영어교과서 이외의 교과서에서 영어 용례에 관한 편수의 역사다. 김수현(2002)에 나오는 영어 외래어 표기의 역사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기법 제정 이전>

다음

자료(연도)	유성과열음	마찰음[s]	마찰음[f][v]	유음[]	받침
국민소학독본 (1895)	‘ㅅ’계 합용병서	‘ㅅ’계 합용병서	[f]→ㅎ	어중ㄹ, ㄹㄹ, ㄹ s	7자음
독립신문 (1896-1899)	전반적으로평음, 간혹‘ㅅ’계 합용병서	전반적으로평음, 간혹‘ㅅ’계 합용병서		어중 ㄹㄹ	7자음
대한매일신보 (1903-1910)	전반적으로평음, 간혹‘ㅅ’계 합용병서	전반적으로평음, 간혹‘ㅅ’계 합용병서	[f]→ㅍ		7자음
청춘 (1914-1918)	전반적으로 ‘ㅅ’계 합용병서, 간혹평음표기	전반적으로 ‘ㅅ’계 합용병서, 간혹평음표기	[f]→ㅍ [v]→ㅂ		
개벽 (1920-1926)	전반적으로 ‘ㅅ’계 합용병서, 간혹평음표기	전반적으로 ‘ㅅ’계 합용병서, 간혹평음표기	[f]→ㅎ,ㅍ	어중 ㄹㄹ	7자음
동광 (1926-1933)	전반적으로 ‘ㅅ’계 합용병서, 간혹 각자병서	전반적으로 ‘ㅅ’계 합용병서, 간혹 각자병서	[f]→ㅍ [v]→ㅂ, ㅄ	어중 ㄹㄹ	7자음 ‘ㄷ,ㅍ,ㄹ’
조선일보 (1933,34,38)	각자병서 표기				7자음
동아일보 (1939)	각자병서 표기, 간혹 평음 표기	각자병서 표기, 간혹 평음 표기			7자음 ‘ㄷ,ㅍ’
모던조선외래어사 전 (1937)	각자병서 표기, 간혹 평음 표기	각자병서 표기, 간혹 평음 표기	[f]→ㅍ [v]→ㅂ	어중ㄹㄹ, ㄹ	7자음 ‘ㄷ,ㅋ,ㅌ,ㅍ,’
조선어사전 (1938)	각자병서 표기	각자병서 표기	[f]→ㅍ [v]→ㅂ	어중ㄹㄹ	7자음 ‘ㄷ,ㅋ,ㅌ,ㅍ,’

모음

자료(연도)	장모음	[ei]→[e]	[ə],[ʌ]→'ㅏ'	음운규칙
국민소학독본 (1895)				두음법칙 적용, 원순모음화 적용, 부적용 혼재
독립신문 (1896-1899)				
대한매일신보 (1903-1910)	동일 모음 반복			두음법칙 부적용, 원순모음화 적용
청춘 (1914-1918)				원순모음화 부적용
개벽 (1920-1926)	동일 모음 반복, 기호 '-' 사용	표기 존재	표기 존재	두음법칙 부적용, 원순모음화 적용
동광 (1926-1933)		표기 존재	표기 존재	두음법칙 부적용, 원순모음화 적용, 부적용 혼재
조선일보 (1933,34,38)	주요 기호 '-' 사용, 간혹 동일 모음 반복			두음법칙 부적용, 원순모음화 반영
동아일보 (1939)	동일모음 반복 주요 '-' 사용			두음법칙 부적용
모던조선외래어 사전 (1937)	기호 '-' 사용	표기 존재	표기 존재	두음법칙 부적용, 원순모음화 반영
조선어사전 (1938)		표기 존재	표기 존재	두음법칙 부적용, 원순모음화 주로 반영

<표기법 제정 이후>

규정(연도)	기본원칙	자음	모음	관용	기타
외래어 표기법통일안 (1941)	표음주의 한글의 자모와 자형만 사용 만국음성기호를 표준으로 함	[f]→ㅍ, [v]→ㅂ, [l],[r]→ㄹ 받침은 대표음		인정	
들온말 적는법 (1948)	철저한 원음주의	[f]→ㅍ [ʒ], [z]→ㅈ [l]→ㄹ 된소리 인정	장모음 인정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 (1959)	한글 24자모만 사용 1음운 1기호 표기 ㅂ,ㅅ,ㄱ,ㅁ,ㄴ,ㅇ,ㄹ만 받침 사용		동일모음 반복원칙	인정	영어/미어 따로표기
외래어 표기법 (1986)	한글 24자모만 사용 1음운 1기호 표기 ㄱ,ㄴ,ㄹ,ㅁ,ㅂ,ㅅ,ㅇ만 받침 사용			인정	

영어에서 외래어에 해당하는 어휘는 차용어(loanword)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filter*-여과기, *agenda*-의제 등과 같이 그 의미를 번역하는 translation(借譯)이 있고, *filter*-필터, *agenda*-아젠다 등과 같이 대응 문자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표기하는 transliteration(借字)이 있으며, *filter*-휠터, *agenda*-어젠더 등과 같이 발음을 표기하는 transcription(借音)이 있다.

이와 같은 외래어의 수용 방식 분류와는 달리 영어에는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개념이 없다. 외국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로마자로 표기되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또는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고 영어의 직관에 맞게 발음한다. 미국의 경우 이민자의 국가이고 미국 그 자체가 세계를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로서 세계를 경영하게 되면서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다. 보통의 미국인들은 직관에 의존해서 발음을 하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또는 정확한 발음을 사용하고 전달해야 하는 사람들은 지식의 정도와 원어에 대한 태도에 따라 발음을 다르게 하기도 한다.

영어에서 외래어 표기법의 역사는 없다. 다만 수용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비영어권 지명은 자기들 마음대로 영어 단어화해서 사용한다. Napoli를 Naples로, München을 Munich로, Moskva를 Moscow로 표기한다. 둘째, 로마자 문화권의 언어 표기를 그대로 수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라틴어에서 온 것으로 etc. i.e., vice versa, ad hoc, ad lib, bona fide 등이 있고 불어에서 온 것으로 naïve, cliché, buffet, gourmet 등이 있다. 기껏해야 출판물에서 이탤릭체로 나타내는 것이 전부다. 셋째, 비로마자 문화권의 로마자 표기법을 그대로 수용하기도 한다. 한국의 로마자표기법이나 중국의 한어병음이 여기에 속한다. 넷째, 비로마자 문화권의 개인이 사용한 자의적인 로마자 표기를 그대로 수용한다. 예를 들면 한국어 여권 이름이 있다. 다섯째, 영어권 학자나 전문가가 고안한 비로마자 언어권의 로마자 표기를 그대로 수용하기도 한다. 예로는 Samuel Martin(1951)이 만든 Yale 표기법과 McCune과 Reischauer가 만든 McCune-Reischauer 표기법이 있다. 전자는 미국에 유학하는 언어학 전공자들이 한국어를 표기할 때 거의 예외 없이 사용하고 있고 후자는 로마자 표기법 논란에서 많이 언급된 바 있다.

요약하면 영어는 외래어 규범의 역사도 없고 담당하는 정부 기구도 없다. 다만 사전을 출판하는 출판사나 학회 또는 개인이 각자의 기준에 따라 그 기원을 표시할 뿐이다. 예를 들면 Oxford English Dictionary와 Merriam-Webster Dictionary의 경우 표제어 아래에 [ORIGIN]이라는 설명 항목을 두어 외래어라는 사실과 동시에 그 기원을 밝히고 있다.

4.2. 독일

4.2.1. 독일어에서 외래어 표기법의 특징

독일어 맞춤법의 경우 외래어 표기규범을 따로 분리해 두고 있지 않다. 전체 독일어 맞춤법규정에서 외래어 문제를 함께 다루고 필요한 경우 해당 항목을 두고 있다. 이것이 독일어권에서 외래어에 대한 비중이 낮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독일어에서도 주변 국가의 언어들과 많은 접촉현상이 일어나 외래어에 대한 처리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으로 독일어권에서는 <외래어사전>이 따로 존재한다. 고유어 사전과 더불어 외래어만을 모아놓은 사전이 있을 만큼 외래어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오늘날 언어접촉 Sprachkontakt 현상은 나날이 빈번해져 어느 언어체계에서나 외래적 요소의 유입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외국어에서 유래한 말로 그 필요성과 사용빈도가 높아 고유 언어체계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은 말을 우리는 외래어라 하는데 지구상에서 현실적으로 외래어가 존재하지 않는 언어체계를 찾아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외래어를 고유어 표기체계라는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표기하고 다듬을 것인가 하는 표기법상의 문제는 만국 공통의 문제이다.

독일어권에서 외래어 표기규정은 일반적인 맞춤법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외래어를 이질적으로만 다루지 않으려는 독일 사람들의 의도와 외래어 표기를 중국에는 고유어 체계에 동화시켜 함께 다루고자 하는 의도가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외래어는 음성학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형태론적으로나 정서법적 측면에서도 이질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러므로 고유어의 언어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독일어에서도 물론 외래어 표기규정은 특수한 대상으로 취급된다.

독일어에서 외래어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16세기이후 독일어의 표기체계가 정립되면서이다. 르네상스이후 그리스어나 라틴어, 프랑스어, 영어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외래어를 독일어로 표기하게 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표기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외래어 발음을 독일어로 표기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어 지금까지 수많은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제안들이 이어졌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을 도출해 내지는 못하였다. 고유어와 외래어 표기법의 갈등은 독일 국민들이 지닌 모국어에 대한 우월의식과 외래어 표기법의 동화과정 간의 충돌이 그 원인이었다. 인문주의시대에 들어온 라틴어와 18세기 유럽 대륙에서 지성인의 언어로서 유행했던 프랑스어, 19세기이후 외래어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영어 등에 대해 독일 사람들은 민족주의 의식을 바탕으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언어사적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언어순화주의 운동의 물결이 독일에서 강하게 나타난 사례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언어순화주의라는 방어적 입장과 외래어 고유의 성질을 보존하고자 하는 입장이 외래어의 고유어 언어체계로의 동화, 즉 음

운론적, 형태론적, 자소론적, 의미론적 일치를 가로막게 되었다. 이는 독일어를 민족 공동 언어로서 교육시켜야 하는 언어교육적 측면에서는 매우 큰 약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후 언어순화주의 운동이 퇴색하자 외래어의 유입은 더욱 증가하였다. 이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언어적 표현을 필요로 하는 언어사회적 욕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0세기 들어 외래어의 수는 눈부실 정도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국제무역의 증가 등 글로벌 시대의 진입으로 외래어는 어느 언어공동체에서나 필요한 존재이며 동시에 해결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언어 대중들의 저항감도 이전 시대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래어 표기법이 갖는 난해성은 언어 사용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보다 체계적이고 명료한 외래어 표기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언어교육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외국어 지식이 없는 언어 대중들의 경우 외래어를 제대로 발음하기가 어렵고 이를 옮겨 적는 것은 더욱 곤란한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는 지식정도에 따라 언어 사용자를 차별하게 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4.2.2. 독일어에서 외래어 표기법의 주요 현안

독일어에서 ph, rh, th로 표기되는 단어들(Philosoph, Rhythmus, Theater)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외래어들이다. 또한 ch로 시작되는 단어들(Christlich)이나 고유어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y>를 통해 표기되는 단어들도 이에 해당된다. <v>가 포함된 단어들(privat, Universität)이나 발음상 /ts/로 나타나는 단어들(Nation, Funktion, Patient)은 라틴어에서 유래한 경우이다.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단어들은 주로 비음을 포함한 경우(Saison, Genre, Restaurant, Parfum)나 또는 독특한 표기법이 나타나는 단어들(Feuilleton, Ingenieur, Niveau)이 대부분이다. 오늘날 외래어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어의 경우는 독일어 고유체계와 표기와 발음상 동떨어진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오늘날 독일어에서는 다양한 외국어에서 유래한 외래어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유입된 시기가 오래전인 그리스어나 라틴어에서 유래한 외래어의 경우 독일어 고유 표기체계에 동화된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예를 들어 라틴어 planta에서 유래한 Pflanze, magister에서 Meister, vinum에서 Wein과 같은 단어들도 생겨났다. 반면에 그 유래의 역사가 짧고 표기체계가 독특한 프랑스어의 경우 음과 표기에서 유래어 고유의 특징을 오늘날 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비교적 최근에 유입된 영어에서 유래한 외래어의 경우도 이에 해당 되어 동화된 표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Restaurant과 Parfum에서 비모음이 나타나고, Feuilleton과 Portemonnaie에서와 같은 단어에서는 독일어 고유 표기체계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난해한 표기법이 보인다. Cello와 Adagio, Ghetto와 Giro, Gnocchi와 Makkaroni와 같은 단어에서는 오늘날 까지도 독일과 이탈리아 사이의 언어와 문화 접촉현상의 다양한 양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독일어에 존재하는 외래 자소들을 구분해 보면 크게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독일어 고유의 자소에 해당되는 경우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를 또 다시 고유어 표기체계와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 가장 중심부에 해당되는 경우는 <a/a/> Vase, <eu/oi/> Europa와 같은 사례이며, 가장 주변부에 해당되는 경우는 <in/ɛ/> Gabelin, <ant/ã/> Restaurant와 같은 예이다. 다시 말해 외래음소에 해당되는 고유음소가 존재하는 경우 이는 중심부에 해당되며, 외래음소에 대응되는 고유음소가 없는 경우가 주변부에 해당된다. 여기서 주변부에 위치하는 외래어들이 표기법에서 가장 난해한 대상이 된다. 외래어에는 존재하나 고유어에는 대응하는 음이 없는 경우 해결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방법은 소위 독음(讀音) Leseaussprache이라 하여 철자에 따라 발음하는 방법이 있다. 다시 말해 외래어 고유의 표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표기에 대한 발음은 고유어 체계에 따르는 방법이다. 외국어에 지식이 없는 대중들이 외래어 표기를 고유어처럼 읽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 외래어의 음소가 고유어의 음소로 대체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의 complice[köplis]를 독일어에서 Komplize [com'pli:tsə]로, 프랑스어 bizarre[biza:r]를 독일어로 bizarr[bi'tsar]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이런 사례이다. 독일어에서 이런 경우는 주로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외래어에 비음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독일어 표기법에서는 이런 유형의 경우 상당수 사례를 표기 규범으로 인정하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Frisör나 Büro에서와 같이 외래어 자소를 고유어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이는 외래어 자체의 발음을 유지하면서 그 표기체계를 고유어처럼 바꾸는 것이다. 다시 말해 외래어의 해당 발음을 고유어의 표기체계로 옮겨 적는 방법이다. 여기서 외래어 자소의 고유성은 훼손되어 외래어로서의 모습이 많이 없어지게 된다(예: sauce/Soße, liqueur/Likör 등).

독일어의 경우 외래어 표기법의 개정 시도에서 주로 논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바로 두 번째 방법인 외래자소 대체법이다. 이때 표기에 대한 개선이 어려운 경우 독음을 통한 발음법을 보충적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외래어 표기법의 동화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나는데 1)자소동화형, 2)자소대응 음소동화형, 3)자소와 음소의 동화형이 바로 그것이다. 1)자소동화형이란 프랑스어 liqueur를 독일어에서는 Likör로 표기하는데 이는 동일한 음소에 대해 외래자소 <eu/ø:/>를 고유자소 <ö/ø:/>로 대체하여 표기하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 이는 음소를 기준으로 자소의 동화가 이루어진 표기로서 외래어 표기법 개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해당된다. 2)자소대응 음소동화형이란 프랑스어 élan [elā]을 독일어에서는 Elan [e'la:n]으로 표기하는데 이는 <an /ā/>이 <an /a+n/>으로 변화한 결과이다. 자소를 중심으로 음소가 동화된 경우로 소위 '독음법'이 이에 해당된다. 3)자소와 음소의 동화형이란 음소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에 따라 자소의 대응도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 saison [sezō]이 스웨덴어에서는 sesong [sesɔŋ]으로 표기되는데 이는 <on /ō/> → <on /oŋ/> → <ong /oŋ/>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결과이다. 프랑스어의 비음이 발음상의 동화가 일어나고 이를 고유어 체계로 표기하게 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다.

외래어 표기에 있어 또 다른 문제는 독일어 고유의 특징인 대문자 표기법의 적용문제와 붙여 쓰는 문제가 있다. 독일어의 경우 문장이나 명사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규범이 있다. 또한 합성어의 경우 붙여 쓰며, 독립된 단어들이 경우 띄어 쓰는 규정이 고유어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High Society, Dolce vita, Ultima ratio, Eau de toilette와 같은 단어들이 이러한 문제가 잘 나타난다. 이들 단어들에서는 두 가지 표기가 가능한데, 항상 유래어처럼 원래대로 표기하거나 또는 첫 번째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다소 완만한 동화 표기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명사적 표현에 대한 표기 문제인데 Inoffizielle Mitarbeiter, das Schwarze Brett, die Erste Hilfe에서처럼 독일어 고유어 표기체계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경우 외래어에서는 사례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라틴어와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외래어 표기의 경우 안정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반면에 최근에 유입된 영어 외래어의 경우는 종종 그 표기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 예를 들어 Big Business, Big business, big business와 같은 경우나 Big-Band, Big Band, Bigband와 같은 단어가 이에 해당된다.

4.2.3. 현행 표기규정에서 외래어 표기법의 규정화

독일어에서 현행 맞춤법 규정은 1987년부터 준비되어 2007년에 마무리된 개정 표기규정이다. 지금까지는 1901년 제2차 베를린 맞춤법회의에서 만들어진 맞춤법 규정이 100년 이상 독일어 표기의 주된 규범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20세기 중반 동서독의 분단을 경험하게 되고, 이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나타나는 언어 변천사상의 왜곡현상, 급속한 언어접촉으로 인한 외래어의 유입과 신조어의 증가 등으로 인해 표기법과 언어 실생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독일어권에서 가장 영향력이 지대한 표기법사전인 두덴사전 Duden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표기규범상 권위적 역할을 하였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점을 인식한 정부와 학자들의 관심에 의해 독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전 지역의 대표자(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독일어사용권역, 남부티롤 독일어사용권역 등)를 포함시킨 맞춤법 개정을 위한 국제적인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수차례의 논의 끝에 1996년 독일어 맞춤법 개정규정이 도출되었다. 이때부터 각급 학교에는 새로운 맞춤법 규정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언론 및 출판사가 주도한 사회적 저항과 정치권의 일관되지 못한 반응 등으로 인해 새로운 규정은 뜨거운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2006년 일부 내용을 수정한 맞춤법 개정규정이 결정되었고, 이는 2007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해 모든 학교와 행정관청에 적용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출판사와 신문사들도 새로운 규정을 받아들였다. 이번 새로운 맞춤법 규정에서 외래어 표기 규정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래어 표기규정에서 기본방향은 독일어 고유 표기체계로 동화된 표기를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다만 사회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동화표기를 규범으로 삼는다는 기본입장을 독일어에서도 중요시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맞춤법 준비위원회에서도 추진한 표기규정화 방향이었다.

외래어 표기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주요 현안 중 하나는 외래자소인 rh, th, ph 표기를 r, t, f로 대체하여 간소화하자는 주장이었다. 독일어 고유어 표기체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외래자소 <rh>, <th>, <ph>를 표기하는 경우 해당 외국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언어대중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이 자소들이 발음상 [r], [t], [f]로 나타나므로 r, t, f로 표기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1996년 표기법 개정과정에서도 대두되었다. 예를 들어 Rheuma-Reuma, Rhythmus-Rytmus, Thunfisch-Tunfisch, Telefon-Telefon, Photo-Foto로 표기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맞춤법 개정준비위원회는 이중표기를 허용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표기법과 독일어에 동화된 표기법 모두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물론 대상범위를 일상 언어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중심으로 이중표기를 적용하며, 전문용어나 사용빈도가 낮은 단어들은 제외하여 기존의 표기를 그대로 인정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독일어 맞춤법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한 2006년 최종 규정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허용되었다. 일반적인 rh, th, ph에 대한 r, t, f 대체 표기는 인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인문주의적 전통을 강조하는 지식인층이 전통적인 표기법 훼손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절충안으로 최종 규정에서는 -graph, -phon, -phot가 포함된 단어의 경우 ph를 기존의 표기 ph와 함께 f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Foto, fotografieren, Telefon과 같은 경우 동화된 표기가 이미 언어대중들에게 익숙하다는 이유로 동화된 단일표기만을 인정하도록 제한하였다. 그 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용빈도가 높고 언어대중들에게 익숙한 표기에 한해 개별적으로 이중표기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규정에서는 Eurhythmie-Eurythmie, Hämorrhoiden-Hämorrhiden, Katarrh-Katarr, Myrrhe-Myrre 등과 Pather-Panter, Thunfisch-Tunfisch 경우만을 인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새로 개정된 규정에서는 이중표기 Doppelschreibung를 인정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이어져온 전통적인 표기법(대부분 유래어 고유체계를 바탕으로 한 이질적 표기)과 더불어 독일어 고유어의 표기체계에 동화된 표기법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부담을 덜고자한 것이다. 이후 언어실생활에서 선호도에 따라 사용빈도가 결정될 것이며 이를 통해 표기법 통합이라는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중표기 허용의 장점은 표기법의 간소화와 더불어 표기 전통에 대한 배려를 동시에 추구하여 표기 규범화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또한 기존 지식인층의 강력한 도전을 받았다.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언론인이나 방송작가, 소설가 등은 전통적인 표기법의 유지를 강조하며 이중표기의 허용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표기법을 간소화하여 복잡한 표기법에서 고통 받는 학생들을 구제하자는 언어 교육자들의 입장은 외면당하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중표기의 허용도 일부 제한된 영역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다. 이번 새로운 독일어 맞춤법 규정에서 이중표기가 허용된 외래어는 다음과 같다.

모음:

ai-ä Frigidaire-Frigidär, Malaise-Maläse, Necessaire-Nesseär
 é/ée-ee Boucle-Buklee, Coupé-Kupee, Exposé-Exposee, Frappé-Frappee,

Kommuniqué-Kommunikee, Lamé-Lamee, Séparée-Separee, Soufflé-Soufflee 등
ou-u Bouclé-Buklee, Bravour-Bravur

차음:

c-ss Facette-Fassette, Necessaire-Nessessär
ch-sch Chicorée-Schikoree, Ketchup-Ketschup, Pappmaché-Pappmaschee
gh-g Joghurt-Jogurt, Spaghetti-Spagetti
nn-n Bonbonniere-Bonboniere, Chansonnier-Chansonier,
Ordonnanz-Ordonanz, Saisonnier-Saisonier
sh-sch pushen-puschen, Shrimp-Schrimp
기타 Creme/Krem-Kreme, Crêpe-Krpee, Delphin-Delfin, Ginkgo-Ginko, Platitude-Plattitüde, Portemonnaie-Portmonee, Waggon-Wagon

독일어 고유의 특징인 대문자 표기에 있어서 1996년의 개정안은 간소하고 체계적인 표기규정을 제안하였다. 독일어에서 한 문장의 첫 글자, 명사 또는 명사화된 단어의 첫 글자 그리고 존칭을 대문자로 표기한다. 개정준비위원회의 입장은 그 중 첫 번째의 경우인 문장의 처음을 대문자로 표기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명사나 명사화된 단어의 경우에 대문자표기 규정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독일어 맞춤법 자문위원회의 입장은 매우 신중하였다. 이 경우에도 확실히 표기법이 상당히 고착되어 언어대중들에게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문자표기를 인정하고자 하였다. 형용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의 합성어를 만들어내는 경우와 편지를 쓸 때 사용하는 존칭에 대해서는 대문자로 표기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schwarzes Brett-Schwarzes Brett의 표기와 편지에서 상대방을 일컫는 du-Du 표기가 허용되었다. 이 경우 또한 띄어쓰기를 할 경우 대문자로 표기하고, 붙여 쓸 경우 소문자로 표기하도록 한 새로운 규정을 외래어에도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Alma Mater, Public Viewing, Desktop-Publishing 등과 같은 표기법이 등장하게 된다.

이번 새로운 독일어 표기법에서 독특한 특징은 영어에서 유래한 외래어의 경우 표기법 간소화 작업이 적용된 점이다. 이는 1996년 맞춤법 개정안에서도 제안된 규정으로 영어 외래어에서 -y로 끝나는 단어의 복수형어미를 -s로 단순화한다는 규정이다. 이러한 표기 규정은 영어에서 복수형이 -ies나 -s로 나타나 생기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참고로 독일어 고유표기체계에서는 -ies 복수형어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Lobby, Baby, Hobby의 복수형은 Lobbys, Babys, Hobbys로 표기한다. 다만 관용표기로 고착된 Grand Old Ladies는 그 표기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전반적으로 2006년에 마련된 새로운 독일어 맞춤법 규정에서 외래어 표기법은 기존의 표기전통을 존중하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독일 언어학계에 불기 시작한 맞춤법 개정운동의 주된 논점은 단순명료한 표기법을 만들어 보다 체계적인 표기규범을 도출하고자 하는 방향이었다. 그러나 이는 1996년 어느 정도 반영되는 듯하

였으나, 이후 새로운 변화에 부정적인 강력한 사회적 저항과 대중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 등으로 인해 진보적인 표기규정으로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새로운 규정은 기존의 표기법을 유지하며 일부 언어생활에서 익숙한 표기법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보다 체계적인 표기규범을 만들고자 수년간 노력한 언어학자들의 입장과는 동떨어진 경우이다. 또한 전통적인 표기법을 고수하고자 한 일부 보수적 지식인층의 저항도 성공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제 독일어 맞춤법규정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 채 또 다시 새로운 한 세기를 책임지게 되었다.

4.3. 프랑스

프랑스는 ‘국제 음성 기호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을 사용하여 외국어 및 외래어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프랑스는 언어 정책상 외국어의 도입과 외래어의 사용을 최대한 지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차용하여 외국어가 된 ‘week-end’이나 ‘parking’은 영어 원음으로는 각각 [[wi:kend], [[pa:rkɪŋ] 인데, 프랑스는 이들을 다음과 같이 프랑스식으로 악센트 및 장음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발음한다 : [wikend], [parkɪŋ]. 즉, 프랑스는 외래어 표기에 대한 입장이 ‘원음주의 표기’가 아닌 프랑스식 ‘관용주의 표기’를 선호한다. 프랑스는 언어정책 상 외국어의 도입, 외래어의 사용에 상당히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프랑스어를 보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다 객관적인 설명을 위해 우리는 프랑스어의 대표적인 국어사전 Le Petit Robert(2003)의 서문에서 음성학자 알리에뜨Aliette Lucot-Sarir가 소개하는 프랑스어의 ‘음성학적 표기의 선택Choix de présentation de la phonétique’의 전문을 소개한다.

Nouveau Petit Robert 의 음성 표기

음성학 진술(설명)의 선택

다양한 음성 표기들의 경우 우리는 가능한 변이형 중 시골이나 2개 언어 병용이 이루어지거나 다른 언어나 지방어(예를 들어 Occitanie, Bretagne, Alsace와 같은)의 영향을 받은 지역 출신의 이전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충격 받지 않길 바라며 d’île - de-France와 그 주변 지역의 교육받은 도시 화자들의 최근 발음에 가장 가까운 단 한 가지만 적기로 선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표기를 위한 이러한 선택의 예외가 있다. : 차용어의 경우가 그것이다. 원래 언어와 가까운 발과 완전히 프랑스어화된 발음 사이에 중간 발음의 음이 공존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프랑스어화’된 발음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다수에 의한 사용, 프랑스어 체계로의 외국어 통합에 대한 공적인 권고에 따른다. 차용어의 복수형은 다. 우리는 영어나 스페인어의 차용어 경우처럼 -s 로 끝나는 경우와 같은 특수한 경우, 일치하는 발음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한 표기 규범을 통해 복수형을 나타내는 s 는 표기하되 차용어의 경우 최근의 경향은 이 단어를 ‘프랑스어’로 처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마지막의 s를 발음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실제로 우리는 jeans 을 [dʒins] 보다 [dʒin]로 자주 발음한다.

때때로 한 단어가 다양한 음성 형태로 대응시킬 수 있는 다양한 표기의 형태를 가진다. 철자법과 발음의 조화에 대한 염려가 있기에 각각의 철자법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발음을 대응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문어의 규칙과 달리 어느 정도의 구어의 자율성 때문에 항상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발음에 각각 다르게 대응된 표제어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 외에는 모든 음성적 변이형을 표제어의 가장 처음에 적어놓았다.

모든 표제어에서 음성 표기는 체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음이 단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표기법으로 옮겨 적는 것은 필요하지 않으며 거의 현실적이지 않다. 게다가 통상적으로 프랑스로 바꾸는 원칙에 따라 구성된 몇몇의 파생어가 문서 내에서 쓰일 때 우리는 그것들을 옮겨 적는 것에 대한 유용함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glaciologie(빙하학) 표제어의 경우 옮겨 적을 때 규칙에 맞는 표본에 따른 cardiologue(심장병 전문의)의 어미와 같지만 같은 발음을 표기하지 않았다.

다음은 사전에서 소개하는 API와 몇 가지 프랑스어 단어들의 예이다.

Alphabet de l'Association phonétique internationale (API)

VOYELLES	CONSONNES
[i] il , épi , lyre	[p] père , soupe
[e] blé , aller , chez (e fermé)	[t] terre , vite
[ɛ] lait , merci , fête (e ouvert)	[k] cou , qui , sac , képi
[a] ami , patte (a antérieur)	[b] bon , robe
[ɑ] pas , pâte (a postérieur)	[d] dans , aide
[ɔ] fort , donner , sol (o ouvert)	[g] gare , bague , gui
[o] mot , dôme (o fermé)	[f] feu , neuf , photo
[u] genou , roue	[s] sale , celui , ça , dessous , tasse
[y] rue , vêtu	[ʃ] chat , tache , schéma
[ø] peu , deux	[v] vous , rêve
[œ] peur , meuble	[z] zéro , maison , rose
[ɛ̃] premier (e caduc)	[ʒ] je , gilet , geôle
[ɛ̃] brin , plein , bain	[l] lent , sol
[ɑ̃] sans , vent	[r] rue , venir
[ɔ̃] ton , ombre , bonté	[m] mot , flamme
[œ̃] lundi , brun , parfum	[n] nous , tonne , animal
	[ɲ] agneau , vigne
	[ŋ] camping (emprunts angl.)
	[x] jota , khamsin (emprunts arabe, esp.)
	[h] hop ! (exclamatif)
	[ʰ] (pas de liaison ni d'élision) le_héros , les_onze , un_yaourt

La transcription phonétique du *Nouveau Petit Robert*

Choix de présentation de la phonétique

Dans le cas de réalisations phonétiques multiples, nous avons choisi de noter une seule des variantes possibles, de préférence la plus conforme à la prononciation récente des locuteurs urbains éduqués d'Île-de-France et de régions voisines, en espérant ne pas choquer les utilisateurs d'usages plus anciens, ruraux ou de régions où subsiste soit un bilinguisme, soit l'influence d'une autre langue ou de dialectes (par ex. Occitanie, Bretagne, Alsace...).

Il y a cependant une exception à cette préférence pour la transcription unique : les emprunts. Entre la prononciation proche de la langue d'origine et une prononciation totalement francisée, coexiste toute une gamme de prononciations intermédiaires. En général, nous avons mis en première position la prononciation la plus " francisée ", suivant ainsi l'usage du plus grand nombre et les recommandations officielles d'intégration des mots étrangers au système français. Les pluriels des emprunts ont souvent été mentionnés à l'intérieur des articles. Nous avons renoncé à indiquer la prononciation correspondante, en particulier pour le -s final des emprunts à l'anglais ou à l'espagnol. Une transcription normative justifierait que l'on note le s du pluriel, mais pour les emprunts la tendance actuelle est de traiter ces mots " à la française ", c'est-à-dire de ne plus prononcer le -s final. Ainsi on prononce actuellement *des jeans* plus souvent [dʒin] que [dʒins].

Parfois un mot comporte plusieurs formes graphiques qui peuvent aussi correspondre à plusieurs formes phonétiques. Dans un souci d'harmonisation de l'orthographe et de la prononciation, il aurait été souhaitable d'assortir chaque orthographe de la prononciation qui lui correspondait le mieux. Mais, à cause d'une certaine indépendance du code oral par rapport au code écrit, cela n'a pas toujours été possible. Parfois, nous avons présenté des entrées différentes assorties chacune de sa prononciation, mais ailleurs, nous avons noté toutes les variantes phonétiques au premier mot en entrée.

La transcription phonétique est systématique pour toutes les entrées. Cependant, il est inutile, et même peu réaliste de transcrire les éléments, car leur prononciation varie souvent selon les mots. De plus, quand certains dérivés constitués selon les principes de dérivation usuels en français ont été traités à l'intérieur d'un article, nous n'avons pas jugé utile de les transcrire : ainsi l'entrée *glaciologie* ayant été transcrite, nous n'avons pas donné la prononciation de *glaciologue* dont la terminaison est identique à celle de *cardiologue*, selon un modèle régulier.

Aliette Lucot-Sarir

4.4. 에스파냐

에스파냐어에서는 따로 외래어 표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에스파냐어 표기법(Real Academia Española, Ortografía de la Lengua Española, Espasa, 1999.)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분명히 구분한다.

1. 외래어 즉, 에스파냐어의 발음과 철자법에 적용된 차용어인 경우는 에스파냐어의 철자법을 따라야 한다. 예: Basilea(스위스 지명, Basel), brandi(brandy), Burdeos(프랑스 지명, Bordeaux), chalé(프랑스어 chalet), Londres(영국 수도 런던, London) 등.

2. 외국어 즉, 에스파냐어화 되지 않은 외국어 고유명사는 원래 언어에서의 철자대로 표기한다. 따라서 에스파냐어 철자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예: Washington, Perth, Botticelli 등.

문제는 로마자를 사용하지 않는 외국어의 에스파냐어 표기법인데, 여기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가령 한국, 일본, 중국 같은 고유문자체계를 가진 국가들에서는 고유의 로마자 표기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로마자를 그대로 에스파냐어에서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서울', '평양', '한국', '북한' 같은 수도명과 국가명은 에스파냐어화한 어휘가 존재하여 "Seúl, Pyongyang, Corea del Sur, Corea del Norte"로 표기하나, 그 이외의 지명은 해당 국가에서 정한 로마자대로 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 Daegu, Ulsan, Gwangju, Jeju 등)

그 밖의 에스파냐어 외래어 표기의 특징으로는 알파벳 k를 외래어에 한하여 사용(예: karate, kilo, kiwi, Kremlin, anorak, Takwondo, Kimchi 등)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에스파냐어에서의 외래어 표기와는 별도로, 동북아시아 주요 나라의 에스파냐어 표기규정은 어떠할지 의구심이 들어 해당 내용을 간략히 조사해보았다. 일본과 중국, 북한에서 각각 어떻게 에스파냐어를 표기하는지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표기 규범과 비교해 보고자 함이다.

일본의 경우, 에스파냐어의 외래어 표기에서 표준 발음 이외에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모든 경우를 참고하여 표기에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물명인 'Llama'의 경우, 표준발음인 '라마' 이외에도 '야마', '자마' 등의 발음을 그대로 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스파냐어 표기규범에 따라 '야마'로만 표기를 인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본다면, 일본의 외래어 표기는 여러 발음에 해당하는 표기를 인정함으로써 상당한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에스파냐어와 같이 a, e, i, o, u의 다섯 가지 모음만 존재하므로 에스파냐어 표기를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어에 된소리가 없는 관계로 모든 단어들은 거센소리로 표기된다. 특이한 점은 단어의 강모음을 표시하기 위해 -(pausa)를 삽입하여 악센트를 나타낸다는 것과(España를 "에스파-냐"로 표기하는 경우), ll의 경우 '랴' 발음 외에도 '자' 발음을 사용하는 제이스모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표준 발음은 llama "라마"이지만, 경우에 따라 "자마"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에스파냐어로 된 인명과 지명을 파일에 첨부한 중국어-에스파냐어 음역 대조표에 따라 쓰고 있다. 중국어는 한자로 이루어져 있어 음역과 의역, 두 가지로 외래어를 표기하는데, 에스파냐어의 경우 의역보다는 들리는 소리를 비슷한 한자로 바꾸어 쓰는 음역이 많은 경향을 보인다.

북한의 경우, 우리보다 원음에 따라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러시아어의 영향으로 된소리를 그대로 표기하는 경향이 있다. 즉, 북한에서는 에스파냐를 "에스빠냐"로 표기한다. 또한 어말의 자음을 남한에서는 받침으로 처리하는 한편 북한에서는 'ㅡ'모음을 첨가하여 새로운 음절을 구성한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외래어 표기 규범을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발음을 모두 인정하여 이를 표기에 복수 적용하는 것이 외래어 표기의 효율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에스파냐어의 혼합표기가 국민의 언어생활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으나, 로마자를 병기함으로써 이러한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야마(llama), 라마(llama), 돈끼호떼(Don Quijote), 돈키호테(Don Quijote), 까사(Casa), 카사(casa)와 같이 원음표기와 된소리 표기를 허용하여 복수표기를 인정하되 로마자와 함께 병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자가 수집하고 참조한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독) a,i,u,e,o	ア、イ、ウ、エ、オ
ba, bi,bu,be,bo,b	バ、ビ、ブ、ベ、ボ、ブ
ca, ci, cu,ce,co,c	カ、シ、ク、セ、コ、ク
c h a , chi,chu,che,cho,ch	チャ、チ、チュ、チェ、チョ、チ
da,di,du, de, do,d	ダ、デイ、ドウ、デ、ド、ド
fa, fi,fu, fe,fo,f	ファ、フィ、フ、フェ、フォ、フ

ga,gi, gu,ge,go,g	ガ、ヒ、グ、ヘ、ゴ、グ
gui, gue	ギ、ゲ
ha, hi,hu, he,ho	ア、イ、ウ、エ、オ(h는 발음하지 않는다)
ja, ji, ju, je, jo	ハ、ヒ、フ、ヘ、ホ
ka,ki,ku,ke,ko	カ、キ、ク、ケ、コ(스페인어 이외의 차입 단어에만 사용)
la,li,lu,le,lo,l	ラ、リ、ル、レ、ロ、ル
lla,lli,llu,lle,llo	リャ、リ、リュ、リエ、リョ
ma,mi,mu,me,mo,m	マ、ミ、ム、メ、モ、ム(ン)
na,ni,nu,ne,no,n	ナ、ニ、ヌ、ネ、ノ、ン
ña,ñi,ñu,ñe,ño	ニャ、ニ、ニユ、ニエ、ニョ
pa,pi,pu,pe,po,p	パ、ピ、プ、ペ、ポ、プ
qua, qui, que, quo	クァ、キ、ケ、クォ(qa, qi, qu, qe, qo는 사용되지 않는다)
ra,ri,ru,re,ro,r	ラ、リ、ル、レ、ロ、ル
rra,rrri,rru,rre,rrro,rr	ラ、リ、ル、レ、ロ(혀를 감아 강조하고 표현하고 싶은 경우)
sa,si,su,se,so,s	サ、シ(スイ)、ス、セ、ソ、ス
ta,ti,tu,te,to,t	タ、テイ(チ)、トゥ(ツ)、テ、ト、ト
va,vi,vu,ve,vo,v	バ、ビ、ブ、ベ、ボ、ブ
wa,wi,wu,we,wo	ワ、ウイ、ウ、ウエ、ウォ(스페인어 이외의 차입 단어에만 사용)
xa,xi,xu,xe,xo	j 또는 s에 준한다. 샤、シ、シユ、シエ、ショ
ya,yi,yu,ye,yo,y	ヤ、イ、ユ、イエ、ヨ
za,zi,zu,ze,zo,z	ザ、シ、ス、セ、ソ、ス

[표 117] 일본의 에스파냐어 표기

◆ 일반적인 표기

에스파냐어의 알파벳 표기는 발음에 따라 작성되었기 때문에, 로마자를 읽을 때처럼 하면 거의 정확한 발음으로 읽을 수 있다. 또한, 모음이 일본어와 같은 'a', 'e', 'i', 'o', 'u'의 5개이기 때문에, 가타카나로 교체하여도 대체로 정확한 발음을 보여줄 수 있다. 다음 규칙에 따라 알파벳을 가타카나화하면 원어와 대체로 같은 발음을 가진 일본어 표기

로 바꿀 수 있다.

◆ 강세 「一」

에스파냐어에는 장모음은 아니지만, 강세를 두기 위해 모음이 다른 소리보다 약간 길게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일본어의 경우, 단모음의 가타가나 표기를 일본어 화자가 발음할 때 강세 위치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장모음의 경우 저절로 그 소리가 강조되고 에스파냐어 화자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一」를 삽입하여 악센트를 표시한다. (강세를 갖는 모음을 길게 발음하여 에스파냐어 악센트를 표시한다는 뜻)

예) Bolívar → ボリバル、ボリーバル (볼리바르, 보리바루)

1) ll

ll 발음은 옛날부터 '랴'와 '자'의 지역 차가 있고 '랴' 소리가 표준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마드리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자' 소리가 우세해졌고, 일본어도 '자'로 표기하는 사람이 생겨났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야'에 가까운 발음으로 인해 '야'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다. 어느 쪽도 우세도 아니지만, 용어의 역사와 오래부터 일본어에 정착한 발음으로 인해 '자'로 표기되는 경우는 드물다.

예) Castilla → カステイーリャ、カステイージャ、カステイーヤ。 (카스틸랴, 카스티자, 카스티야)

예) Sevilla → セビリャ、セビージャ、セビリヤ (세빌랴, 세비자, 세비아)

관용적으로 '랴'발음 우세: llama (リャマ, 랴마)、caudillo (カウディーリョ, 카우딜료)、criollo (クリオーリョ, 크리올료)

관용적으로 '야'발음 우세: Callao (カヤオ, 카야오)

관용적으로 '자'발음 우세: Salvador Allende (サルバドール・アジェンデ, 사루바도루 아젠데)

2) rr

혀를 굴러 내는 소리이다. rr 앞에 모음에 강세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장 표기 「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예) Navarra →ナバラ、ナバーラ、ナバルラ (나바라)(혼합표기)

예) La Mojarra →ラ=モハーラ、ラ=モハラ (라 모하라)

예) Torres (인명) → 「トーレス」 「トレス」 「トルレス」 (토레스가 일반적이다. 전국 시대에 일본에 온 예수회 선교사 Cosme de Torres의 경우 "토레스"와 "토루레스"가 혼합되어 있다. 크리스찬, 대외 교섭의 역사 관련 문헌에서는 관용적으로 후자가 우세.)

3) y

ll와 마찬가지로 y 발음에도 '야' 발음과 '자' 발음의 지역 차가 있다. 가타카나로 표기하는 경우도 두 가지 발음이 모두 쓰인다.

예) yo → ヨ、ジョ (요, 죠)

4) 이중모음

이중 모음과 관련, 스페인어의 5개의 모음은 강모음 (a, e, o)과 약모음 (i, u)로 나뉜다. 연속적인 두 모음이 약모음끼리, 또는 강모음과 약모음의 조합이면 한 음절의 이중 모음으로 짧게 발음된다. 이러한 이중 모음의 일부를 단축적인 형태로 표기할 수 있다.

ia[이아][야]

예) Santiago → サンティアゴ、サンチャゴ (산티아고)

ua[우아][와][아]

예) Guatemala → グアテマラ、グワテマラ、グァテマラ、ガテマラ (과테마라, 구와테마라, 과테마라, 가테마라)

예) Uaxactun → ワシャクトウン (웍사툼)

예) Huari → ワリ (와리)

5) v

에스파냐어는 v와 b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것을 영어의 영향으로 인해 [ヴァ. 봐] 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오류이다. 예를 들면, TV에서 축구 중계 등으로 Sevilla를 「セヴィージャ」로 발음하는 것은 영어 발음과 에스파냐어 발음이 섞인 경우이다.

예) Veracruz → ベラクルス、ヴェラクルス(이 단어의 경우, "베라 크루즈"로 표기가 거의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드물게 "웨라 쿠루스"로 표기하는 사람도 있다. 표기가 정착되지 않는 단어에 대해서는 표기가 제각각이다.)

6) ti와 tu

ti, tu의 경우 현재는 "티" "투"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옛날부터 일본어에 들어있는 용어는 "테이"나 "토우"로 표기되기도 한다.

예) Titicaca → ティティカカ、チチカカ (티티카카)

7) 단어 구분 및 하이픈

에스파냐어 성에는 여러 단어를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것을 [·]=[] 등으로 구분하여 쓰는 방법이 있다. "de la", "del"은 "~ 출신"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성으로 사용되지만, 악센트가 없는 단음절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쓰는 방법이 더 우세하다. 지명도 마찬가지다.

예) de la Madrid → デラマドリ、デ・ラ・マドリ (데라마도리, 데·라·마도리)

예) del Monte → デルモンテ、デル・モンテ (델몬테)

8) 영어적인 관용 표현

영어 발음에서 온 관행으로 정착하고 있는 지명도 많다. 이런 관용어를 에스파냐어로 표기하는 시도도 있다. 다음의 예에서 괄호 ()에 나타난 것이 에스파냐어적인 표현의 예이다.

- 의역한 경우

멕시코 (メヒコ, 메히코)、멕시코시티 (シウダーデメヒコ, 시우다데메히코)、쿠바 (クーバ, 쿠바)

- 의역하지 않은 경우

에스파냐(エスパニヤ, 에스빠냐)、베네수엘라(ベネスエラ, 베네스에라)、아르헨티나(アルヘンティナ, 아루헨티나)、칠레(チレ, 칠레)

출처:

<http://ja.wikipedia.org/wiki/%E3%82%B9%E3%83%9A%E3%82%A4%E3%83%B3%E8%AA%9E%E3%81%AE%E6%97%A5%E6%9C%AC%E8%AA%9E%E8%A1%A8%E8%A8%98>

[중국의 외래어 표기]

중국어는 글자 하나하나에 각각의 음과 뜻이 따로 있어 외래어 표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 하지만, 표기가 어렵다고 해서 외래어 표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중국어(한자)는 뜻글자이므로 자신의 나랏말로 순화할 수 있는 단어는 순화하고, 상표명이나 특별한 단어들은 그들의 말과 가장 유사한 음을 가진 글자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자국의 나랏말로 순화한 예:

텔레비전 - 電視[전기+보다]

라디오 - 收音机 (录音机: 녹음기) [소리를 모으는 기기]

컴퓨터 - 電腦[전기+두뇌]

인터넷 - 上网 (网络: 네트워크) [그물(네트워크)에 오르다]

마우스 - 鼠標 [쥐를 닮은 표시]

팩스 - 傳眞 [진(사진)을 보내다]

외래어 상표의 예:

외래 표기와 가장 흡사하게 발음 되는 예:

코카콜라 - 可口可樂[커커우커러] - 입을 즐겁게 한다

펄시콜라 - 百事可樂[바이스커러] - 백가지 일이 즐겁다

피자헛 - 必勝客[비성커]

환타 - 芬達[핀(fun)다]

맥도날드 - 麥當勞[마이당라오]

KFC - 肯德基[컨더지]

초콜릿 - 巧克力[차오커리]

커피 - 咖啡[카페이]

자국의 나랏말과 외래어의 뜻을 흡수하여 만든 예:

스타벅스 - 星巴克[싱바커-싱星:star]

오리온 - 好利友[하오리유-리(발음을 따옴)]

세븐업(7up) - 七喜[치시-치七:7]

輔音	b v*	p	d	t th	g	gu	gü	gh	qu	c cc	v w b*	f ph	s z x*	ch tch	j	m	n	ñ	l	ll	r rr	y	k ck cq
元音	布	普	德	特	格	古	格	夸	克	夫(弗)	夫(弗)	斯(丝)	奇	赫	姆	恩	尼	尔	利	尔	伊	克	
a aa ah	阿	巴	帕	达	塔	加	瓜	加	夸	卡	瓦(娃)	法	萨(莎)	查	哈	马(玛)	纳(娜)	尼亚	拉	利亚	拉	亚(娅)	卡
e ey ei	埃	贝	佩	德	特/泰	赫/黑	格/盖	圭	格/盖	塞	韦	费	塞	切	赫	梅	内	涅	莱	列	雷(雷)	耶	克
i y	伊	比	皮	迪	蒂	希	吉	圭	吉	基	西	维	非	西	奇	希	米	尼(妮)	利(利)	利	里(里)	伊	基
o/ou	奥/欧	博	波	多	托	戈	古奥	戈	阿	科	沃	福	索	乔	霍	莫	诺	尼奥	洛	略	罗(罗)	约	科
u	乌	布	普	杜	图	古				库	武	苏	丘	胡	穆	努	纽	卢	柳	鲁	尤	库	
ai ay ae	艾	拜	派	代(戴)	泰	盖	瓜伊	盖	凯	凯	瓦伊	法伊	赛	柴	海	迈	奈	尼艾	莱	利艾	赖	亚伊	凯
an aan	安	班	潘	丹	坦	甘	关	甘	宽	坎	万	凡	桑	钱	汉	曼	南	尼扬	兰	良	兰	扬	坎
au ao	奥	包	保	道	陶	高		高	考	沃	福	绍	乔	豪	毛	瑞	尼奥	劳	廖	劳	尧	考	
en ein een	恩	本	彭	登	滕	亨	根	根	肯	森	文	芬	森	琴	亨	门	嫩	年	伦	连	伦	延	肯
ia ya	亚	比亚	皮亚	迪亚	蒂亚	希亚	吉亚	吉亚	基亚	西亚	维亚	菲亚	西亚	恰	希亚	米亚	尼亚	尼亚	利亚	利亚	里亚	基亚	
ie ye yhe yie	耶	别	彼	迭	铁	希耶	吉耶		基耶	希耶	维耶	菲耶	谢	切	希耶	米耶	涅	涅	列	列	列	耶	基耶
ien	延	比恩	皮恩	迪恩	蒂恩	希恩	吉恩	吉恩	基恩	先	维恩	菲恩	先	钱	希恩	缪	年	年	连(莲)	连	连(莲)	延	基恩
in yn /ing	因/英	宾	平	丁	廷	欣	金	金	金	辛	温	芬	辛	钦	欣	明	宁	宁	林(琳)	林	林(琳)	因	金
ion	永	比翁	皮翁	迪翁	蒂翁	希翁	吉翁	吉翁	基翁	西翁	维翁	菲翁	西翁	琼	希翁	米翁	尼翁		利翁	利翁	里翁		基翁
iu yu	尤	比乌	皮乌	迪乌	蒂乌	休	吉乌	吉乌	基乌	休	维乌	菲乌	休	丘	休	缪	纽		柳	柳	留		丘
on oun ung	翁	邦	蓬	东	通	贡		贡	孔	库埃	武埃	富埃	苏埃	丘埃	胡埃	穆埃	努埃	纽埃	卢埃	柳埃	鲁埃		奎
ua	瓦	布阿	普阿	杜阿	图阿	瓜			夸	瓦(娃)	富阿	苏阿	丘阿	华	穆阿	努阿		卢阿	柳阿	鲁阿		夸	
uan	万	布安	普安	瑞安	图安	关			宽	万	富安	苏安	丘安	胡安	穆安	努安		卢安	柳安	鲁安		宽	
ue uei uey	韦	布埃	普埃	杜埃	图埃				库埃	武埃	富埃	苏埃	丘埃	胡埃	穆埃	努埃		卢埃	柳埃	鲁埃		奎	
ui uy	维	布伊	普伊	杜伊	图伊				奎	维	富伊	绥	崔	惠	穆伊	努伊		卢伊	柳伊	鲁伊		奎	
un uen	温	本	蓬	敦	通	贡		贡	昆	文	丰	孙	琼	洪	蒙	农		伦		伦		昆	
uo	沃	博	波	多	托	果		果	阿	沃	福	索	乔	霍	莫	诺	纽奥	洛	略	罗	约	阿	

[표 118] 중국어-에스파냐어 음역 대조표

[에스파냐어-중국어 음역 대조표에 따른 인명 표기 예시]

에스파냐어 이름 목록

이것은 에스파냐어 이름과 성의 목록이다. 이 목록에는 에스파냐어 이름과 성이 알파벳 순서로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에스파냐어 이름의 번역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K로 시작하는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에스파냐어에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이름이다.(예시로 A로 시작하는 이름만 나열함.)

- Aarón 阿龍 Abad 阿瓦德 Abadía 阿瓦迪亞 Abala 阿瓦拉 Abalo 阿瓦洛
- Abalos 阿瓦洛斯 Aballi 阿瓦利 Abán 阿万 Abarca 阿瓦爾卡 Abaroa 阿瓦羅亞
- Abarzua 阿瓦蘇亞 Abarzua 阿瓦蘇薩 Abascal 阿瓦斯卡爾 Abasolo 阿瓦索洛
- Abelardo 阿韋拉多 Abelli 阿韋利 Abello 阿韋略 Abilio 阿韋略 Aboitiz 阿沃伊蒂斯
- Abram 阿夫拉姆 Abraham 阿夫拉姆 Abril 阿夫里爾 Abrisqueta 阿夫里斯克塔
- Aburto 阿武爾托 Acario 阿卡里奧 Accotto 阿科托 Acchiardo 阿恰爾多
- Acedo 阿塞多 Aceña 阿塞尼亞 Acero 阿塞羅 Acevedo 阿塞韋多 Achury 阿丘里
- Acislo 阿西斯洛 Acle 阿克萊 Acosta 阿科斯塔 Acuña 阿庫尼亞 Ada 阿達
- Adalberto 阿達爾維托 Adams 亞當斯 Adán 阿丹 Adel 阿德爾 Adela 阿德拉
- Adelaida 阿德萊達 Adigio 阿迪希奧 Adio 阿迪奧 Adolfo 阿道弗 Adrián 阿德里安
- Adriana 阿德里亞娜 Adriano 阿德里亞諾 Adroaldo 阿德羅亞爾多
- Advincula 阿德文庫拉 Aedo 阿埃多 Afanador 阿法納多爾 África 阿非利加
- Agapito 阿加皮托 Agata 阿加塔 Agordo 阿戈爾多 Agorio 阿戈里奧

Agosti 阿戈斯蒂 Agrario 阿格拉里奧 Agresio 阿格雷西奧 Agrién 阿格連
Agripina 阿格里皮娜 Aguad 阿瓜德 Aguado 阿瓜多 Aguardo 阿瓜羅
Agudelo 阿古德洛 Agullo 阿古略 Agurto 阿古爾托 Agusti 阿古斯蒂
Agustín 阿古斯丁 Alagón 阿拉貢 Alamillo 阿拉米略 Alamo 阿拉莫
Alamos 阿拉莫斯 Alano 阿拉諾 Alarco 阿拉科 Alarcón 阿拉爾孔 Alarico 阿拉里科
Alba 阿爾瓦 Albala 阿爾瓦拉 Albán 阿爾萬 Albanés 阿爾瓦內斯 Albano 阿爾瓦諾
Albarado 阿爾瓦拉多 Albarellos 阿爾瓦雷略斯 Albariño 阿爾瓦里尼奧
Albarracín 阿爾瓦拉辛 Albentose 阿爾文托塞 Alberto 阿爾韋托 Alcalá 阿爾卡拉
Alcarado 阿爾卡拉多 Alceo 阿爾塞奧 Alejandro 亞歷杭德羅 Alex 亞歷克斯
Alfonso 阿方索 Alfonzo 阿方索 Alfredo 阿爾弗雷多 Allan 阿倫 Allende 阿連德
Alliende 阿連德 Almeida 阿爾梅達 Alonso 阿隆索 Alvarado 阿爾瓦拉多
Álvarez 阿爾瓦雷斯 Álvaro 阿爾瓦羅 Alzamora 阿爾薩莫拉 Amadeo 阿馬德奧
Amalia 阿瑪莉亞 Amanda 阿曼達 Amando 阿曼多 Amara 阿瑪拉
Amaranta 阿馬蘭塔 Amaranto 阿馬蘭托 Amarico 阿馬里科 Amata 阿馬塔
Amberger 安貝爾赫爾 Ambor 安博爾 Ambrosio 安布羅西奧 Ameghino 阿梅吉諾
Amejeira 阿梅赫拉 Amelia 阿梅莉亞 Américo 阿梅里科 Amezaga 阿梅薩加
Amézquita 阿梅斯基塔 Amigo 阿米戈 Amo 阿莫 Amoedo 阿莫埃多
Amores 阿莫雷斯 Amoró 阿莫羅 Amórtégui 阿莫特吉 Amozurrutia 阿莫蘇魯蒂亞
Ana 安娜 Anabalón 阿納瓦隆 Anastasio 阿納斯塔西奧 Ancares 安卡雷斯
Ancesio 安塞西奧 Andino 安迪諾 André 安德烈 Aneiro 阿內羅 Anfión 安菲翁
Angarita 安加里塔 Ángel 安赫爾 Ángela 安赫拉 Angelini 安赫利尼
Anglo 安格洛 Angrónimo 安格羅尼莫 Anguiano 安吉亞諾 Anguita 安吉塔
Angulo 安古洛 Aniceto 阿尼塞托 Anita 阿尼塔 Ansaldi 安薩爾迪
Ansaldo 安薩爾多 Anselmo 安塞爾莫 Antígono 安蒂戈諾 Antillón 安蒂利翁
Antón 安東 Antoni 安東尼 Antonia 安東尼婭 Antonino 安東尼諾 Antonio 安東尼奧
Antoro 安托羅 Antúnez 安圖內斯 Antuña 安圖尼亞 Anzola 安索拉
Aoracio 奧拉西奧 Aparicio 阿巴里西奧 Apiau 阿皮奧 Apolonio 阿波洛尼奧
Aquilino 阿基利諾 Aquino 阿基諾 Aragón 阿拉貢 Aragones 阿拉貢內斯
Araneta 阿拉內塔 Arang 阿朗 Arango 阿朗戈 Arano 阿拉諾 Araujo 阿勞霍
Arballo 阿瓦略 Arbeletche 阿維萊切 Arbildua 阿維爾杜亞 Arbo 阿爾沃
Arboleda 阿沃萊達 Arbulú 阿爾武盧 Arca 阿爾卡 Arcadio 阿卡迪奧
Arcas 阿爾卡斯 Arcia 阿西亞 Arcila 阿西拉 Arco 阿爾科 Arduengo 阿杜恩戈
Arecco 阿雷科 Arechávala 阿雷查瓦拉 Arellano 阿雷利亞諾
Arellanos 阿雷利亞諾斯 Arenas 阿雷納斯 Areniago 阿雷尼亞戈
Arestizábal 阿雷斯蒂薩瓦爾 Arévalo 阿雷瓦洛 Argas 阿加斯 Argelia 阿赫利婭
Argelino 阿赫利諾 Argentino 阿亨蒂諾 Argimiro 阿希米羅 Argomedo 阿戈梅多
Argonz 阿貢斯 Arguas 阿瓜斯 Argüello 阿圭略 Argueta 阿格塔

Argumedo 阿古梅多 Arias 阿里亞斯 Arigos 阿里戈斯 Arispe 阿里斯佩
 Aristeo 阿里斯特奧 Aristófanés 阿里斯托法內斯 Arizpe 阿里斯佩 Arjona 阿霍納
 Armando 阿曼多 Armas 阿馬斯 Armellada 阿梅利亞達 Armengola 阿門戈拉
 Armijo 阿米霍 Arnaldo 阿納爾多 Arnedo 阿內多 Arnello 阿內略 Arnes 阿內斯
 Arnoldo 阿諾爾多 Aroca 阿羅卡 Arocha 阿羅查 Aros 阿羅斯
 Arosemena 阿羅塞梅納 Arpa 阿爾帕 Arreaza 阿雷亞薩 Arrechea 阿雷切亞
 Arredondo 阿雷東多 Arreola 阿雷奧拉 Arriagada 阿里亞加達 Arriano 阿里亞諾
 Arriaza 阿里亞薩 Arrieta 阿列塔 Arrio 阿里奧 Arriola 阿里奧拉
 Arrisueño 阿里蘇埃尼奧 Arrivillaga 阿里維利亞加 Arrízaga 阿里薩加
 Arroba 阿羅瓦 Arrocha 阿羅查 Arrondo 阿龍多 Arrosa 阿羅薩
 Arróspide 阿羅斯皮德 Arroya 阿羅亞 Arroyo 阿羅約 Arruda 阿魯達
 Arrúe 阿魯埃 Arrús 阿魯斯 Arsenio 阿塞尼奧 Arseno 阿塞諾
 Artajerjes 阿塔赫爾赫斯 Artajo 阿塔霍 Artaza 阿塔薩 Arteaga 阿特亞加
 Arteche 阿特切 Artemio 阿特米奧 Arteta 阿特塔 Arteza 阿特薩 Arthur 阿圖爾
 Artibani 阿蒂瓦尼 Artídor 阿蒂多羅 Artigas 阿蒂加斯 Artola 阿托拉
 Artur 阿圖爾 Arture 阿圖雷 Arturo 阿圖羅 Arvelo 阿維洛 Arza 阿爾薩
 Arze 阿爾塞 Arznaga 阿斯納加 Arzu 阿爾蘇 Asacki 阿薩基 Asalgado 阿薩爾加多
 Asario 阿薩里奧 Ascárate 阿斯卡拉特 Ascone 阿斯科內 Ascui 阿斯奎
 Asdrúbal 阿斯德魯瓦爾 Asencio 阿森西奧 Asenjo 阿森霍 Asensio 阿森西奧
 Asevedo 阿塞維多 Aspillaga 阿斯皮利亞加 Asquia 阿斯基亞 Asso 阿索
 Astélarra 阿斯特拉腊 Astesano 阿斯特薩諾 Astigueta 阿斯蒂格塔
 Astoreca 阿斯托雷卡 Astorga 阿斯托加 Astrada 阿斯特拉達 Astrosa 阿斯特羅薩
 Astrúbal 阿斯特魯瓦爾 Astudillo 阿斯圖迪略 Asturia 阿斯圖里亞
 Asturias 阿斯圖里亞斯 Asua 阿蘇亞 Asunta 亞森塔 Asurbánipal 阿蘇瓦尼帕爾
 Atahualpa 阿塔瓦爾帕 Atala 阿塔拉 Ateaga 阿特亞加 Athos 阿托斯
 Atias 阿蒂亞斯 Atila 阿蒂拉 Atilano 阿蒂拉諾 Atilio 阿蒂略 Attilio 阿蒂略
 Atucha 阿圖查 Aub 奧夫 Aubel 奧維爾 Aubert 奧維爾特 Audino 奧迪諾
 Augusta 奧古斯塔 Augustín 奧古斯廷 Augusto 奧古斯托 Aura 奧拉
 Aureliano 奧雷利亞諾 Aurelio 奧雷略 Aurora 奧羅拉 Ausias 奧西亞斯
 Avalos 阿瓦洛斯 Avelino 阿維利諾 Avellán 阿維連 Avellana 阿維利亞納
 Avellanal 阿維利亞納爾 Avello 阿維略 Avendaño 阿文達尼奧 Averill 艾夫里爾
 Avévalo 阿維瓦洛 Avila 阿維拉 Avilez 阿維萊斯 Aviño 阿維尼奧 Ayala 阿亞拉
 Aybar 艾瓦爾 Ayere 阿耶雷 Ayora 阿約拉 Ayoroa 阿約羅亞 Ayuso 阿尤索
 Azárola 阿薩羅拉 Aznar 阿斯納爾 Azpicueta 阿斯皮奎塔 Azua 阿蘇亞
 Azula 阿蘇拉 Azzari 阿薩里 Azzini 阿西尼

출처:

<http://zh.wikipedia.org/zh/%E8%A5%BF%E7%8F%AD%E7%89%99%E8%AF%AD%E5%A7%93%E5%90%8D%E5%88%97%E8%A1%A8>

[북한의 스페인어 표기]

남한과 북한은 각각의 어문 규범에서 서로 다른 외래어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남북한의 외래어 표기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초성 자음의 표기: 남한의 외래어 표기는 격음(표,트,크,츠)이 주로 나타나고 북한의 외래어 표기에서는 경음(ㅃ,ㅆ,ㄱ,ㅈ)이 주로 나타난다.

나. 모음의 표기: 남한의 경우에는 ‘ㄱ’ 모음이 많이 사용되는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ㅏ’나 ‘ㅑ’가 많이 쓰이고 있다. 예)레이저-레이자, 컨베이어-콘베아

다. 어말의 자음: 남한에서는 받침으로 처리하는 한편 북한에서는 ‘ㅡ’모음을 첨가하여 새로운 음절을 구성한다. 예)로봇-로보트, 블록-블로크

라. 북한의 외래어 표기에는 ‘구개음화’의 경향이 두드러진다. 예)딜레마-지렌마, 디스토마-지스토마

마. 외국지명의 표기에도 남과 북이 차이를 보인다. 예) 베트남-웰남, 터키-튀르끼예

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말들과 오래전부터 정착된 외래어들은 억지로 순우리말이나 고유어로 바꾸지 아니하고 그대로 쓰기로 방침을 바꿨다. 예를 들어 피아노 등의 약기 이름이 그러하고 아이스크림을 의미하는 얼음보숭이도 그냥 아이스크림으로 표기하기로 한 것들이 그 사례이다.

사. 남한이 영어 외래어가 많은 것과 대조적으로 북한은 러시아 외래어가 많은데 별도의 순화어 없이 경음으로 표기한 러시아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예) 꿈무나(공동 집단), 그루빠(그룹), 트락또르(트랙터), 쟈마(주제), 감빠니아(집중 사업), 폼비나트(종합 공장), 빼오네르(소년단).

이와 같은 남북한 외래어 표기의 특징은 남한의 외래어 표기법은 주로 영어의 영향을 받아서 영어식의 발음을 표기하는 것이 주된 경향인 반면, 북한의 외래어 표기법은 러시아어의 영향과 함께 일본어의 영향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외래어 표기의 특징은 다음의 일반적인 어휘와 함께 각 국가명의 표기에서 나타난다(박시균·권병로, 2003).

(1) 일반 어휘의 예

구분	남한	북한
balance	밸런스	바란스
block	블록	블로크
cabinet	캐비닛	까비네뜨
candle	캔들	간데라
champagne	샴페인	삼팡
conveyor	컨베이어	콘베아
cover	커버	카바
cup	컵	고뿌
dance	댄스	딤스
data	데이터	데타
distoma	디스토마	지스토마
jazz	재즈	쟈즈
jelly	젤리	제리
manteau	망토	만또
manufacture	매뉴팩처	마누팍뚜라
minus	마이너스	미누스
missile	미사일	미싸일
montage	몽타주	문따쥬
mycine	마이신	마이싱
nut	너트	나트
placard	플래카드	프랑카드
pomade	포마드	뽀마도
pulp	펄프	팔프
race	레이스	레스
radio	라디오	라지오
rail	레일	레루
razer	레이저	레이자
ribbon	리본	리봉
robot	로봇	로보트
romance	로맨스	로만스
sack	색	사크
shower	샤워	샤와
shutter	셔터	샤타
skate	스케이트	스케트
skirt	스커트	스카트
studio	스튜디오	스타지오
television	텔레비전	텔레비죤
tractor	트랙터	뜨락또르

(2) 국명과 수도명의 예

국명		수도명	
남한	북한	남한	북한
그레나다	그레네이더	세인트조지스	췌인트췌지스
그리스	히랍	아테네	대아테네
기니	기네	코나크리	꼬나크리
나이지리아	나아제리아	라고스	라고스
네덜란드	화란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덴마크	단마크	코펜하겐	뢰뵘하븐
레바논	레바논	베이루트	바이루트
루마니아	로르니아	부쿠레슈티	부꾸레슈띠
마다가스카르	말가슈	안타나나리보	안따나나리부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칼라룸푸르	꾸알라룸뿌르
몰디브	말디브	말레	말레
몽고	몽골	울란바토르	울란바따르
바티칸	바티칸바띠까노	바티칸	바띠까노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슈	다카	다카
베냉	베닌	프르토노브	꼬또누/쁘르또노보
베트남	월남	하노이	하노이
벨기에	벨지끄	브뤼셀	브류셀
보츠와나	보쯔와나	카보로네	가보로네
부탄	부탄	팀부	팀푸
불가리아	벌가리아	소피아	쏘피아
브루나이	부르네이	반다르세리베가완	반다르세리베가완
상투메 프린시페	산토메 프린시페	상투메	산토메
세이셸	세이셸	빅토리아	빅토리아
소말리아	소말리아	모가디슈	모가디쇼
스와질란드	스위질랜드	음바바네	음바바네
스웨덴	스웨리에	스톡홀름	스톡홀름
스페인	에스빠냐	마드리드	마드리드
시리아	수리아	다마스쿠스	다마스끄
시에라리온	시에라레온	프리타운	프리타운
아랍에미리트	아랍추장국	아부다비	아부다비
아이슬란드	이슬란드	레이카비크	레이카비크
알제리	알제리	알제	알좌자이크
엘살바도르	쌀바도르	산살바도르	싼쌀바도르
오만	오만	무스카트	마스까트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랄리아	캔버라	캔베라
오스트리아	오지리	빈	윈
이집트	애급	카이로	까히라
자메이카	저메이커	킹스톤	킹스톤
적도기니	적도기네	말라보	말라보
차드	차드	엔자메나	느자메나
카보베르데	베르데갑	프라이다	쁘라야

카타르	까따르	도하	도하
캄푸치아	캄보쟈	프놈펜	프놈펜
코모로	꼬모르	모로니	모로니
타이	타이	방콕	방콕크
터키	토이키	앙카라	앙까라
튀니지	뚜니지	튀니스	뚜니스
폴란드	뿔스까	바르샤바	와르샤와
프랑스	프랑스	파리	빠리
헝가리	웡그리아	부다페스트	부다뻬슈뜨

출처: http://www.hangeulmuseum.org/sub/future/unification/differ_han02.jsp

4.5. 이탈리아

이탈리아어에도 많은 외래어가 존재한다. 독일어에서는 철학적인 의미의 단어나 전쟁과 관련된 단어들을, 프랑스어에서는 요리와 패션분야의 단어들을 차용하였으며, 최근에는 영어로부터 정보와 관련된 많은 단어들을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탈리아 외래어 표기 규정 중에서 “원음주의”와 “이중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4.5.1. 원음주의

이탈리아 내 외래어 표기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외래어를 완벽히 “이탈리아어화”하여 사용하였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외래어의 원래 형태를 유지하여 표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외래어 표기규정을 따른 표기와 최근의 원음주의를 따른 표기가 경쟁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국내의 현실과 앞으로 원음을 살려서 표기하려는 경향이 우세할 것이라는 예측을 고려해 볼 때, 외래어 표기 규정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원음주의를 반영하여 외래어 표기 규정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언어가 가진 특수문자나 기호 그리고 악센트 부호까지 고려하여 표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탈리아어 외래어 표기 규정에 “그 나라의 예외적인 것을 포함해 인칭, 기관의 외래어 명사는 이탈리아어로 보고 원래의 언어로 표기하지만, 표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어 철자로 단순화하여 사용한다”와 “일상에서 일반적으로 다양한 철자로 사용되고 있는 명칭의 경우에 특수문자가 없는 명칭, 공식문서로부터의 추정 또는 표준이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을 나타내는 형태로 쓰는 것을 권장한다”를 두고 있어 이탈리아어 알파벳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특수기호들은 과감히 삭제하여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4.5.2. 이중표기

이중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이탈리아어에는 “국경지역처럼 이중 언어 명칭을 가진 조직이나 기관인 경우는 두 개의 명칭 모두를 인정한다. 그러나 공식 문서에서 같은 명칭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의 이탈리아어 형태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탈리아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과 같은 국가들과 인접해 있어 이들 나라들과 인접한 국경지역에서는 이탈리아어를 비롯한 인접 국가들이 언어가 사용되어지는 경우에, 이중 언어 명칭을 인정하면서도 자국의 단어 형태 언어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탈리아”와 “이태리”, “베네치아”와 “베니스”처럼 하나의 나라와 도시에 대한 명칭이 혼재하는 경우에, 이 두 명칭 모두를 인정하되 언론이나 출판 및 학술 등과 같은 전문분야에서는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우선시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6. 일본

4.6.1. 국가 차원의 외래어 표기 관련 정책

일본에서 외래어 표기 규범의 제정은 ‘국어심의회’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 국어심의회는 ‘외래어 표기 위원회’를 설치하여 외래어 표기에 대해서 검토하여 ‘국어심의회 답신’의 형태로 보고서를 주무 장관(문부과학성 대신)에게 제출한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내각 고시’를 공포하여 외래어 표기의 규범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내각 훈령’을 통해서 각 행정기관에 외래어 표기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외래어 표기 규범은 1991년 2월 7일의 국어심의회 답신을 토대로, 같은 해 6월 28일에 공포된 내각고시 제2호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내각고시 제2호는 일반 사회생활에 있어서 현대 일본어를 표기하기 위한 ‘외래어 표기’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내각고시 제2호는 전문, 본문, 부록으로 되어 있으며, 본문에는 ‘외래어 표기’에 사용할 가나문자와 부호(합계136개, 가타카나 135개와 장음부호 1개)가 제시된 표(제1표·제2표) 및 유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부록은 구체적인 단어의 예를 가나 순서로 제시한 용례집이다.

‘국어심의회’는 1934년에 설치된 일본의 국어 정책에 관한 심의회로, 일본의 국어 정책에 관한 많은 건의와 답신을 하였으며, 중앙 정부의 개편에 따라서 2001년에 폐지되고, 그 이후는 2001년에 새로 설치된 문부과학성 산하 ‘문화심의회 국어분과회’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계승하여 실천하고 있다.

4.6.2. 민간 차원의 외래어 표기 관련 활동

민간 차원에서는 Japan Technical Communicators Association이 2000년에 ‘가타카나 표기 검토 워킹 그룹’을 결성하여 사용자가 직접 보고 듣는 상품에 표기된 외래어의 표기 통일을 위한 조사 검토를 실시해 왔으며, 먼저 표기상의 혼란이 가장 심한 ‘어말의 장음 부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관련 기업과 업계 단체에 찬동을 호소해 왔다. 2006년에는 ‘어말의 장음 부호’ 이외에 표기 혼란이 큰 사항에 대해서 기업 관련자를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 상품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결과를 ‘내각고시’와 각 미디어가 규정하는 표기 규칙 등과 비교 검토하여 2008년에 가이드라인(제 2판)을 공개하였다.

4.6.3. 한일 양 언어 외래어 표기 규범의 효율성 비교

한국과 일본의 외래어 표기 규범에 대한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서는 한국의 경우처럼 각 외국어별로 세부적인 표기 규범을 정하지 않고, 범용적으로 외래어 표기에 사용할 가나문자와 부호(합계136개, 가타카나 135개와 장음부호 1개)를 표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한국에 비해서 외래어 표기 규범에 대한 강제성이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각고시’ 제2호의 머리말에 언급되어 있듯이 외래어 표기 규범은 각 전문분야와 개개인의 표기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특히 고유명사(인명, 회사명, 상품명)에는 적용시키지 않고, 과거에 사용된 여러 가지 표기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본에서 외국의 지명과 인명을 포함하여 외래어를 일본어 가나로 표기하는 기준은 내각고시 훈령 “외래어의 표기”이며, 현재 법령, 공용문서, 마스크, 학교교육 등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마스크 등에서 외래어 표기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다면 그것은 별도의 메커니즘의 존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재의 규정을 준수하고 널리 보급하고자 하는 마스크 자체의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일본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NHK에서는 자체적으로 “NHK 신용자용어 사전(新用字用語辭典)”(NHK방송문화연구소 편집)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책은 사회 변화에 맞춘 살아있는 새로운 말을 각 분야에서 선정하여 수록하고 있는데, 수록 단어 수가 3만5천에 이르며 풍부한 용례를 제시하고 있고, 부록으로 상용 한자 일람, 인명용 한자, 로마자 표기법, 현대 가나 표기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 신문기자를 위해서 편찬된 “기자 핸드북 제12판 신문 용자 용어집”(일반사단법인 공동통신사), 아사히(朝日) 신문사의 “개정신판 아사히신문의 용어 안내”(아사히 신문사) 등이 있다. 또한, 일반 대중이 시중 서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본어 표기 규정 관련 핸드북 등이 일반 출판사에 의해서 다수 출판되고 있다.

[부록]

내각훈령 제1호

각 행정기관

‘외래어 표기’의 실시에 관하여

오늘 정부는 내각고시 제2호에서 ‘외래어 표기’를 고시했다.

이제부터 각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을 현대 국어를 써서 나타내기 위한 ‘외래어 표기’의 근거로 삼도록 한다.

1991년 6월 28일

내각총리대신 가이후 도시키(海部 俊樹)

이상의 내각고시는 1991년 2월 7일 국어심의회에서 답신해온 ‘외래어 표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하에서 그 답신의 전문을 알아본다.

국어심의회의 답신 ‘외래어 표기’ 전문

[들어가기]

국어심의회는 1966년 6월 이후로 문부대신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시책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대하여’라는 심의를 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당용한자개정 음훈표’와 ‘개정 오쿠리가나(送り仮名) 다는 법’(1972년 6월), ‘상용한자표’(1981년 3월), ‘개정 현대가나찰자법’(1986년 3월)을 답신하여 이것들은 모두 내각고시·내각훈령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어서 국어심의회는 1987년 1월 이후 ‘외래어 표기’의 문제에 대해 심의를 추진하여 이번에 이 “외래어 표기”를 작성했다.

[“외래어 표기”의 작성 경위]

국어심의회는 1987년 1월의 총회에서 1966년의 자문에 대해 검토해야할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사항 중에서 ‘현대가나찰자법’에 관련되는 사항인 ‘외래어 표기’를 문제로 삼고 심의하기로 했다. 이후 총회를 시작으로 외래어 표기 위원회, 소위원회 등 총 86회의 회의를 열어 검토하여, 1990년 3월에는 외래어표기위원회의 시안을 공표하고 널리 각 방면의 의견을 듣는 등 4년에 걸쳐 신중한 심의를 해왔다.

심의에서는 1954년의 국어심의회부회보고 ‘외래어 표기에 관하여’를 시작으로 외래어와 외국의 지명·인명의 표기법에 관한 메이지 이후의 여러 계획, 일본신문협회와 일본방송협회 등에서 정해져 있는 현행의 여러 기준을 참고하면서 현대의 소형국어 사전에 기록되어있는 외래어, 관보, 관청의 백서, 교과서 등에 출현하는 외래어 또는 외국의 지명·인명 표기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 힘썼다. 또한 각계의 각 방면에서 모아진 요청이나 의견등도 참조했다.

그 결과, 이하에서 기술되는 인식과 방침 아래, 이 ‘외래어 표기’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외래어 표기」에 대한 사고방식]

1. 외래어에 대하여

외국어를 국어로 도입한 단어를 외래어라고 한다. 한자어의 대부분은 예로부터 중국어에서 들여온 것이지만 관용적으로 외래어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무로마치 말기 이후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로부터, 에도(江戸) 말기 이후에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그 외 여러 구미언어로부터 대부분의 단어를 도입하였다. 그로 인해 외래어라고 하면 주로 이들 구미계의 여러 언어에서 유래하는 것을 가리킨다. 외래어를 종종 ‘서양어’라고 일컫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에서는 그 중에서도 영국 미국계의 단어가 외래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지만, ‘シューマイ’ ‘마ージャン’ ‘온도르’ ‘키셀’ 등 근래에는 여러 동양 언어로부터 유래하는 외래어도 있다.

외래어는 원래의 외국어로부터 국어로 들어올 때 국어의 구조에 맞춰 발음이나 어형, 의미용법에 변화가 일어나 국어로 융화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국어화의 정도에 따라 외래어를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국어로 도입한 시기가 오래되어 국어로 융합되어 있고, 외국어로부터 유래했다는 느낌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것. 예를 들면, ‘たばこ, 煙草’ ‘てんぷら, 天麩羅’ ‘じゅばん, 襦袢’ 등. 이 종류는 히라가나나 한자로도 많이 쓰이고, 어형에 있어서나 표기법에 있어서도 충분히 국어로 융합되었다.

(2) 이미 국어로서 익숙해져 있지만 아직 외국어로부터 유래했다는 느낌이 남아있는 것. 예를 들면, ‘ラジオ’ ‘ナイフ’ ‘スタート’ 등. 이 종류는 어형의 혼동이 비교적 적고, 비교적 잘 국어화한 어형에 근거해서 가타카나로 표기한다.

(3) 외국어라는 느낌이 다분히 남아 있는 것. 예를 들면, ‘ジレンマ’ ‘フィクション’ ‘エトランゼ’ 등. 이 종류는 어형에 혼란이 있는 것이 많다. 외국어의 원형을 고려해서 어형을 바로잡으려는 힘이 작용하기 쉽고, ‘ジレンマ’에서는 ‘ディレンマ’, ‘エトランゼ’에서는 ‘エトランジェ’와 같은 혼란이 생긴다. 현대의 일본어나 한자에는 없는 음이 쓰이기도 한다.

한편 국어의 문장이나 담화 안에 외국어의 어구가 그대로 들어와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은 외국어라 불려서 외래어와는 구별해야 하며, 또한 이번에 문제로 삼을 직접적인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했다. 단, 이런 종류의 외국어와 상기 (3)의 종류의 외래어와의 경계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다.

또한, ‘뉴욕’ ‘로마’와 같은 지명이나 ‘콜롬버스’ ‘게이트’와 같은 인명은 고유명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외래어와 구별되는 것이지만, 국어로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외래어와 공통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이번의 ‘외래어 표기’의 심의에서는 이와 같은 지명·인명도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중국·한국 등의 지명·인명은 우리나라의 문장 안에서 오랫동안 한자로 쓰이는 습관이 있었다. 각 나라의 원음에 입각한 가타카나로 표기되기도 하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로서,

이번 심의에서는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단, 이번에 가리키는 것은 ‘シャンハイ’ ‘ソウル’ 등의 표기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 P T A, C M, k g 등 국어 안에서 쓰이는 알파벳 표기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기로 하였다.

2. 외래어를 가타카나로 쓰는 습관에 관하여

현대의 외래어는 가타카나로 써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외래어 표기의 역사를 보면 이런 경향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구미계의 외래어가 유입되기 시작한 무로마치(室町) 말기부터 에도 초기 국어의 문헌에서는 외국어나 외래어의 표기는 한자이기도 하고 히라가나이기도 하며 때로는 가타카나이기도 해서 일정하지 않았다. 외래어를 한자로 쓰는 것은 메이지 이후에도 계속되어 단어에 따라서는 전후에까지 남아있었다.

한자 가나 혼합문 안에 외국어·외래어를 가타카나로 쓰도록 조직적으로 행한 예는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 저술 (“西洋紀聞”—18세기 초)에서 볼 수 있다. 네덜란드 학문의 문헌에서는 이것을 계승하여 메이지 시기 외래어가 급증함에 따라 외래어를 가타카나로 쓰는 습관을 확립시켰다.(“國定讀本”에서는 1910년부터 사용한 第2期國定讀本 이후, 가타카나로 쓰는 일이 많아졌다.) 그 후, 다이쇼(大正)부터 쇼와(昭和)에 걸쳐 새로운 외래어가 증가하여 2차세계대전후의 외래어가 급증하는 시기에 외래어의 가타카나 표기가 결정적이 되었다.

3. 외래어의 음과 가나표기

국어의 음은, ‘ア’ ‘イ’ ‘ウ’ ‘エ’ ‘オ’ ‘キャ’ ‘キュ’ ‘キョ’ ‘ジャ’ ‘ジュ’ ‘ジョ’ 등의 가나에 대응하는 음을 기본 단위로 한다. 그 종류는 현대의 흔히 말하는 일본어와 한자에 대해서는, 직음(直音), 요음(拗音)을 합쳐서 100개로, 여기에 발음(撥音), 축음(促音), 장음(長音)이 추가된다.

외국어가 외래어로서 국어에 융합되는 데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이 음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게다가 외국어 원음에 따라 현대의 일본어나 한자에는 없는 음이 외래음으로서 국어 안에 들어와 그에 해당하는 특별한 가나표기가 연구되어 왔다. 예를 들면, ‘フィルム’의 ‘フィ’, ‘メロデー’의 ‘デイ’와 같은 것이다. 또, 자음(長音)에 대해서는 일본어나 한자의 경우와 달리, 장음부호 ‘ー’을 사용하는 것이 거의 정착되어 있다.

이와 같은 외래어의 가나표기에 대해서는 종래 각 방면에서 논의되고 여러 약속이 입안,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들은 반드시 일치된 것이 아니고, 또 그 약속에 맞지 않게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현대에 적합한 형태를 생각한 것이다.

‘외래어 표기’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가나의 음에 대응하여 적용시킨다는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기본적인 방침으로는 관용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외

래음으로서 국어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실례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본래의 국어의 음 외에도, (1)분별하여 말하고 듣는 데에 있어서 그다지 무리가 없고, 외래음으로서 국어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되는 가나, (2)분별하여 말하고 듣는 데에 있어서는 충분히 안정되어 있지 않지만, 외래음으로서 어느 정도 국어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되는 가나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는 여러 상황에 대응하여 이것 이외의 음을 가나로 써서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약속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하기로 했다.

〔“외래어 표기”의 성격, 구성, 내용〕

이 “외래어 표기”의 성격,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54년의 국어심의회부회보고 ‘외래어 표기에 관하여’는 종래 각 방면에서 참고로 해 왔기 때문에, ‘내용’의 항목에서는 편의상 그것과 비교한 것을 적었다.

1. 성격

(1)이 “외래어 표기”는 법령, 공용문서, 신문, 잡지, 방송 등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 현대의 국어를 써서 나타내기 위한 ‘외래어 표기’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2)이 “외래어 표기”는 과학, 기술, 예술 그 외 각 전문분야와 개개인의 표기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3)이 “외래어 표기”는 현대의 국어를 써서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과거에 쓰인 여러 가지 표기(<주>참조)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고유명사 등(예를 들면 인명, 회사명, 상품명 등) 에는 적용시키지 않는다.

<주>예를 들면, 메이지 이후의 문예작품 등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가나표기도 사용된다.

キ：スキフトの「ガリワ`ー旅行記」 エ：エルテル ヲ：ヲルポール

ワ`：ワ`イオリン キ`：キ`오론 エ`：エ`르레エヌ

ヲ`：ヲ`르가 지：켄브리썬지 ツ：왓즈왓스

2. 구성

(1)이 “외래어 표기”는 ‘본문’과 ‘부록’으로 이루어진다.

(2)본문에는 ‘외래어 표기’에 사용되는 가나와 부호의 표를 게재하고, 여기에 유의사항으로 원칙적인 것과 세칙적인 것을 첨가했다.

(3)부록에는 용례집으로서 일상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외래어를 중심으로, 유의사항의 세칙적인 것에 예시한 단어나 그 외 지명·인명의 예 등을 함께 게재했다.

3. 내용(1954년의 국어심의회부회보고 ‘외래어 표기에 관하여’와의 비교)

(1)이 “외래어 표기”는 외래어와 외국의 지명·인명을 써서 나타내는 경우의 가나의 사용방법을 가리킨 것이다.

<주>1954년의 보고에서는 외국의 지명·인명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고려하기로 하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シエ, ジエ’ ‘테이, 데이’ ‘피아, 파이, 페, 포’ ‘테유’의 가나는 외래어나 외국의 지명·인명을 써서 나타내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단, 종래 ‘세, 제’ ‘치, 지’ ‘하, 히, 헤, 호’ ‘슈’라고 쓰는 관용은 그것에 준한다.)

<주>1954년의 보고에서는 ‘시에, 지에’ ‘테이, 데이’ ‘피아, 파이, 페, 포’는 가능한 한 ‘세, 제’ ‘치, 지’ ‘하, 히, 헤, 호’라고 쓰고, ‘테유’는 ‘슈’라고 쓰기로 하였다.

(3)‘우이, 우에, 우오’ ‘쿠아, 쿠이, 쿠에, 쿠오’ ‘비아, 바이, 뷔, 뷔에, 뷔오’라든지 ‘트우, 도우’ ‘테유’ ‘퓨’ ‘뷰’등의 가나는 외래어나 외국의 지명·인명을 원음이나 본래의 철자에 되도록 가깝게 표기하려는 경우에 사용하기로 했다.

<주>1954년의 보고에서는 ‘우이, 우에, 우오’ ‘쿠아, 쿠이, 쿠에, 쿠오’ ‘비아, 바이, 뷔, 뷔에, 뷔오’는 되도록 ‘우이, 우에, 우오’ ‘카, 쿠이, 쿠에, 코’ ‘바, 비, 브, 베, 보’라고 쓰고, ‘트우, 도우’ ‘테유’ ‘퓨’ ‘뷰’는 ‘ト, ド 또는 ツ, ズ’ ‘チュ’ ‘ヒュ’ ‘ビュ’라고 쓰기로 하였다.

[기타]

1. 학교 교육

이 “외래어 표기”는 성격의 항목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대의 일반적인 사회 생활에 있어서 ‘외래어 표기’의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이 취지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외래어, 외국어가 범람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표기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된 문제로서 총회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필요 이상으로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반드시 자연스럽게 도태되어 필요한 것만이 정착해 갈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4.7. 중국

4.7.1. 도입

중국어는 음운 체계가 서양 언어에 비하여 단순하고 성조를 제외한 음절의 개수 역시 약 400여개에 지나지 않지만 공식 문자로 사용되는 한자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에 사용되는 한자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진다. 중국어의 외래어 표기는 크게 한자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는 음역과 의미를 고려한 의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음역을 중심으로 한 외래어 표기가 논의의 대상이므로 아래의 중국어 외래어 표기의 역사 역시 음역을 기준으로 하였다. 아래에서 인용되는 중국어는 모두 중국어의 외래어표기법 중 정부안(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8호(1995. 3. 16.))으로 표기하였다

4.7.2. 중국의 외래어 표기 역사

중국의 외래어 표기에서 가장 이른 시기는 한나라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실크로드를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과 교역이 이루어지면서 해당 지역의 언어가 한자로 표기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스즈(獅子<sēr, ‘사자’), 푸타오(葡萄<pudāwa, ‘포도’) 등으로 이러한 단어들은 중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일본어에서도 한자어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외래어들은 기본적으로 음역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한나라 말기 불교가 전래된 후 불경이 번역되면서 산스크리트어 단어가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불경에서 중국어로 번역된 외래어는 대부분 산스크리트어로 예를 들면 포퓌(佛陀<Buddho, ‘불타’), 비추니(比丘尼<Bhiksuni, ‘비구니’) 등의 단어가 대표적이다. 수나라와 당나라 시기에도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언어가 유입되어 음역되었다.

명, 청 시기에는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많은 서양 언어가 번역되기 시작하였다. 불경이 번역으로 산스크리트어가 표기되는 과정과 유사하게 성경이 중국어로 번역되면서 예수(耶穌<Jesus, ‘예수’), 사탄(撒旦<satan, ‘사탄’) 등의 단어가 음역되었다. 이 시기의 선교사들은 서양의 수학, 천문학 등을 전해주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학문적 어휘들도 같이 번역되어 전파되었다. 예를 들면 지허(幾何<geometry, ‘기하’), 디추(地球<earth, ‘지구’) 등의 단어이다.

청나라 말기 중국은 아편 전쟁에서 영국에 패한 이후 급격하게 서양과 일본의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였다. 이 시기에 급격하게 영어를 중심으로 서양 언어가 대규모로 유입되었다. 특히 영어는 정치, 경제, 과학 등 전문적인 단어 뿐 아니라 일상용어까지 중국어에 침투하기 시작하였고 공적 번역 기관 또는 개인 번역가에 의하여 대규모로 번역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외래어는 대부분 처음에 음역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더모커라시(德

謨克拉西<democracy, ‘민주주의’), 카루리(卡路里<calorie, ‘열량’), 카마이라(卡麥拉<camera, ‘카메라’), 카이쓰(開司<kiss, ‘키스’), 미쓰튀(密斯脫<mister, ‘미스터’) 등이다.

19세기 말, 20세기 초를 거치면서 일본인들이 한자를 사용하여 번역한 서양의 용어가 중국에 널리 전파되었다. 이시기는 중국이 서양 학문을 흡수하는 주도권을 일본에게 빼앗긴 시기로 일본의 발 빠른 서양 문물의 흡수에 기인한다. 일본은 서양 문물을 중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입하여 번역하였다. 이 번역어는 일본인들이 일본어에 사용하는 한자를 중심으로 ‘일본식 한자어’이다. 이 일본식 한자어가 중국어에 유입되었을 때는 그 한자어의 일본어 발음 및 서양 언어의 원래 발음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중국인들의 한자 발음으로 읽혀졌다. 이와 같은 일본식 한자어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 원래 중국어에 있던 말을 새롭게 번역어로 사용한 것(원췌(文學<bungaku(文學)<literature, ‘문학’), 둘째, 원래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았던 말을 일본인들이 조합하여 번역어로 사용한 것(메이췌(美學<bigaku(美學)<aesthetics, ‘미학’), 세 번째, 일본인들이 일본어 한자음으로 음역한 것(와쓰(瓦斯)<gasu(瓦斯)<gas, ‘가스’)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난 1949년 이후에는 외래어가 대량으로 흡수된 시기를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49년부터 1960년대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러시아어에서 많은 수의 단어가 차용되었다(두마(杜馬<duma ‘두마’), 푸터자(伏特加<vodka ‘보드카’). 두 번째 시기는 1970년대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표방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언어에서 다양한 외래어가 유입되어 표기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영어이다.

4.7.3. 중국의 외래어 표기 방식

중국어의 외래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되어 왔다. 따라서 한 외래어에 다양한 표기가 과도기적으로 존재하기도 하였고, 대륙과 대만, 홍콩 등의 표기 방식이 다르기도 하다. 이렇게 다양한 외래어 표기 방식은 기본적으로 음운 체계가 다르고 한자의 숫자가 많은 것에 기인한다. 또 중국의 특정 방언 지역의 한자음에 따라 외래어가 표기된 후 다른 방언 지역이나 표준어 지역에서 발음의 괴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외래어의 표기 방식의 첫 번째는 음역이다. 중국어는 음운 체계가 서양 언어에 비하여 단순하고 성조를 제외한 음절의 개수 역시 약 400여개에 지나지 않지만 공식 문자로 사용되는 한자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에 사용되는 한자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진다. 음역은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순수한 음역어와 의미를 고려한 음역어이다. 순수 음역어는 한자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해당 음절에 해당 단어를 대응시킨 것이고, 의미를 고려한 음역어는 기본적으로 음역어이지만 원래 언어의 의미 또는 번역자의 의도에 따라 한자의 의미를 고려하여 만든다. 의미를 고려한 음역어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국어의 외래어는 단순 음역어가 의미를 고려한 음역어보다 많다. 단순음역어가 비교적 적은 영어의 경우도 71:29의 비율로 단순음역어가

우위에 있다. 순수 음역어는 비교적 고정화한 음역 방식이 존재하는데 현재 중국에는 영어를 비롯하여 50여종 언어의 음역표가 통용된다(표 1. 영중음역표 참고).

두 번째는 의역어이다. 현대 중국어에는 다양한 형태의 외래어가 존재하는데 그 중 일부는 의역어로 통용되고 있다(샤짜이(下載<download, ‘다운로드’), 환젠(軟件<software, ‘소프트웨어’)

4.7.4. 중국의 외래어 표기 규정의 법적 지위 및 명칭

중국어의 일반 표기 규정은 중국의 표준어인 푸통화와 문자체계인 규범한자를 중국의 통용 언어로 규정한 “중화인민공화국국가통용언어문자법”(2001)을 가장 상위 규정으로 하고 있다.

외래어의 표기와 관련된 세부적인 표기 규정은 주로 세계 주요 국가의 지명을 표기하는 방식을 고안하면서 제정되었다. 1966년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여섯 언어에 대한 음역표 초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1999년 유엔에 중국어 표준 지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지명표준화 규정이 확정되었다. 현재 국가측량국의 지명 표기 규정인 “외국어 지명의 한자 번역 규칙”(1999)이 위의 여섯 언어에 대하여 국가 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다. 표 1은 영어 음역에 관한 기본 음역표이다. 인명도 지명표에 준하여 음역된다.

韦氏音标	b	p	d	t	g	k	v	w	f	z	ts	s th	zh	sh	j	ch	h	m	n	l	r	y	gw	kw	hw					
国际音标	b	p	d	t	g	k	v	w	f	z	ts	s ⁰⁰	ʒ	ʃ	dʒ	tʃ	h	m	n	l	r	j	gw	kw	hw					
韦氏音标	国际音标	布	普	德	特	格	克	夫(弗)	夫(弗)	夫(弗)	兹	茨	斯(丝)	日	什	奇	奇	赫	姆	恩	尔	尔	伊	古	库	胡				
ā ū á	a:æʌ	阿	巴	帕	达	塔	加	卡	瓦(娃)	瓦(娃)	法(娃)	扎	察	萨(莎)	扎	沙(莎)	贾	查	哈	马(玛)	纳(娜)	拉	拉	亚(娅)	瓜	夸	华			
ē ā	e/ci	埃	贝	佩	德	特	泰	盖	凯	韦	韦	费	泽	策	塞	热	谢	杰	切	赫	黑	梅	内	莱	雷(蕾)	耶	圭	奎	惠	
ūr ū è rá ū	ə:ə	厄	伯	珀	德	特	格	克	弗	沃	弗	泽	策	瑟	热	舍	哲	彻	赫	默	纳(娜)	勒	勒	耶	果	阔	霍			
ē ē i y	i: i(j)	伊	比	皮	迪	蒂	吉	基	维	威	非	齐	齐	西	日	希	吉	奇	希	米	尼(妮)	利(莉)	里(丽)	伊	圭	奎	惠			
ò òr ò/òó	ɔ:ɔ:/ou o əu	奥	博	波	多	托	戈	科	沃	沃	福	佐	措	索	若	肖	乔	乔	霍	莫	诺	洛	罗(萝)	约	果	阔	霍			
āo òó	u:u	乌	布	普	杜	图	古	库	武	伍	富	祖	楚	苏	茹	舒	朱	楚	胡	穆	努	卢	鲁	尤	库					
ū ū	ju: ju	尤	比	尤	皮	尤	迪	尤	久	丘	维	尤	威	尤	非	尤	久	丘	休		休	久	丘	休	缪	纽	柳	留		
ūi	ai	艾	拜	派	代	泰	盖	凯	韦	怀	法	宰	蔡	赛		夏	贾	柴	海	迈	奈	莱	赖	耶	瓜	伊	夸	怀		
ou	au	奥	鲍	保	道	陶	高	考	沃	沃	福	藻	曹	绍		绍	焦	乔	豪	毛	瓏	劳	劳	尧	阔					
ān āng ūn	æn ʌn ʌn æŋ	安	班	潘	丹	坦	甘	坎	万	万	凡	贲	灿	桑		尚	詹	钱	汉	曼	南	兰	兰	扬	关	宽	环			
ān oun ūng ān ǒn ǒng	a:n aun ʌŋ ɔ:n ɔn ɔŋ	昂	邦	庞	当	唐	冈	康	旺	旺	方	藏	仓	桑	让	尚	章	昌	杭	芒	南	朗	朗	扬	光	匡	黄			
en ēng ūn ùn ūng	en eŋ ə:n ən əŋ	恩	本	彭	登	滕	根	肯	文	文	芬	曾	岑	森	任	申	真	琴	亨	门	嫩	伦	伦	延	古	恩	昆			
ēn in yun ǎn	in i:n iən jən	因	宾	平	丁	廷	金	金	温	温	芬	津	欣	辛		欣	金	钦	欣	明	宁	林(琳)	林(琳)	因	古	因	昆			
īng	iŋ	英	宾	平	丁	廷	京	金	温	温	芬	京	青	辛		兴	京	青	兴	明	宁	林(琳)	林(琳)	英	古	英				
ōon ǒn ǒn	u:n un oun	温	本	蓬	敦	通	贡	昆	文	文	丰	尊	聪	孙		顺	准	春	洪	蒙	农	伦	伦	云						
ǒng	uŋ	翁	邦	蓬	东	通	贡	孔	翁	翁	丰	宗	聪	松	容	雄	琼	琼	洪	蒙	农	隆	龙	永					洪	

[표 119] 영중 음역표

4.7.5 중국의 표기 규범 운용과 우리나라의 외래어표기법의 효율성 비교

중국의 외래어 표기는 우리나라의 현행 외래어 표기법과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그 규정에 근거하여 외래어를 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자의 특성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상황과 대동소이하다. 그렇지만 중국의 일반인의 외래의 인명, 지명 등을 표기할 때 해당 규정을 이용하는 경우는 대단히 적다. 왜냐하면 중국인 대부분은 외래어 표기 규정의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중국의 외래어 표기 규정의 기본 음역표를 통하여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단어로 결합되었을 때 대중들에게 외래어로 인식되는 한자가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일반인이 규범 표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외래어의 해당 발음에 근거하여 외래어를 자의적으로 표기한다면 한자의 수적 특성상 무수히 많은 표기가 양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언론 등을 통하여 대중에 노출되는 외래어 표기에 의존하여 외래어를 사용한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규정 표기를 어떻게 얻느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외래어 표기 정책은 외래어 표기 규정을 잘 정비하는 것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일반인이나 전문인이 규정 표기에 얼마나 쉽고 신속하게 접근 가능한가이다. 정부 또는 민간 연구단체의 외래어 콜센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외래어 표기 검색망 등으로 원하는 외래어 표기를 쉽게 얻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8. 북한

북한의 외래어 표기 정책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조선어 및 조선문학연구소에서 펴낸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1956)>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에서 펴낸 <외국말 적기법(20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1956)>은 1984년 문화어 학습 3호에 실린 <고친 외래어 표기>에 의해 일부 수정되었다. <외국말 적기법>의 경우는 1985년 제정된 이후, 2001년에 재개정되었으므로 후자를 기준으로 삼는다.

논의의 편의상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1956)>의 기준으로 북한의 외래어 표기 규범의 특징을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 <고친 외래어 표기(1984)>, <외국말 적기법(2001)>을 참고하기로 한다.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1956)>

제 I 장 서론

제1항 외래어 표기법 제정의 목적: 조선 외래어의 어음 구성을 확정하는 토대 위에서 그의 표기법을 고착시킴.

제2항 외래어의 정의: 조선어 중 외국어적 기원이 명백한 단어(고유명사도 포함함)

제3항 외래어의 표기 수단: 한자가 아닌 조선 자모

제4항 해당 외래어를 받아들인 그 인민의 언어의 어음론적 및 표기법적 특성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어음 구성이 유사한 외래어는 가급적 현대 로씨야어의 어음론적 및 표기법적 특성에 의거하여 표기함.

제5항 일본에서 유래한 외래어는 일본 가나 문자로 하고, 중국에서 유래한 외래어 중 이미 굳어진 것은 한자에 대한 조선어적 발음으로 표기함.

제6항 라틴어에서 유래한 학술 용어는 라틴어에 대한 로씨야어식 발음으로 함.

제7항 외래어 사용의 제약: 불필요한 외래어는 사용하지 않음.

제8항 외래어를 표기하는 조선의 자모 체계: 현행에 한함.

제9항 외래어 표기는 조선어의 음운 조직과 정칙 발음법에 따르되, 원어의 어음론적 특성에 접근함.

제10항 원어의 음운을 충실히 반영함을 원칙으로 함.

제11항/제12항 철자법이 형태주의에 립각한 언어(예:로씨야어)에서 유래한 외래어는 원어의 자모(로씨야어 자모)와 조선어 자모를 직접 대조시키고, 력사주의에 립각한 언어(예:영어,불란서어)에서 유래한 외래어는 원어의 음운을 표시한 보조적 음성 기호와 조선 자모와의 대조를 매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여(11항), 위의 두 경우에 관한 일반적 규칙을 정함.(12항)

제Ⅱ장 조선어 자모에 의한 로씨야어의 자모의 대조에 관한 일반적 규칙

[Ⅰ] 조선어 자음자에 의한 로씨야어 자음자의 대조에 관한 세칙

[Ⅱ] 조선어 모음자에 의한 로씨야어 모음자의 대조에 관한 세칙

[Ⅲ] 어음 변종 및 어음 결합의 표기에 관한 규정

조선어 자모에 의한 로씨야어 자모의 대조 일람표

제Ⅲ장 조선어 자모에 의한 만국 음성 기호의 대조에 관한 일반적 규칙

조선어 자모에 의한 만국 음성 기호의 일반적 대조표

[Ⅰ] 조선어 자음자에 의한 자음을 표시하는 만국 음성 기호의 대조에 관한 세칙

[Ⅱ] 조선어 모음자에 의한 모음을 표시하는 만국 음성 기호의 대조에 관한 세칙

[Ⅲ] 어음 변종의 표기에 관한 규정

제Ⅳ장 철자법의 일반적 원칙과 관련되는 규정

제Ⅴ장 정칙 발음법의 일반적 규칙과 관련되는 규정

제Ⅵ장 구두점과 관련되는 규정

제Ⅶ장 외래어 사정에 관련되는 규정

남북의 외래어 표기법을 비교해 보면, 남한의 <외래어 표기법>이 비교적 간결하고 적절한 표기법상의 기본 원칙을 밝힌데 대하여 북한의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은 포괄적이고 기본 원칙 이외의 요소가 다소 있으며 일부 언어 특히 러시아어의 표기법에 비중을 많이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단, 러시아어 표기법에 대한 편중 경향은 <고친 외래어 표기(1984)>에서 다소 완화되었다.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남한의 경우 제 1항에서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고 하였고 북한의 경우도 제 8항에서 외래어를 표기하는 조선의 자모 체계는 현행에 한한다고 하였다. 즉, 외래어 표기를 위해 새로운 자모, 새로운 보조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남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규정은 <조선어 철자법 통일안(1933)>에 제시된 “새 글자나 부호를 쓰지 아니한다.”는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남한의 경우 제 2항에서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11항과 부분적으로 관련된다. 받침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는 남한의 외래어 표기법 원칙에 대응되는 규정 북한에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표기법이나 국어사전·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외래어 용례 중 이에 어긋난 것이 없어 북한의 외래어 표기에

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외래어 표기 기본 원칙에서 남북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인 파열음의 된소리 표기 문제이다. 남한의 경우에는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외래어 표기법을 보면 파열음 표기에 예사소리나 거센소리, 된소리를 대응시켰음을 알 수 있다. 국어사전과 국어 교과서의 용례에서는 된소리로 표기된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북한의 외래어 표기법에서 된소리로 적도록 한 규정>

- ① ‘n,t,k’는 ‘ㄴ,ㄷ,ㄱ’로 적는다. (예: T→ㄷ, 또치카 точка)
* 조선의 외래어 표기법(1956), 조선어 자음자에 의한 로씨야어 자음자의 대조에 관한 세칙 14항
- ② 자음 ‘k’, ‘p’, ‘T’는 각각 ‘ㄱ, ㅍ’, ‘ㄴ, ㅍ’, ‘ㄷ, ㅌ’로 적는다.
(예: Puy[pui] 뽀이)
* 외국말 적기법(2001) 4.프랑스말 단어를 우리 글자로 적는 법
- ③ 《ㄲ》 줄과 《ㄸ》 줄 《ㄲ나》가 단어의 중간 또는 끝에 올 때는 된소리글자로 적는다.
(예: 伊丹 이따미 七条 しちじょう 시찌쵸 長崎ながさ키 나가사끼)
다만 합친말의 구성단위 첫 머리에 올 때는 해당 자음의 순한소리글자로 적는다.)
(예: 北九州きたきゅうしゅう 기따규슈)
※ 《ㄸ》는 단어의 첫 머리에 올 때에도 된소리글자로 적는다.
(예: 津軽 つがる 쓰가루 土浦 つちうら 쓰찌우라)
* 외국말 적기법(2001) 2.일본말 단어를 우리 글자로 적는 법
- ④ ‘K’는 모음 앞에서 ‘ㄱ’로, ‘P’는 ‘ㄴ, ㅍ’로, ‘T’는 ‘ㄷ, ㅌ’로 적는다.
(예: k→ㄱ, Tunki 툃끼 Lubecka 루백까)
* 외국말 적기법(2001) 6.에스빠냐말 단어를 우리 글자로 적는 법
- ⑤ 원어의 개별적 어음이 조선어 외래어에서 독특한 수식화를 입어 이미 굳어진 것은 그대로 표기한다.
(예: bar 뽀, bag 뽀, doolar 딸라, goal 꼴, game 껌, aum 껌)
* 조선의 외래어 표기법(1956), 제101항

남한의 외래어 표기법 기본 원칙 제5항은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도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1956)>에 “어음 구성과 그의 표기법이 이미 굳어져 안정성을 가진 외래어는 그대로 표기한다.(100항)”, “원어의 개별적 어음이 조선어 외래어에서 독특한 수식화를 입어 이미 굳어진 것은 그대로 표기한다.(제101항)”는 규정이 있어 이미 굳어진 채 널리 쓰이는 외래어의 관용 표기

를 인정하고 있다.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1956)>에는 “로씨야어 이외의 외국어로부터 유래한 외래어로서 그 발음이 로씨야어와 비슷한 것은 가급적 로씨야어의 표기법에 따른다.<제7장 102항>”는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고친 외래어표기(1984)>에서는 로씨야식 발음 표기에서 원음주의 지향으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고친 외래어표기(1984)>

해당한 외래어가 어느 나라 말인가(출발어) 알아보고 출발어가 명백한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발음하는대로 적는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례: ○아그레망(프랑스말) ×아그레만(로씨야말)

단, 원음주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고친 외래어표기(1984)>

- 우리 인민들 속에서 널리 쓰이어 굳어진 외래어는 그 나라 발음에는 관계 없이 굳어진대로 적도록 하였다.

례: ○빠스 ×바스

○콘베아 ×컨베이어

- 인민들 속에서 일정하게 굳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 말의 발음색채가 진한 것들과 한두개의 받침 정도만 고치면 원어대로 할수 있는것들은(큰 혼란이 없는 범위안에서) 원어대로 적도록 하였다.

례: ○히터 ×히타

○발레 ×바레

- 《파마넨트웨이브》를 줄여서 《파마》라고 한것과 같이 줄인 말이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쓰이는것은 그대로 쓰도록 하였다

- 한 가지 말이 여러가지로 표기되거나 한 가지 뜻의 말이 여러나라 말로 쓰이는 것은 어느 하나로 통일하였다.

례: ○가스 ×까스

○플루스 ×쁠류스 ×플라스

- 한 가지 외래어가 두가지로 발음되면서 그 뜻이 각각 다르게 된것은 지금 대로 두도록 하였다.

례: ○고무 ×껌

- 음악부문의 이탈리아말계렬의 외래어는 지금 쓰고있는 라틴말식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례: ○포르테 ×포르떼

- 원어발음대로 적으면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것은 대중이 발음하기 쉽게 일부 표기를 조절하였다.

례: ○글라디올라스 ×글래디오롤러스

○마카담 ×머캐덤

- 원어가 명백하지 못한 외래어는 지금 쓰고 있는대로 두었다.

「문화어학습」(1984.3호) 끝에는 국어사정위원회의 이름으로 “외래어표기를 일부 고친다고 하여 고친 외래어를 아무때나 써도 좋다는것은 아닙니다. 외래어는 꼭 필요한 때만 쓰고 다듬었거나 같은 뜻의 우리 말이 있는것들은 되도록 쓰지 말아야 하겠습니까.”라는 내용을 덧붙여, 외래어 남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외국말 적기법(2001)>은 외국어 표기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으므로 엄밀히 보면 외래어 표기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단, 외국어 표기 규정도 외래어 표기 규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언급하였다. 참고로 <외국말 적기법(2001)>의 목차와 머리말을 실어둔다.¹⁾

외국말적기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
주체90(2001)년

차례

머리말

일러두기

- 1.로씨야말 단어를 우리 글자로 적는 법
- 2.일본말 단어를 우리 글자로 적는 법
- 3.영어단어를 우리 글자로 적는 법
- 4.프랑스말 단어를 우리 글자로 적는 법
- 5.중국말 단어를 우리 글자로 적는 법

1)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1956)>에 대한 논의는 김희진(1996), 전수태(1992), 정동환(2002)에서 언급된 내용을 참조하였음.

6. 에스빠냐말 단어를 우리 글자로 적는 법
7. 도이취말 단어를 우리 글자로 적는 법
8. 아랍말 단어를 우리 글자로 적는 법
9. 라틴말 단어를 우리 글자로 적는 법

머리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외래어를 표기할 때에는 그것이 어느 나라의 말인가를 알아 보고 그 나라 사람들이 발음하는대로 표기하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대외적권위가 비상히 높아 지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협조와 접촉이 급속히 확대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인민들의 언어생활에는 다른 나라의 인명, 지명, 과학기술과 관련된 외국말을 비롯하여 여러 외국말들이 많이 들어 와 쓰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외국말을 우리 말로 정확히 옮길수 있는 과학적인 외국말적기규범을 내올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 인민들의 언어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성과 과학성이 보장된 외국말적기법을 만들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여 주시였다.

국어사정위원회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주체적언어사상을 받들고 주체성과 민족성, 과학성이 보장된 새 《외국말적기법》을 만들었다.

국어사정위원회에서 만든 새 《외국말적기법》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외국말원음표기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방법론적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어음구조가 같지 않은 다른 나라의 말을 우리 말로 옮기는 표기규범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민족어의 어음구조에 맞으면서도 우리 인민들의 서사생활에 부담을 주지 않게 과학성과 편리성의 원칙을 세워 작성하였다.

새 《외국말적기법》이 완성되어 나오므로써 외국말표기와 외국말사용분야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이 고수되고 정확하고 통일적인 외국말을 사용할수 있는 언어적규범이 마련되게 되었다. 모든 부문과 단위, 기관들에서는 외국말을 표기하는데서 이 규범의 규정내용들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새 《외국말적기법》이 나오에 따라 지금까지 써온 《외국말적기법》(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은 쓰지 않는다.

제5장 결론

- 외래어 표기 규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5.1. 쟁점별 개별 언어권 정책 방향 제안

5.1.1. 관용표기, 이중 표기 문제

1) 영어

영어는 철자와 발음의 일대일 대응 관계가 거의 성립되지 않는 언어여서 영어 기원의 외래어 표기에 혼란이 많다. 외래어는 현지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차적이므로 사전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현지의 발음에 따라 표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모국어의 간섭이 나타나며 그 결과 현지음과 다른 표기가 나타나고 후에 이 표기가 관용으로 자리잡는다. 현재 관용 표기의 대부분은 한 글자를 하나의 음소로 표기하는 한국어의 언어 간섭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관용 표기는 국가와 국민 또는 언어 정책 담당 부서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는 측면이 있다. 현재까지 절대 다수의 언중이 사용하는 관용 표기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차후에 새로 도입되는 외래어는 현지음을 중심으로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표준적인 표기를 정하고 이를 신속히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중 표기는 복수의 표기를 인정한다는 것이 되므로 표기법을 무색하게 만든다. 오히려 외래어 표기법 없이 언중에게 맡겨 다수가 사용하는 대로 가는 것만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복수의 표기를 인정하는 대신에 표준적인 용례를 정할 때 택한 외래어 표기법 조항을 그 근거로 밝히는 방향으로 외래어 용례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2) 독일어

독일어권에서 관용표기 문제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흐’와 ‘바하’이다. 일반인의 경우 52.6%가 ‘바흐’를 올바른 표기로 인지하였으며, 반대로 ‘바하’를 선택한 경우는 47.4%였다. 만족도는 이와 반대로 ‘바흐’에 대해 42.9%, ‘바하’에 대해 57.1%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 두 표기사례가 경쟁적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언어 대중들의 절반이 서로 다른 표기사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또한 만족하는 결과는 분명 간관할 수 없는 현상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두 표기사례를 규범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두 가지 표기 사례 모두를 올바른 표기로 인정하는 이중표기의 허용일 것이다. 이중표기를 너무 방대하게 허용할 수도 없겠으나 언어 대중들이 기존에 익숙한 표기를 고집하고 있고, 새로운 표기법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규범화 과정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판단하여 이중표기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중표기는 언어 대중들의 부담과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

이번 영향 평가의 분석대상인 ‘보슈’와 ‘보쉬’도 이와 같은 사례에 해당된다. 현행 표기 규정에 따른 ‘보슈’를 일반인 36.2%만이 정인지하였고, 원음에 가까운 ‘보쉬’의 표기에 대해 63.8%가 올바른 표기라고 답하였다. 이에 대한 만족도 또한 정인지 비율과 흡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보슈’를 규정한 현행 표기법(제3장 2절 4항)에 대한 인지도 또한 58.5%로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경우도 이중표기를 허용해야 하는 중요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프랑스어

프랑스는 특별한 외래어 표기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전 편찬 기관이나 프랑스어 학회 등의 권고를 참고하고, ‘국제 음성 기호’에 따른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원칙에 따라 표기는 하되 ‘프랑스어화’된 발음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인들은 영어 단어 ‘jeans’ 을 프랑스어화 된 발음 [dʒin](s의 무음화)으로 발음한다. 결국, 프랑스의 외래어 표기 원칙에 의한 표기는 원음주의 표기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게 된다. 결국, 한국도 프랑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장이다. 즉, 원음주의 표기보다 규정에 따른 표기 혹은 관용주의 표기 쪽을 선호 한다.

따라서 프랑스어 표기에 있어, 관용주의 표기는 옹당 필요하다. 특히, 이미 외국어처럼 굳어진 어휘나 표현들이 이 경우에 해당되겠다. 이번 설문 의 용례 중에는 ‘바케트’, ‘바캉스’, ‘몽타주’의 경우가 관용주의 표기의 허용 가능범주에 속한 용례라 할 수 있겠다. 그만큼 한국인의 이 용례에 대한 노출도가 인지도와 만족도가 전문인, 일반인 구분 할 것 없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물론 허용범주 규정할 타당하고도 객관적이며 공신력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원음주의 표기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발음이라도 사용자의 인지도와 이해도, 만족도까지 높다면, 굳이 이를 원음표기로 바꾸려는 노력이 과연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던져볼 만한 일이다. 따라서 본 설문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크겠다. 다시 말해, 유달리 높은 점수를 얻는 용례들을 관용주의 표기 허용 단어들로 규정할 수 있겠다는 것이다.

프랑스어에서 이중 표기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표기는 “프랑스”인가 “블란서”인가 (식의 관련 기타 표기들 ‘프랑스어’ vs ‘불어’, ‘프랑스 문학’ vs ‘블문’ 등) 정도를 언급할 수

있겠다. 그런데 ‘블란서’를 ‘프랑스’로 전환 표기하여, ‘블란서’ 의표기 마저도 이미 소멸 단계에 있다.

한국어의 우수성을 기억하자. 어떤 언어도 원음에 가장 가깝게 표기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원음표기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가운 현실이다. 원음주의 표기를 조속히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유럽 서양어와 비교하여 드러나는 공통된 표기 문제에 한해서 과감한 수정이 필요하겠다.

4) 에스파냐어

먼저, 관용표기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관용표기를 정하는 것에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에스파냐어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명이다. 예를 들어, ‘스페인’과 ‘에스파냐’에 관한 대중의 선호도를 조사해 본다면, 분명 ‘스페인’이라는 명칭을 더 선호할 것이다. 일반 대중은 물론 전공자조차도 ‘에스파냐’라는 원음표기보다는 ‘스페인’으로 부르거나 적는 것이 더 익숙한 관용표기이다. 현재 대부분의 언어권의 명칭이 영어식 표기(예: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라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굳이 ‘에스파냐’만 현지의 원음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일반 대중에게 조금이라도 더 친숙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외래어 표기법이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래어 표기법을 수정한다면, ‘에스파냐어 표기 규정’이라는 명칭부터 ‘스페인어 표기 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에스파냐’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초중고 교과서(예: 사회)와 사회과부도에는 아직도 ‘에스파냐’라는 국가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은 ‘에스파냐’가 ‘스페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주지한다면, 언어명칭 표기부터 수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그만큼 외래어 표기법이란 우리말로 녹아든 외국어의 표기이기 때문에 과감한 관용표기를 인정하여 국민들의 언어습관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영어의 ‘오렌지’와 ‘어원지’의 문제도 마찬가지로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관용표기로 인정되어 있는 표기인 ‘오렌지’를 원음표기에 가까운 ‘어원지’로 표기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또한 ‘자장면’ 표기의 경우에도, ‘짜장면’이라는 관용표기를 포기하고 된소리 표기 금지 규정에 따라 ‘자장면’으로 표기를 바꾼 경우이다. 그러나 이렇게 관용표기를 바꿀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자면, “짜장면이 자장면이라면 왜 ‘짬뽕’은 ‘잠뽕’이 되면 안되는가”라는 일반 네티즌들의 항의 글을 본 적이 있다. 이 문제도 역시 관용표기 허용과 관련된 것이다. ‘짬뽕’은 관용표기로 인정하고, ‘짜장면’은 관용표기로 인정하지 않아 ‘자장면’으로 표기한 것이라면, 관용표기의 허용여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정해져야 하리라 보며, 가능하면 관용적으로 사용되던 표기는 바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5) 이탈리아어

관용표기와 관련한 용례는 pizza 들 수 있다. pizza는 ‘피차’가 아닌 ‘피자’가 바른 표기이다. 그러나 ‘z’를 [츠]로 표기한다는 규정을 따른 표기는 ‘피차’가 되어 규정자체가 원음표기와도 표기 규정에도 맞지 않게 된다. 따라서 ‘z’를 [츠]로 표기한다는 규정은 폐기되어야 하며, 그냥 ‘z’는 ‘z’로 표기하면 된다. 다만 ‘z’를 [츠]로 표기한다는 규정에 따른 베네치아(Venezia), 피렌체(Firenze)는 이미 관용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경우에는 그 용례와 범위를 다시 정한다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면 될 것이다.

이중 표기와 관련한 용례는 ‘이탈리아’와 ‘이태리’, ‘시칠리아’와 ‘시실리’, ‘베네치아’와 ‘베니스’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이탈리아 원어와 영어 발음의 경쟁하는 관계로 국내에서도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 이미 널리 퍼져 경쟁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국가명과 도시명은 두 경우 모두 맞는 표기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토리노’와 ‘튜린’, ‘밀라노’와 ‘밀란’, ‘나폴리’와 ‘네이플’처럼 이탈리아어 표기가 영어 표기를 압도하는 경우에는 ‘도시명은 그 도시가 속한 나라의 원어를 우선시한다’라는 규정을 유지하면 될 것이다.

6) 일본어

일본어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규정을 모르는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해답을 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일본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규정을 검색하면 ‘통용표기’라는 규정을 찾을 수 있으며, 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서는 ‘통용표기’와 ‘현행 외래어 표기 규정’ 및 ‘최영애·김용옥 표기법’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어를 공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본어의 음성적 특징이 한글 표기에 가장 충실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는 ‘통용표기’를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현행 표기 규정에 어긋나는 일본어 외래어의 한글 표기 사례의 경우도 이 통용표기를 따르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통용표기’와 현행 표기 규정의 차이점은 4장에서 언급한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외래어 표기 규정은 많은 사람들이 그 규정을 이해하고 그에 따를 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통용표기’가 일반 언중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표기 규범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위키백과 : 일본어의 한글 표기. 2010년 12월 20일 검색)

항목	국립국어원 표기	통용 표기	최영애-김용옥 표기법
어중·어말의 청음	거센소리로 표기한다. 예: 다코야끼, 모치	된소리로 표기할 때도 있다. 예: 타코야끼, 모찌	거센소리로 표기한다.
어두의 청음	예사소리를 사용한다. 예: 고다 구미, 다케시마	거센소리를 사용한다. 예: 코다 쿠미, 타케시마	어두의 か, た행은 예외없이 ㅋ, ㅌ/ㅊ으로 표기한다.
っ	‘쓰’로 표기한다. 예: 구사나기 쓰요시, 쓰시마 섬	‘츠’, ‘쯔’, ‘쓰’ 등으로 표기한다. 예: 쿠사나기 츠요시, 쓰메끼리, 돈까쓰	늘 ‘쯔’로 표기한다.
촉음(っ)	항상 ㅅ 받침으로 표기한다.	항상 ㅅ 받침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나, 때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 か행 앞에서는 ㄱ 받침 • ぱ행 앞에서는 ㅂ 받침 • さ, た행 앞에서는 ㅅ 받침	예외없이 ㅅ 받침으로 표기한다.
발음(ん)	항상 ㄴ 받침으로 표기한다.	항상 ㄴ 받침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나, 때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 さ, ざ, た, だ, な, ら행 앞에서는 ㄴ 받침 • ま, ば, ぱ행 앞에서는 ㄹ 받침 • あ, か, が, わ행 앞에서는 ㅇ 받침	예외없이 ㄴ 받침으로 표기한다.
장음	표기하지 않는다. 예: 고다 구미	표기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예: 코다 쿠미(こうだ くみ)	장음 부호(ー)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모음을 중복시킨다. 이중 모음은 끝에 발음되는 모음을 중복한다. 예: 코오다 쿠미(こうだ くみ)
じゃ, ちゃ행	자, 차 등으로 표기한다.	자, 차 등으로 표기한다.	자, 차 등으로 표기한다.

[표 120] 현행 표기 규정과 통용표기 및 최영애·김용옥 표기법의 비교

7) 중국어

중국어의 경우 관용 표기의 문제는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과 거의 대부분의 중국어 외래어를 한국 한자음으로 읽을 수 있다는 데 있다. 표기법 제4장 제2절의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가 주로 관용 표기 허용(한국 한자음 허용)의 근거가 되는 규정인데, 중국어 부분에 나타나는 과거인과 현대인의 구분(보통 신해혁명을 기준으로 구분하지만 그 기간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현재 쓰이지 않는 역사 지명 등이 그렇다. 제4항에 있는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는 더욱 모호하다. 역사적인 지명, 인명이거나 타이완, 홍콩 등을 통해서 알려진 인명과 지명은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지만, 최근, 특히 한중수교 이후에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인명이나 지명은 아주 뚜렷하게 중국어 원음으로 읽는다. 한국 한자음과 중국어 원음에 대한 이러한 선호는 이번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중 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것이 언어의 다양성을 살리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북경과 베이징은 동일한 도시를 지시하지만, 지시하는 대상이 같을 뿐 작은 차이일지라도 서로 다른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언어 현상이다. 외래어 표기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규범에 얽매어 언어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것은 언어의 풍부한 활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5.1.2. 원음주의 문제

1) 영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외래어는 현지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차적이므로 사전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현지의 발음에 따라 표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원음주의와 대립하고 있는 것이 관용 표기인데 원음주의는 대상 언어의 영향이 극대화된 것이고 관용 표기는 수용 언어의 영향이 극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래어 표기법의 정신이 우리가 남을 존중하여 표기법에 맞게 표기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표기법을 잘 정비하여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쪽으로 언어 정책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국가와 국민 또는 언어 정책 담당 부서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음주의가 자리 잡는 측면이 있다.

2) 독일어

‘하이텔베르크’나 ‘도이칠란트’와 같은 경우 독일어 표기체계에 대한 언어적 지식을 요구하게 된다. 원음에 가까운 ‘하이텔베르크’나 ‘도이칠란트’에 대한 표기 사례에 대해 일반인 61.1%, 20.8%가 정인지하였으며, 전문가 그룹의 경우 57.3%, 40.8%가 올바르게 답하였다. 이는 독일어권 외래어 표기의 경우 언어적 접촉도, 다시 말해 자주 사용하여 친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차이를 보이게 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또한 독일어 표기에 대한 영어식 발음의 간섭현상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번 사례 조사를 통해 외래어 표기에서 언어접촉도와 언어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게 된다.

독일어권 외래어 표기에서 원음 표기문제는 다른 언어권과 성격이 다소 다르다. 독일어 단어들의 경우 우리 표기체계에서 충분히 표기가 가능한데 독일어 음운체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나타난 현상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현행 표기 규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언어교육의 한계라고 생각된다.

다만 모든 표기규범이 그렇듯 외래어 표기법에서도 원음을 반영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표기법은 사회적 산물임을 감안하여 표기규범이라는 큰 틀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외국어가 아닌 외래어의 경우 이는 분명 우리말의 한 영역임에 틀림없다. 다만 외래적 요소를 아직 지니고 있는 특수한 대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큰 틀인 우리말의 표기규범 안에서 원음주의를 최대한 반영하는 표기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외래어 표기법을 다루는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3) 프랑스어

설문과 함께 이행했던, 외래어 표기 규정 사용 실태 조사의 결과는 원음주의 표기와 관련하여 유의미 하다. 기업, 학술, 출판 각 3개의 영역의 외래어 표기 규정 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는 특히 전문성을 상당히 요구하는 학술(전문서적), 기업의 경우 원음주의 표기를 선호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현행 외래어 표기 규정을 준수하여 프랑스어를 표기하고 원어민 앞에서 표기대로 발음해 보일 때, 과연 프랑스 원어민은 어느 정도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까. 물론 한국의 외래어 표기 규정이 한국인 화자를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 입각해, 무리한 원음주의 표기의 강요는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설문 조사의 용례 중, 외래어 표기 규정에 따른 ‘Renaissance’의 표기는 ‘르네상스’이나, 원음주의 표기에 따르면 ‘흐네쌍쓰’이다. 과연 ‘르네상스’ 대신 ‘흐네쌍쓰’의 사용의 타당성을 피력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르네상스’는 외국어의 표기로, 원음주의 표기 - 참고로 ‘르네상스’의 용례를 통해 관찰하고자 했던 것은 프랑스어의 특수한 발음 [R], 즉 “프랑스어 단어의 첫음절에 오는 [R]를 한국어 자음 [ㄹ]로 표기할 것인가, [ㅎ]으로 표기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을 위한 것이었다 - 를 논하기 어렵고, 차라리 관용주의 표기로 간주하여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에스파냐어

앞서 언급했다시피, 원음주의와 관용표기는 대립되는 개념이다. 외래어 표기가 원음주의 원칙을 가급적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말로 순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는 굳이 원음에 가깝게 표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에스파냐어 표기규정에는 대부분 원음에 가깝게 표기를 규정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원음에 가깝게 용례들이 표기되고 있으며 그렇게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다만 문제가 될 부분은, 에스파냐어의 용례들이 영어식으로 잘못 표기되고 있는 실태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명이나 상호명에는 발음하기 편하고 익히기 쉬운 에스파냐어의 용례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상당한 용례들이 영어식으로 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마티즈’(Matiz: 마티스), ‘자라’(Zara: 사라), ‘티부론’(Tiburón: 티부론), ‘하바나’(Habana, 아바나) 등이다. 이러한 상호명들은 에스파냐어 원음표기를 할 경우, ‘마티스’, ‘티부론’, ‘아바나’로 수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호명이 영어식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영어식 표기에 익숙하게 되어 관용표기로 굳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상표를 등록할 경우, 해당 외국어의 표기 규정에 맞게 처음부터 제대로 된 표기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국민에게 외래어 표기를 알맞게 정착시키는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일반국민들은 대중매체에 노출된 표기에 무작정 따라가기 때문에, 대중매체에 얼마나 정확하게 표기된 외래어 용례가 노출되는가에 따라 일반국민들의 외래어 표기규정에 대한 영향이 합리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5) 이탈리아어

이탈리아어가 가진 모든 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굳이 이탈리아어 발음을 어긋나게 표기하게 하는 외래어 표기 규정들을 존속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한국사회가 점점 세계화되고 있다는 점과 이탈리아 문화와 관련된 많은 단어들이 이미 우리의 일상에서 부지불식간에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이탈리아어가 가진 특징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 외래어 표기 규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다.

외래어 표기 규정에서 원음주의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어의 특징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들, 예를 들어 “파열음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z’를 [츠]로 표기한다”, “같은 자음이 겹쳤을 때에는 겹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적는다. 다만, -mm-, -nn-의 경우는 ‘ㄹㄹ’, ‘ㄴㄴ’으로 적는다”, “c와 g 다음에 ia, io, iu가 올 때에는 각각 ‘차, 초, 추’, ‘자, 조, 주’로 적는다” 등은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6) 일본어

일본어의 경우는 일본어의 문자를 한글로 일대일로 완벽하게 대응시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음주의 표기를 채택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단, 일본어 장모음의 경우는 출현 환경에 따라서 일대일 표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으나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현행 표기 규정에서는 독립된 음소인 일본어 장모음을 표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원음주의 표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어의 장모음은 서구 언어와는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とうきょう(東京)[to:kjo:] (지명), ‘しばりょうたろう(司馬遼太郎)[cibarjo:taro:] (인명)와 같이 장모음이 하나의 독립된 가나문자(앞 단어의 밑줄 친 문자)로 표기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표기 규정에서는 ‘도쿄(とぎょ), ‘시바 료타로(しばりょうたろ)와 같이 장모음을 표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인명과 지명의 표기에 있어서 이 규정에 대한 불만과 표기상의 혼란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중국어

외래어를 원음과 동일하게 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외래어 표기에 대한 정책 방향은 시의적절하게 해당 외래어 표기를 제정하는 시스템을 갖추든지 그렇지 않다면 관련인이 쉽게 해당 외래어 표기를 만들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어의 외래어 표기는 중국어의 발음을 나타내는 한어병음 표기와 다소 괴리가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예를 들면 -ong를 ‘둥’으로 표기하고, -ou를 ‘어우’로 표기하는 것 등이다. 또 liu는 ‘류’, jiu는 ‘주’이다.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 표기 규정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5.1.3. 된소리 표기 문제

1) 영어

한국어는 발성 유형과 관련하여 삼중 대립(격음, 경음, 평음)을 보이고 영어는 이중 대립(유성음, 무성음)을 보인다. 외래어 표기법에서 음소 차원에서 대응되는 소리를 설정하여 그에 맞게 표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표기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원음에 가깝게 표기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권장할 만한 일이다. 된소리 문제는 한 언어만을 고려해서 정할 문제가 아니라 언어유형론을 토대로 외래어 표기법이 있는 언어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일이다. 이용가능한 표기가 셋이 있는데 확실적으로 그 중 한 가지를 배제하고 두 가지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언어 자원을 방치하는 일이 될 수 있다.

2) 독일어

독일어권 외래어에서 된소리 표기 문제는 그리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z/ts/>의 경우 현행 규정은 된소리 표기를 금지하여 ‘츠’로 표기하게 되는데, 원음에 가까운 ‘쯔’로 표기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난다. 이번 설문조사 대상에서는 ‘모차르트’와 ‘취리히’가 이에 해당된다. 일반인들의 경우 45.3%가 ‘모차르트’를 올바르게 인지하였으나, 54.7%는 ‘모짜르트’를 바른 표기라고 답하였다. ‘취리히’의 경우는 이보다 다소 긍정적인 결과로 일반인 68.8%가 올바른 표기사례를 선택하였다. 이에 반해 ‘쥘리히’를 선택한 경우가 31.2%였다.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은 정인지율을 보였다.

독일어권의 경우 된소리 표기 금지조항이 표기법상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만 로만어 등 일부 언어에서 발음과 표기가 지나치게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한정적이거나 된소리를 허용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우리 한글의 표기규범이나 고유의 표기유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외래어의 특수성을 감안한 표기의 인정문제를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3) 프랑스어

원음주의 표기가 아닌 현행 프랑스어 표기 규정에 따라 표기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항목은 무엇보다 된소리 제한 규정이다: <과열음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프랑스어에 대한 기본 지식이라도 알고 있는 전문가라면 ‘파리’대신 “빠리”를, ‘바캉스’대신 “바깡스”, ‘바게트’대신 “바게뜨”의 된소리 표기, 즉 원음주의 표기를 선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문인의 10% 미만이 된소리로 표기를 선택하였다는 사실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설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외래어 표기 규정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원음주의 표기에 대한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 할 때가 되었다

고 우리는 제안하는 바이다. 그 외의 프랑스어에 있는 독특한 발음의 특수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된소리 표기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고해야만 한다.

4) 에스파냐어

에스파냐어의 표기에서 된소리 표기 문제는 해당 언어 전문가들에게는 첨예한 관심사이다. 에스파냐어권 서적의 우리말로 번역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된소리 표기를 사용하고 싶어하며, 이에 따라 외래어 표기 규정을 지키려는 출판사측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에스파냐어의 파열음 [p, t, k]은 우리말의 된소리 ‘ㅃ, ㅌ, ㄱ’에 일치한다. 우리말에 된소리 표기가 있는데도 굳이 해당 원음과 거리가 있는 거센소리인 ‘ㅍ, ㅌ, ㅋ’로 표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아직 에스파냐어는 일반 대중에게 친숙한 편이 아니지만 에스파냐어 발음 지식을 갖고 있는 화자들은 표기 규정을 아는 것과 별개로, 실제 발음은 원지음에 가깝게 된소리로 발음하고 표기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전공서적이나 번역서, 여행안내책자 중에는 그렇게 표기하기도 한다. 비록 된소리가 첫 자음에 올 수 없다는 현 외래어 표기법 규정이 있으나 된소리 발음을 원음에 가깝게 표기할 수 있는 한국어 자음의 장점이나 요즈음 일부 언어에 대해 원지음 중심 표기를 인정하는 추세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에스파냐어 표기 역시 실제 발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일반규정에 된소리 표기 금지를 지정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에스파냐어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렇지만, 에스파냐어의 경우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된소리 표기를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추후 외래어 표기 규정을 수정한다면, 일반규정에서 된소리 표기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즉, 언어권에 따라 된소리 표기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외래어 표기법을 수정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된소리 표기를 허용할 경우, 그동안의 관용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된소리 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된소리 표기가 언중들의 에스파냐어 표기법에 급속히 녹아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된소리 금지 규정과는 달리, 실제로 에스파냐어 상호명으로 등록된 경우를 살펴보면, 된소리 표기를 금하는 규정과는 반대로 된소리로 표기된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면, ‘아망떼’(Amante: 아만테), ‘아반떼’(Avante: 아반테), ‘까사미아’(Casa mía: 카사미아) 등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외래어 표기 규정에서 언어권별로 된소리 표기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이중표기(된소리와 거센소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일본의 외래어 표기의 경우, 가능한 모든 경우의 표기를 모두 허용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래어 표기를 ‘표기법’이라는 명칭으로 굳이 정부에서 외래어 표기에 관한 언어정책을 엄격히 규제하고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외래어 표기법은 일반국민에게는 생소할 것이지만, 언론인, 아나운서, 도서출판 업계 등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5) 이탈리아어

이 규정은 이탈리아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에서도 나타나는 세부규정으로, 원음표기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원음을 충실히 반영하여 표기하려면 된소리 표기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탈리아어 표기 규범 설문조사 결과”는 된소리 표기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해당 용례에 대한 정인지율이 파스타(99%), 포르테(98.1%)로 높게 나타났지만, 본 규정에 대한 인식도(68.0%)나 만족도(76.7%보통 포함)는 현저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규정으로서의 외래어표기 인지도는 광고나 TV드라마를 통한 규정의 간접적 인지와 이해를 보여주는 것으로 규정을 바꾼다고 해서 해당 용례처럼 이미 널리 사용되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외래어의 표기를 “된소리 표기”라는 원칙하에 수정하게 된다면 많은 혼란을 야기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6) 일본어

일본어의 경우 우리말의 된소리에 해당하는 음소는 존재하지 않지만, 출현 환경에 따라서 파열음과 파찰음이 된소리와 유사한 음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파열음의 종류에 따라서 그 경향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변이음으로 실현되는 일본어 발음의 차이를 한글 표기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일본어 외래어의 한글 표기 실태 조사(표 6)에서도 일본어 파열음과 파찰음을 된소리로 표기한 사례는 8건에 불과하며, 현행 표기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존 연구에서도 일본어 파열음과 파찰음을 한국어 된소리로 표기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다.

7) 중국어

중국어의 파열음도 된소리로 표기하는 것이 원음에 가깝다. 하지만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미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데 익숙해져있고, 된소리로 표기한 글자의 가독성, 미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였을 때도 현행 표기대로 두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5.1.4. 한국식 한자음 표기 문제

1) 일본어

일본어 지명과 인명 등의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문 조사 결과 ‘일본어 음대로 적는다’는 비율(82.5%)이 ‘우리식 한자음으로 적는다’는 비율(2.9%)에 비해서 지배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실제로 일본어 음대로 표기한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도쿄 : 82.5%, 이토 히로부미 : 85.4%)도 한국식 한자음대로 표기한다고 대답한 사람(동경 : 2.9%, 이등박문 : 0%)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일본어 음대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원음주의 표기 원칙과 일치한다.

2) 중국어

중국어를 한국식 한자음으로 표기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은 관용 표기와 관련하여 앞에서 논의하였다. 중국어의 경우 표기법 제4장 제2절의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가 한국 한자음 허용의 근거가 되는 규정인데, 중국어 부분에 나타나는 과거인과 현대인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보통 신해혁명을 기준으로 구분하지만 그 기간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제4항에 있는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는 더욱 모호하다. 역사적인 지명, 인명이거나 타이완, 홍콩 등을 통해서 알려진 인명과 지명은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지만, 최근, 특히 한중수교 이후에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인명이나 지명은 아주 뚜렷하게 중국어 원음으로 읽는다. 한국 한자음에 대한 관점 이번 설문 조사를 분석해보는다면 이점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중 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것이 언어의 다양성을 살리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북경과 베이징은 동일한 도시를 지시하지만, 지시하는 대상이 같을 뿐 언중의 머릿속에서는 서로 다른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기준은 있어야 하지만, 다양성을 제한하는 것은 풍부한 언어생활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5.1.5. 기타

1) 독일어

외래어 표기 규범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외래어를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표기 규범 제정에 있어 다소 거시적인 접근법이 필요해 보인다. 지나치게 사소한 측면을 규정에 담으려는 미시적 접근법은 수많은 규정을 낳게 된다. 이는 또한 언어 대중들의 인지도와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그 결과 언어 규정은 사문화되고 언어 실생활에서 규범이 무시되고 외면당하는 반사회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큰 틀에서 외래어를 수용하고 표기법을 규범화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전반적으로 우리 외래어 표기법과 그 표기사례에 대한 실태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 68.61%와 전문인의 경우 84.09%가 올바른 표기를 인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현행 표기법은 언어 실생활을 반영하여 그 내용을 우리 표기체계에 동화시키려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1음운 1기호를 강조하거나 현용 24자모만은 활용하여 적는다는 기본원칙은 표기법 체계의 합리화에 적합한 규정이라 생각된다. 다만 관용 표기를 존중하면서 이중표기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 입장을 보이는 태도는 변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된소리 표기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일부 언어권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제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할 때도 되었다고 본다.

독일어권의 경우 상세한 내용은 위에서 언급하여 재론하지 않고자 한다. 다만 이번 설문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눈에 거슬리는 사소한 내용들이 있어 이를 지적하며 외래어 규범에 대한 제안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표기 규정집>의 <외래어 표기법 해설>을 보면 제2절에 독일어 표기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 규정의 제3항 'berg'나 'burg'를 규정한 내용이 Heidelberg나 Hamburg를 '하이델베르히'나 '함부르히'로 표기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는 설명은 시대에 동떨어진 황당한 표현임에 틀림없다. 일부 지역의 방언에서 나타날 법한 표기 용례를 우려해 규정으로 명문화 했다면 이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임에 틀림없다. 기회가 된다면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여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1986년 제정된 <외래어 표기 용례의 표기 원칙>에 보면 "독일어에서 모음 또는 l 앞의 ng[ŋ]에는 'ㄱ'을 첨가하여 표기한다"라는 내용은 독일어 원음에 반하는 매우 거슬리는 내용임에 틀림없다. 용례로 Tübingen을 '튀빙겐'이라고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표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음에 해당되는 표기는 '튀빙엔'이 적합하다. 지나치게 지엽적인 내용이나 시대착오적인 표현 또는 그 규정 사항 등을 다소 정비한다면 우리 외래어 표기법은 기능적으로 매우 우수한 표기 규범임에 틀림없다.

2) 에스파냐어

앞서 살펴본 에스파냐어의 원음표기, 관용표기, 된소리 표기 등과 관련하여 일본의 외래어 표기를 참고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에스파냐어의 외래어 표기에서 표준 발음 이외에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모든 경우를 참고하여 표기에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물명인 ‘Llama’의 경우, 표준발음인 ‘라마’ 이외에도 ‘야마’, ‘쟈마’ 등의 발음을 그대로 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스파냐어 표기규범에 따라 ‘야마’로만 표기를 인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본다면, 일본의 외래어 표기는 여러 발음에 해당하는 표기를 인정함으로써 상당한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외래어 표기 규범을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발음을 모두 인정하여 이를 표기에 복수 적용하는 것이 외래어 표기의 효율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에스파냐어의 혼합표기가 국민의 언어생활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으나, 로마자를 병기함으로써 이러한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야마(llama), 라마(llama), 돈끼호떼(Don Quijote), 돈키호테(Don Quijote), 까사(Casa), 카사(casa)와 같이 원음표기와 된소리 표기를 허용하여 복수표기를 인정하되 로마자와 함께 병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일본어

일본에서는 한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각 외국어별로 세부적인 표기 규범을 정하지 않고, 범용적으로 외래어 표기에 사용할 가나문자와 부호(합계136개, 가타카나 135개와 장음부호 1개)를 표로 제시하고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음절 문자인 일본어 가나를 한글로 표기하는 경우에 일본어 문자와 한글 문자를 일대일로 완벽하게 대응시켜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과 같이 일본어 가나의 단어 내에서의 출현위치를 어두 및 어중·어말로 구별하여 표기 규정 자체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 하나의 일본어 가나에 하나의 한글을 대응시켜 표기하도록 하게 한다면 현행 표기 규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

5.2. 정인지 및 만족도의 차이에 따른 개별 언어별 정책 방향 제안

5.2.1. 정인지 및 만족도가 높은 언어

1) 프랑스어

한국어와 한국인의 일상 속에 프랑스어 어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상당부분 흡수되어 있다.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대중 매체부터, 프랑스(혹은 한국 자생의 프랑스 이름을 사용하는) 기업의 각종 상품, 외국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전공이수를 통한 교육에 이르기까지, 원음 표기를 원칙으로 했을 때의 정확도와 상관없이 프랑스어의 보급 정도, 즉 노출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진술은 이번 일반인과 전문인으로 나누어 시행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일반인의 경우 ‘파리’, ‘바캉스’, 전문인의 경우 ‘베르사유’, ‘앙상블’, ‘바캉스’의 용례들 모두 인지도와 만족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용례는 각각 ‘현행 표기 규정에 따른 표기’와 ‘원음주의 표기에 따른 표기’의 2지선다형으로 제출되었다. 그 결과, 정인지도가 높았다는 것은 설문 참여자들(일반인과 전문인)이 원음주의 표기보다는 외래어 표기 규정에 의한 표기에 더욱 노출되었거나 교육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즉, 외래어 표기 규정의 인지와 관계없이, 그들이 올바른 것으로 인지하고 선택한 것이 외래어 표기 규범에 의한 표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설문 응답 군 중 전문인의 언론인, 언론인의 아나운서 군이 눈에 띄게 흥미로운 결과를 끌어내었다. ‘베르사유’를 예를 들어보자. 이 용례와 관련하여, 전문인 전체의 인지도와 만족도는 높다. 그러나 그중 아나운서 군의 만족도는 동일 언론인 군의 출판사종사자가 100%인 것에 비해 87.5%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이 사실은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파리’와 ‘바캉스’의 경우, 일반인은 정인지도와 만족도 모두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낸 반면, 전문인 특히 아나운서 군은 정인지도(‘파리’-91.7%, ‘바캉스’-100%)가 높은 반면 만족도(‘파리’-66.7%, ‘바캉스’-79.2%)는 비교적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아나운서 군이 ‘외래어 표기 규정에 따른 표기’에 이의가 있거나 혹은 ‘원음주의 표기’를 더 지향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외래어 표기 규정을 준수한 프랑스어의 표기가 한국인에게 낯설지 않고 익숙하며 실제로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나운서 군의 반응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표기뿐만 아니라 표기를 직접 발음해보여야 하는 직업의 특성상 이들의 응답이 많은 것을 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수도 ‘Paris’를 [빠리]가 아닌 [파리]로 발음하자니 본의 아니게 동음이의어가 되어버린

근층 ‘파리’와 혼돈을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이 실제로 가능한 것이다: ‘올 여름 파리에 파리가 극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행 외래어 표기 규범의 준수를 일반으로 하되, 원음주의에 따른 표기가 이상적인 어휘 및 표현들의 예외는 반드시 허용되고 교육 되어야 한다.

2) 이탈리아어

이탈리아어 용례에 대한 정인지율에서, 일반인의 경우 82.5%로 스페인어 58.5%, 프랑스어 76.5%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의 올바른 표기에 대한 전체 만족도에 있어서는 83.7%를 기록하여 스페인어 59.4%, 독일어 54.3%, 영어 58.3%보다 훨씬 높은 분포를 보였다. 전문인이 올바른 표기를 맞춘 비율은 91.7%로 스페인어가 65.0%, 독일어 75.8%, 영어 79.1%로 프랑스어 92.1%와 함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인의 올바른 표기에 대한 만족도 역시 일본어가 91.5%를 제외한 기타의 언어에서 이탈리아어가 87.9%로 가장 높았다.

일반인들의 올바른 표기에 대한 정인지율과 만족도는 82.5%와 83.7%로 거의 차이가 없이 나타났다. 전문인의 경우에는 정인지율이 91.7%, 만족도가 87.9%로 일반인의 경우보다 정인지율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일반인의 경우에는 만족도가 정인지율보다 높고, 전문인의 경우에는 만족도가 정인지율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교육, 언론, 출판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의 경우 정인지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지만, 만족도가 정인지율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외래어 표기 규정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전문인의 경우에 정인지율과 만족도 비율이 거의 모든 용례에서 같게 나타났지만, ‘구찌’는 언론, 출판, 인터넷에서 ‘구치’와 혼용되어 사용되므로 정인지 비율이 64.1%로 현저하게 낮다. 전문인들이 이탈리아어로 쓰인 ‘Gucci’를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구치’로 인지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만족도 면에서는 정인지율보다 24.2%가량 높기 때문에 외래어표기규정을 준수한 경우보다 원음표기주의에 따른 표현을 선호한다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3) 일본어

이번 조사 결과 일본어의 경우는 현행 외래어 표기 규범에 따른 용례 표기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전문인 모두 정인지 비율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표기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5개의 일본어 규정(1, 2, 3, 5, 6)에 부합되지 않는 표기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즉, 이번 조사 결과와 일반 대중의 일본어 외래어 표기 실태 사이

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일반인과 전문인의 정인지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설문 조사에 사용한 용례의 일반 사회에서의 노출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용례 수가 10개로 제한되어 해당 규정에 따른 용례 표기의 다양성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현행 일본어 표기 규범의 타당성 검증 및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앞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실증적이고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표기법과 각종 출판물 및 인터넷에서 통용되는 표기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조사와 표기 실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4) 중국어

전술한 것과 같이 외래어 표기는 신속하게 해당 표기를 제시하든지, 규정을 쉽게 정비하여 관련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국어는 특히 정인지와 만족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언어, 즉 현재는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그 표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으므로 중국 자체의 로마자 표기인 한어병음과 가능한 한 일대일 대응이 되도록 표기법을 쉽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5.2.2. 정인지 및 만족도가 낮은 언어

1) 영어

정인지 및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표기 규정의 내용을 몰라서 나온 결과일 가능성도 있고 규정은 알지만 규정에 의해 표기된 용례가 현실 발음과 현저히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정인지 표기와 오인지 표기가 모두 우리 언어 표기에서 가능한 경우 노출된 정도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고 사용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면 원음주의를 존중하여 외래어 표기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그에 따라 표기된 용례를 신속히 공급하고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로브스터’와 같이 원음과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실 발음과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음운 연쇄가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롭스터’로 표기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대 ‘하이 라이트’ 표기와 관련된 “둘 이상의 낱말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는 조항은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l/과 /r/을 각각 ‘르’와 ‘르’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음운 모두 하나의 ‘르’로 표기하는 것은 지나칠 뿐만 아니라 원음주의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노출도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2) 독일어

독일어권 외래어 표기사례의 경우 전체적으로 일반인들의 정인지 비율은 56.1%였다. 또한 해당 표기에 대한 만족도는 54.3%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언어권 사례에 비해 낮은 수치임에 틀림없다. 전문가들의 경우는 올바른 표기를 인지한 경우가 75.8%이며, 이에 대한 만족도는 70.4%였다. 이 또한 다른 언어권과 비교하여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다. 다만 특이한 현상으로는 독일어권의 경우 정인지와 만족도에 대한 차이가 일반인의 경우 1.8%이며, 전문가에서는 5.4%로 다른 언어권에 비해 현저히 그 차이가 적은 언어에 속한다. 이는 독일어권 표기사례에서 언어적 지식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하다. 독일어에서 유래한 외래어의 표기사례에서는 독일어에 대한 언어지식이 있는 경우 잘 인지하고 있으며 그 표기법에 대한 만족도도 이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온 듯하다. 또한 독일어 표기체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는 자신의 언어지식을 바탕으로 유추하여 판단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독일어가 알파벳 문자이므로 이미 언어 대중들에게 익숙한 영어를 기준으로 독일어 표기를 판단하고 발음하는 영어의 간섭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독일어의 표기체계는 다른 언어에 비해 발음과 표기가 상당히 대응을 이루는 다소 배우기에 편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독일어 외래어의 경우 우리말에서 그 역사

성을 지닌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언어지식을 지닌 경우가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또한 인지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 연령층과 학력계층별로 특징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정인지한 표기사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독일어의 언어적 특성을 잘 이해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다만 전반적인 결과가 저조한 이유는 독일어 지식의 한계와 영어지식의 간섭 현상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3) 에스파냐어

에스파냐어 용례에 대한 정인지율에서, 일반인의 경우 58.5%로, 83.3%의 일본어나 82.5%의 이탈리아어, 76.5%의 프랑스어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의 올바른 표기에 대한 전체 만족도에 있어서는 59.4%를 기록하여 54.3%의 독일어와 58.3%의 영어 다음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전문인이 올바른 표기를 맞춘 비율은 일본어가 95.7%로 가장 높았고, 에스파냐어가 65.0%로 가장 낮았다. 또한 전문인의 올바른 표기에 대한 만족도 역시 일본어가 91.5%로 가장 높았고, 에스파냐어가 61.0%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에스파냐어 표기에 대한 정인지 및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설문대상자들이 에스파냐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일반국민들에게는 ‘에스파냐’라는 국가명부터 생소하며, 해당 언어를 잘 모르는 경우, 그 언어의 규정과 그 용례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추정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본 설문조사는 외래어 표기법 영향평가를 주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본 연구자는 에스파냐어 표기법 규정의 타당성을 검증할 목적 역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규정과 용례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설문대상자들이 해당언어를 잘 모르는 일반인과 전문가들로 대부분 구성된 관계로 외래어 표기법 규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설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에스파냐어 표기법 규정 중 원지음에 충실하지 않은 규정 1 <파열음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의 경우, 에스파냐어를 알고 있는 전문가라면 “까사 블랑까”(Casa blanca), “돈 키호떼”(Don Quijote), “따꼬”(Taco)와 같은 된소리 표기를 선호했을 것이나, 대부분의 설문대상자들은 된소리로 표기를 선택한 경우가 20% 미만으로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즉, 일반인이나 전문가 모두 규정 1에 충실하여 된소리를 쓰지 않는 용례를 선택한 결과 정인지율이 80% 이상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규정 2 <ll의 ‘이, 니, 오, 우’는 다른 모음과 결합할 때 l음절로 적는다> 역시 에스파냐 표준발음에 충실하지 않은 규정이어서, 에스파냐어를 알고 있는 전문가라면 “라마”(Llama), “세빌라”(Sevilla)로 표기한 용례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이러한 표기를 선택한 본 설문의 대상자들은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5% 미만으로 극히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본 설문이 일반인이든, 전문가이든 간에 모두 에스파냐어를 잘 알지 못하는 대상자들로 구성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설문을 통하여, 에

스파냐어 표기법의 영향보다는 대중매체를 통한 용례의 노출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도 인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의 설문대상자들이 에스파냐어 표기법 규정이나 원지음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오인지 용례[예: ‘데킬라’(Tequila, 전문인: 85.4%, 일반인: 62.9%)와 ‘라마’(Llama, 전문인: 79.6%, 일반인: 63.8%)]를 선택했다는 점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국민들이 해당 언어를 잘 모르더라도 대중매체에 노출되는 표기에 충실히 따른다는 ‘학습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대중매체나 인터넷에는 ‘데킬라’와 ‘라마’라는 잘못된 표기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이번 설문조사를 통하여 일반국민들은 대중매체를 통한 용례 표기의 노출도와 익숙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요약하자면, 본 설문결과에서는 실제 표기 규범에 맞지 않으나 이미 굳어진 기업 명칭이나 상표명, 동물명으로 인해 오류를 발생하는 예들도 목격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외래어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 올바른 외래어 표기 규범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거나, 가능한 경우 상용 중인 명칭을 바꾸는 등의 방법을 통해 대중들에게 올바른 외래어 표기에 자주 노출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참고 문헌

- 강병륜(1999), 국어정서법 : 한글 맞춤법·표준어 규정·외래어 표기법 해설, 서울:장원출판.
- 강인선(1996), 현행일본어 표기법과 나의 의견, 새생활국어 6권 4호, 국립국어연구원.
- Hyunsook Kang(1996), English Loanwords in Korean, 제2집, 한국음운론학회.
- 강혜근(2008), 중국어 한글표기법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와 표기 방안, 중국어문학논집 50집.
- 고수만(1999), 현행 일본어 한글표기법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 일어일문학연구 34집, 한국일어일문학회.
- 구본석(1999), 최적성이론에서의 영어 차용어와 모음삽입, 제5집1호, 한국음운론학회.
- 국어실태연구팀(2007), 외래어 인지도·이해도·사용도 및 태도 조사, 국립국어원.
- 국어학회(1997), 외래어 사용 실태와 국민 언어 순화 방안. 서울: 국어학회.
- 김선철(2000), 차용어 형성의 음운론적 과정에 대한 한 검토(1) - 영어 차용어를 중심으로, 한글 250, 한글학회.
- 김선철(2008), 외래어 표기법의 한계와 극복 방안, 언어학16-2, 한국언어학회.
- 김세중 (1993), 외래어 표기 규범의 방향, 언어학, 15권, 한국언어학회.
- 김수현 (2009), 외래어의 관용 표기에 관한 고찰, 이중언어학, 39권, 이중언어학회.
- 김영만(2003), 중국어 한글표기법 현황과 개선방안, 중국어문논총 25집.
- 김용각(2008), 일본어 한글표기의 문제점 고찰 및 개선안, - 발음교육의 측면에서, 일어일문학 39집, 대한일어일문학회.
- 김원(2000), 새로운 독일어 정서법 규정에 대한 소고 III: 외래어 표기, 독일언어문학 14, 독일언어문학연구회.
- 김원(2003), 독일어 축소어의 표기법 문제, 언어과학연구 제27집, 언어과학회.
- 김정례(1995), 일본문학작품의 한국어 번역상의 문제점 -가나와 고유명사의 한글표기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제1집, 한국일본어문학회.
- 김종수(2010), 상품명과 광고 카피에 투영된 표기 경향 - 규범과 변칙 사이에서, 독일어문학 48권, 한국독일어문학회.
- 김진영(2002), 도서관 목록에서 중국어 문자 표기에 관한 연구, 부산대 문헌정보학 석사 논문.
- 김태성(2001), 중국어 한글표기법에 관하여, 한국중어중문학회 27집.
- 김태성(2008), 중국어 한글표기:혼돈에서 질서로, 중국인문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김하수(1999),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 배달말 25, 배달말학회.
- 김희성(2008), 한국어 滑音を 활용한 중국어 표기법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진(1995), 남북한 외래어의 비교 연구-국어사전과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립 국어 연구원.
- 김희진(1996), 외래어 표기, 남북한이 어떻게 다른가, 새국어생활 제6권4호, 국립국어원.
- 도혜숙 외(2007), 어문학부:중국어 한글 표기법 개선안, 한국중국학회 55집.
- 맹주억(2009), 중국어 한글 표기의 원칙과 방안, 중국어문학연구회 발표 논문.
- 문교부(1979), 외래어 표기법 개정 시안, 서울 : 문교부.
- 문윤덕(2009), 정서법에서 나타나는 이중표기, 독일어문학 제45집, 한국독일어문학회.

- 민광준, 조남덕(2002), 일본어 가나의 한글 표기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일본어학연구 5집, 한국 일본어학회.
- 민현식(1999),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 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 박정진(2008), 외래어에 대한 된소리 표기 금지 원칙의 문제점과 대안 탐색, 문법교육, Vol.9, 한국문법교육학회.
- 박종덕(2007), 외래어 및 그 표기법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 한민족문화연구, 23권, 한민족문화학회.
- 裴宰奭(2002), Cyber 상의 중국어 표기법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19호.
- 삼성출판사 편집국(1994), 한글 맞춤법표준어 규정외래어 표기법, 서울 :삼성출판사.
- 신경진(2009), 한국 언론의 한자어, 중국어 표기의 변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사례, 중국어문학연구회 발표 논문.
- 양동숙(2009), 중국어 속의 한국, 한국인, 중국어문학연구회.
- 양세욱(2009), '다오위타이'와 '뉘시터국빈관' 사이 :중국어 고유명사 한글표기의 현황과 쟁점, 중국어문학논집 57호.
- 엄익상(1996), 중국어 한글 표기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중국언어연구 4집.
- 엄익상(2002), 중국어 한글 표기법의 원칙과 한계, 중어중문학 31집.
- 엄익상(2009), 중국어 외래어 표기법 발음 괴리의 문제, 중국어문학논집 54집.
- 엄익상(2009), 중국어 외래어를 원지음으로 표기해야 하는 이유, 중국어문학논집 56.
- 연규동(2003), 북한의 외래어, 언어학37, 한국언어학회.
- 연규동(2006), '짜장면'을 위한 변명 - 외래어 표기법을 다시 읽는다 -,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 유경숙(2000), "스페인계 인명, 지명의 한글 표기", 진주기업대학교논문집 21, 2.
- 유경숙(2002), 이탈리아인명, 지명의 한글표기, 인문학논총,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이섭영(1999), "한국어와 스페인어에서의 음소(fonema)와 자소(grafema)의 관계", 스페인어문학, Vol.15.
- 이은혜. (2001). 현행프랑스어한글표기의문제점과개선방향. 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용백(1987), 외래어의 표기와 발음 문제, 국어교육, 59권, 한국어교육학회.
- 이재호(2006), 문장 내 독일어 대문자 표기법의 역사적인 고찰 -명사 대문자 표기의 현재와 그 미래, 독일어문학 35권, 한국독일어학회.
- 이진희(2002): 독일어의 모음 장단음 표기에 대한 정서법적 논쟁 고찰, 독어학 5, 한국독어학회.
- 이현복(1979). 외래어표기법개정시안의문제점. 서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이홍식(2007), 외래어·외국어 사용 및 순화어 수용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이희승, 안병희 공저(2003), (새로 고친) 한글 맞춤법 강의 : 한글 맞춤법/표준어 모음/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서울 : 신구문화사.
- 장한업(2002). 불어의한글표기상문제점과개선안. 서울: 한국 프랑스어문교육학회.
- 장호득(2003), 중국어 한글표기법의 원칙과 한계, 중국어문논역총간 11집.
- 전경재(2007): 독일어에서의 ph/f, gh/g, sh/sch 표기, 독일문학 제104집, 한국독어독문학회.
- 전수태(1988), 북한 문화어의 한자어와 외래어, 국어생활15, 국립국어연구원.

- 전수태(1992), 북한의 언어 정책, 국립국어연구원.
- 전수태(2004), 남북한 어문 규범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 전수태(2005), 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국립국어원.
- 정동환(2002), 통일 시대의 외래어 표기법, 한말연구11, 한말연구학.
- 정희원(2002), 외래어 표기 용례집, 서울:국립국어연구원.
- 정희원(2004),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 새국어생활 14(2), 국립국어연구원.
- 정희원 외(2005), 외래어 표기 용례집 :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서울:국립국어원.
- 조현숙(2003), 북한의 한자어 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 최재철(1999), 일본문학 번역과 표기의 제문제, 일어일문학연구 34집, 한국일어일문학회.
- 최혜원(2001). 외래어발음실태조사.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편무진(1999), 일본어 한글 표기의 합리적 방안 - 관용적 표기를 근간으로, 일어일문학연구 34집, 한국일어일문학회.

1. 외래어 표기 관련 조사

※ 다음은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외래어들입니다. 제시된 표기를 보시고, 물음에 답해 주십시오.
 (맞는 표기가 각 언어별 표기법 세칙의 예외인 경우가 있으므로 규정 관련 조사 질문과 무관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1. 다음 보기 중 하나가 바른 표기입니다. 어느 표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어	1	①콘텐츠 ②컨텐츠 contents: 인터넷,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	2	①뉴욕 ②뉴욕 New York: (지명)미국의 최대 도시
	3	①선글라스 ②썬글라스 sunglass: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쓰는, 색깔 있는 안경	4	①더그아웃 ②덕아웃 dugout: 야구장의 선수 대기석
	5	①소시지 ②소세지 sausage: 으깨어 양념한 고기를 돼지 창자나 인공 케이싱에 채우고 삶은 서양식 순대	6	①로봇 ②로보트 robot: 인간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걸기도 하고 말도 하는 기계 장치
	7	①카셋 ②카세트 cassette: 소리를 녹음하거나 재생하는 기계 장치의 일종	8	①로브슨 ②롭슨 Robson: 산(山)이름
	9	①잉글리시 ②잉글리쉬 English: 영어	10	①하이라이트 ②하일라이트 highlight: 가장 흥미롭거나 두드러지는 장면

1-2. 다음 보기 중 하나가 바른 표기입니다. 어느 표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일어	1	①하이델베르크 ②하이텔베르크 Heidelberg, 독일의 유명 대학도시	2	①도이칠란드 ②도이칠란트 Deutschland, 독일의 국가명칭
	3	①홀몬 ②호르몬 Hormon, 의학용어로서 내분비물을 의미	4	①빈 ②비인 Wien, 오스트리아의 수도
	5	①시멘스 ②지멘스 Siemens 독일 최초의 전기기기 제조회사	6	①모차르트 ②모짜르트 Mozart, 유명 작곡가
	7	①취리히 ②쥘리히 Zürich, 스위스 동부의 대도시	8	①바흐 ②바하 Bach, 유명 작곡가
	9	①베토벤 ②베에토벤 Beethoven, 유명 작곡가	10	①보슈 ②보쉬 Bosch, 독일의 공업화학자

1-3. 다음 보기 중 하나가 바른 표기입니다. 어느 표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랑스어	1	①파리 ②빠리	2	①바캥스 ②바깡스
		Paris: 프랑스의 수도		vacances: 방학, 휴가
	3	①바게트 ②바게뜨	4	①몽타주 ②몽타쥬
		baguette: 프랑스의 대표적인 막대기 모양 빵		montage: 범죄 수사에서 목격자의 증언을 모아 용의자의 수배 전단을 만드는 데에 이용하는 사진
	5	①크루아상 ②크루와쌍	6	①양상블 ②양쌍블
		croissant: 프랑스의 대표적인 초승달 모양 빵		ensemble: 합창, 합주
7	①샹송 ②샹쑹	8	①베르사유 ②베르사이	
	chanson: 가요, 노래		Versailles: 프랑스 파리 근교 지역으로, 유명한 궁전이 있다.	
9	①필름 누아르 ②필름 누와르	10	①르네상스 ②르네쌍스	
	film noir: 암흑가를 다룬 범죄 영화		Renaissance: 문예부흥, 르네상스 시대	

1-4. 다음 보기 중 하나가 바른 표기입니다. 어느 표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스파냐어	1	①카사 블랑카 ②까사 블랑까	2	①테킬라 ②데킬라
		Casa blanca, 하얀 집. 영화제목 또는 노래제목		tequila, 멕시코 고유의 술
	3	①돈 키호테 ②돈 끼호떼	4	①타코 ②따꼬
		Don Quijote, 작가 세르반테스의 소설		taco, 멕시코 전통요리
	5	①베네주엘라 ②베네수엘라	6	①산 미겔 ②산 미구엘
		Venezuela, 남아메리카 국가		San Miguel, 맥주 이름
7	①야마 ②라마 ③라마	8	①세빌라 ②세비야 ③ 세빌라	
	llama, 낙타과에 속하는 동물		Sevilla, 에스파냐 남부의 항구도시	
9	①싼호쎄 ②산호세	10	①하바나 ②아바나	
	San José, 코스타리카의 수도		Habana, 쿠바의 수도	

이탈리아어	1-5. 다음 보기 중 하나가 바른 표기입니다. 어느 표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	①파스타 ②빠스타 pasta: 밀가루 반죽과 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이탈리아의 국수 요리	2 ①포르테 ②포르페 forte: (형용사)강하다
	3	①피자 ②피차 ③핏자 pizza: 밀가루 반죽 위에 토마토 소스, 모차렐라 치즈를 얹어서 둥글고 납작한 형태로 구운 빵	4 ①구찌 ②구치 Gucci: 이탈리아의 유명 의류 브랜드
	5	①푸치니 ②푹치니 Puccini: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	6 ①스파게티 ②스파겏티 spaghetti: 길고 가는 파스타의 일종
	7	①자코모 ②쟈코모 Giacomo (Casanova): 18세기 베네치아의 모험가이자 작가	8 ① 돈 조반니 ② 돈 죠반니 Don Giovanni: 이탈리아어로 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2막 오페라
	9	① 베네치아 ② 베네찌아 Venezia: 이탈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	10 ①피렌체 ②피렌제 Firenze: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의 주도

일본어 한자음 표기 관련	1	1-6. <한자 문화권 중 일본어의 경우, 한국식 한자음으로 외래어 표기하는 것에 대한 문항> 1-1) 일본의 인명과 지명을 한글로 어떻게 적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일본어 음대로 적는다 ② 우리식 한자음으로 적는다	1-2) 실제로 어느 표기를 사용하십니까? ① 도쿄 ② 동경 1-3) 실제로 어느 표기를 사용하십니까? ① 이토 히로부미 ② 이등박문
---------------------	---	---	---

일본어	1-7. 다음 보기 중 하나가 바른 표기입니다. 어느 표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	①기모노 ②키모노 着物, kimono : 일본 전통 옷	2 ①스모 ②스모오 相撲, sumoo : 일본 씨름
	3	①쓰나미 ②츠나미 津波, tsunami : 해일	4 ①야스쿠니 ②야수쿠니 靖国, yasukuni : 일본 신사(神社)의 이름
	5	①신주쿠 ②신쥬쿠 新宿, shinjuku : <지명> 일본 도쿄에 있는 지역 이름	6 ①홋카이도 ②혹카이도 北海道, hokkaidoo : <지명> 일본 북부의 큰 섬
	7	①신칸센 ②싱칸센 新幹線, shinkansen : 일본 고속 철도	8 ①오사카 ②오오사카 大阪, oosaka : <지명>일본 지방 도시 이름
	9	①오키나와 ②오끼나와 沖縄, okinawa : <지명>일본 남부의 큰 섬	10 ①삿포로 ②삽포로 札幌, sapporo : <지명>일본 지방 도시 이름

<p>중국어 한자음 표기 관련</p>	<p>1</p>	<p>1-8. <한자 문화권 중 중국어의 경우, 한국식 한자음으로 외래어 표기하는 것에 대한 문항></p> <p>1-1) 중국의 인명과 지명을 한글로 어떻게 적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중국어 음대로 적는다 ② 우리식 한자음으로 적는다</p> <p>1-2) 실제로 어느 표기를 사용하십니까? ① 쓰촨 ② 사천</p> <p>1-3) 실제로 어느 표기를 사용하십니까? ① 장제스 ② 장개석</p>																			
<p>중국어</p>	<p>1-9. 다음 보기 중 하나가 바른 표기입니다. 어느 표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data-bbox="300 427 383 579"> <p>1</p> </td> <td data-bbox="383 427 1191 579"> <p>① 베이징 ② 빼이징 北京, Beijing, <지명> 중국의 수도</p> </td> <td data-bbox="1191 427 1261 579"> <p>2</p> </td> <td data-bbox="1261 427 2087 579"> <p>① 마오저둥 ② 마오쩌둥 毛澤東, Mao Zedong, <인명> 중국의 정치가 (1893~1976)</p> </td> </tr> <tr> <td data-bbox="300 579 383 730"> <p>3</p> </td> <td data-bbox="383 579 1191 730"> <p>① 텐진 ② 티엔진 天津, Tianjin, <지명> 중국 북부에 있는 중앙 직할시</p> </td> <td data-bbox="1191 579 1261 730"> <p>4</p> </td> <td data-bbox="1261 579 2087 730"> <p>① 광조우 ② 광저우 廣州, Guangzhou, <지명> 중국 남부에 있는 도시. 2010년 아시안게임 개최지.</p> </td> </tr> <tr> <td data-bbox="300 730 383 882"> <p>5</p> </td> <td data-bbox="383 730 1191 882"> <p>① 리우더화 ② 류더화 劉德華, Liu Dehua, <인명> 중국 홍콩 출신의 영화배우, 가수. 영화 '천장지구'로 유명함.</p> </td> <td data-bbox="1191 730 1261 882"> <p>6</p> </td> <td data-bbox="1261 730 2087 882"> <p>① 위옌 ② 위안 元, yuan, 중국의 화폐단위</p> </td> </tr> <tr> <td data-bbox="300 882 383 1050"> <p>7</p> </td> <td data-bbox="383 882 1191 1050"> <p>① 리롄제 ② 리롄제 李連傑, Li Lianjie, <인명> 중국의 영화배우, 무술인 영화 '소림사'로 유명함.</p> </td> <td data-bbox="1191 882 1261 1050"> <p>8</p> </td> <td data-bbox="1261 882 2087 1050"> <p>① 청룽 ② 청롱 成龍, Cheng Long, <인명> 중국 홍콩 출신의 영화배우, 감독. 영화 '취권'으로 유명함.</p> </td> </tr> <tr> <td data-bbox="300 1050 383 1204"> <p>9</p> </td> <td data-bbox="383 1050 1191 1204"> <p>① 장쯔이 ② 장찌이 章子怡, Zhang Ziyi, <인명> 중국의 영화배우. '영화 '와호 장룡'으로 유명함.</p> </td> <td data-bbox="1191 1050 1261 1204"> <p>10</p> </td> <td data-bbox="1261 1050 2087 1204"> <p>① 덩샤오핑 ② 덩사오핑 鄧小平, Deng Xiaoping <인명> 중국의 정치가 (1904~1997)</p> </td> </tr> </table>	<p>1</p>	<p>① 베이징 ② 빼이징 北京, Beijing, <지명> 중국의 수도</p>	<p>2</p>	<p>① 마오저둥 ② 마오쩌둥 毛澤東, Mao Zedong, <인명> 중국의 정치가 (1893~1976)</p>	<p>3</p>	<p>① 텐진 ② 티엔진 天津, Tianjin, <지명> 중국 북부에 있는 중앙 직할시</p>	<p>4</p>	<p>① 광조우 ② 광저우 廣州, Guangzhou, <지명> 중국 남부에 있는 도시. 2010년 아시안게임 개최지.</p>	<p>5</p>	<p>① 리우더화 ② 류더화 劉德華, Liu Dehua, <인명> 중국 홍콩 출신의 영화배우, 가수. 영화 '천장지구'로 유명함.</p>	<p>6</p>	<p>① 위옌 ② 위안 元, yuan, 중국의 화폐단위</p>	<p>7</p>	<p>① 리롄제 ② 리롄제 李連傑, Li Lianjie, <인명> 중국의 영화배우, 무술인 영화 '소림사'로 유명함.</p>	<p>8</p>	<p>① 청룽 ② 청롱 成龍, Cheng Long, <인명> 중국 홍콩 출신의 영화배우, 감독. 영화 '취권'으로 유명함.</p>	<p>9</p>	<p>① 장쯔이 ② 장찌이 章子怡, Zhang Ziyi, <인명> 중국의 영화배우. '영화 '와호 장룡'으로 유명함.</p>	<p>10</p>	<p>① 덩샤오핑 ② 덩사오핑 鄧小平, Deng Xiaoping <인명> 중국의 정치가 (1904~1997)</p>
<p>1</p>	<p>① 베이징 ② 빼이징 北京, Beijing, <지명> 중국의 수도</p>	<p>2</p>	<p>① 마오저둥 ② 마오쩌둥 毛澤東, Mao Zedong, <인명> 중국의 정치가 (1893~1976)</p>																		
<p>3</p>	<p>① 텐진 ② 티엔진 天津, Tianjin, <지명> 중국 북부에 있는 중앙 직할시</p>	<p>4</p>	<p>① 광조우 ② 광저우 廣州, Guangzhou, <지명> 중국 남부에 있는 도시. 2010년 아시안게임 개최지.</p>																		
<p>5</p>	<p>① 리우더화 ② 류더화 劉德華, Liu Dehua, <인명> 중국 홍콩 출신의 영화배우, 가수. 영화 '천장지구'로 유명함.</p>	<p>6</p>	<p>① 위옌 ② 위안 元, yuan, 중국의 화폐단위</p>																		
<p>7</p>	<p>① 리롄제 ② 리롄제 李連傑, Li Lianjie, <인명> 중국의 영화배우, 무술인 영화 '소림사'로 유명함.</p>	<p>8</p>	<p>① 청룽 ② 청롱 成龍, Cheng Long, <인명> 중국 홍콩 출신의 영화배우, 감독. 영화 '취권'으로 유명함.</p>																		
<p>9</p>	<p>① 장쯔이 ② 장찌이 章子怡, Zhang Ziyi, <인명> 중국의 영화배우. '영화 '와호 장룡'으로 유명함.</p>	<p>10</p>	<p>① 덩샤오핑 ② 덩사오핑 鄧小平, Deng Xiaoping <인명> 중국의 정치가 (1904~1997)</p>																		

2. 만족스러운 외래어 표기(보기 · 쓰기 좋은 것)

2-1 알고 계신 올바른 표기와 관계 없이 귀하께서는 다음 예 가운데 어느 표기가 가장 익숙하면서도 보기와 쓰기에 좋으십니까?				
영어	1	①콘텐츠 ②컨텐츠 contents: 인터넷,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	2	①뉴욕 ②뉴욕 New York: (지명)미국의 최대 도시
	3	①선글라스 ②썬글라스 sunglass: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쓰는, 색깔 있는 안경	4	①더그아웃 ②덕아웃 dugout: 야구장의 선수 대기석
	5	①소시지 ②소세지 sausage: 으깨어 양념한 고기를 돼지 창자나 인공 케이싱에 채우고 삶은 서양식 순대	6	①로봇 ②로보트 robot: 인간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걸기도 하고 말도 하는 기계 장치
	7	①카셋 ②카세트 cassette: 소리를 녹음하거나 재생하는 기계 장치의 일종	8	①로브슨 ②롭슨 Robson: 산(山)이름
	9	①잉글리시 ②잉글리쉬 English: 영어	10	①하이라이트 ②하일라이트 highlight: 가장 흥미롭거나 두드러지는 장면

2-2. 알고 계신 올바른 표기와 관계 없이 귀하께서는 다음 예 가운데 어느 표기가 가장 익숙하면서도 보기와 쓰기에 좋으십니까?				
독일어	1	①하이델베르크 ②하이텔베르크 Heidelberg, 독일의 유명 대학도시	2	①도이칠란드 ②도이칠란트 Deutschland, 독일의 국가명칭
	3	①홀몬 ②호르몬 Hormon, 의학용어로서 내분비물을 의미	4	①빈 ②비인 Wien, 오스트리아의 수도
	5	①시멘스 ②지멘스 Siemens 독일 최초의 전기기기 제조회사	6	①모차르트 ②모짜르트 Mozart, 유명 작곡가
	7	①취리히 ②쭤리히 Zürich, 스위스 동부의 대도시	8	①바흐 ②바하 Bach, 유명 작곡가
	9	①베토벤 ②베에토벤 Beethoven, 유명 작곡가	10	①보슈 ②보쉬 Bosch, 독일의 공업화학자

2-3. 알고 계신 올바른 표기와 관계 없이 귀하께서는 다음 예 가운데 어느 표기가 가장 익숙하면서도 보기와 쓰기에 좋으십니까?				
프랑스어	1	①파리 ②빠리	2	①바캥스 ②바깡스
		Paris: 프랑스의 수도		vacances: 방학, 휴가
	3	①바게트 ②바게뜨	4	①몽타주 ②몽타쥬
		baguette: 프랑스의 대표적인 막대기 모양 빵		montage: 범죄 수사에서 목격자의 증언을 모아 용의자의 수배 전단을 만드는 데에 이용하는 사진
	5	①크루아상 ②크루와쌍	6	①양상블 ②양쌍블
		croissant: 프랑스의 대표적인 초승달 모양 빵		ensemble: 합창, 합주
7	①샹송 ②샹쑹	8	①베르사유 ②베르사이	
	chanson: 가요, 노래		Versailles: 프랑스 파리 근교 지역으로, 유명한 궁전이 있다.	
9	①필름 누아르 ②필름 누와르	10	①르네상스 ②르네쌍스	
	film noir: 암흑가를 다룬 범죄 영화		Renaissance: 문예부흥, 르네상스 시대	

2.-4. 알고 계신 올바른 표기와 관계 없이 귀하께서는 다음 예 가운데 어느 표기가 가장 익숙하면서도 보기와 쓰기에 좋으십니까?				
에스파냐어	1	①카사 블랑카 ②까사 블랑까	2	①데킬라 ②데킬라
		Casa blanca, 하얀 집. 영화제목 또는 노래제목		tequila, 멕시코 고유의 술
	3	①돈 키호테 ②돈 끼호떼	4	①타코 ②따꼬
		Don Quijote, 작가 세르반테스의 소설		taco, 멕시코 전통요리
	5	①베네주엘라 ②베네수엘라	6	①산 미겔 ②산 미구엘
		Venezuela, 남아메리카 국가		San Miguel, 맥주 이름
7	①야마 ②라마 ③라마	8	①세빌라 ②세비아 ③ 세빌라	
	llama, 낙타과에 속하는 동물		Sevilla, 에스파냐 남부의 항구도시	
9	①싼호쎄 ②산호세	10	①하바나 ②아바나	
	San José, 코스타리카의 수도		Habana, 쿠바의 수도	

2-5. 알고 계신 올바른 표기와 관계 없이 귀하께서는 다음 예 가운데 어느 표기가 가장 익숙하면서도 보기와 쓰기에 좋으십니까?				
이탈리아어	1	①파스타 ②빠스타 pasta: 밀가루 반죽과 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이탈리아의 국수 요리	2	①포르테 ②포르페 forte: (형용사)강하다
	3	①피자 ②피차 ③핏자 pizza: 밀가루 반죽 위에 토마토 소스, 모차렐라 치즈를 얹어서 둥글고 납작한 형태로 구운 빵	4	①구찌 ②구치 Gucci: 이탈리아 유명 의류 브랜드
	5	①푸치니 ②푹치니 Puccini: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	6	①스파게티 ②스파겏티 spaghetti: 길고 가는 파스타의 일종
	7	①자코모 ②쟈코모 Giacomo (Casanova): 18세기 베네치아의 모험가이자 작가	8	① 돈 조반니 ② 돈 죠반니 Don Giovanni: 이탈리아어로 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2막 오페라
	9	① 베네치아 ② 베네찌아 Venezia: 이탈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	10	①피렌체 ②피렌제 Firenze: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의 주도

2-6. 알고 계신 올바른 표기와 관계 없이 귀하께서는 다음 예 가운데 어느 표기가 가장 익숙하면서도 보기와 쓰기에 좋으십니까?				
일본어	1	①기모노 ②키모노 着物, kimono : 일본 전통 옷	2	①스모 ②스모오 相撲, sumoo : 일본 씨름
	3	①쓰나미 ②츠나미 津波, tsunami : 해일	4	①야스쿠니 ②야수쿠니 靖国, yasukuni : 일본 신사(神社)의 이름
	5	①신주쿠 ②신쥬쿠 新宿, shinjuku : <지명> 일본 도쿄에 있는 지역 이름	6	①홋카이도 ②혹카이도 北海道, hokkaidoo : <지명> 일본 북부의 큰 섬
	7	①신칸센 ②싱칸센 新幹線, shinkansen : 일본 고속 철도	8	①오사카 ②오오사카 大阪, oosaka : <지명>일본 지방 도시 이름
	9	①오키나와 ②오끼나와 沖縄, okinawa : <지명>일본 남부의 큰 섬	10	①삿포로 ②삼포로 札幌, sapporo : <지명>일본 지방 도시 이름

2-7. 알고 계신 올바른 표기와 관계 없이 귀하께서는 다음 예 가운데 어느 표기가 가장 익숙하면서도 보기와 쓰기에 좋으십니까?				
중국어	1	① 베이징 ② 뻬이징	2	① 마오저둥 ② 마오쩌둥
		北京, Beijing, <지명> 중국의 수도		毛澤東, Mao Zedong, <인명> 중국의 정치가 (1893~1976)
	3	① 텐진 ② 티엔진	4	① 광조우 ② 광저우
		天津, Tianjin, <지명> 중국 북부에 있는 중앙 직할시		廣州, Guangzhou, <지명> 중국 남부에 있는 도시. 2010년 아시안게임 개최지.
	5	① 리우더화 ② 류더화	6	① 위엔 ② 위안
		劉德華, Liu Dehua, <인명> 중국 홍콩 출신의 영화배우, 가수. 영화 '천장지구'로 유명함.		元, yuan, 중국의 화폐단위
	7	① 리롄제 ② 리롄제	8	① 청룽 ② 청룽
		李連傑, Li Lianjie, <인명> 중국의 영화배우, 무술인 영화 '소림사'로 유명함.		成龍, Cheng Long, <인명> 중국 홍콩 출신의 영화배우, 감독. 영화 '취권'으로 유명함.
	9	① 장쯔이 ② 장찌이	10	① 덩샤오핑 ② 덩샤오핑
		章子怡, Zhang Ziyi, <인명> 중국의 영화배우. '영화 '와호 장룡'으로 유명함.		鄧小平, Deng Xiaoping <인명> 중국의 정치가 (1904~1997)

3. 외래어 표기 규정 관련 조사

1.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2. 이런 규정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십니까?
3. 이 규정에 따른 표기 방식에 만족하십니까?

※ (2, 3번 질문에 한함) 질문의 대상에 해당하는 아래 각각의 외래어 표기 규정에 대해 5점 척도에 따라 주어진 물음에 답해 주십시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각 문항별 규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다하더라도(규정 인지 여부에 '아니오'로 표기한 경우) '2번의 이해 정도'와 '3번의 표기 방법에 대한 만족도'를 '규정을 읽고 난 후에 얼마나 이해가 되시는지' 그리고 '그 표기 방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는지'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래어	규정	1. 규정 인지 여부		2. 보기 문항 규정의 이해 정도					3. 표기 방식에 대한 만족 정도				
		예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 일반	1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외래어(외국어 낱말)는 한글 맞춤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본 자모 24개와 이를 바탕으로 한 16개 자모 등 총 40개 자모로 적는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외래어는 변이음이 아닌 음소 단위를 한글로 적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가 있을 수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ㄱ/ㅋ/ㄲ, ㄷ/ㅌ/ㄸ, ㅂ/ㅃ/ㅄ과 같은 것을 파열음이라고 하며, 외래어 원음이 된소리처럼 들려도 된소리 글자로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영어	1 어말의 [ʃ]는 '시'로 적는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둘 이상의 낱말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pick 픽 + up 업 → 픽업(0), 피컵(X)).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는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각 문항별 규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다하더라도(규정 인지 여부에 ‘아니오’로 표기한 경우) ‘2번의 이해 정도’와 ‘3번의 표기 방법에 대한 만족도’를 ‘규정을 읽고 난 후에 얼마나 이해가 되시는지’ 그리고 ‘그 표기 방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는지’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래어	규정	1. 규정 인지 여부		2. 보기 문항 규정의 이해 정도					3. 표기 방식에 대한 만족 정도				
		예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독일어	1 [j]의 경우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는 ‘슈’로 적는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어말의 [r]와 ‘-er[r]’는 ‘어’로 적는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복합어 및 파생어의 선행 요소가 [r]로 끝나는 경우는 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자음 앞의 [r]는 ‘으’를 붙여 적는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j]의 경우 그 밖의 모음 앞에서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쇼, 슈’ 등으로 적는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j]의 경우 [y], [ø] 앞에서는 ‘스’으로 적는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프랑스어	1 [R]이 [r], [l]과 음가가 다르지만 별도의 표기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르’로 표기한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마찰음 [ʃ]와 [ʒ]는 어말과 자음 앞에 올 경우 ‘슈’나 ‘주’로 표기한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반모음 [j]는 어말에 올 때에 ‘유’로 적는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반모음 [w]는 ‘우’로 적는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에스파냐어	1 파열음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ll, y, ñ, w의 '이, 니, 오, 우'는 다른 모음과 결합할 때 합쳐서 1 음절로 적는다.(예: 에스파냐 España)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gu, qu는 i, e 앞에서는 각각 ‘ㄱ, ㅋ’으로 적는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z’는 ‘스’으로 표기한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c와 g앞에 오는 n은 받침 ‘ㅇ’으로 적는다.(예:blanco 블랑코)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각 문항별 규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다하더라도(규정 인지 여부에 '아니오'로 표기한 경우) '2번의 이해 정도'와 '3번의 표기 방법에 대한 만족도'를 '규정을 읽고 난 후에 얼마나 이해가 되시는지' 그리고 '그 표기 방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는지'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래어	규정	1. 규정 인지 여부		2. 보기 문항 규정의 이해 정도					3. 표기 방식에 대한 만족 정도					
		예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이탈리아어	1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z'를 '츠'로 표기한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같은 자음이 겹쳤을 때에는 겹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적는다, 다만, -mm-, -nn-의 경우는 'm', 'n'으로 적는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c와 g 다음에 ia, io, iu가 올 때에는 각각 '차, 초, 추', '자, 조, 주'로 적는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이탈리아 내에서 쓰이는 낱말(이주민의 이름 등)이라도 원래 이탈리아어가 아니면 그것이 실제로 속하는 언어의 표기 원칙을 따른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일본어	1	일본어 어두의 유성파열음(ガ, ヌ)과 무성파열음(カ, ク)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한국어 평음(가, 다)으로 표기한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일본어 'ジャ, ジュ, ジョ'를 '자, 주, 조'로, 'チャ, チュ, チョ'를 '차, 추, 초'로 표기한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일본어 'ツ'를 '쓰'로 표기한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일본어의 우(ウ)단음의 모음에 대해서 '우, 구, 누, 후, 무, 루'처럼 'u'로 표기하고 '스, 즈, 츠'는 '스, 즈, 쓰'처럼 'u'로 표기한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일본어 축음(ッ)은 받침 's'으로, 발음(ン)은 받침 'n'으로 표기한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일본어의 장모음을 표기하지 않는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외래어	규정	1. 규정 인지 여부		2. 보기 문항 규정의 이해 정도					3. 표기 방식에 대한 만족 정도																																	
		예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중국어	<table border="1"> <tr> <th rowspan="6">대조표 (성모)</th> <th colspan="2">한어병음 자모</th> <th colspan="2">한글</th> </tr> <tr> <td>j</td> <td>sh[shi]</td> <td>ㅈ</td> <td>ㅅ[스]</td> </tr> <tr> <td>q</td> <td>z[zi]</td> <td>ㅊ</td> <td>ㅈ[쯔]</td> </tr> <tr> <td>x</td> <td>c[ci]</td> <td>ㅅ</td> <td>ㅊ[츠]</td> </tr> <tr> <td>zh[zhi]</td> <td>s[si]</td> <td>ㅈ[즈]</td> <td>ㅅ[쓰]</td> </tr> <tr> <td>ch[chi]</td> <td></td> <td>ㅊ[츠]</td> <td></td> </tr> </table>	대조표 (성모)	한어병음 자모		한글		j	sh[shi]	ㅈ	ㅅ[스]	q	z[zi]	ㅊ	ㅈ[쯔]	x	c[ci]	ㅅ	ㅊ[츠]	zh[zhi]	s[si]	ㅈ[즈]	ㅅ[쓰]	ch[chi]		ㅊ[츠]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대조표 (성모)	한어병음 자모		한글																																				
				j	sh[shi]	ㅈ	ㅅ[스]																																			
				q	z[zi]	ㅊ	ㅈ[쯔]																																			
				x	c[ci]	ㅅ	ㅊ[츠]																																			
	zh[zhi]			s[si]	ㅈ[즈]	ㅅ[쓰]																																				
	ch[chi]			ㅊ[츠]																																						
	<table border="1"> <tr> <th rowspan="6">대조표 (운모)</th> <th colspan="2">한어병음 자모</th> <th colspan="2">한글</th> </tr> <tr> <td>단운모 e</td> <td>yan(ian)</td> <td>어</td> <td>엔</td> </tr> <tr> <td>단운모 wu(u)</td> <td>wei(ui)</td> <td>우</td> <td>웨이(우이)</td> </tr> <tr> <td>단운모 yu(u)</td> <td>weng(ong)</td> <td>위</td> <td>웡(웅)</td> </tr> <tr> <td>ou</td> <td>yuan(uan)</td> <td>어우</td> <td>위안</td> </tr> <tr> <td>ya(ia)</td> <td></td> <td>야</td> <td></td> </tr> <tr> <td>you(iu)</td> <td></td> <td>유</td> <td></td> </tr> </table>	대조표 (운모)	한어병음 자모		한글		단운모 e	yan(ian)	어	엔	단운모 wu(u)	wei(ui)	우	웨이(우이)	단운모 yu(u)	weng(ong)	위	웡(웅)	ou	yuan(uan)	어우	위안	ya(ia)		야		you(iu)		유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대조표 (운모)	한어병음 자모		한글																																				
				단운모 e	yan(ian)	어	엔																																			
단운모 wu(u)				wei(ui)	우	웨이(우이)																																				
단운모 yu(u)				weng(ong)	위	웡(웅)																																				
ou				yuan(uan)	어우	위안																																				
ya(ia)		야																																								
you(iu)		유																																								
3	‘ㅈ, ㅊ, ㅊ’으로 표기되는 자음(j, zh, z, q, ch, c) 뒤의 ‘ㅑ, ㅕ, ㅗ, ㅛ’ 음은 ‘ㅓ, ㅖ, ㅜ, ㅠ’로 적는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한자 사용 지역(일본, 중국)의 지명이 하나의 한자로 되어 있을 경우, ‘강’, ‘산’, ‘호’, ‘섬’ 등은 겹쳐 적는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규정 관련 제안	f, v 등 국어에 없는 주요 외국어 음성을 적을 수 있는 한글 자모를 만들어서 실제로 외래어의 표기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예: file '파일' violin '바이올린' 등)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
응답자 주소	_____시(군) _____구 _____동(읍/면) _____		
면접 일시	()월()일()시경	면접원 성명	

부록 2 외래어 표기 규정과 용례에 대한 인지도·이해도·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외래어 표기 규정 및 용례에 대한
인지도·이해도·만족도 조사』

2010년 11월

목 차

I. 조사 개요	1
1. 조사 목적	2
2. 조사 설계	2
3. 조사 내용	3
4. 자료 처리 방법	9
5. 응답자 특성	10
II. 분석 결과 요약	12
1. 전체 결과 요약	13
2. 외래어별 전체 결과 비교	14
3. 외래어별 정인지 및 만족도 비교	16
4. 전문인 규정별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 비교	17
5. 용례별 정인지 및 만족도 도표	18
6. 외래어 규정에 따른 용례 정인지	19
III. 조사 결과(일반인)	21
1-1. ①콘텐츠 ②컨텐츠	22
1-2. ①뉴욕 ②뉴욕	23
1-3. ①선글라스 ②썬글라스	24
1-4. ①더그아웃 ②덕아웃	25
1-5. ①소시지 ②소세지	26
1-6. ①로봇 ②로보트	27
1-7. ①카셋 ②카세트	28
1-8. ①로브슨 ②롭슨	29
1-9. ①잉글리시 ②잉글리쉬	30
1-10. ①하이라이트 ②하일라이트	31
2-1. ①하이델베르크 ②하이델베르크	32
2-2. ①도이칠란드 ②도이칠란트	33
2-3. ①홀몬 ②호르몬	34
2-4. ①빈 ②비인	35
2-5. ①시멘스 ②지멘스	36
2-6. ①모차르트 ②모짜르트	37
2-7. ①취리히 ②쾰리히	38
2-8. ①바흐 ②바하	39
2-9. ①베토벤 ②베에토벤	40
2-10. ①보슈 ②보쉬	41
3-1. ①파리 ②빠리	42
3-2. ①바캉스 ②바캉스	43
3-3. ①바게트 ②바게뜨	44
3-4. ①몽타주 ②몽타주	45
3-5. ①크루아상 ②크루와쌍	46
3-6. ①양상블 ②양쌍블	47
3-7. ①샹송 ②샹송	48
3-8. ①베르사유 ②베르사이	49
3-9. ①필름 누아르 ②필름 누와르	50

3-10. ①르네상스	②르네쌍스	51
4-1. ①카사 블랑카	②까사 블랑카	52
4-2. ①테킬라	②테킬라	53
4-3. ①돈 키호테	②돈 끼호떼	54
4-4. ①타코	②따꼬	55
4-5. ①베네주엘라	②베네수엘라	56
4-6. ①산 미겔	②산 미구엘	57
4-7. ①야마	②라마 ③라마	58
4-8. ①세빌라	②세비아 ③세빌라	59
4-9. ①싼호쎬	②산호세	60
4-10. ①하바나	②아바나	61
5-1. ①파스타	②빠스타	62
5-2. ①포르테	②포르떼	63
5-3. ①피자	②피차 ③핏자	64
5-4. ①구찌	②구치	65
5-5. ①푸치니	②푹치니	66
5-6. ①스파게티	②스파겟티	67
5-7. ①자코모	②자코모	68
5-8. ①돈 조반니	②돈 죠반니	69
5-9. ①베네치아	②베네찌아	70
5-10. ①피렌체	②피렌제	71
6-1. 일본의 인명과 지명을 한글로 어떻게 적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72
	①일본어 음대로 적는다 ②우리식 한자음으로 적는다.	
6-2. 실제로 어느 표기를 사용하십니까? ①도쿄 ②동경		73
6-3. 실제로 어느 표기를 사용하십니까? ①이토 히로부미 ②이등박문		74
7-1. ①기모노	②키모노	75
7-2. ①스모	②스모오	76
7-3. ①쓰나미	②츠나미	77
7-4. ①야스쿠니	②야수쿠니	78
7-5. ①신주쿠	②신쥬쿠	79
7-6. ①훗카이도	②혹카이도	80
7-7. ①신칸센	②싱칸센	81
7-8. ①오사카	②오오사카	82
7-9. ①오키나와	②오끼나와	83
7-10. ①삿포로	②삽포로	84
8-1. 중국의 인명과 지명을 한글로 어떻게 적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85
	①중국어 음대로 적는다 ②우리식 한자음으로 적는다	85
8-2. 실제로 어떤 표기를 사용하십니까? ①쓰촨 ②사천		86
8-3. 실제로 어느 표기를 사용하십니까? ①장제스 ②장개석		87
9-1. ①베이징	②뻬이징	88
9-2. ①마오저둥	②마오쩌둥	89
9-3. ①텐진	②티엔진	90

9-4. ①광조우	②광저우	91
9-5. ①리우더화	②류더화	92
9-6. ①위앤	②위안	93
9-7. ①리렌제	②리렌제	94
9-8. ①칭룽	②칭룽	95
9-9. ①장쯔이	②장찌이	96
9-10. ①딩샤오핑	②딩샤오핑	97
IV. 조사 결과(전문인)		98
1-1. ①콘텐츠	②컨텐츠	99
1-2. ①뉴욕	②뉴욕	100
1-3. ①선글라스	②션글라스	101
1-4. ①더그아웃	②덕아웃	102
1-5. ①소시지	②소세지	103
1-6. ①로봇	②로보트	104
1-7. ①카셋	②카세트	105
1-8. ①로브슨	②롭슨	106
1-9. ①잉글리시	②잉글리쉬	107
1-10. ①하이라이트	②하일라이트	108
2-1. ①하이델베르크	②하이델베르그	109
2-2. ①도이칠란드	②도이칠란트	110
2-3. ①홀몬	②호르몬	111
2-4. ①빈	②비인	112
2-5. ①시멘스	②지멘스	113
2-6. ①모차르트	②모짜르트	114
2-7. ①취리히	②쾰리히	115
2-8. ①바흐	②바하	116
2-9. ①베토벤	②베에토벤	117
2-10. ①보슈	②보쉬	118
3-1. ①과리	②빠리	119
3-2. ①바캉스	②바캉스	120
3-3. ①바게트	②바게뜨	121
3-4. ①몽타주	②몽타쥬	122
3-5. ①크루아상	②크루와쌍	123
3-6. ①양상블	②양쌍블	124
3-7. ①상송	②상쑹	125
3-8. ①베르사유	②베르사이	126
3-9. ①필름 누아르	②필름 누와르	127
3-10. ①르네상스	②르네쌍스	128
4-1. ①카사 블랑카	②까사 블랑카	129
4-2. ①테킬라	②데킬라	130
4-3. ①돈 키호테	②돈 끼호떼	131
4-4. ①타코	②따꼬	132
4-5. ①베네주엘라	②베네수엘라	133

4-6. ①산 미겔	②산 미구엘	134
4-7. ①야마	②라마 ③라마	135
4-8. ①세빌라	②세비아 ③세빌라	136
4-9. ①싼호세	②산호세	137
4-10. ①하바나	②아바나	138
5-1. ①파스타	②빠스타	139
5-2. ①포르테	②포르떼	140
5-3. ①피자	②피차 ③핏자	141
5-4. ①구찌	②구치	142
5-5. ①푸치니	②푹치니	143
5-6. ①스파게티	②스파갯티	144
5-7. ①자코모	②자코모	145
5-8. ①돈 조반니	②돈 죠반니	146
5-9. ①베네치아	②베네찌아	147
5-10. ①피렌체	②피렌제	148
6-1. 일본의 인명과 지명을 한글로 어떻게 적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49
	①일본어 음대로 적는다 ②우리식 한자음으로 적는다	
6-2. 실제로 어느 표기를 사용하십니까? ①도쿄 ②동경		150
6-3. 시제로 어느 표기를 사용하십니까? ①이토 히로부미 ②이등박문		151
7-1. ①기모노	②키모노	152
7-2. ①스모	②스모오	153
7-3. ①쓰나미	②츠나미	154
7-4. ①야스쿠니	②야수쿠니	155
7-5. ①신주쿠	②신쥬쿠	156
7-6. ①홋카이도	②혹카이도	157
7-7. ①신칸센	②싱칸센	158
7-8. ①오사카	②오오사카	159
7-9. ①오키나와	②오끼나와	160
7-10. ①삿포로	②삼포로	161
8-1. 중국의 인명과 지명을 한글로 어떻게 적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62
	①중국어 음대로 적는다 ②우리식 한자음으로 적는다	
8-2. 실제로 어떤 표기를 사용하십니까? ①쓰촨 ②사천		163
8-3. 실제로 어느 표기를 사용하십니까? ①장제스 ②장개석		164
9-1. ①베이징	②뻬이징	165
9-2. ①마오쩌둥	②마오쩌둥	166
9-3. ①텐진	②티엔진	167
9-4. ①광저우	②광저우	168
9-5. ①리우더화	②류더화	169
9-6. ①위안	②위안	170
9-7. ①리렌제	②리렌제	171
9-8. ①칭룽	②칭룽	172
9-9. ①장쯔이	②장찌이	173
9-10. ①덩샤오핑	②덩샤오핑	174

V. 조사 결과(전문인 용례편)	175
1-1. 일반규정 1	176
1-2. 일반규정 2	178
1-3. 일반규정 3	180
1-4. 일반규정 4	182
1-5. 일반규정 5	184
2-1. 영어규정 1	186
2-2. 영어규정 2	188
2-3. 영어규정 3	190
2-4. 영어규정 4	192
3-1. 독일어규정 1	194
3-2. 독일어규정 2	196
3-3. 독일어규정 3	198
3-4. 독일어규정 4	200
3-5. 독일어규정 5	202
3-6. 독일어규정 6	204
4-1. 프랑스어규정 1	206
4-2. 프랑스어규정 2	208
4-3. 프랑스어규정 3	210
4-4. 프랑스어규정 4	212
4-5. 프랑스어규정 5	214
5-1. 에스파냐어규정 1	216
5-2. 에스파냐어규정 2	218
5-3. 에스파냐어규정 3	220
5-4. 에스파냐어규정 4	222
5-5. 에스파냐어규정 5	224
6-1. 이탈리아어규정 1	226
6-2. 이탈리아어규정 2	228
6-3. 이탈리아어규정 3	230
6-4. 이탈리아어규정 4	232
6-5. 이탈리아어규정 5	234
7-1. 일본어규정 1	236
7-2. 일본어규정 2	238
7-3. 일본어규정 3	240
7-4. 일본어규정 4	242
7-5. 일본어규정 5	244
7-6. 일본어규정 6	246
8-1. 중국어규정 1	248
8-2. 중국어규정 2	250
8-3. 중국어규정 3	252
8-4. 중국어규정 4	254
8-5. 중국어규정 5	256
8-6. 중국어규정 6	258
8-7. 중국어규정 7	260
9. 규정관련제안	262
별첨. 설문지 및 통계편	263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외래어 규범에 대한 전문인 및 일반국민의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현행 외래어 규범의 타당성 검증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2 조사 설계

2. 조사 설계

	일반인	전문가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나운서, 신문 기자, 국어교사, 출판사 편집관련 종사자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기입식 응답
표본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성/연령 할당 표본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 할당 표본 추출
유효표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5명 (95% 신뢰수준에서 ±4.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3명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15일 ~ 11월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15일 ~ 11월 2일
조사기관	(주) 리서치앤리서치(대표이사: 노규형, 02-3484-3000)	

3 조사 내용

1. 외래어 표기 인지 정도 측정 문항

□ 외래어 인지 및 만족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외래어 제시어를 주고 올바른 용례와 보기 좋거나 쓰기 편한 용례를 응답하도록 함.

영어	1	①콘텐츠 ②컨텐츠 contents: 인터넷,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	2	①뉴욕 ②뉴욕 New York: (지명)미국의 최대 도시
	3	①선글라스 ②썬글라스 sunglass: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쓰는, 색깔 있는 안경	4	①더그아웃 ②덕아웃 dugout: 야구장의 선수 대기석
	5	①소시지 ②소세지 sausage: 으깨어 양념한 고기를 돼지 창자나 인공 케이싱에 채우고 삶은 서양식 순대	6	①로봇 ②로보트 robot: 인간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걷기도 하고 말도 하는 기계 장치
	7	①카셋 ②카세트 cassette: 소리를 녹음하거나 재생하는 기계 장치의 일종	8	①로브슨 ②롭슨 Robson: 산(山)이름
	9	①잉글리시 ②잉글리쉬 English: 영어	10	①하이라이트 ②하일라이트 highlight: 가장 흥미롭거나 두드러지는 장면

독일어	1	①하이델베르크 ②하이델베그 Heidelberg, 독일의 유명 대학도시	2	①도이칠란드 ②도이칠란트 Deutschland, 독일의 국가명칭
	3	①홀몬 ②호르몬 Hormon, 의학용어로서 내분비물을 의미	4	①빈 ②비인 Wien, 오스트리아의 수도
	5	①시멘스 ②지멘스 Siemens 독일 최초의 전기기기 제조회사	6	①모차르트 ②모짜르트 Mozart, 유명 작곡가
	7	①취리히 ②쨌리히 Zürich, 스위스 동부의 대도시	8	①바흐 ②바하 Bach, 유명 작곡가
	9	①베토벤 ②베에토벤 Beethoven, 유명 작곡가	10	①보슈 ②보쉬 Bosch, 독일의 공업화학자

프랑스어	1	①파리 ②빠리	2	①바캉스 ②바깡스
		Paris: 프랑스의 수도		vacances: 방학, 휴가
	3	①바게트 ②바게뜨	4	①몽타주 ②몽타쥬
		baguette: 프랑스의 대표적인 막대기 모양 빵		montage: 범죄 수사에서 목격자의 증언을 모아 용의자의 수배 전단을 만드는 데에 이용하는 사진
	5	①크루아상 ②크루와쌍	6	①앙상블 ②앙쌍블
		croissant: 프랑스의 대표적인 초승달 모양 빵		ensemble: 합창, 합주
7	①상송 ②상송	8	①베르사유 ②베르사이	
	chanson: 가요, 노래		Versailles: 프랑스 파리 근교 지역으로, 유명한 궁전이 있다.	
9	①필름 누아르 ②필름 누와르	10	①르네상스 ②르네쌍스	
	film noir: 암흑가를 다룬 범죄 영화		Renaissance: 문예부흥, 르네상스 시대	

에스파냐어	1	①카사 블랑카 ②까사 블랑까	2	①테킬라 ②데킬라
		Casa blanca, 하얀 집. 영화제목 또는 노래제목		tequila, 멕시코 고유의 술
	3	①돈 키호테 ②돈 끼호떼	4	①타코 ②따꼬
		Don Quijote, 작가 세르반테스의 소설		taco, 멕시코 전통요리
	5	①베네주엘라 ②베네수엘라	6	①산 미겔 ②산 미구엘
Venezuela, 남아메리카 국가		San Miguel, 맥주 이름		
7	①야마 ②라마 ③라마	8	①세빌라 ②세비아 ③ 세빌라	
	llama, 낙타과에 속하는 동물		Sevilla, 에스파냐 남부의 항구도시	
9	①산호세 ②산호세	10	①하바나 ②아바나	
	San José, 코스타리카의 수도		Habana, 쿠바의 수도	

이탈리아어	1	①파스타 ②빠스타 pasta: 밀가루 반죽과 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이탈리아의 국수 요리	2	①포르테 ②포르떼 forte: (형용사)강하다
	3	①피자 ②피차 ③핏자 pizza: 밀가루 반죽 위에 토마토 소스, 모차렐라 치즈를 얹어서 둥글고 납작한 형태로 구운 빵	4	①구찌 ②구치 Gucci: 이탈리아의 유명 의류 브랜드
	5	①푸치니 ②퓏치니 Puccini: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	6	①스파게티 ②스파겐티 spaghetti: 길고 가는 파스타의 일종
	7	①자코모 ②차코모 Giacomo (Casanova): 18세기 베네치아의 모험가이자 작가	8	①돈 조반니 ②돈 죠반니 Don Giovanni: 이탈리아어로 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2막 오페라
	9	①베네치아 ②베네찌아 Venezia: 이탈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	10	①피렌체 ②피렌제 Firenze: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의 주도

일본어 한자음 표기 관련	1-6. <한자 문화권 중 일본어의 경우, 한국식 한자음으로 외래어 표기하는 것에 대한 문항>	
	1-1) 일본의 인명과 지명을 한글로 어떻게 적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일본어 음대로 적는다 ② 우리식 한자음으로 적는다	
	1-2) 실제로 어느 표기를 사용하십니까? ① 도쿄 ② 동경	
1-3) 실제로 어느 표기를 사용하십니까? ① 이토 히로부미 ② 이등박문		

일본어	1	①기모노 ②키모노 着物, kimono : 일본 전통 옷	2	①스모 ②스모오 相撲, sumoo : 일본 씨름
	3	①쓰나미 ②츠나미 津波, tsunami : 해일	4	①야스쿠니 ②야수쿠니 靖国, yasukuni : 일본 신사(神社)의 이름
	5	①신주쿠 ②신쥬쿠 新宿, shinjuku : <지명> 일본 도쿄에 있는 지역 이름	6	①홋카이도 ②흑카이도 北海道, hokkaidoo : <지명> 일본 북부의 큰 섬
	7	①신칸센 ②싱칸센 新幹線, shinkansen : 일본 고속 철도	8	①오사카 ②오오사카 大阪, oosaka : <지명>일본 지방 도시 이름
	9	①오키나와 ②오키나와 沖縄, okinawa : <지명>일본 남부의 큰 섬	10	①삿포로 ②삼포로 札幌, sapporo : <지명>일본 지방 도시 이름

<p>중국어 한자음 표기 관련</p>	<p>1-8. <한자 문화권 중 중국어의 경우, 한국식 한자음으로 외래어 표기하는 것에 대한 문항></p> <p>1-1) 중국의 인명과 지명을 한글로 어떻게 적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중국어 음대로 적는다 ② 우리식 한자음으로 적는다</p> <p>1-2) 실제로 어느 표기를 사용하십니까? ① 쓰촨 ② 사천</p> <p>1-3) 실제로 어느 표기를 사용하십니까? ① 장제스 ② 장개석</p>	
<p>중국어</p>	<p>1</p> <p>①베이징 ②베이징</p> <p>北京, Beijing, <지명> 중국의 수도</p>	<p>2</p> <p>①마오저둥 ②마오쩌둥</p> <p>毛澤東, Mao Zedong, <인명> 중국의 정치가 (1893~1976)</p>
	<p>3</p> <p>①텐진 ②티엔진</p> <p>天津, Tianjin, <지명> 중국 북부에 있는 중앙 직할시</p>	<p>4</p> <p>①광조우 ②광저우</p> <p>廣州, Guangzhou, <지명> 중국 남부에 있는 도시. 2010년 아시안게임 개최지.</p>
	<p>5</p> <p>①리우더화 ②류더화</p> <p>劉德華, Liu Dehua, <인명> 중국 홍콩 출신의 영화배우, 가수. 영화 ‘천장 지구’로 유명함.</p>	<p>6</p> <p>①위안 ②위안</p> <p>元, yuan, 중국의 화폐단위</p>
	<p>7</p> <p>①리롄제 ②리롄제</p> <p>李連傑, Li Lianjie, <인명> 중국의 영화배우, 무술인 영화 ‘소림사’로 유명함.</p>	<p>8</p> <p>①청룽 ②청룽</p> <p>成龍, Cheng Long, <인명> 중국 홍콩 출신의 영화배우, 감독. 영화 ‘취권’으로 유명함.</p>
	<p>9</p> <p>①장쯔이 ②장찌이</p> <p>章子怡, Zhang Ziyi, <인명> 중국의 영화배우. ‘영화 ‘와호장룡’으로 유명함.</p>	<p>10</p> <p>①덩샤오핑 ②덩샤오핑</p> <p>鄧小平, Deng Xiaoping <인명> 중국의 정치가 (1904~1997)</p>

2. 외래어 표기 관련 조사

□ 외래어 표기 관련조사는 외래어 규정에 대해 규정 인지 여부(이항 척도), 규정 이해정도(5점 척도), 표기 방식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를 전문가 집단만 응답하도록 설문을 구성하였음.

외래어	규정
1. 일반	1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외래어(외국어 낱말)는 한글 맞춤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본 자모 24개와 이를 바탕으로 한 16개 자모 등 총 40개 자모로 적는다]
	2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외래어는 변이음이 아닌 음소 단위를 한글로 적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가 있을 수 있다]
	3 받침에는 ‘ㄱ, ㄴ, ㄷ,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4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ㄱ/ㅋ/ㄲ, ㄷ/ㅌ/ㄸ, ㅂ/ㅃ/ㅍ과 같은 것을 파열음이라고 하며, 외래어 원음이 된소리처럼 들려도 된소리 글자로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5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2. 영어	1 어말의 [ʃ]는 ‘시’로 적는다.
	2 둘 이상의 낱말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pick 픽 + up 업 → 픽업(0), 피킵(X)).
	3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4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는다.
3. 독일어	1 [ʃ]의 경우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는 ‘슈’로 적는다.
	2 어말의 [r]와 ‘-er[r]’는 ‘어’로 적는다.
	3 복합어 및 파생어의 선행 요소가 [r]로 끝나는 경우는 2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자음 앞의 [r]는 ‘으’를 붙여 적는다.
	5 [ʃ]의 경우 그 밖의 모음 앞에서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쇼, 슈’ 등으로 적는다.
	6 [ʃ]의 경우 [y], [ø] 앞에서는 ‘스’로 적는다.
4. 프랑스어	1 [R]이 [r], [l]과 음가가 다르지만 별도의 표기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르’로 표기한다.
	2 마찰음 [ʃ]와 [ʒ]는 어말과 자음 앞에 올 경우 ‘슈’나 ‘주’로 표기한다.
	3 반모음 [j]는 어말에 올 때에 ‘유’로 적는다,
	4 반모음 [w]는 ‘우’로 적는다.
	5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에스파냐어	1 파열음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ll, y, ñ, w의 ‘이, 니, 오, 우’는 다른 모음과 결합할 때 합쳐서 1 음절로 적는다.(예: 에스파냐 España)
	3 gu, qu는 i, e 앞에서는 각각 ‘기, 키’로 적는다.
	4 ‘z’는 ‘스’로 표기한다.
	5 c와 g앞에 오는 n은 받침 ‘ㅇ’으로 적는다.(예:blanco 블랑코)

외래어	규정					
6. 이탈리아어	1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z'를 '츠'로 표기한다				
	3	같은 자음이 겹쳤을 때에는 겹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적는다, 다만, -mm-, -nn-의 경우는 '口口', 'ㄴㄴ'으로 적는다.				
	4	c와 g 다음에 ia, io, iu가 올 때에는 각각 '차, 초, 추', '자, 조, 주'로 적는다.				
	5	이탈리아 내에서 쓰이는 낱말(이주민의 이름 등)이라도 원래 이탈리아어가 아니면 그것이 실제로 속하는 언어의 표기 원칙을 따른다.				
7. 일본어	1	일본어 어두의 유성과열음(ガ, タ)과 무성과열음(カ, タ)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한국어 평음(가, 다)으로 표기한다.				
	2	일본어 'ジャ, ジュ, ジョ'를 '자, 주, 조'로, 'チャ, チュ, チョ'를 '차, 추, 초'로 표기한다.				
	3	일본어 'っ'를 '쓰'로 표기한다.				
	4	일본어의 우(ウ)단음의 모음에 대해서 'う, く, ぬ, ふ, む, る'는 '우, 구, 누, 후, 무, 루'처럼 'ㄱ'로 표기하고 '스, 즈, ツ'는 '스, 즈, 쓰'처럼 'ㄴ'로 표기한다.				
	5	일본어 축음(っ)은 받침 'ㅅ'으로, 발음(ン)은 받침 'ㄴ'으로 표기한다.				
	6	일본어의 장모음을 표기하지 않는다.				
	7					
8. 중국어	1	대조표 (성모)	한어병음 자모		한글	
			j	sh[shi]	ㅈ	ㅅ[스]
			q	z[zi]	ㅊ	ㅆ[쯔]
			x	c[ci]	ㅅ	ㅈ[쯔]
			zh[zhi]	s[si]	ㅈ[쯔]	ㅆ[쯔]
	ch[chi]		ㅈ[쯔]			
	2	대조표 (운모)	한어병음 자모		한글	
			단운모 e	yan(ian)	어	엔
			단운모 wu(u)	wei(ui)	우	웨이(우이)
			단운모 yu(u)	weng(ong)	위	윙(웅)
ou			yuan(uan)	어우	위안	
ya(ia)		야				
you(iu)		유				
3	ㅈ, ㅆ, ㅊ'으로 표기되는 자음(j, zh, z, q, ch, c) 뒤의 'ㅏ, ㅑ, ㅓ, ㅕ' 음은 'ㅏ, ㅑ, ㅓ, ㅕ'로 적는다.					
4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5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6	한자 사용 지역(일본, 중국)의 지명이 하나의 한자로 되어 있을 경우, '강', '산', '호', '섬' 등은 겹쳐 적는다.					
7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					
9. 규정 관련 제안	f, v 등 국어에 없는 주요 외국어 음성을 적을 수 있는 한글 자모를 만들어서 실제로 외래어의 표기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예: file '풍ㅏ일' violin '바이올린' 등)					

4 자료 처리 방법

□ 검증(verification), 편집(Editing), 데이터 입력(Coding/Punching), 데이터의 오류 제거(Data Cleaning), 자료 분석(Data Processing/Analysis) 과정을 통해 최종 분석 결과물 제출.

<p style="text-align: center;">검증 (verification)</p>	<p>응답자 중 일정 비율을 추출하여 조사 결과 및 조사 과정상의 문제가 없었는지를 유선 검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사의 경우, 전문인은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전달하였고, 응답자 자기 기입으로 설문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검증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수도권 일반인에 한해 유선 검증 실시.
<p style="text-align: center;">편집 (Editing)</p>	<p>설문지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 검증.</p>
<p style="text-align: center;">입력 (Coding / Punching)</p>	<p>전산 처리를 위해 설문지 내용 부호화(coding) 및 입력(punching).</p>
<p style="text-align: center;">오류 제거 (Data Cleaning)</p>	<p>입력된 자료의 오류를 검증하고, 발견된 오류를 설문지와 비교하여 교정.</p>
<p style="text-align: center;">자료 분석 (Data Processing / Analysis)</p>	<p>통계 패키지(SPSS for Windows) 및 엑셀(Excel)을 이용하여 자료를 집계하고 정량 분석.</p>

5 응답자 특성

□ 본 조사의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음.

1. 일반인

내 용		사례수	비율(%)
■ 전 체 ■		525	100.0
□ 성 별 □	남 성	260	49.5
	여 성	265	50.5
□ 연 령 □	2 0 대 미 만	109	20.8
	3 0 대	129	24.6
	4 0 대	127	24.2
	5 0 대	92	17.5
	6 0 대 이 상	68	13.0
□ 직 업 □	자 영 업	108	20.6
	블루 칼라	44	8.4
	화이트 칼라	107	20.4
	가정 주부	126	24.0
	학 생	39	7.4
	무직 및 무응답	18	3.4
	서비스 업	83	15.8
□ 학 력 □	중 졸 이 하	30	5.7
	고 졸	287	54.7
	대 졸	205	39.0
	대 학 원 졸	3	0.6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50.0
	자 연 과 학	58	27.9
	예체능및기타	28	13.5
	무 응 답	18	8.7
□ 독 서 량 □	2 권 미 만	193	36.8
	3 권 - 5 권	172	32.8
	6 권 - 8 권	68	13.0
	9 권 - 11권	40	7.6
	12 권 이 상	52	9.9
□신문기사,공문서확인정도□	5 건 이 하	280	58.3
	6건-10건이하	112	23.3
	11건-15건이하	54	11.3
	16건-20건이하	13	2.7
	20 건 이 상	21	4.4%

2 전문인

내용		사례수	비율(%)
■ 전 체 ■		103	100.0
■ 성 별 ■	남 성	55	53.4
	여 성	48	46.6
■ 연 령 ■	2 0 대 미 만	36	35.6
	3 0 대	34	33.7
	4 0 대	20	19.8
	5 0 대 이 상	11	10.9
■ 직 업 ■	아 나 운 서	24	23.3
	신 문 기 자	29	28.2
	출판사종사자	25	24.3
	국 어 교 사	25	24.3
■ 직업(대분류) ■	언 론 인	53	51.5
	비 언 론 인	50	48.5
■ 학 력 ■	고 졸	1	1.0
	대 졸	81	81.0
	대 학 원 졸	18	18.0
■ 전 공 ■	인 문 계 열	66	66.0
	사 회 과 학 계 열	26	26.0
	기 타	8	8.0
■ 독 서 량 ■	2 권 미 만	2	2.0
	3 권 - 5 권	8	7.8
	6 권 - 8 권	19	18.6
	9 권 - 11 권	18	17.6
	12 권 이 상	55	53.9
■ 신문기사, 공문서확인정도 ■	5 건 이 하	13	12.7
	6건-10건이하	27	26.5
	11건-15건이하	21	20.6
	16건-20건이하	5	4.9
	20 건 이 상	36	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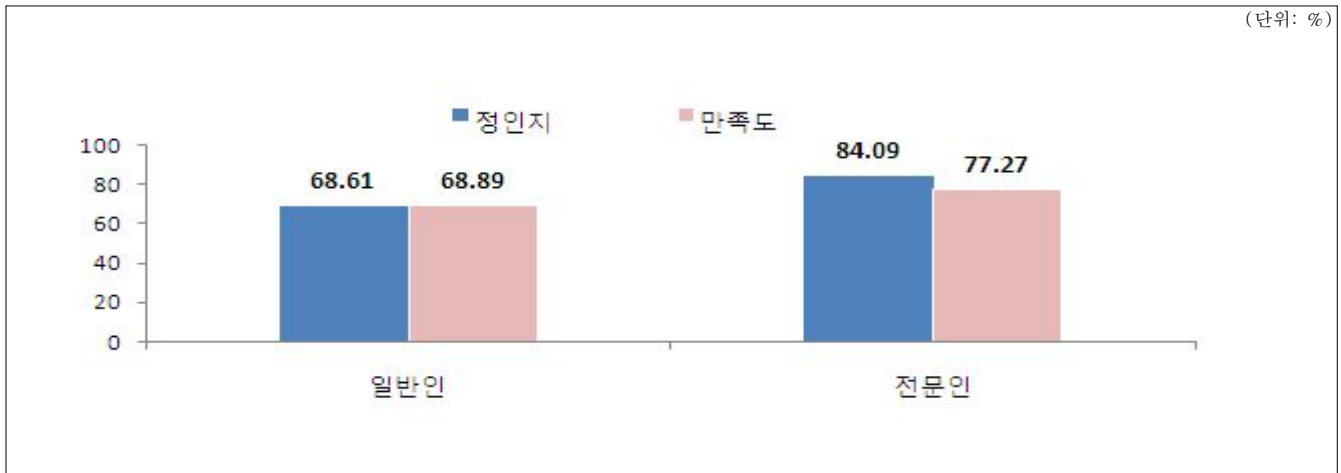
II. 분석 결과 요약

1 전체 결과 요약

1) 일반인 및 전문인 전체 결과

- 7개 외래어 올바른 표기 전체 문항에 대한 인지율에 있어서, 일반인 68.61%, 전문인이 84.09%로 전문인이 15.48%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만족도는 일반인 68.89%, 전문인 77.27%로 전문인이 8.38% 높았음.
- 일반인 경우 올바른 표기에 대한 인지율과 만족도가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전문인은 정인지율에 비해 만족도 수준이 6.82%p 낮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2-1] 일반인 및 전문인 전체 결과



[표 2-1] 일반인 및 전문인 전체 평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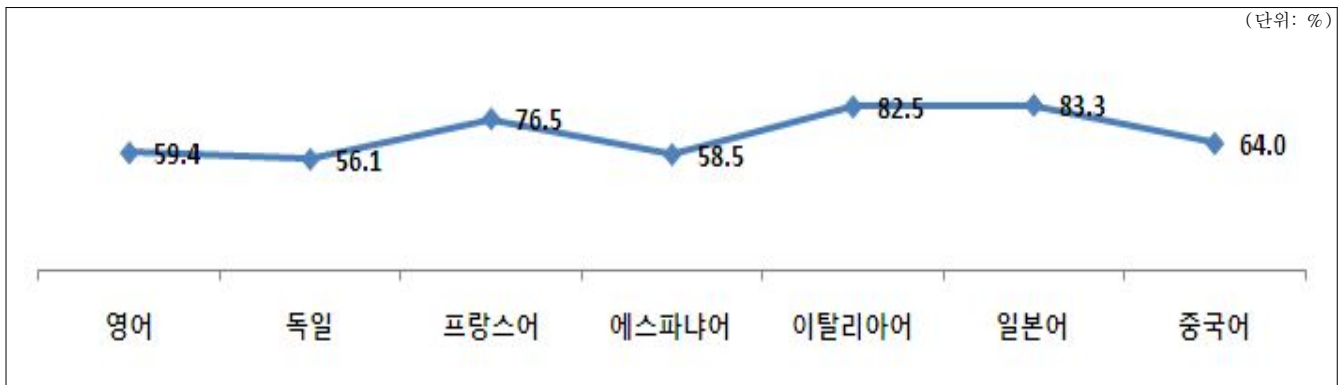
	전문인	일반인	(전문인 - 일반인)
정인지	84.09	68.61	15.48
만족도	77.27	68.89	8.38
(정인지 - 만족도)	6.82	-0.28	-

2 외래어별 전체 결과 비교

2) 일반인 외래어별 전체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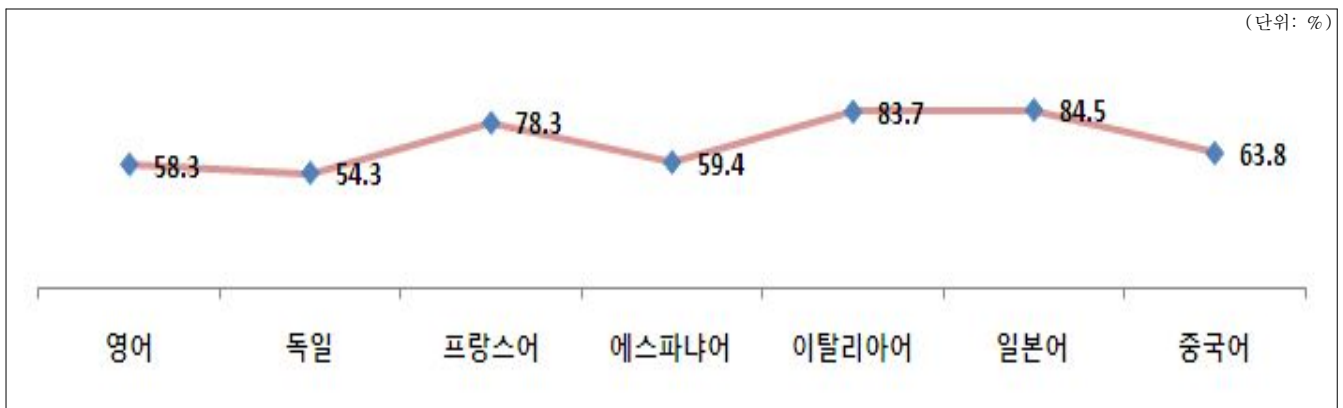
□ 일반인이 올바른 표기를 맞춘 비율은 일본어가 82.3%로 가장 높았고, 독일어가 56.1%로 가장 낮았음.

[그림 2-2] 일반인 외래어별 정인지 전체 평균 비율 요약



□ 일반인의 올바른 표기에 대한 전체 만족도에 있어서 일본어가 84.5%로 가장 높았고, 독일어가 54.3%로 가장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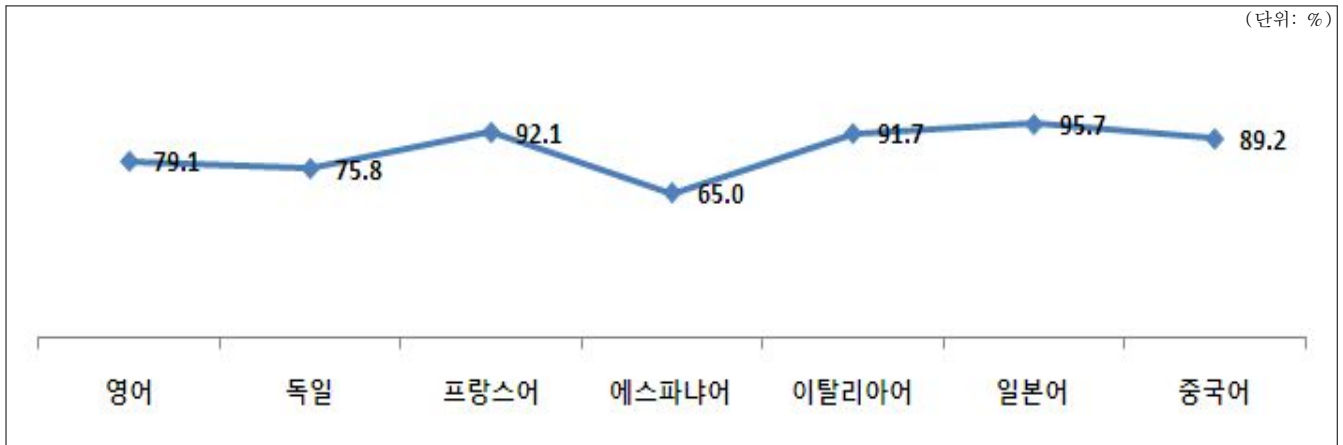
[그림 2-3] 일반인 외래어별 만족도 전체 평균 비율 요약



3) 전문인 외래어별 전체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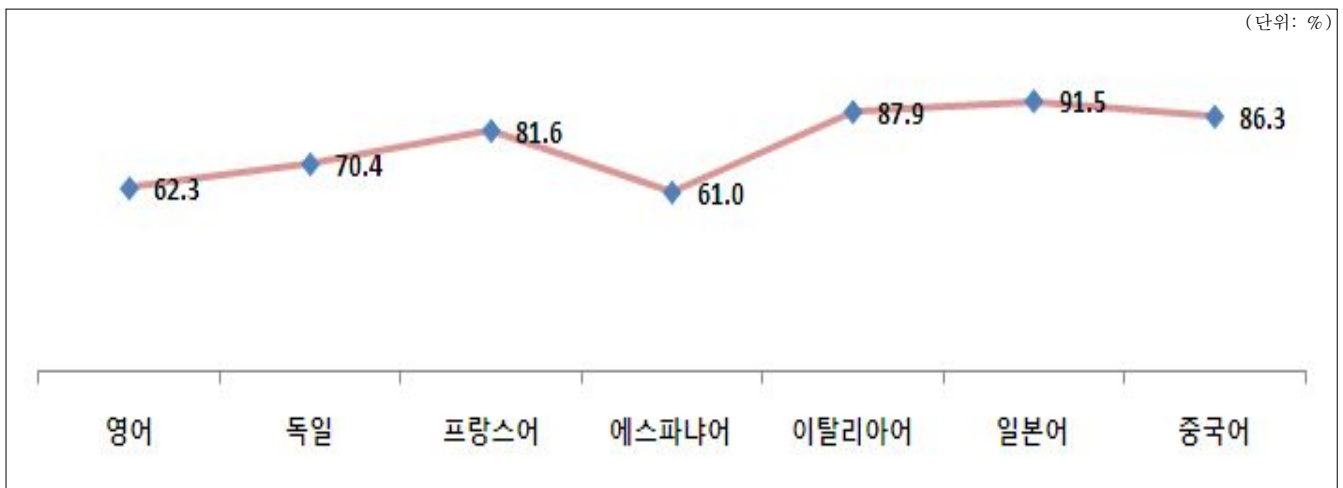
□ 전문인이 올바른 표기를 맞춘 비율은 일본어가 95.7%로 가장 높았고, 에스파냐어가 65.0%로 가장 낮았음.

[그림 2-4] 전문인 외래어별 정인지 전체 평균 비율 요약



□ 전문인의 올바른 표기에 대한 만족도는 일본어가 91.5%로 가장 높았고, 에스파냐어가 61.0%로 가장 낮았음.

[그림 2-5] 전문인 외래어별 만족도 전체 평균 비율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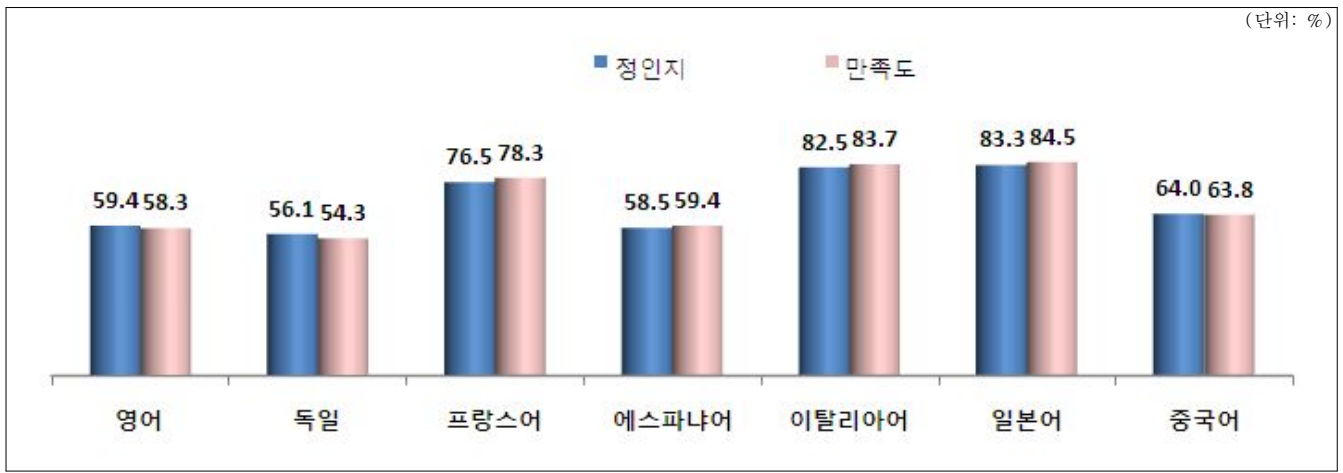


3 외래어별 정인지 및 만족도 비교

1) 외래어별 일반인 정인지 및 만족도 비교

□ 일반인들이 올바른 표기를 응답한 비율 및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7개 외래어 모두 정인지 및 만족도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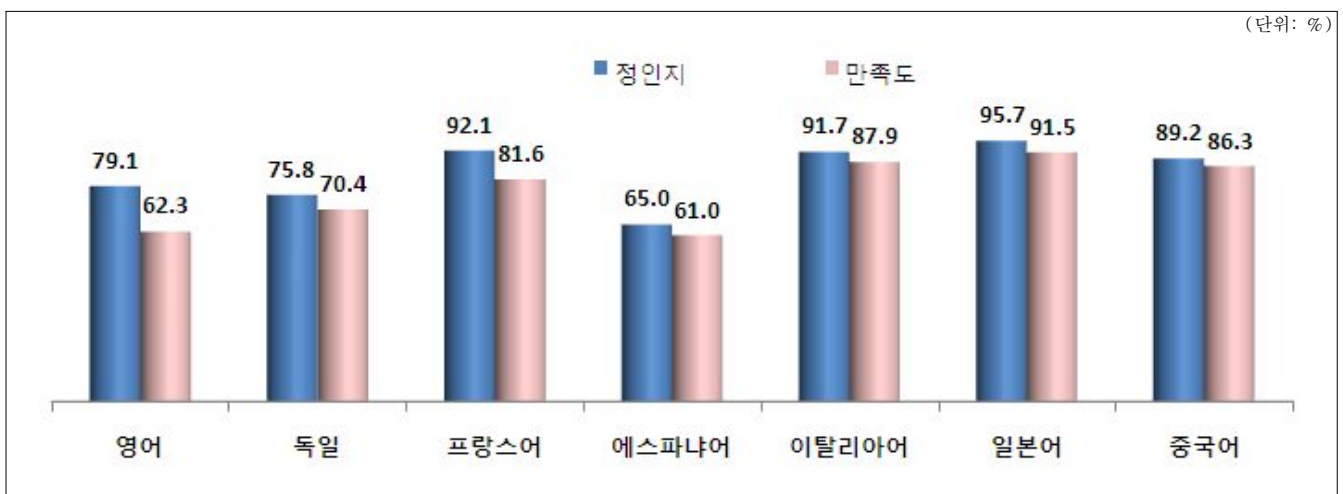
[그림 2-6] 일반인 정인지 및 만족도 비교



2) 외래어별 전문인 정인지 및 만족도 비교

□ 전문인의 경우 영어의 정인지율이 79.1%인데 반해 그 표기에 만족하는 비율은 62.3%로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에스파냐어와 중국어가 정인지율과 만족도 비율의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드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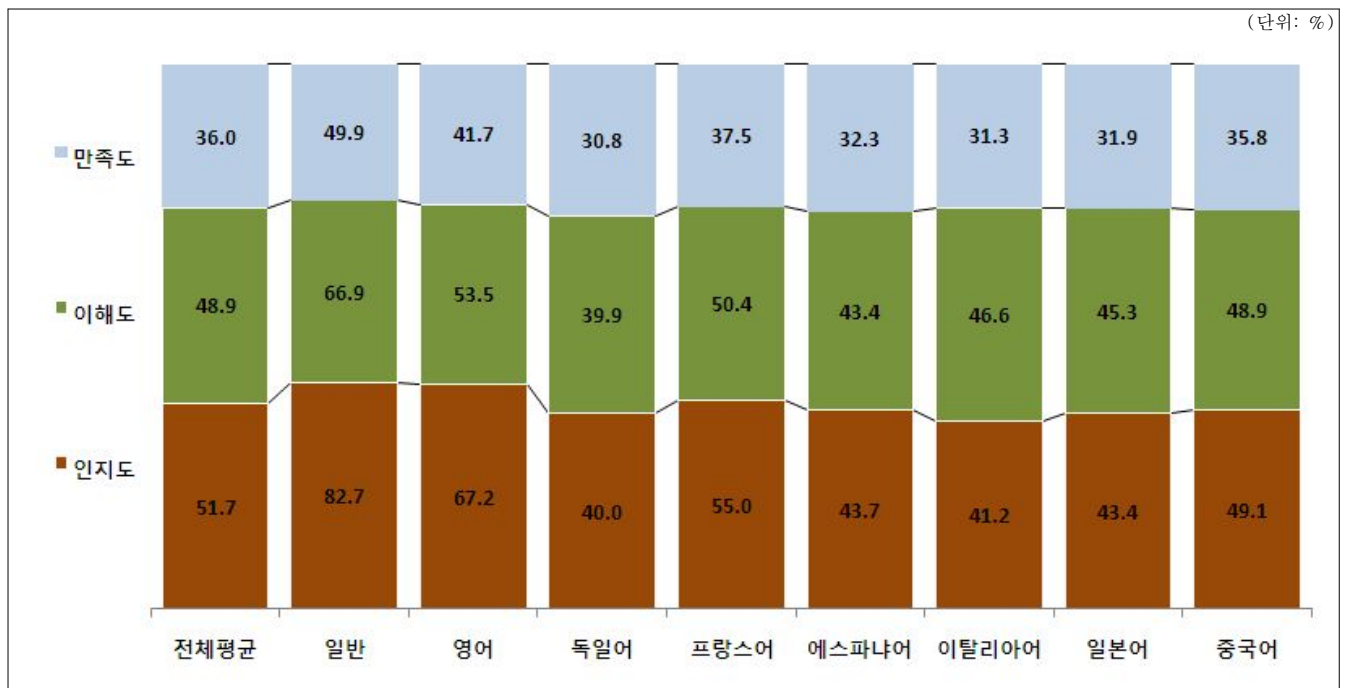
[그림 2-7] 전문인 정인지 및 만족도 비교



4 전문인 규정별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 비교

- 전문인을 대상으로 외래어 어문 규정별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인지도의 경우 일반규정이 82.7%로 가장 높았고, 독일어 규정이 40.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이해도의 경우 일반규정이 66.9%로 가장 높았고, 독일어 규정이 39.9%로 가장 낮았음.
- 만족도 분석 결과, 일반 규정이 49.9%로 가장 높았고, 독일어 규정이 30.8%로 가장 낮았음.
- 대체적으로 일반규정의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독일어 규정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2-8] 전문인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 비교



[표 2-2] 전문인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 비교(단위 %)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
전 체	51.7	48.9	36.0
일 반	82.7	66.9	49.9
영 어	67.2	53.5	41.7
독 일 어	40.0	39.9	30.8
프 랑 스 어	55.0	50.4	37.5
에 스 파냐 어	43.7	43.4	32.3
이 탈 리 아 어	41.2	46.6	31.3
일 본 어	43.4	45.3	31.9
중 국 어	49.1	48.9	35.8

5 용례별 정인지 및 만족도 도표

응답 비율	일반인		전문인	
	정인지	만족도	정인지	만족도
90% 이상	뉴욕, 파리, 바캉스, 앙상블, 샹송, 베르사유, 카사 블랑카, 돈 키호테, 타코, 파스타, 포르테	뉴욕, 파리, 바캉스	덩샤오핑, 바캉스, 샹송, 파스타, 기모노, 뉴욕, 앙상블, 타코, 포르테, 스파게티, 훗카이도, 샷포로, 르네상스, 산호세, 피자, 푸치니, 베네치아, 신칸센, 베이징, 텐진, 파리, 베르사유, 카사 블랑카, 스모, 야스쿠니, 신주쿠, 장쯔이, 피렌체, 광저우, 호르몬, 빈, 베토벤, 돈 키호테, 소시지, 마흐, 크루아상, 오사카, 오키나와, 위안, 마오쩌둥, 선글라스, 쓰나미, 청룽	뉴욕, 덩샤오핑, 스파게티, 샷포로, 베르사유, 파스타, 기모노, 신칸센, 스모, 야스쿠니, 타코, 훗카이도, 베이징, 바캉스, 앙상블, 빈, 산호세, 베네치아, 텐진, 장쯔이, 피렌체, 포르테, 광저우, 베토벤, 오사카
80% 이상 90% 미만	피자, 구찌, 스파게티, 베네치아, 피렌체, 기모노, 스모, 쓰나미, 야스쿠니, 훗카이도, 신칸센, 샷포로, 베이징, 장쯔이	앙상블, 샹송, 베르사유, 카사 블랑카, 돈 키호테, 타코, 파스타, 포르테, 피자, 구찌, 스파게티, 베네치아, 피렌체, 기모노, 스모, 쓰나미, 야스쿠니, 훗카이도, 신칸센, 샷포로, 베이징, 장쯔이, 신주쿠, 오사카, 텐진,	카세트, 취리히, 돈 조반니, 몽타주, 자코모, 로봇, 하이라이트, 베네수엘라, 마케트, 콘텐츠	피자, 푸치니, 돈 키호테, 마오쩌둥, 샹송, 르네상스, 카사 블랑카, 신주쿠, 로봇, 구찌, 쓰나미, 호르몬, 위안, 마흐, 오키나와, 청룽, 파리
70% 이상 80% 미만	카세트, 호르몬, 빈, 크루아상, 르네상스, 산호세, 푸치니, 신주쿠, 오사카, 오키나와, 텐진	카세트, 호르몬, 빈, 크루아상, 르네상스, 산호세, 푸치니, 오키나와, 취리히, 몽타주, 자코모	잉글리시, 지멘스, 모차르트, 필름 누아르, 세비아, 리렌제	선글라스, 카세트, 취리히, 몽타주, 크루아상, 베네수엘라, 자코모, 돈 조반니, 지멘스, 세비아, 리렌제
60% 이상 70% 미만	선글라스, 로봇, 하이라이트, 하이텔베르크, 취리히, 베토벤, 마케트, 몽타주, 베네수엘라, 자코모, 돈 조반니, 덩샤오핑	선글라스, 하이텔베르크, 베토벤, 마케트, 베네수엘라, 돈 조반니, 덩샤오핑, 류더화, 위안	구찌	소시지, 하이라이트, 마케트, 모차르트, 하이텔베르크, 류더화
50% 이상 60% 미만	소시지, 지멘스, 마흐, 마오쩌둥, 광저우, 류더화, 위안, 청룽	로봇, 하이라이트, 지멘스, 광저우, 청룽, 콘텐츠, 로브슨, 필름 누아르, 산 미겔	더그아웃 하이텔베르크 류더화	잉글리시, 필름 누아르
50% 미만	콘텐츠, 더그아웃, 로브슨, 잉글리시, 도이칠란트, 모차르트, 보슈, 필름 누아르, 테킬라, 산 미겔, 야마, 세비아, 아바나, 리렌제	소시지, 마흐, 마오쩌둥, 더그아웃, 잉글리시, 도이칠란트, 모차르트, 보슈, 테킬라, 야마, 세비아, 아바나, 리렌제	로브슨, 도이칠란트, 보슈, 테킬라, 산 미겔, 야마, 아바나	콘텐츠, 더그아웃, 로브슨, 도이칠란트, 보슈, 테킬라, 산 미겔, 야마, 아바나

6 외래어 규정에 따른 용례 정인지

- 아래 도표는 외래어 규정에 따른 용례 정인지 비율을 도표로 구성한 것임.
- ①용례규정은 본 조사 설문지에서 해당 용례와 규정을 표기한 것임.
- ②정인지는 전문가 전체 용례 문항 정인지 비율임.
- ③규정인지는 해당 규정을 인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규정 관련 용례를 맞춘 평균 비율임.
- ④규정이해는 해당 규정을 이해한다고 응답한 사람이(관련문항 4번+5번) 규정 관련 용례를 맞춘 평균 비율임.
- ⑤표기방식 만족은 해당 규정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이(관련문항 4번+5번) 규정 관련 용례를 맞춘 평균 비율임.
- 정인지 비율이 낮은 용례의 경우(음영 부분) 규정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정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로브슨, 보슈, 야마), 정인지율이 매우 낮은 용례(테킬라, 산 미겔)의 경우 규정을 인지하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정인지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순번	① 용례 * 규정	용례	② 정인지	③ 규정 인지	④ 규정 이해	⑤ 표기방식 만족
1	영어1 * 일반2	콘텐츠	80.6%	83.3%	78.0%	79.2%
2	영어2 * 일반3	뉴욕	98.1%	97.6%	97.2%	96.4%
3	영어4 * 일반5	더그아웃	22.3%	51.6%	59.7%	64.8%
4	영어5 * 일반2	소시지	93.2%	92.3%	91.5%	90.6%
5	영어6 * 영어3	로봇	83.5%	83.6%	82.7%	90.7%
6	영어8 * 영어4	로브슨	41.7%	56.3%	56.1%	44.8%
7	영어9 * 영어1	잉글리시	77.7%	88.3%	82.3%	85.7%
8	독어3 * 독어4	호르문	94.2%	97.1%	100.0%	100.0%
9	독어7 * 일반4	취리히	88.3%	88.4%	89.6%	87.8%
10	독어8 * 일반5	바흐	93.2%	93.4%	92.8%	88.9%
11	독어6 * 일반4	모차르트	78.6%	81.4%	80.2%	63.4%
12	독어10* 독어1	보슈	38.8%	58.5%	49.0%	52.9%
13	불어1 * 불어5	파리	96.1%	97.1%	100.0%	100.0%
14	불어2 * 불어5	바캉스	99.0%	100.0%	98.4%	100.0%
15	불어3 * 불어5	바게트	81.6%	87.0%	91.8%	89.5%
16	불어4 * 불어2	몽타주	85.4%	84.4%	87.8%	85.3%
17	불어5 * 불어4	크루아상	93.2%	88.9%	94.0%	94.7%
18	불어5 * 불어5	크루아상	93.2%	91.3%	96.7%	97.4%
19	불어8 * 불어3	베르사유	96.1%	97.8%	97.7%	97.1%
20	불어9 * 불어4	필름 누아르	75.7%	70.4%	84.0%	84.2%
21	에스파냐어1 * 에스파냐어1	카사 블랑카	96.1%	97.1%	98.4%	100.0%
22	에스파냐어2 * 에스파냐어1	테킬라	14.6%	14.5%	11.5%	10.0%
23	에스파냐어3 * 에스파냐어1	돈 키호테	94.2%	95.7%	98.4%	100.0%
24	에스파냐어4 * 에스파냐어1	타코	98.1%	100.0%	100.0%	100.0%
25	에스파냐어5 * 에스파냐어4	베네수엘라	82.5%	89.3%	88.9%	88.0%
26	에스파냐어6 * 에스파냐어3	산 미겔	26.2%	26.8%	24.4%	29.6%
27	에스파냐어7 * 에스파냐어2	야마	17.5%	30.0%	25.7%	21.9%
28	에스파냐어8 * 에스파냐어2	세비야	79.6%	87.5%	77.1%	81.3%

(계 속)

외래어 표기 규정 및 용례에 대한 인지도·이해도·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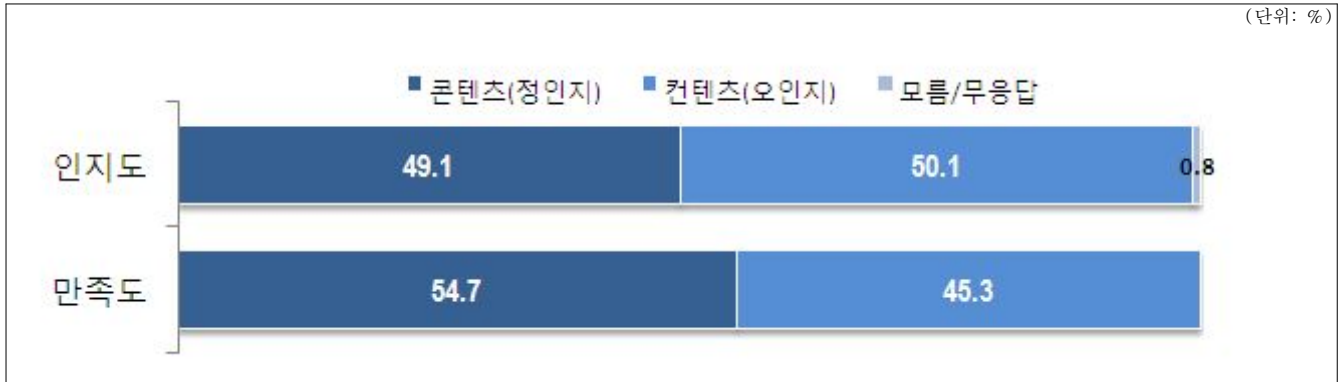
순번	① 용례 * 규정	용례	② 정인지	③ 규정 인지	④ 규정 이해	⑤ 표기방식 만족
29	이탈리아어1 * 이탈리아어1	파스타	99.0%	100.0%	100.0%	100.0%
30	이탈리아어2 * 이탈리아어1	포르테	98.1%	98.6%	98.4%	97.4%
31	이탈리아어5 * 이탈리아어3	푸치니	97.1%	100.0%	97.7%	100.0%
32	이탈리아어6 * 이탈리아어3	스파게티	98.1%	100.0%	97.7%	96.7%
33	이탈리아어7 * 이탈리아어4	자코모	84.5%	80.0%	79.1%	84.0%
34	이탈리아어8 * 이탈리아어4	돈 조반니	86.4%	94.3%	83.7%	84.0%
35	이탈리아어9 * 이탈리아어2	베네치아	97.1%	95.5%	98.1%	100.0%
36	이탈리아어10* 이탈리아어2	피렌체	95.1%	95.5%	96.2%	97.0%
37	일어1 * 일어1	기모노	99.0%	100.0%	98.1%	100.0%
38	일어2 * 일어6	스모	96.1%	98.3%	96.2%	100.0%
39	일어3 * 일어3	쓰나미	90.3%	97.6%	93.5%	94.1%
40	일어4 * 일어4	야스쿠니	96.1%	94.9%	92.5%	97.1%
41	일어5 * 일어2	신주쿠	96.1%	100.0%	97.7%	100.0%
42	일어6 * 일어5	홋카이도	98.1%	97.4%	95.5%	100.0%
43	일어7 * 일어5	신칸센	97.1%	100.0%	97.7%	100.0%
44	일어8 * 일어6	오사카	93.2%	96.6%	90.6%	94.7%
45	일어9 * 일반4	오키나와	93.2%	94.2%	95.7%	92.7%
46	일어10* 일어5	삿포로	98.1%	97.4%	95.5%	100.0%
47	중국어1 * 일반4	베이징	97.1%	97.7%	100.0%	97.6%
48	중국어2 * 중국어1	마오쩌둥	92.2%	93.8%	96.9%	95.7%
49	중국어3 * 중국어2	텐진	97.1%	96.9%	93.8%	95.7%
50	중국어4 * 중국어2	광저우	95.1%	96.9%	90.6%	87.0%
51	중국어5 * 중국어2	류더화	56.3%	50.0%	56.3%	34.8%
52	중국어6 * 중국어2	위안	93.2%	87.5%	93.8%	87.0%
53	중국어7 * 중국어2	리렌제	74.8%	71.9%	75.0%	78.3%
54	중국어7 * 중국어3	리렌제	74.8%	77.1%	80.0%	88.2%
55	중국어8 * 중국어2	청룽	90.3%	90.6%	90.6%	95.7%
56	중국어9 * 중국어1	장쯔이	96.1%	93.9%	97.1%	96.3%
57	중국어10* 중국어2	덩샤오핑	100.0%	100.0%	100.0%	100.0%

Ⅲ. 조사 결과

- 일반인 -

1-1 ①콘텐츠 ②컨텐츠

[그림 3-1] ①콘텐츠 ②컨텐츠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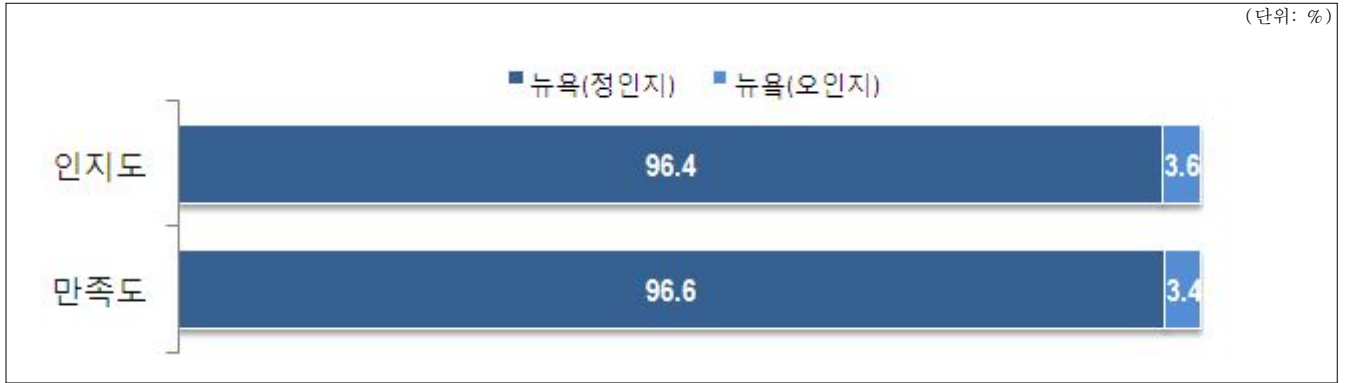
- 콘텐츠를 정인지한 비율은 중졸이하(66.7%), 고졸이하(54.4%)에서 높았으며, 컨텐츠 오인지 응답은 20대(58.7%), 대졸 이상(60.6%)에서 높게 나타남.
- 콘텐츠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0대(45.9%), 대졸 이상(48.1%)학력자 집단에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3-1] ①콘텐츠 ②컨텐츠 집단적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콘텐츠	컨텐츠	모름/무응답	콘텐츠	컨텐츠	
■ 전 체 ■	(525)	49.1	50.1	0.8	54.7	45.3	100.0
■ 성 별 ■	남성 (260)	46.9	51.9	1.2	57.3	42.7	100.0
	여성 (265)	51.3	48.3	0.4	52.1	47.9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41.3	58.7	0.0	45.9	54.1	100.0
	30대 (129)	48.8	51.2	0.0	55.8	44.2	100.0
	40대 (127)	47.2	52.0	0.8	49.6	50.4	100.0
	50대 (92)	56.5	42.4	1.1	63.0	37.0	100.0
	60대이상 (68)	55.9	41.2	2.9	64.7	35.3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42.6	55.6	1.9	54.6	45.4	100.0
	블루칼라 (44)	45.5	52.3	2.3	52.3	47.7	100.0
	화이트칼라 (107)	54.2	45.8	0.0	51.4	48.6	100.0
	가정주부 (126)	54.0	46.0	0.0	57.9	42.1	100.0
	학생 (39)	38.5	61.5	0.0	48.7	51.3	100.0
	무직및무응답 (18)	61.1	38.9	0.0	66.7	33.3	100.0
	서비스업 (83)	48.2	50.6	1.2	55.4	44.6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66.7	26.7	6.7	63.3	36.7	100.0
	고졸 (287)	54.4	44.9	0.7	58.5	41.5	100.0
	대졸 이상 (208)	39.4	60.6	0.0	48.1	51.9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42.3	57.7	0.0	46.2	53.8	100.0
	자연과학 (58)	37.9	62.1	0.0	48.3	51.7	100.0
	예체능및기타 (28)	35.7	64.3	0.0	53.6	46.4	100.0
	무응답 (18)	33.3	66.7	0.0	50.0	50.0	100.0

1-2 ①뉴욕 ②뉴욕

[그림 3-2] ①뉴욕 ②뉴욕



[집단별 특성]

□ ‘뉴욕’ 표기에 대해서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정인지와 만족도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2] ①뉴욕 ②뉴욕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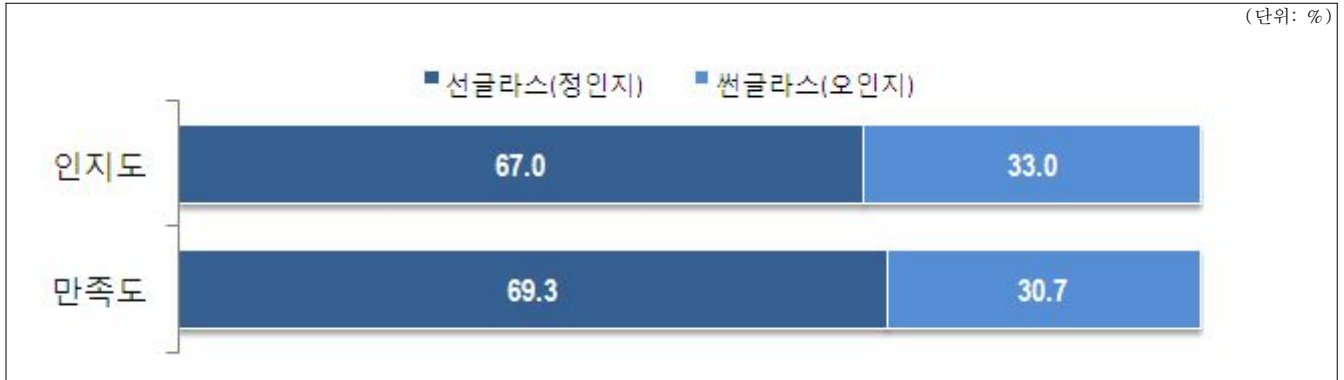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뉴욕	뉴욕	뉴욕	뉴욕	
■ 전 체 ■	(525)	96.4	3.6	96.6	3.4	100.0
■ 성 별 ■	남성 (260)	95.8	4.2	97.3	2.7	100.0
	여성 (265)	97.0	3.0	95.8	4.2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98.2	1.8	96.3	3.7	100.0
	30대 (129)	97.7	2.3	97.7	2.3	100.0
	40대 (127)	96.9	3.1	96.9	3.1	100.0
	50대 (92)	92.4	7.6	96.7	3.3	100.0
	60대이상 (68)	95.6	4.4	94.1	5.9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94.4	5.6	96.3	3.7	100.0
	블루칼라 (44)	93.2	6.8	97.7	2.3	100.0
	화이트칼라 (107)	99.1	0.9	99.1	0.9	100.0
	가정주부 (126)	97.6	2.4	96.0	4.0	100.0
	학생 (39)	94.9	5.1	94.9	5.1	100.0
	무직및무응답 (18)	94.4	5.6	94.4	5.6	100.0
	서비스업 (83)	96.4	3.6	95.2	4.8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96.7	3.3	93.3	6.7	100.0
	고졸 (287)	95.8	4.2	97.2	2.8	100.0
	대졸 이상 (208)	97.1	2.9	96.2	3.8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97.1	2.9	97.1	2.9	100.0
	자연과학 (58)	96.6	3.4	94.8	5.2	100.0
	예체능및기타 (28)	100.0	0.0	92.9	7.1	100.0
	무응답 (18)	94.4	5.6	100.0	0.0	100.0

1-3

①선글라스

②썬글라스

[그림 3-3] ①선글라스 ②썬글라스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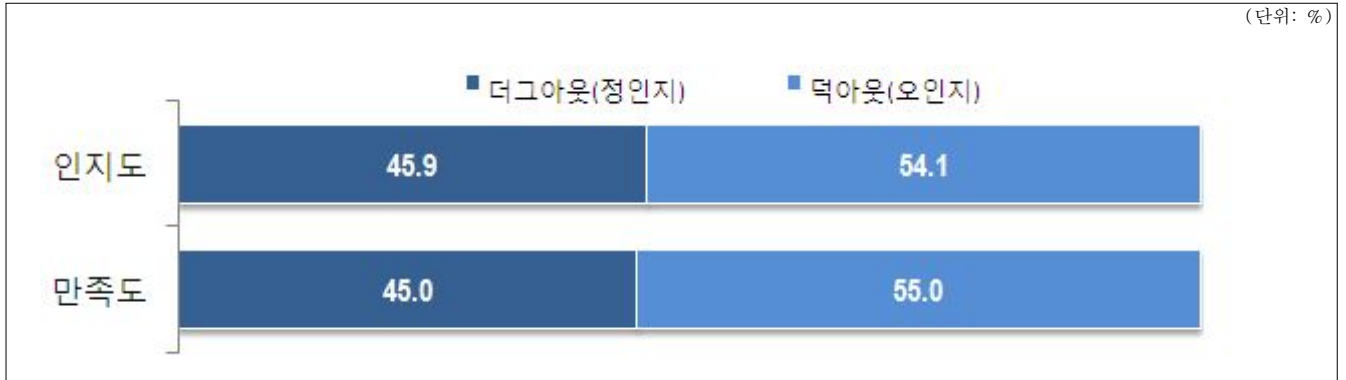
□ 선글라스 정인지 응답은 20대만이 78.0%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정인지 비율이 높았음.

[표 3-3] ①선글라스 ②썬글라스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선글라스	썬글라스	선글라스	썬글라스		
■ 전 체 ■	(525)	67.0	33.0	69.3	30.7	100.0	
■ 성 별 ■	남성	(260)	70.4	29.6	72.7	27.3	100.0
	여성	(265)	63.8	36.2	66.0	34.0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78.0	22.0	69.7	30.3	100.0
	30대	(129)	69.8	30.2	72.1	27.9	100.0
	40대	(127)	66.9	33.1	66.9	33.1	100.0
	50대	(92)	64.1	35.9	69.6	30.4	100.0
	60대 이상	(68)	48.5	51.5	67.6	32.4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68.5	31.5	68.5	31.5	100.0
	블루칼라	(44)	59.1	40.9	56.8	43.2	100.0
	화이트칼라	(107)	71.0	29.0	72.9	27.1	100.0
	가정주부	(126)	61.1	38.9	64.3	35.7	100.0
	학생	(39)	79.5	20.5	74.4	25.6	100.0
	무직및무응답	(18)	55.6	44.4	72.2	27.8	100.0
	서비스업	(83)	69.9	30.1	77.1	22.9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53.3	46.7	66.7	33.3	100.0
	고졸	(287)	67.9	32.1	71.4	28.6	100.0
	대졸 이상	(208)	67.8	32.2	66.8	33.2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65.4	34.6	72.1	27.9	100.0
	자연과학	(58)	72.4	27.6	58.6	41.4	100.0
	예체능및기타	(28)	53.6	46.4	60.7	39.3	100.0
	무응답	(18)	88.9	11.1	72.2	27.8	100.0

1-4 ①더그아웃 ②덕아웃

[그림 3-4] ①더그아웃 ②덕아웃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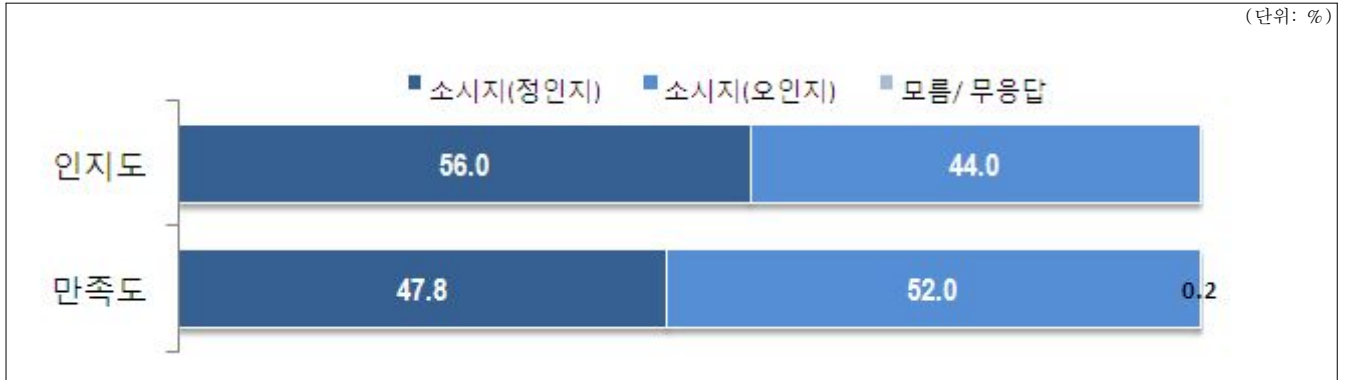
□ 더그아웃이라는 정인지 응답은 모든 응답자 계층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만족도에 있어서 60대 이상이 54.4%로 전체 평균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4] ①더그아웃 ②덕아웃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더그아웃	덕아웃	더그아웃	덕아웃		
■ 전 체 ■	(525)	45.9	54.1	45.0	55.0	100.0	
■ 성 별 ■	남성	(260)	45.4	54.6	46.5	53.5	100.0
	여성	(265)	46.4	53.6	43.4	56.6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45.0	55.0	39.4	60.6	100.0
	30대	(129)	43.4	56.6	43.4	56.6	100.0
	40대	(127)	45.7	54.3	47.2	52.8	100.0
	50대	(92)	48.9	51.1	43.5	56.5	100.0
	60대이상	(68)	48.5	51.5	54.4	45.6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41.7	58.3	43.5	56.5	100.0
	블루칼라	(44)	54.5	45.5	47.7	52.3	100.0
	화이트칼라	(107)	49.5	50.5	41.1	58.9	100.0
	가정주부	(126)	44.4	55.6	46.0	54.0	100.0
	학생	(39)	35.9	64.1	33.3	66.7	100.0
	무직및무응답	(18)	44.4	55.6	66.7	33.3	100.0
	서비스업	(83)	49.4	50.6	49.4	50.6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60.0	40.0	60.0	40.0	100.0
	고졸	(287)	48.1	51.9	46.3	53.7	100.0
	대졸 이상	(208)	40.9	59.1	40.9	59.1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45.2	54.8	39.4	60.6	100.0
	자연과학	(58)	46.6	53.4	44.8	55.2	100.0
	예체능및기타	(28)	14.3	85.7	35.7	64.3	100.0
	무응답	(18)	38.9	61.1	44.4	55.6	100.0

1-5 ①소시지 ②소세지

[그림 3-5] 소시지 ②소세지



[집단별 특성]

□ 소시지 용례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비율은 모든 계층에서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3-5] 소시지 ②소세지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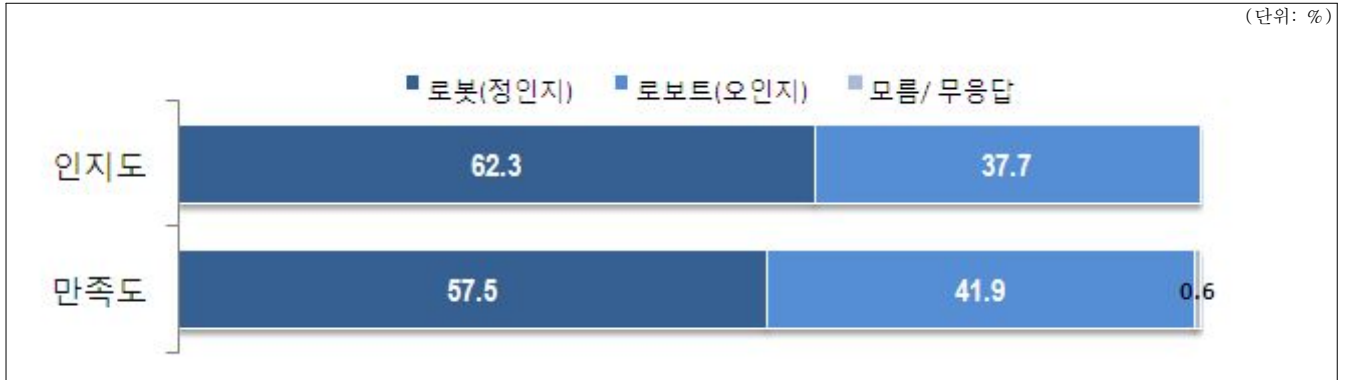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소시지	소세지	소시지	소세지	모름/무응답		
■ 전 체 ■	(525)	56.0	44.0	47.8	52.0	0.2	100.0	
■ 성 별 ■	남성	(260)	55.0	45.0	48.5	51.2	0.4	100.0
	여성	(265)	57.0	43.0	47.2	52.8	0.0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56.0	44.0	39.4	60.6	0.0	100.0
	30대	(129)	57.4	42.6	47.3	52.7	0.0	100.0
	40대	(127)	61.4	38.6	55.1	44.1	0.8	100.0
	50대	(92)	53.3	46.7	52.2	47.8	0.0	100.0
	60대이상	(68)	47.1	52.9	42.6	57.4	0.0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56.5	43.5	51.9	47.2	0.9	100.0
	블루칼라	(44)	54.5	45.5	40.9	59.1	0.0	100.0
	화이트칼라	(107)	58.9	41.1	44.9	55.1	0.0	100.0
	가정주부	(126)	59.5	40.5	52.4	47.6	0.0	100.0
	학생	(39)	51.3	48.7	38.5	61.5	0.0	100.0
	무직및무응답	(18)	33.3	66.7	27.8	72.2	0.0	100.0
	서비스업	(83)	54.2	45.8	51.8	48.2	0.0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50.0	50.0	43.3	56.7	0.0	100.0
	고졸	(287)	55.1	44.9	50.2	49.5	0.3	100.0
	대졸 이상	(208)	58.2	41.8	45.2	54.8	0.0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61.5	38.5	48.1	51.9	0.0	100.0
	자연과학	(58)	58.6	41.4	41.4	58.6	0.0	100.0
	예체능및기타	(28)	60.7	39.3	46.4	53.6	0.0	100.0
	무응답	(18)	33.3	66.7	38.9	61.1	0.0	100.0

1-6

①로봇

②로보트

[그림 3-6] ①로봇 ②로보트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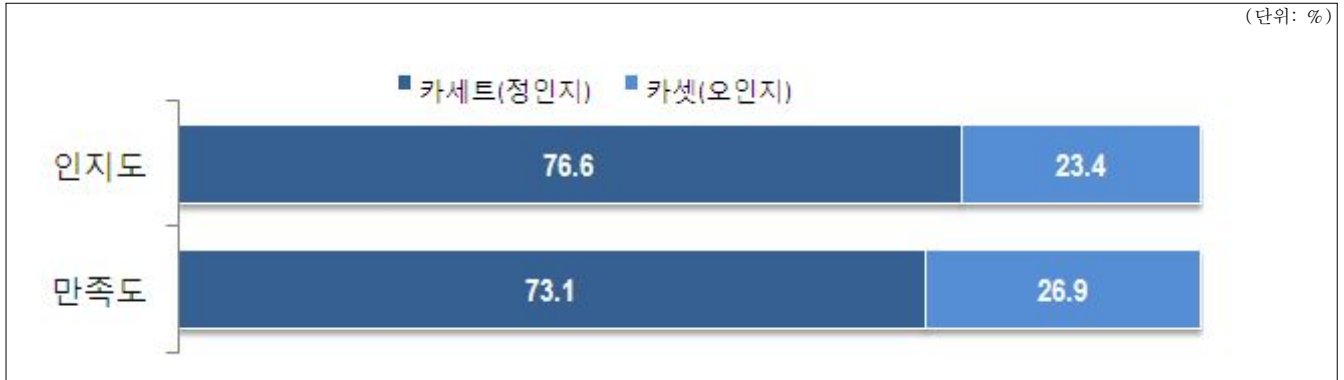
□ 로봇 용례에 인지도 및 만족도에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 신문기사 및 공공기관 문서를 하루 평균 5건 이하로 읽는 집단에서 각각 57.1%와 55.0%로 전체 평균비율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3-6] ①로봇 ②로보트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로봇	로보트	로봇	로보트	모름/무응답	
■ 전 체 ■	(525)	62.3	37.7	57.5	41.9	0.6	100.0
■ 성 별 ■	남성 (260)	61.5	38.5	55.0	44.2	0.8	100.0
	여성 (265)	63.0	37.0	60.0	39.6	0.4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61.5	38.5	56.0	44.0	0.0	100.0
	30대 (129)	62.8	37.2	61.2	38.0	0.8	100.0
	40대 (127)	69.3	30.7	62.2	37.0	0.8	100.0
	50대 (92)	57.6	42.4	52.2	46.7	1.1	100.0
	60대이상 (68)	55.9	44.1	51.5	48.5	0.0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63.0	37.0	63.9	35.2	0.9	100.0
	블루칼라 (44)	54.5	45.5	47.7	52.3	0.0	100.0
	화이트칼라 (107)	68.2	31.8	60.7	38.3	0.9	100.0
	가정주부 (126)	61.1	38.9	56.3	42.9	0.8	100.0
	학생 (39)	64.1	35.9	53.8	46.2	0.0	100.0
	무직및무응답 (18)	61.1	38.9	61.1	38.9	0.0	100.0
	서비스업 (83)	59.0	41.0	53.0	47.0	0.0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66.7	33.3	56.7	43.3	0.0	100.0
	고졸 (287)	60.3	39.7	59.2	40.1	0.7	100.0
	대졸 이상 (208)	64.4	35.6	55.3	44.2	0.5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60.6	39.4	55.8	44.2	0.0	100.0
	자연과학 (58)	60.3	39.7	46.6	51.7	1.7	100.0
	예체능및기타 (28)	82.1	17.9	64.3	35.7	0.0	100.0
	무응답 (18)	72.2	27.8	66.7	33.3	0.0	100.0

1-7 ①카셋 ②카세트

[그림 3-7] ①카셋 ②카세트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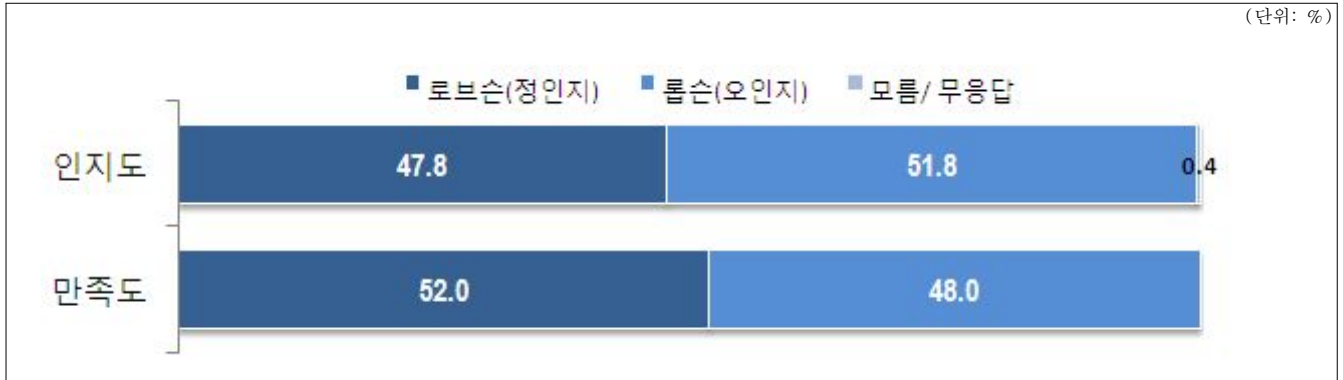
□ 카세트 용례에 대한 인지도는 모든 계층에서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만족도에 있어서 남성(77.7%)이 여성(68.7%)보다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20대 이하(84.4%)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7] ①카셋 ②카세트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카셋	카세트	카셋	카세트		
전체	(525)	23.4	76.6	26.9	73.1	100.0	
성별	남성	(260)	20.4	79.6	22.3	77.7	100.0
	여성	(265)	26.4	73.6	31.3	68.7	100.0
연령	20대 이하	(109)	21.1	78.9	15.6	84.4	100.0
	30대	(129)	23.3	76.7	30.2	69.8	100.0
	40대	(127)	26.8	73.2	33.1	66.9	100.0
	50대	(92)	19.6	80.4	30.4	69.6	100.0
	60대 이상	(68)	26.5	73.5	22.1	77.9	100.0
직업	자영업	(108)	20.4	79.6	26.9	73.1	100.0
	블루칼라	(44)	29.5	70.5	22.7	77.3	100.0
	화이트칼라	(107)	23.4	76.6	30.8	69.2	100.0
	가정주부	(126)	27.8	72.2	31.0	69.0	100.0
	학생	(39)	15.4	84.6	7.7	92.3	100.0
	무직및무응답	(18)	44.4	55.6	38.9	61.1	100.0
	서비스업	(83)	16.9	83.1	24.1	75.9	100.0
학력	중졸 이하	(30)	33.3	66.7	30.0	70.0	100.0
	고졸	(287)	24.4	75.6	28.2	71.8	100.0
	대졸 이상	(208)	20.7	79.3	24.5	75.5	100.0
전공	인문사회과학	(104)	16.3	83.7	25.0	75.0	100.0
	자연과학	(58)	25.9	74.1	22.4	77.6	100.0
	예체능및기타	(28)	32.1	67.9	35.7	64.3	100.0
	무응답	(18)	11.1	88.9	11.1	88.9	100.0

1-8 ①로브슨 ②롭슨

[그림 3-8] ①로브슨 ②롭슨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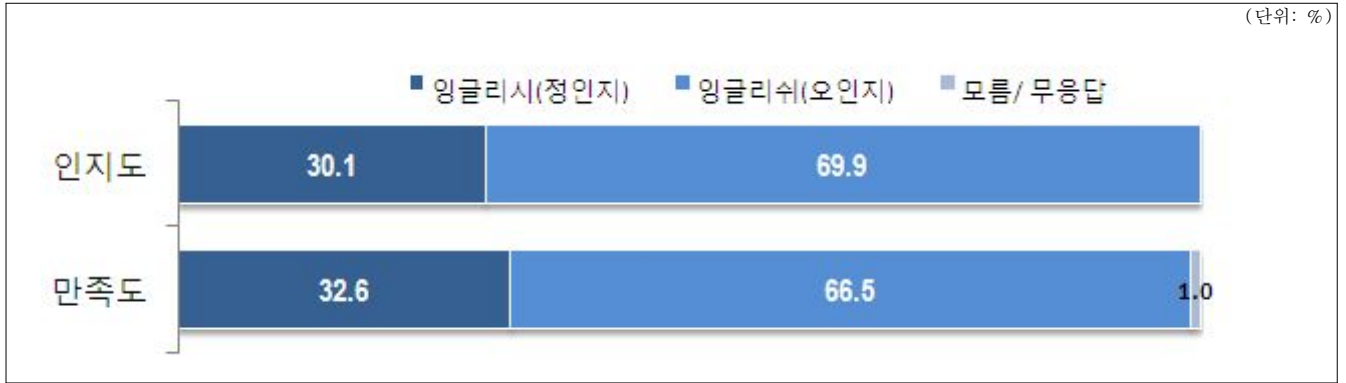
□ 로브슨 용례에 대한 정인지 비율은 20대에서 38.5%로 전체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낮았고, 가정 주부가 56.3%로 다른 계층보다 높았으며, 이 표기법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서비스업 종사자 (61.4%)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8] ①로브슨 ②롭슨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로브슨	롭슨	모름/무응답	로브슨	롭슨	
■ 전 체 ■	(525)	47.8	51.8	0.4	52.0	48.0	100.0
■ 성 별 ■	남성 (260)	48.8	50.8	0.4	51.2	48.8	100.0
	여성 (265)	46.8	52.8	0.4	52.8	47.2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38.5	61.5	0.0	51.4	48.6	100.0
	30대 (129)	49.6	49.6	0.8	48.8	51.2	100.0
	40대 (127)	46.5	52.8	0.8	55.9	44.1	100.0
	50대 (92)	52.2	47.8	0.0	50.0	50.0	100.0
	60대이상 (68)	55.9	44.1	0.0	54.4	45.6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48.1	51.9	0.0	46.3	53.7	100.0
	블루칼라 (44)	45.5	54.5	0.0	45.5	54.5	100.0
	화이트칼라 (107)	50.5	49.5	0.0	55.1	44.9	100.0
	가정주부 (126)	56.3	42.9	0.8	56.3	43.7	100.0
	학생 (39)	30.8	69.2	0.0	38.5	61.5	100.0
	무직및무응답 (18)	33.3	66.7	0.0	38.9	61.1	100.0
	서비스업 (83)	43.4	55.4	1.2	61.4	38.6	100.0
■ 학 령 ■	중졸 이하 (30)	63.3	36.7	0.0	60.0	40.0	100.0
	고졸 (287)	47.7	51.6	0.7	51.9	48.1	100.0
	대졸 이상 (208)	45.7	54.3	0.0	51.0	49.0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45.2	54.8	0.0	49.0	51.0	100.0
	자연과학 (58)	48.3	51.7	0.0	51.7	48.3	100.0
	예체능및기타 (28)	42.9	57.1	0.0	57.1	42.9	100.0
	무응답 (18)	44.4	55.6	0.0	50.0	50.0	100.0

1-9 ①잉글리시 ②잉글리쉬

[그림 3-9] ①잉글리시 ②잉글리쉬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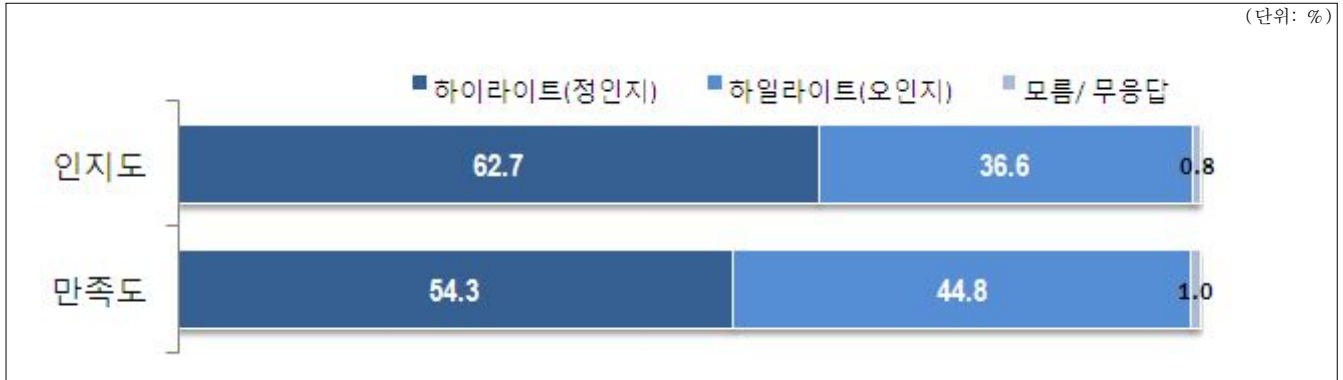
□ 잉글리시 용례에 대한 정인지는 중졸 이하의 학력자층(46.7%)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35% 내외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고, 모든 계층에서 잉글리쉬라는 표현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남.

[표 3-9] ①잉글리시 ②잉글리쉬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잉글리시	잉글리쉬	잉글리시	잉글리쉬	모름/무응답	
■ 전 체 ■	(525)	30.1	69.9	32.6	66.5	1.0	100.0
■ 성 별 ■	남성 (260)	30.8	69.2	35.0	63.8	1.2	100.0
	여성 (265)	29.4	70.6	30.2	69.1	0.8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29.4	70.6	33.0	66.1	0.9	100.0
	30대 (129)	34.9	65.1	34.1	65.1	0.8	100.0
	40대 (127)	26.0	74.0	36.2	63.0	0.8	100.0
	50대 (92)	26.1	73.9	26.1	71.7	2.2	100.0
	60대이상 (68)	35.3	64.7	30.9	69.1	0.0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27.8	72.2	26.9	72.2	0.9	100.0
	블루칼라 (44)	38.6	61.4	34.1	65.9	0.0	100.0
	화이트칼라 (107)	35.5	64.5	35.5	64.5	0.0	100.0
	가정주부 (126)	26.2	73.8	31.7	66.7	1.6	100.0
	학생 (39)	30.8	69.2	33.3	66.7	0.0	100.0
	무직및무응답 (18)	44.4	55.6	50.0	50.0	0.0	100.0
	서비스업 (83)	24.1	75.9	32.5	65.1	2.4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46.7	53.3	20.0	80.0	0.0	100.0
	고졸 (287)	28.6	71.4	33.1	65.5	1.4	100.0
	대졸 이상 (208)	29.8	70.2	33.7	65.9	0.5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30.8	69.2	30.8	68.3	1.0	100.0
	자연과학 (58)	32.8	67.2	36.2	63.8	0.0	100.0
	예체능및기타 (28)	21.4	78.6	39.3	60.7	0.0	100.0
	무응답 (18)	27.8	72.2	33.3	66.7	0.0	100.0

1-10 ①하이라이트 ②하일라이트

[그림 3-10] ①하이라이트 ②하일라이트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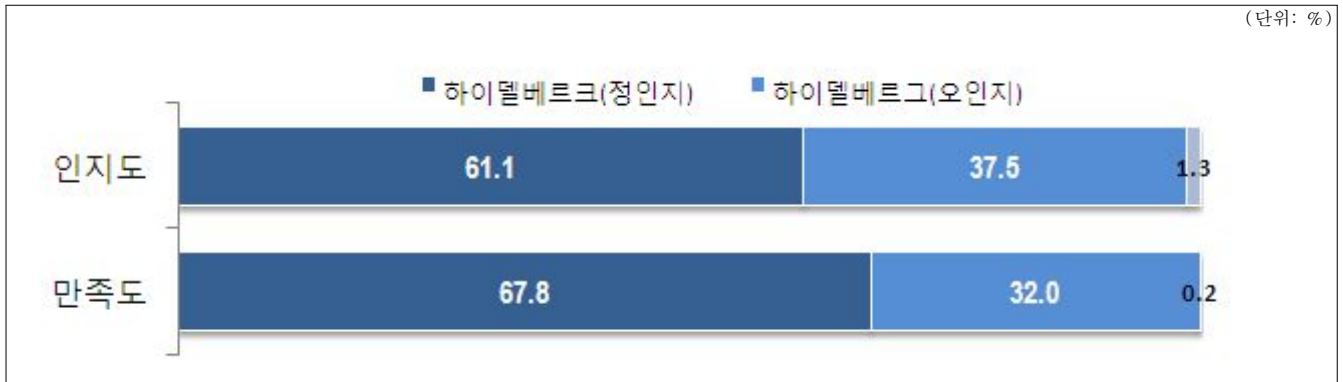
□ 하이라이트 정인지 비율은 30대(72.9%), 화이트칼라(79.4%)에서 높았고, 40대(37.0%), 자영업자(45.4%)에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낮았음.

[표 3-10] ①하이라이트 ②하일라이트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하이라이트	하일라이트	모름/무응답	하이라이트	하일라이트	모름/무응답	
■ 전 체 ■	(525)	62.7	36.6	0.8	54.3	44.8	1.0	100.0
■ 성 별 ■								
남성	(260)	62.7	35.8	1.5	55.4	44.2	0.4	100.0
여성	(265)	62.6	37.4	0.0	53.2	45.3	1.5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69.7	29.4	0.9	58.7	40.4	0.9	100.0
30대	(129)	72.9	27.1	0.0	59.7	39.5	0.8	100.0
40대	(127)	59.8	39.4	0.8	59.1	40.2	0.8	100.0
50대	(92)	56.5	42.4	1.1	37.0	62.0	1.1	100.0
60대이상	(68)	45.6	52.9	1.5	51.5	47.1	1.5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53.7	44.4	1.9	45.4	53.7	0.9	100.0
블루칼라	(44)	50.0	47.7	2.3	40.9	59.1	0.0	100.0
화이트칼라	(107)	79.4	20.6	0.0	59.8	39.3	0.9	100.0
가정주부	(126)	58.7	41.3	0.0	51.6	46.8	1.6	100.0
학생	(39)	76.9	23.1	0.0	69.2	30.8	0.0	100.0
무직및무응답	(18)	66.7	33.3	0.0	66.7	27.8	5.6	100.0
서비스업	(83)	57.8	41.0	1.2	60.2	39.8	0.0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56.7	36.7	6.7	53.3	46.7	0.0	100.0
고졸	(287)	60.3	39.4	0.3	51.6	47.0	1.4	100.0
대졸 이상	(208)	66.8	32.7	0.5	58.2	41.3	0.5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64.4	35.6	0.0	55.8	44.2	0.0	100.0
자연과학	(58)	62.1	36.2	1.7	60.3	39.7	0.0	100.0
예체능및기타	(28)	78.6	21.4	0.0	50.0	46.4	3.6	100.0
무응답	(18)	77.8	22.2	0.0	77.8	22.2	0.0	100.0

2-1 ①하이텔베르크 ②하이텔베르그

[그림 3-11] ①하이텔베르크 ②하이텔베르그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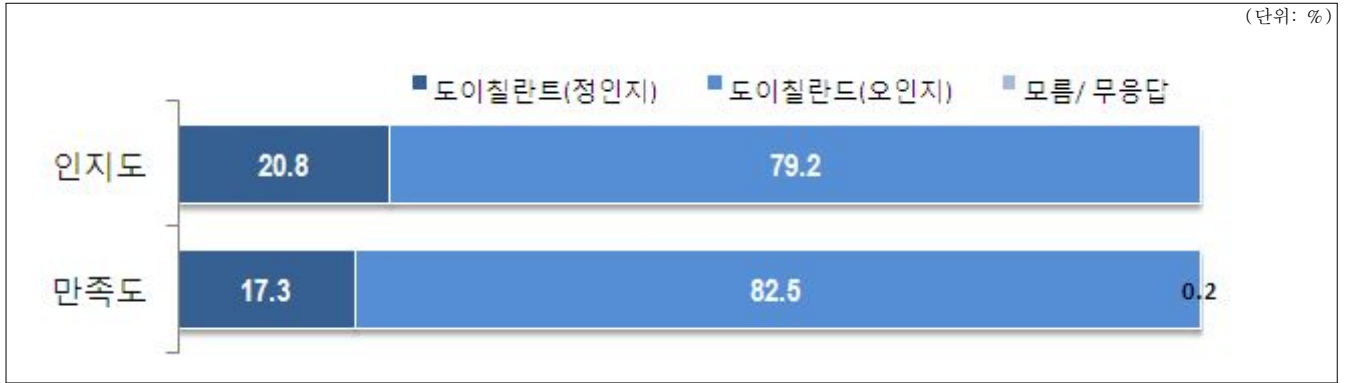
□ 하이텔베르크 용례 정인지에 있어서 전체 평균과 응답자 계층간에 두드러진 차이는 보이지 않았음. 이 표기법에 만족하는지에 대해 20대(59.6%), 대졸 이상(61.5%)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3-11] ①하이텔베르크 ②하이텔베르그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하이텔베르크	하이텔베르그	모름/무응답	하이텔베르크	하이텔베르그	모름/무응답	
■ 전 체 ■	(525)	61.1	37.5	1.3	67.8	32.0	0.2	100.0
■ 성 별 ■	남성 (260)	60.4	37.3	2.3	68.8	31.2	0.0	100.0
	여성 (265)	61.9	37.7	0.4	66.8	32.8	0.4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56.9	43.1	0.0	59.6	40.4	0.0	100.0
	30대 (129)	56.6	41.9	1.6	68.2	31.8	0.0	100.0
	40대 (127)	61.4	35.4	3.1	70.9	29.1	0.0	100.0
	50대 (92)	66.3	32.6	1.1	70.7	29.3	0.0	100.0
	60대이상 (68)	69.1	30.9	0.0	70.6	27.9	1.5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61.1	36.1	2.8	63.0	37.0	0.0	100.0
	블루칼라 (44)	63.6	29.5	6.8	75.0	25.0	0.0	100.0
	화이트칼라 (107)	61.7	38.3	0.0	68.2	31.8	0.0	100.0
	가정주부 (126)	61.9	37.3	0.8	69.0	30.2	0.8	100.0
	학생 (39)	56.4	43.6	0.0	61.5	38.5	0.0	100.0
	무직및무응답 (18)	66.7	33.3	0.0	72.2	27.8	0.0	100.0
	서비스업 (83)	59.0	41.0	0.0	69.9	30.1	0.0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76.7	23.3	0.0	80.0	20.0	0.0	100.0
	고졸 (287)	62.4	35.5	2.1	71.1	28.6	0.3	100.0
	대졸 이상 (208)	57.2	42.3	0.5	61.5	38.5	0.0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58.7	41.3	0.0	60.6	39.4	0.0	100.0
	자연과학 (58)	56.9	41.4	1.7	60.3	39.7	0.0	100.0
	예체능및기타 (28)	53.6	46.4	0.0	64.3	35.7	0.0	100.0
	무응답 (18)	55.6	44.4	0.0	66.7	33.3	0.0	100.0

2-2 ①도이칠란드 ②도이칠란트

[그림 3-12] ①도이칠란드 ②도이칠란트



[집단별 특성]

□ 도이칠란드 용례에 대한 정인지 및 만족도 비율은 모든 계층에서 30%내외로 낮게 나타남.

[표 3-12] ①도이칠란드 ②도이칠란트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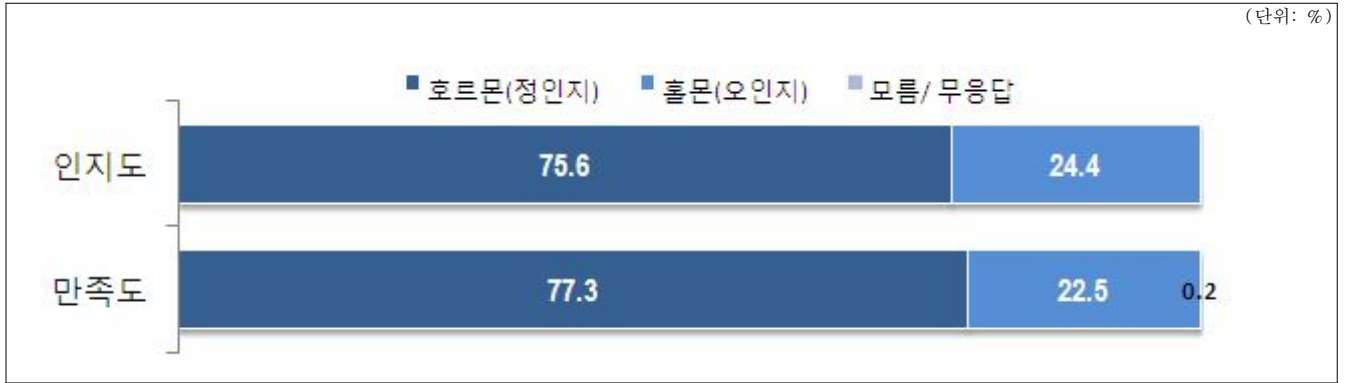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도이칠란드	도이칠란트	도이칠란드	도이칠란트	모름/무응답		
■ 전 체 ■	(525)	79.2	20.8	82.5	17.3	0.2	100.0	
■ 성 별 ■	남성	(260)	78.5	21.5	83.1	16.9	0.0	100.0
	여성	(265)	80.0	20.0	81.9	17.7	0.4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78.0	22.0	78.9	21.1	0.0	100.0
	30대	(129)	79.8	20.2	86.8	13.2	0.0	100.0
	40대	(127)	85.0	15.0	84.3	15.7	0.0	100.0
	50대	(92)	75.0	25.0	84.8	15.2	0.0	100.0
	60대이상	(68)	75.0	25.0	73.5	25.0	1.5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79.6	20.4	82.4	17.6	0.0	100.0
	블루칼라	(44)	75.0	25.0	81.8	18.2	0.0	100.0
	화이트칼라	(107)	80.4	19.6	86.9	13.1	0.0	100.0
	가정주부	(126)	78.6	21.4	81.0	18.3	0.8	100.0
	학생	(39)	71.8	28.2	74.4	25.6	0.0	100.0
	무직및무응답	(18)	88.9	11.1	83.3	16.7	0.0	100.0
	서비스업	(83)	81.9	18.1	83.1	16.9	0.0	100.0
■ 학 령 ■	중졸이하	(30)	83.3	16.7	73.3	26.7	0.0	100.0
	고졸	(287)	78.7	21.3	82.9	16.7	0.3	100.0
	대졸	(205)	79.5	20.5	83.4	16.6	0.0	100.0
	대학원졸	(3)	66.7	33.3	66.7	33.3	0.0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77.9	22.1	82.7	17.3	0.0	100.0
	자연과학	(58)	75.9	24.1	75.9	24.1	0.0	100.0
	예체능및기타	(28)	89.3	10.7	100.0	0.0	0.0	100.0
	무응답	(18)	83.3	16.7	83.3	16.7	0.0	100.0

2-3

①홀몬

②호르몬

[그림 3-13] ①홀몬 ②호르몬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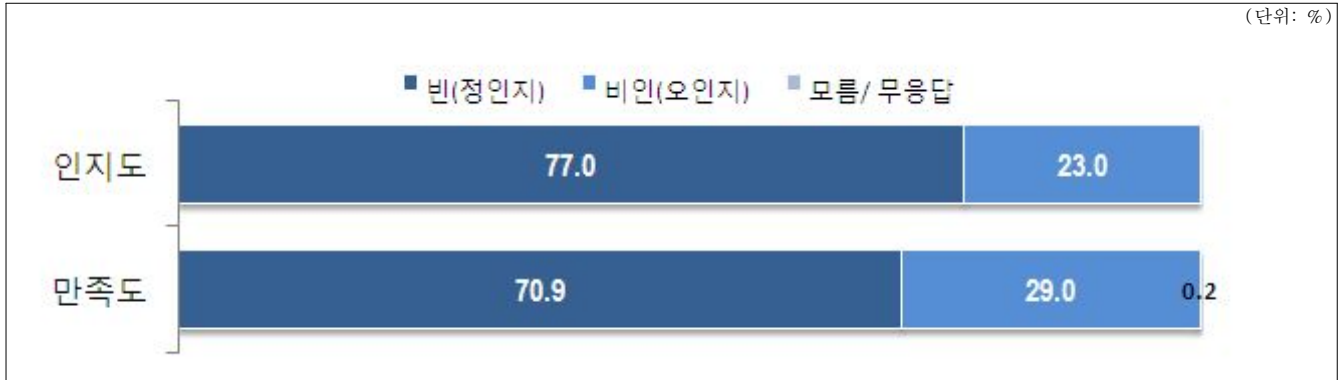
□ 호르몬 용례와 관련하여 20대 연령층에서 81.7%로 전체 평균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가정주부(69.8%)와 독서량이 낮을수록 만족한다는 비율이 낮게 나타남.

[표 3-13] ①홀몬 ②호르몬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홀몬	호르몬	홀몬	호르몬	모름/무응답	
■ 전 체 ■	(525)	24.4	75.6	22.5	77.3	0.2	100.0
■ 성 별 ■	남성 (260)	22.3	77.7	20.8	79.2	0.0	100.0
	여성 (265)	26.4	73.6	24.2	75.5	0.4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18.3	81.7	18.3	81.7	0.0	100.0
	30대 (129)	25.6	74.4	20.2	79.8	0.0	100.0
	40대 (127)	24.4	75.6	24.4	74.8	0.8	100.0
	50대 (92)	27.2	72.8	25.0	75.0	0.0	100.0
	60대이상 (68)	27.9	72.1	26.5	73.5	0.0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27.8	72.2	15.7	83.3	0.9	100.0
	블루칼라 (44)	27.3	72.7	25.0	75.0	0.0	100.0
	화이트칼라 (107)	22.4	77.6	28.0	72.0	0.0	100.0
	가정주부 (126)	26.2	73.8	30.2	69.8	0.0	100.0
	학생 (39)	17.9	82.1	12.8	87.2	0.0	100.0
	무직및무응답 (18)	33.3	66.7	16.7	83.3	0.0	100.0
	서비스업 (83)	19.3	80.7	16.9	83.1	0.0	100.0
■ 학 령 ■	중졸 이하 (30)	30.0	70.0	26.7	73.3	0.0	100.0
	고졸 (287)	26.1	73.9	24.0	75.6	0.3	100.0
	대졸 이상 (208)	21.2	78.8	19.7	80.3	0.0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19.2	80.8	19.2	80.8	0.0	100.0
	자연과학 (58)	27.6	72.4	20.7	79.3	0.0	100.0
	예체능및기타 (28)	25.0	75.0	25.0	75.0	0.0	100.0
	무응답 (18)	5.6	94.4	11.1	88.9	0.0	100.0

2-4 ①빈 ②비인

[그림 3-14] ①빈 ②비인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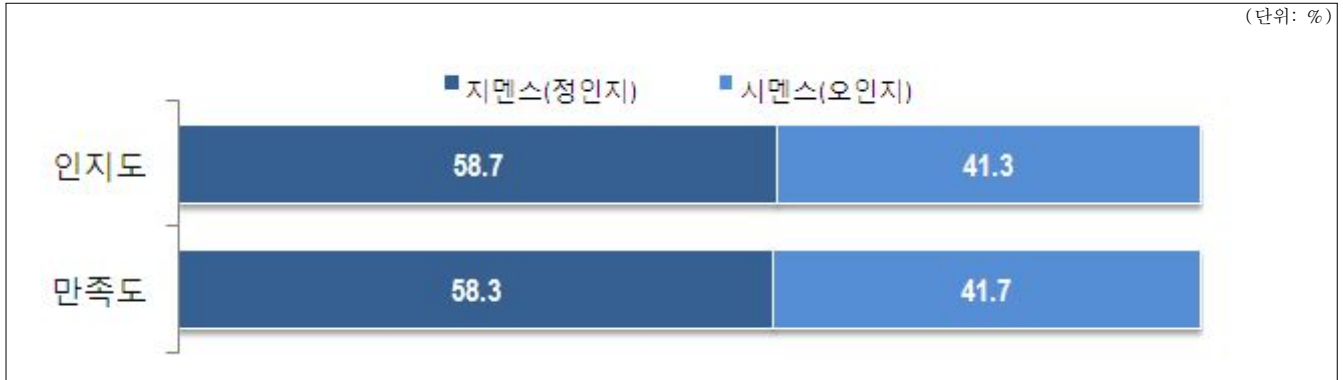
□ 빈 용례에 대한 정인지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자연과학 전공자에서 낮은 것으로 조사됨. 만족도에 있어서는 모든 계층에서 70%내외로 응답하여 전체 평균과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표 3-14] ①빈 ②비인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빈	비인	빈	비인	모름/무응답		
■ 전 체 ■	(525)	77.0	23.0	70.9	29.0	0.2	100.0	
■ 성 별 ■	남성	(260)	72.7	27.3	70.0	30.0	0.0	100.0
	여성	(265)	81.1	18.9	71.7	27.9	0.4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78.0	22.0	69.7	30.3	0.0	100.0
	30대	(129)	79.1	20.9	74.4	24.8	0.8	100.0
	40대	(127)	76.4	23.6	73.2	26.8	0.0	100.0
	50대	(92)	76.1	23.9	67.4	32.6	0.0	100.0
	60대 이상	(68)	73.5	26.5	66.2	33.8	0.0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74.1	25.9	73.1	26.9	0.0	100.0
	블루칼라	(44)	70.5	29.5	68.2	31.8	0.0	100.0
	화이트칼라	(107)	76.6	23.4	72.9	27.1	0.0	100.0
	가정주부	(126)	82.5	17.5	69.0	30.2	0.8	100.0
	학생	(39)	84.6	15.4	74.4	25.6	0.0	100.0
	무직및무응답	(18)	88.9	11.1	77.8	22.2	0.0	100.0
	서비스업	(83)	69.9	30.1	66.3	33.7	0.0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70.0	30.0	70.0	30.0	0.0	100.0
	고졸	(287)	77.7	22.3	70.7	29.3	0.0	100.0
	대졸 이상	(208)	76.9	23.1	71.2	28.4	0.5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79.8	20.2	68.3	30.8	1.0	100.0
	자연과학	(58)	67.2	32.8	72.4	27.6	0.0	100.0
	예체능및기타	(28)	82.1	17.9	67.9	32.1	0.0	100.0
	무응답	(18)	83.3	16.7	88.9	11.1	0.0	100.0

2-5 ①시멘스 ②지멘스

[그림 3-15] ①시멘스 ②지멘스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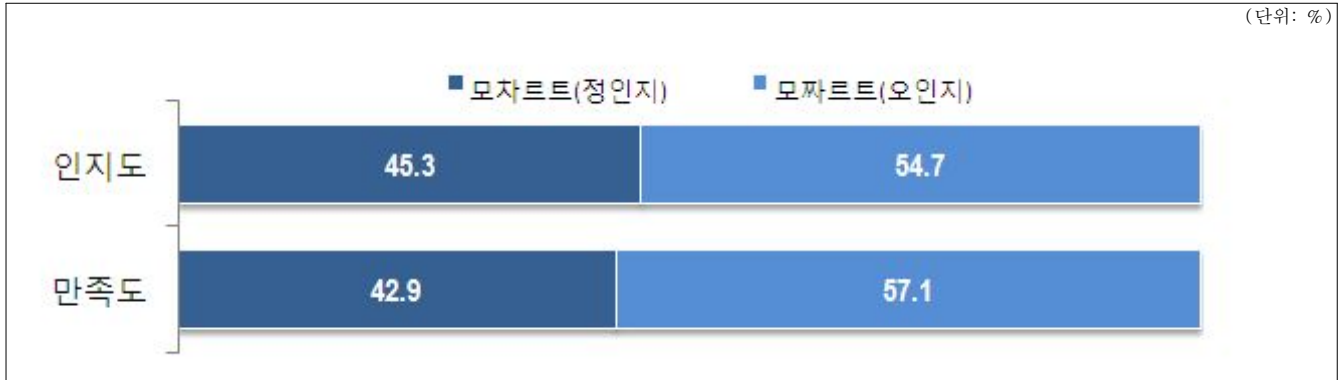
□ 지멘스 표기와 관련하여 중졸이하의 학력자가(33.3%) 전체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에 있어서 전체 평균과 특별히 차이나는 계층은 보이지 않았음.

[표 3-15] ①시멘스 ②지멘스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시멘스	지멘스	시멘스	지멘스		
■ 전 체 ■	(525)	41.3	58.7	41.7	58.3	100.0	
■ 성 별 ■	남성	(260)	39.6	60.4	43.5	56.5	100.0
	여성	(265)	43.0	57.0	40.0	60.0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45.9	54.1	45.0	55.0	100.0
	30대	(129)	41.1	58.9	43.4	56.6	100.0
	40대	(127)	40.9	59.1	40.9	59.1	100.0
	50대	(92)	33.7	66.3	38.0	62.0	100.0
	60대이상	(68)	45.6	54.4	39.7	60.3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36.1	63.9	42.6	57.4	100.0
	블루칼라	(44)	36.4	63.6	36.4	63.6	100.0
	화이트칼라	(107)	48.6	51.4	39.3	60.7	100.0
	가정주부	(126)	42.9	57.1	42.9	57.1	100.0
	학생	(39)	46.2	53.8	51.3	48.7	100.0
	무직및무응답	(18)	61.1	38.9	61.1	38.9	100.0
	서비스업	(83)	32.5	67.5	36.1	63.9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66.7	33.3	43.3	56.7	100.0
	고졸	(287)	38.7	61.3	41.8	58.2	100.0
	대졸 이상	(208)	41.3	58.7	41.3	58.7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37.5	62.5	41.3	58.7	100.0
	자연과학	(58)	43.1	56.9	41.4	58.6	100.0
	예체능및기타	(28)	50.0	50.0	32.1	67.9	100.0
	무응답	(18)	44.4	55.6	55.6	44.4	100.0

2-6 ①모차르트 ②모짜르트

[그림 3-16] ①모차르트 ②모짜르트



[집단별 특성]

□ 모차르트를 정인지한 비율은 모든 계층에서 45%내외로 전체 평균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만족도에 있어서 20대이 53.2%로 전체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16] ①모차르트 ②모짜르트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모차르트	모짜르트	모차르트	모짜르트		
■ 전 체 ■	(525)	45.3	54.7	42.9	57.1	100.0	
■ 성 별 ■	남성	(260)	43.1	56.9	43.5	56.5	100.0
	여성	(265)	47.5	52.5	42.3	57.7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51.4	48.6	53.2	46.8	100.0
	30대	(129)	42.6	57.4	39.5	60.5	100.0
	40대	(127)	40.2	59.8	37.8	62.2	100.0
	50대	(92)	52.2	47.8	48.9	51.1	100.0
	60대이상	(68)	41.2	58.8	33.8	66.2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45.4	54.6	43.5	56.5	100.0
	블루칼라	(44)	38.6	61.4	31.8	68.2	100.0
	화이트칼라	(107)	51.4	48.6	47.7	52.3	100.0
	가정주부	(126)	44.4	55.6	40.5	59.5	100.0
	학생	(39)	56.4	43.6	56.4	43.6	100.0
	무직및무응답	(18)	38.9	61.1	50.0	50.0	100.0
	서비스업	(83)	38.6	61.4	37.3	62.7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53.3	46.7	33.3	66.7	100.0
	고졸	(287)	45.3	54.7	43.9	56.1	100.0
	대졸 이상	(208)	44.2	55.8	42.8	57.2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42.3	57.7	43.3	56.7	100.0
	자연과학	(58)	44.8	55.2	41.4	58.6	100.0
	예체능및기타	(28)	42.9	57.1	35.7	64.3	100.0
	무응답	(18)	55.6	44.4	55.6	44.4	100.0

2-7 ①취리히 ②쨌리히

[그림 3-17] ①취리히 ②쨌리히



[집단별 특성]

□ 취리히 정인지 비율은 20대(76.1%), 30대(78.3%), 화이트칼라(79.4%)가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도에 있어서 30대(78.3%), 화이트칼라(79.4%), 대졸 이상(79.3%)에서 전체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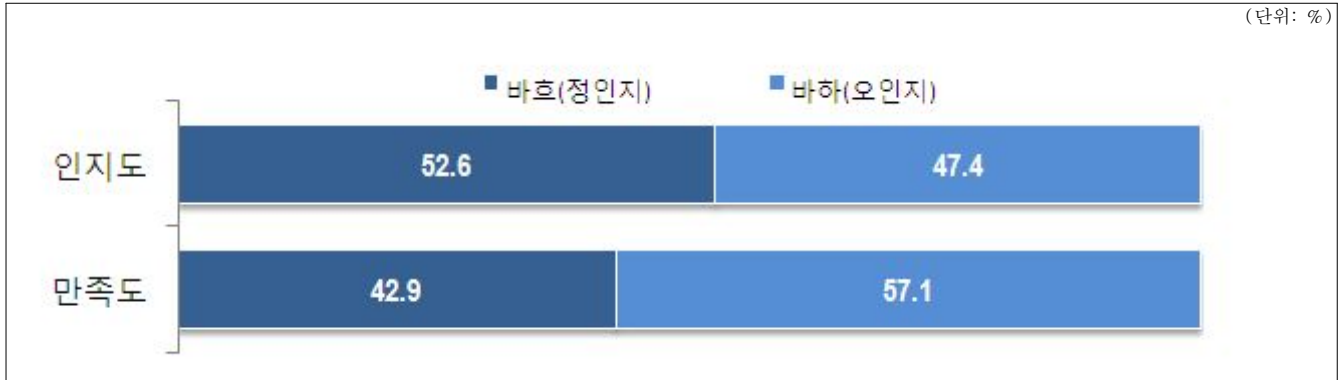
[표 3-17] ①취리히 ②쨌리히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취리히	쨌리히	취리히	쨌리히	모름/무응답		
■ 전 체 ■	(525)	68.8	31.2	70.5	29.3	0.2	100.0	
■ 성 별 ■	남성	(260)	69.2	30.8	70.0	29.6	0.4	100.0
	여성	(265)	68.3	31.7	70.9	29.1	0.0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76.1	23.9	71.6	28.4	0.0	100.0
	30대	(129)	78.3	21.7	78.3	21.7	0.0	100.0
	40대	(127)	66.9	33.1	66.9	32.3	0.8	100.0
	50대	(92)	56.5	43.5	69.6	30.4	0.0	100.0
	60대이상	(68)	58.8	41.2	61.8	38.2	0.0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60.2	39.8	68.5	30.6	0.9	100.0
	블루칼라	(44)	65.9	34.1	56.8	43.2	0.0	100.0
	화이트칼라	(107)	79.4	20.6	79.4	20.6	0.0	100.0
	가정주부	(126)	67.5	32.5	69.8	30.2	0.0	100.0
	학생	(39)	74.4	25.6	82.1	17.9	0.0	100.0
	무직및무응답	(18)	55.6	44.4	61.1	38.9	0.0	100.0
	서비스업	(83)	69.9	30.1	66.3	33.7	0.0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56.7	43.3	43.3	56.7	0.0	100.0
	고졸	(287)	67.2	32.8	66.9	32.8	0.3	100.0
	대졸 이상	(208)	72.6	27.4	79.3	20.7	0.0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72.1	27.9	82.7	17.3	0.0	100.0
	자연과학	(58)	70.7	29.3	74.1	25.9	0.0	100.0
	예체능및기타	(28)	78.6	21.4	71.4	28.6	0.0	100.0
	무응답	(18)	72.2	27.8	88.9	11.1	0.0	100.0

2-8

①바흐 ②바하

[그림 3-18] ①바흐 ②바하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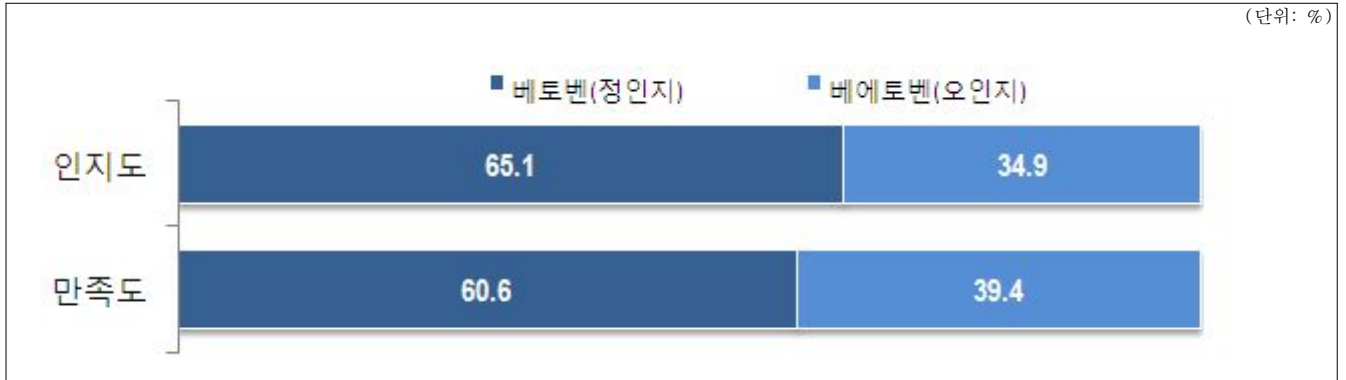
□ 바흐의 정인지 비율은 20대(63.3%), 대졸 이상 학력자(60.1%)에서 전체 평균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표기법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20대와 대졸 학력자에서 각각 51.4%, 48.3%로 전체 평균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18] ①바흐 ②바하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바흐	바하	바흐	바하	
■ 전 체 ■	(525)	52.6	47.4	42.9	57.1	100.0
■ 성 별 ■	남성 (260)	50.0	50.0	38.8	61.2	100.0
	여성 (265)	55.1	44.9	46.8	53.2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63.3	36.7	51.4	48.6	100.0
	30대 (129)	59.7	40.3	49.6	50.4	100.0
	40대 (127)	47.2	52.8	40.2	59.8	100.0
	50대 (92)	44.6	55.4	33.7	66.3	100.0
	60대이상 (68)	42.6	57.4	33.8	66.2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50.0	50.0	43.5	56.5	100.0
	블루칼라 (44)	27.3	72.7	22.7	77.3	100.0
	화이트칼라 (107)	56.1	43.9	45.8	54.2	100.0
	가정주부 (126)	49.2	50.8	42.1	57.9	100.0
	학생 (39)	69.2	30.8	51.3	48.7	100.0
	무직및무응답 (18)	61.1	38.9	77.8	22.2	100.0
	서비스업 (83)	60.2	39.8	38.6	61.4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30.0	70.0	40.0	60.0	100.0
	고졸 (287)	49.5	50.5	39.0	61.0	100.0
	대졸 이상 (208)	60.1	39.9	48.6	51.4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62.5	37.5	49.0	51.0	100.0
	자연과학 (58)	44.8	55.2	41.4	58.6	100.0
	예체능및기타 (28)	78.6	21.4	53.6	46.4	100.0
	무응답 (18)	66.7	33.3	61.1	38.9	100.0

2-9 ①베토벤 ②베에토벤

[그림 3-19] ①베토벤 ②베에토벤



[집단별 특성]

□ 베토벤 정인지 비율은 60대 이상에서 51.5%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고, 화이트칼라가 74.8%로 전체 평균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만족도에 있어서 30대 미만이 69.0%로 전체 평균비율 보다 높았고, 중졸이하의 학력자가(43.3%)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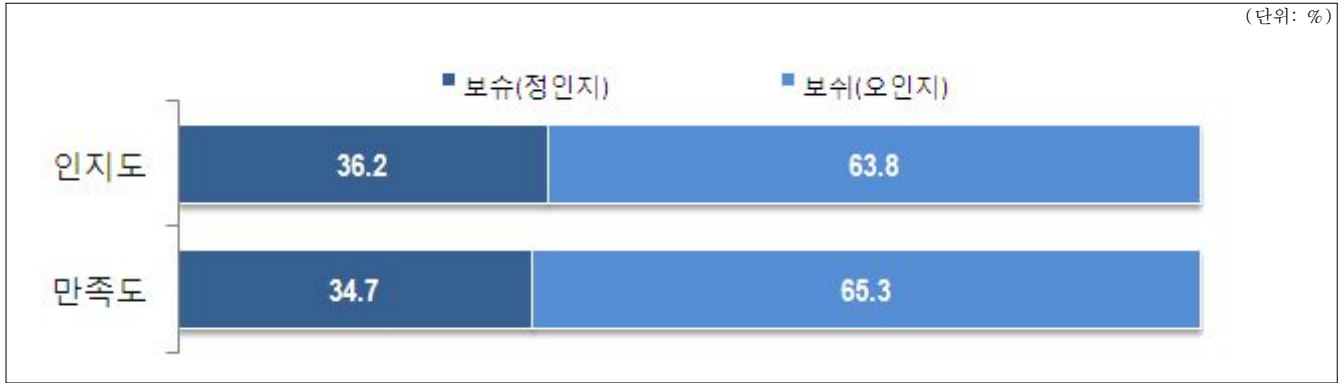
[표 3-19] ①베토벤 ②베에토벤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베토벤	베에토벤	베토벤	베에토벤		
■ 전 체 ■	(525)	65.1	34.9	60.6	39.4	100.0	
□ 성 별 □	남성	(260)	65.0	35.0	59.2	40.8	100.0
	여성	(265)	65.3	34.7	61.9	38.1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69.7	30.3	56.9	43.1	100.0
	30대	(129)	72.1	27.9	69.0	31.0	100.0
	40대	(127)	64.6	35.4	59.1	40.9	100.0
	50대	(92)	60.9	39.1	58.7	41.3	100.0
	60대이상	(68)	51.5	48.5	55.9	44.1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70.4	29.6	63.0	37.0	100.0
	블루칼라	(44)	54.5	45.5	52.3	47.7	100.0
	화이트칼라	(107)	74.8	25.2	66.4	33.6	100.0
	가정주부	(126)	57.9	42.1	60.3	39.7	100.0
	학생	(39)	76.9	23.1	74.4	25.6	100.0
	무직및무응답	(18)	66.7	33.3	66.7	33.3	100.0
	서비스업	(83)	56.6	43.4	47.0	53.0	100.0
□ 학 력 □	중졸이하	(30)	66.7	33.3	43.3	56.7	100.0
	고졸	(287)	62.0	38.0	57.5	42.5	100.0
	대졸 이상	(208)	69.2	30.8	67.3	32.7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69.2	30.8	69.2	30.8	100.0
	자연과학	(58)	69.0	31.0	60.3	39.7	100.0
	예체능및기타	(28)	60.7	39.3	60.7	39.3	100.0
	무응답	(18)	83.3	16.7	88.9	11.1	100.0

2-10

①보슈 ②보쉬

[그림 3-20] ①보슈 ②보쉬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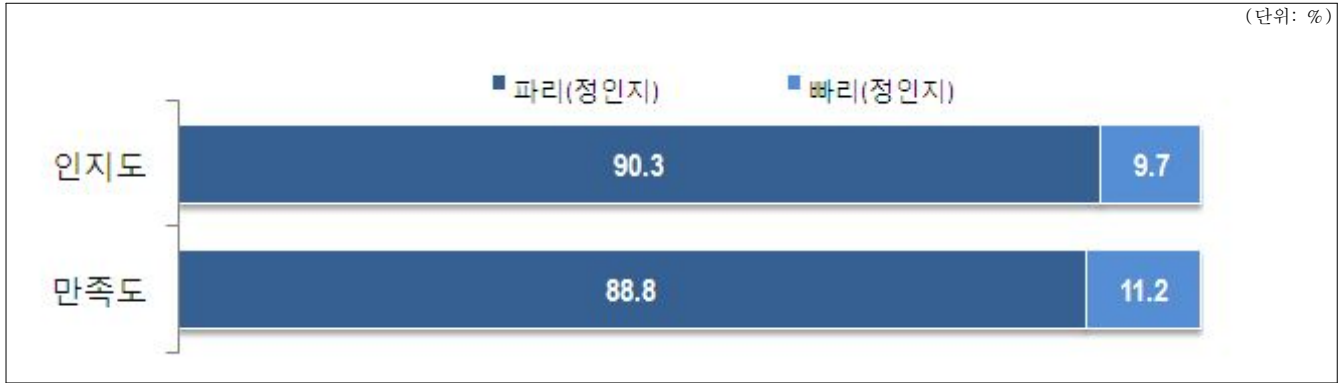
□ 보슈 표기에 있어서 정인지 및 만족도 비율 모두 35%내외로 계층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표 3-20] ①보슈 ②보쉬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보슈	보쉬	보슈	보쉬	
■ 전 체 ■	(525)	36.2	63.8	34.7	65.3	100.0
■ 성 별 ■	남성 (260)	35.0	65.0	33.1	66.9	100.0
	여성 (265)	37.4	62.6	36.2	63.8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32.1	67.9	29.4	70.6	100.0
	30대 (129)	31.8	68.2	33.3	66.7	100.0
	40대 (127)	38.6	61.4	34.6	65.4	100.0
	50대 (92)	42.4	57.6	37.0	63.0	100.0
	60대이상 (68)	38.2	61.8	42.6	57.4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39.8	60.2	32.4	67.6	100.0
	블루칼라 (44)	34.1	65.9	34.1	65.9	100.0
	화이트칼라 (107)	37.4	62.6	36.4	63.6	100.0
	가정주부 (126)	38.1	61.9	40.5	59.5	100.0
	학생 (39)	25.6	74.4	23.1	76.9	100.0
	무직및무응답 (18)	27.8	72.2	55.6	44.4	100.0
	서비스업 (83)	34.9	65.1	27.7	72.3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46.7	53.3	46.7	53.3	100.0
	고졸 (287)	36.9	63.1	36.2	63.8	100.0
	대졸 이상 (208)	33.7	66.3	30.8	69.2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36.5	63.5	32.7	67.3	100.0
	자연과학 (58)	32.8	67.2	34.5	65.5	100.0
	예체능및기타 (28)	21.4	78.6	21.4	78.6	100.0
	무응답 (18)	38.9	61.1	22.2	77.8	100.0

3-1 ①파리 ②빠리

[그림 3-21] ①파리 ②빠리



[집단별 특성]

□ 파리에 대한 정인지 비율은 화이트칼라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 비율은 60대 이상, 중졸이하의 학력자에서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3-22] ①파리 ②빠리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파리	빠리	파리	빠리		
■ 전 체 ■	(525)	90.3	9.7	88.8	11.2	100.0	
■ 성 별 ■	남성	(260)	89.6	10.4	89.6	10.4	100.0
	여성	(265)	90.9	9.1	87.9	12.1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92.7	7.3	89.0	11.0	100.0
	30대	(129)	91.5	8.5	91.5	8.5	100.0
	40대	(127)	89.0	11.0	88.2	11.8	100.0
	50대	(92)	90.2	9.8	92.4	7.6	100.0
	60대이상	(68)	86.8	13.2	79.4	20.6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86.1	13.9	80.6	19.4	100.0
	블루칼라	(44)	90.9	9.1	93.2	6.8	100.0
	화이트칼라	(107)	95.3	4.7	96.3	3.7	100.0
	가정주부	(126)	88.9	11.1	88.1	11.9	100.0
	학생	(39)	94.9	5.1	82.1	17.9	100.0
	무직및무응답	(18)	88.9	11.1	88.9	11.1	100.0
	서비스업	(83)	89.2	10.8	91.6	8.4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90.0	10.0	76.7	23.3	100.0
	고졸	(287)	89.2	10.8	90.6	9.4	100.0
	대졸 이상	(208)	91.8	8.2	88.0	12.0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92.3	7.7	90.4	9.6	100.0
	자연과학	(58)	87.9	12.1	86.2	13.8	100.0
	예체능및기타	(28)	92.9	7.1	78.6	21.4	100.0
	무응답	(18)	100.0	0.0	94.4	5.6	100.0

3-2 ①바캉스 ②바깥스

[그림 3-22] ①바캉스 ②바깥스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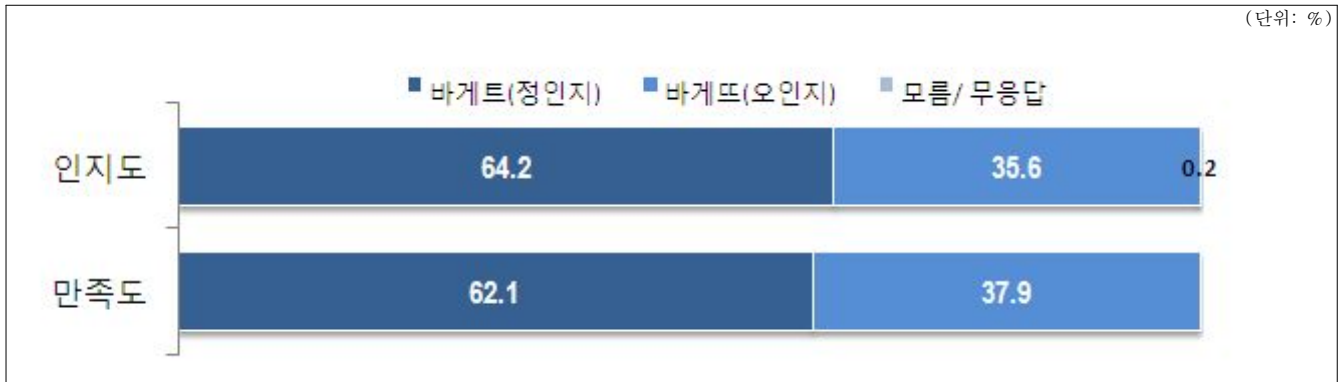
□ 바깥스에 용례에 대한 정인지 비율은 중졸이하의 학력자가 90.0%로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60대 이상이 91.2%로 전체 평균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낮았음.

[표 3-22] ①바캉스 ②바깥스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바캉스	바깥스	바캉스	바깥스	
■ 전 체 ■	(525)	90.3	9.7	88.8	11.2	100.0
■ 성 별 ■	남성 (260)	89.6	10.4	89.6	10.4	100.0
	여성 (265)	90.9	9.1	87.9	12.1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92.7	7.3	89.0	11.0	100.0
	30대 (129)	91.5	8.5	91.5	8.5	100.0
	40대 (127)	89.0	11.0	88.2	11.8	100.0
	50대 (92)	90.2	9.8	92.4	7.6	100.0
	60대이상 (68)	86.8	13.2	79.4	20.6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86.1	13.9	80.6	19.4	100.0
	블루칼라 (44)	90.9	9.1	93.2	6.8	100.0
	화이트칼라 (107)	95.3	4.7	96.3	3.7	100.0
	가정주부 (126)	88.9	11.1	88.1	11.9	100.0
	학생 (39)	94.9	5.1	82.1	17.9	100.0
	무직및무응답 (18)	88.9	11.1	88.9	11.1	100.0
	서비스업 (83)	89.2	10.8	91.6	8.4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90.0	10.0	76.7	23.3	100.0
	고졸 (287)	89.2	10.8	90.6	9.4	100.0
	대졸 이상 (208)	97.1	2.9	97.6	2.4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92.3	7.7	90.4	9.6	100.0
	자연과학 (58)	87.9	12.1	86.2	13.8	100.0
	예체능및기타 (28)	92.9	7.1	78.6	21.4	100.0
	무응답 (18)	100.0	0.0	94.4	5.6	100.0

3-3 ①바게트 ②바게뜨

[그림 3-23] ①바게트 ②바게뜨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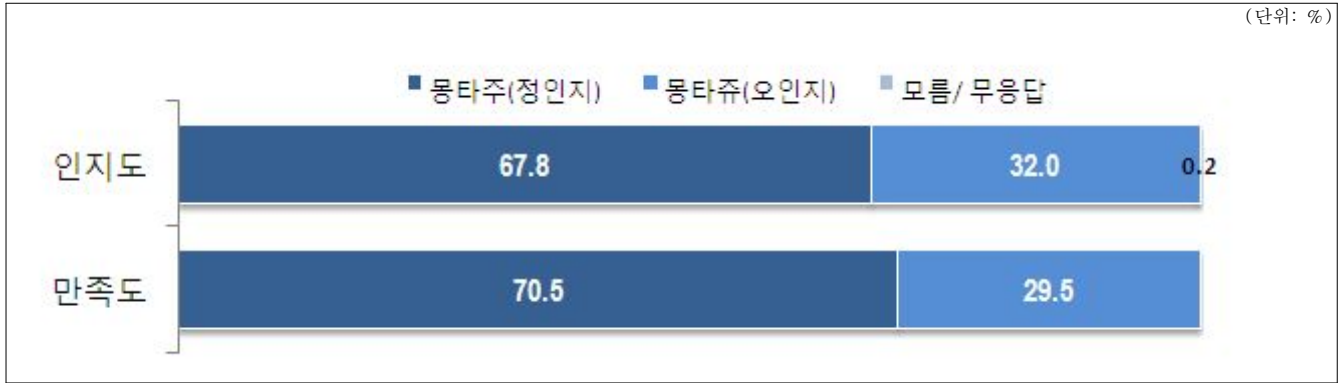
□ 바게트 표기에 대해 모든 계층에서 65%내외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만족도에 있어서 인문·사회과학 전공자가 72.1%로 전체 평균비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3] ①바게트 ②바게뜨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바게트	바게뜨	바게트	바게뜨	모름/무응답	
■ 전 체 ■	(525)	62.1	37.9	64.2	35.6	0.2	100.0
■ 성 별 ■	남성 (260)	63.8	36.2	67.3	32.3	0.4	100.0
	여성 (265)	60.4	39.6	61.1	38.9	0.0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59.6	40.4	58.7	41.3	0.0	100.0
	30대 (129)	62.0	38.0	64.3	34.9	0.8	100.0
	40대 (127)	64.6	35.4	64.6	35.4	0.0	100.0
	50대 (92)	63.0	37.0	65.2	34.8	0.0	100.0
	60대이상 (68)	60.3	39.7	70.6	29.4	0.0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56.5	43.5	60.2	38.9	0.9	100.0
	블루칼라 (44)	70.5	29.5	68.2	31.8	0.0	100.0
	화이트칼라 (107)	66.4	33.6	71.0	29.0	0.0	100.0
	가정주부 (126)	62.7	37.3	62.7	37.3	0.0	100.0
	학생 (39)	64.1	35.9	64.1	35.9	0.0	100.0
	무직및무응답 (18)	55.6	44.4	72.2	27.8	0.0	100.0
	서비스업 (83)	59.0	41.0	59.0	41.0	0.0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73.3	26.7	66.7	33.3	0.0	100.0
	고졸 (287)	62.7	37.3	63.1	36.6	0.3	100.0
	대졸 이상 (208)	59.6	40.4	65.4	34.6	0.0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58.7	41.3	72.1	27.9	0.0	100.0
	자연과학 (58)	67.2	32.8	55.2	44.8	0.0	100.0
	예체능및기타 (28)	42.9	57.1	57.1	42.9	0.0	100.0
	무응답 (18)	66.7	33.3	72.2	27.8	0.0	100.0

3-4 ①몽타주 ②몽타쥬

[그림 3-24] ①몽타주 ②몽타쥬



[집단별 특성]

□ 몽타주 표기와 관련하여 20대 연령층에서 76.1%로 다른 계층에 비해 정인지 비율이 높았고, 만족도와 관련하여 모든 응답자군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표 3-24] ①몽타주 ②몽타쥬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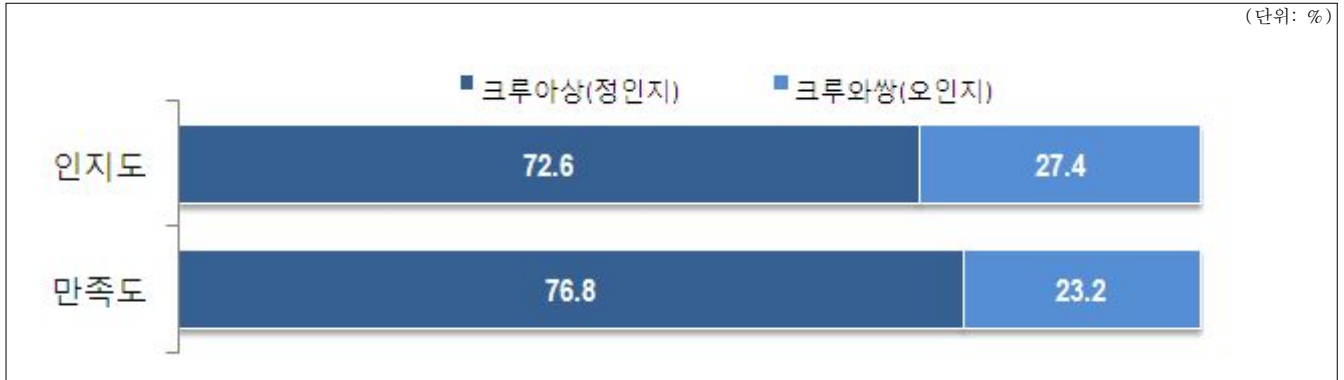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몽타주	몽타쥬	모름/무응답	몽타주	몽타쥬	
■ 전 체 ■	(525)	67.8	32.0	0.2	70.5	29.5	100.0
■ 성 별 ■	남성 (260)	69.6	30.4	0.0	73.1	26.9	100.0
	여성 (265)	66.0	33.6	0.4	67.9	32.1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76.1	23.9	0.0	67.9	32.1	100.0
	30대 (129)	68.2	31.8	0.0	71.3	28.7	100.0
	40대 (127)	65.4	34.6	0.0	70.9	29.1	100.0
	50대 (92)	67.4	32.6	0.0	73.9	26.1	100.0
	60대이상 (68)	58.8	39.7	1.5	67.6	32.4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73.1	25.9	0.9	74.1	25.9	100.0
	블루칼라 (44)	56.8	43.2	0.0	72.7	27.3	100.0
	화이트칼라 (107)	67.3	32.7	0.0	74.8	25.2	100.0
	가정주부 (126)	63.5	36.5	0.0	69.8	30.2	100.0
	학생 (39)	66.7	33.3	0.0	69.2	30.8	100.0
	무직및무응답 (18)	66.7	33.3	0.0	61.1	38.9	100.0
	서비스업 (83)	74.7	25.3	0.0	62.7	37.3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50.0	50.0	0.0	66.7	33.3	100.0
	고졸 (287)	70.7	28.9	0.3	70.7	29.3	100.0
	대졸 이상 (208)	66.3	33.7	0.0	70.7	29.3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64.4	35.6	0.0	73.1	26.9	100.0
	자연과학 (58)	67.2	32.8	0.0	72.4	27.6	100.0
	예체능및기타 (28)	64.3	35.7	0.0	64.3	35.7	100.0
	무응답 (18)	77.8	22.2	0.0	61.1	38.9	100.0

3-5

①크루아상

②크루와쌍

[그림 3-25] ①크루아상 ②크루와쌍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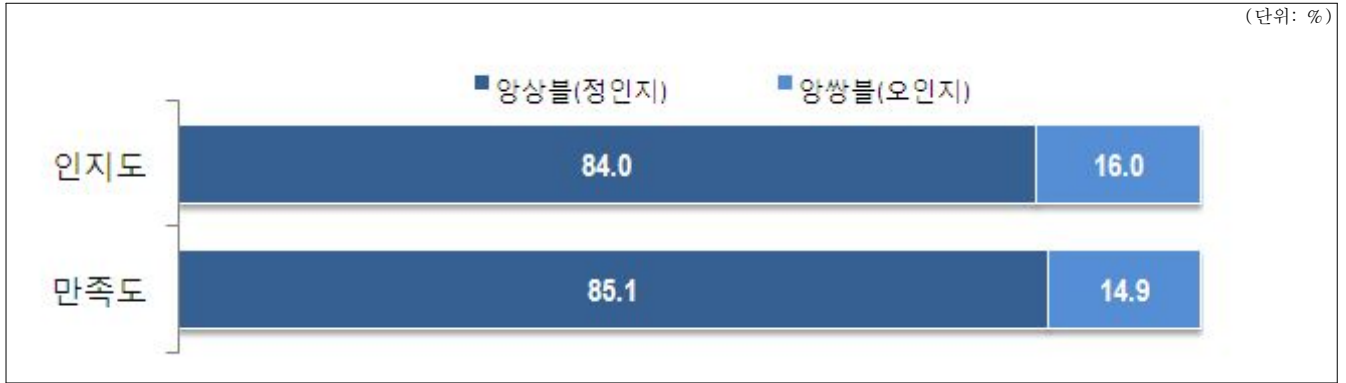
□ 크루아상 표기에 대해 20대와 82.6%, 대졸이상의 학력자가 78.4%로 전체 평균 비율보다 높았고, 만족도의 경우 60대 이상, 자영업자에서 각각 63.2%, 66.7%로 전체 평균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 ①크루아상 ②크루와쌍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크루아상	크루와쌍	크루아상	크루와쌍		
■ 전 체 ■	(525)	72.6	27.4	76.8	23.2	100.0	
■ 성 별 ■	남성	(260)	71.9	28.1	75.4	24.6	100.0
	여성	(265)	73.2	26.8	78.1	21.9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82.6	17.4	78.0	22.0	100.0
	30대	(129)	69.0	31.0	81.4	18.6	100.0
	40대	(127)	76.4	23.6	78.7	21.3	100.0
	50대	(92)	69.6	30.4	76.1	23.9	100.0
	60대이상	(68)	60.3	39.7	63.2	36.8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69.4	30.6	66.7	33.3	100.0
	블루칼라	(44)	68.2	31.8	77.3	22.7	100.0
	화이트칼라	(107)	75.7	24.3	82.2	17.8	100.0
	가정주부	(126)	65.1	34.9	77.8	22.2	100.0
	학생	(39)	89.7	10.3	82.1	17.9	100.0
	무직및무응답	(18)	66.7	33.3	61.1	38.9	100.0
	서비스업	(83)	79.5	20.5	81.9	18.1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50.0	50.0	53.3	46.7	100.0
	고졸	(287)	70.7	29.3	76.0	24.0	100.0
	대졸 이상	(208)	78.4	21.6	81.3	18.8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74.0	26.0	80.8	19.2	100.0
	자연과학	(58)	81.0	19.0	81.0	19.0	100.0
	예체능및기타	(28)	85.7	14.3	78.6	21.4	100.0
	무응답	(18)	83.3	16.7	88.9	11.1	100.0

3-6 ①양상블 ②양쌍블

[그림 3-26] ①양상블 ②양쌍블



[집단별 특성]

□ 양상블 표기에 대해 자영업자가 75.9%로 전체 평균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낮았고, 만족도의 경우 전 계층에서 전체 평균 비율과 비교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표 3-26] ①양상블 ②양쌍블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양상블	양쌍블	양상블	양쌍블		
■ 전 체 ■	(525)	84.0	16.0	85.1	14.9	100.0	
■ 성 별 ■	남성	(260)	85.4	14.6	85.8	14.2	100.0
	여성	(265)	82.6	17.4	84.5	15.5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85.3	14.7	83.5	16.5	100.0
	30대	(129)	89.1	10.9	89.1	10.9	100.0
	40대	(127)	79.5	20.5	83.5	16.5	100.0
	50대	(92)	84.8	15.2	87.0	13.0	100.0
	60대 이상	(68)	79.4	20.6	80.9	19.1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75.9	24.1	81.5	18.5	100.0
	블루칼라	(44)	88.6	11.4	90.9	9.1	100.0
	화이트칼라	(107)	88.8	11.2	89.7	10.3	100.0
	가정주부	(126)	80.2	19.8	84.1	15.9	100.0
	학생	(39)	92.3	7.7	87.2	12.8	100.0
	무직및무응답	(18)	77.8	22.2	66.7	33.3	100.0
	서비스업	(83)	89.2	10.8	85.5	14.5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73.3	26.7	83.3	16.7	100.0
	고졸	(287)	83.6	16.4	84.0	16.0	100.0
	대졸 이상	(208)	86.1	13.9	87.0	13.0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86.5	13.5	86.5	13.5	100.0
	자연과학	(58)	79.3	20.7	81.0	19.0	100.0
	예체능및기타	(28)	92.9	7.1	96.4	3.6	100.0
	무응답	(18)	94.4	5.6	94.4	5.6	100.0

3-7

①상승 ②상승

[그림 3-27] ①상승 ②상승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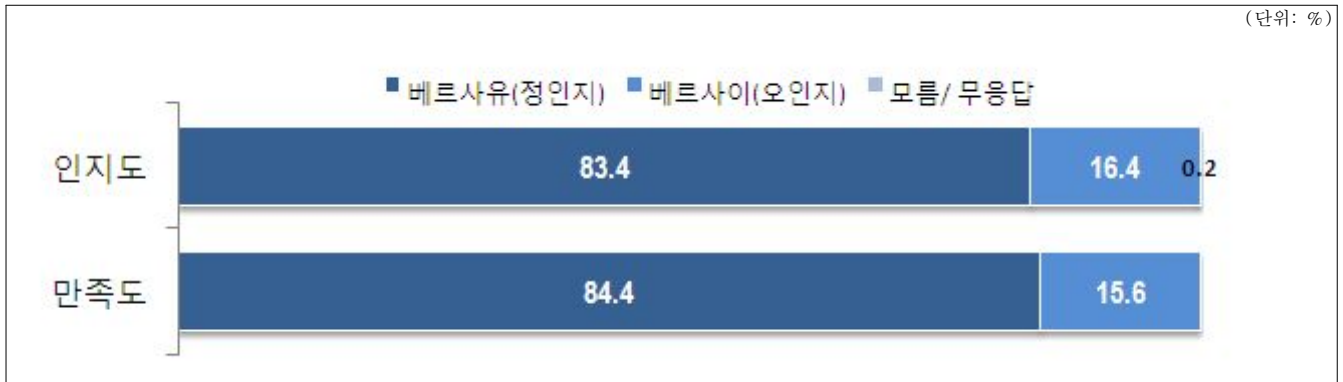
□ 상승 표기와 관련하여 자영업자가 중졸이하의 학력자가 전체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30대와 화이트칼라 계층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27] ①상승 ②상승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상승	상승	모름/ 무응답	상승	상승	모름/ 무응답	
■ 전 체 ■	(525)	80.6	19.2	0.2	80.8	19.0	0.2	100.0
■ 성 별 ■								
남성	(260)	79.2	20.4	0.4	81.9	17.7	0.4	100.0
여성	(265)	81.9	18.1	0.0	79.6	20.4	0.0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85.3	14.7	0.0	81.7	18.3	0.0	100.0
30대	(129)	82.2	17.8	0.0	87.6	12.4	0.0	100.0
40대	(127)	78.7	21.3	0.0	77.2	22.0	0.8	100.0
50대	(92)	79.3	20.7	0.0	79.3	20.7	0.0	100.0
60대이상	(68)	75.0	23.5	1.5	75.0	25.0	0.0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72.2	27.8	0.0	75.0	24.1	0.9	100.0
블루칼라	(44)	75.0	22.7	2.3	77.3	22.7	0.0	100.0
화이트칼라	(107)	86.9	13.1	0.0	87.9	12.1	0.0	100.0
가정주부	(126)	81.0	19.0	0.0	76.2	23.8	0.0	100.0
학생	(39)	87.2	12.8	0.0	87.2	12.8	0.0	100.0
무직및무응답	(18)	77.8	22.2	0.0	72.2	27.8	0.0	100.0
서비스업	(83)	83.1	16.9	0.0	86.7	13.3	0.0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60.0	36.7	3.3	53.3	46.7	0.0	100.0
고졸	(287)	81.9	18.1	0.0	81.5	18.1	0.3	100.0
대졸 이상	(208)	81.7	18.3	0.0	83.7	16.3	0.0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81.7	18.3	0.0	86.5	13.5	0.0	100.0
자연과학	(58)	84.5	15.5	0.0	81.0	19.0	0.0	100.0
예체능및기타	(28)	75.0	25.0	0.0	75.0	25.0	0.0	100.0
무응답	(18)	83.3	16.7	0.0	88.9	11.1	0.0	100.0

3-8 ①베르사유 ②베르사이

[그림 3-28] ①베르사유 ②베르사이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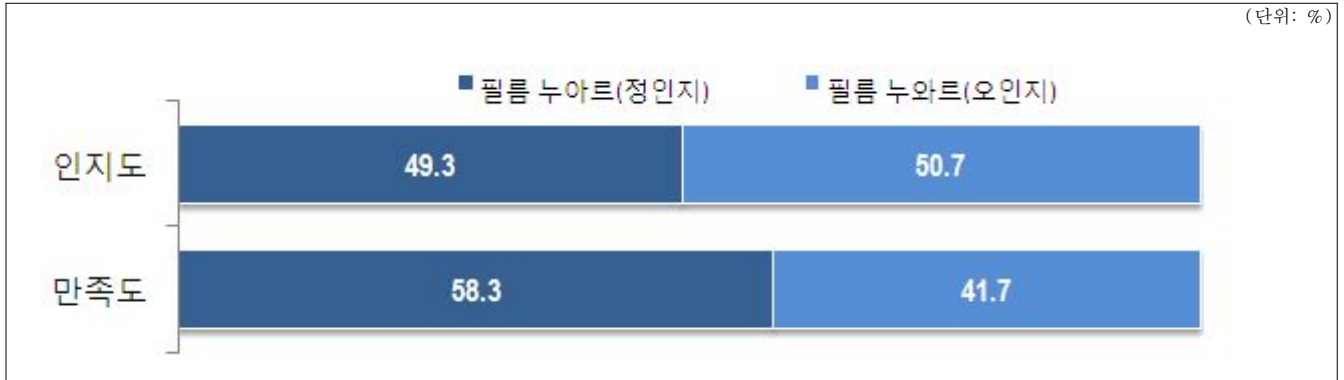
□ 베르사유 표기에 대해 고졸 학력자 계층에서 86.8%로 전체 평균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화이트칼라가 90.7%로 전체 평균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8] ①베르사유 ②베르사이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베르사유	베르사이	모름/무응답	베르사유	베르사이		
■ 전 체 ■	(525)	83.4	16.4	0.2	84.4	15.6	100.0	
■ 성 별 ■	남성	(260)	80.4	19.2	0.4	83.5	16.5	100.0
	여성	(265)	86.4	13.6	0.0	85.3	14.7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86.2	13.8	0.0	88.1	11.9	100.0
	30대	(129)	85.3	14.7	0.0	87.6	12.4	100.0
	40대	(127)	82.7	16.5	0.8	83.5	16.5	100.0
	50대	(92)	78.3	21.7	0.0	83.7	16.3	100.0
	60대 이상	(68)	83.8	16.2	0.0	75.0	25.0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78.7	20.4	0.9	81.5	18.5	100.0
	블루칼라	(44)	84.1	15.9	0.0	81.8	18.2	100.0
	화이트칼라	(107)	86.9	13.1	0.0	90.7	9.3	100.0
	가정주부	(126)	86.5	13.5	0.0	83.3	16.7	100.0
	학생	(39)	89.7	10.3	0.0	92.3	7.7	100.0
	무직및무응답	(18)	77.8	22.2	0.0	77.8	22.2	100.0
	서비스업	(83)	78.3	21.7	0.0	80.7	19.3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66.7	33.3	0.0	63.3	36.7	100.0
	고졸	(287)	86.8	12.9	0.3	84.3	15.7	100.0
	대졸 이상	(208)	81.3	18.8	0.0	87.5	12.5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79.8	20.2	0.0	89.4	10.6	100.0
	자연과학	(58)	86.2	13.8	0.0	89.7	10.3	100.0
	예체능및기타	(28)	71.4	28.6	0.0	75.0	25.0	100.0
	무응답	(18)	88.9	11.1	0.0	88.9	11.1	100.0

3-9 ① 필름 누아르 ② 필름 누와르

[그림 3-29] ① 필름 누아르 ② 필름 누와르



[집단별 특성]

□ 필름 누와르 표기의 경우 모든 계층에서 전체 평균보다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었으며, 만족도의 경우 블루칼라가 77.3%로 전체 평균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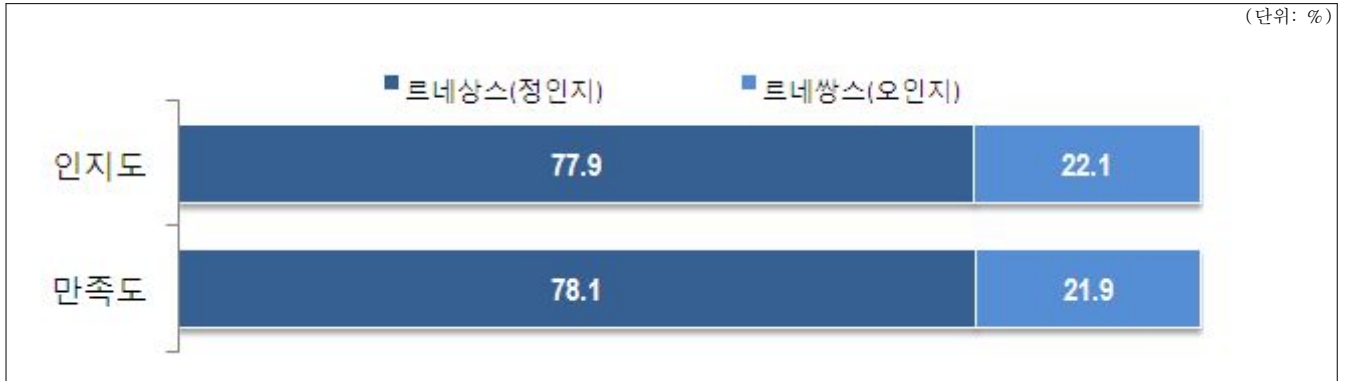
[표 3-29] ① 필름 누아르 ② 필름 누와르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필름 누아르	필름 누와르	필름 누아르	필름 누와르		
전체	(525)	49.3	50.7	58.3	41.7	100.0	
성별	남성	(260)	50.0	50.0	61.9	38.1	100.0
	여성	(265)	48.7	51.3	54.7	45.3	100.0
연령	20대 이하	(109)	50.5	49.5	50.5	49.5	100.0
	30대	(129)	48.8	51.2	62.8	37.2	100.0
	40대	(127)	44.9	55.1	52.0	48.0	100.0
	50대	(92)	56.5	43.5	65.2	34.8	100.0
	60대 이상	(68)	47.1	52.9	64.7	35.3	100.0
직업	자영업	(108)	49.1	50.9	50.0	50.0	100.0
	블루칼라	(44)	52.3	47.7	77.3	22.7	100.0
	화이트칼라	(107)	48.6	51.4	57.9	42.1	100.0
	가정주부	(126)	49.2	50.8	62.7	37.3	100.0
	학생	(39)	43.6	56.4	35.9	64.1	100.0
	무직및무응답	(18)	61.1	38.9	77.8	22.2	100.0
	서비스업	(83)	49.4	50.6	59.0	41.0	100.0
학력	중졸 이하	(30)	60.0	40.0	63.3	36.7	100.0
	고졸	(287)	50.2	49.8	60.3	39.7	100.0
	대졸 이상	(208)	46.6	53.4	54.8	45.2	100.0
전공	인문사회과학	(104)	43.3	56.7	54.8	45.2	100.0
	자연과학	(58)	48.3	51.7	58.6	41.4	100.0
	예체능및기타	(28)	50.0	50.0	46.4	53.6	100.0
	무응답	(18)	55.6	44.4	55.6	44.4	100.0

3-10

①르네상스 ②르네쌍스

[그림 3-30] ①르네상스 ②르네쌍스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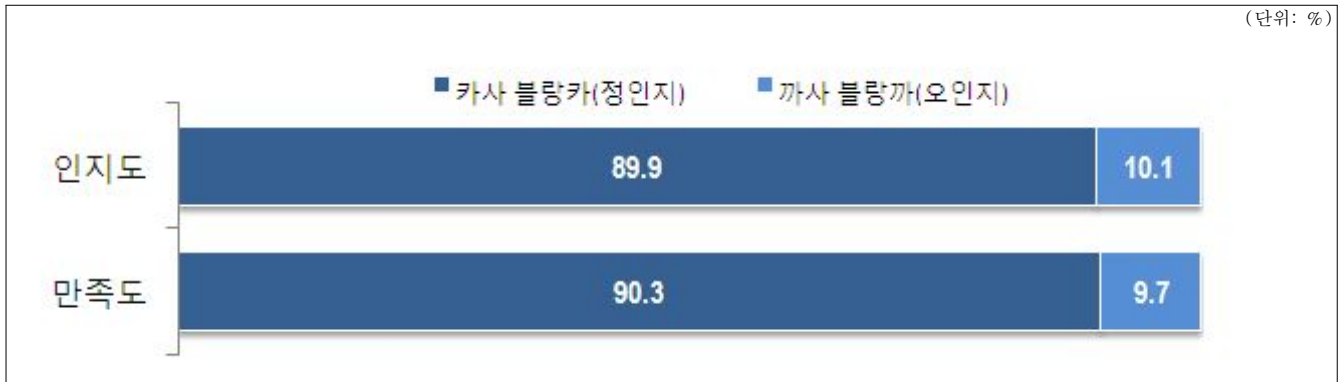
□ 르네상스 정인지 비율은 60대 이상, 중졸이하의 학력자에서 각각 64.7%, 56.7%로 낮게 나타났고, 만족도의 경우 자영업자가 69.4%로 전체 평균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3-31] ①르네상스 ②르네쌍스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필름 누아르	필름 누와르	필름 누아르	필름 누와르	
■ 전 체 ■	(525)	77.9	22.1	78.1	21.9	100.0
■ 성 별 ■	남성 (260)	78.5	21.5	76.2	23.8	100.0
	여성 (265)	77.4	22.6	80.0	20.0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79.8	20.2	79.8	20.2	100.0
	30대 (129)	82.2	17.8	83.7	16.3	100.0
	40대 (127)	81.1	18.9	79.5	20.5	100.0
	50대 (92)	75.0	25.0	70.7	29.3	100.0
	60대이상 (68)	64.7	35.3	72.1	27.9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75.0	25.0	69.4	30.6	100.0
	블루칼라 (44)	75.0	25.0	81.8	18.2	100.0
	화이트칼라 (107)	79.4	20.6	81.3	18.7	100.0
	가정주부 (126)	76.2	23.8	77.0	23.0	100.0
	학생 (39)	82.1	17.9	82.1	17.9	100.0
	무직및무응답 (18)	66.7	33.3	83.3	16.7	100.0
	서비스업 (83)	84.3	15.7	81.9	18.1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56.7	43.3	70.0	30.0	100.0
	고졸 (287)	79.8	20.2	78.0	22.0	100.0
	대졸 이상 (208)	78.4	21.6	79.3	20.7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79.8	20.2	79.8	20.2	100.0
	자연과학 (58)	74.1	25.9	75.9	24.1	100.0
	예체능및기타 (28)	82.1	17.9	82.1	17.9	100.0
	무응답 (18)	77.8	22.2	83.3	16.7	100.0

4-1 ①카사 블랑카 ②까사 블랑카

[그림 3-31] ①카사 블랑카 ②까사 블랑카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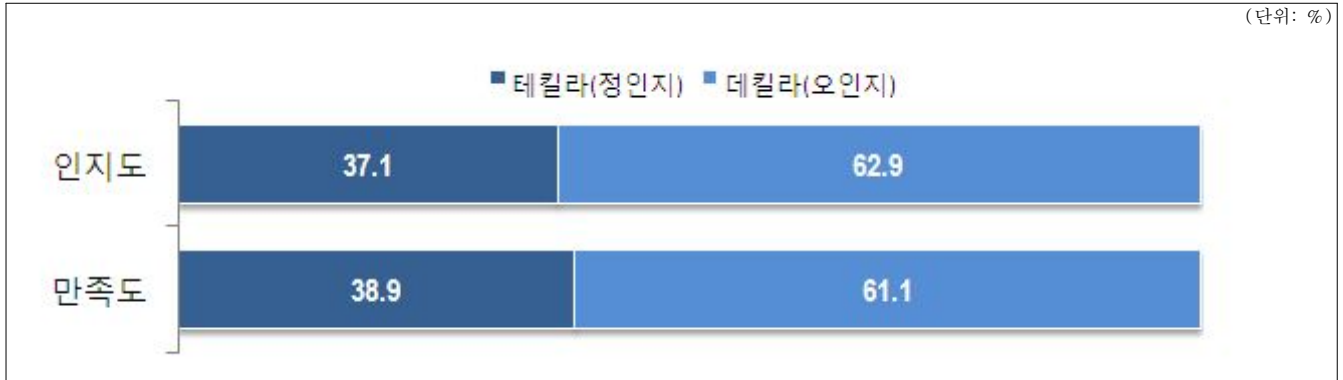
□ 카사 블랑카 표기에 있어서 50대 이상과 화이트칼라에서 전체 평균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의 경우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3-31] ①카사 블랑카 ②까사 블랑카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카사 블랑카	까사 블랑카	카사 블랑카	까사 블랑카		
■ 전 체 ■	(525)	89.9	10.1	90.3	9.7	100.0	
■ 성 별 ■	남성	(260)	91.2	8.8	92.3	7.7	100.0
	여성	(265)	88.7	11.3	88.3	11.7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85.3	14.7	87.2	12.8	100.0
	30대	(129)	90.7	9.3	92.2	7.8	100.0
	40대	(127)	89.8	10.2	87.4	12.6	100.0
	50대	(92)	97.8	2.2	91.3	8.7	100.0
	60대이상	(68)	85.3	14.7	95.6	4.4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91.7	8.3	88.9	11.1	100.0
	블루칼라	(44)	93.2	6.8	93.2	6.8	100.0
	화이트칼라	(107)	91.6	8.4	94.4	5.6	100.0
	가정주부	(126)	86.5	13.5	89.7	10.3	100.0
	학생	(39)	87.2	12.8	89.7	10.3	100.0
	무직및무응답	(18)	100.0	0.0	88.9	11.1	100.0
	서비스업	(83)	88.0	12.0	86.7	13.3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86.7	13.3	90.0	10.0	100.0
	고졸	(287)	92.0	8.0	90.9	9.1	100.0
	대졸 이상	(208)	87.5	12.5	89.4	10.6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93.3	6.7	90.4	9.6	100.0
	자연과학	(58)	77.6	22.4	82.8	17.2	100.0
	예체능및기타	(28)	82.1	17.9	100.0	0.0	100.0
	무응답	(18)	94.4	5.6	88.9	11.1	100.0

4-2 ①테킬라 ②데킬라

[그림 3-32] ①테킬라 ②데킬라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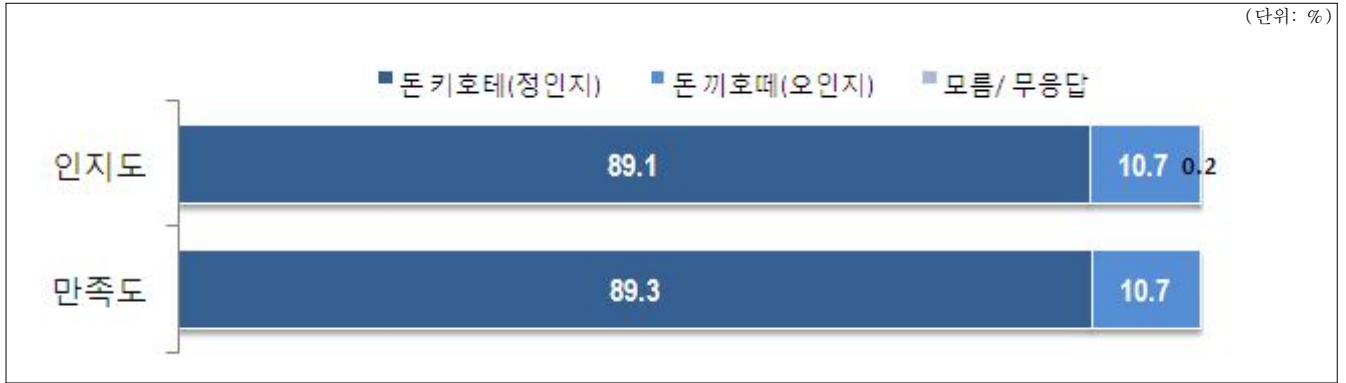
□ 테킬라 용례의 경우 가정주부들의 정인지 비율이 높았고, 만족도의 경우 가정주부와 중졸이하의 학력자들에서 높았음.

[표 3-32] ①테킬라 ②데킬라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테킬라	데킬라	테킬라	데킬라		
■ 전 체 ■	(525)	37.1	62.9	38.9	61.1	100.0	
■ 성 별 ■	남성	(260)	34.6	65.4	36.2	63.8	100.0
	여성	(265)	39.6	60.4	41.5	58.5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32.1	67.9	35.8	64.2	100.0
	30대	(129)	28.7	71.3	34.9	65.1	100.0
	40대	(127)	44.1	55.9	38.6	61.4	100.0
	50대	(92)	43.5	56.5	43.5	56.5	100.0
	60대이상	(68)	39.7	60.3	45.6	54.4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37.0	63.0	38.9	61.1	100.0
	블루칼라	(44)	34.1	65.9	25.0	75.0	100.0
	화이트칼라	(107)	32.7	67.3	31.8	68.2	100.0
	가정주부	(126)	46.0	54.0	47.6	52.4	100.0
	학생	(39)	23.1	76.9	28.2	71.8	100.0
	무직및무응답	(18)	44.4	55.6	50.0	50.0	100.0
	서비스업	(83)	36.1	63.9	44.6	55.4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56.7	43.3	60.0	40.0	100.0
	고졸	(287)	38.0	62.0	38.0	62.0	100.0
	대졸 이상	(208)	33.2	66.8	37.0	63.0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33.7	66.3	40.4	59.6	100.0
	자연과학	(58)	31.0	69.0	31.0	69.0	100.0
	예체능및기타	(28)	39.3	60.7	35.7	64.3	100.0
	무응답	(18)	27.8	72.2	38.9	61.1	100.0

4-3 ①돈 키호테 ②돈 끼호떼

[그림 3-33] ①돈 키호테 ②돈 끼호떼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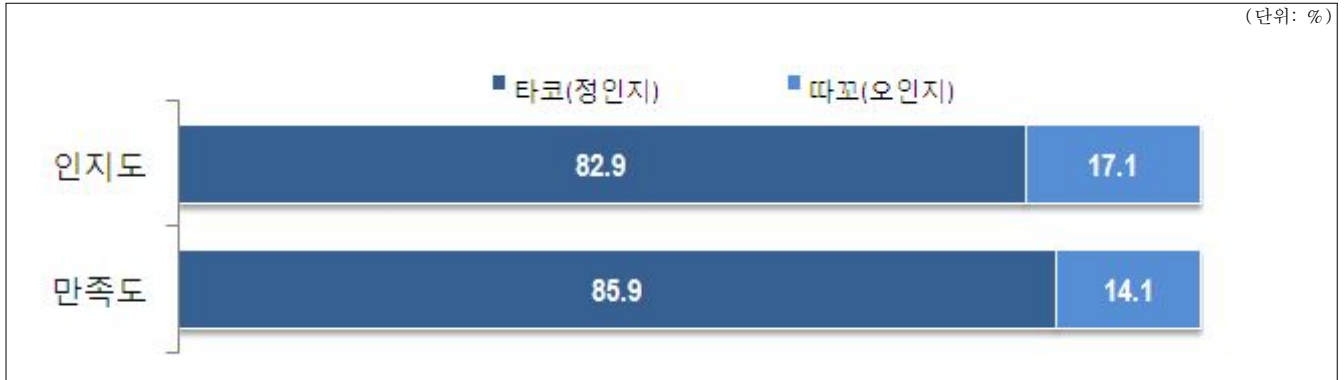
□ 돈 키호테의 표기의 정인지 비율은 모든 계층에서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만족도 비율은 남성(92.3%) 화이트칼라 직종(96.3%)에서 높게 나타남.

[표 3-33] ①돈 키호테 ②돈 끼호떼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돈 키호테	돈 끼호떼	돈 키호테	돈 끼호떼	모름/무응답	
■ 전 체 ■	(525)	89.3	10.7	89.1	10.7	0.2	100.0
■ 성 별 ■	남성 (260)	90.8	9.2	92.3	7.3	0.4	100.0
	여성 (265)	87.9	12.1	86.0	14.0	0.0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89.0	11.0	86.2	13.8	0.0	100.0
	30대 (129)	90.7	9.3	92.2	7.8	0.0	100.0
	40대 (127)	92.1	7.9	88.2	11.0	0.8	100.0
	50대 (92)	88.0	12.0	87.0	13.0	0.0	100.0
	60대이상 (68)	83.8	16.2	92.6	7.4	0.0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86.1	13.9	87.0	12.0	0.9	100.0
	블루칼라 (44)	88.6	11.4	88.6	11.4	0.0	100.0
	화이트칼라 (107)	93.5	6.5	96.3	3.7	0.0	100.0
	가정주부 (126)	88.1	11.9	84.1	15.9	0.0	100.0
	학생 (39)	87.2	12.8	92.3	7.7	0.0	100.0
	무직및무응답 (18)	88.9	11.1	88.9	11.1	0.0	100.0
	서비스업 (83)	91.6	8.4	89.2	10.8	0.0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80.0	20.0	90.0	10.0	0.0	100.0
	고졸 (287)	89.9	10.1	88.5	11.1	0.3	100.0
	대졸 이상 (208)	89.9	10.1	89.9	10.1	0.0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87.5	12.5	90.4	9.6	0.0	100.0
	자연과학 (58)	91.4	8.6	87.9	12.1	0.0	100.0
	예체능및기타 (28)	92.9	7.1	85.7	14.3	0.0	100.0
	무응답 (18)	94.4	5.6	100.0	0.0	0.0	100.0

4-4 ①타코 ②따꼬

[그림 3-34] ①타코 ②따꼬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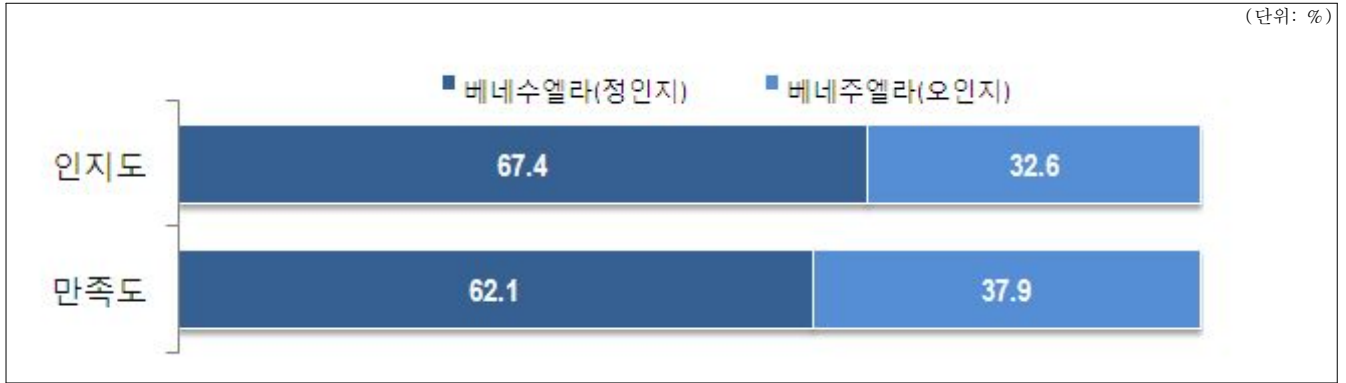
□ 타코 정인지 비율은 중졸이하의 학력자에 낮게 나타났고, 만족도 비율은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두드러진 차이는 보이는 계층은 나타나지 않음.

[표 3-34] ①타코 ②따꼬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타코	따꼬	타코	따꼬		
■ 전 체 ■	(525)	82.9	17.1	85.9	14.1	100.0	
■ 성 별 ■	남성	(260)	82.7	17.3	88.5	11.5	100.0
	여성	(265)	83.0	17.0	83.4	16.6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89.0	11.0	86.2	13.8	100.0
	30대	(129)	83.7	16.3	86.8	13.2	100.0
	40대	(127)	85.0	15.0	85.0	15.0	100.0
	50대	(92)	79.3	20.7	84.8	15.2	100.0
	60대이상	(68)	72.1	27.9	86.8	13.2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81.5	18.5	82.4	17.6	100.0
	블루칼라	(44)	81.8	18.2	95.5	4.5	100.0
	화이트칼라	(107)	86.9	13.1	88.8	11.2	100.0
	가정주부	(126)	78.6	21.4	81.0	19.0	100.0
	학생	(39)	97.4	2.6	89.7	10.3	100.0
	무직및무응답	(18)	77.8	22.2	88.9	11.1	100.0
	서비스업	(83)	80.7	19.3	86.7	13.3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66.7	33.3	90.0	10.0	100.0
	고졸	(287)	83.6	16.4	86.4	13.6	100.0
	대졸 이상	(208)	84.1	15.9	84.6	15.4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84.6	15.4	88.5	11.5	100.0
	자연과학	(58)	75.9	24.1	77.6	22.4	100.0
	예체능및기타	(28)	92.9	7.1	82.1	17.9	100.0
	무응답	(18)	94.4	5.6	88.9	11.1	100.0

4-5 ①베네주엘라 ②베네수엘라

[그림 3-35] ①베네주엘라 ②베네수엘라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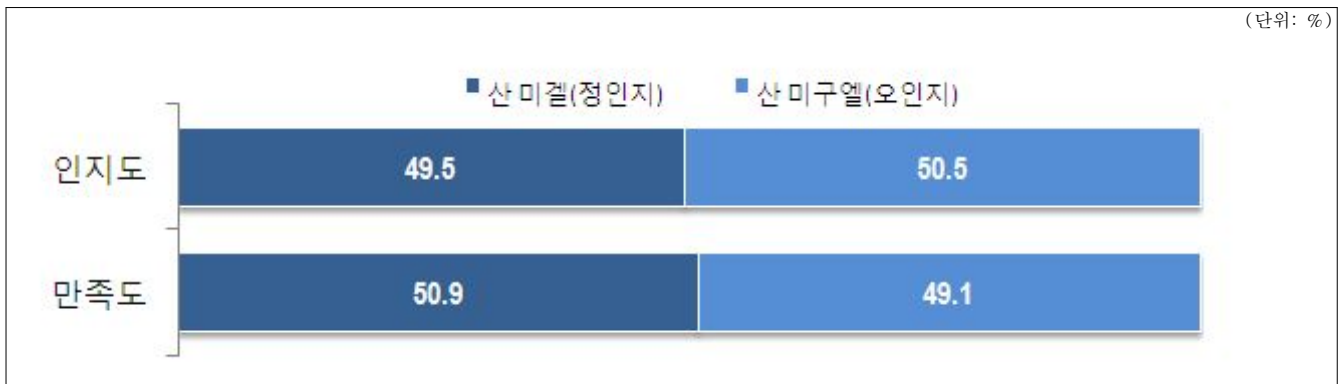
□ 베네주엘라 표기와 관련하여 가정주부가 42.9%로 전체 평균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었음.

[표 3-35] ①베네주엘라 ②베네수엘라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베네주엘라	베네수엘라	베네주엘라	베네수엘라		
■ 전 체 ■	(525)	32.6	67.4	37.9	62.1	100.0	
■ 성 별 ■	남성	(260)	30.8	69.2	35.4	64.6	100.0
	여성	(265)	34.3	65.7	40.4	59.6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27.5	72.5	31.2	68.8	100.0
	30대	(129)	27.9	72.1	34.9	65.1	100.0
	40대	(127)	36.2	63.8	42.5	57.5	100.0
	50대	(92)	35.9	64.1	42.4	57.6	100.0
	60대이상	(68)	38.2	61.8	39.7	60.3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25.9	74.1	35.2	64.8	100.0
	블루칼라	(44)	38.6	61.4	38.6	61.4	100.0
	화이트칼라	(107)	32.7	67.3	36.4	63.6	100.0
	가정주부	(126)	42.9	57.1	45.2	54.8	100.0
	학생	(39)	17.9	82.1	17.9	82.1	100.0
	무직및무응답	(18)	38.9	61.1	38.9	61.1	100.0
	서비스업	(83)	27.7	72.3	41.0	59.0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46.7	53.3	33.3	66.7	100.0
	고졸	(287)	34.1	65.9	39.4	60.6	100.0
	대졸 이상	(208)	28.4	71.6	36.5	63.5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24.0	76.0	38.5	61.5	100.0
	자연과학	(58)	34.5	65.5	37.9	62.1	100.0
	예체능및기타	(28)	42.9	57.1	42.9	57.1	100.0
	무응답	(18)	11.1	88.9	11.1	88.9	100.0

4-6 ①산 미겔 ②산 미구엘

[그림 3-36] ①산 미겔 ②산 미구엘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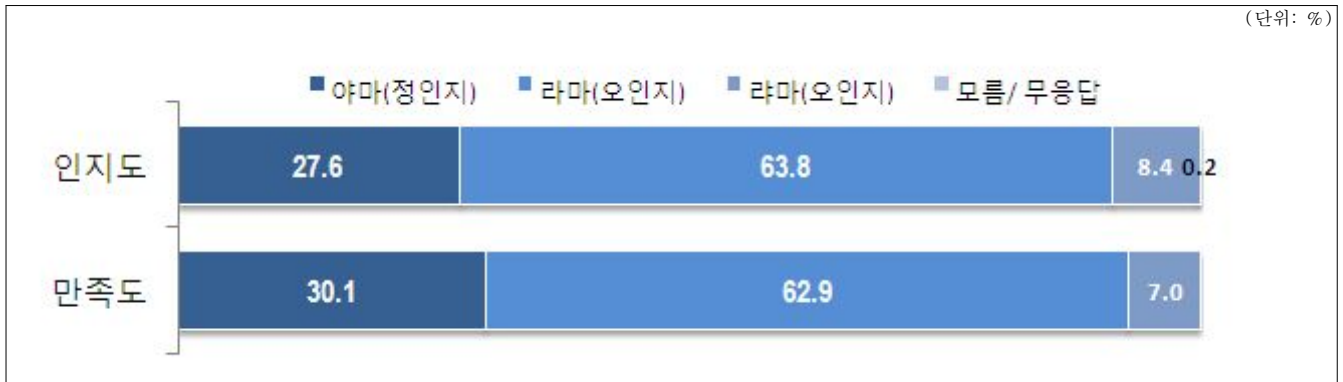
□ 산 미겔 용례와 관련하여 중졸이하의 학력자가 73.3%로 전체 평균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블루칼라가 36.4%로 유의미하게 낮았음.

[표 3-36] ①산 미겔 ②산 미구엘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산 미겔	산 미구엘	산 미겔	산 미구엘		
■ 전 체 ■	(525)	49.5	50.5	50.9	49.1	100.0	
■ 성 별 ■	남성	(260)	49.6	50.4	47.3	52.7	100.0
	여성	(265)	49.4	50.6	54.3	45.7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56.9	43.1	58.7	41.3	100.0
	30대	(129)	54.3	45.7	51.2	48.8	100.0
	40대	(127)	44.1	55.9	49.6	50.4	100.0
	50대	(92)	45.7	54.3	46.7	53.3	100.0
	60대이상	(68)	44.1	55.9	45.6	54.4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57.4	42.6	53.7	46.3	100.0
	블루칼라	(44)	52.3	47.7	36.4	63.6	100.0
	화이트칼라	(107)	50.5	49.5	55.1	44.9	100.0
	가정주부	(126)	45.2	54.8	51.6	48.4	100.0
	학생	(39)	59.0	41.0	56.4	43.6	100.0
	무직및무응답	(18)	44.4	55.6	55.6	44.4	100.0
	서비스업	(83)	39.8	60.2	44.6	55.4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73.3	26.7	63.3	36.7	100.0
	고졸	(287)	46.7	53.3	49.1	50.9	100.0
	대졸 이상	(208)	50.0	50.0	51.4	48.6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44.2	55.8	46.2	53.8	100.0
	자연과학	(58)	58.6	41.4	55.2	44.8	100.0
	예체능및기타	(28)	50.0	50.0	57.1	42.9	100.0
	무응답	(18)	55.6	44.4	61.1	38.9	100.0

4-7 ①야마 ②라마 ③라마

[그림 3-37] ①야마 ②라마 ③라마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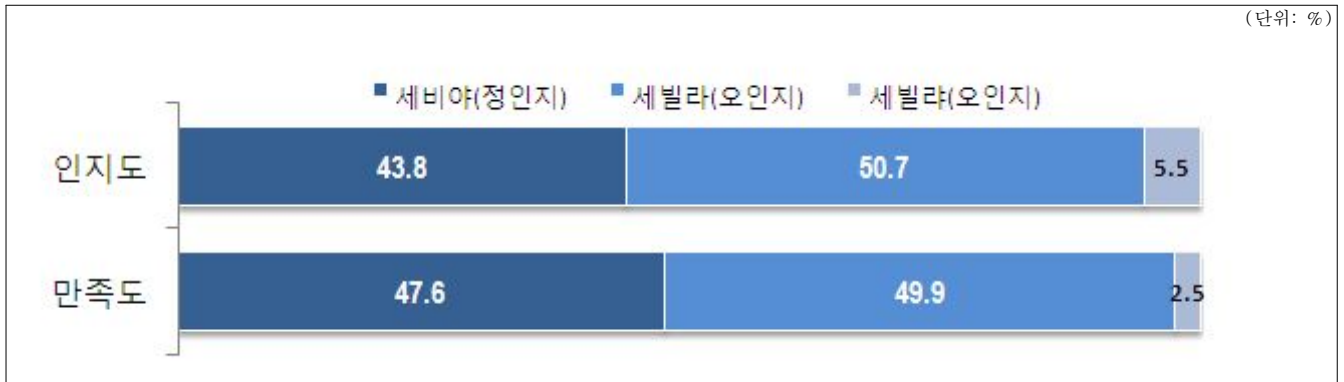
□ 야마 표기와 관련하여 전 응답자 계층이 만족도 및 인지도 응답에서 30% 내외로 응답하여 특별히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표 3-37] ①야마 ②라마 ③라마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정인지				만족도			계	
		라마	야마	라마	모름/ 무응답	라마	야마	라마		
■ 전 체 ■	(525)	63.8	27.6	8.4	0.2	62.9	30.1	7.0	100.0	
■ 성 별 ■	남성	(260)	64.6	28.1	7.3	0.0	64.6	28.8	6.5	100.0
	여성	(265)	63.0	27.2	9.4	0.4	61.1	31.3	7.5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71.6	19.3	9.2	0.0	68.8	24.8	6.4	100.0
	30대	(129)	64.3	29.5	6.2	0.0	60.5	34.1	5.4	100.0
	40대	(127)	63.8	29.1	7.1	0.0	65.4	29.9	4.7	100.0
	50대	(92)	59.8	30.4	8.7	1.1	60.9	31.5	7.6	100.0
	60대이상	(68)	55.9	30.9	13.2	0.0	55.9	29.4	14.7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62.0	29.6	8.3	0.0	65.7	26.9	7.4	100.0
	블루칼라	(44)	56.8	34.1	9.1	0.0	63.6	31.8	4.5	100.0
	화이트칼라	(107)	72.0	21.5	6.5	0.0	64.5	31.8	3.7	100.0
	가정주부	(126)	61.1	30.2	7.9	0.8	57.9	36.5	5.6	100.0
	학생	(39)	79.5	15.4	5.1	0.0	82.1	5.1	12.8	100.0
	무직및무응답	(18)	55.6	27.8	16.7	0.0	50.0	33.3	16.7	100.0
	서비스업	(83)	57.8	31.3	10.8	0.0	57.8	32.5	9.6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43.3	26.7	30.0	0.0	43.3	40.0	16.7	100.0
	고졸	(287)	62.7	28.6	8.7	0.0	65.2	28.9	5.9	100.0
	대졸 이상	(208)	68.3	26.4	4.8	0.5	62.5	30.3	7.2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73.1	24.0	1.9	1.0	66.3	26.9	6.7	100.0
	자연과학	(58)	62.1	29.3	8.6	0.0	60.3	32.8	6.9	100.0
	예체능및기타	(28)	46.4	42.9	10.7	0.0	42.9	50.0	7.1	100.0
	무응답	(18)	94.4	5.6	0.0	0.0	77.8	11.1	11.1	100.0

4-8 ①세빌라 ②세비아 ③세빌라

[그림 3-38] ①세빌라 ②세비아 ③세빌라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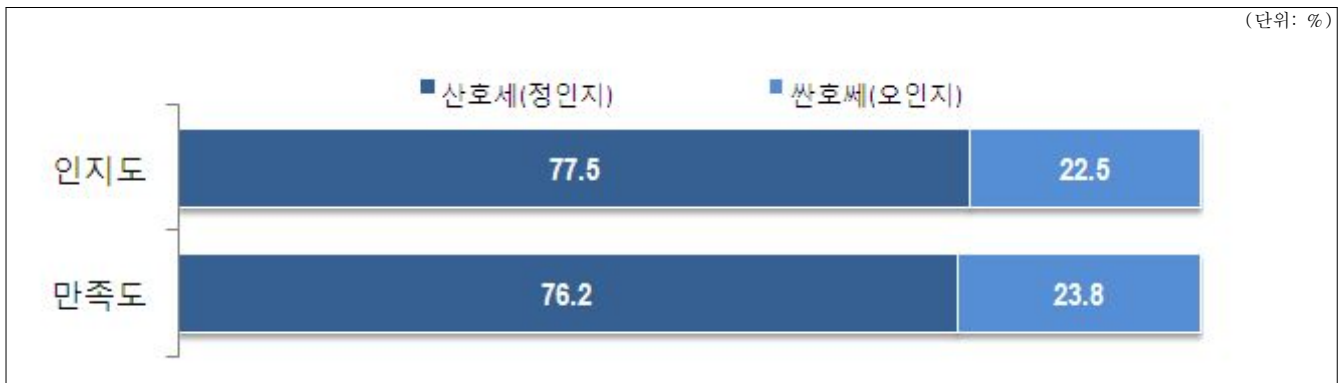
□ 세비아 용례의 경우 남성과 학생에서 정인지 비율이 높았고, 만족도의 경우 학생들에게서 높게 나타남.

[표 3-38] ①세빌라 ②세비아 ③세빌라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정인지			만족도			계
		세빌라	세비아	세빌라	세빌라	세비아	세빌라	
■ 전 체 ■	(525)	50.7	43.8	5.5	49.9	47.6	2.5	100.0
■ 성 별 ■	남성 (260)	46.5	48.1	5.4	46.9	51.2	1.9	100.0
	여성 (265)	54.7	39.6	5.7	52.8	44.2	3.0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45.9	52.3	1.8	45.0	54.1	0.9	100.0
	30대 (129)	50.4	41.1	8.5	53.5	45.0	1.6	100.0
	40대 (127)	55.1	38.6	6.3	54.3	41.7	3.9	100.0
	50대 (92)	51.1	44.6	4.3	47.8	50.0	2.2	100.0
	60대이상 (68)	50.0	44.1	5.9	45.6	50.0	4.4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56.5	39.8	3.7	53.7	45.4	0.9	100.0
	블루칼라 (44)	45.5	45.5	9.1	40.9	52.3	6.8	100.0
	화이트칼라 (107)	52.3	43.9	3.7	57.0	43.0	0.0	100.0
	가정주부 (126)	54.8	40.5	4.8	57.1	40.5	2.4	100.0
	학생 (39)	28.2	66.7	5.1	30.8	69.2	0.0	100.0
	무직및무응답 (18)	61.1	22.2	16.7	33.3	50.0	16.7	100.0
	서비스업 (83)	45.8	47.0	7.2	42.2	54.2	3.6	100.0
	중졸 이하 (30)	43.3	46.7	10.0	40.0	56.7	3.3	100.0
■ 학 력 ■	고졸 (287)	54.4	41.5	4.2	51.6	46.3	2.1	100.0
	대졸 이상 (208)	46.6	46.6	6.7	49.0	48.1	2.9	100.0
	인문사회과학 (104)	48.1	46.2	5.8	49.0	47.1	3.8	100.0
■ 전 공 ■	자연과학 (58)	46.6	46.6	6.9	51.7	46.6	1.7	100.0
	예체능및기타 (28)	42.9	42.9	14.3	64.3	32.1	3.6	100.0
	무응답 (18)	44.4	55.6	0.0	16.7	83.3	0.0	100.0

4-9 ①싼호씨 ②산호세

[그림 3-39] ①싼호씨 ②산호세



[집단별 특성]

□ 산호세 표기에서 있어서 인지도 및 만족도 비율 모두 75%내외로 응답자군간의 두드러진 차이는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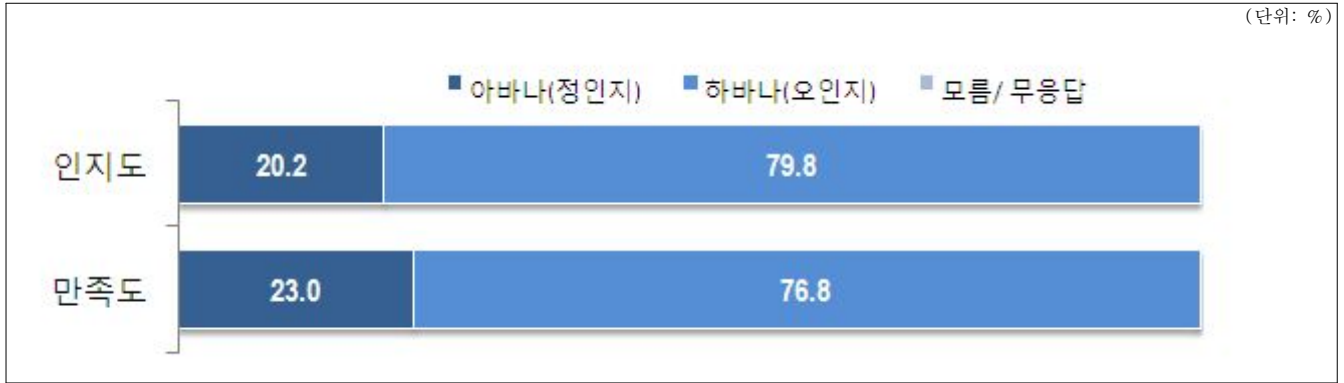
[표 3-39] ①싼호씨 ②산호세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싼호씨	산호세	싼호씨	산호세	
■ 전 체 ■	(525)	22.5	77.5	23.8	76.2	100.0
■ 성 별 ■						
남성	(260)	22.7	77.3	26.5	73.5	100.0
여성	(265)	22.3	77.7	21.1	78.9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22.9	77.1	17.4	82.6	100.0
30대	(129)	19.4	80.6	27.9	72.1	100.0
40대	(127)	22.0	78.0	22.8	77.2	100.0
50대	(92)	27.2	72.8	28.3	71.7	100.0
60대이상	(68)	22.1	77.9	22.1	77.9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23.1	76.9	27.8	72.2	100.0
블루칼라	(44)	27.3	72.7	20.5	79.5	100.0
화이트칼라	(107)	21.5	78.5	26.2	73.8	100.0
가정주부	(126)	23.0	77.0	27.0	73.0	100.0
학생	(39)	25.6	74.4	10.3	89.7	100.0
무직및무응답	(18)	16.7	83.3	22.2	77.8	100.0
서비스업	(83)	19.3	80.7	19.3	80.7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36.7	63.3	36.7	63.3	100.0
고졸	(287)	22.3	77.7	21.3	78.7	100.0
대졸 이상	(208)	20.7	79.3	25.5	74.5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20.2	79.8	28.8	71.2	100.0
자연과학	(58)	20.7	79.3	20.7	79.3	100.0
예체능및기타	(28)	25.0	75.0	32.1	67.9	100.0
무응답	(18)	16.7	83.3	11.1	88.9	100.0

4-10

①하바나 ②아바나

[그림 3-40] ①하바나 ②아바나



[집단별 특성]

□ 아바나 표기의 경우 모든 계층에서 20%내외로 정인지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고, 만족도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었음.

[표 3-40] ①하바나 ②아바나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하바나	아바나	하바나	아바나	모름/무응답	
■ 전 체 ■	(525)	79.8	20.2	76.8	23.0	0.2	100.0
■ 성 별 ■	남성 (260)	80.0	20.0	78.1	21.5	0.4	100.0
	여성 (265)	79.6	20.4	75.5	24.5	0.0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75.2	24.8	80.7	19.3	0.0	100.0
	30대 (129)	86.0	14.0	83.7	16.3	0.0	100.0
	40대 (127)	81.9	18.1	78.7	20.5	0.8	100.0
	50대 (92)	75.0	25.0	69.6	30.4	0.0	100.0
	60대이상 (68)	77.9	22.1	63.2	36.8	0.0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74.1	25.9	76.9	22.2	0.9	100.0
	블루칼라 (44)	84.1	15.9	75.0	25.0	0.0	100.0
	화이트칼라 (107)	77.6	22.4	79.4	20.6	0.0	100.0
	가정주부 (126)	84.1	15.9	72.2	27.8	0.0	100.0
	학생 (39)	79.5	20.5	84.6	15.4	0.0	100.0
	무직및무응답 (18)	72.2	27.8	72.2	27.8	0.0	100.0
	서비스업 (83)	83.1	16.9	78.3	21.7	0.0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70.0	30.0	50.0	50.0	0.0	100.0
	고졸 (287)	80.8	19.2	76.7	23.0	0.3	100.0
	대졸 이상 (208)	79.8	20.2	80.8	19.2	0.0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82.7	17.3	81.7	18.3	0.0	100.0
	자연과학 (58)	72.4	27.6	70.7	29.3	0.0	100.0
	예체능및기타 (28)	85.7	14.3	96.4	3.6	0.0	100.0
	무응답 (18)	77.8	22.2	83.3	16.7	0.0	100.0

5-1 ①파스타 ②빠스타

[그림 3-41] ①파스타 ②빠스타



[집단별 특성]

□ 파스타 용례의 경우 고졸 학력자 집단에서 정인지 및 만족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41] ①파스타 ②빠스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파스타	빠스타	파스타	빠스타	모름/무응답	
■ 전 체 ■	(525)	93.7	6.3	93.9	5.9	0.2	100.0
■ 성 별 ■	남성 (260)	92.3	7.7	95.0	4.6	0.4	100.0
	여성 (265)	95.1	4.9	92.8	7.2	0.0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92.7	7.3	93.6	6.4	0.0	100.0
	30대 (129)	94.6	5.4	94.6	5.4	0.0	100.0
	40대 (127)	91.3	8.7	94.5	5.5	0.0	100.0
	50대 (92)	94.6	5.4	96.7	3.3	0.0	100.0
	60대이상 (68)	97.1	2.9	88.2	10.3	1.5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92.6	7.4	93.5	6.5	0.0	100.0
	블루칼라 (44)	97.7	2.3	93.2	4.5	2.3	100.0
	화이트칼라 (107)	96.3	3.7	95.3	4.7	0.0	100.0
	가정주부 (126)	93.7	6.3	93.7	6.3	0.0	100.0
	학생 (39)	92.3	7.7	94.9	5.1	0.0	100.0
	무직및무응답 (18)	94.4	5.6	88.9	11.1	0.0	100.0
	서비스업 (83)	90.4	9.6	94.0	6.0	0.0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100.0	0.0	90.0	6.7	3.3	100.0
	고졸 (287)	95.8	4.2	96.5	3.5	0.0	100.0
	대졸 이상 (208)	89.9	10.1	90.9	9.1	0.0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91.3	8.7	92.3	7.7	0.0	100.0
	자연과학 (58)	82.8	17.2	86.2	13.8	0.0	100.0
	예체능및기타 (28)	92.9	7.1	92.9	7.1	0.0	100.0
	무응답 (18)	100.0	0.0	94.4	5.6	0.0	100.0

5-2 ①포르테 ②포르떼

[그림 3-42] ①포르테 ②포르떼



[집단별 특성]

□ 포르테 표기의 경우 중졸이하의 학력자가 80.0%로 전체 평균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30대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4] ①포르테 ②포르떼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포르테	포르떼	모름/무응답	포르테	포르떼	모름/무응답		
■ 전 체 ■	(525)	91.8	8.0	0.2	90.9	9.0	0.2	100.0	
■ 성 별 ■	남성	(260)	93.5	6.5	0.0	91.9	8.1	0.0	100.0
	여성	(265)	90.2	9.4	0.4	89.8	9.8	0.4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89.9	10.1	0.0	86.2	13.8	0.0	100.0
	30대	(129)	95.3	3.9	0.8	98.4	1.6	0.0	100.0
	40대	(127)	92.1	7.9	0.0	89.8	10.2	0.0	100.0
	50대	(92)	90.2	9.8	0.0	87.0	12.0	1.1	100.0
	60대이상	(68)	89.7	10.3	0.0	91.2	8.8	0.0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90.7	9.3	0.0	91.7	8.3	0.0	100.0
	블루칼라	(44)	88.6	9.1	2.3	93.2	6.8	0.0	100.0
	화이트칼라	(107)	93.5	6.5	0.0	94.4	5.6	0.0	100.0
	가정주부	(126)	91.3	8.7	0.0	88.1	11.1	0.8	100.0
	학생	(39)	87.2	12.8	0.0	92.3	7.7	0.0	100.0
	무직및무응답	(18)	88.9	11.1	0.0	83.3	16.7	0.0	100.0
	서비스업	(83)	96.4	3.6	0.0	89.2	10.8	0.0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80.0	20.0	0.0	90.0	10.0	0.0	100.0
	고졸	(287)	93.0	6.6	0.3	90.9	8.7	0.3	100.0
	대졸 이상	(208)	91.8	8.2	0.0	90.9	9.1	0.0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92.3	7.7	0.0	92.3	7.7	0.0	100.0
	자연과학	(58)	89.7	10.3	0.0	86.2	13.8	0.0	100.0
	예체능및기타	(28)	89.3	10.7	0.0	89.3	10.7	0.0	100.0
	무응답	(18)	100.0	0.0	0.0	100.0	0.0	0.0	100.0

5-3 ①피차 ②피차 ③핏자

[그림 3-43] ①피차 ②피차 ③핏자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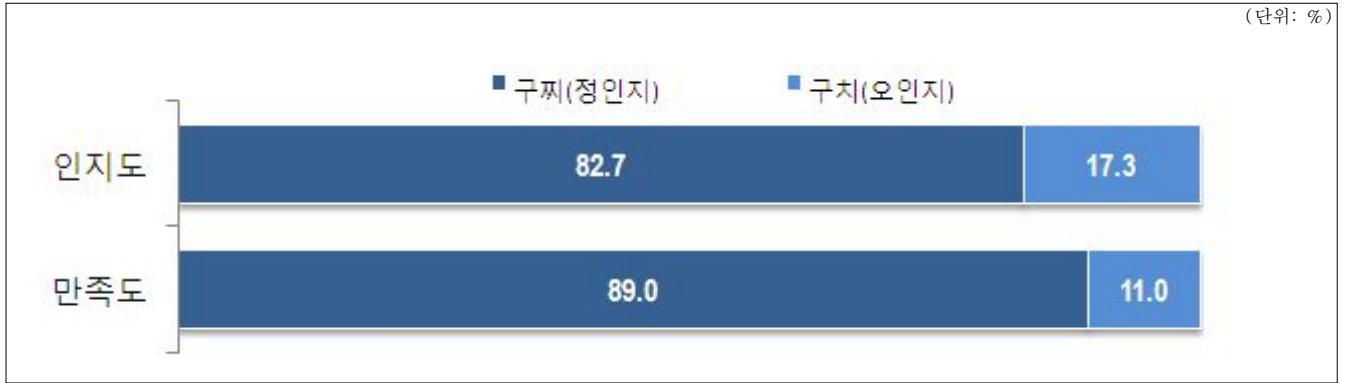
□ 피차 표기는 전 응답자 군에서 85%내외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만족도의 경우 중졸이하의 학력자가 76.7%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3] ①피차 ②피차 ③핏자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피차	핏자	피차	피차	피차	핏자	
■ 전 체 ■	(525)	86.5	7.0	6.5	91.4	5.9	2.7	100.0
■ 성 별 ■	남성 (260)	88.5	6.9	4.6	93.8	3.8	2.3	100.0
	여성 (265)	84.5	7.2	8.3	89.1	7.9	3.0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85.3	7.3	7.3	89.0	8.3	2.8	100.0
	30대 (129)	89.1	3.9	7.0	95.3	2.3	2.3	100.0
	40대 (127)	85.8	8.7	5.5	92.9	3.9	3.1	100.0
	50대 (92)	87.0	7.6	5.4	90.2	7.6	2.2	100.0
	60대이상 (68)	83.8	8.8	7.4	86.8	10.3	2.9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86.1	5.6	8.3	92.6	5.6	1.9	100.0
	블루칼라 (44)	84.1	13.6	2.3	93.2	2.3	4.5	100.0
	화이트칼라 (107)	89.7	5.6	4.7	89.7	4.7	5.6	100.0
	가정주부 (126)	85.7	6.3	7.9	91.3	7.1	1.6	100.0
	학생 (39)	82.1	12.8	5.1	89.7	7.7	2.6	100.0
	무직및무응답 (18)	72.2	16.7	11.1	83.3	16.7	0.0	100.0
	서비스업 (83)	90.4	3.6	6.0	94.0	4.8	1.2	100.0
	중졸 이하 (30)	80.0	10.0	10.0	76.7	23.3	0.0	100.0
■ 학 력 ■	고졸 (287)	88.5	8.0	3.5	94.4	2.8	2.8	100.0
	대졸 이상 (208)	84.6	5.3	10.1	89.4	7.7	2.9	100.0
	인문사회과학 (104)	87.5	3.8	8.7	90.4	5.8	3.8	100.0
■ 전 공 ■	자연과학 (58)	79.3	6.9	13.8	82.8	15.5	1.7	100.0
	예체능및기타 (28)	82.1	7.1	10.7	96.4	0.0	3.6	100.0
	무응답 (18)	88.9	5.6	5.6	94.4	5.6	0.0	100.0

5-4 ①구찌 ②구치

[그림 3-44] ①구찌 ②구치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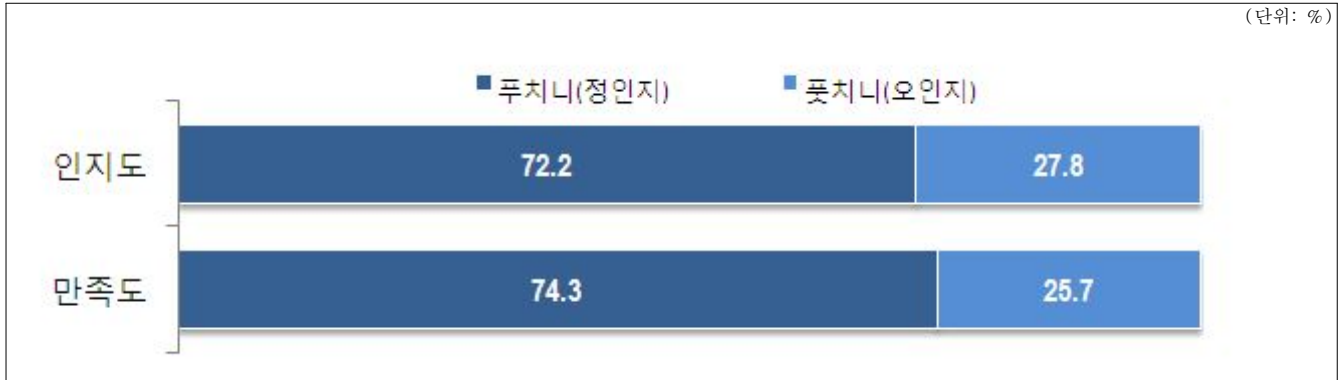
□ 구찌 표기의 경우 정인지 비율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만족도의 경우 인문사회과학 전공자들이 전체 평균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44] ①구찌 ②구치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구찌	구치	구찌	구치		
■ 전 체 ■	(525)	82.7	17.3	89.0	11.0	100.0	
■ 성 별 ■	남성	(260)	82.7	17.3	88.5	11.5	100.0
	여성	(265)	82.6	17.4	89.4	10.6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78.0	22.0	85.3	14.7	100.0
	30대	(129)	83.7	16.3	91.5	8.5	100.0
	40대	(127)	87.4	12.6	89.0	11.0	100.0
	50대	(92)	80.4	19.6	90.2	9.8	100.0
	60대이상	(68)	82.4	17.6	88.2	11.8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84.3	15.7	88.0	12.0	100.0
	블루칼라	(44)	79.5	20.5	86.4	13.6	100.0
	화이트칼라	(107)	81.3	18.7	87.9	12.1	100.0
	가정주부	(126)	86.5	13.5	88.9	11.1	100.0
	학생	(39)	76.9	23.1	97.4	2.6	100.0
	무직및무응답	(18)	72.2	27.8	83.3	16.7	100.0
	서비스업	(83)	83.1	16.9	90.4	9.6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86.7	13.3	93.3	6.7	100.0
	고졸	(287)	83.6	16.4	88.2	11.8	100.0
	대졸 이상	(208)	80.8	19.2	89.4	10.6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83.7	16.3	94.2	5.8	100.0
	자연과학	(58)	79.3	20.7	86.2	13.8	100.0
	예체능및기타	(28)	67.9	32.1	78.6	21.4	100.0
	무응답	(18)	88.9	11.1	88.9	11.1	100.0

5-5 ①푸치니 ②푼치니

[그림 3-45] ①푸치니 ②푼치니



[집단별 특성]

□ 푸치니 표기의 경우 20대(81.7%), 화이트칼라(81.3%), 대졸 학력자(78.5%)에서 높았고, 만족도의 경우 전체 평균 비율에 대해 두드러지는 계층은 없었음.

[표 3-45] ①푸치니 ②푼치니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푸치니	푼치니	푸치니	푼치니		
■ 전 체 ■	(525)	72.2	27.8	74.3	25.7	100.0	
■ 성 별 ■	남성	(260)	72.3	27.7	76.5	23.5	100.0
	여성	(265)	72.1	27.9	72.1	27.9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81.7	18.3	77.1	22.9	100.0
	30대	(129)	76.7	23.3	79.1	20.9	100.0
	40대	(127)	66.1	33.9	74.0	26.0	100.0
	50대	(92)	78.3	21.7	71.7	28.3	100.0
	60대이상	(68)	51.5	48.5	64.7	35.3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68.5	31.5	76.9	23.1	100.0
	블루칼라	(44)	70.5	29.5	63.6	36.4	100.0
	화이트칼라	(107)	81.3	18.7	78.5	21.5	100.0
	가정주부	(126)	66.7	33.3	68.3	31.7	100.0
	학생	(39)	87.2	12.8	79.5	20.5	100.0
	무직및무응답	(18)	50.0	50.0	61.1	38.9	100.0
	서비스업	(83)	72.3	27.7	80.7	19.3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53.3	46.7	60.0	40.0	100.0
	고졸	(287)	69.3	30.7	73.5	26.5	100.0
	대졸 이상	(208)	78.8	21.2	77.4	22.6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78.8	21.2	77.9	22.1	100.0
	자연과학	(58)	72.4	27.6	81.0	19.0	100.0
	예체능및기타	(28)	82.1	17.9	60.7	39.3	100.0
	무응답	(18)	94.4	5.6	88.9	11.1	100.0

5-6 ①스파게티 ②스파갯티

[그림 3-46] ①스파게티 ②스파갯티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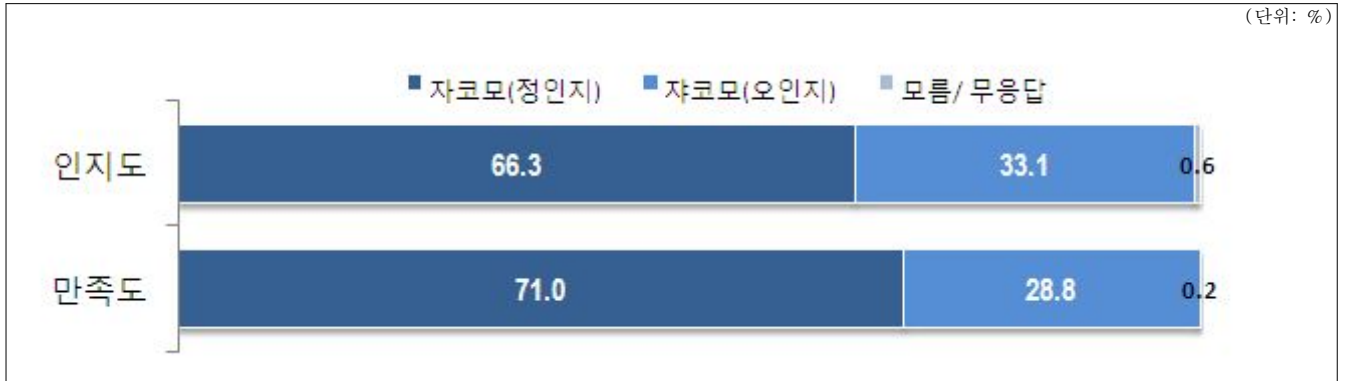
□ 스파게티 용례에 있어서, 중졸이하 학력자가 76.7%로 전체 평균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의 경우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3-46] ①스파게티 ②스파갯티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스파게티	스파갯티	스파게티	스파갯티		
■ 전 체 ■	(525)	90.3	9.7	87.8	12.2	100.0	
■ 성 별 ■	남성	(260)	90.8	9.2	89.6	10.4	100.0
	여성	(265)	89.8	10.2	86.0	14.0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89.9	10.1	84.4	15.6	100.0
	30대	(129)	94.6	5.4	92.2	7.8	100.0
	40대	(127)	92.1	7.9	90.6	9.4	100.0
	50대	(92)	84.8	15.2	84.8	15.2	100.0
	60대이상	(68)	86.8	13.2	83.8	16.2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89.8	10.2	88.9	11.1	100.0
	블루칼라	(44)	84.1	15.9	88.6	11.4	100.0
	화이트칼라	(107)	92.5	7.5	90.7	9.3	100.0
	가정주부	(126)	89.7	10.3	83.3	16.7	100.0
	학생	(39)	89.7	10.3	87.2	12.8	100.0
	무직및무응답	(18)	88.9	11.1	83.3	16.7	100.0
	서비스업	(83)	92.8	7.2	90.4	9.6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76.7	23.3	80.0	20.0	100.0
	고졸	(287)	90.6	9.4	88.9	11.1	100.0
	대졸 이상	(208)	91.8	8.2	87.5	12.5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92.3	7.7	90.4	9.6	100.0
	자연과학	(58)	91.4	8.6	84.5	15.5	100.0
	예체능및기타	(28)	92.9	7.1	82.1	17.9	100.0
	무응답	(18)	88.9	11.1	88.9	11.1	100.0

5-7 ①자코모 ②자코모

[그림 3-47] ①자코모 ②자코모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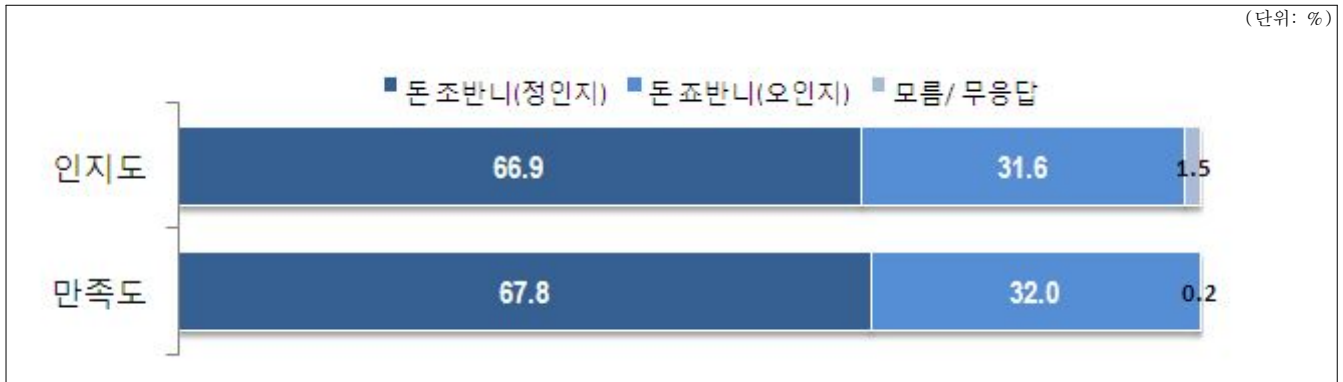
□ 자코모 표기에 있어서, 60대 이상(54.4%), 중졸이하의 학력자(46.7%)에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7] ①자코모 ②자코모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자코모	자코모	모름/무응답	자코모	자코모	모름/무응답	
■ 전 체 ■	(525)	66.3	33.1	0.6	71.0	28.8	0.2	100.0
■ 성 별 ■								
남성	(260)	66.9	32.3	0.8	70.0	29.6	0.4	100.0
여성	(265)	65.7	34.0	0.4	72.1	27.9	0.0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69.7	29.4	0.9	65.1	34.9	0.0	100.0
30대	(129)	72.1	27.1	0.8	77.5	22.5	0.0	100.0
40대	(127)	63.8	35.4	0.8	72.4	26.8	0.8	100.0
50대	(92)	66.3	33.7	0.0	71.7	28.3	0.0	100.0
60대이상	(68)	54.4	45.6	0.0	64.7	35.3	0.0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69.4	29.6	0.9	72.2	26.9	0.9	100.0
블루칼라	(44)	70.5	27.3	2.3	77.3	22.7	0.0	100.0
화이트칼라	(107)	69.2	30.8	0.0	78.5	21.5	0.0	100.0
가정주부	(126)	59.5	40.5	0.0	70.6	29.4	0.0	100.0
학생	(39)	56.4	43.6	0.0	59.0	41.0	0.0	100.0
무직및무응답	(18)	66.7	33.3	0.0	77.8	22.2	0.0	100.0
서비스업	(83)	71.1	27.7	1.2	61.4	38.6	0.0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46.7	50.0	3.3	70.0	30.0	0.0	100.0
고졸	(287)	67.9	31.4	0.7	73.9	25.8	0.3	100.0
대졸 이상	(208)	66.8	33.2	0.0	67.3	32.7	0.0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65.4	34.6	0.0	66.3	33.7	0.0	100.0
자연과학	(58)	69.0	31.0	0.0	72.4	27.6	0.0	100.0
예체능및기타	(28)	75.0	25.0	0.0	71.4	28.6	0.0	100.0
무응답	(18)	55.6	44.4	0.0	50.0	50.0	0.0	100.0

5-8 ①돈 조반니 ②돈 죠반니

[그림 3-48] ①돈 조반니 ②돈 죠반니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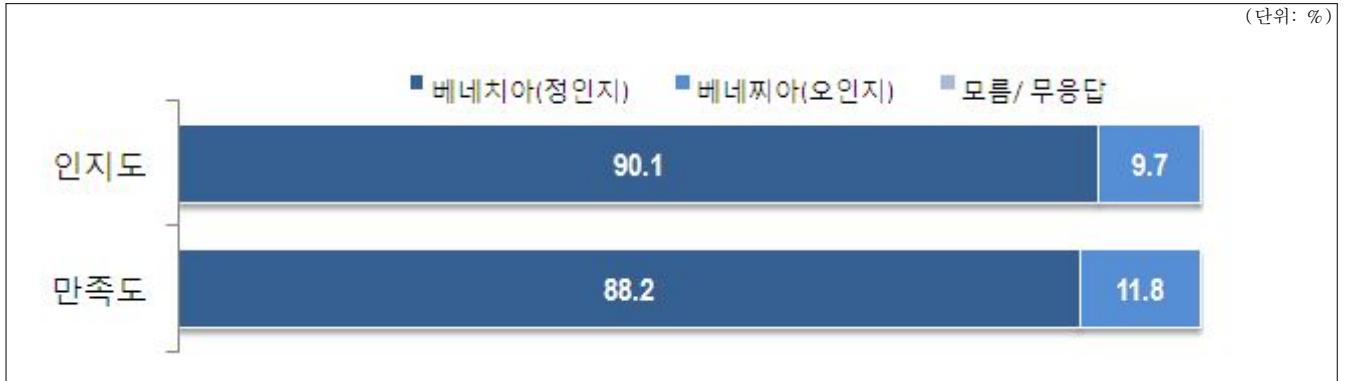
□ 돈 조반니 표기에 있어서, 30대(76.0%), 화이트칼라(77.6%)에서 정인지 비율이 전체 평균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만족도의 경우 블루칼라에서 만족한다는 비율이(84.1%)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48] ①돈 조반니 ②돈 죠반니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돈 조반니	돈 죠반니	모름/무응답	돈 조반니	돈 죠반니	모름/무응답		
■ 전 체 ■	(525)	66.9	31.6	1.5	67.8	32.0	0.2	100.0	
■ 성 별 ■	남성	(260)	63.8	35.0	1.2	68.5	31.2	0.4	100.0
	여성	(265)	69.8	28.3	1.9	67.2	32.8	0.0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62.4	35.8	1.8	65.1	34.9	0.0	100.0
	30대	(129)	76.0	21.7	2.3	73.6	26.4	0.0	100.0
	40대	(127)	69.3	29.1	1.6	71.7	27.6	0.8	100.0
	50대	(92)	59.8	39.1	1.1	65.2	34.8	0.0	100.0
	60대이상	(68)	61.8	38.2	0.0	57.4	42.6	0.0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62.0	36.1	1.9	59.3	39.8	0.9	100.0
	블루칼라	(44)	56.8	40.9	2.3	84.1	15.9	0.0	100.0
	화이트칼라	(107)	77.6	20.6	1.9	78.5	21.5	0.0	100.0
	가정주부	(126)	68.3	30.2	1.6	69.8	30.2	0.0	100.0
	학생	(39)	53.8	46.2	0.0	53.8	46.2	0.0	100.0
	무직및무응답	(18)	66.7	33.3	0.0	50.0	50.0	0.0	100.0
	서비스업	(83)	68.7	30.1	1.2	63.9	36.1	0.0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56.7	43.3	0.0	53.3	46.7	0.0	100.0
	고졸	(287)	69.0	28.9	2.1	68.6	31.0	0.3	100.0
	대졸 이상	(208)	65.4	33.7	1.0	68.8	31.3	0.0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68.3	31.7	0.0	69.2	30.8	0.0	100.0
	자연과학	(58)	62.1	36.2	1.7	72.4	27.6	0.0	100.0
	예체능및기타	(28)	53.6	42.9	3.6	64.3	35.7	0.0	100.0
	무응답	(18)	77.8	22.2	0.0	61.1	38.9	0.0	100.0

5-9 ①베네치아 ②베네찌아

[그림 3-49] ①베네치아 ②베네찌아



[집단별 특성]

□ 베네치아 표기에 있어서, 30대가 95.3%로 다른 계층보다 정인지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만족도의 경우 화이트칼라가 94.4%로 다른 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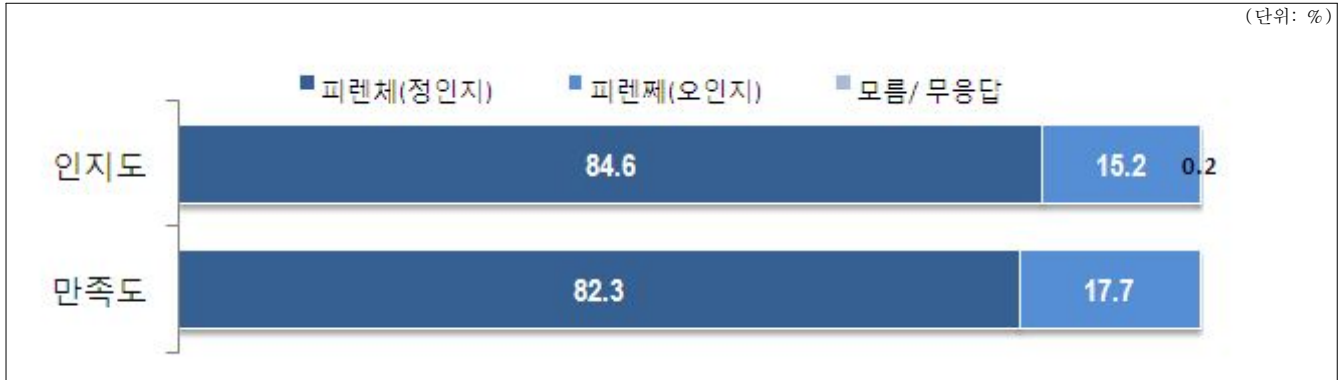
[표 3-49] ①베네치아 ②베네찌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베네치아	베네찌아	모름/ 무응답	베네치아	베네찌아		
■ 전 체 ■	(525)	90.1	9.7	0.2	88.2	11.8	100.0	
□ 성 별 □	남성	(260)	91.5	8.5	0.0	88.5	11.5	100.0
	여성	(265)	88.7	10.9	0.4	87.9	12.1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91.7	8.3	0.0	88.1	11.9	100.0
	30대	(129)	95.3	4.7	0.0	93.0	7.0	100.0
	40대	(127)	89.8	10.2	0.0	89.0	11.0	100.0
	50대	(92)	85.9	14.1	0.0	84.8	15.2	100.0
	60대이상	(68)	83.8	14.7	1.5	82.4	17.6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89.8	10.2	0.0	82.4	17.6	100.0
	블루칼라	(44)	90.9	9.1	0.0	95.5	4.5	100.0
	화이트칼라	(107)	94.4	5.6	0.0	94.4	5.6	100.0
	가정주부	(126)	84.9	14.3	0.8	87.3	12.7	100.0
	학생	(39)	87.2	12.8	0.0	87.2	12.8	100.0
	무직및무응답	(18)	83.3	16.7	0.0	72.2	27.8	100.0
	서비스업	(83)	95.2	4.8	0.0	89.2	10.8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76.7	20.0	3.3	76.7	23.3	100.0
	고졸	(287)	90.6	9.4	0.0	91.3	8.7	100.0
	대졸 이상	(208)	91.3	8.7	0.0	85.6	14.4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91.3	8.7	0.0	84.6	15.4	100.0
	자연과학	(58)	89.7	10.3	0.0	86.2	13.8	100.0
	예체능및기타	(28)	92.9	7.1	0.0	89.3	10.7	100.0
	무응답	(18)	94.4	5.6	0.0	83.3	16.7	100.0

5-10

①피렌체 ②피렌제

[그림 3-50] ①피렌체 ②피렌제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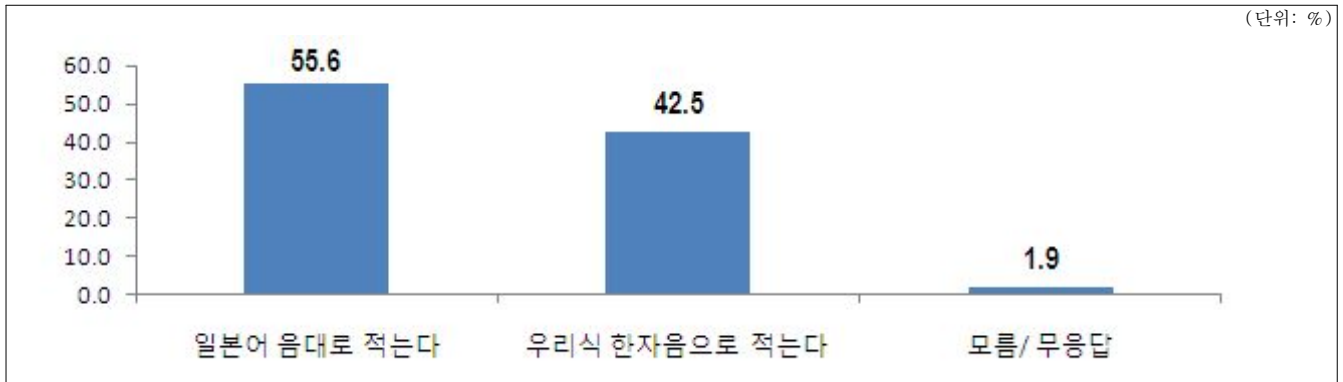
□ 피렌체의 경우 화이트칼라가 90.7%로 다른 계층에 비해 정인지 비율이 높았고, 만족도에 있어서는 30대(90.7%)에서 높게 나타남.

[표 3-50] ①피렌체 ②피렌제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피렌체	피렌제	모름/무응답	피렌체	피렌제		
■ 전 체 ■	(525)	84.6	15.2	0.2	82.3	17.7	100.0	
■ 성 별 ■	남성	(260)	86.9	12.7	0.4	82.7	17.3	100.0
	여성	(265)	82.3	17.7	0.0	81.9	18.1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87.2	11.9	0.9	81.7	18.3	100.0
	30대	(129)	89.1	10.9	0.0	90.7	9.3	100.0
	40대	(127)	85.8	14.2	0.0	85.8	14.2	100.0
	50대	(92)	83.7	16.3	0.0	79.3	20.7	100.0
	60대이상	(68)	70.6	29.4	0.0	64.7	35.3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87.0	13.0	0.0	80.6	19.4	100.0
	블루칼라	(44)	88.6	9.1	2.3	90.9	9.1	100.0
	화이트칼라	(107)	90.7	9.3	0.0	84.1	15.9	100.0
	가정주부	(126)	78.6	21.4	0.0	81.7	18.3	100.0
	학생	(39)	87.2	12.8	0.0	84.6	15.4	100.0
	무직및무응답	(18)	66.7	33.3	0.0	61.1	38.9	100.0
	서비스업	(83)	83.1	16.9	0.0	81.9	18.1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53.3	46.7	0.0	53.3	46.7	100.0
	고졸	(287)	86.1	13.6	0.3	85.7	14.3	100.0
	대졸 이상	(208)	87.0	13.0	0.0	81.7	18.3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88.5	11.5	0.0	81.7	18.3	100.0
	자연과학	(58)	81.0	19.0	0.0	82.8	17.2	100.0
	예체능및기타	(28)	89.3	10.7	0.0	82.1	17.9	100.0
	무응답	(18)	94.4	5.6	0.0	77.8	22.2	100.0

6-1 일본의 인명과 지명을 한글로 어떻게 적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일본어 음대로 적는다 ②우리식 한자음으로 적는다.

[그림 3-51] 일본어 한국식 한자음 표기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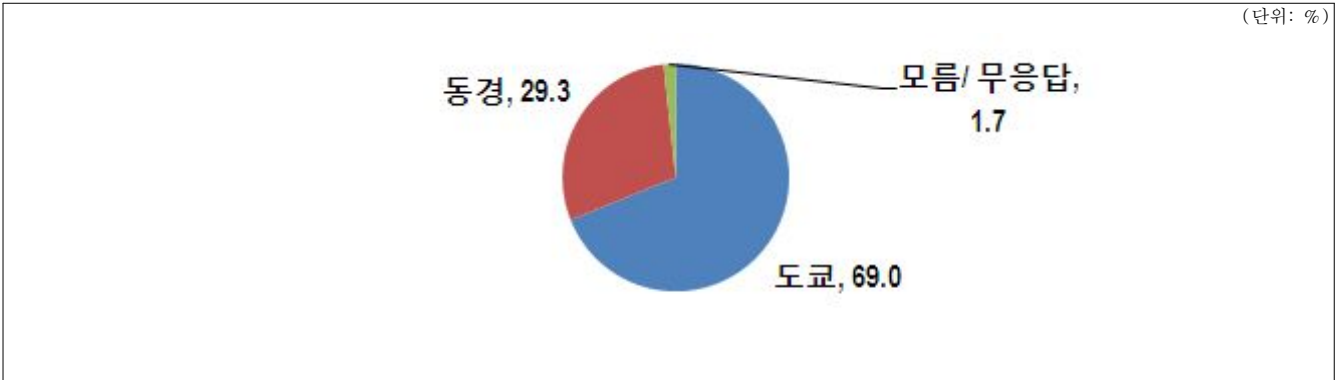
□ 일본어를 한국식 한자음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55%내외로 응답하여 계층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음.

[표 3-51] 일본어 한국식 한자음 표기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일본어 음대로 적는다	우리식 한자음으로 적는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525)	55.6	42.5	1.9	100.0
■ 성 별 ■	남성	(260)	55.0	43.8	1.2	100.0
	여성	(265)	56.2	41.1	2.6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48.6	50.5	0.9	100.0
	30대	(129)	62.8	36.4	0.8	100.0
	40대	(127)	58.3	39.4	2.4	100.0
	50대	(92)	50.0	46.7	3.3	100.0
	60대이상	(68)	55.9	41.2	2.9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48.1	47.2	4.6	100.0
	블루칼라	(44)	63.6	34.1	2.3	100.0
	화이트칼라	(107)	62.6	36.4	0.9	100.0
	가정주부	(126)	62.7	34.9	2.4	100.0
	학생	(39)	48.7	51.3	0.0	100.0
	무직및무응답	(18)	55.6	44.4	0.0	100.0
	서비스업	(83)	44.6	55.4	0.0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53.3	43.3	3.3	100.0
	고졸	(287)	55.1	42.2	2.8	100.0
	대졸 이상	(208)	56.7	42.8	0.5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62.5	37.5	0.0	100.0
	자연과학	(58)	53.4	44.8	1.7	100.0
	예체능및기타	(28)	64.3	35.7	0.0	100.0
	무응답	(18)	22.2	77.8	0.0	100.0

6-2 실제로 어느 표기를 사용하십니까?
 ①도쿄 ②동경

[그림 3-52] ①도쿄 ②동경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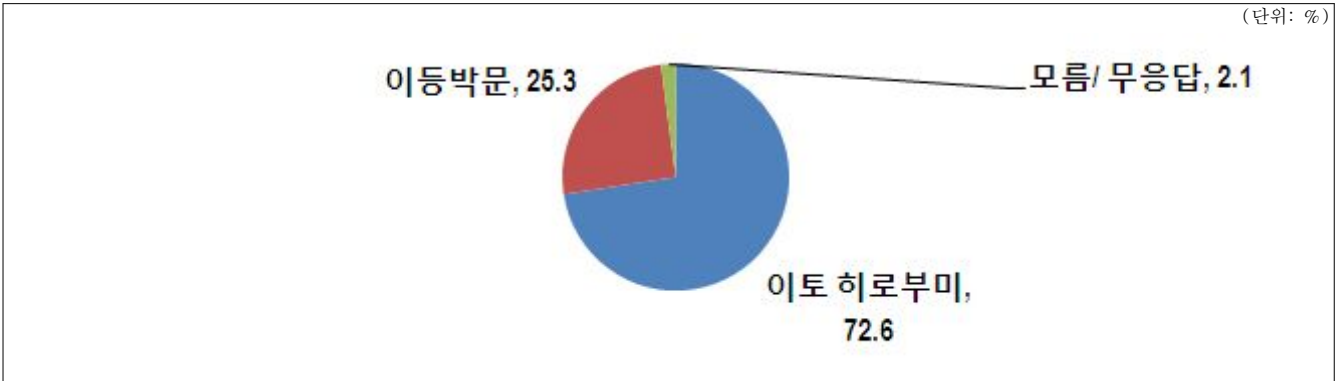
□ 도쿄와 동경 중 어떤 표기를 쓰고 있는지를 묻은 결과, 도쿄라는 응답이 69%로 동경으로 쓰는 것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자영업자가 61.1%로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 됨.

[표 3-52] ①도쿄 ②동경 집단별 특성

		사례수	도쿄	동경	모름/무응답	계
■ 전 체 ■		(525)	69.0	29.3	1.7	100.0
■ 성 별 ■	남성	(260)	68.5	29.2	2.3	100.0
	여성	(265)	69.4	29.4	1.1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70.6	27.5	1.8	100.0
	30대	(129)	75.2	24.0	0.8	100.0
	40대	(127)	63.8	33.9	2.4	100.0
	50대	(92)	66.3	30.4	3.3	100.0
	60대이상	(68)	67.6	32.4	0.0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61.1	35.2	3.7	100.0
	블루칼라	(44)	75.0	25.0	0.0	100.0
	화이트칼라	(107)	74.8	23.4	1.9	100.0
	가정주부	(126)	73.8	24.6	1.6	100.0
	학생	(39)	74.4	25.6	0.0	100.0
	무직및무응답	(18)	66.7	33.3	0.0	100.0
	서비스업	(83)	59.0	39.8	1.2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66.7	33.3	0.0	100.0
	고졸	(287)	67.6	30.0	2.4	100.0
	대졸 이상	(208)	71.2	27.9	1.0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76.0	24.0	0.0	100.0
	자연과학	(58)	63.8	32.8	3.4	100.0
	예체능및기타	(28)	82.1	17.9	0.0	100.0
	무응답	(18)	50.0	50.0	0.0	100.0

6-3 실제로 어느 표기를 사용하십니까?
 ①이토 히로부미 ②이등박문

[그림 3-53] ①이토 히로부미 ②이등박문



[집단별 특성]

□ 이토 히로부미와 이등박문 중 어떤 표기를 쓰는지와 관련하여, 이토 히로부미로 쓴다는 비율이 72.6%로 나타났고, 특히 30대(80.6%)와 화이트칼라(79.5%)가 다른 계층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53] ①이토 히로부미 ②이등박문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이토 히로부미	이등박문	모름/무응답	계
■ 전 체 ■		(525)	72.6	25.3	2.1	100.0
■ 성 별 ■	남성	(260)	73.1	24.6	2.3	100.0
	여성	(265)	72.1	26.0	1.9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73.4	24.8	1.8	100.0
	30대	(129)	80.6	18.6	0.8	100.0
	40대	(127)	70.1	26.0	3.9	100.0
	50대	(92)	66.3	30.4	3.3	100.0
	60대이상	(68)	69.1	30.9	0.0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62.0	32.4	5.6	100.0
	블루칼라	(44)	79.5	20.5	0.0	100.0
	화이트칼라	(107)	81.3	16.8	1.9	100.0
	가정주부	(126)	73.8	23.8	2.4	100.0
	학생	(39)	79.5	20.5	0.0	100.0
	무직및무응답	(18)	66.7	33.3	0.0	100.0
	서비스업	(83)	67.5	32.5	0.0	100.0
	중졸 이하	(30)	66.7	33.3	0.0	100.0
■ 학 령 ■	고졸	(287)	69.0	27.5	3.5	100.0
	대졸 이상	(208)	78.4	21.2	0.5	100.0
	인문사회과학	(104)	83.7	16.3	0.0	100.0
■ 전 공 ■	자연과학	(58)	72.4	25.9	1.7	100.0
	예체능및기타	(28)	85.7	14.3	0.0	100.0
	무응답	(18)	55.6	44.4	0.0	100.0

7-1 ①기모노 ②키모노

[그림 3-54] ①기모노 ②키모노



[집단별 특성]

□ 기모노 표기와 관련하여 정인지 및 만족도 있어서 모든 계층에서 90.0%내외였고, 계층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3-54] ①기모노 ②키모노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기모노	키모노	모름/ 무응답	기모노	키모노	
■ 전 체 ■	(525)	90.5	9.3	0.2	91.6	8.4	100.0
■ 성 별 ■	남성 (260)	90.0	10.0	0.0	91.5	8.5	100.0
	여성 (265)	90.9	8.7	0.4	91.7	8.3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89.0	11.0	0.0	90.8	9.2	100.0
	30대 (129)	94.6	5.4	0.0	94.6	5.4	100.0
	40대 (127)	89.0	11.0	0.0	91.3	8.7	100.0
	50대 (92)	90.2	8.7	1.1	89.1	10.9	100.0
	60대이상 (68)	88.2	11.8	0.0	91.2	8.8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89.8	10.2	0.0	90.7	9.3	100.0
	블루칼라 (44)	95.5	4.5	0.0	95.5	4.5	100.0
	화이트칼라 (107)	93.5	6.5	0.0	94.4	5.6	100.0
	가정주부 (126)	90.5	8.7	0.8	91.3	8.7	100.0
	학생 (39)	87.2	12.8	0.0	92.3	7.7	100.0
	무직및무응답 (18)	88.9	11.1	0.0	83.3	16.7	100.0
	서비스업 (83)	86.7	13.3	0.0	89.2	10.8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86.7	13.3	0.0	86.7	13.3	100.0
	고졸 (287)	91.3	8.4	0.3	93.7	6.3	100.0
	대졸 이상 (208)	89.9	10.1	0.0	89.4	10.6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89.4	10.6	0.0	88.5	11.5	100.0
	자연과학 (58)	87.9	12.1	0.0	86.2	13.8	100.0
	예체능및기타 (28)	92.9	7.1	0.0	96.4	3.6	100.0
	무응답 (18)	94.4	5.6	0.0	94.4	5.6	100.0

7-2 ①스모 ②스모오

[그림 3-55] ①스모 ②스모오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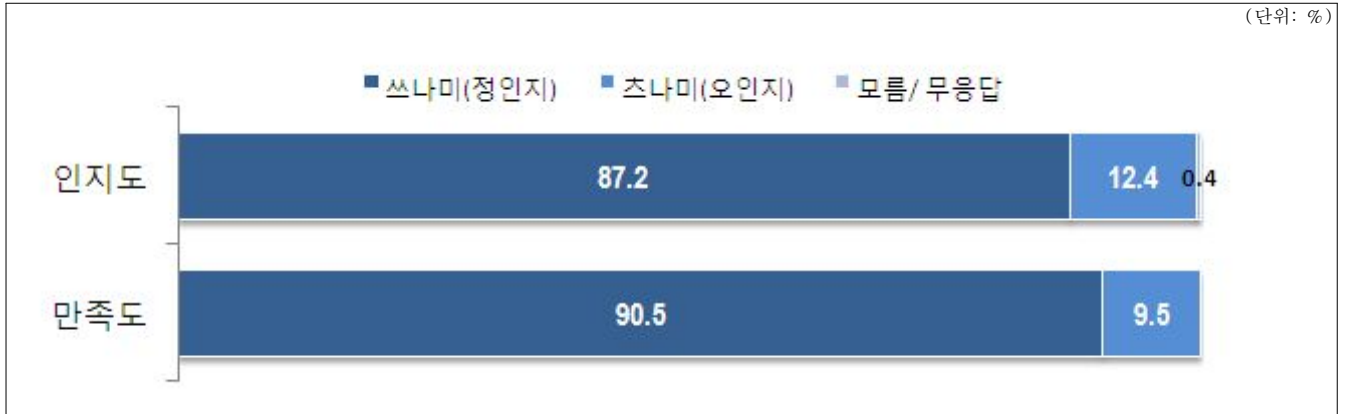
□ 스모 표기와 관련하여 정인지 및 만족도 있어서 모든 계층에서 90.5%내외였고, 계층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3-55] ①스모 ②스모오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스모	스모오	모름/무응답	스모	스모오	
■ 전 체 ■	(525)	90.7	9.0	0.4	89.9	10.1	100.0
■ 성 별 ■	남성 (260)	89.6	10.4	0.0	89.2	10.8	100.0
	여성 (265)	91.7	7.5	0.8	90.6	9.4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89.0	10.1	0.9	87.2	12.8	100.0
	30대 (129)	93.0	7.0	0.0	93.8	6.2	100.0
	40대 (127)	92.1	7.9	0.0	89.8	10.2	100.0
	50대 (92)	89.1	10.9	0.0	89.1	10.9	100.0
	60대이상 (68)	88.2	10.3	1.5	88.2	11.8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90.7	9.3	0.0	87.0	13.0	100.0
	블루칼라 (44)	88.6	11.4	0.0	90.9	9.1	100.0
	화이트칼라 (107)	94.4	5.6	0.0	92.5	7.5	100.0
	가정주부 (126)	88.1	11.1	0.8	90.5	9.5	100.0
	학생 (39)	89.7	10.3	0.0	92.3	7.7	100.0
	무직및무응답 (18)	88.9	11.1	0.0	83.3	16.7	100.0
	서비스업 (83)	91.6	7.2	1.2	89.2	10.8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86.7	13.3	0.0	90.0	10.0	100.0
	고졸 (287)	91.3	8.0	0.7	90.2	9.8	100.0
	대졸 이상 (208)	90.4	9.6	0.0	89.4	10.6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92.3	7.7	0.0	90.4	9.6	100.0
	자연과학 (58)	84.5	15.5	0.0	82.8	17.2	100.0
	예체능및기타 (28)	89.3	10.7	0.0	96.4	3.6	100.0
	무응답 (18)	100.0	0.0	0.0	94.4	5.6	100.0

7-3 ①쓰나미 ②츠나미

[그림 3-56] ①쓰나미 ②츠나미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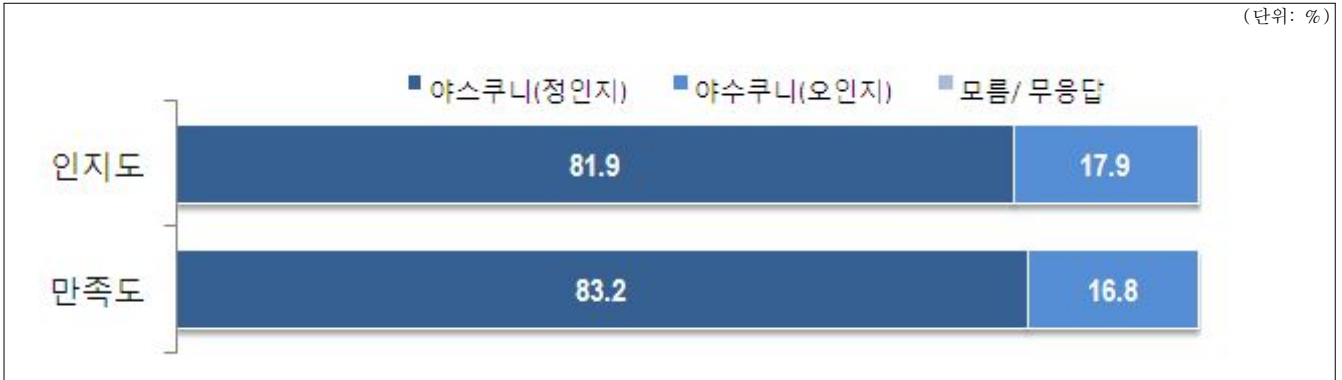
□ 쓰나미 표기와 관련하여 모든 계층에서 정인지 비율이 85%내외로 응답자군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만족도에 있어서 화이트칼라(96.3%)와 인문사회과학 전공자(98.1%)에서 전체 평균 비율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56] ①쓰나미 ②츠나미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쓰나미	츠나미	모름/무응답	쓰나미	츠나미		
■ 전 체 ■	(525)	87.2	12.4	0.4	90.5	9.5	100.0	
■ 성 별 ■	남성	(260)	88.5	11.5	0.0	92.3	7.7	100.0
	여성	(265)	86.0	13.2	0.8	88.7	11.3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81.7	17.4	0.9	89.0	11.0	100.0
	30대	(129)	93.0	7.0	0.0	91.5	8.5	100.0
	40대	(127)	89.8	10.2	0.0	91.3	8.7	100.0
	50대	(92)	82.6	16.3	1.1	90.2	9.8	100.0
	60대이상	(68)	86.8	13.2	0.0	89.7	10.3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86.1	13.9	0.0	83.3	16.7	100.0
	블루칼라	(44)	88.6	11.4	0.0	90.9	9.1	100.0
	화이트칼라	(107)	90.7	9.3	0.0	96.3	3.7	100.0
	가정주부	(126)	89.7	9.5	0.8	92.1	7.9	100.0
	학생	(39)	79.5	20.5	0.0	92.3	7.7	100.0
	무직및무응답	(18)	77.8	22.2	0.0	83.3	16.7	100.0
	서비스업	(83)	85.5	13.3	1.2	90.4	9.6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83.3	16.7	0.0	83.3	16.7	100.0
	고졸	(287)	88.9	10.5	0.7	89.2	10.8	100.0
	대졸 이상	(208)	85.6	14.4	0.0	93.3	6.7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88.5	11.5	0.0	98.1	1.9	100.0
	자연과학	(58)	82.8	17.2	0.0	89.7	10.3	100.0
	예체능및기타	(28)	82.1	17.9	0.0	85.7	14.3	100.0
	무응답	(18)	83.3	16.7	0.0	88.9	11.1	100.0

7-4 ①야스쿠니 ②야수쿠니

[그림 3-57] ①야스쿠니 ②야수쿠니



[집단별 특성]

□ 야스쿠니 표기와 관련하여 자영업자가 75.0%의 정인지율을 보여 다른 계층보다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표기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각각 86.9%, 79.6%)

[표 3-57] ①야스쿠니 ②야수쿠니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야스쿠니	야수쿠니	모름/ 무응답	야스쿠니	야수쿠니		
■ 전 체 ■	(525)	81.9	17.9	0.2	83.2	16.8	100.0	
■ 성 별 ■	남성	(260)	82.7	17.3	0.0	86.9	13.1	100.0
	여성	(265)	81.1	18.5	0.4	79.6	20.4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85.3	13.8	0.9	86.2	13.8	100.0
	30대	(129)	82.2	17.8	0.0	82.9	17.1	100.0
	40대	(127)	78.7	21.3	0.0	86.6	13.4	100.0
	50대	(92)	80.4	19.6	0.0	80.4	19.6	100.0
	60대 이상	(68)	83.8	16.2	0.0	76.5	23.5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75.0	25.0	0.0	79.6	20.4	100.0
	블루칼라	(44)	90.9	9.1	0.0	88.6	11.4	100.0
	화이트칼라	(107)	83.2	16.8	0.0	88.8	11.2	100.0
	가정주부	(126)	85.7	14.3	0.0	79.4	20.6	100.0
	학생	(39)	89.7	10.3	0.0	89.7	10.3	100.0
	무직및무응답	(18)	83.3	16.7	0.0	77.8	22.2	100.0
■ 학 력 ■	서비스업	(83)	74.7	24.1	1.2	81.9	18.1	100.0
	중졸 이하	(30)	73.3	26.7	0.0	83.3	16.7	100.0
	고졸	(287)	82.9	16.7	0.3	82.6	17.4	100.0
■ 전 공 ■	대졸 이상	(208)	81.7	18.3	0.0	84.1	15.9	100.0
	인문사회과학	(104)	81.7	18.3	0.0	88.5	11.5	100.0
	자연과학	(58)	79.3	20.7	0.0	81.0	19.0	100.0
	예체능및기타	(28)	82.1	17.9	0.0	71.4	28.6	100.0
무응답	(18)	88.9	11.1	0.0	88.9	11.1	100.0	

7-5 ①신주쿠 ②신쥬쿠

[그림 3-58] ①신주쿠 ②신쥬쿠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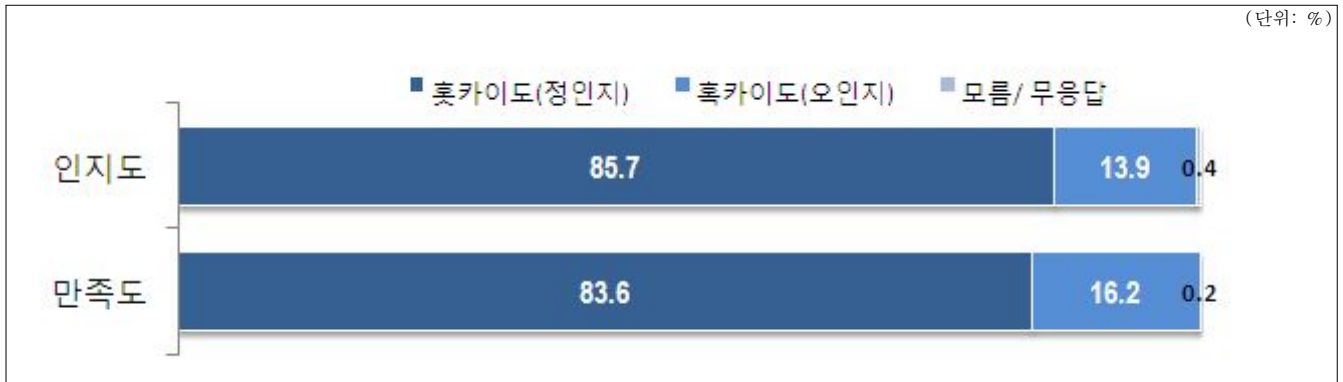
□ 신주쿠 용례에 대하여 60대 이상이 60.3%로 전체 평균 비율보다 정인지율이 낮았으며, 표기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30대(86.0%)가 다른 계층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58] ①신주쿠 ②신쥬쿠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신주쿠	신쥬쿠	모름/무응답	신주쿠	신쥬쿠	모름/무응답		
■ 전 체 ■	(525)	73.3	26.3	0.4	80.0	19.8	0.2	100.0	
■ 성 별 ■	남성	(260)	70.0	30.0	0.0	80.8	18.8	0.4	100.0
	여성	(265)	76.6	22.6	0.8	79.2	20.8	0.0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78.0	21.1	0.9	82.6	17.4	0.0	100.0
	30대	(129)	76.7	23.3	0.0	86.0	14.0	0.0	100.0
	40대	(127)	72.4	27.6	0.0	76.4	22.8	0.8	100.0
	50대	(92)	73.9	25.0	1.1	72.8	27.2	0.0	100.0
	60대이상	(68)	60.3	39.7	0.0	80.9	19.1	0.0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69.4	30.6	0.0	72.2	26.9	0.9	100.0
	블루칼라	(44)	65.9	34.1	0.0	77.3	22.7	0.0	100.0
	화이트칼라	(107)	70.1	29.9	0.0	84.1	15.9	0.0	100.0
	가정주부	(126)	80.2	19.0	0.8	81.0	19.0	0.0	100.0
	학생	(39)	84.6	15.4	0.0	84.6	15.4	0.0	100.0
	무직및무응답	(18)	50.0	50.0	0.0	72.2	27.8	0.0	100.0
	서비스업	(83)	75.9	22.9	1.2	84.3	15.7	0.0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60.0	40.0	0.0	70.0	30.0	0.0	100.0
	고졸	(287)	74.6	24.7	0.7	79.1	20.6	0.3	100.0
	대졸 이상	(208)	73.6	26.4	0.0	82.7	17.3	0.0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76.0	24.0	0.0	82.7	17.3	0.0	100.0
	자연과학	(58)	74.1	25.9	0.0	72.4	27.6	0.0	100.0
	예체능및기타	(28)	60.7	39.3	0.0	92.9	7.1	0.0	100.0
	무응답	(18)	77.8	22.2	0.0	100.0	0.0	0.0	100.0

7-6 ①훗카이도 ②혹카이도

[그림 3-59] ①훗카이도 ②혹카이도



[집단별 특성]

□ 훗카이도 표기와 관련하여 블루칼라와 중졸이하 학력자가 다른 계층보다 정인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의 경우 40대가 다른 계층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3-59] ①훗카이도 ②혹카이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훗카이도	혹카이도	모름/무응답	훗카이도	혹카이도	모름/무응답	
■ 전 체 ■	(525)	85.7	13.9	0.4	83.6	16.2	0.2	100.0
■ 성 별 ■								
남성	(260)	87.3	12.3	0.4	83.8	15.8	0.4	100.0
여성	(265)	84.2	15.5	0.4	83.4	16.6	0.0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89.0	10.1	0.9	85.3	14.7	0.0	100.0
30대	(129)	90.7	9.3	0.0	89.1	10.9	0.0	100.0
40대	(127)	81.9	17.3	0.8	78.0	21.3	0.8	100.0
50대	(92)	85.9	14.1	0.0	84.8	15.2	0.0	100.0
60대이상	(68)	77.9	22.1	0.0	79.4	20.6	0.0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86.1	13.0	0.9	84.3	14.8	0.9	100.0
블루칼라	(44)	75.0	25.0	0.0	77.3	22.7	0.0	100.0
화이트칼라	(107)	90.7	9.3	0.0	82.2	17.8	0.0	100.0
가정주부	(126)	84.1	15.9	0.0	83.3	16.7	0.0	100.0
학생	(39)	89.7	10.3	0.0	87.2	12.8	0.0	100.0
무직및무응답	(18)	83.3	16.7	0.0	88.9	11.1	0.0	100.0
서비스업	(83)	85.5	13.3	1.2	85.5	14.5	0.0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66.7	33.3	0.0	80.0	20.0	0.0	100.0
고졸	(287)	84.3	15.0	0.7	84.0	15.7	0.3	100.0
대졸 이상	(208)	90.4	9.6	0.0	83.7	16.3	0.0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89.4	10.6	0.0	85.6	14.4	0.0	100.0
자연과학	(58)	87.9	12.1	0.0	79.3	20.7	0.0	100.0
예체능및기타	(28)	100.0	0.0	0.0	85.7	14.3	0.0	100.0
무응답	(18)	88.9	11.1	0.0	83.3	16.7	0.0	100.0

7-7 ①신칸센 ②싱칸센

[그림 3-60] ①신칸센 ②싱칸센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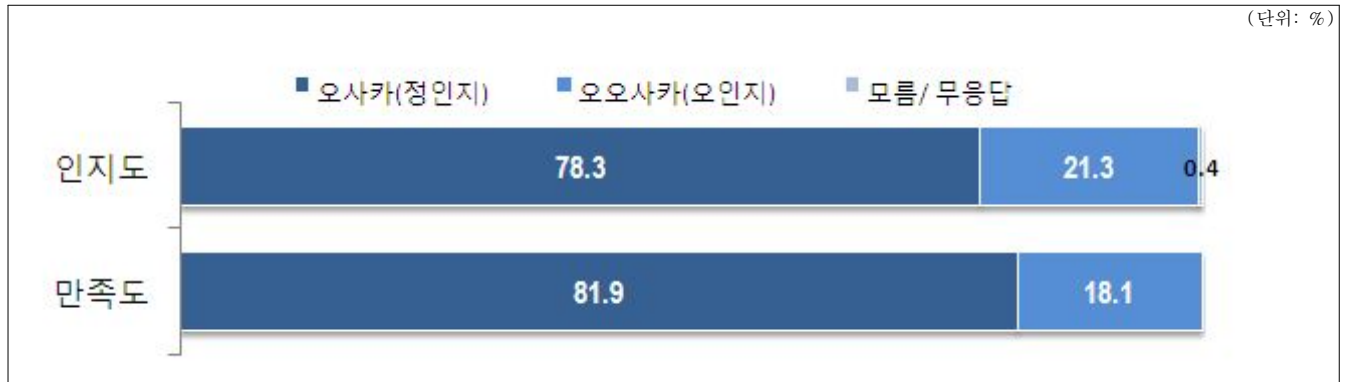
□ 신칸센 표기와 관련하여 화이트칼라가(89.7%)가 다른 계층보다 정인지 비율이 높았으며, 60대 이상 및 중졸이하의 학력자들이(각각 70.6%, 63.3%) 낮은 것으로 조사됨. 만족도의 경우 60대 이상(72.1%), 중졸이하의 학력자(66.7%)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60] ①신칸센 ②싱칸센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신칸센	싱칸센	모름/무응답	신칸센	싱칸센		
■ 전 체 ■	(525)	81.1	18.5	0.4	81.5	18.5	100.0	
■ 성 별 ■	남성	(260)	79.6	20.4	0.0	81.9	18.1	100.0
	여성	(265)	82.6	16.6	0.8	81.1	18.9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83.5	15.6	0.9	82.6	17.4	100.0
	30대	(129)	82.2	17.8	0.0	82.9	17.1	100.0
	40대	(127)	83.5	16.5	0.0	81.1	18.9	100.0
	50대	(92)	81.5	17.4	1.1	85.9	14.1	100.0
	60대이상	(68)	70.6	29.4	0.0	72.1	27.9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77.8	22.2	0.0	77.8	22.2	100.0
	블루칼라	(44)	70.5	29.5	0.0	90.9	9.1	100.0
	화이트칼라	(107)	89.7	10.3	0.0	79.4	20.6	100.0
	가정주부	(126)	80.2	19.0	0.8	80.2	19.8	100.0
	학생	(39)	87.2	12.8	0.0	92.3	7.7	100.0
	무직및무응답	(18)	83.3	16.7	0.0	77.8	22.2	100.0
	서비스업	(83)	78.3	20.5	1.2	81.9	18.1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63.3	36.7	0.0	66.7	33.3	100.0
	고졸	(287)	80.5	18.8	0.7	85.0	15.0	100.0
	대졸 이상	(208)	84.6	15.4	0.0	78.8	21.2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85.6	14.4	0.0	79.8	20.2	100.0
	자연과학	(58)	86.2	13.8	0.0	79.3	20.7	100.0
	예체능및기타	(28)	78.6	21.4	0.0	67.9	32.1	100.0
	무응답	(18)	83.3	16.7	0.0	88.9	11.1	100.0

7-8 ①오사카 ②오오사카

[그림 3-61] ①오사카 ②오오사카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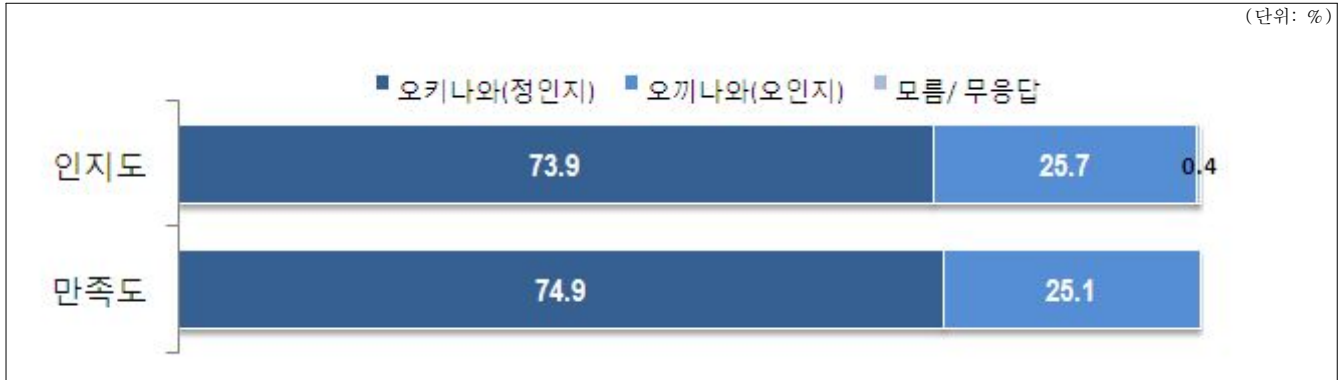
□ 오사카 표기와 관련하여, 모든 계층에서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만족도 경우 60대 이상(69.1%), 중졸이하의 학력자(63.3%)에서 낮게 나타남.

[표 3-61] ①오사카 ②오오사카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오사카	오오사카	모름/무응답	오사카	오오사카	
■ 전 체 ■	(525)	78.3	21.3	0.4	81.9	18.1	100.0
■ 성 별 ■							
남성	(260)	78.8	21.2	0.0	80.8	19.2	100.0
여성	(265)	77.7	21.5	0.8	83.0	17.0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79.8	19.3	0.9	83.5	16.5	100.0
30대	(129)	82.9	16.3	0.8	85.3	14.7	100.0
40대	(127)	74.8	25.2	0.0	81.9	18.1	100.0
50대	(92)	77.2	22.8	0.0	84.8	15.2	100.0
60대이상	(68)	75.0	25.0	0.0	69.1	30.9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75.9	23.1	0.9	75.9	24.1	100.0
블루칼라	(44)	77.3	22.7	0.0	79.5	20.5	100.0
화이트칼라	(107)	83.2	16.8	0.0	86.0	14.0	100.0
가정주부	(126)	77.0	23.0	0.0	81.7	18.3	100.0
학생	(39)	76.9	23.1	0.0	87.2	12.8	100.0
무직및무응답	(18)	72.2	27.8	0.0	66.7	33.3	100.0
서비스업	(83)	79.5	19.3	1.2	86.7	13.3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73.3	26.7	0.0	63.3	36.7	100.0
고졸	(287)	80.1	19.5	0.3	84.0	16.0	100.0
대졸 이상	(208)	76.4	23.1	0.5	81.7	18.3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77.9	21.2	1.0	82.7	17.3	100.0
자연과학	(58)	77.6	22.4	0.0	79.3	20.7	100.0
예체능및기타	(28)	67.9	32.1	0.0	82.1	17.9	100.0
무응답	(18)	77.8	22.2	0.0	83.3	16.7	100.0

7-9 ①오키나와 ②오끼나와

[그림 3-62] ①오키나와 ②오끼나와



[집단별 특성]

□ 오키나와 표기와 관련하여 중졸이하의 학력자(50.0%)가 다른 계층에 비해 정인지 비율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만족도에 있어서 30대와 화이트칼라에서(각각 81.4%, 86.0%)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62] ①오키나와 ②오끼나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오키나와	오끼나와	모름/무응답	오키나와	오끼나와	
■ 전 체 ■	(525)	73.9	25.7	0.4	74.9	25.1	100.0
■ 성 별 ■	남성 (260)	73.5	26.5	0.0	74.6	25.4	100.0
	여성 (265)	74.3	24.9	0.8	75.1	24.9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78.9	20.2	0.9	77.1	22.9	100.0
	30대 (129)	78.3	21.7	0.0	81.4	18.6	100.0
	40대 (127)	70.9	29.1	0.0	75.6	24.4	100.0
	50대 (92)	70.7	28.3	1.1	69.6	30.4	100.0
	60대이상 (68)	67.6	32.4	0.0	64.7	35.3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68.5	31.5	0.0	71.3	28.7	100.0
	블루칼라 (44)	68.2	31.8	0.0	75.0	25.0	100.0
	화이트칼라 (107)	79.4	20.6	0.0	86.0	14.0	100.0
	가정주부 (126)	74.6	24.6	0.8	73.0	27.0	100.0
	학생 (39)	76.9	23.1	0.0	82.1	17.9	100.0
	무직및무응답 (18)	66.7	33.3	0.0	66.7	33.3	100.0
	서비스업 (83)	75.9	22.9	1.2	66.3	33.7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50.0	50.0	0.0	53.3	46.7	100.0
	고졸 (287)	73.5	25.8	0.7	73.5	26.5	100.0
	대졸 이상 (208)	77.9	22.1	0.0	79.8	20.2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78.8	21.2	0.0	81.7	18.3	100.0
	자연과학 (58)	77.6	22.4	0.0	81.0	19.0	100.0
	예체능및기타 (28)	71.4	28.6	0.0	71.4	28.6	100.0
	무응답 (18)	83.3	16.7	0.0	77.8	22.2	100.0

7-10 ①삿포로 ②삿포로

[그림 3-62] ①삿포로 ②삿포로



[집단별 특성]

□ 삿포로 표기와 관련하여 60대 이상(82.4%), 중졸이하의 학력자(76.7%)가 다른 계층보다 정인지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만족도에 있어서 30대(91.5%), 화이트칼라(89.7%)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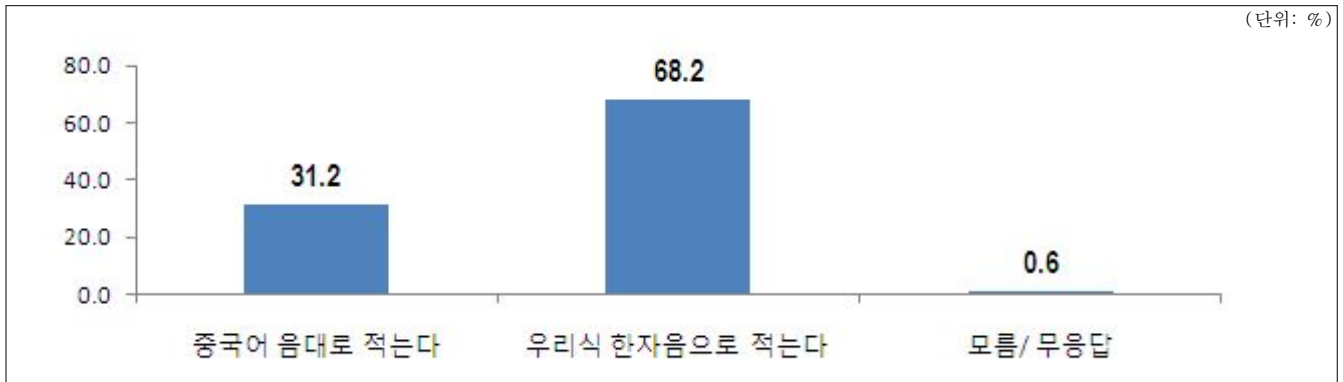
[표 3-62] ①삿포로 ②삿포로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삿포로	삿포로	모름/무응답	삿포로	삿포로	
■ 전 체 ■	(525)	89.9	9.9	0.2	87.6	12.4	100.0
■ 성 별 ■	남성 (260)	90.4	9.6	0.0	88.5	11.5	100.0
	여성 (265)	89.4	10.2	0.4	86.8	13.2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92.7	6.4	0.9	87.2	12.8	100.0
	30대 (129)	91.5	8.5	0.0	91.5	8.5	100.0
	40대 (127)	85.8	14.2	0.0	89.0	11.0	100.0
	50대 (92)	95.7	4.3	0.0	83.7	16.3	100.0
	60대이상 (68)	82.4	17.6	0.0	83.8	16.2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86.1	13.9	0.0	88.9	11.1	100.0
	블루칼라 (44)	93.2	6.8	0.0	88.6	11.4	100.0
	화이트칼라 (107)	92.5	7.5	0.0	89.7	10.3	100.0
	가정주부 (126)	89.7	10.3	0.0	84.9	15.1	100.0
	학생 (39)	89.7	10.3	0.0	84.6	15.4	100.0
	무직및무응답 (18)	88.9	11.1	0.0	83.3	16.7	100.0
	서비스업 (83)	90.4	8.4	1.2	89.2	10.8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76.7	23.3	0.0	80.0	20.0	100.0
	고졸 (287)	91.3	8.4	0.3	89.2	10.8	100.0
	대졸 이상 (208)	89.9	10.1	0.0	86.5	13.5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90.4	9.6	0.0	88.5	11.5	100.0
	자연과학 (58)	84.5	15.5	0.0	82.8	17.2	100.0
	예체능및기타 (28)	100.0	0.0	0.0	85.7	14.3	100.0
	무응답 (18)	88.9	11.1	0.0	88.9	11.1	100.0

8-1

중국의 인명과 지명을 한글로 어떻게 적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중국어 음대로 적는다 ② 우리식 한자음으로 적는다

[그림 3-63] 중국어 한국식 한자음 표기



[집단별 특성]

□ 중국어 인명과 지명을 한글로 어떻게 적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우리식 한자음으로 적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68.2%로 중국어 음대로 적는 것이 좋다는 응답(31.2%)에 비해 2배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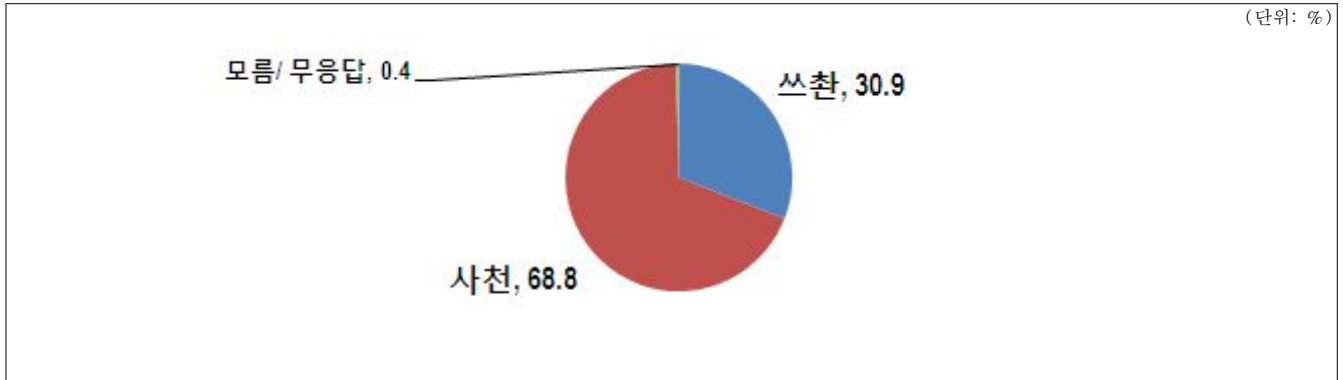
[표 3-63] 중국어 한국식 한자음 표기

		사례수	중국어 음대로 적는다	우리식 한자음으로 적는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525)	31.2	68.2	0.6	100.0
■ 성 별 ■	남성	(260)	31.9	67.7	0.4	100.0
	여성	(265)	30.6	68.7	0.8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36.7	63.3	0.0	100.0
	30대	(129)	35.7	63.6	0.8	100.0
	40대	(127)	30.7	69.3	0.0	100.0
	50대	(92)	25.0	72.8	2.2	100.0
	60대이상	(68)	23.5	76.5	0.0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25.9	71.3	2.8	100.0
	블루칼라	(44)	25.0	75.0	0.0	100.0
	화이트칼라	(107)	35.5	64.5	0.0	100.0
	가정주부	(126)	30.2	69.8	0.0	100.0
	학생	(39)	41.0	59.0	0.0	100.0
	무직및무응답	(18)	44.4	55.6	0.0	100.0
	서비스업	(83)	30.1	69.9	0.0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23.3	76.7	0.0	100.0
	고졸	(287)	27.5	71.4	1.0	100.0
	대졸 이상	(208)	37.5	62.5	0.0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37.5	62.5	0.0	100.0
	자연과학	(58)	41.4	58.6	0.0	100.0
	예체능및기타	(28)	46.4	53.6	0.0	100.0
	무응답	(18)	11.1	88.9	0.0	100.0

8-2

실제로 어떤 표기를 사용하십니까?
①쓰촨 ②사천

[그림 3-64] ①쓰촨 ②사천



[집단별 특성]

□ 쓰촨과 사천 중 어떤 표기를 사용지에 대해, 사천으로 표기한다는 응답이 68.8%로 나타났고, 대졸학력자가 61.1%로 다른 계층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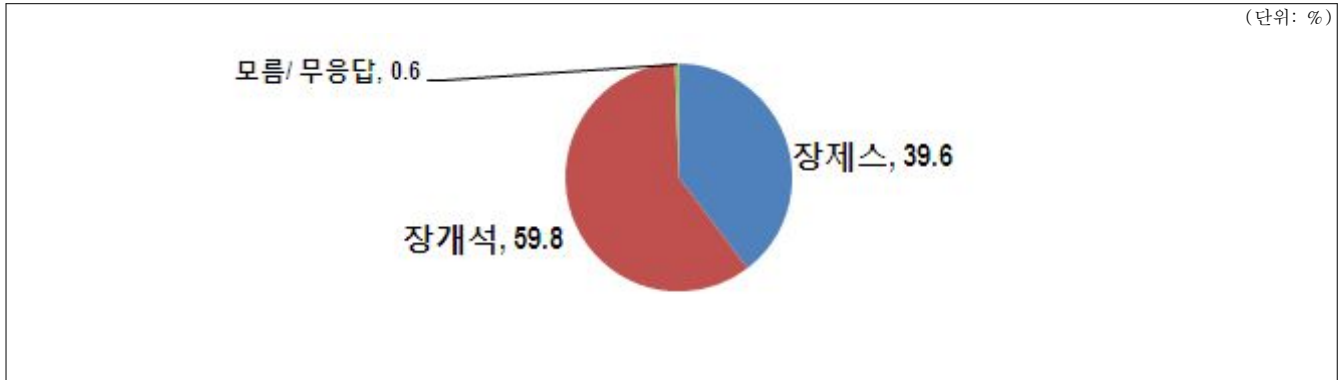
[표 3-64] ①쓰촨 ②사천 집단별 특성

		사례수	쓰촨	사천	모름/무응답	계
■ 전 체 ■		(525)	30.9	68.8	0.4	100.0
■ 성 별 ■	남성	(260)	30.0	69.6	0.4	100.0
	여성	(265)	31.7	67.9	0.4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37.6	62.4	0.0	100.0
	30대	(129)	34.9	65.1	0.0	100.0
	40대	(127)	26.0	73.2	0.8	100.0
	50대	(92)	30.4	68.5	1.1	100.0
	60대 이상	(68)	22.1	77.9	0.0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27.8	71.3	0.9	100.0
	블루칼라	(44)	27.3	72.7	0.0	100.0
	화이트칼라	(107)	33.6	66.4	0.0	100.0
	가정주부	(126)	30.2	69.0	0.8	100.0
	학생	(39)	41.0	59.0	0.0	100.0
	무직및무응답	(18)	50.0	50.0	0.0	100.0
	서비스업	(83)	25.3	74.7	0.0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23.3	76.7	0.0	100.0
	고졸	(287)	25.8	73.5	0.7	100.0
	대졸 이상	(208)	38.9	61.1	0.0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36.5	63.5	0.0	100.0
	자연과학	(58)	43.1	56.9	0.0	100.0
	예체능및기타	(28)	50.0	50.0	0.0	100.0
	무응답	(18)	22.2	77.8	0.0	100.0

8-3

실제로 어느 표기를 사용하십니까?
 ①장제스 ②장개석

[그림 3-65] ①장제스 ②장개석



[집단별 특성]

□ 장제스와 장개석 중 어떤 표기를 사용하는지와 관련하여 장개석으로 표기한다는 응답이 59.8%로 장제스로 표기한다는 응답보다 높았고, 20대(49.5%)와 대졸 학력자(49.5%)가 다른 집단보다 장개석으로 표기한다는 응답이 유의하게 낮았음.

[표 3-65] ①장제스 ②장개석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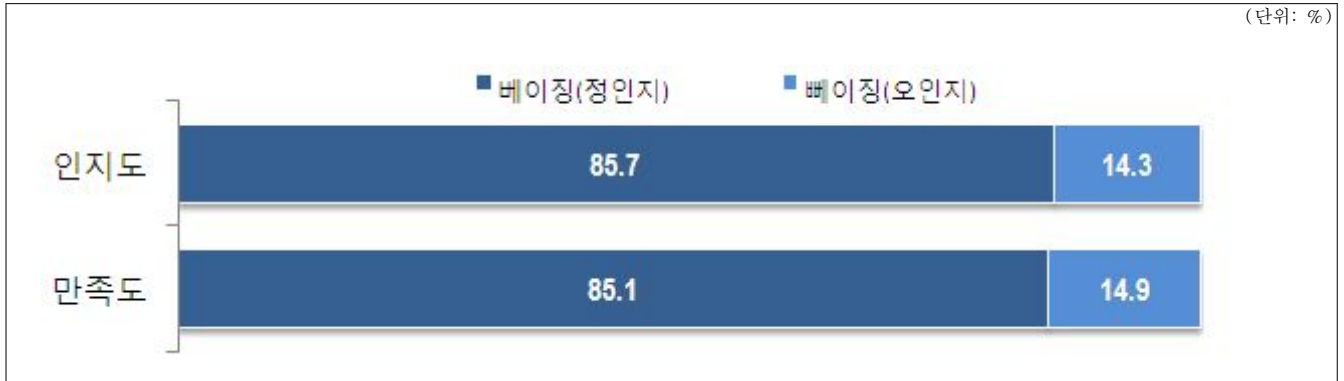
		사례수	장제스	장개석	모름/무응답	계
■ 전 체 ■		(525)	39.6	59.8	0.6	100.0
■ 성 별 ■	남성	(260)	39.6	60.0	0.4	100.0
	여성	(265)	39.6	59.6	0.8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50.5	49.5	0.0	100.0
	30대	(129)	38.8	60.5	0.8	100.0
	40대	(127)	36.2	63.0	0.8	100.0
	50대	(92)	37.0	62.0	1.1	100.0
	60대이상	(68)	33.8	66.2	0.0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36.1	62.0	1.9	100.0
	블루칼라	(44)	29.5	70.5	0.0	100.0
	화이트칼라	(107)	45.8	54.2	0.0	100.0
	가정주부	(126)	36.5	62.7	0.8	100.0
	학생	(39)	61.5	38.5	0.0	100.0
	무직및무응답	(18)	61.1	38.9	0.0	100.0
	서비스업	(83)	31.3	68.7	0.0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33.3	66.7	0.0	100.0
	고졸	(287)	32.4	66.6	1.0	100.0
	대졸 이상	(208)	50.5	49.5	0.0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50.0	50.0	0.0	100.0
	자연과학	(58)	50.0	50.0	0.0	100.0
	예체능및기타	(28)	53.6	46.4	0.0	100.0
	무응답	(18)	50.0	50.0	0.0	100.0

9-1

① 베이징

② 뻬이징

[그림 3-66] ① 베이징 ② 뻬이징



[집단별 특성]

□ 베이징 표기와 관련하여, 자연과학 전공자가 79.3%로 다른 계층보다 정인지율이 낮았고, 만족도의 경우 중졸이하의 학력자가 70.0%로 전체 평균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66] ① 베이징 ② 뻬이징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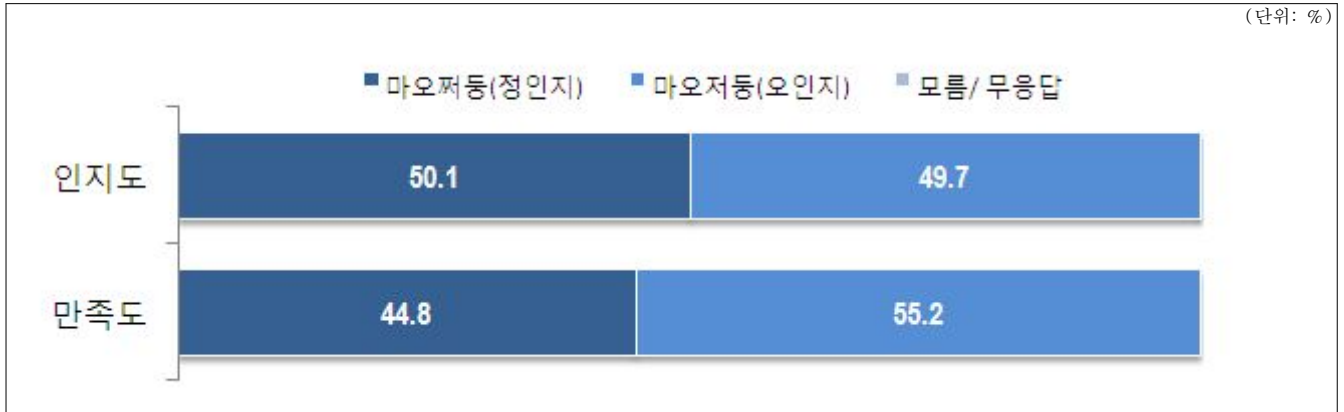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베이징	뻬이징	베이징	뻬이징	
■ 전 체 ■	(525)	85.7	14.3	85.1	14.9	100.0
□ 성 별 □						
남성	(260)	85.4	14.6	86.2	13.8	100.0
여성	(265)	86.0	14.0	84.2	15.8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86.2	13.8	86.2	13.8	100.0
30대	(129)	88.4	11.6	88.4	11.6	100.0
40대	(127)	82.7	17.3	84.3	15.7	100.0
50대	(92)	84.8	15.2	84.8	15.2	100.0
60대이상	(68)	86.8	13.2	79.4	20.6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81.5	18.5	82.4	17.6	100.0
블루칼라	(44)	90.9	9.1	86.4	13.6	100.0
화이트칼라	(107)	87.9	12.1	89.7	10.3	100.0
가정주부	(126)	85.7	14.3	81.7	18.3	100.0
학생	(39)	82.1	17.9	84.6	15.4	100.0
무직및무응답	(18)	88.9	11.1	88.9	11.1	100.0
서비스업	(83)	86.7	13.3	86.7	13.3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76.7	23.3	70.0	30.0	100.0
고졸	(287)	85.7	14.3	86.8	13.2	100.0
대졸	(208)	87.0	13.0	85.1	14.9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88.5	11.5	85.6	14.4	100.0
자연과학	(58)	79.3	20.7	82.8	17.2	100.0
예체능및기타	(28)	89.3	10.7	78.6	21.4	100.0
무응답	(18)	100.0	0.0	100.0	0.0	100.0

9-2

①마오저등

②마오쩌등

[그림 3-67] ①마오저등 ②마오쩌등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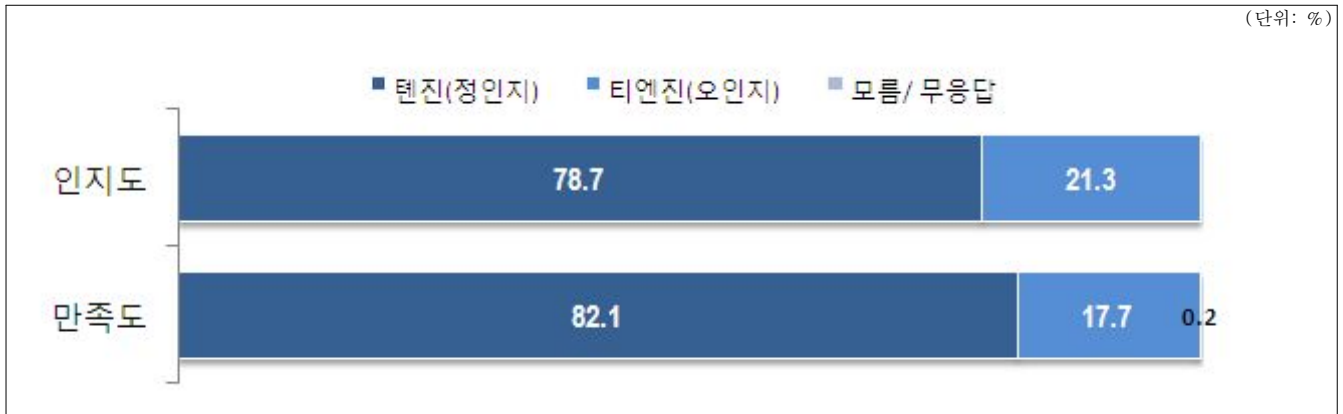
□ 마오쩌등 표기와 관련하여 20대(58.7%), 학생(74.4%)이 다른 계층보다 정인지 비율이 높았고, 만족도와 관련하여 학생이 64.1%로 전체 평균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67] ①마오저등 ②마오쩌등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마오저등	마오쩌등	모름/무응답	마오저등	마오쩌등	
■ 전 체 ■	(525)	49.7	50.1	0.2	55.2	44.8	100.0
■ 성 별 ■	남성 (260)	54.2	45.4	0.4	59.6	40.4	100.0
	여성 (265)	45.3	54.7	0.0	50.9	49.1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40.4	58.7	0.9	55.0	45.0	100.0
	30대 (129)	50.4	49.6	0.0	56.6	43.4	100.0
	40대 (127)	44.9	55.1	0.0	55.9	44.1	100.0
	50대 (92)	59.8	40.2	0.0	55.4	44.6	100.0
	60대이상 (68)	58.8	41.2	0.0	51.5	48.5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58.3	41.7	0.0	63.9	36.1	100.0
	블루칼라 (44)	54.5	45.5	0.0	43.2	56.8	100.0
	화이트칼라 (107)	44.9	55.1	0.0	58.9	41.1	100.0
	가정주부 (126)	49.2	50.8	0.0	52.4	47.6	100.0
	학생 (39)	23.1	74.4	2.6	35.9	64.1	100.0
	무직및무응답 (18)	66.7	33.3	0.0	66.7	33.3	100.0
	서비스업 (83)	51.8	48.2	0.0	56.6	43.4	100.0
■ 학 령 ■	중졸 이하 (30)	53.3	46.7	0.0	50.0	50.0	100.0
	고졸 (287)	53.0	47.0	0.0	56.1	43.9	100.0
	대졸 이상 (208)	44.7	54.8	0.5	54.8	45.2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45.2	53.8	1.0	51.0	49.0	100.0
	자연과학 (58)	44.8	55.2	0.0	65.5	34.5	100.0
	예체능및기타 (28)	57.1	42.9	0.0	53.6	46.4	100.0
	무응답 (18)	22.2	77.8	0.0	44.4	55.6	100.0

9-3 ①텐진 ②티엔진

[그림 3-68] ①텐진 ②티엔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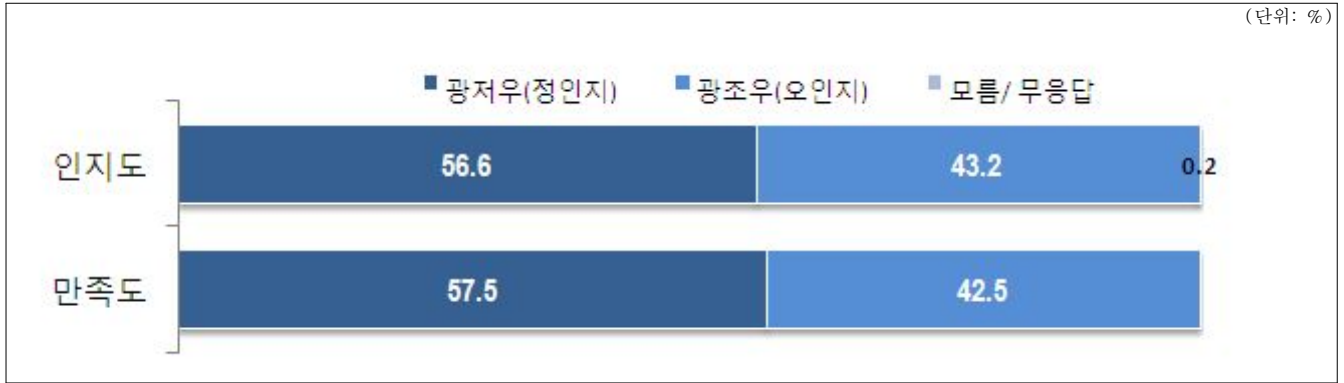
□ 텐진 표기와 관련하여, 자연과학 전공자가 70.7%로 전체 평균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와 관련하여 자영업(74.1%)과 자연과학 전공자가(70.7%) 전체 평균 비율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3-68] ①텐진 ②티엔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텐진	티엔진	텐진	티엔진	모름/무응답	
■ 전 체 ■	(525)	78.7	21.3	82.1	17.7	0.2	100.0
■ 성 별 ■							
남성	(260)	78.5	21.5	81.5	18.1	0.4	100.0
여성	(265)	78.9	21.1	82.6	17.4	0.0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78.0	22.0	81.7	18.3	0.0	100.0
30대	(129)	81.4	18.6	83.7	16.3	0.0	100.0
40대	(127)	80.3	19.7	81.9	17.3	0.8	100.0
50대	(92)	71.7	28.3	82.6	17.4	0.0	100.0
60대 이상	(68)	80.9	19.1	79.4	20.6	0.0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77.8	22.2	74.1	25.0	0.9	100.0
블루칼라	(44)	75.0	25.0	88.6	11.4	0.0	100.0
화이트칼라	(107)	82.2	17.8	84.1	15.9	0.0	100.0
가정주부	(126)	77.0	23.0	85.7	14.3	0.0	100.0
학생	(39)	79.5	20.5	84.6	15.4	0.0	100.0
무직및무응답	(18)	72.2	27.8	83.3	16.7	0.0	100.0
서비스업	(83)	80.7	19.3	79.5	20.5	0.0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73.3	26.7	80.0	20.0	0.0	100.0
고졸	(287)	76.0	24.0	82.6	17.1	0.3	100.0
대졸 이상	(208)	83.2	16.8	81.7	18.3	0.0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86.5	13.5	82.7	17.3	0.0	100.0
자연과학	(58)	70.7	29.3	70.7	29.3	0.0	100.0
예체능및기타	(28)	92.9	7.1	96.4	3.6	0.0	100.0
무응답	(18)	88.9	11.1	88.9	11.1	0.0	100.0

9-4 ①광조우 ②광저우

[그림 3-69] ①광조우 ②광저우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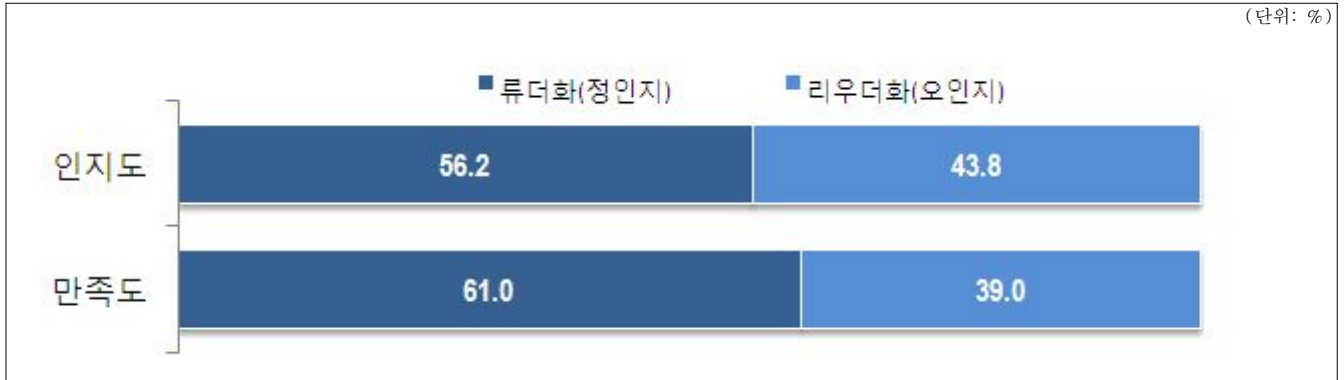
□ 광저우 표기와 관련하여, 20대(69.7%), 학생(76.9%)이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만족도와 관련하여 20대(66.1%), 학생(79.5%)이 다른 계층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69] ①광조우 ②광저우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광조우	광저우	광조우	광저우	모름/무응답	
■ 전 체 ■	(525)	42.5	57.5	43.2	56.6	0.2	100.0
■ 성 별 ■							
남성	(260)	43.1	56.9	45.4	54.2	0.4	100.0
여성	(265)	41.9	58.1	41.1	58.9	0.0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30.3	69.7	33.9	66.1	0.0	100.0
30대	(129)	39.5	60.5	41.9	58.1	0.0	100.0
40대	(127)	40.9	59.1	48.8	50.4	0.8	100.0
50대	(92)	53.3	46.7	45.7	54.3	0.0	100.0
60대이상	(68)	55.9	44.1	47.1	52.9	0.0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47.2	52.8	47.2	51.9	0.9	100.0
블루칼라	(44)	38.6	61.4	47.7	52.3	0.0	100.0
화이트칼라	(107)	39.3	60.7	44.9	55.1	0.0	100.0
가정주부	(126)	50.8	49.2	48.4	51.6	0.0	100.0
학생	(39)	23.1	76.9	20.5	79.5	0.0	100.0
무직및무응답	(18)	38.9	61.1	44.4	55.6	0.0	100.0
서비스업	(83)	39.8	60.2	36.1	63.9	0.0	100.0
■ 학 령 ■							
중졸 이하	(30)	53.3	46.7	46.7	53.3	0.0	100.0
고졸	(287)	44.3	55.7	45.3	54.4	0.3	100.0
대졸 이상	(208)	38.5	61.5	39.9	60.1	0.0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45.2	54.8	39.4	60.6	0.0	100.0
자연과학	(58)	32.8	67.2	43.1	56.9	0.0	100.0
예체능및기타	(28)	35.7	64.3	39.3	60.7	0.0	100.0
무응답	(18)	22.2	77.8	33.3	66.7	0.0	100.0

9-5 ①리우더화 ②류더화

[그림 3-70] ①리우더화 ②류더화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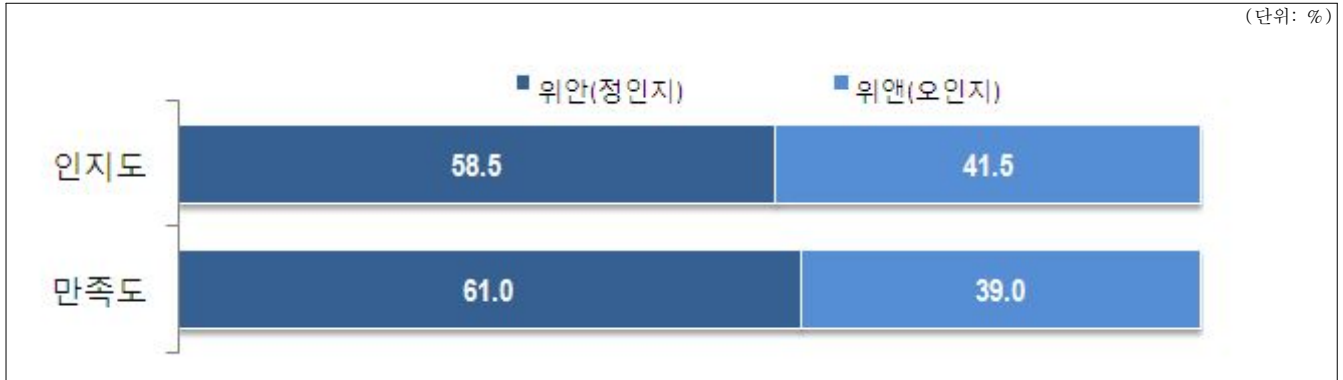
□ 류더화 표기와 관련하여, 정인지의 경우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차이가 두드러지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서비스업 종사자가 72.3%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70] ①리우더화 ②류더화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리우더화	류더화	리우더화	류더화		
■ 전 체 ■	(525)	43.8	56.2	39.0	61.0	100.0	
■ 성 별 ■	남성	(260)	46.5	53.5	42.7	57.3	100.0
	여성	(265)	41.1	58.9	35.5	64.5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45.9	54.1	38.5	61.5	100.0
	30대	(129)	40.3	59.7	42.6	57.4	100.0
	40대	(127)	43.3	56.7	40.9	59.1	100.0
	50대	(92)	44.6	55.4	31.5	68.5	100.0
	60대이상	(68)	47.1	52.9	39.7	60.3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46.3	53.7	45.4	54.6	100.0
	블루칼라	(44)	38.6	61.4	45.5	54.5	100.0
	화이트칼라	(107)	43.9	56.1	44.9	55.1	100.0
	가정주부	(126)	50.0	50.0	37.3	62.7	100.0
	학생	(39)	35.9	64.1	38.5	61.5	100.0
	무직및무응답	(18)	44.4	55.6	16.7	83.3	100.0
	서비스업	(83)	37.3	62.7	27.7	72.3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36.7	63.3	30.0	70.0	100.0
	고졸	(287)	45.3	54.7	39.0	61.0	100.0
	대졸 이상	(208)	42.8	57.2	40.4	59.6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41.3	58.7	38.5	61.5	100.0
	자연과학	(58)	43.1	56.9	50.0	50.0	100.0
	예체능및기타	(28)	57.1	42.9	35.7	64.3	100.0
	무응답	(18)	27.8	72.2	27.8	72.2	100.0

9-6 ①위안 ②위안

[그림 3-71] ①위안 ②위안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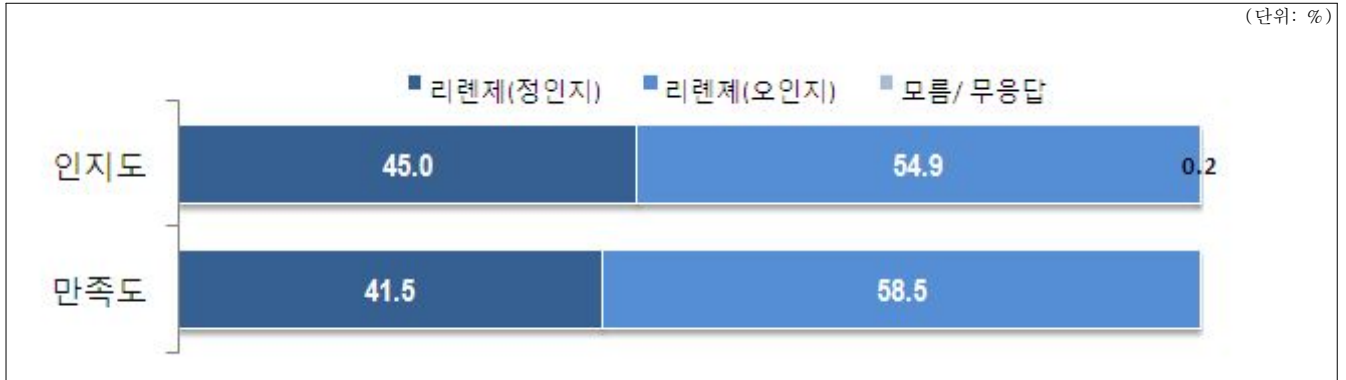
□ 위안 표기와 관련하여, 계층 간 응답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20대(69.7%), 대졸 학력자(66.8%)가 전체 평균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71] ①위안 ②위안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위안	위안	위안	위안	
■ 전 체 ■	(525)	41.5	58.5	39.0	61.0	100.0
■ 성 별 ■	남성 (260)	40.0	60.0	36.9	63.1	100.0
	여성 (265)	43.0	57.0	41.1	58.9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35.8	64.2	30.3	69.7	100.0
	30대 (129)	47.3	52.7	39.5	60.5	100.0
	40대 (127)	38.6	61.4	44.9	55.1	100.0
	50대 (92)	39.1	60.9	39.1	60.9	100.0
	60대이상 (68)	48.5	51.5	41.2	58.8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45.4	54.6	42.6	57.4	100.0
	블루칼라 (44)	38.6	61.4	38.6	61.4	100.0
	화이트칼라 (107)	43.0	57.0	34.6	65.4	100.0
	가정주부 (126)	41.3	58.7	45.2	54.8	100.0
	학생 (39)	33.3	66.7	28.2	71.8	100.0
	무직및무응답 (18)	38.9	61.1	55.6	44.4	100.0
	서비스업 (83)	41.0	59.0	32.5	67.5	100.0
	중졸 이하 (30)	50.0	50.0	46.7	53.3	100.0
■ 학 력 ■	고졸 (287)	42.2	57.8	42.5	57.5	100.0
	대졸 이상 (208)	39.4	60.6	33.2	66.8	100.0
	인문사회과학 (104)	40.4	59.6	28.8	71.2	100.0
■ 전 공 ■	자연과학 (58)	34.5	65.5	34.5	65.5	100.0
	예체능및기타 (28)	57.1	42.9	50.0	50.0	100.0
	무응답 (18)	22.2	77.8	27.8	72.2	100.0

9-7 ①리렌제 ②리렌제

[그림 3-72] ①리렌제 ②리렌제



[집단별 특성]

□ 리렌제 표기와 관련하여 정인지율 및 만족도의 경우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두드러지는 차이는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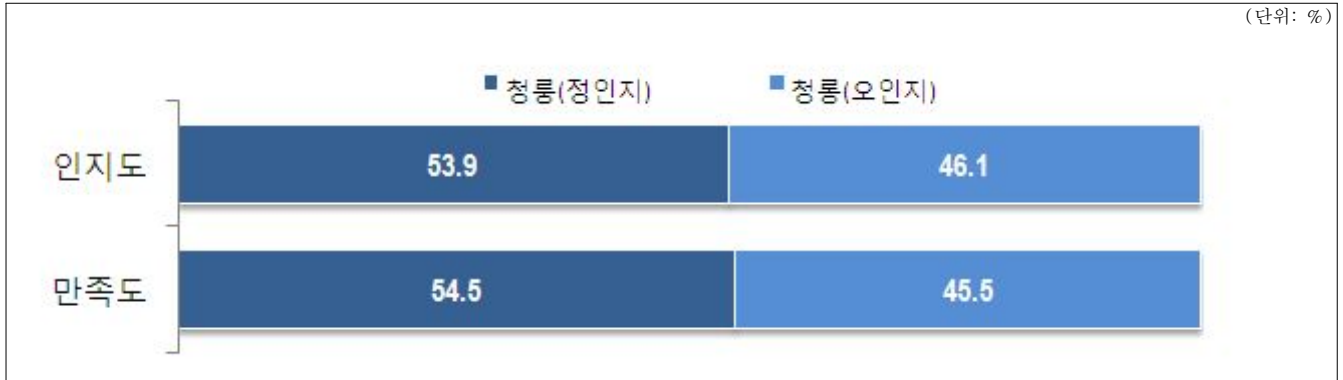
[표 3-72] ①리렌제 ②리렌제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리렌제	리렌제	모름/무응답	리렌제	리렌제	
■ 전 체 ■	(525)	54.9	45.0	0.2	58.5	41.5	100.0
■ 성 별 ■	남성 (260)	58.1	41.9	0.0	60.8	39.2	100.0
	여성 (265)	51.7	47.9	0.4	56.2	43.8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49.5	50.5	0.0	55.0	45.0	100.0
	30대 (129)	55.8	44.2	0.0	60.5	39.5	100.0
	40대 (127)	55.9	44.1	0.0	59.1	40.9	100.0
	50대 (92)	60.9	38.0	1.1	57.6	42.4	100.0
	60대이상 (68)	51.5	48.5	0.0	60.3	39.7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57.4	41.7	0.9	58.3	41.7	100.0
	블루칼라 (44)	56.8	43.2	0.0	63.6	36.4	100.0
	화이트칼라 (107)	53.3	46.7	0.0	57.0	43.0	100.0
	가정주부 (126)	58.7	41.3	0.0	62.7	37.3	100.0
	학생 (39)	43.6	56.4	0.0	51.3	48.7	100.0
	무직및무응답 (18)	44.4	55.6	0.0	27.8	72.2	100.0
	서비스업 (83)	54.2	45.8	0.0	61.4	38.6	100.0
	중졸 이하 (30)	56.7	43.3	0.0	50.0	50.0	100.0
■ 학 력 ■	고졸 (287)	55.1	44.6	0.3	60.6	39.4	100.0
	대졸 이상 (208)	54.3	45.7	0.0	56.7	43.3	100.0
	인문사회과학 (104)	54.8	45.2	0.0	58.7	41.3	100.0
■ 전 공 ■	자연과학 (58)	55.2	44.8	0.0	53.4	46.6	100.0
	예체능및기타 (28)	57.1	42.9	0.0	57.1	42.9	100.0
	무응답 (18)	44.4	55.6	0.0	55.6	44.4	100.0

9-8

①청룡 ②청룡

[그림 3-72] ①청룡 ②청룡



[집단별 특성]

□ 청룡 표기와 관련하여, 화이트칼라(65.4%), 대졸 학력자(61.1%)가 전체 평균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도 화이트칼라(63.6%)와 대졸 학력자(60.6%)가 다른 계층에 비해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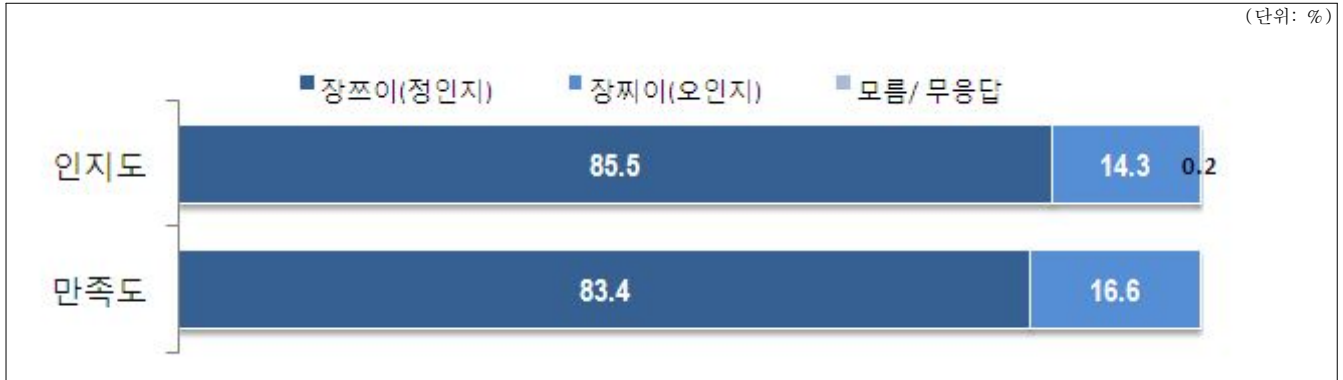
[표 3-73] ①청룡 ②청룡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청룡	청룡	청룡	청룡	
■ 전 체 ■	(525)	53.9	46.1	54.5	45.5	100.0
■ 성 별 ■	남성 (260)	55.8	44.2	53.1	46.9	100.0
	여성 (265)	52.1	47.9	55.8	44.2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56.9	43.1	55.0	45.0	100.0
	30대 (129)	56.6	43.4	54.3	45.7	100.0
	40대 (127)	48.8	51.2	57.5	42.5	100.0
	50대 (92)	56.5	43.5	52.2	47.8	100.0
	60대이상 (68)	50.0	50.0	51.5	48.5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49.1	50.9	54.6	45.4	100.0
	블루칼라 (44)	56.8	43.2	47.7	52.3	100.0
	화이트칼라 (107)	65.4	34.6	63.6	36.4	100.0
	가정주부 (126)	50.8	49.2	56.3	43.7	100.0
	학생 (39)	66.7	33.3	61.5	38.5	100.0
	무직및무응답 (18)	50.0	50.0	55.6	44.4	100.0
	서비스업 (83)	43.4	56.6	39.8	60.2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40.0	60.0	53.3	46.7	100.0
	고졸 (287)	50.2	49.8	50.2	49.8	100.0
	대졸 이상 (208)	61.1	38.9	60.6	39.4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58.7	41.3	56.7	43.3	100.0
	자연과학 (58)	65.5	34.5	67.2	32.8	100.0
	예체능및기타 (28)	64.3	35.7	60.7	39.3	100.0
	무응답 (18)	55.6	44.4	61.1	38.9	100.0

9-9

①장쯔이 ②장찌이

[그림 3-74] ①장쯔이 ②장찌이



[집단별 특성]

□ 장쯔이 표기의 정인지율은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50대(77.2%)와 중졸이하의 학력자(66.7%)가 유의미하게 낮았고, 만족도의 경우 30대가 89.1%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74] ①장쯔이 ②장찌이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장쯔이	장찌이	모름/무응답	장쯔이	장찌이		
■ 전 체 ■	(525)	85.5	14.3	0.2	83.4	16.6	100.0	
■ 성 별 ■	남성	(260)	83.1	16.5	0.4	81.9	18.1	100.0
	여성	(265)	87.9	12.1	0.0	84.9	15.1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85.3	14.7	0.0	83.5	16.5	100.0
	30대	(129)	89.9	10.1	0.0	89.1	10.9	100.0
	40대	(127)	90.6	8.7	0.8	81.1	18.9	100.0
	50대	(92)	77.2	22.8	0.0	81.5	18.5	100.0
■ 직 업 ■	60대이상	(68)	79.4	20.6	0.0	79.4	20.6	100.0
	자영업	(108)	79.6	19.4	0.9	81.5	18.5	100.0
	블루칼라	(44)	81.8	18.2	0.0	81.8	18.2	100.0
	화이트칼라	(107)	90.7	9.3	0.0	87.9	12.1	100.0
	가정주부	(126)	88.9	11.1	0.0	85.7	14.3	100.0
	학생	(39)	92.3	7.7	0.0	87.2	12.8	100.0
■ 학 력 ■	무직및무응답	(18)	83.3	16.7	0.0	77.8	22.2	100.0
	서비스업	(83)	80.7	19.3	0.0	77.1	22.9	100.0
	중졸 이하	(30)	66.7	33.3	0.0	73.3	26.7	100.0
	고졸	(287)	84.7	15.0	0.3	84.7	15.3	100.0
■ 전 공 ■	대졸 이상	(208)	89.4	10.6	0.0	83.2	16.8	100.0
	인문사회과학	(104)	90.4	9.6	0.0	87.5	12.5	100.0
	자연과학	(58)	84.5	15.5	0.0	77.6	22.4	100.0
	예체능및기타	(28)	92.9	7.1	0.0	75.0	25.0	100.0
무응답	(18)	94.4	5.6	0.0	88.9	11.1	100.0	

9-10

①당샤오핑

②당샤오핑

[그림 3-75] ①당샤오핑 ②당샤오핑



[집단별 특성]

□ 당샤오핑 표기 정인지율은 대졸 이상이 75.5%로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고, 만족도의 경우 30대가 75.2%로 다른 계층에 비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75] ①당샤오핑 ②당샤오핑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당샤오핑	당샤오핑	모름/무응답	당샤오핑	당샤오핑		
■ 전 체 ■	(525)	69.1	30.7	0.2	67.6	32.4	100.0	
■ 성 별 ■	남성	(260)	69.2	30.4	0.4	68.8	31.2	100.0
	여성	(265)	69.1	30.9	0.0	66.4	33.6	100.0
■ 연 령 ■	20대 이하	(109)	67.9	32.1	0.0	67.0	33.0	100.0
	30대	(129)	74.4	25.6	0.0	75.2	24.8	100.0
	40대	(127)	69.3	29.9	0.8	68.5	31.5	100.0
	50대	(92)	63.0	37.0	0.0	59.8	40.2	100.0
	60대이상	(68)	69.1	30.9	0.0	63.2	36.8	100.0
■ 직 업 ■	자영업	(108)	67.6	32.4	0.0	69.4	30.6	100.0
	블루칼라	(44)	70.5	27.3	2.3	77.3	22.7	100.0
	화이트칼라	(107)	73.8	26.2	0.0	68.2	31.8	100.0
	가정주부	(126)	74.6	25.4	0.0	66.7	33.3	100.0
	학생	(39)	71.8	28.2	0.0	69.2	30.8	100.0
	무직및무응답	(18)	55.6	44.4	0.0	38.9	61.1	100.0
	서비스업	(83)	57.8	42.2	0.0	66.3	33.7	100.0
■ 학 력 ■	중졸 이하	(30)	76.7	23.3	0.0	73.3	26.7	100.0
	고졸	(287)	63.8	35.9	0.3	65.2	34.8	100.0
	대졸 이상	(208)	75.5	24.5	0.0	70.2	29.8	100.0
■ 전 공 ■	인문사회과학	(104)	72.1	27.9	0.0	65.4	34.6	100.0
	자연과학	(58)	74.1	25.9	0.0	72.4	27.6	100.0
	예체능및기타	(28)	89.3	10.7	0.0	82.1	17.9	100.0
	무응답	(18)	77.8	22.2	0.0	72.2	27.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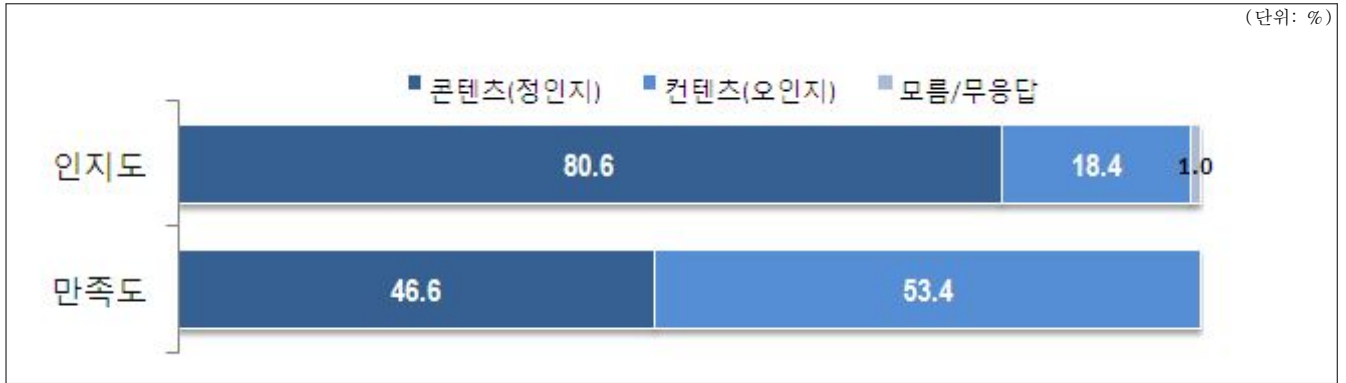
IV. 조사 결과

- 전문 인 용 령 편-

1-1

①콘텐츠 ②컨텐츠

[그림 4-1] ①콘텐츠 ②컨텐츠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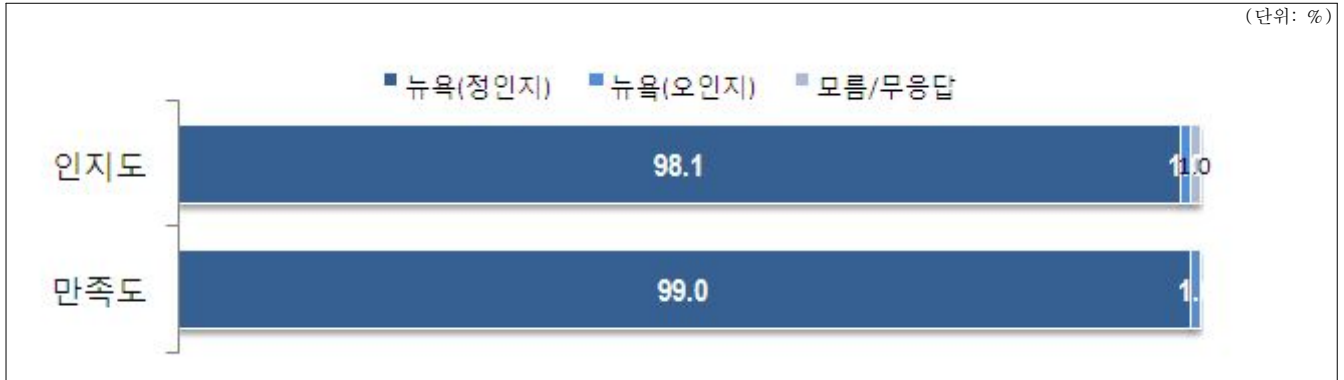
□ 콘텐츠 정인지 비율은 30대(94.1%)가 전체 평균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인문계열 전공자가 사회과학계열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만족도의 경우 언론인이 비언론인 보다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4-1] ①콘텐츠 ②컨텐츠 집단적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콘텐츠	컨텐츠	모름/무응답	콘텐츠	컨텐츠	
■ 전 체 ■	(103)	80.6	18.4	1.0	46.6	53.4	100.0
■ 성 별 ■	남성 (55)	81.8	18.2	0.0	52.7	47.3	100.0
	여성 (48)	79.2	18.8	2.1	39.6	60.4	100.0
■ 연 령 ■	20대 (36)	75.0	25.0	0.0	36.1	63.9	100.0
	30대 (34)	94.1	2.9	2.9	47.1	52.9	100.0
	40대 이상 (31)	71.0	29.0	0.0	58.1	41.9	100.0
	무응답 (2)	100.0	0.0	0.0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7.5	12.5	0.0	70.8	29.2	100.0
	신문기자 (29)	79.3	20.7	0.0	41.4	58.6	100.0
	출판사종사자 (25)	80.0	16.0	4.0	44.0	56.0	100.0
	국어교사 (25)	76.0	24.0	0.0	32.0	6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83.0	17.0	0.0	54.7	45.3	100.0
	비언론인 (50)	78.0	20.0	2.0	38.0	6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75.8	22.7	1.5	43.9	56.1	100.0
	사회과학계열 (26)	92.3	7.7	0.0	50.0	50.0	100.0
	기타 (8)	100.0	0.0	0.0	75.0	25.0	100.0

1-2 ①뉴욕 ②뉴욕

[그림 4-2] ①뉴욕 ②뉴욕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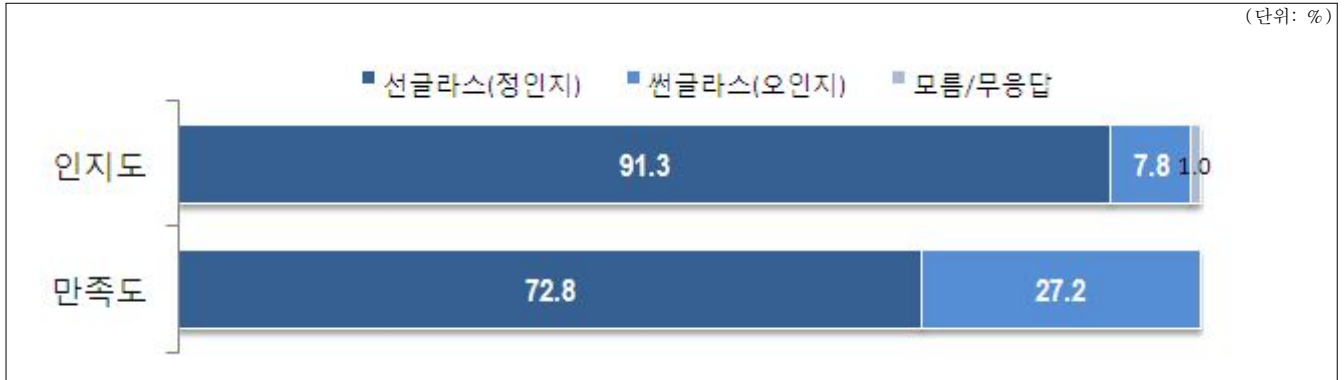
□ 뉴욕 표기의 정인지와 만족도의 경우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 ①뉴욕 ②뉴욕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뉴욕	뉴욕	모름/무응답	뉴욕	뉴욕		
■ 전 체 ■	(103)	98.1	1.0	1.0	99.0	1.0	100.0	
■ 성 별 ■	남성	(55)	100.0	0.0	0.0	100.0	0.0	100.0
	여성	(48)	95.8	2.1	2.1	97.9	2.1	100.0
■ 연 령 ■	20대	(36)	100.0	0.0	0.0	100.0	0.0	100.0
	30대	(34)	97.1	0.0	2.9	97.1	2.9	100.0
	40대 이상	(31)	96.8	3.2	0.0	100.0	0.0	100.0
	무응답	(2)	100.0	0.0	0.0	10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95.8	4.2	0.0	95.8	4.2	100.0
	신문기자	(29)	100.0	0.0	0.0	100.0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96.0	0.0	4.0	100.0	0.0	100.0
	국어교사	(25)	100.0	0.0	0.0	100.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8.1	1.9	0.0	98.1	1.9	100.0
	비언론인	(50)	98.0	0.0	2.0	100.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8.5	0.0	1.5	100.0	0.0	100.0
	사회과학계열	(26)	96.2	3.8	0.0	100.0	0.0	100.0
	기타	(8)	100.0	0.0	0.0	87.5	12.5	100.0

1-3 ①선글라스 ②썬글라스

[그림 4-3] ①선글라스 ②썬글라스



[집단별 특성]

□ 선글라스 표기의 경우 인문계열이 95.5%로 전체 평균 비율보다 정인지율이 높았고, 만족도의 경우 전체 평균 비율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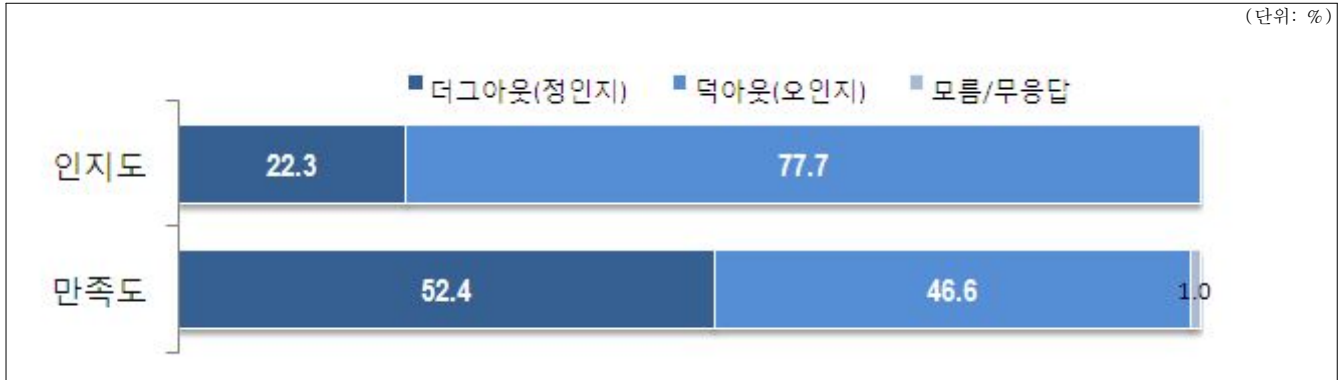
[표 4-3] ①선글라스 ②썬글라스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선글라스	썬글라스	모름/ 무응답	선글라스	썬글라스		
■ 전 체 ■	(103)	91.3	7.8	1.0	72.8	27.2	100.0	
■ 성 별 ■	남성	(55)	94.5	5.5	0.0	72.7	27.3	100.0
	여성	(48)	87.5	10.4	2.1	72.9	27.1	100.0
■ 연 령 ■	20대	(36)	94.4	5.6	0.0	72.2	27.8	100.0
	30대	(34)	91.2	5.9	2.9	64.7	35.3	100.0
	40대 이상	(31)	90.3	9.7	0.0	87.1	12.9	100.0
	무응답	(2)	50.0	50.0	0.0	0.0	10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79.2	20.8	0.0	62.5	37.5	100.0
	신문기자	(29)	96.6	3.4	0.0	69.0	31.0	100.0
	출판사종사자	(25)	96.0	0.0	4.0	88.0	12.0	100.0
	국어교사	(25)	92.0	8.0	0.0	72.0	2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88.7	11.3	0.0	66.0	34.0	100.0
	비언론인	(50)	94.0	4.0	2.0	80.0	2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5.5	3.0	1.5	78.8	21.2	100.0
	사회과학계열	(26)	80.8	19.2	0.0	61.5	38.5	100.0
	기타	(8)	87.5	12.5	0.0	62.5	37.5	100.0

1-4

①더그아웃 ②덕아웃

[그림 4-4] ①더그아웃 ②덕아웃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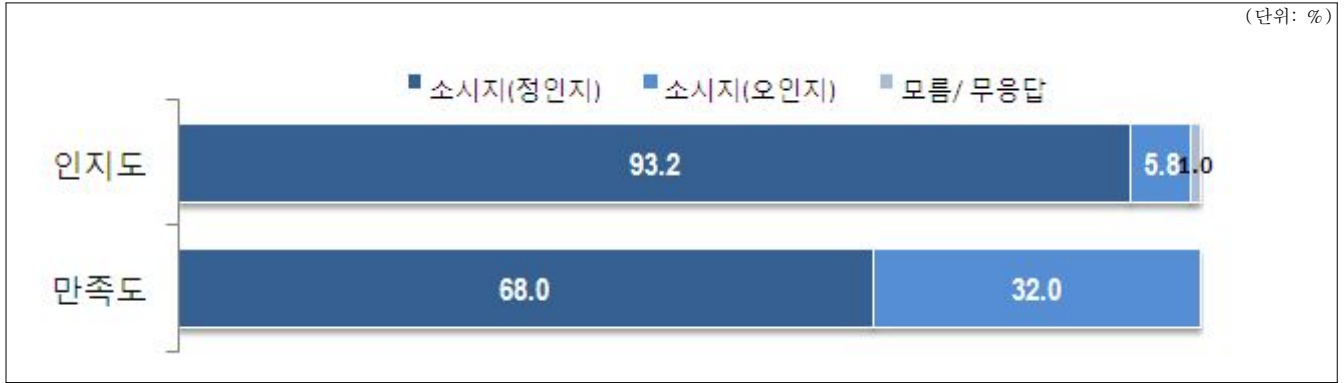
□ 더그아웃 표기에 대해 남성이 63.6%로 전체 평균 비율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만족도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 ①더그아웃 ②덕아웃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더그아웃	덕아웃	모름/무응답	더그아웃	덕아웃		
■ 전 체 ■	(103)	52.4	46.6	1.0	22.3	77.7	100.0	
■ 성 별 ■	남성	(55)	63.6	36.4	0.0	18.2	81.8	100.0
	여성	(48)	39.6	58.3	2.1	27.1	72.9	100.0
■ 연 령 ■	20대	(36)	55.6	44.4	0.0	27.8	72.2	100.0
	30대	(34)	55.9	41.2	2.9	17.6	82.4	100.0
	40대 이상	(31)	48.4	51.6	0.0	22.6	77.4	100.0
	무응답	(2)	0.0	100.0	0.0	0.0	10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54.2	45.8	0.0	20.8	79.2	100.0
	신문기자	(29)	65.5	34.5	0.0	13.8	86.2	100.0
	출판사종사자	(25)	44.0	52.0	4.0	24.0	76.0	100.0
	국어교사	(25)	44.0	56.0	0.0	32.0	6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60.4	39.6	0.0	17.0	83.0	100.0
	비언론인	(50)	44.0	54.0	2.0	28.0	7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54.5	43.9	1.5	24.2	75.8	100.0
	사회과학계열	(26)	46.2	53.8	0.0	15.4	84.6	100.0
	기타	(8)	75.0	25.0	0.0	37.5	62.5	100.0

1-5 ①소시지 ②소세지

[그림 4-5] 소시지 ②소세지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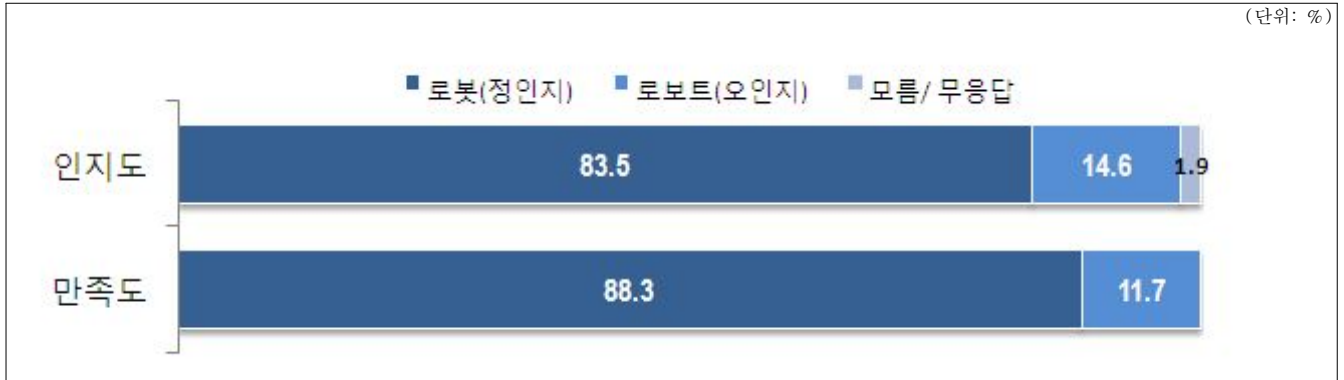
□ 소시지 표기와 관련하여 남성(100.0%) 및 언론인(98.1%) 계층이 전체 평균 비율보다 높았고, 만족도의 경우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4-5] 소시지 ②소세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소시지	소세지	모름/무응답	소시지	소세지		
■ 전 체 ■	(103)	93.2	5.8	1.0	68.0	32.0	100.0	
■ 성 별 ■	남성	(55)	100.0	0.0	0.0	65.5	34.5	100.0
	여성	(48)	85.4	12.5	2.1	70.8	29.2	100.0
■ 연 령 ■	20대	(36)	88.9	11.1	0.0	61.1	38.9	100.0
	30대	(34)	94.1	2.9	2.9	58.8	41.2	100.0
	40대 이상	(31)	96.8	3.2	0.0	83.9	16.1	100.0
	무응답	(2)	100.0	0.0	0.0	10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95.8	4.2	0.0	70.8	29.2	100.0
	신문기자	(29)	100.0	0.0	0.0	65.5	34.5	100.0
	출판사종사자	(25)	92.0	4.0	4.0	88.0	12.0	100.0
	국어교사	(25)	84.0	16.0	0.0	48.0	52.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8.1	1.9	0.0	67.9	32.1	100.0
	비언론인	(50)	88.0	10.0	2.0	68.0	3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0.9	7.6	1.5	66.7	33.3	100.0
	사회과학계열	(26)	96.2	3.8	0.0	69.2	30.8	100.0
	기타	(8)	100.0	0.0	0.0	62.5	37.5	100.0

1-6 ①로봇 ②로보트

[그림 4-6] ①로봇 ②로보트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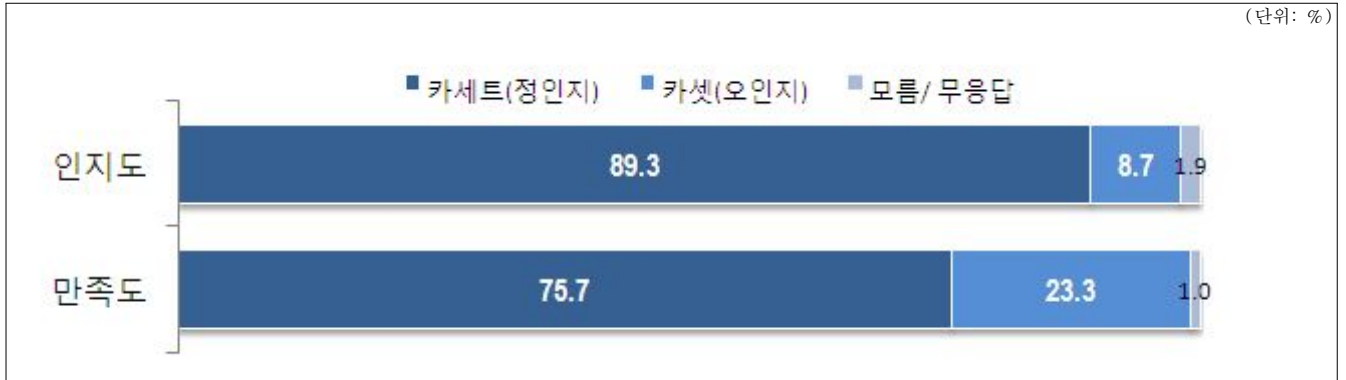
□ 로봇 표기와 관련하여 40대 이상이 96.8%로 전체 평균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만족도의 경우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4-6] ①로봇 ②로보트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로봇	로보트	모름/무응답	로봇	로보트		
■ 전 체 ■	(103)	83.5	14.6	1.9	88.3	11.7	100.0	
■ 성 별 ■	남성	(55)	87.3	12.7	0.0	90.9	9.1	100.0
	여성	(48)	79.2	16.7	4.2	85.4	14.6	100.0
■ 연 령 ■	20대	(36)	75.0	22.2	2.8	80.6	19.4	100.0
	30대	(34)	79.4	17.6	2.9	97.1	2.9	100.0
	40대 이상	(31)	96.8	3.2	0.0	87.1	12.9	100.0
	무응답	(2)	100.0	0.0	0.0	10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7.5	12.5	0.0	100.0	0.0	100.0
	신문기자	(29)	89.7	10.3	0.0	86.2	13.8	100.0
	출판사종사자	(25)	72.0	20.0	8.0	96.0	4.0	100.0
	국어교사	(25)	84.0	16.0	0.0	72.0	2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88.7	11.3	0.0	92.5	7.5	100.0
	비언론인	(50)	78.0	18.0	4.0	84.0	16.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83.3	13.6	3.0	84.8	15.2	100.0
	사회과학계열	(26)	92.3	7.7	0.0	92.3	7.7	100.0
	기타	(8)	50.0	50.0	0.0	100.0	0.0	100.0

1-7 ①카셋 ②카세트

[그림 4-7] ①카셋 ②카세트



[집단별 특성]

□ 카셋트 표기의 정인지와 만족도의 경우,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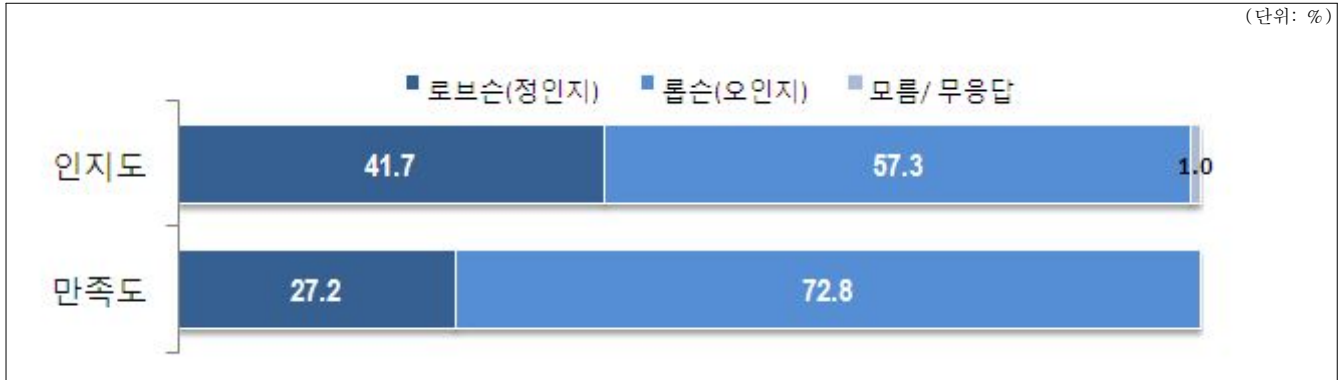
[표 4-7] ①카셋 ②카세트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카셋	카세트	모름/무응답	카셋	카세트			
■ 전 체 ■	(103)	8.7	89.3	1.9	23.3	75.7	1.0	100.0	
■ 성 별 ■	남성	(55)	9.1	90.9	0.0	27.3	72.7	0.0	100.0
	여성	(48)	8.3	87.5	4.2	18.8	79.2	2.1	100.0
■ 연 령 ■	20대	(36)	5.6	91.7	2.8	16.7	83.3	0.0	100.0
	30대	(34)	5.9	91.2	2.9	23.5	73.5	2.9	100.0
	40대 이상	(31)	12.9	87.1	0.0	29.0	71.0	0.0	100.0
	무응답	(2)	50.0	50.0	0.0	50.0	5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6.7	83.3	0.0	25.0	75.0	0.0	100.0
	신문기자	(29)	3.4	96.6	0.0	31.0	69.0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92.0	4.0	16.0	80.0	4.0	100.0
	국어교사	(25)	12.0	84.0	4.0	20.0	80.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4	90.6	0.0	28.3	71.7	0.0	100.0
	비언론인	(50)	8.0	88.0	4.0	18.0	80.0	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1	87.9	3.0	24.2	74.2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7.7	92.3	0.0	19.2	80.8	0.0	100.0
	기타	(8)	12.5	87.5	0.0	37.5	62.5	0.0	100.0

1-8

①로브슨 ②롭슨

[그림 4-8] ①로브슨 ②롭슨



[집단별 특성]

□ 로브슨 표기 정인지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언론인들이 롭슨 표기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표 4-8] ①로브슨 ②롭슨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로브슨	롭슨	모름/무응답	로브슨	롭슨		
■ 전 체 ■	(103)	41.7	57.3	1.0	27.2	72.8	100.0	
■ 성 별 ■	남성	(55)	45.5	54.5	0.0	20.0	80.0	100.0
	여성	(48)	37.5	60.4	2.1	35.4	64.6	100.0
■ 연 령 ■	20대	(36)	41.7	58.3	0.0	27.8	72.2	100.0
	30대	(34)	41.2	55.9	2.9	26.5	73.5	100.0
	40대 이상	(31)	45.2	54.8	0.0	29.0	71.0	100.0
	무응답	(2)	0.0	100.0	0.0	0.0	10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37.5	62.5	0.0	20.8	79.2	100.0
	신문기자	(29)	48.3	51.7	0.0	13.8	86.2	100.0
	출판사종사자	(25)	32.0	64.0	4.0	28.0	72.0	100.0
	국어교사	(25)	48.0	52.0	0.0	48.0	52.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43.4	56.6	0.0	17.0	83.0	100.0
	비언론인	(50)	40.0	58.0	2.0	38.0	6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47.0	51.5	1.5	30.3	69.7	100.0
	사회과학계열	(26)	30.8	69.2	0.0	26.9	73.1	100.0
	기타	(8)	50.0	50.0	0.0	12.5	87.5	100.0

1-9

①잉글리시

②잉글리쉬

[그림 4-9] ①잉글리시 ②잉글리쉬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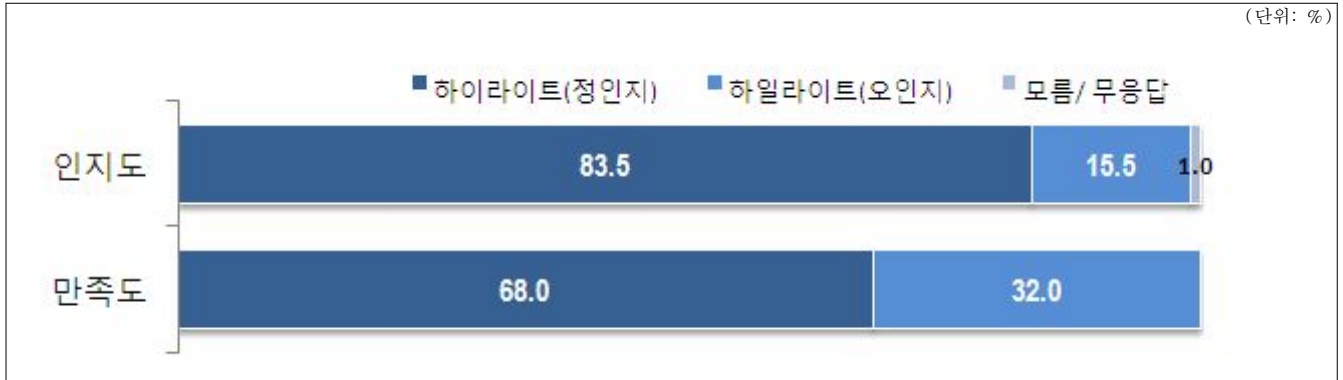
□ 잉글리시 표기 정인지율은 남성이 85.5%로 전체 평균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만족도의 경우 30대가 41.2%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4-9] ①잉글리시 ②잉글리쉬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잉글리시	잉글리쉬	모름/ 무응답	잉글리시	잉글리쉬		
■ 전 체 ■	(103)	77.7	21.4	1.0	55.3	44.7	100.0	
■ 성 별 ■	남성	(55)	85.5	14.5	0.0	61.8	38.2	100.0
	여성	(48)	68.8	29.2	2.1	47.9	52.1	100.0
■ 연 령 ■	20대	(36)	72.2	27.8	0.0	47.2	52.8	100.0
	30대	(34)	76.5	20.6	2.9	41.2	58.8	100.0
	40대 이상	(31)	87.1	12.9	0.0	80.6	19.4	100.0
	무응답	(2)	50.0	50.0	0.0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75.0	25.0	0.0	54.2	45.8	100.0
	신문기자	(29)	93.1	6.9	0.0	65.5	34.5	100.0
	출판사종사자	(25)	72.0	24.0	4.0	48.0	52.0	100.0
	국어교사	(25)	68.0	32.0	0.0	52.0	4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84.9	15.1	0.0	60.4	39.6	100.0
	비언론인	(50)	70.0	28.0	2.0	50.0	5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77.3	21.2	1.5	60.6	39.4	100.0
	사회과학계열	(26)	80.8	19.2	0.0	57.7	42.3	100.0
	기타	(8)	87.5	12.5	0.0	25.0	75.0	100.0

1-10 ①하이라이트 ②하일라이트

[그림 4-10] ①하이라이트 ②하일라이트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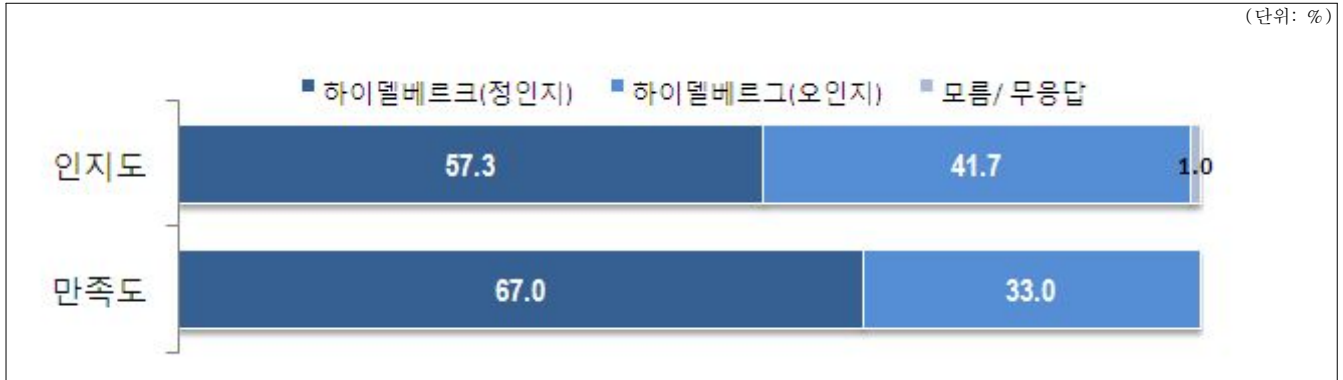
□ 하이라이트 표기 정인지율에서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언론인이 56.6%로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0] ①하이라이트 ②하일라이트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하이라이트	하일라이트	모름/무응답	하이라이트	하일라이트		
■ 전 체 ■	(103)	83.5	15.5	1.0	68.0	32.0	100.0	
■ 성 별 ■	남성	(55)	83.6	16.4	0.0	60.0	40.0	100.0
	여성	(48)	83.3	14.6	2.1	77.1	22.9	100.0
■ 연 령 ■	20대	(36)	88.9	11.1	0.0	80.6	19.4	100.0
	30대	(34)	79.4	17.6	2.9	64.7	35.3	100.0
	40대 이상	(31)	83.9	16.1	0.0	61.3	38.7	100.0
	무응답	(2)	50.0	50.0	0.0	0.0	10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79.2	20.8	0.0	50.0	50.0	100.0
	신문기자	(29)	82.8	17.2	0.0	62.1	37.9	100.0
	출판사종사자	(25)	80.0	16.0	4.0	76.0	24.0	100.0
	국어교사	(25)	92.0	8.0	0.0	84.0	16.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81.1	18.9	0.0	56.6	43.4	100.0
	비언론인	(50)	86.0	12.0	2.0	80.0	2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84.8	13.6	1.5	71.2	28.8	100.0
	사회과학계열	(26)	84.6	15.4	0.0	53.8	46.2	100.0
	기타	(8)	87.5	12.5	0.0	87.5	12.5	100.0

2-1 ①하이델베르크 ②하이델베르그

[그림 4-11] ①하이델베르크 ②하이델베르그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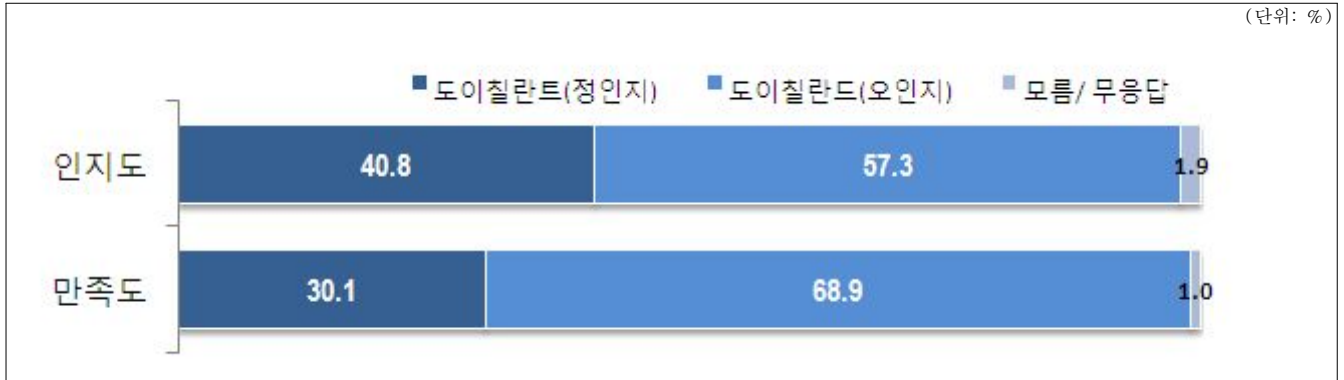
□ 하이델베르크 표기와 관련하여 정인지율 및 만족도에서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4-11] ①하이델베르크 ②하이델베르그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하이델베르크	하이델베르그	모름/무응답	하이델베르크	하이델베르그		
■ 전 체 ■	(103)	57.3	41.7	1.0	67.0	33.0	100.0	
■ 성 별 ■	남성	(55)	54.5	45.5	0.0	67.3	32.7	100.0
	여성	(48)	60.4	37.5	2.1	66.7	33.3	100.0
■ 연 령 ■	20대	(36)	63.9	36.1	0.0	69.4	30.6	100.0
	30대	(34)	47.1	50.0	2.9	73.5	26.5	100.0
	40대 이상	(31)	61.3	38.7	0.0	54.8	45.2	100.0
	무응답	(2)	50.0	50.0	0.0	10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45.8	54.2	0.0	70.8	29.2	100.0
	신문기자	(29)	72.4	27.6	0.0	58.6	41.4	100.0
	출판사종사자	(25)	68.0	28.0	4.0	80.0	20.0	100.0
	국어교사	(25)	40.0	60.0	0.0	60.0	4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60.4	39.6	0.0	64.2	35.8	100.0
	비언론인	(50)	54.0	44.0	2.0	70.0	3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57.6	40.9	1.5	63.6	36.4	100.0
	사회과학계열	(26)	57.7	42.3	0.0	73.1	26.9	100.0
	기타	(8)	62.5	37.5	0.0	75.0	25.0	100.0

2-2 ①도이칠란드 ②도이칠란트

[그림 4-12] ①도이칠란드 ②도이칠란트



[집단별 특성]

□ 도이칠란트의 표기와 관련하여 언론인의 정인지 비율이(52.8%) 전체 평균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4-12] ①도이칠란드 ②도이칠란트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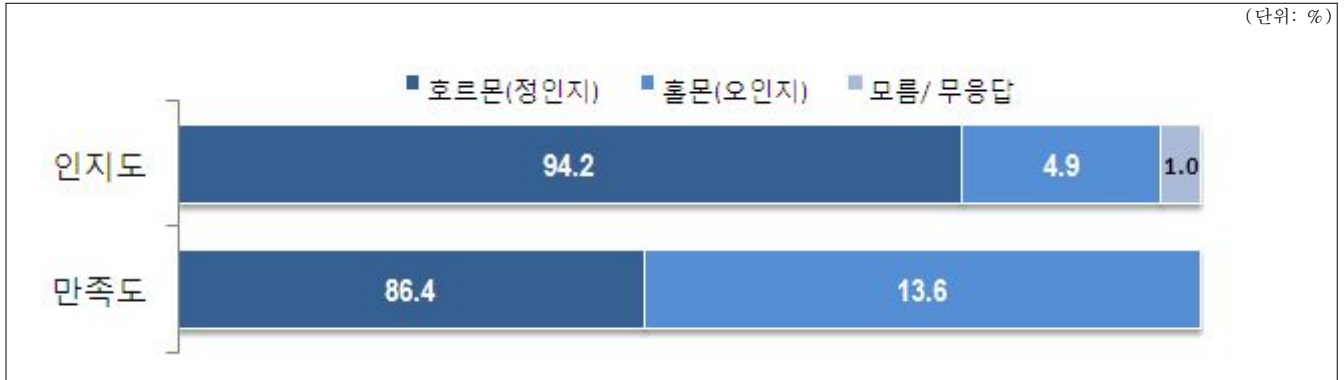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도이칠란드	도이칠란트	모름/무응답	도이칠란드	도이칠란트	모름/무응답	
■ 전 체 ■	(103)	57.3	40.8	1.9	68.9	30.1	1.0	100.0
■ 성 별 ■								
남성	(55)	50.9	49.1	0.0	61.8	36.4	1.8	100.0
여성	(48)	64.6	31.3	4.2	77.1	22.9	0.0	100.0
■ 연 령 ■								
20대	(36)	77.8	22.2	0.0	86.1	13.9	0.0	100.0
30대	(34)	55.9	38.2	5.9	67.6	32.4	0.0	100.0
40대 이상	(31)	38.7	61.3	0.0	51.6	45.2	3.2	100.0
무응답	(2)	0.0	100.0	0.0	50.0	5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50.0	45.8	4.2	62.5	33.3	4.2	100.0
신문기자	(29)	41.4	58.6	0.0	48.3	51.7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72.0	24.0	4.0	84.0	16.0	0.0	100.0
국어교사	(25)	68.0	32.0	0.0	84.0	16.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45.3	52.8	1.9	54.7	43.4	1.9	100.0
비언론인	(50)	70.0	28.0	2.0	84.0	16.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60.6	37.9	1.5	72.7	27.3	0.0	100.0
사회과학계열	(26)	46.2	53.8	0.0	53.8	42.3	3.8	100.0
기타	(8)	50.0	37.5	12.5	75.0	25.0	0.0	100.0

2-3

①홀몬

②호르몬

[그림 4-13] ①홀몬 ②호르몬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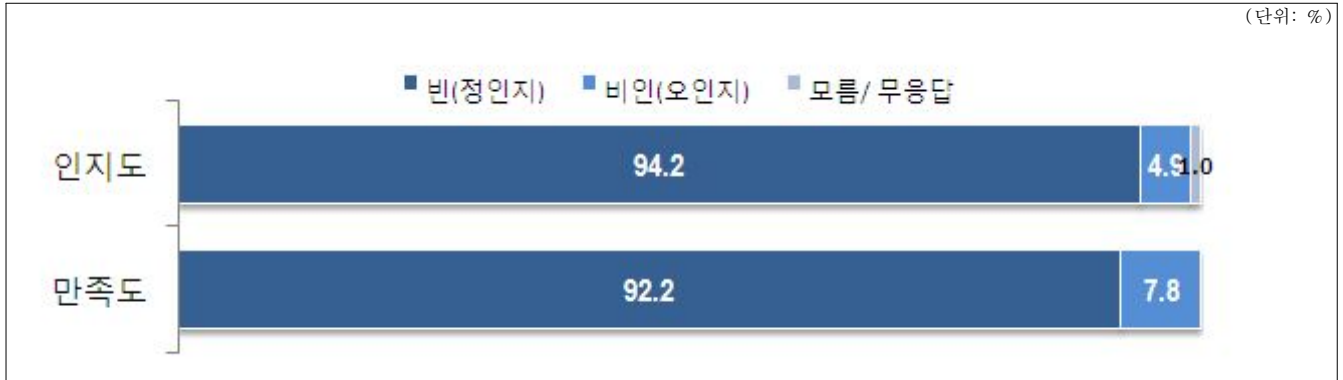
□ 호르몬 표기 정인지율에서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30대가 76.5%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4-13] ①홀몬 ②호르몬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홀몬	호르몬	모름/무응답	홀몬	호르몬	
■ 전 체 ■	(103)	4.9	94.2	1.0	13.6	86.4	100.0
■ 성 별 ■	남성 (55)	5.5	94.5	0.0	14.5	85.5	100.0
	여성 (48)	4.2	93.8	2.1	12.5	87.5	100.0
■ 연 령 ■	20대 (36)	2.8	97.2	0.0	5.6	94.4	100.0
	30대 (34)	5.9	91.2	2.9	23.5	76.5	100.0
	40대 이상 (31)	6.5	93.5	0.0	9.7	90.3	100.0
	무응답 (2)	0.0	100.0	0.0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	91.7	0.0	20.8	79.2	100.0
	신문기자 (29)	0.0	100.0	0.0	6.9	93.1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92.0	4.0	16.0	84.0	100.0
	국어교사 (25)	8.0	92.0	0.0	12.0	8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8	96.2	0.0	13.2	86.8	100.0
	비언론인 (50)	6.0	92.0	2.0	14.0	86.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4.5	93.9	1.5	13.6	86.4	100.0
	사회과학계열 (26)	3.8	96.2	0.0	7.7	92.3	100.0
	기타 (8)	12.5	87.5	0.0	25.0	75.0	100.0

2-4 ①빈 ②비인

[그림 4-14] ①빈 ②비인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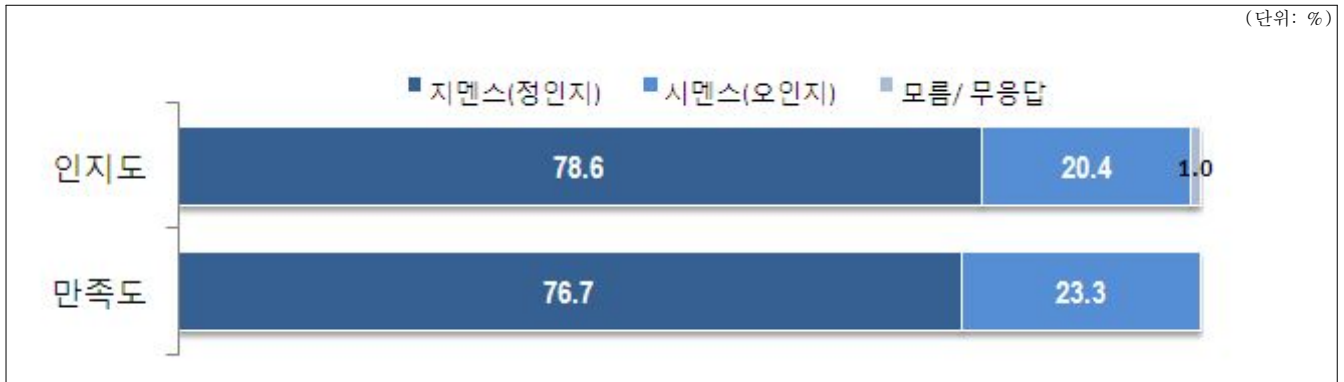
□ 빈 표기 정인지 및 만족도에서 전체 평균 비율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4-14] ①빈 ②비인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빈	비인	모름/무응답	빈	비인		
■ 전 체 ■	(103)	94.2	4.9	1.0	92.2	7.8	100.0	
■ 성 별 ■	남성	(55)	94.5	5.5	0.0	92.7	7.3	100.0
	여성	(48)	93.8	4.2	2.1	91.7	8.3	100.0
■ 연 령 ■	20대	(36)	94.4	5.6	0.0	94.4	5.6	100.0
	30대	(34)	94.1	2.9	2.9	91.2	8.8	100.0
	40대 이상	(31)	96.8	3.2	0.0	93.5	6.5	100.0
	무응답	(2)	50.0	50.0	0.0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7.5	12.5	0.0	83.3	16.7	100.0
	신문기자	(29)	100.0	0.0	0.0	96.6	3.4	100.0
	출판사종사자	(25)	96.0	0.0	4.0	96.0	4.0	100.0
	국어교사	(25)	92.0	8.0	0.0	92.0	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4.3	5.7	0.0	90.6	9.4	100.0
	비언론인	(50)	94.0	4.0	2.0	94.0	6.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3.9	4.5	1.5	92.4	7.6	100.0
	사회과학계열	(26)	96.2	3.8	0.0	92.3	7.7	100.0
	기타	(8)	87.5	12.5	0.0	87.5	12.5	100.0

2-5 ①시멘스 ②지멘스

[그림 4-15] ①시멘스 ②지멘스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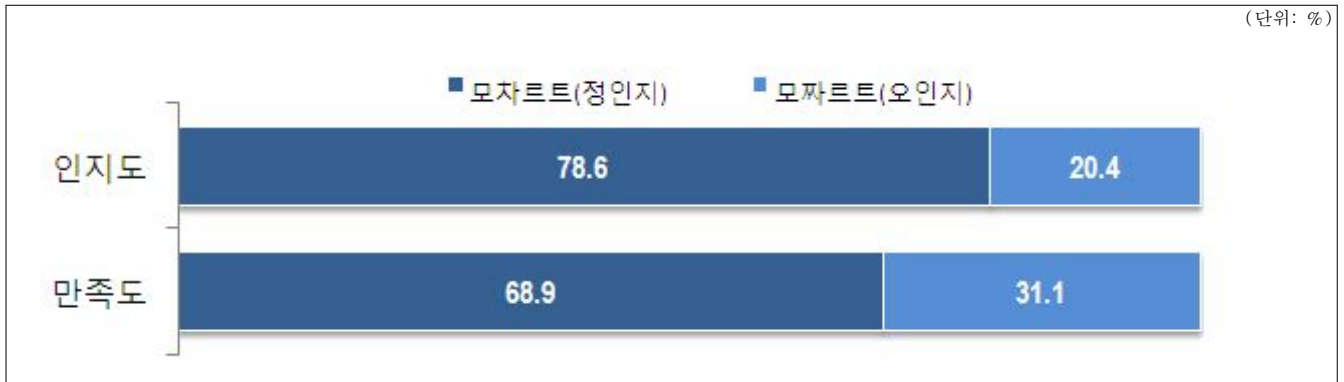
□ 지멘스 표기 정인지율은 남성(90.9%), 언론인(94.3%)이 전체 평균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만족도의 경우 남성(92.7%), 언론인이(88.7%) 유의미하게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았음.

[표 4-15] ①시멘스 ②지멘스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시멘스	지멘스	모름/무응답	시멘스	지멘스		
■ 전 체 ■	(103)	20.4	78.6	1.0	23.3	76.7	100.0	
■ 성 별 ■	남성	(55)	9.1	90.9	0.0	7.3	92.7	100.0
	여성	(48)	33.3	64.6	2.1	41.7	58.3	100.0
■ 연 령 ■	20대	(36)	36.1	63.9	0.0	36.1	63.9	100.0
	30대	(34)	14.7	82.4	2.9	23.5	76.5	100.0
	40대 이상	(31)	6.5	93.5	0.0	9.7	90.3	100.0
	무응답	(2)	50.0	50.0	0.0	0.0	10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2.5	87.5	0.0	16.7	83.3	100.0
	신문기자	(29)	0.0	100.0	0.0	6.9	93.1	100.0
	출판사종사자	(25)	28.0	68.0	4.0	36.0	64.0	100.0
	국어교사	(25)	44.0	56.0	0.0	36.0	6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5.7	94.3	0.0	11.3	88.7	100.0
	비언론인	(50)	36.0	62.0	2.0	36.0	6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24.2	74.2	1.5	27.3	72.7	100.0
	사회과학계열	(26)	11.5	88.5	0.0	11.5	88.5	100.0
	기타	(8)	12.5	87.5	0.0	25.0	75.0	100.0

2-6 ①모차르트 ②모짜르트

[그림 4-16] ①모차르트 ②모짜르트



[집단별 특성]

□ 모차르트 표기와 관련하여 정인지 및 만족도에서 전체 평균 비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4-16] ①모차르트 ②모짜르트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모차르트	모짜르트	모름/ 무응답	모차르트	모짜르트		
■ 전 체 ■	(103)	78.6	20.4	1.0	68.9	31.1	100.0	
■ 성 별 ■	남성	(55)	80.0	20.0	0.0	70.9	29.1	100.0
	여성	(48)	77.1	20.8	2.1	66.7	33.3	100.0
■ 연 령 ■	20대	(36)	86.1	13.9	0.0	69.4	30.6	100.0
	30대	(34)	76.5	20.6	2.9	61.8	38.2	100.0
	40대 이상	(31)	71.0	29.0	0.0	74.2	25.8	100.0
	무응답	(2)	100.0	0.0	0.0	10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75.0	25.0	0.0	70.8	29.2	100.0
	신문기자	(29)	79.3	20.7	0.0	58.6	41.4	100.0
	출판사종사자	(25)	88.0	8.0	4.0	80.0	20.0	100.0
	국어교사	(25)	72.0	28.0	0.0	68.0	32.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7.4	22.6	0.0	64.2	35.8	100.0
	비언론인	(50)	80.0	18.0	2.0	74.0	26.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78.8	19.7	1.5	69.7	30.3	100.0
	사회과학계열	(26)	73.1	26.9	0.0	65.4	34.6	100.0
	기타	(8)	87.5	12.5	0.0	62.5	37.5	100.0

2-7 ①취리히 ②쨌리히

[그림 4-17] ①취리히 ②쨌리히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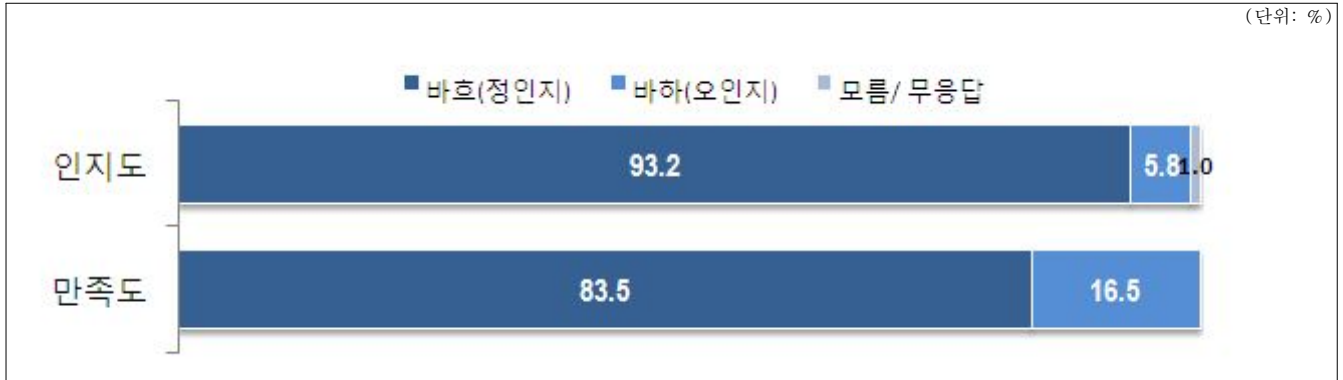
□ 취리히 표기에서 남성(96.4%)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비언론인이 전체 평균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4-17] ①취리히 ②쨌리히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취리히	쨌리히	모름/무응답	취리히	쨌리히		
■ 전 체 ■	(103)	88.3	10.7	1.0	78.6	21.4	100.0	
■ 성 별 ■	남성	(55)	96.4	3.6	0.0	78.2	21.8	100.0
	여성	(48)	79.2	18.8	2.1	79.2	20.8	100.0
■ 연 령 ■	20대	(36)	86.1	13.9	0.0	88.9	11.1	100.0
	30대	(34)	91.2	5.9	2.9	70.6	29.4	100.0
	40대 이상	(31)	87.1	12.9	0.0	74.2	25.8	100.0
	무응답	(2)	100.0	0.0	0.0	10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3	16.7	0.0	75.0	25.0	100.0
	신문기자	(29)	96.6	3.4	0.0	69.0	31.0	100.0
	출판사종사자	(25)	96.0	0.0	4.0	92.0	8.0	100.0
	국어교사	(25)	76.0	24.0	0.0	80.0	2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0.6	9.4	0.0	71.7	28.3	100.0
	비언론인	(50)	86.0	12.0	2.0	86.0	1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86.4	12.1	1.5	83.3	16.7	100.0
	사회과학계열	(26)	92.3	7.7	0.0	61.5	38.5	100.0
	기타	(8)	87.5	12.5	0.0	87.5	12.5	100.0

2-8 ①바흐 ②바하

[그림 4-18] ①바흐 ②바하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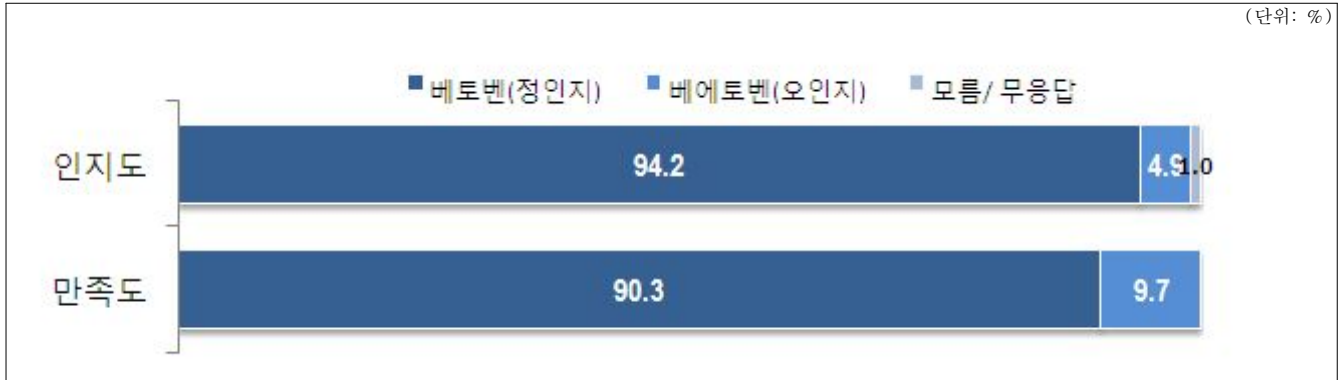
□ 바흐 표기의 정인지 및 만족도에서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4-18] ①바흐 ②바하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바흐	바하	모름/무응답	바흐	바하	
■ 전 체 ■	(103)	93.2	5.8	1.0	83.5	16.5	100.0
■ 성 별 ■	남성 (55)	96.4	3.6	0.0	81.8	18.2	100.0
	여성 (48)	89.6	8.3	2.1	85.4	14.6	100.0
■ 연 령 ■	20대 (36)	91.7	8.3	0.0	88.9	11.1	100.0
	30대 (34)	97.1	0.0	2.9	85.3	14.7	100.0
	40대 이상 (31)	90.3	9.7	0.0	74.2	25.8	100.0
	무응답 (2)	100.0	0.0	0.0	10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95.8	4.2	0.0	91.7	8.3	100.0
	신문기자 (29)	93.1	6.9	0.0	65.5	34.5	100.0
	출판사종사자 (25)	92.0	4.0	4.0	96.0	4.0	100.0
	국어교사 (25)	92.0	8.0	0.0	84.0	16.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4.3	5.7	0.0	77.4	22.6	100.0
	비언론인 (50)	92.0	6.0	2.0	90.0	1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3.9	4.5	1.5	84.8	15.2	100.0
	사회과학계열 (26)	92.3	7.7	0.0	80.8	19.2	100.0
	기타 (8)	100.0	0.0	0.0	87.5	12.5	100.0

2-9 ①베토벤 ②베에토벤

[그림 4-19] ①베토벤 ②베에토벤



[집단별 특성]

□ 베토벤 표기의 인지도 및 만족도에서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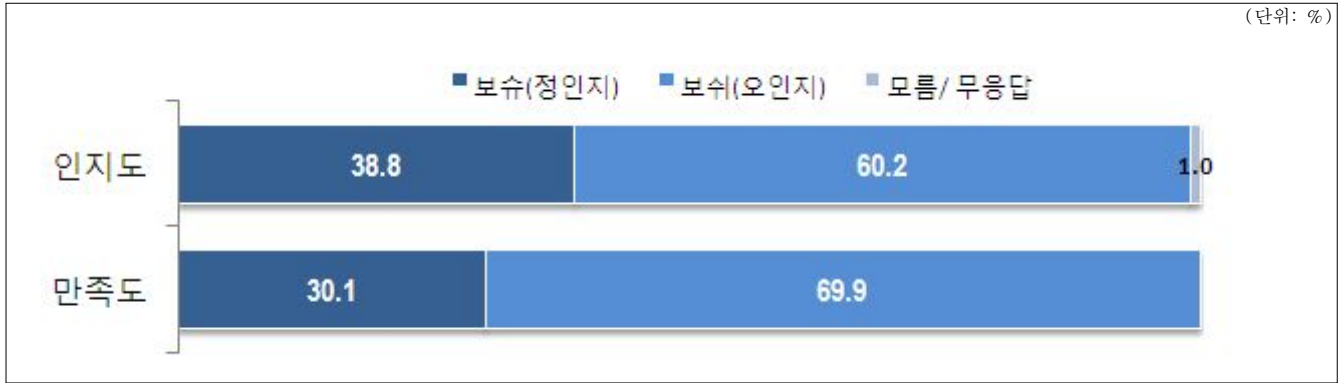
[표 4-19] ①베토벤 ②베에토벤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베토벤	베에토벤	모름/무응답	베토벤	베에토벤	
■ 전 체 ■	(103)	94.2	4.9	1.0	90.3	9.7	100.0
■ 성 별 ■	남성 (55)	94.5	5.5	0.0	89.1	10.9	100.0
	여성 (48)	93.8	4.2	2.1	91.7	8.3	100.0
■ 연 령 ■	20대 (36)	97.2	2.8	0.0	97.2	2.8	100.0
	30대 (34)	97.1	0.0	2.9	88.2	11.8	100.0
	40대 이상 (31)	90.3	9.7	0.0	87.1	12.9	100.0
	무응답 (2)	50.0	50.0	0.0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7.5	12.5	0.0	79.2	20.8	100.0
	신문기자 (29)	93.1	6.9	0.0	89.7	10.3	100.0
	출판사종사자 (25)	96.0	0.0	4.0	96.0	4.0	100.0
	국어교사 (25)	100.0	0.0	0.0	96.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0.6	9.4	0.0	84.9	15.1	100.0
	비언론인 (50)	98.0	0.0	2.0	96.0	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3.9	4.5	1.5	92.4	7.6	100.0
	사회과학계열 (26)	92.3	7.7	0.0	88.5	11.5	100.0
	기타 (8)	100.0	0.0	0.0	75.0	25.0	100.0

2-10

①보수 ②보취

[그림 4-20] ①보수 ②보취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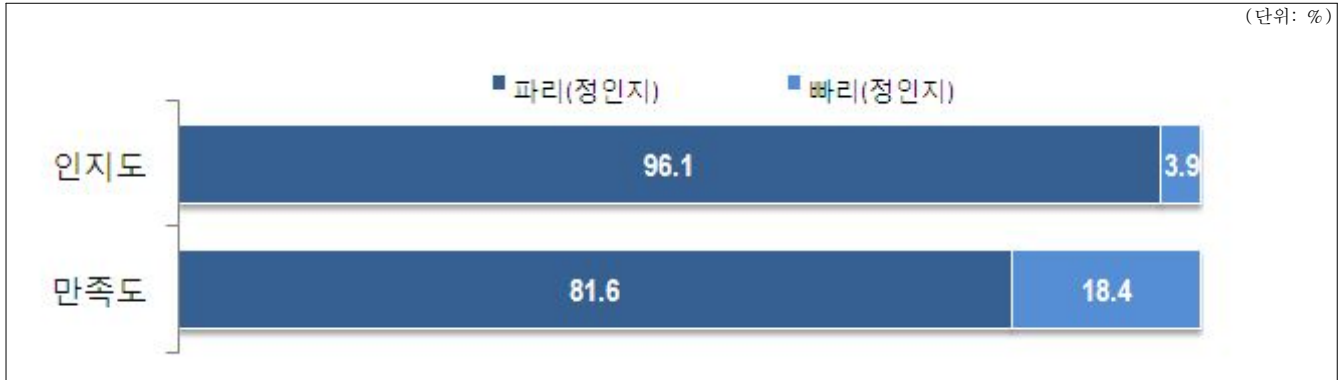
□ 보수 표기와 관련하여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4-20] ①보수 ②보취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보수	보취	모름/무응답	보수	보취		
■ 전 체 ■	(103)	38.8	60.2	1.0	30.1	69.9	100.0	
■ 성 별 ■	남성	(55)	36.4	63.6	0.0	34.5	65.5	100.0
	여성	(48)	41.7	56.3	2.1	25.0	75.0	100.0
■ 연 령 ■	20대	(36)	38.9	61.1	0.0	27.8	72.2	100.0
	30대	(34)	32.4	64.7	2.9	17.6	82.4	100.0
	40대 이상	(31)	45.2	54.8	0.0	45.2	54.8	100.0
	무응답	(2)	50.0	50.0	0.0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33.3	66.7	0.0	41.7	58.3	100.0
	신문기자	(29)	34.5	65.5	0.0	27.6	72.4	100.0
	출판사종사자	(25)	36.0	60.0	4.0	20.0	80.0	100.0
	국어교사	(25)	52.0	48.0	0.0	32.0	6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4.0	66.0	0.0	34.0	66.0	100.0
	비언론인	(50)	44.0	54.0	2.0	26.0	7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45.5	53.0	1.5	34.8	65.2	100.0
	사회과학계열	(26)	30.8	69.2	0.0	26.9	73.1	100.0
	기타	(8)	25.0	75.0	0.0	12.5	87.5	100.0

3-1 ①파리 ②빠리

[그림 4-21] ①파리 ②빠리



[집단별 특성]

□ 파리의 인지도에서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비언론인이 90.0%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1] ①파리 ②빠리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파리	빠리	파리	빠리		
■ 전 체 ■	(103)	96.1	3.9	81.6	18.4	100.0	
■ 성 별 ■	남성	(55)	98.2	1.8	85.5	14.5	100.0
	여성	(48)	93.8	6.3	77.1	22.9	100.0
■ 연 령 ■	20대	(36)	94.4	5.6	80.6	19.4	100.0
	30대	(34)	97.1	2.9	76.5	23.5	100.0
	40대 이상	(31)	96.8	3.2	90.3	9.7	100.0
	무응답	(2)	100.0	0.0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91.7	8.3	66.7	33.3	100.0
	신문기자	(29)	100.0	0.0	79.3	20.7	100.0
	출판사종사자	(25)	100.0	0.0	96.0	4.0	100.0
	국어교사	(25)	92.0	8.0	84.0	16.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6.2	3.8	73.6	26.4	100.0
	비언론인	(50)	96.0	4.0	90.0	1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5.5	4.5	87.9	12.1	100.0
	사회과학계열	(26)	100.0	0.0	61.5	38.5	100.0
	기타	(8)	87.5	12.5	87.5	12.5	100.0

3-2 ①바깡스 ②바깡스

[그림 4-22] ①바깡스 ②바깡스



[집단별 특성]

□ 바깡스 표기와 관련하여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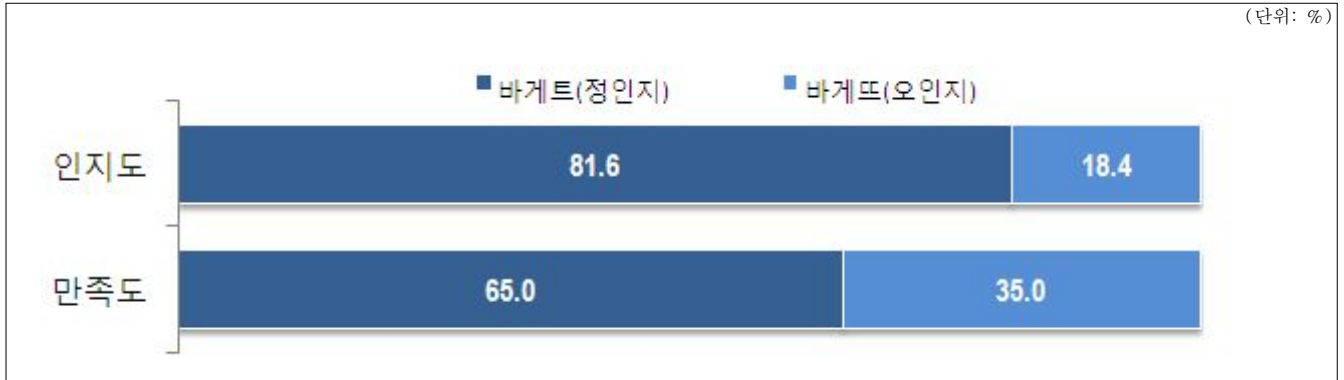
[표 4-22] ①바깡스 ②바깡스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바깡스	모름/무응답	바깡스	바깡스	모름/무응답	
■ 전 체 ■	(103)	99.0	1.0	92.2	6.8	1.0	100.0
■ 성 별 ■	남성 (55)	100.0	0.0	92.7	5.5	1.8	100.0
	여성 (48)	97.9	2.1	91.7	8.3	0.0	100.0
■ 연 령 ■	20대 (36)	97.2	2.8	97.2	2.8	0.0	100.0
	30대 (34)	100.0	0.0	94.1	5.9	0.0	100.0
	40대 이상 (31)	100.0	0.0	87.1	9.7	3.2	100.0
	무응답 (2)	100.0	0.0	50.0	5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00.0	0.0	79.2	20.8	0.0	100.0
	신문기자 (29)	100.0	0.0	96.6	0.0	3.4	100.0
	출판사종사자 (25)	100.0	0.0	96.0	4.0	0.0	100.0
	국어교사 (25)	96.0	4.0	96.0	4.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100.0	0.0	88.7	9.4	1.9	100.0
	비언론인 (50)	98.0	2.0	96.0	4.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8.5	1.5	95.5	3.0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100.0	0.0	88.5	11.5	0.0	100.0
	기타 (8)	100.0	0.0	75.0	25.0	0.0	100.0

3-3

①바게뜨 ②바게뜨

[그림 4-23] ①바게뜨 ②바게뜨



[집단별 특성]

□ 바게뜨 표기의 인지도의 경우 전체 평균 비율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에 있어서 비언론인이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3] ①바게뜨 ②바게뜨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파리	빠리	파리	빠리	
■ 전 체 ■	(103)	81.6	18.4	65.0	35.0	100.0
■ 성 별 ■	남성 (55)	83.6	16.4	69.1	30.9	100.0
	여성 (48)	79.2	20.8	60.4	39.6	100.0
■ 연 령 ■	20대 (36)	83.3	16.7	63.9	36.1	100.0
	30대 (34)	79.4	20.6	52.9	47.1	100.0
	40대 이상 (31)	83.9	16.1	80.6	19.4	100.0
	무응답 (2)	50.0	50.0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66.7	33.3	41.7	58.3	100.0
	신문기자 (29)	86.2	13.8	65.5	34.5	100.0
	출판사종사자 (25)	88.0	12.0	80.0	20.0	100.0
	국어교사 (25)	84.0	16.0	72.0	2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7.4	22.6	54.7	45.3	100.0
	비언론인 (50)	86.0	14.0	76.0	2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86.4	13.6	74.2	25.8	100.0
	사회과학계열 (26)	76.9	23.1	46.2	53.8	100.0
	기타 (8)	50.0	50.0	37.5	62.5	100.0

3-4 ①몽타주 ②몽타쥬

[그림 4-24] ①몽타주 ②몽타쥬



[집단별 특성]

□ 몽타주 표기 인지도에서 전체 평균 비율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비언론인의 만족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4] ①몽타주 ②몽타쥬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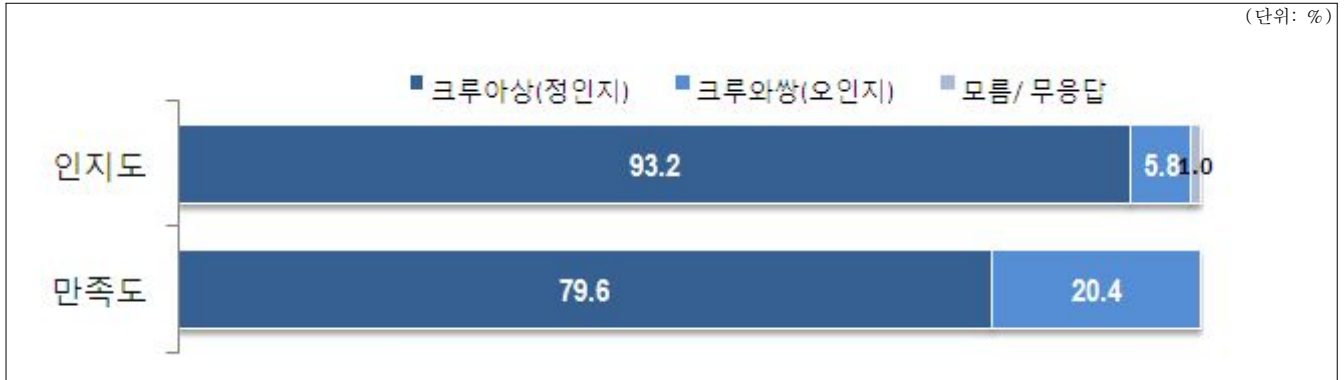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몽타주	몽타쥬	모름/무응답	몽타주	몽타쥬	모름/무응답		
■ 전 체 ■	(103)	85.4	13.6	1.0	77.7	21.4	1.0	100.0	
■ 성 별 ■	남성	(55)	87.3	12.7	0.0	74.5	23.6	1.8	100.0
	여성	(48)	83.3	14.6	2.1	81.3	18.8	0.0	100.0
■ 연 령 ■	20대	(36)	83.3	13.9	2.8	83.3	16.7	0.0	100.0
	30대	(34)	88.2	11.8	0.0	76.5	23.5	0.0	100.0
	40대 이상	(31)	87.1	12.9	0.0	74.2	22.6	3.2	100.0
	무응답	(2)	50.0	50.0	0.0	50.0	5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3	16.7	0.0	58.3	41.7	0.0	100.0
	신문기자	(29)	82.8	17.2	0.0	79.3	17.2	3.4	100.0
	출판사종사자	(25)	84.0	16.0	0.0	96.0	4.0	0.0	100.0
	국어교사	(25)	92.0	4.0	4.0	76.0	24.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83.0	17.0	0.0	69.8	28.3	1.9	100.0
	비언론인	(50)	88.0	10.0	2.0	86.0	14.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87.9	10.6	1.5	81.8	16.7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84.6	15.4	0.0	76.9	23.1	0.0	100.0
	기타	(8)	75.0	25.0	0.0	50.0	50.0	0.0	100.0

3-5

①크루아상

②크루와쌍

[그림 4-25] ①크루아상 ②크루와쌍



[집단별 특성]

□ 크루아상 표기와 관련하여 인지도 및 만족도에서 전체 평균 비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5] ①크루아상 ②크루와쌍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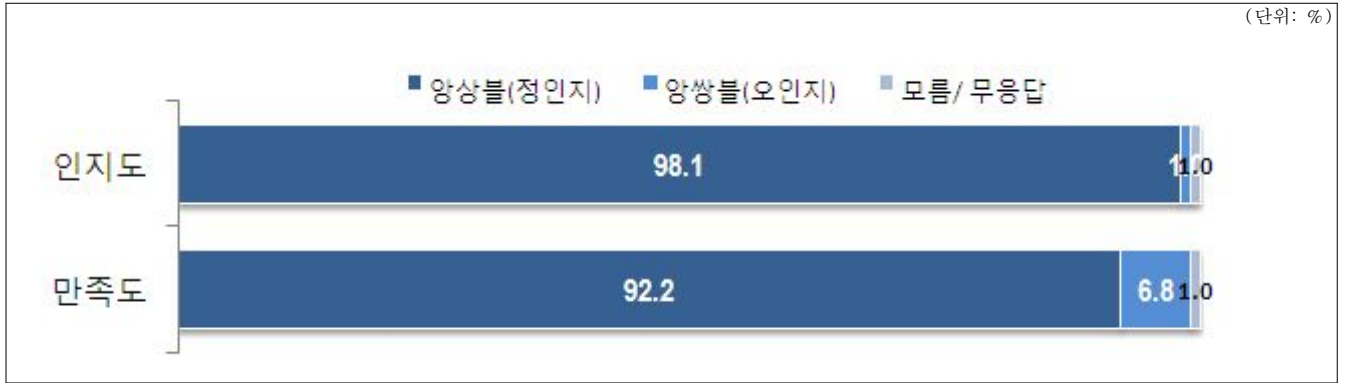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크루아상	크루와쌍	모름/무응답	크루아상	크루와쌍	
■ 전 체 ■	(103)	93.2	5.8	1.0	79.6	20.4	100.0
■ 성 별 ■	남성 (55)	96.4	1.8	1.8	83.6	16.4	100.0
	여성 (48)	89.6	10.4	0.0	75.0	25.0	100.0
■ 연 령 ■	20대 (36)	88.9	11.1	0.0	77.8	22.2	100.0
	30대 (34)	97.1	2.9	0.0	82.4	17.6	100.0
	40대 이상 (31)	96.8	0.0	3.2	80.6	19.4	100.0
	무응답 (2)	50.0	50.0	0.0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91.7	8.3	0.0	62.5	37.5	100.0
	신문기자 (29)	96.6	0.0	3.4	89.7	10.3	100.0
	출판사종사자 (25)	96.0	4.0	0.0	88.0	12.0	100.0
	국어교사 (25)	88.0	12.0	0.0	76.0	2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4.3	3.8	1.9	77.4	22.6	100.0
	비언론인 (50)	92.0	8.0	0.0	82.0	1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2.4	6.1	1.5	81.8	18.2	100.0
	사회과학계열 (26)	96.2	3.8	0.0	76.9	23.1	100.0
	기타 (8)	87.5	12.5	0.0	62.5	37.5	100.0

3-6

①양상블

②양쌍블

[그림 4-26] ①양상블 ②양쌍블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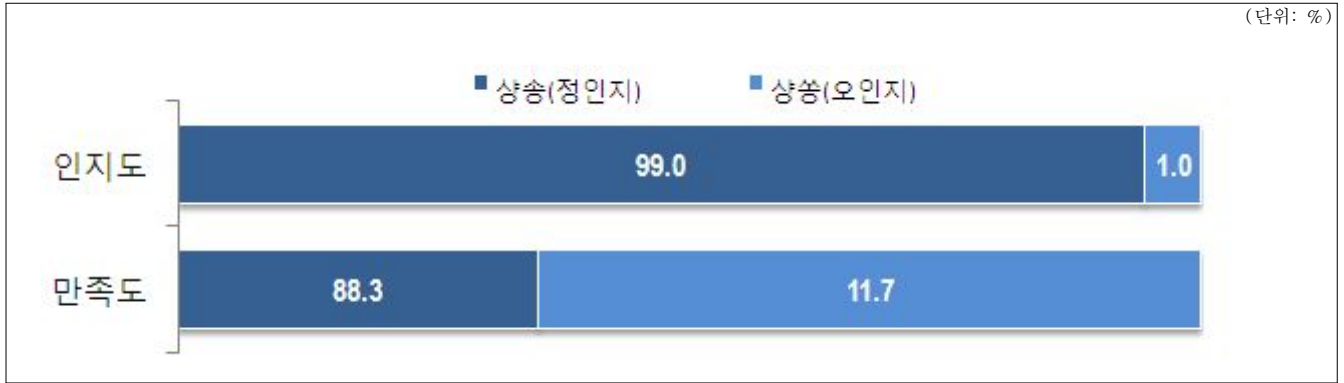
□ 양상블 표기 인지도에서 전체 평균 비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비언론인이 98.0%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4-26] ①양상블 ②양쌍블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양상블	양쌍블	모름/무응답	양상블	양쌍블	모름/무응답		
■ 전 체 ■	(103)	98.1	1.0	1.0	92.2	6.8	1.0	100.0	
■ 성 별 ■	남성	(55)	100.0	0.0	0.0	92.7	5.5	1.8	100.0
	여성	(48)	95.8	2.1	2.1	91.7	8.3	0.0	100.0
■ 연 령 ■	20대	(36)	94.4	2.8	2.8	91.7	8.3	0.0	100.0
	30대	(34)	100.0	0.0	0.0	94.1	5.9	0.0	100.0
	40대 이상	(31)	100.0	0.0	0.0	93.5	3.2	3.2	100.0
	무응답	(2)	100.0	0.0	0.0	50.0	5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95.8	4.2	0.0	75.0	25.0	0.0	100.0
	신문기자	(29)	100.0	0.0	0.0	96.6	0.0	3.4	100.0
	출판사종사자	(25)	100.0	0.0	0.0	100.0	0.0	0.0	100.0
	국어교사	(25)	96.0	0.0	4.0	96.0	4.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8.1	1.9	0.0	86.8	11.3	1.9	100.0
	비언론인	(50)	98.0	0.0	2.0	98.0	2.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7.0	1.5	1.5	95.5	3.0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100.0	0.0	0.0	88.5	11.5	0.0	100.0
	기타	(8)	100.0	0.0	0.0	75.0	25.0	0.0	100.0

3-7 ①상송 ②상송

[그림 4-27] ①상송 ②상송



[집단별 특성]

□ 상송 표기와 관련하여 인지도 및 만족도에서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4-27] ①상송 ②상송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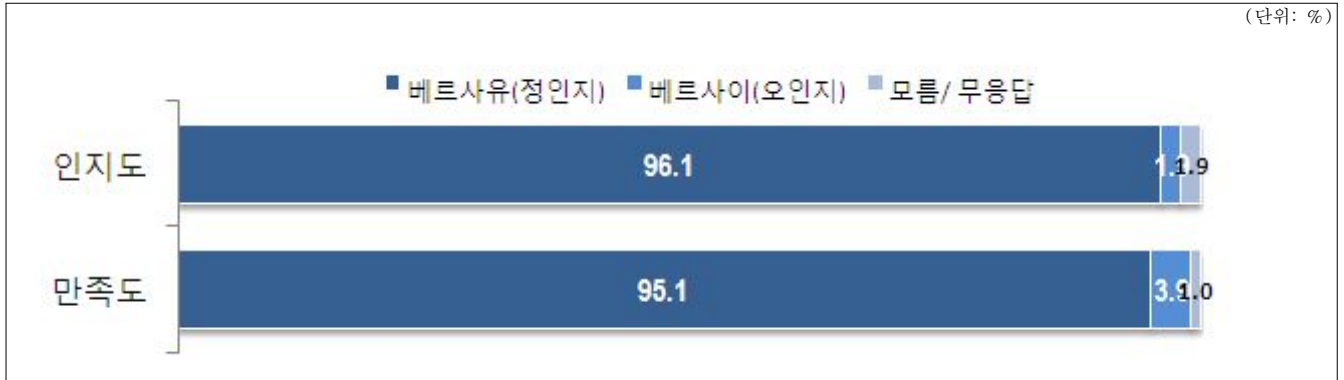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상송	상송	상송	상송	
■ 전 체 ■	(103)	99.0	1.0	88.3	11.7	100.0
■ 성 별 ■						
남성	(55)	100.0	0.0	87.3	12.7	100.0
여성	(48)	97.9	2.1	89.6	10.4	100.0
■ 연 령 ■						
20대	(36)	97.2	2.8	91.7	8.3	100.0
30대	(34)	100.0	0.0	88.2	11.8	100.0
40대 이상	(31)	100.0	0.0	87.1	12.9	100.0
무응답	(2)	100.0	0.0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00.0	0.0	75.0	25.0	100.0
신문기자	(29)	96.6	3.4	89.7	10.3	100.0
출판사종사자	(25)	100.0	0.0	96.0	4.0	100.0
국어교사	(25)	100.0	0.0	92.0	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8.1	1.9	83.0	17.0	100.0
비언론인	(50)	100.0	0.0	94.0	6.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100.0	0.0	95.5	4.5	100.0
사회과학계열	(26)	96.2	3.8	76.9	23.1	100.0
기타	(8)	100.0	0.0	75.0	25.0	100.0

3-8

①베르사유

②베르사이

[그림 4-28] ①베르사유 ②베르사이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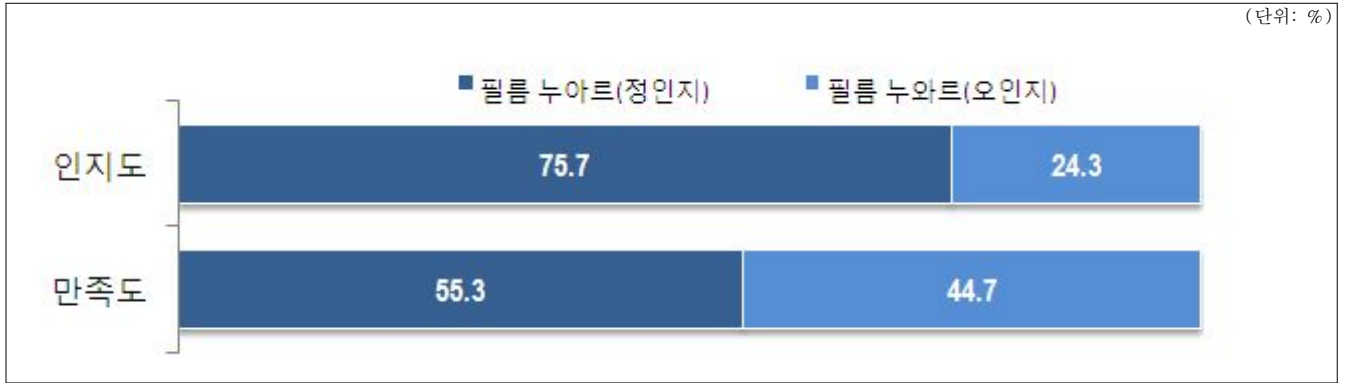
□ 베르사유 표기와 관련하여 인지도의 경우 전체 평균 비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에 있어서 비언론인이 100.0%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4-28] ①베르사유 ②베르사이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베르사유	베르사이	모름 / 무응답	베르사유	베르사이	모름 / 무응답		
■ 전 체 ■	(103)	96.1	1.9	1.9	95.1	3.9	1.0	100.0	
■ 성 별 ■	남성	(55)	98.2	1.8	0.0	96.4	1.8	1.8	100.0
	여성	(48)	93.8	2.1	4.2	93.8	6.3	0.0	100.0
■ 연 령 ■	20대	(36)	91.7	5.6	2.8	94.4	5.6	0.0	100.0
	30대	(34)	100.0	0.0	0.0	97.1	2.9	0.0	100.0
	40대 이상	(31)	96.8	0.0	3.2	93.5	3.2	3.2	100.0
	무응답	(2)	100.0	0.0	0.0	10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95.8	4.2	0.0	87.5	12.5	0.0	100.0
	신문기자	(29)	96.6	3.4	0.0	93.1	3.4	3.4	100.0
	출판사종사자	(25)	100.0	0.0	0.0	100.0	0.0	0.0	100.0
	국어교사	(25)	92.0	0.0	8.0	100.0	0.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6.2	3.8	0.0	90.6	7.5	1.9	100.0
	비언론인	(50)	96.0	0.0	4.0	100.0	0.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3.9	3.0	3.0	95.5	3.0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100.0	0.0	0.0	96.2	3.8	0.0	100.0
	기타	(8)	100.0	0.0	0.0	87.5	12.5	0.0	100.0

3-9 ① 필름 누아르 ② 필름 누와르

[그림 4-29] ① 필름 누아르 ② 필름 누와르



[집단별 특성]

□ 필름 누아르 표기와 정인지율에서 전체 평균 비율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인문계열이 63.6%로 유의미하게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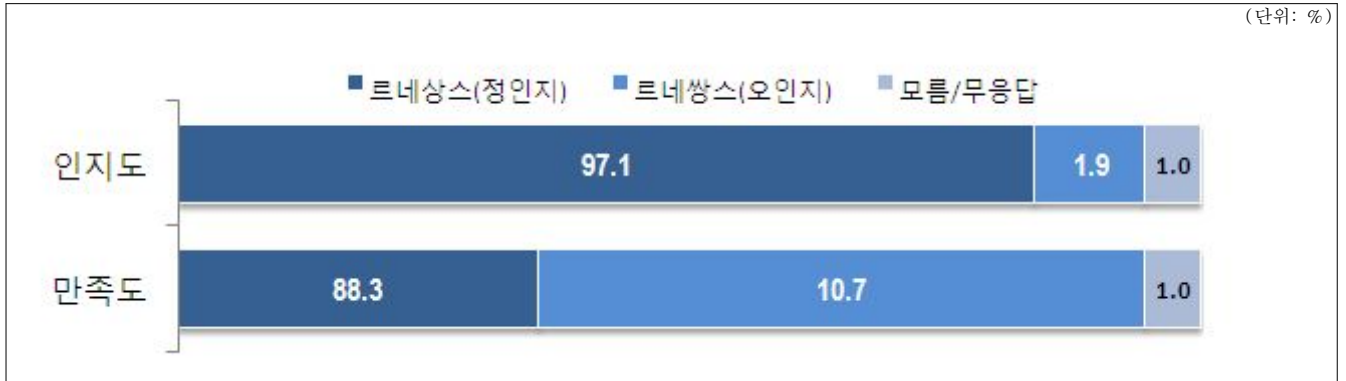
[표 4-29] ① 필름 누아르 ② 필름 누와르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필름 누아르	필름 누와르	필름 누아르	필름 누와르		
■ 전 체 ■	(103)	75.7	24.3	55.3	44.7	100.0	
■ 성 별 ■	남성	(55)	76.4	23.6	58.2	41.8	100.0
	여성	(48)	75.0	25.0	52.1	47.9	100.0
■ 연 령 ■	20대	(36)	77.8	22.2	58.3	41.7	100.0
	30대	(34)	76.5	23.5	55.9	44.1	100.0
	40대 이상	(31)	74.2	25.8	51.6	48.4	100.0
	무응답	(2)	50.0	50.0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58.3	41.7	37.5	62.5	100.0
	신문기자	(29)	86.2	13.8	62.1	37.9	100.0
	출판사종사자	(25)	72.0	28.0	64.0	36.0	100.0
	국어교사	(25)	84.0	16.0	56.0	4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3.6	26.4	50.9	49.1	100.0
	비언론인	(50)	78.0	22.0	60.0	4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80.3	19.7	63.6	36.4	100.0
	사회과학계열	(26)	76.9	23.1	42.3	57.7	100.0
	기타	(8)	50.0	50.0	37.5	62.5	100.0

3-10

①르네상스 ②르네쌍스

[그림 4-30] ①르네상스 ②르네쌍스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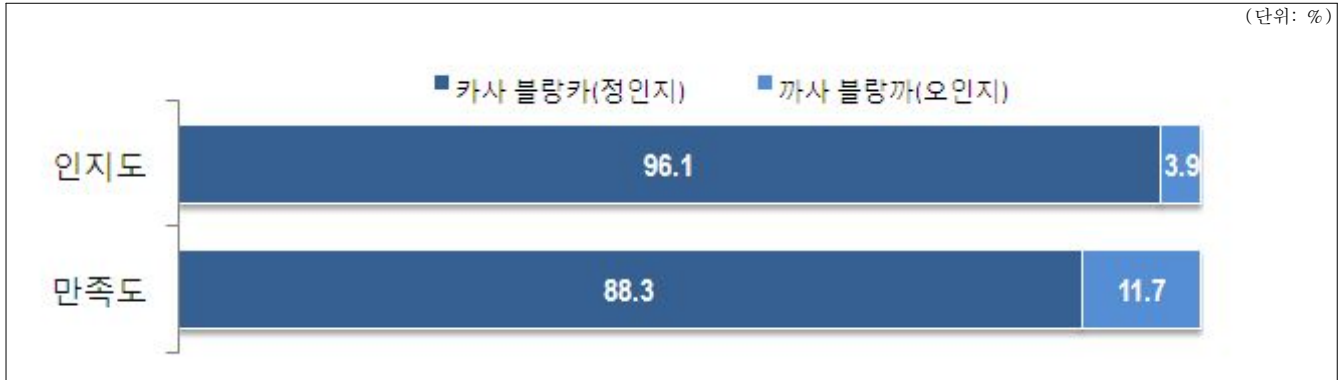
□ 르네상스 표기 인지도 및 만족도에서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4-30] ①르네상스 ②르네쌍스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르네상스	르네쌍스	모름 / 무응답	르네상스	르네쌍스	모름/무응답		
■ 전 체 ■	(103)	97.1	1.9	1.0	88.3	10.7	1.0	100.0	
■ 성 별 ■	남성	(55)	98.2	1.8	0.0	89.1	9.1	1.8	100.0
	여성	(48)	95.8	2.1	2.1	87.5	12.5	0.0	100.0
■ 연 령 ■	20대	(36)	97.2	0.0	2.8	91.7	8.3	0.0	100.0
	30대	(34)	100.0	0.0	0.0	91.2	8.8	0.0	100.0
	40대 이상	(31)	96.8	3.2	0.0	83.9	12.9	3.2	100.0
	무응답	(2)	50.0	50.0	0.0	50.0	5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95.8	4.2	0.0	75.0	25.0	0.0	100.0
	신문기자	(29)	100.0	0.0	0.0	93.1	3.4	3.4	100.0
	출판사종사자	(25)	100.0	0.0	0.0	96.0	4.0	0.0	100.0
	국어교사	(25)	92.0	4.0	4.0	88.0	12.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8.1	1.9	0.0	84.9	13.2	1.9	100.0
	비언론인	(50)	96.0	2.0	2.0	92.0	8.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7.0	1.5	1.5	90.9	7.6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96.2	3.8	0.0	80.8	19.2	0.0	100.0
	기타	(8)	100.0	0.0	0.0	87.5	12.5	0.0	100.0

4-1 ①카사 블랑카 ②까사 블랑카

[그림 4-31] ①카사 블랑카 ②까사 블랑카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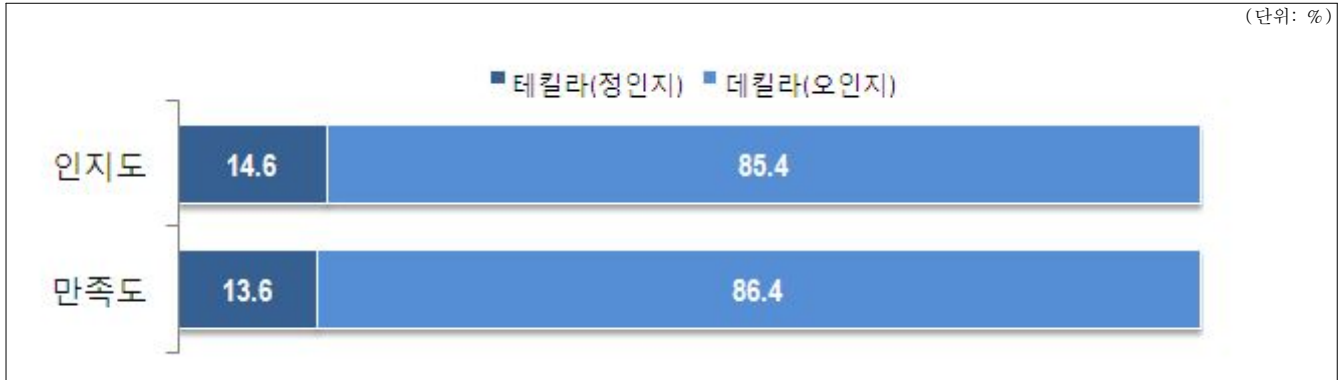
□ 카사 블랑카 표기 정인지율은 비언론인이 100.0%로 유의미하게 높았고, 만족도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4-31] ①카사 블랑카 ②까사 블랑카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카사 블랑카	까사 블랑카	카사 블랑카	까사 블랑카		
■ 전 체 ■	(103)	96.1	3.9	88.3	11.7	100.0	
■ 성 별 ■	남성	(55)	98.2	1.8	90.9	9.1	100.0
	여성	(48)	93.8	6.3	85.4	14.6	100.0
■ 연 령 ■	20대	(36)	94.4	5.6	86.1	13.9	100.0
	30대	(34)	97.1	2.9	88.2	11.8	100.0
	40대 이상	(31)	96.8	3.2	93.5	6.5	100.0
	무응답	(2)	100.0	0.0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7.5	12.5	79.2	20.8	100.0
	신문기자	(29)	96.6	3.4	89.7	10.3	100.0
	출판사종사자	(25)	100.0	0.0	96.0	4.0	100.0
	국어교사	(25)	100.0	0.0	88.0	12.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2.5	7.5	84.9	15.1	100.0
	비언론인	(50)	100.0	0.0	92.0	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8.5	1.5	92.4	7.6	100.0
	사회과학계열	(26)	92.3	7.7	80.8	19.2	100.0
	기타	(8)	87.5	12.5	75.0	25.0	100.0

4-2 ①테킬라 ②데킬라

[그림 4-32] ①테킬라 ②데킬라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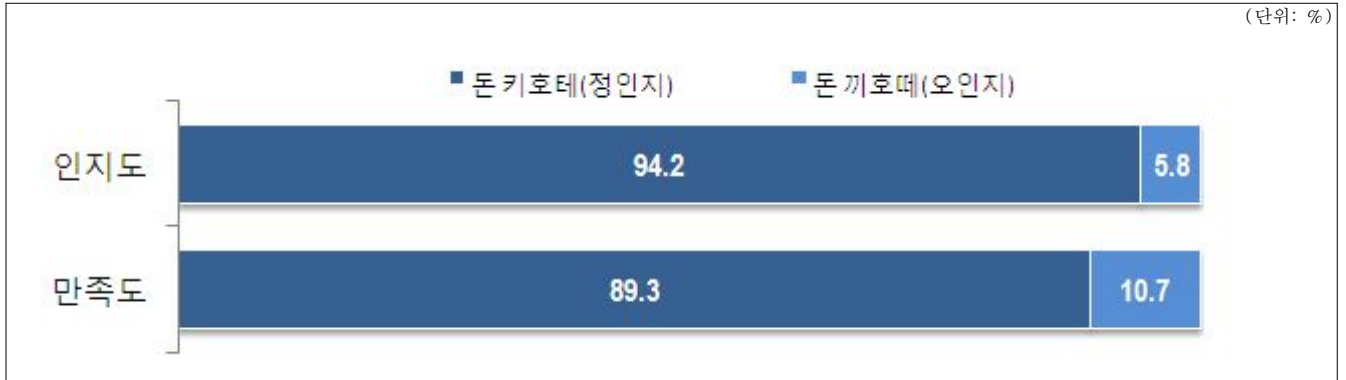
□ 테킬라 표기 인지도 및 만족도에서 전체 평균 비율과 유의미한 차이를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4-32] ①테킬라 ②데킬라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테킬라	데킬라	테킬라	데킬라	
■ 전 체 ■	(103)	14.6	85.4	13.6	86.4	100.0
■ 성 별 ■	남성 (55)	16.4	83.6	18.2	81.8	100.0
	여성 (48)	12.5	87.5	8.3	91.7	100.0
■ 연 령 ■	20대 (36)	2.8	97.2	5.6	94.4	100.0
	30대 (34)	20.6	79.4	17.6	82.4	100.0
	40대 이상 (31)	22.6	77.4	19.4	80.6	100.0
	무응답 (2)	0.0	100.0	0.0	10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0.0	100.0	16.7	83.3	100.0
	신문기자 (29)	34.5	65.5	20.7	79.3	100.0
	출판사종사자 (25)	12.0	88.0	12.0	88.0	100.0
	국어교사 (25)	8.0	92.0	4.0	96.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18.9	81.1	18.9	81.1	100.0
	비언론인 (50)	10.0	90.0	8.0	9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15.2	84.8	13.6	86.4	100.0
	사회과학계열 (26)	11.5	88.5	11.5	88.5	100.0
	기타 (8)	12.5	87.5	12.5	87.5	100.0

4-3 ①돈 키호테 ②돈 끼호떼

[그림 4-33] ①돈 키호테 ②돈 끼호떼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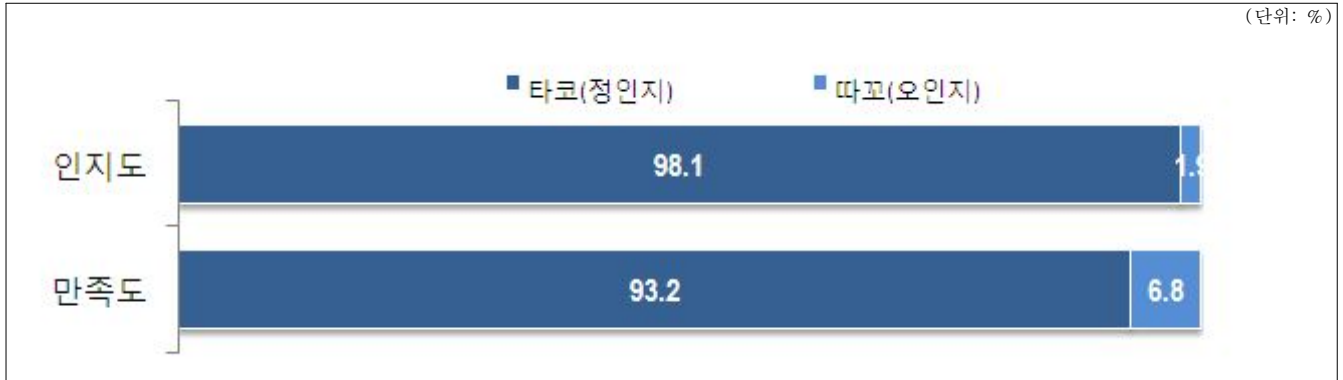
□ 돈 키호테 인지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인문계열 전공자가 93.9%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4-33] ①돈 키호테 ②돈 끼호떼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돈 키호테	돈 끼호떼	돈 키호테	돈 끼호떼	
■ 전 체 ■	(103)	94.2	5.8	89.3	10.7	100.0
■ 성 별 ■	남성 (55)	96.4	3.6	89.1	10.9	100.0
	여성 (48)	91.7	8.3	89.6	10.4	100.0
■ 연 령 ■	20대 (36)	91.7	8.3	91.7	8.3	100.0
	30대 (34)	94.1	5.9	85.3	14.7	100.0
	40대 이상 (31)	96.8	3.2	93.5	6.5	100.0
	무응답 (2)	100.0	0.0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7.5	12.5	79.2	20.8	100.0
	신문기자 (29)	96.6	3.4	93.1	6.9	100.0
	출판사종사자 (25)	96.0	4.0	88.0	12.0	100.0
	국어교사 (25)	96.0	4.0	96.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2.5	7.5	86.8	13.2	100.0
	비언론인 (50)	96.0	4.0	92.0	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7.0	3.0	93.9	6.1	100.0
	사회과학계열 (26)	88.5	11.5	80.8	19.2	100.0
	기타 (8)	87.5	12.5	75.0	25.0	100.0

4-4 ①타코 ②따꼬

[그림 4-34] ①타코 ②따꼬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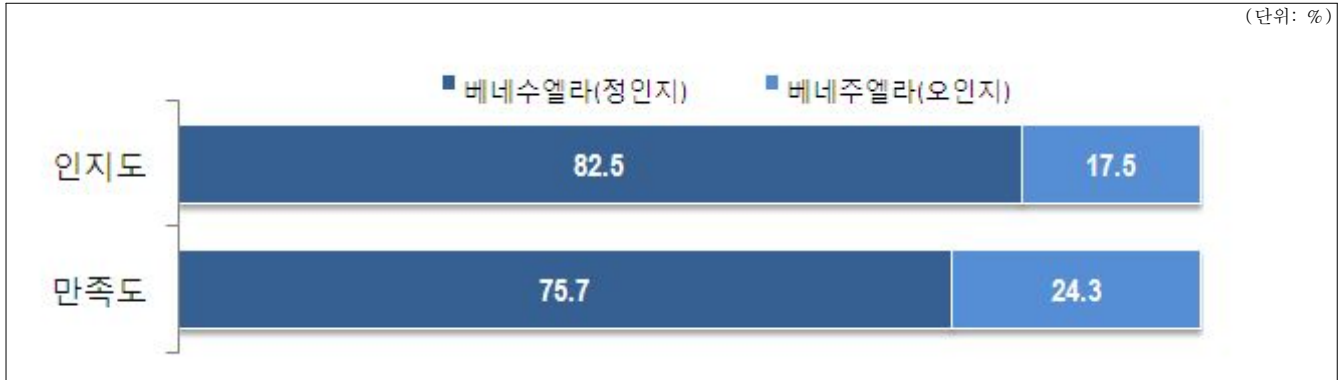
□ 타코 표기 정인지율은 인문계열 전공자가 100.0%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계층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4] ①타코 ②따꼬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타코	따꼬	타코	따꼬	
■ 전 체 ■	(103)	98.1	1.9	93.2	6.8	100.0
■ 성 별 ■						
남성	(55)	98.2	1.8	94.5	5.5	100.0
여성	(48)	97.9	2.1	91.7	8.3	100.0
■ 연 령 ■						
20대	(36)	100.0	0.0	91.7	8.3	100.0
30대	(34)	97.1	2.9	97.1	2.9	100.0
40대 이상	(31)	96.8	3.2	90.3	9.7	100.0
무응답	(2)	100.0	0.0	10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91.7	8.3	91.7	8.3	100.0
신문기자	(29)	100.0	0.0	96.6	3.4	100.0
출판사종사자	(25)	100.0	0.0	96.0	4.0	100.0
국어교사	(25)	100.0	0.0	88.0	12.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6.2	3.8	94.3	5.7	100.0
비언론인	(50)	100.0	0.0	92.0	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100.0	0.0	90.9	9.1	100.0
사회과학계열	(26)	96.2	3.8	96.2	3.8	100.0
기타	(8)	87.5	12.5	100.0	0.0	100.0

4-5 ①베네주엘라 ②베네수엘라

[그림 4-35] ①베네주엘라 ②베네수엘라



[집단별 특성]

□ 베네수엘라 인지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에 있어서 비언론인이 86.0%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4-35] ①베네주엘라 ②베네수엘라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베네주엘라	베네수엘라	베네주엘라	베네수엘라		
■ 전 체 ■	(103)	17.5	82.5	24.3	75.7	100.0	
■ 성 별 ■	남성	(55)	18.2	81.8	27.3	72.7	100.0
	여성	(48)	16.7	83.3	20.8	79.2	100.0
■ 연 령 ■	20대	(36)	13.9	86.1	22.2	77.8	100.0
	30대	(34)	11.8	88.2	23.5	76.5	100.0
	40대 이상	(31)	25.8	74.2	29.0	71.0	100.0
	무응답	(2)	50.0	50.0	0.0	10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33.3	66.7	37.5	62.5	100.0
	신문기자	(29)	10.3	89.7	31.0	69.0	100.0
	출판사종사자	(25)	16.0	84.0	12.0	88.0	100.0
	국어교사	(25)	12.0	88.0	16.0	8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20.8	79.2	34.0	66.0	100.0
	비언론인	(50)	14.0	86.0	14.0	86.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13.6	86.4	19.7	80.3	100.0
	사회과학계열	(26)	23.1	76.9	38.5	61.5	100.0
	기타	(8)	37.5	62.5	25.0	75.0	100.0

4-6 ①산 미겔 ②산 미구엘

[그림 4-36] ①산 미겔 ②산 미구엘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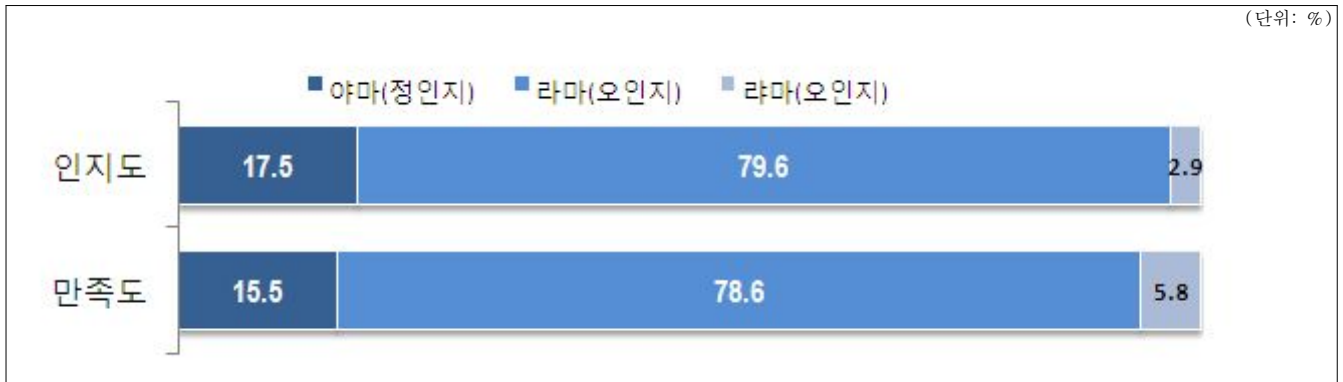
□ 산 미겔의 인지도 및 만족도에서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4-36] ①산 미겔 ②산 미구엘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산 미겔	산 미구엘	산 미겔	산 미구엘		
■ 전 체 ■	(103)	26.2	73.8	27.2	72.8	100.0	
■ 성 별 ■	남성	(55)	30.9	69.1	30.9	69.1	100.0
	여성	(48)	20.8	79.2	22.9	77.1	100.0
■ 연 령 ■	20대	(36)	19.4	80.6	19.4	80.6	100.0
	30대	(34)	35.3	64.7	32.4	67.6	100.0
	40대 이상	(31)	22.6	77.4	29.0	71.0	100.0
	무응답	(2)	50.0	50.0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29.2	70.8	33.3	66.7	100.0
	신문기자	(29)	34.5	65.5	34.5	65.5	100.0
	출판사종사자	(25)	24.0	76.0	24.0	76.0	100.0
	국어교사	(25)	16.0	84.0	16.0	8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2.1	67.9	34.0	66.0	100.0
	비언론인	(50)	20.0	80.0	20.0	8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25.8	74.2	27.3	72.7	100.0
	사회과학계열	(26)	26.9	73.1	23.1	76.9	100.0
	기타	(8)	25.0	75.0	37.5	62.5	100.0

4-7 ①야마 ②라마 ③라마

[그림 4-37] ①야마 ②라마 ③라마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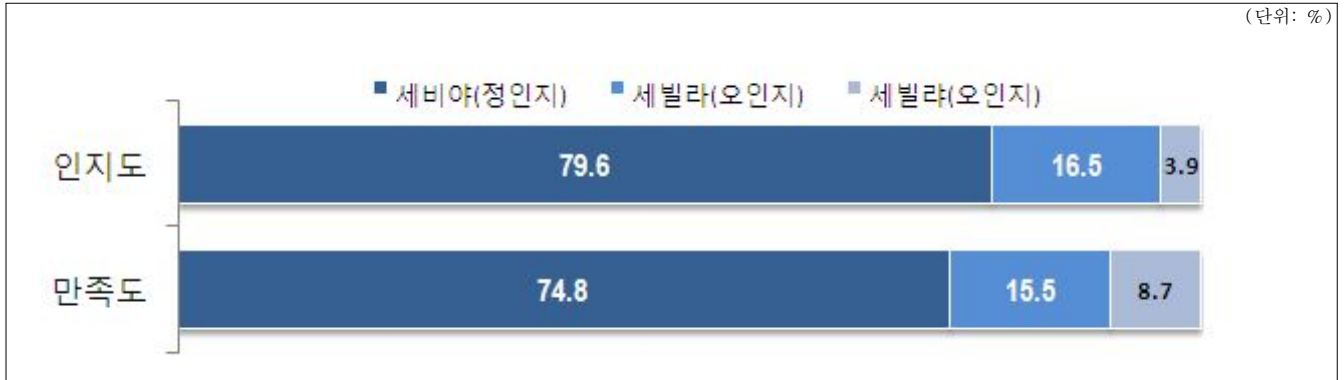
□ 야마 표기에서 인지도 및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4-37] ①야마 ②라마 ③라마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라마	야마	라마	라마	야마	라마		
■ 전 체 ■	(103)	79.6	17.5	2.9	78.6	15.5	5.8	100.0	
■ 성 별 ■	남성	(55)	85.5	10.9	3.6	85.5	10.9	3.6	100.0
	여성	(48)	72.9	25.0	2.1	70.8	20.8	8.3	100.0
■ 연 령 ■	20대	(36)	77.8	19.4	2.8	86.1	11.1	2.8	100.0
	30대	(34)	85.3	11.8	2.9	79.4	14.7	5.9	100.0
	40대 이상	(31)	74.2	22.6	3.2	67.7	22.6	9.7	100.0
	무응답	(2)	100.0	0.0	0.0	10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75.0	20.8	4.2	70.8	20.8	8.3	100.0
	신문기자	(29)	72.4	24.1	3.4	75.9	20.7	3.4	100.0
	출판사종사자	(25)	92.0	4.0	4.0	84.0	8.0	8.0	100.0
	국어교사	(25)	80.0	20.0	0.0	84.0	12.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3.6	22.6	3.8	73.6	20.8	5.7	100.0
	비언론인	(50)	86.0	12.0	2.0	84.0	10.0	6.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80.3	19.7	0.0	83.3	13.6	3.0	100.0
	사회과학계열	(26)	76.9	19.2	3.8	69.2	23.1	7.7	100.0
	기타	(8)	87.5	0.0	12.5	75.0	12.5	12.5	100.0

4-8 ①세빌라 ②세비아 ③세빌라

[그림 4-38] ①세빌라 ②세비아 ③세빌라



[집단별 특성]

□ 세비아 표기의 정인지율은 언론인과 사회과학 전공자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만족도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8] ①세빌라 ②세비아 ③세빌라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세비아	세빌라	세빌라	세비아	세빌라	세빌라	모름/ 무응답		
■ 전 체 ■	(103)	79.6	16.5	3.9	74.8	15.5	8.7	1.0	100.0	
■ 성 별 ■	남성	(55)	85.5	12.7	1.8	87.3	7.3	3.6	1.8	100.0
	여성	(48)	72.9	20.8	6.3	60.4	25.0	14.6	0.0	100.0
■ 연 령 ■	20대	(36)	77.8	19.4	2.8	72.2	16.7	8.3	2.8	100.0
	30대	(34)	88.2	11.8	0.0	79.4	11.8	8.8	0.0	100.0
	40대 이상	(31)	71.0	19.4	9.7	71.0	19.4	9.7	0.0	100.0
	무응답	(2)	100.0	0.0	0.0	100.0	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91.7	0.0	8.3	91.7	0.0	8.3	0.0	100.0
	신문기자	(29)	86.2	13.8	0.0	69.0	20.7	6.9	3.4	100.0
	출판사종사자	(25)	80.0	16.0	4.0	76.0	12.0	12.0	0.0	100.0
	국어교사	(25)	60.0	36.0	4.0	64.0	28.0	8.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88.7	7.5	3.8	79.2	11.3	7.5	1.9	100.0
	비언론인	(50)	70.0	26.0	4.0	70.0	20.0	10.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72.7	24.2	3.0	71.2	21.2	7.6	0.0	100.0
	사회과학계열	(26)	96.2	0.0	3.8	84.6	3.8	7.7	3.8	100.0
	기타	(8)	87.5	0.0	12.5	75.0	0.0	25.0	0.0	100.0

4-9 ①싼호씨 ②산호세

[그림 4-39] ①싼호씨 ②산호세



[집단별 특성]

□ 산호세 표기의 인지도 및 만족도에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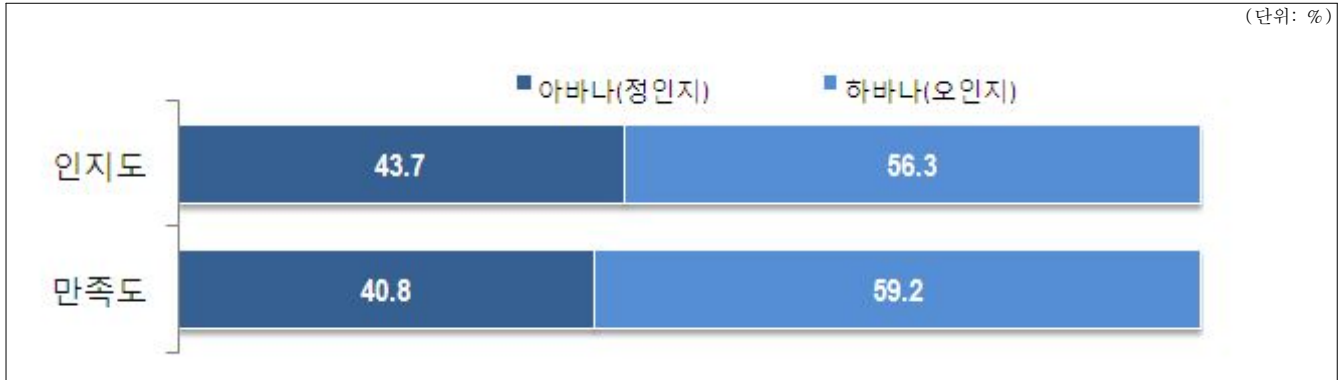
[표 4-39] ①싼호씨 ②산호세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싼호씨	산호세	싼호씨	산호세		
■ 전 체 ■	(103)	2.9	97.1	8.7	91.3	100.0	
■ 성 별 ■	남성	(55)	1.8	98.2	5.5	94.5	100.0
	여성	(48)	4.2	95.8	12.5	87.5	100.0
■ 연 령 ■	20대	(36)	5.6	94.4	11.1	88.9	100.0
	30대	(34)	2.9	97.1	5.9	94.1	100.0
	40대 이상	(31)	0.0	100.0	6.5	93.5	100.0
	무응답	(2)	0.0	100.0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4.2	95.8	16.7	83.3	100.0
	신문기자	(29)	3.4	96.6	3.4	96.6	100.0
	출판사종사자	(25)	0.0	100.0	4.0	96.0	100.0
	국어교사	(25)	4.0	96.0	12.0	8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8	96.2	9.4	90.6	100.0
	비언론인	(50)	2.0	98.0	8.0	9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1.5	98.5	7.6	92.4	100.0
	사회과학계열	(26)	3.8	96.2	11.5	88.5	100.0
	기타	(8)	12.5	87.5	12.5	87.5	100.0

4-10

①하바나 ②아바나

[그림 4-40] ①하바나 ②아바나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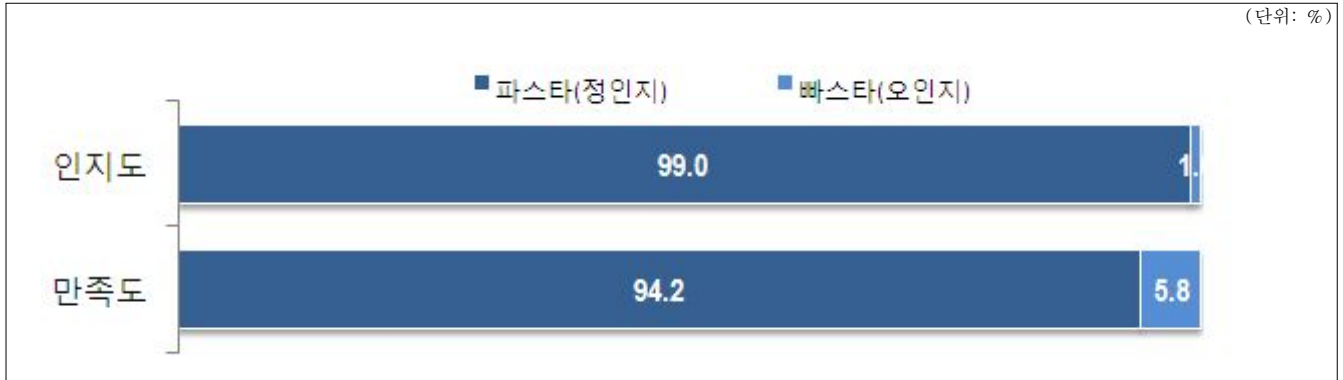
□ 아바나 표기와 인지도 및 만족도에 있어서 언론인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각각 64.2%, 54.6%)

[표 4-40] ①하바나 ②아바나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하바나	아바나	하바나	아바나		
■ 전 체 ■	(103)	56.3	43.7	59.2	40.8	100.0	
■ 성 별 ■	남성	(55)	47.3	52.7	52.7	47.3	100.0
	여성	(48)	66.7	33.3	66.7	33.3	100.0
■ 연 령 ■	20대	(36)	75.0	25.0	75.0	25.0	100.0
	30대	(34)	61.8	38.2	64.7	35.3	100.0
	40대 이상	(31)	32.3	67.7	38.7	61.3	100.0
	무응답	(2)	0.0	100.0	0.0	10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45.8	54.2	33.3	66.7	100.0
	신문기자	(29)	27.6	72.4	51.7	48.3	100.0
	출판사종사자	(25)	64.0	36.0	60.0	40.0	100.0
	국어교사	(25)	92.0	8.0	92.0	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5.8	64.2	43.4	56.6	100.0
	비언론인	(50)	78.0	22.0	76.0	2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57.6	42.4	63.6	36.4	100.0
	사회과학계열	(26)	46.2	53.8	50.0	50.0	100.0
	기타	(8)	75.0	25.0	50.0	50.0	100.0

5-1 ①파스타 ②빠스타

[그림 4-41] ①파스타 ②빠스타



[집단별 특성]

□ 파스타 표기의 인지도 및 만족도에서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4-41] ①파스타 ②빠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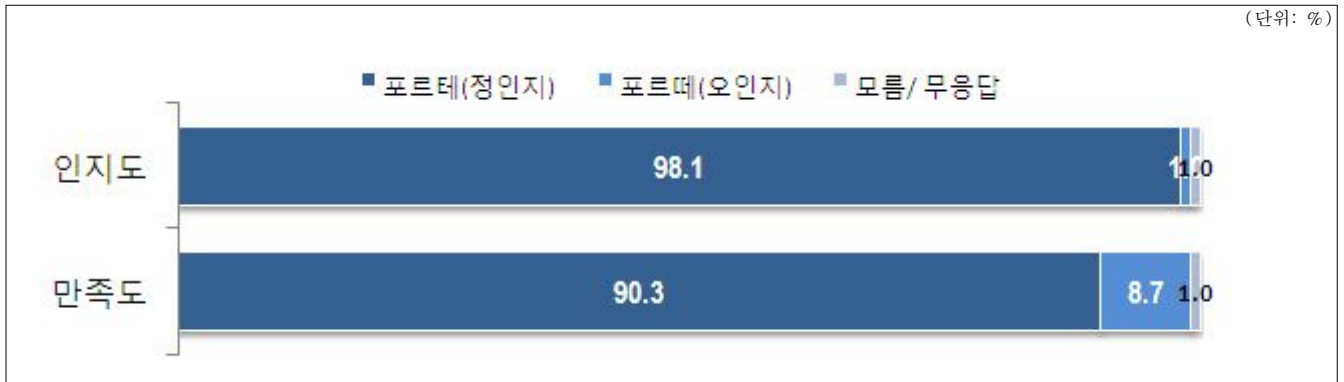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파스타	빠스타	파스타	빠스타		
■ 전 체 ■	(103)	99.0	1.0	94.2	5.8	100.0	
■ 성 별 ■	남성	(55)	98.2	1.8	96.4	3.6	100.0
	여성	(48)	100.0	0.0	91.7	8.3	100.0
■ 연 령 ■	20대	(36)	100.0	0.0	97.2	2.8	100.0
	30대	(34)	97.1	2.9	91.2	8.8	100.0
	40대 이상	(31)	100.0	0.0	93.5	6.5	100.0
	무응답	(2)	100.0	0.0	10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95.8	4.2	79.2	20.8	100.0
	신문기자	(29)	100.0	0.0	100.0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100.0	0.0	96.0	4.0	100.0
	국어교사	(25)	100.0	0.0	100.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8.1	1.9	90.6	9.4	100.0
	비언론인	(50)	100.0	0.0	98.0	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100.0	0.0	97.0	3.0	100.0
	사회과학계열	(26)	100.0	0.0	88.5	11.5	100.0
	기타	(8)	87.5	12.5	87.5	12.5	100.0

5-2

①포르테

②포르떼

[그림 4-42] ①포르테 ②포르떼



[집단별 특성]

□ 포르테 표기 인지도 및 만족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4-42] ①포르테 ②포르떼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포르테	포르떼	모름/무응답	포르테	포르떼	모름/무응답		
■ 전 체 ■	(103)	98.1	1.0	1.0	90.3	8.7	1.0	100.0	
■ 성 별 ■	남성	(55)	98.2	0.0	1.8	92.7	7.3	0.0	100.0
	여성	(48)	97.9	2.1	0.0	87.5	10.4	2.1	100.0
■ 연 령 ■	20대	(36)	97.2	2.8	0.0	91.7	8.3	0.0	100.0
	30대	(34)	100.0	0.0	0.0	91.2	5.9	2.9	100.0
	40대 이상	(31)	96.8	0.0	3.2	87.1	12.9	0.0	100.0
	무응답	(2)	100.0	0.0	0.0	10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95.8	4.2	0.0	83.3	16.7	0.0	100.0
	신문기자	(29)	96.6	0.0	3.4	93.1	6.9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100.0	0.0	0.0	96.0	4.0	0.0	100.0
	국어교사	(25)	100.0	0.0	0.0	88.0	8.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6.2	1.9	1.9	88.7	11.3	0.0	100.0
	비언론인	(50)	100.0	0.0	0.0	92.0	6.0	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7.0	1.5	1.5	89.4	9.1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100.0	0.0	0.0	92.3	7.7	0.0	100.0
	기타	(8)	100.0	0.0	0.0	87.5	12.5	0.0	100.0

5-3 ①피자 ②피차 ③핏자

[그림 4-43] ①피자 ②피차 ③핏자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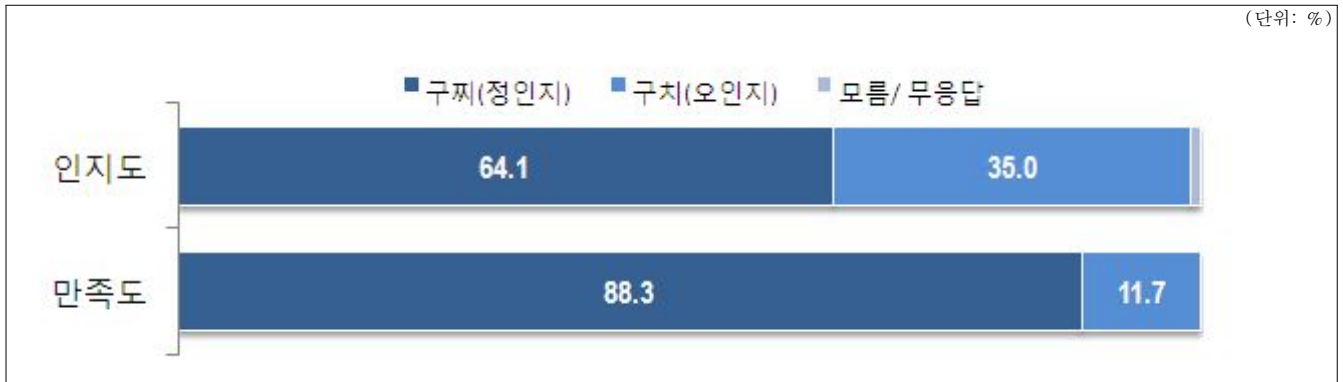
□ 피자의 정인지율에서 전체 평균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의 경우 비언론인이 96.0%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4-43] ①피자 ②피차 ③핏자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피자	핏자	피차	피자	핏자		
■ 전 체 ■	(103)	97.1	1.9	1.0	89.3	10.7	100.0	
■ 성 별 ■	남성	(55)	96.4	1.8	1.8	92.7	7.3	100.0
	여성	(48)	97.9	2.1	0.0	85.4	14.6	100.0
■ 연 령 ■	20대	(36)	97.2	2.8	0.0	94.4	5.6	100.0
	30대	(34)	100.0	0.0	0.0	85.3	14.7	100.0
	40대 이상	(31)	96.8	0.0	3.2	90.3	9.7	100.0
	무응답	(2)	50.0	50.0	0.0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91.7	8.3	0.0	75.0	25.0	100.0
	신문기자	(29)	96.6	0.0	3.4	89.7	10.3	100.0
	출판사종사자	(25)	100.0	0.0	0.0	96.0	4.0	100.0
	국어교사	(25)	100.0	0.0	0.0	96.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4.3	3.8	1.9	83.0	17.0	100.0
	비언론인	(50)	100.0	0.0	0.0	96.0	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7.0	1.5	1.5	93.9	6.1	100.0
	사회과학계열	(26)	96.2	3.8	0.0	80.8	19.2	100.0
	기타	(8)	100.0	0.0	0.0	75.0	25.0	100.0

5-4 ①구찌 ②구치

[그림 4-44] ①구찌 ②구치



[집단별 특성]

□ 구찌 표기의 인지율은 인문계열 전공자가 56.1%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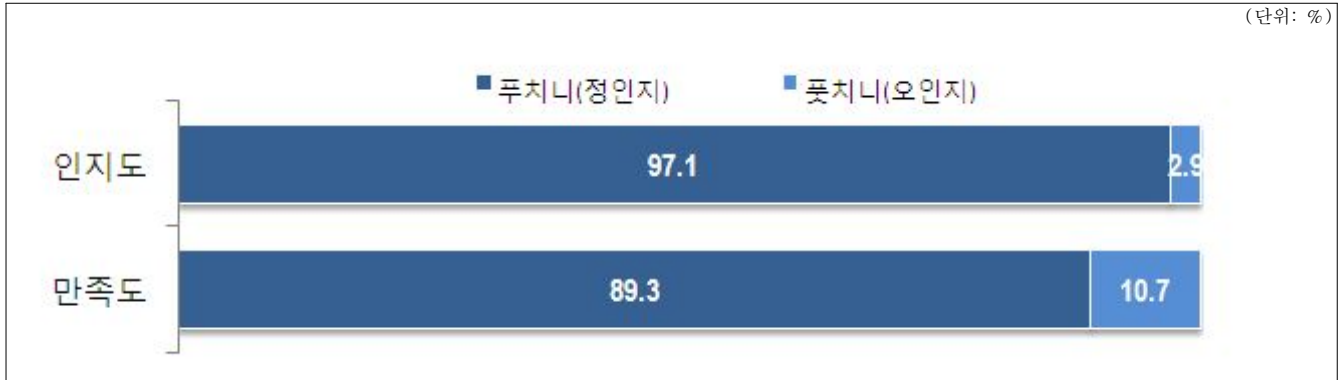
[표 4-44] ①구찌 ②구치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구찌	구치	모름/무응답	구찌	구치		
■ 전 체 ■	(103)	64.1	35.0	1.0	88.3	11.7	100.0	
■ 성 별 ■	남성	(55)	63.6	34.5	1.8	87.3	12.7	100.0
	여성	(48)	64.6	35.4	0.0	89.6	10.4	100.0
■ 연 령 ■	20대	(36)	75.0	25.0	0.0	94.4	5.6	100.0
	30대	(34)	61.8	38.2	0.0	88.2	11.8	100.0
	40대 이상	(31)	51.6	45.2	3.2	80.6	19.4	100.0
	무응답	(2)	100.0	0.0	0.0	10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66.7	33.3	0.0	83.3	16.7	100.0
	신문기자	(29)	48.3	48.3	3.4	89.7	10.3	100.0
	출판사종사자	(25)	72.0	28.0	0.0	88.0	12.0	100.0
	국어교사	(25)	72.0	28.0	0.0	92.0	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56.6	41.5	1.9	86.8	13.2	100.0
	비언론인	(50)	72.0	28.0	0.0	90.0	1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56.1	42.4	1.5	84.8	15.2	100.0
	사회과학계열	(26)	73.1	26.9	0.0	96.2	3.8	100.0
	기타	(8)	87.5	12.5	0.0	87.5	12.5	100.0

5-5

①푸치니 ②푼치니

[그림 4-45] ①푸치니 ②푼치니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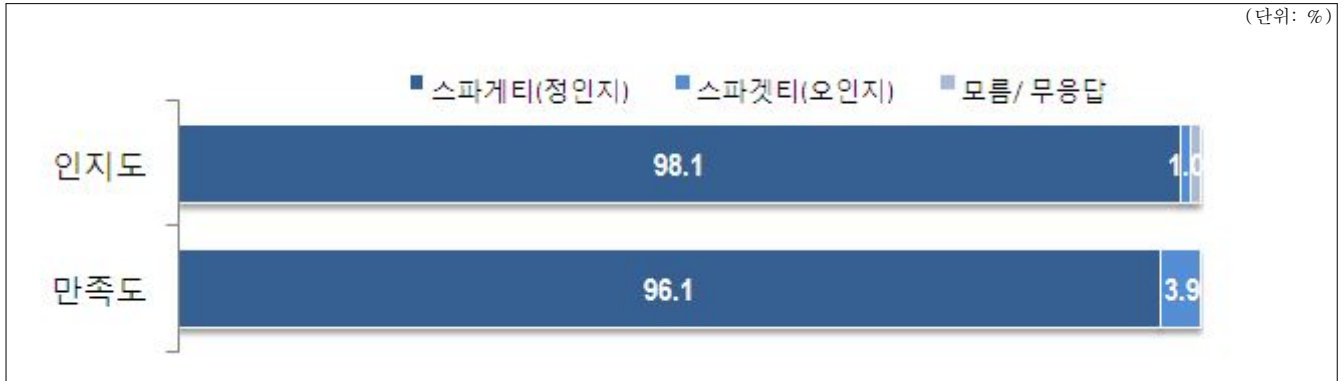
□ 푸치니 표기의 인지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비언론인이 81.1%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45] ①푸치니 ②푼치니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푸치니	푼치니	푸치니	푼치니	
■ 전 체 ■	(103)	97.1	2.9	89.3	10.7	100.0
■ 성 별 ■						
남성	(55)	98.2	1.8	90.9	9.1	100.0
여성	(48)	95.8	4.2	87.5	12.5	100.0
■ 연 령 ■						
20대	(36)	97.2	2.8	97.2	2.8	100.0
30대	(34)	100.0	0.0	91.2	8.8	100.0
40대 이상	(31)	93.5	6.5	80.6	19.4	100.0
무응답	(2)	100.0	0.0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95.8	4.2	79.2	20.8	100.0
신문기자	(29)	96.6	3.4	82.8	17.2	100.0
출판사종사자	(25)	100.0	0.0	96.0	4.0	100.0
국어교사	(25)	96.0	4.0	100.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6.2	3.8	81.1	18.9	100.0
비언론인	(50)	98.0	2.0	98.0	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7.0	3.0	92.4	7.6	100.0
사회과학계열	(26)	96.2	3.8	80.8	19.2	100.0
기타	(8)	100.0	0.0	87.5	12.5	100.0

5-6 ①스파게티 ②스파갯티

[그림 4-46] ①스파게티 ②스파갯티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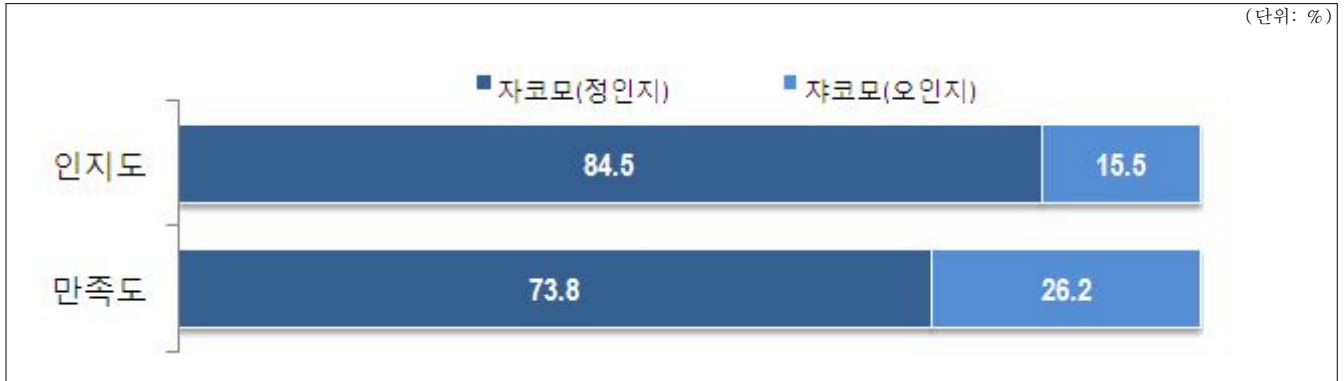
□ 스파게티 표기 정인지율은 집단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비언론인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46] ①스파게티 ②스파갯티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스파게티	TM파갯티	모름/무응답	스파게티	스파갯티	
■ 전 체 ■	(103)	98.1	1.0	1.0	96.1	3.9	100.0
■ 성 별 ■							
남성	(55)	98.2	0.0	1.8	100.0	0.0	100.0
여성	(48)	97.9	2.1	0.0	91.7	8.3	100.0
■ 연 령 ■							
20대	(36)	97.2	2.8	0.0	97.2	2.8	100.0
30대	(34)	100.0	0.0	0.0	97.1	2.9	100.0
40대 이상	(31)	96.8	0.0	3.2	93.5	6.5	100.0
무응답	(2)	100.0	0.0	0.0	10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95.8	4.2	0.0	83.3	16.7	100.0
신문기자	(29)	96.6	0.0	3.4	100.0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100.0	0.0	0.0	100.0	0.0	100.0
국어교사	(25)	100.0	0.0	0.0	100.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6.2	1.9	1.9	92.5	7.5	100.0
비언론인	(50)	100.0	0.0	0.0	100.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7.0	1.5	1.5	98.5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100.0	0.0	0.0	92.3	7.7	100.0
기타	(8)	100.0	0.0	0.0	87.5	12.5	100.0

5-7 ①자코모 ②자코모

[그림 4-47] ①자코모 ②자코모



[집단별 특성]

□ 자코모 표기와 관련하여 인지도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30대 61.8%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47] ①자코모 ②자코모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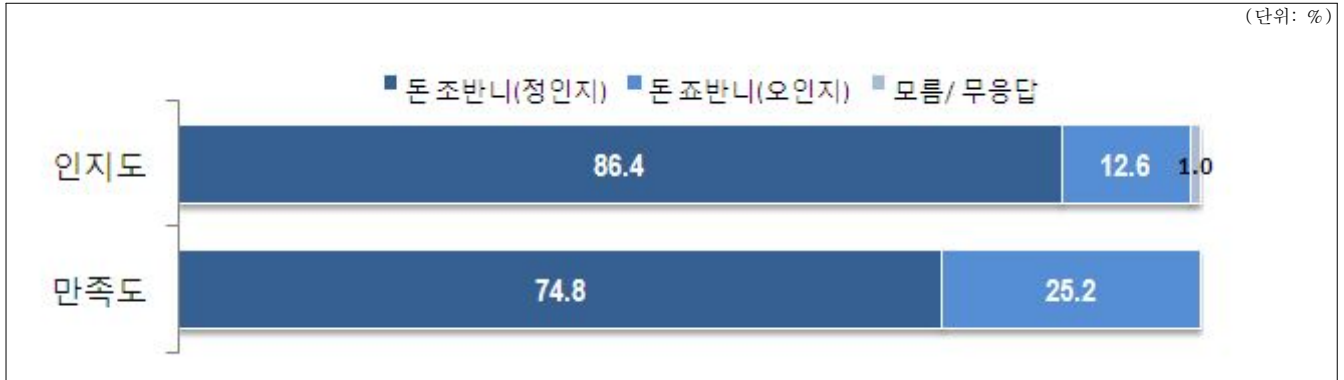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자코코	자코모	자코모	자코코		
■ 전 체 ■	(103)	84.5	15.5	73.8	26.2	100.0	
■ 성 별 ■	남성	(55)	87.3	12.7	74.5	25.5	100.0
	여성	(48)	81.3	18.8	72.9	27.1	100.0
■ 연 령 ■	20대	(36)	83.3	16.7	75.0	25.0	100.0
	30대	(34)	79.4	20.6	61.8	38.2	100.0
	40대 이상	(31)	96.8	3.2	87.1	12.9	100.0
	무응답	(2)	0.0	100.0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3	16.7	62.5	37.5	100.0
	신문기자	(29)	86.2	13.8	79.3	20.7	100.0
	출판사종사자	(25)	80.0	20.0	76.0	24.0	100.0
	국어교사	(25)	88.0	12.0	76.0	2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84.9	15.1	71.7	28.3	100.0
	비언론인	(50)	84.0	16.0	76.0	2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86.4	13.6	77.3	22.7	100.0
	사회과학계열	(26)	84.6	15.4	65.4	34.6	100.0
	기타	(8)	62.5	37.5	75.0	25.0	100.0

5-8

①돈 조반니

②돈 죠반니

[그림 4-48] ①돈 조반니 ②돈 죠반니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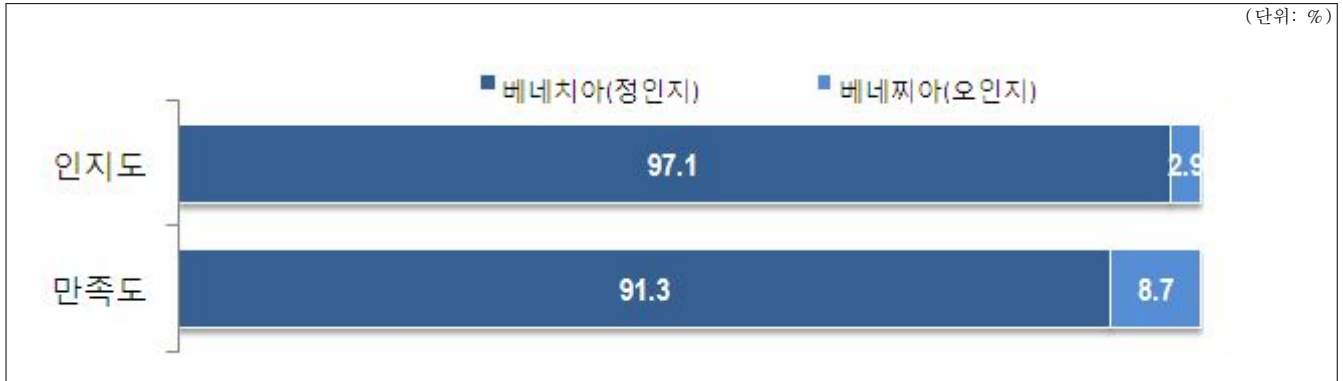
□ 돈 조반니 표기의 인지도 및 만족도에서 전체 평균 비율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
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4-48] ①돈 조반니 ②돈 죠반니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돈 조반니	돈 죠반니	모름/무응답	돈 조반니	돈 죠반니		
■ 전 체 ■	(103)	86.4	12.6	1.0	74.8	25.2	100.0	
■ 성 별 ■	남성	(55)	87.3	10.9	1.8	76.4	23.6	100.0
	여성	(48)	85.4	14.6	0.0	72.9	27.1	100.0
■ 연 령 ■	20대	(36)	88.9	11.1	0.0	77.8	22.2	100.0
	30대	(34)	91.2	8.8	0.0	70.6	29.4	100.0
	40대 이상	(31)	80.6	16.1	3.2	77.4	22.6	100.0
	무응답	(2)	50.0	50.0	0.0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3	16.7	0.0	62.5	37.5	100.0
	신문기자	(29)	79.3	17.2	3.4	72.4	27.6	100.0
	출판사종사자	(25)	96.0	4.0	0.0	88.0	12.0	100.0
	국어교사	(25)	88.0	12.0	0.0	76.0	2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81.1	17.0	1.9	67.9	32.1	100.0
	비언론인	(50)	92.0	8.0	0.0	82.0	1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87.9	10.6	1.5	74.2	25.8	100.0
	사회과학계열	(26)	88.5	11.5	0.0	73.1	26.9	100.0
	기타	(8)	75.0	25.0	0.0	75.0	25.0	100.0

5-9 ①베네치아 ②베네찌아

[그림 4-49] ①베네치아 ②베네찌아



[집단별 특성]

□ 베네치아 표기 인지도 및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4-49] ①베네치아 ②베네찌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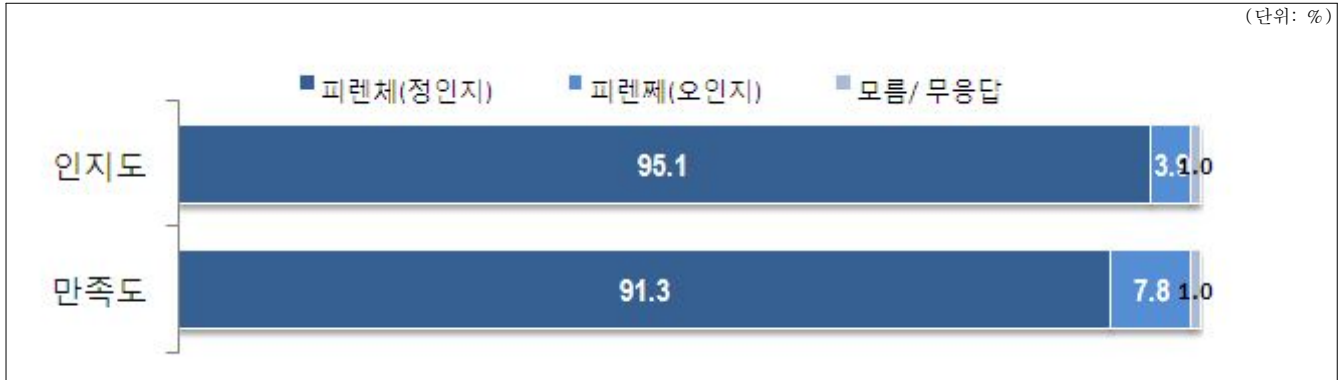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베네치아	베네찌아	베네치아	베네찌아		
■ 전 체 ■	(103)	97.1	2.9	91.3	8.7	100.0	
■ 성 별 ■	남성	(55)	98.2	1.8	94.5	5.5	100.0
	여성	(48)	95.8	4.2	87.5	12.5	100.0
■ 연 령 ■	20대	(36)	97.2	2.8	91.7	8.3	100.0
	30대	(34)	94.1	5.9	91.2	8.8	100.0
	40대 이상	(31)	100.0	0.0	93.5	6.5	100.0
	무응답	(2)	100.0	0.0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91.7	8.3	79.2	20.8	100.0
	신문기자	(29)	100.0	0.0	100.0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100.0	0.0	92.0	8.0	100.0
	국어교사	(25)	96.0	4.0	92.0	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6.2	3.8	90.6	9.4	100.0
	비언론인	(50)	98.0	2.0	92.0	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7.0	3.0	92.4	7.6	100.0
	사회과학계열	(26)	100.0	0.0	88.5	11.5	100.0
	기타	(8)	87.5	12.5	87.5	12.5	100.0

5-10

① 피렌체

② 피렌제

[그림 4-50] ① 피렌체 ② 피렌제



[집단별 특성]

□ 피렌체 표기 인지도 및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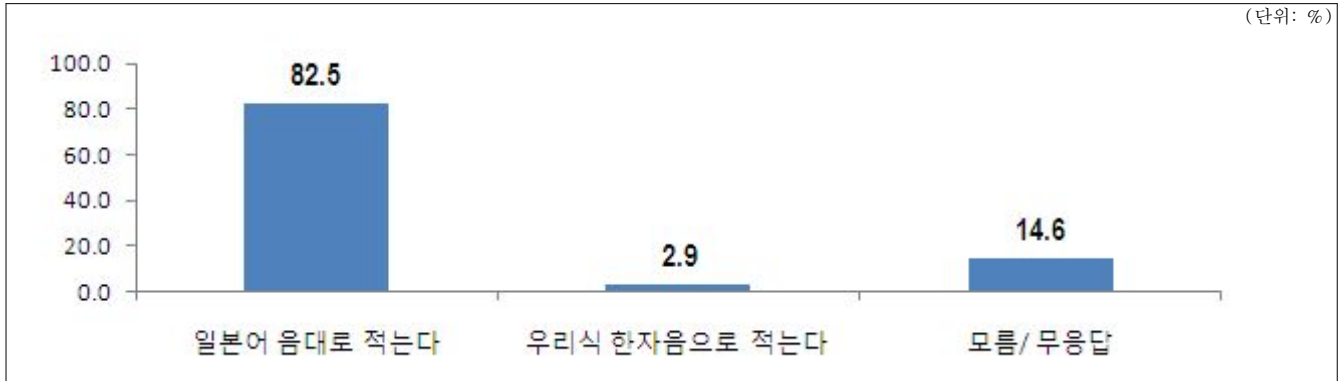
[표 4-50] ① 피렌체 ② 피렌제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피렌체	피렌제	모름/무응답	피렌체	피렌제	모름/무응답		
■ 전 체 ■	(103)	95.1	3.9	1.0	91.3	7.8	1.0	100.0	
■ 성 별 ■	남성	(55)	96.4	1.8	1.8	94.5	3.6	1.8	100.0
	여성	(48)	93.8	6.3	0.0	87.5	12.5	0.0	100.0
■ 연 령 ■	20대	(36)	94.4	5.6	0.0	88.9	8.3	2.8	100.0
	30대	(34)	94.1	5.9	0.0	91.2	8.8	0.0	100.0
	40대 이상	(31)	96.8	0.0	3.2	93.5	6.5	0.0	100.0
	무응답	(2)	100.0	0.0	0.0	10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91.7	8.3	0.0	83.3	16.7	0.0	100.0
	신문기자	(29)	96.6	0.0	3.4	96.6	0.0	3.4	100.0
	출판사종사자	(25)	100.0	0.0	0.0	92.0	8.0	0.0	100.0
	국어교사	(25)	92.0	8.0	0.0	92.0	8.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4.3	3.8	1.9	90.6	7.5	1.9	100.0
	비언론인	(50)	96.0	4.0	0.0	92.0	8.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3.9	4.5	1.5	90.9	7.6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100.0	0.0	0.0	92.3	7.7	0.0	100.0
	기타	(8)	87.5	12.5	0.0	87.5	12.5	0.0	100.0

6-1

일본의 인명과 지명을 한글로 어떻게 적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일본어 음대로 적는다 / ②우리식 한자음으로 적는다.

[그림 4-51] 일본어 한국식 한자음 표기



[집단별 특성]

□ 일본어 지명과 인명을 어떻게 적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응답은 일본어 음대로 적는 것이 좋다는 의견(82.5%)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비언론인이 92.0%로 유의미하게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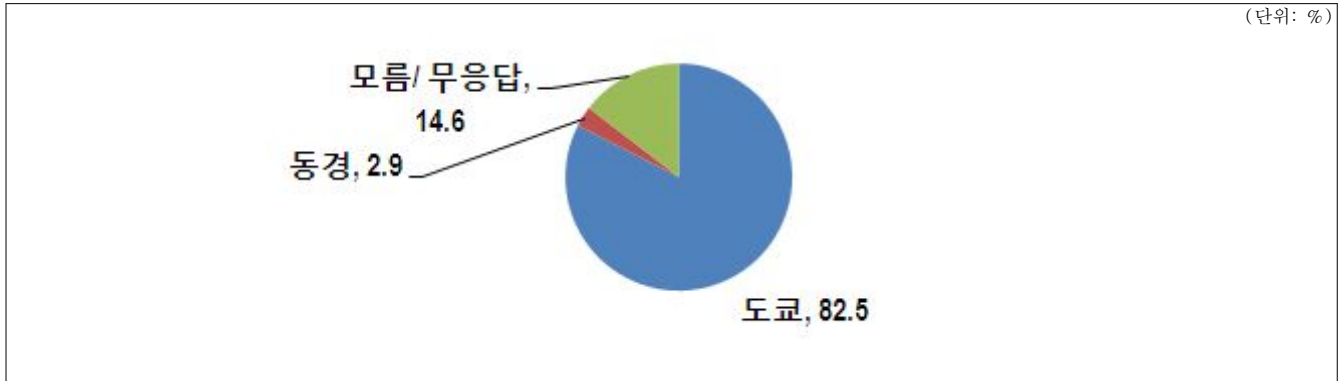
[표 4-51] 일본어 한국식 한자음 표기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일본어 음대로 적는다	우리식 한자음으로 적는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82.5	2.9	14.6	100.0
■ 성 별 ■	남성	(55)	80.0	0.0	20.0	100.0
	여성	(48)	85.4	6.3	8.3	100.0
■ 연 령 ■	20대	(36)	88.9	2.8	8.3	100.0
	30대	(34)	82.4	2.9	14.7	100.0
	40대 이상	(31)	77.4	3.2	19.4	100.0
	무응답	(2)	50.0	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62.5	4.2	33.3	100.0
	신문기자	(29)	82.8	0.0	17.2	100.0
	출판사종사자	(25)	92.0	4.0	4.0	100.0
	국어교사	(25)	92.0	4.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3.6	1.9	24.5	100.0
	비언론인	(50)	92.0	4.0	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84.8	3.0	12.1	100.0
	사회과학계열	(26)	80.8	3.8	15.4	100.0
	기타	(8)	62.5	0.0	37.5	100.0

6-2

실제로 어느 표기를 사용하십니까?
 ①도쿄 ②동경

[그림 4-52] ①도쿄 ②동경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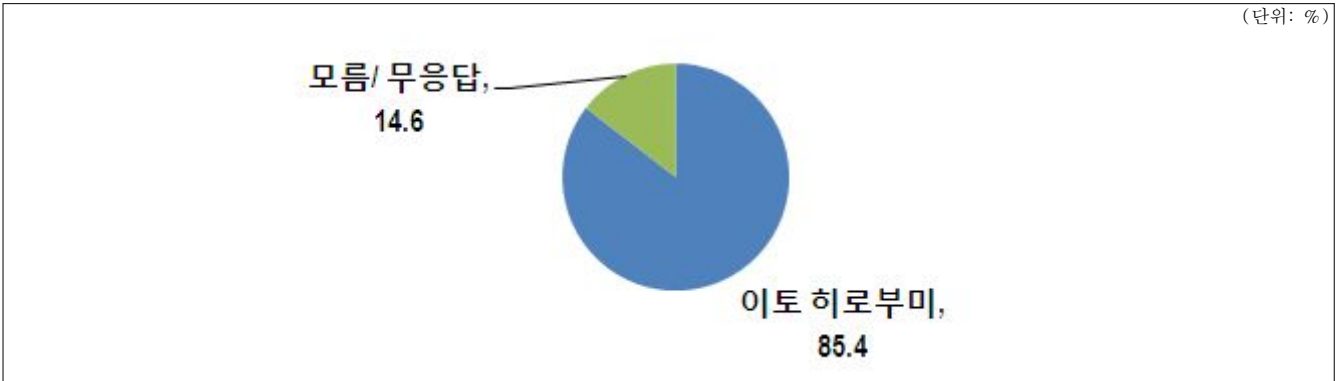
□ 도쿄, 동경 중 어느 표기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대부분이 도쿄라고 응답하였고, 특히 비언론인이 92.0%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52] ①도쿄 ②동경 집단별 특성

		사례수	도쿄	동경	모름/무응답	계
■ 전 체 ■		(103)	82.5	2.9	14.6	100.0
■ 성 별 ■	남성	(55)	78.2	1.8	20.0	100.0
	여성	(48)	87.5	4.2	8.3	100.0
■ 연 령 ■	20대	(36)	88.9	2.8	8.3	100.0
	30대	(34)	85.3	0.0	14.7	100.0
	40대 이상	(31)	74.2	6.5	19.4	100.0
	무응답	(2)	50.0	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66.7	0.0	33.3	100.0
	신문기자	(29)	79.3	3.4	17.2	100.0
	출판사종사자	(25)	96.0	0.0	4.0	100.0
	국어교사	(25)	88.0	8.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3.6	1.9	24.5	100.0
	비언론인	(50)	92.0	4.0	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83.3	4.5	12.1	100.0
	사회과학계열	(26)	84.6	0.0	15.4	100.0
	기타	(8)	62.5	0.0	37.5	100.0

6-3 시제로 어느 표기를 사용하십니까?
 ①이토 히로부미 ②이등박문

[그림 4-53] ①이토 히로부미 ②이등박문



[집단별 특성]

□ 이토 히로부미와 이등박문 중 어느 표기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이토 히로부미로 표기한다는 응답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남.

[표 4-53] ①이토 히로부미 ②이등박문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이토 히로부미	모름/무응답	계
■ 전 체 ■		(103)	85.4	14.6	100.0
■ 성 별 ■	남성	(55)	80.0	20.0	100.0
	여성	(48)	91.7	8.3	100.0
■ 연 령 ■	20대	(36)	91.7	8.3	100.0
	30대	(34)	85.3	14.7	100.0
	40대 이상	(31)	80.6	19.4	100.0
	무응답	(2)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66.7	33.3	100.0
	신문기자	(29)	82.8	17.2	100.0
	출판사종사자	(25)	96.0	4.0	100.0
	국어교사	(25)	96.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5.5	24.5	100.0
	비언론인	(50)	96.0	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87.9	12.1	100.0
	사회과학계열	(26)	84.6	15.4	100.0
	기타	(8)	62.5	37.5	100.0

7-1 ①기모노 ②키모노

[그림 4-54] ①기모노 ②키모노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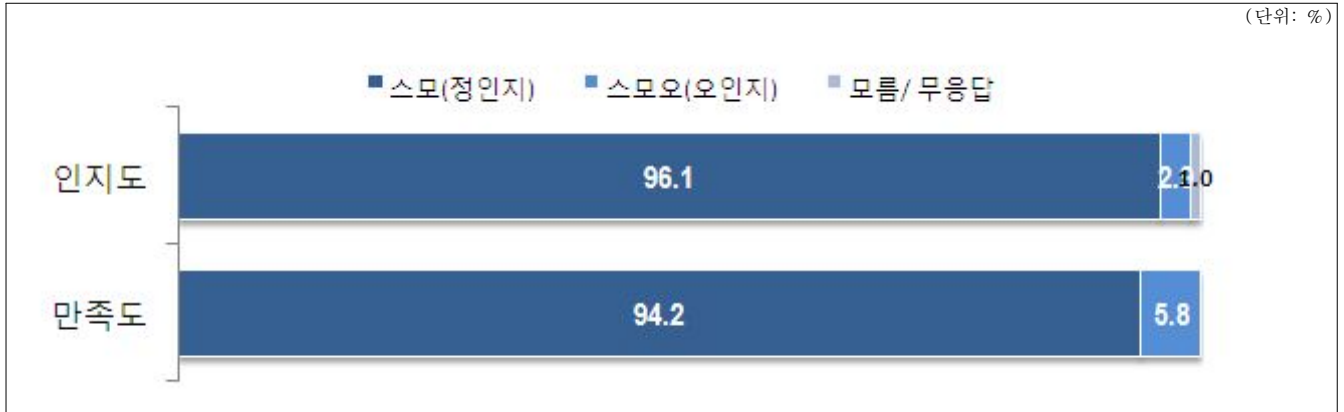
□ 기모노 표기 인지도 및 만족도에서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유의미한 집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4-54] ①기모노 ②키모노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기모노	키모노	기모노	키모노	
■ 전 체 ■	(103)	99.0	1.0	94.2	5.8	100.0
■ 성 별 ■						
남성	(55)	100.0	0.0	98.2	1.8	100.0
여성	(48)	97.9	2.1	89.6	10.4	100.0
■ 연 령 ■						
20대	(36)	100.0	0.0	91.7	8.3	100.0
30대	(34)	97.1	2.9	97.1	2.9	100.0
40대 이상	(31)	100.0	0.0	96.8	3.2	100.0
무응답	(2)	100.0	0.0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00.0	0.0	83.3	16.7	100.0
신문기자	(29)	100.0	0.0	100.0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100.0	0.0	96.0	4.0	100.0
국어교사	(25)	96.0	4.0	96.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100.0	0.0	92.5	7.5	100.0
비언론인	(50)	98.0	2.0	96.0	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8.5	1.5	95.5	4.5	100.0
사회과학계열	(26)	100.0	0.0	92.3	7.7	100.0
기타	(8)	100.0	0.0	87.5	12.5	100.0

7-2 ①스모 ②스모오

[그림 4-55] ①스모 ②스모오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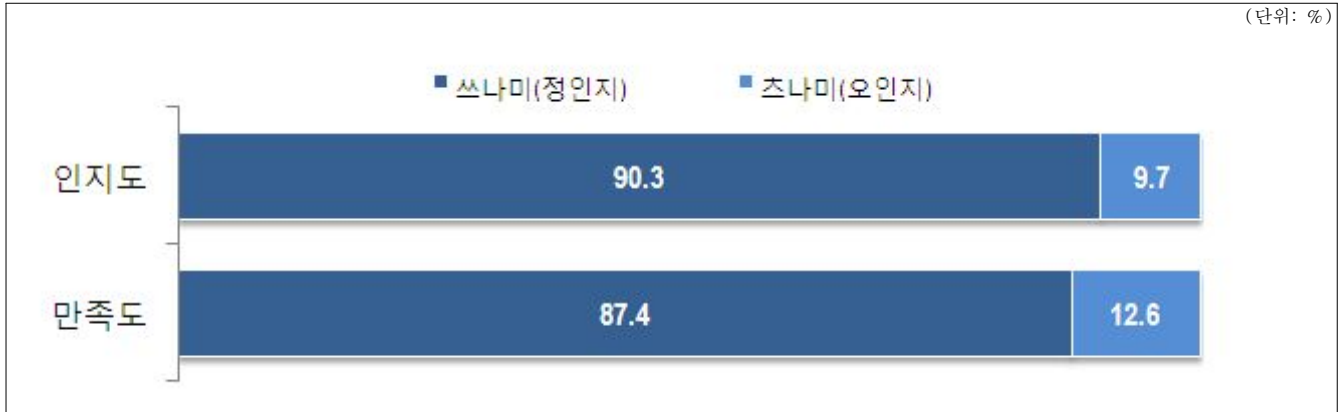
□ 스모 표기 인지도 및 만족도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4-55] ①스모 ②스모오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스모	스모오	모름/무응답	스모	스모오	
■ 전 체 ■	(103)	96.1	2.9	1.0	94.2	5.8	100.0
■ 성 별 ■							
남성	(55)	98.2	1.8	0.0	96.4	3.6	100.0
여성	(48)	93.8	4.2	2.1	91.7	8.3	100.0
■ 연 령 ■							
20대	(36)	97.2	2.8	0.0	94.4	5.6	100.0
30대	(34)	97.1	2.9	0.0	94.1	5.9	100.0
40대 이상	(31)	96.8	0.0	3.2	96.8	3.2	100.0
무응답	(2)	50.0	50.0	0.0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91.7	8.3	0.0	83.3	16.7	100.0
신문기자	(29)	96.6	0.0	3.4	100.0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100.0	0.0	0.0	96.0	4.0	100.0
국어교사	(25)	96.0	4.0	0.0	96.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4.3	3.8	1.9	92.5	7.5	100.0
비언론인	(50)	98.0	2.0	0.0	96.0	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7.0	3.0	0.0	95.5	4.5	100.0
사회과학계열	(26)	92.3	3.8	3.8	92.3	7.7	100.0
기타	(8)	100.0	0.0	0.0	87.5	12.5	100.0

7-3 ①쓰나미 ②츠나미

[그림 4-56] ①쓰나미 ②츠나미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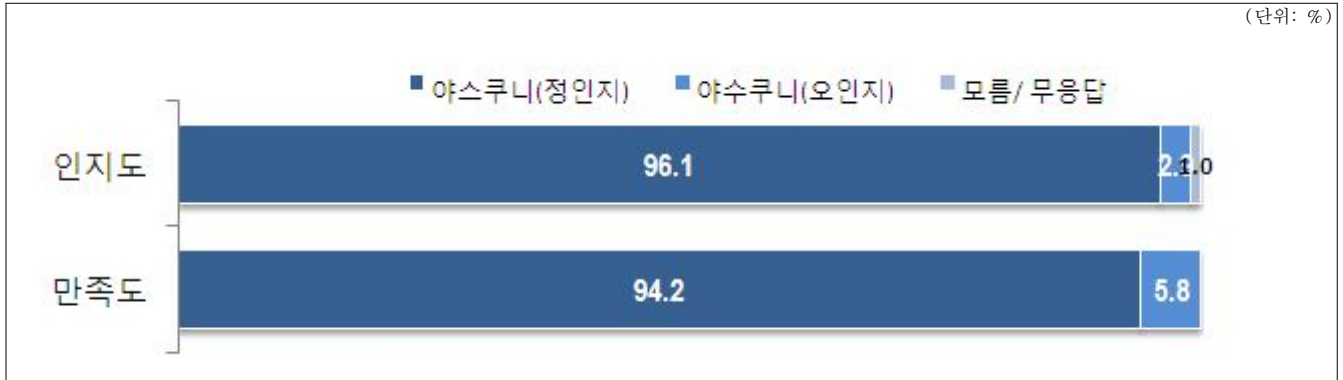
□ 쓰나미 인지도 및 만족도에서 전체 평균 비율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4-56] ①쓰나미 ②츠나미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쓰나미	츠나미	쓰나미	츠나미	
■ 전 체 ■	(103)	90.3	9.7	87.4	12.6	100.0
■ 성 별 ■	남성 (55)	89.1	10.9	87.3	12.7	100.0
	여성 (48)	91.7	8.3	87.5	12.5	100.0
■ 연 령 ■	20대 (36)	94.4	5.6	88.9	11.1	100.0
	30대 (34)	88.2	11.8	88.2	11.8	100.0
	40대 이상 (31)	93.5	6.5	90.3	9.7	100.0
	무응답 (2)	0.0	100.0	0.0	10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79.2	20.8	79.2	20.8	100.0
	신문기자 (29)	96.6	3.4	86.2	13.8	100.0
	출판사종사자 (25)	92.0	8.0	88.0	12.0	100.0
	국어교사 (25)	92.0	8.0	96.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88.7	11.3	83.0	17.0	100.0
	비언론인 (50)	92.0	8.0	92.0	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0.9	9.1	87.9	12.1	100.0
	사회과학계열 (26)	88.5	11.5	84.6	15.4	100.0
	기타 (8)	87.5	12.5	87.5	12.5	100.0

7-4 ①야스쿠니 ②야수쿠니

[그림 4-57] ①야스쿠니 ②야수쿠니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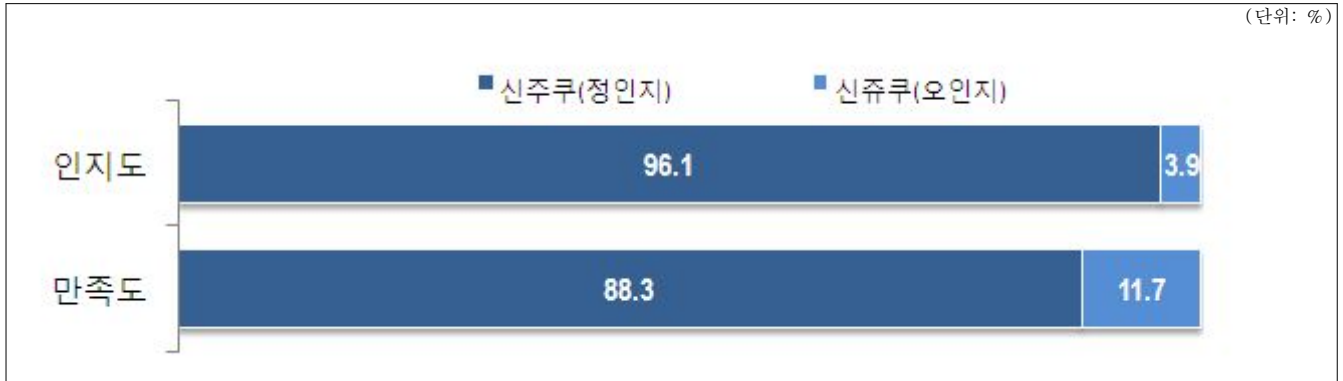
□ 야스쿠니 표기 정인지율은 남성이 100.0%로 유의미하게 높았고, 만족도의 경우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표 4-57] ①야스쿠니 ②야수쿠니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야스쿠니	야수쿠니	모름/무응답	야스쿠니	야수쿠니	
■ 전 체 ■	(103)	96.1	2.9	1.0	94.2	5.8	100.0
■ 성 별 ■							
남성	(55)	100.0	0.0	0.0	98.2	1.8	100.0
여성	(48)	91.7	6.3	2.1	89.6	10.4	100.0
■ 연 령 ■							
20대	(36)	97.2	2.8	0.0	94.4	5.6	100.0
30대	(34)	97.1	2.9	0.0	94.1	5.9	100.0
40대 이상	(31)	93.5	3.2	3.2	93.5	6.5	100.0
무응답	(2)	100.0	0.0	0.0	10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95.8	4.2	0.0	83.3	16.7	100.0
신문기자	(29)	96.6	0.0	3.4	100.0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96.0	4.0	0.0	96.0	4.0	100.0
국어교사	(25)	96.0	4.0	0.0	96.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6.2	1.9	1.9	92.5	7.5	100.0
비언론인	(50)	96.0	4.0	0.0	96.0	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5.5	4.5	0.0	95.5	4.5	100.0
사회과학계열	(26)	96.2	0.0	3.8	92.3	7.7	100.0
기타	(8)	100.0	0.0	0.0	87.5	12.5	100.0

7-5 ①신주쿠 ②신쥬쿠

[그림 4-58] ①신주쿠 ②신쥬쿠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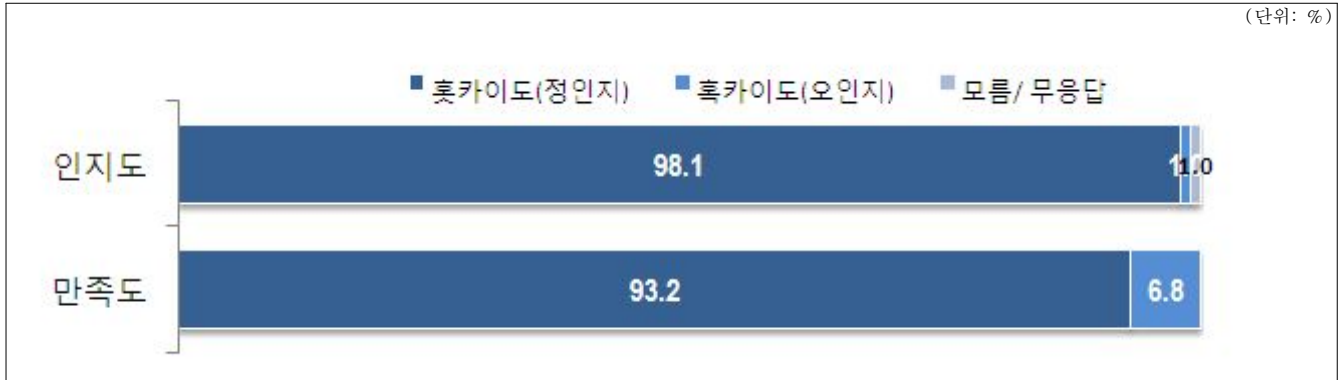
□ 신주쿠 표기 인지도 및 만족도에서 전체 평균 비율과 비교해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표 4-58] ①신주쿠 ②신쥬쿠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신주쿠	신쥬쿠	신주쿠	신쥬쿠	
■ 전 체 ■	(103)	96.1	3.9	88.3	11.7	100.0
□ 성 별 □						
남성	(55)	96.4	3.6	89.1	10.9	100.0
여성	(48)	95.8	4.2	87.5	12.5	100.0
□ 연 령 □						
20대	(36)	97.2	2.8	94.4	5.6	100.0
30대	(34)	94.1	5.9	91.2	8.8	100.0
40대 이상	(31)	100.0	0.0	83.9	16.1	100.0
무응답	(2)	50.0	50.0	0.0	10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91.7	8.3	75.0	25.0	100.0
신문기자	(29)	100.0	0.0	93.1	6.9	100.0
출판사종사자	(25)	96.0	4.0	92.0	8.0	100.0
국어교사	(25)	96.0	4.0	92.0	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6.2	3.8	84.9	15.1	100.0
비언론인	(50)	96.0	4.0	92.0	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7.0	3.0	90.9	9.1	100.0
사회과학계열	(26)	96.2	3.8	84.6	15.4	100.0
기타	(8)	100.0	0.0	87.5	12.5	100.0

7-6 ①훗카이도 ②흑카이도

[그림 4-59] ①훗카이도 ②흑카이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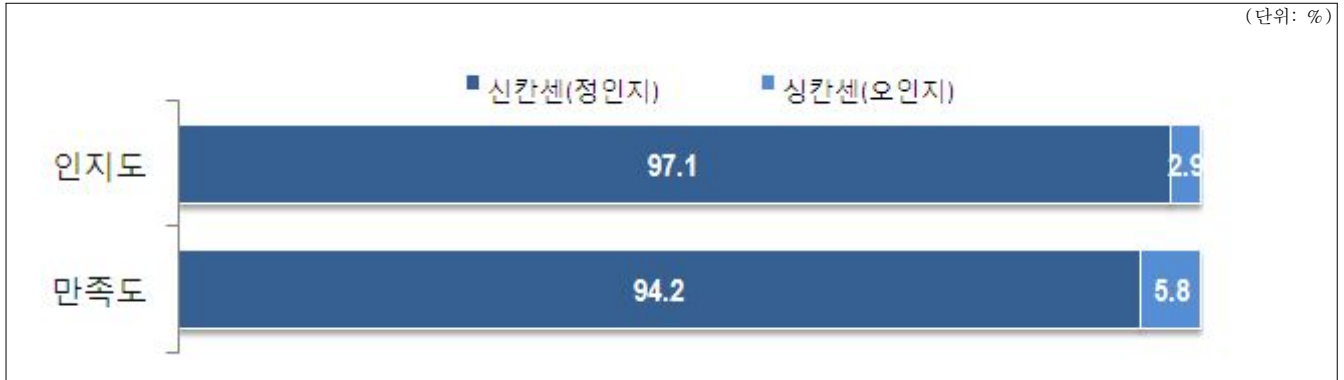
□ 훗카이도 표기 인지도 및 만족도에서 전체 평균 비율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4-59] ①훗카이도 ②흑카이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훗카이도	흑카이도	모름/무응답	훗카이도	흑카이도	
■ 전 체 ■	(103)	98.1	1.0	1.0	93.2	6.8	100.0
■ 성 별 ■							
남성	(55)	100.0	0.0	0.0	94.5	5.5	100.0
여성	(48)	95.8	2.1	2.1	91.7	8.3	100.0
■ 연 령 ■							
20대	(36)	100.0	0.0	0.0	94.4	5.6	100.0
30대	(34)	97.1	2.9	0.0	94.1	5.9	100.0
40대 이상	(31)	96.8	0.0	3.2	90.3	9.7	100.0
무응답	(2)	100.0	0.0	0.0	10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00.0	0.0	0.0	87.5	12.5	100.0
신문기자	(29)	96.6	0.0	3.4	96.6	3.4	100.0
출판사종사자	(25)	100.0	0.0	0.0	92.0	8.0	100.0
국어교사	(25)	96.0	4.0	0.0	96.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8.1	0.0	1.9	92.5	7.5	100.0
비언론인	(50)	98.0	2.0	0.0	94.0	6.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8.5	1.5	0.0	92.4	7.6	100.0
사회과학계열	(26)	96.2	0.0	3.8	96.2	3.8	100.0
기타	(8)	100.0	0.0	0.0	87.5	12.5	100.0

7-7 ①신칸센 ②싱칸센

[그림 4-60] ①신칸센 ②싱칸센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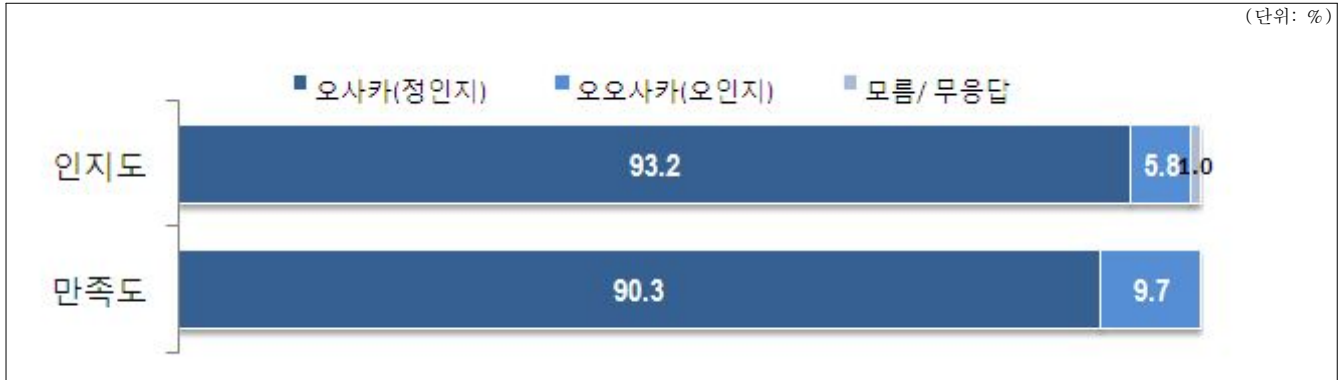
□ 신칸센 표기와 관련하여 전체 평균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4-60] ①신칸센 ②싱칸센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신칸센	싱칸센	신칸센	싱칸센		
■ 전 체 ■	(103)	97.1	2.9	94.2	5.8	100.0	
■ 성 별 ■	남성	(55)	98.2	1.8	94.5	5.5	100.0
	여성	(48)	95.8	4.2	93.8	6.3	100.0
■ 연 령 ■	20대	(36)	97.2	2.8	97.2	2.8	100.0
	30대	(34)	97.1	2.9	94.1	5.9	100.0
	40대 이상	(31)	100.0	0.0	96.8	3.2	100.0
	무응답	(2)	50.0	50.0	0.0	10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91.7	8.3	79.2	20.8	100.0
	신문기자	(29)	100.0	0.0	100.0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100.0	0.0	96.0	4.0	100.0
	국어교사	(25)	96.0	4.0	100.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6.2	3.8	90.6	9.4	100.0
	비언론인	(50)	98.0	2.0	98.0	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7.0	3.0	97.0	3.0	100.0
	사회과학계열	(26)	96.2	3.8	88.5	11.5	100.0
	기타	(8)	100.0	0.0	87.5	12.5	100.0

7-8 ①오사카 ②오오사카

[그림 4-61] ①오사카 ②오오사카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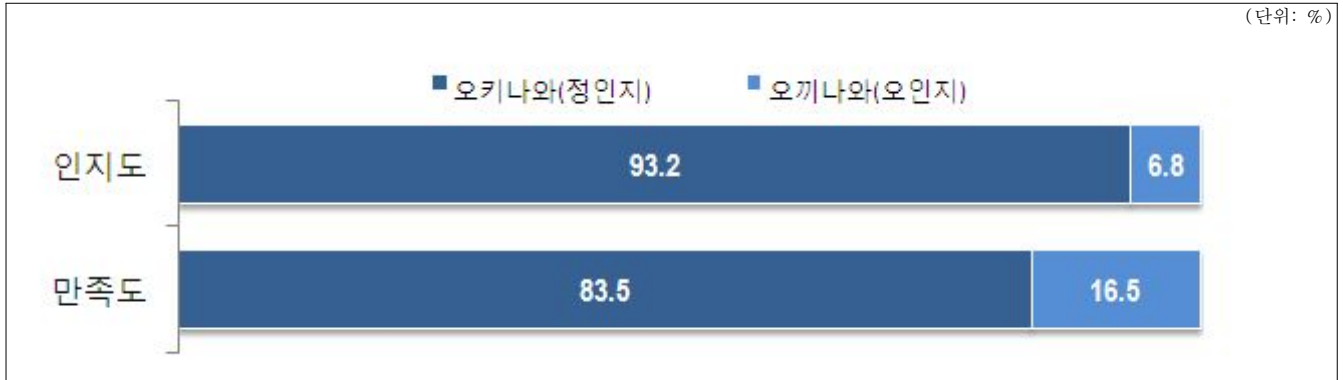
□ 오사카 표기와 관련하여 전체 평균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4-61] ①오사카 ②오오사카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오사카	오오사카	모름/무응답	오사카	오오사카		
■ 전 체 ■	(103)	93.2	5.8	1.0	90.3	9.7	100.0	
■ 성 별 ■	남성	(55)	96.4	3.6	0.0	94.5	5.5	100.0
	여성	(48)	89.6	8.3	2.1	85.4	14.6	100.0
■ 연 령 ■	20대	(36)	94.4	5.6	0.0	94.4	5.6	100.0
	30대	(34)	94.1	5.9	0.0	88.2	11.8	100.0
	40대 이상	(31)	93.5	3.2	3.2	90.3	9.7	100.0
	무응답	(2)	50.0	50.0	0.0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7.5	12.5	0.0	79.2	20.8	100.0
	신문기자	(29)	93.1	3.4	3.4	89.7	10.3	100.0
	출판사종사자	(25)	100.0	0.0	0.0	96.0	4.0	100.0
	국어교사	(25)	92.0	8.0	0.0	96.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0.6	7.5	1.9	84.9	15.1	100.0
	비언론인	(50)	96.0	4.0	0.0	96.0	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5.5	4.5	0.0	93.9	6.1	100.0
	사회과학계열	(26)	88.5	7.7	3.8	80.8	19.2	100.0
	기타	(8)	87.5	12.5	0.0	87.5	12.5	100.0

7-9 ①오키나와 ②오끼나와

[그림 4-62] ①오키나와 ②오끼나와



[집단별 특성]

□ 오키나와 표기와 관련하여 전체 평균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4-62] ①오키나와 ②오끼나와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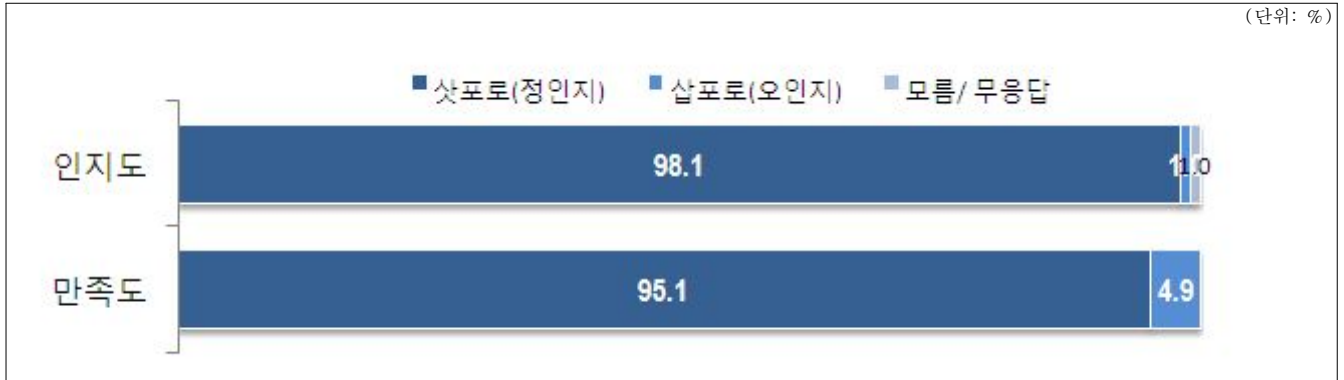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오키나와	오끼나와	오키나와	오끼나와		
■ 전 체 ■	(103)	93.2	6.8	83.5	16.5	100.0	
■ 성 별 ■	남성	(55)	96.4	3.6	85.5	14.5	100.0
	여성	(48)	89.6	10.4	81.3	18.8	100.0
■ 연 령 ■	20대	(36)	91.7	8.3	91.7	8.3	100.0
	30대	(34)	97.1	2.9	79.4	20.6	100.0
	40대 이상	(31)	90.3	9.7	77.4	22.6	100.0
	무응답	(2)	100.0	0.0	10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7.5	12.5	75.0	25.0	100.0
	신문기자	(29)	96.6	3.4	79.3	20.7	100.0
	출판사종사자	(25)	96.0	4.0	92.0	8.0	100.0
	국어교사	(25)	92.0	8.0	88.0	12.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2.5	7.5	77.4	22.6	100.0
	비언론인	(50)	94.0	6.0	90.0	1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3.9	6.1	86.4	13.6	100.0
	사회과학계열	(26)	92.3	7.7	76.9	23.1	100.0
	기타	(8)	100.0	0.0	87.5	12.5	100.0

7-10

①삿포로

②삿포로

[그림 4-63] ①삿포로 ②삿포로



[집단별 특성]

□ 삿포로 표기와 관련하여 전체 평균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조사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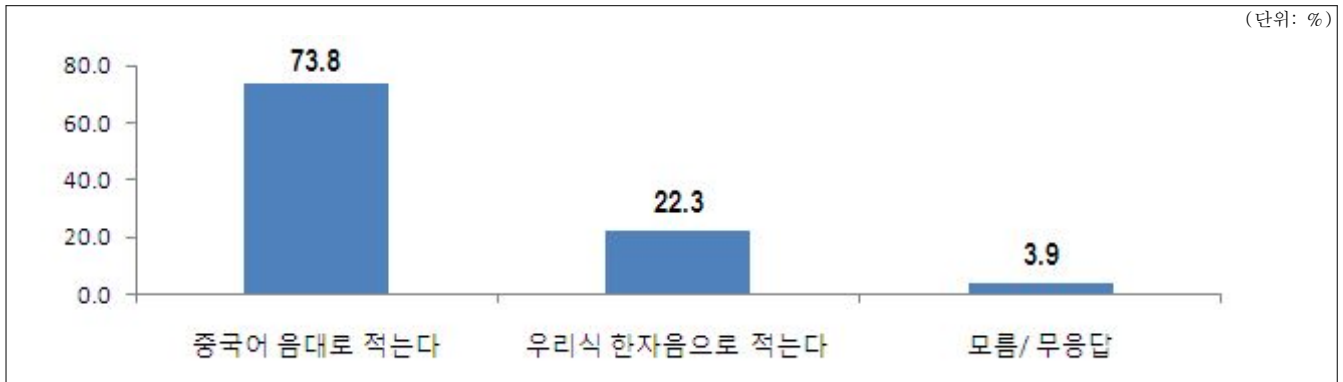
[표 4-63] ①삿포로 ②삿포로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삿포로	삿포로	모름/무응답	삿포로	삿포로		
■ 전 체 ■	(103)	98.1	1.0	1.0	95.1	4.9	100.0	
■ 성 별 ■	남성	(55)	100.0	0.0	0.0	96.4	3.6	100.0
	여성	(48)	95.8	2.1	2.1	93.8	6.3	100.0
■ 연 령 ■	20대	(36)	100.0	0.0	0.0	97.2	2.8	100.0
	30대	(34)	97.1	2.9	0.0	94.1	5.9	100.0
	40대 이상	(31)	96.8	0.0	3.2	93.5	6.5	100.0
	무응답	(2)	100.0	0.0	0.0	10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00.0	0.0	0.0	91.7	8.3	100.0
	신문기자	(29)	96.6	0.0	3.4	96.6	3.4	100.0
	출판사종사자	(25)	100.0	0.0	0.0	96.0	4.0	100.0
	국어교사	(25)	96.0	4.0	0.0	96.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8.1	0.0	1.9	94.3	5.7	100.0
	비언론인	(50)	98.0	2.0	0.0	96.0	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8.5	1.5	0.0	95.5	4.5	100.0
	사회과학계열	(26)	96.2	0.0	3.8	96.2	3.8	100.0
	기타	(8)	100.0	0.0	0.0	87.5	12.5	100.0

8-1

중국의 인명과 지명을 한글로 어떻게 적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중국어 음대로 적는다 ② 우리식 한자음으로 적는다

[그림 4-64] 중국어 한국식 한자음 표기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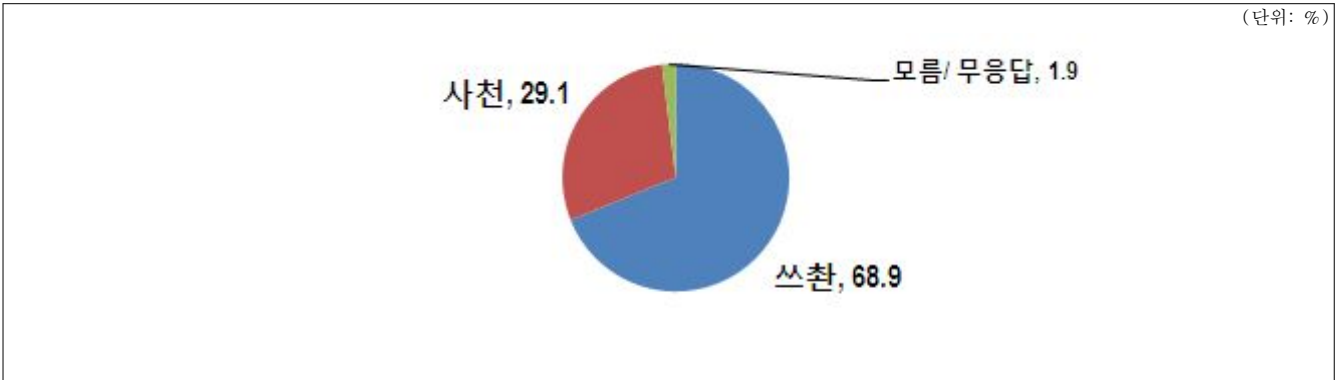
□ 중국어 인명과 지명을 한글로 어떻게 적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중국어 음대로 적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73.8%로 우리식 한자음을 적는다는 응답(22.3%)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64] 중국어 한국식 한자음 표기

		사례수	중국어 음대로 적는다	우리식 한자음으로 적는다	모름/무응답	계
■ 전 체 ■		(103)	73.8	22.3	3.9	100.0
■ 성 별 ■	남성	(55)	74.5	21.8	3.6	100.0
	여성	(48)	72.9	22.9	4.2	100.0
■ 연 령 ■	20대	(36)	75.0	19.4	5.6	100.0
	30대	(34)	79.4	17.6	2.9	100.0
	40대 이상	(31)	67.7	29.0	3.2	100.0
	무응답	(2)	50.0	5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75.0	16.7	8.3	100.0
	신문기자	(29)	72.4	24.1	3.4	100.0
	출판사종사자	(25)	84.0	12.0	4.0	100.0
	국어교사	(25)	64.0	36.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3.6	20.8	5.7	100.0
	비언론인	(50)	74.0	24.0	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72.7	22.7	4.5	100.0
	사회과학계열	(26)	73.1	26.9	0.0	100.0
	기타	(8)	75.0	12.5	12.5	100.0

8-2 실제로 어떤 표기를 사용하십니까?
①쓰촨 ②사천

[그림 4-65] ①쓰촨 ②사천



[집단별 특성]

□ 쓰촨, 사천 중 어느 표기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쓰촨이라는 응답이 68.9%로 사천으로 응답한 사람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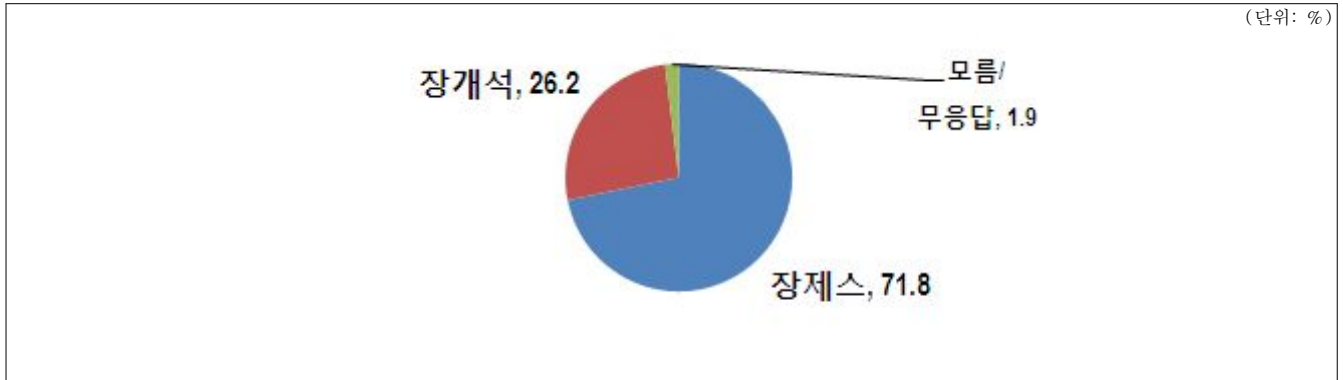
[표 4-65] ①쓰촨 ②사천 집단별 특성

		사례수	쓰촨	사천	모름/무응답	계
■ 전 체 ■		(103)	68.9	29.1	1.9	100.0
■ 성 별 ■	남성	(55)	72.7	25.5	1.8	100.0
	여성	(48)	64.6	33.3	2.1	100.0
■ 연 령 ■	20대	(36)	58.3	38.9	2.8	100.0
	30대	(34)	85.3	11.8	2.9	100.0
	40대 이상	(31)	64.5	35.5	0.0	100.0
	무응답	(2)	50.0	5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79.2	12.5	8.3	100.0
	신문기자	(29)	75.9	24.1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92.0	8.0	0.0	100.0
	국어교사	(25)	28.0	72.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7.4	18.9	3.8	100.0
	비언론인	(50)	60.0	40.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65.2	31.8	3.0	100.0
	사회과학계열	(26)	69.2	30.8	0.0	100.0
	기타	(8)	87.5	12.5	0.0	100.0

8-3

실제로 어느 표기를 사용하십니까?
 ①장제스 ②장개석

[그림 4-66] ①장제스 ②장개석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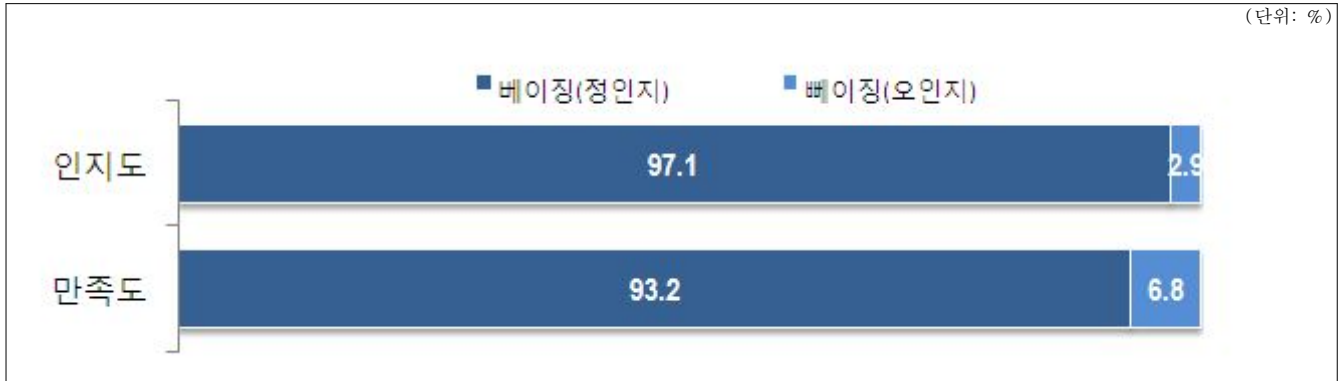
□ 장제스, 장개석 중 어느 표기를 사용지에 대해, 장제스 71.8%, 장개석 26.2%로 나타나 장제스로 표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표 4-66] ①장제스 ②장개석 집단별 특성

		사례수	장제스	장개석	모름/무응답	계
■ 전 체 ■		(103)	71.8	26.2	1.9	100.0
■ 성 별 ■	남성	(55)	76.4	21.8	1.8	100.0
	여성	(48)	66.7	31.3	2.1	100.0
■ 연 령 ■	20대	(36)	63.9	33.3	2.8	100.0
	30대	(34)	79.4	17.6	2.9	100.0
	40대 이상	(31)	74.2	25.8	0.0	100.0
	무응답	(2)	50.0	5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75.0	16.7	8.3	100.0
	신문기자	(29)	79.3	20.7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88.0	12.0	0.0	100.0
	국어교사	(25)	44.0	56.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7.4	18.9	3.8	100.0
	비언론인	(50)	66.0	34.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69.7	27.3	3.0	100.0
	사회과학계열	(26)	73.1	26.9	0.0	100.0
	기타	(8)	75.0	25.0	0.0	100.0

9-1 ①베이징 ②빼이징

[그림 4-67] ①베이징 ②빼이징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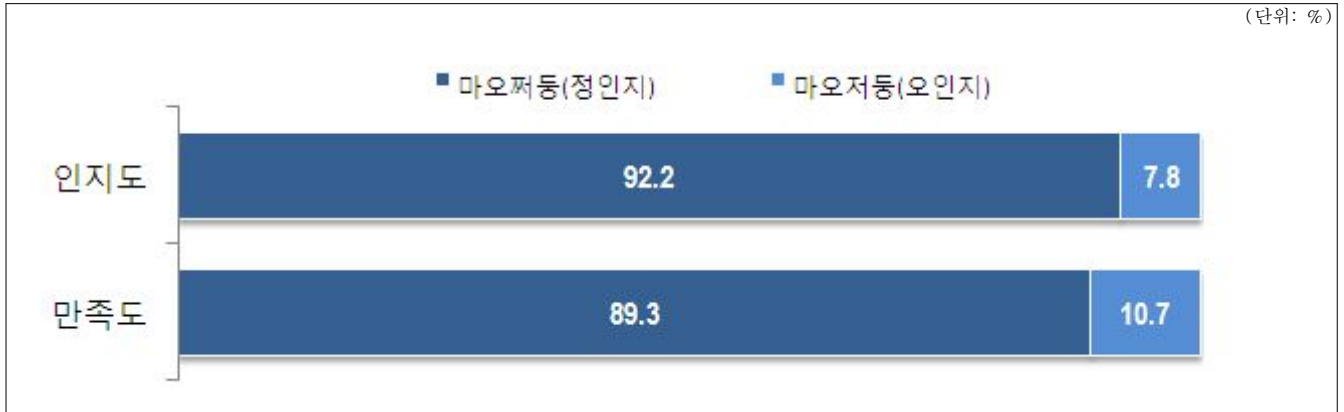
□ 베이징 표기의 인지도 및 만족도에서 전체 평균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4-67] ①베이징 ②빼이징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베이징	빼이징	베이징	빼이징		
■ 전 체 ■	(103)	97.1	2.9	93.2	6.8	100.0	
□ 성 별 □	남성	(55)	96.4	3.6	96.4	3.6	100.0
	여성	(48)	97.9	2.1	89.6	10.4	100.0
□ 연 령 □	20대	(36)	97.2	2.8	94.4	5.6	100.0
	30대	(34)	97.1	2.9	94.1	5.9	100.0
	40대 이상	(31)	100.0	0.0	93.5	6.5	100.0
	무응답	(2)	50.0	50.0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7.5	12.5	83.3	16.7	100.0
	신문기자	(29)	100.0	0.0	96.6	3.4	100.0
	출판사종사자	(25)	100.0	0.0	96.0	4.0	100.0
	국어교사	(25)	100.0	0.0	96.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4.3	5.7	90.6	9.4	100.0
	비언론인	(50)	100.0	0.0	96.0	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8.5	1.5	95.5	4.5	100.0
	사회과학계열	(26)	96.2	3.8	88.5	11.5	100.0
	기타	(8)	87.5	12.5	87.5	12.5	100.0

9-2 ①마오저등 ②마오쩌둥

[그림 4-68] ①마오저등 ②마오쩌둥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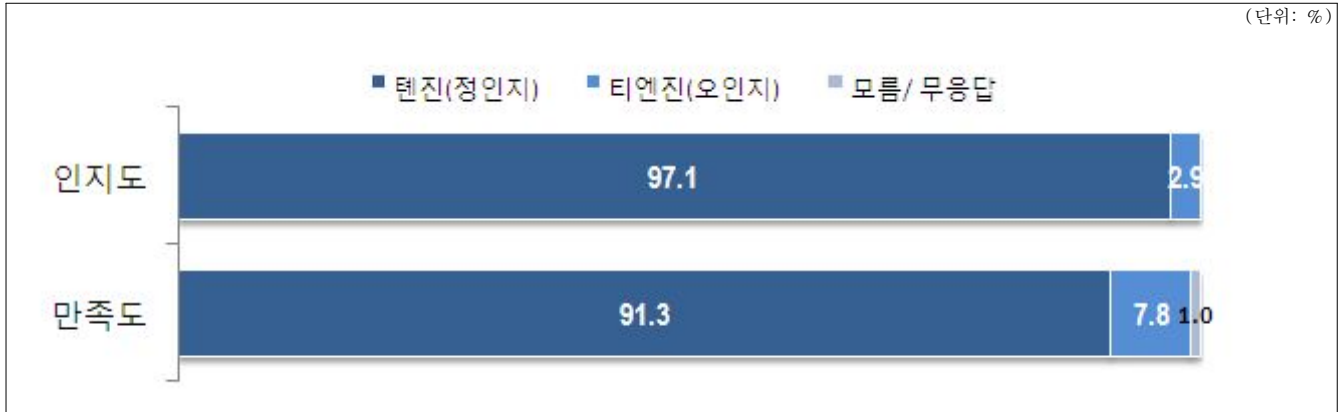
□ 마오쩌둥 표기의 인지도 및 만족도에서 전체 평균 비율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4-68] ①마오저등 ②마오쩌둥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마오저등	마오쩌둥	마오저등	마오쩌둥		
■ 전 체 ■	(103)	7.8	92.2	10.7	89.3	100.0	
□ 성 별 □	남성	(55)	5.5	94.5	10.9	89.1	100.0
	여성	(48)	10.4	89.6	10.4	89.6	100.0
□ 연 령 □	20대	(36)	8.3	91.7	5.6	94.4	100.0
	30대	(34)	8.8	91.2	14.7	85.3	100.0
	40대 이상	(31)	6.5	93.5	12.9	87.1	100.0
	무응답	(2)	0.0	100.0	0.0	10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	91.7	16.7	83.3	100.0
	신문기자	(29)	6.9	93.1	6.9	93.1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96.0	8.0	92.0	100.0
	국어교사	(25)	12.0	88.0	12.0	8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5	92.5	11.3	88.7	100.0
	비언론인	(50)	8.0	92.0	10.0	9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6.1	93.9	7.6	92.4	100.0
	사회과학계열	(26)	7.7	92.3	7.7	92.3	100.0
	기타	(8)	12.5	87.5	25.0	75.0	100.0

9-3 ①텐진 ②티엔진

[그림 4-69] ①텐진 ②티엔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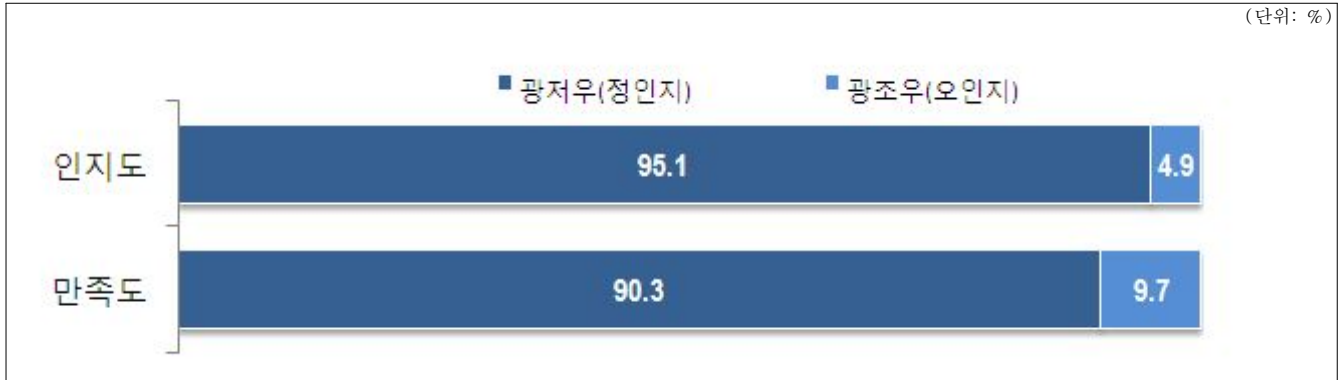
□ 텐진 표기의 인지도 및 만족도에서 전체 평균 비율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4-69] ①텐진 ②티엔진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텐진	티엔진	텐진	티엔진	모름/무응답		
■ 전 체 ■	(103)	97.1	2.9	91.3	7.8	1.0	100.0	
■ 성 별 ■	남성	(55)	98.2	1.8	94.5	3.6	1.8	100.0
	여성	(48)	95.8	4.2	87.5	12.5	0.0	100.0
■ 연 령 ■	20대	(36)	97.2	2.8	91.7	8.3	0.0	100.0
	30대	(34)	97.1	2.9	91.2	8.8	0.0	100.0
	40대 이상	(31)	100.0	0.0	93.5	6.5	0.0	100.0
	무응답	(2)	50.0	50.0	50.0	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91.7	8.3	83.3	12.5	4.2	100.0
	신문기자	(29)	100.0	0.0	93.1	6.9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100.0	0.0	96.0	4.0	0.0	100.0
	국어교사	(25)	96.0	4.0	92.0	8.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6.2	3.8	88.7	9.4	1.9	100.0
	비언론인	(50)	98.0	2.0	94.0	6.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7.0	3.0	90.9	9.1	0.0	100.0
	사회과학계열	(26)	96.2	3.8	92.3	3.8	3.8	100.0
	기타	(8)	100.0	0.0	87.5	12.5	0.0	100.0

9-4 ①광조우 ②광저우

[그림 4-70] ①광조우 ②광저우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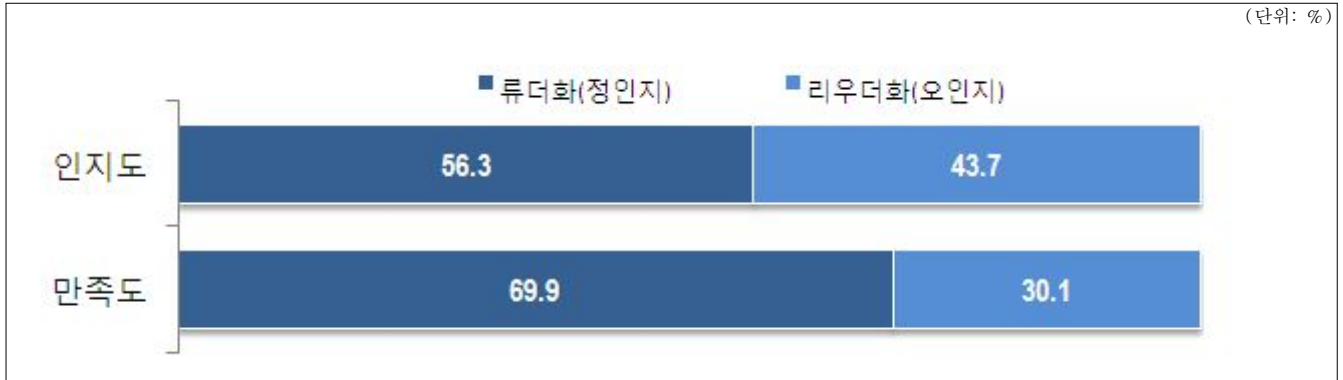
□ 광저우 표기의 인지도 및 만족도에서 전체 평균 비율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4-70] ①광조우 ②광저우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광조우	광저우	광조우	광저우	
■ 전 체 ■	(103)	4.9	95.1	9.7	90.3	100.0
■ 성 별 ■	남성 (55)	5.5	94.5	9.1	90.9	100.0
	여성 (48)	4.2	95.8	10.4	89.6	100.0
■ 연 령 ■	20대 (36)	2.8	97.2	11.1	88.9	100.0
	30대 (34)	5.9	94.1	8.8	91.2	100.0
	40대 이상 (31)	6.5	93.5	9.7	90.3	100.0
	무응답 (2)	0.0	100.0	0.0	10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4.2	95.8	16.7	83.3	100.0
	신문기자 (29)	3.4	96.6	3.4	96.6	100.0
	출판사종사자 (25)	0.0	100.0	8.0	92.0	100.0
	국어교사 (25)	12.0	88.0	12.0	8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8	96.2	9.4	90.6	100.0
	비언론인 (50)	6.0	94.0	10.0	9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4.5	95.5	9.1	90.9	100.0
	사회과학계열 (26)	0.0	100.0	3.8	96.2	100.0
	기타 (8)	12.5	87.5	25.0	75.0	100.0

9-5 ①리우더화 ②류더화

[그림 4-71] ①리우더화 ②류더화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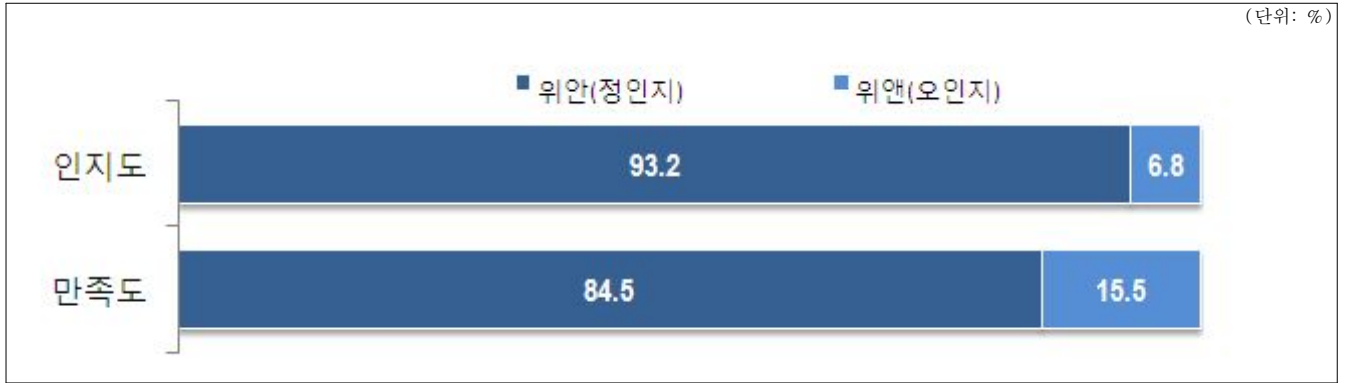
□ 류더화 표기의 인지도에서는 전체 평균 비율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30대가 85.3%로 유의미하게 높았음.

[표 4-71] ①리우더화 ②류더화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리우더화	류더화	리우더화	류더화	
■ 전 체 ■	(103)	43.7	56.3	30.1	69.9	100.0
■ 성 별 ■	남성 (55)	43.6	56.4	27.3	72.7	100.0
	여성 (48)	43.8	56.3	33.3	66.7	100.0
■ 연 령 ■	20대 (36)	52.8	47.2	44.4	55.6	100.0
	30대 (34)	41.2	58.8	14.7	85.3	100.0
	40대 이상 (31)	35.5	64.5	29.0	71.0	100.0
	무응답 (2)	50.0	50.0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45.8	54.2	33.3	66.7	100.0
	신문기자 (29)	31.0	69.0	13.8	86.2	100.0
	출판사종사자 (25)	64.0	36.0	44.0	56.0	100.0
	국어교사 (25)	36.0	64.0	32.0	6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7.7	62.3	22.6	77.4	100.0
	비언론인 (50)	50.0	50.0	38.0	6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42.4	57.6	28.8	71.2	100.0
	사회과학계열 (26)	38.5	61.5	23.1	76.9	100.0
	기타 (8)	75.0	25.0	50.0	50.0	100.0

9-6 ①위안 ②위안

[그림 4-72] ①위안 ②위안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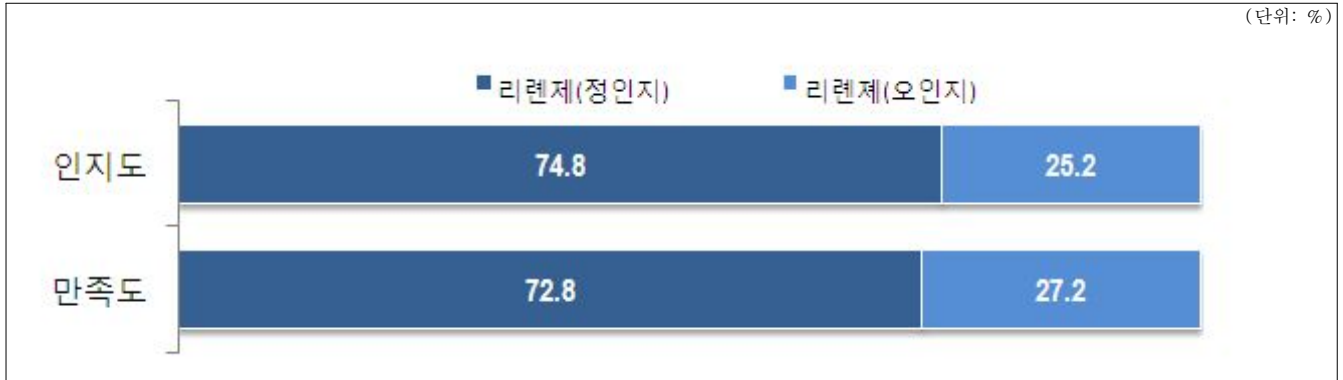
□ 위안 표기 인지도에서는 전체 평균 비율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인문계열 전공자가 78.8%로 유의미하게 낮았음.

[표 4-72] ①위안 ②위안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위안	위안	위안	위안	
■ 전 체 ■	(103)	6.8	93.2	15.5	84.5	100.0
■ 성 별 ■	남성 (55)	5.5	94.5	10.9	89.1	100.0
	여성 (48)	8.3	91.7	20.8	79.2	100.0
■ 연 령 ■	20대 (36)	11.1	88.9	16.7	83.3	100.0
	30대 (34)	8.8	91.2	17.6	82.4	100.0
	40대 이상 (31)	0.0	100.0	12.9	87.1	100.0
	무응답 (2)	0.0	100.0	0.0	10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	91.7	12.5	87.5	100.0
	신문기자 (29)	0.0	100.0	10.3	89.7	100.0
	출판사종사자 (25)	12.0	88.0	20.0	80.0	100.0
	국어교사 (25)	8.0	92.0	20.0	8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8	96.2	11.3	88.7	100.0
	비언론인 (50)	10.0	90.0	20.0	8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1	90.9	21.2	78.8	100.0
	사회과학계열 (26)	0.0	100.0	3.8	96.2	100.0
	기타 (8)	12.5	87.5	12.5	87.5	100.0

9-7 ①리렌제 ②리렌제

[그림 4-73] ①리렌제 ②리렌제



[집단별 특성]

□ 리렌제 표기 인지도 및 만족도에서 전체 평균 비율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4-73] ①리렌제 ②리렌제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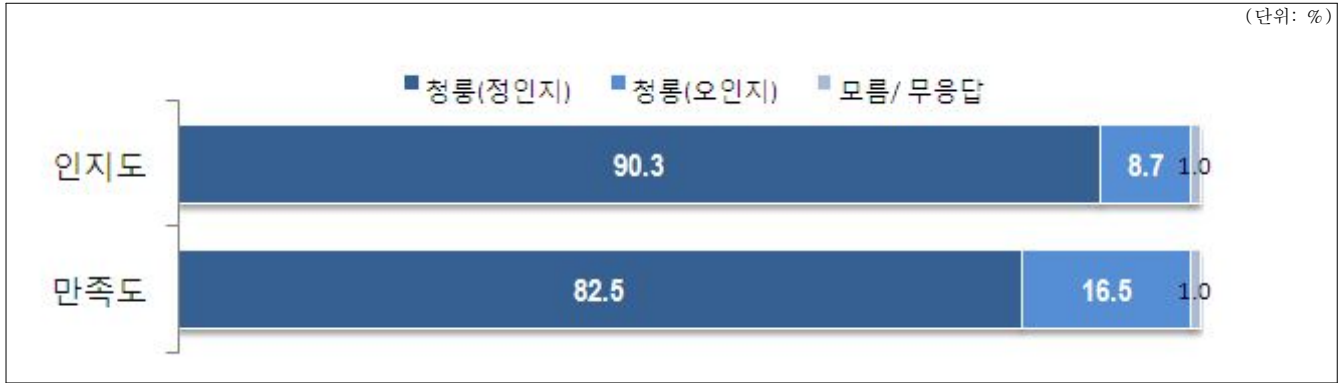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리렌제	리렌제	리렌제	리렌제	
■ 전 체 ■	(103)	25.2	74.8	27.2	72.8	100.0
■ 성 별 ■						
남성	(55)	20.0	80.0	27.3	72.7	100.0
여성	(48)	31.3	68.8	27.1	72.9	100.0
■ 연 령 ■						
20대	(36)	33.3	66.7	25.0	75.0	100.0
30대	(34)	26.5	73.5	20.6	79.4	100.0
40대 이상	(31)	12.9	87.1	38.7	61.3	100.0
무응답	(2)	50.0	50.0	0.0	10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29.2	70.8	29.2	70.8	100.0
신문기자	(29)	24.1	75.9	27.6	72.4	100.0
출판사종사자	(25)	28.0	72.0	28.0	72.0	100.0
국어교사	(25)	20.0	80.0	24.0	76.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26.4	73.6	28.3	71.7	100.0
비언론인	(50)	24.0	76.0	26.0	7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25.8	74.2	28.8	71.2	100.0
사회과학계열	(26)	19.2	80.8	15.4	84.6	100.0
기타	(8)	37.5	62.5	50.0	50.0	100.0

9-8

① 청룡

② 청룡

[그림 4-74] ① 청룡 ② 청룡



[집단별 특성]

□ 청룡 표기의 정인지에서는 전체 평균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언론이 90.6%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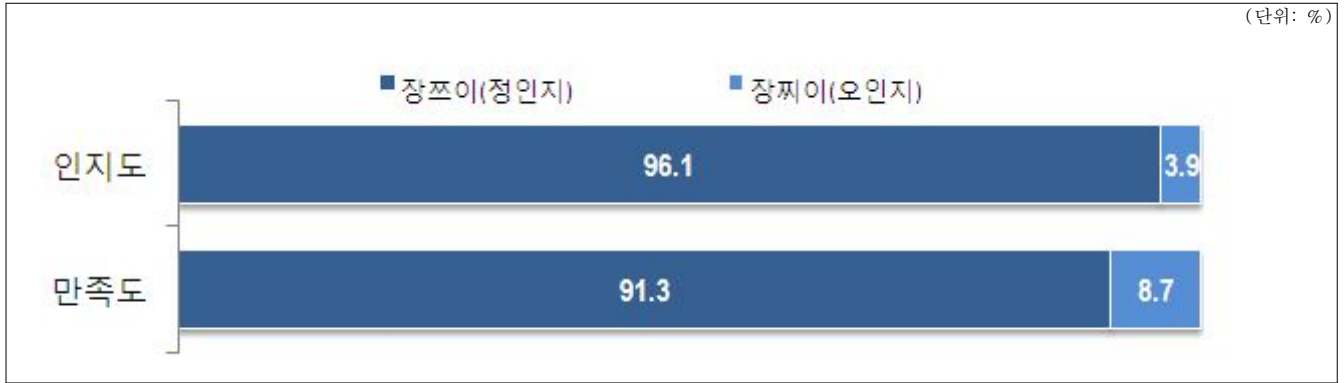
[표 4-74] ① 청룡 ② 청룡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청룡	청룡	모름/무응답	청룡	청룡	모름/무응답		
■ 전 체 ■	(103)	90.3	8.7	1.0	82.5	16.5	1.0	100.0	
■ 성 별 ■	남성	(55)	94.5	5.5	0.0	89.1	9.1	1.8	100.0
	여성	(48)	85.4	12.5	2.1	75.0	25.0	0.0	100.0
■ 연 령 ■	20대	(36)	86.1	11.1	2.8	63.9	33.3	2.8	100.0
	30대	(34)	94.1	5.9	0.0	85.3	14.7	0.0	100.0
	40대 이상	(31)	90.3	9.7	0.0	100.0	0.0	0.0	100.0
	무응답	(2)	100.0	0.0	0.0	10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91.7	8.3	0.0	91.7	8.3	0.0	100.0
	신문기자	(29)	93.1	6.9	0.0	89.7	6.9	3.4	100.0
	출판사종사자	(25)	96.0	4.0	0.0	88.0	12.0	0.0	100.0
	국어교사	(25)	80.0	16.0	4.0	60.0	40.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2.5	7.5	0.0	90.6	7.5	1.9	100.0
	비언론인	(50)	88.0	10.0	2.0	74.0	26.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0.9	7.6	1.5	80.3	18.2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96.2	3.8	0.0	88.5	11.5	0.0	100.0
	기타	(8)	75.0	25.0	0.0	75.0	25.0	0.0	100.0

9-9

①장쯔이 ②장찌이

[그림 4-75] ①장쯔이 ②장찌이



[집단별 특성]

□ 장쯔이 표기의 인지도에서는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만족도의 경우 남성이 96.4%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75] ①장쯔이 ②장찌이 집단별 특성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장쯔이	장찌이	장쯔이	장찌이		
■ 전 체 ■	(103)	96.1	3.9	91.3	8.7	100.0	
■ 성 별 ■	남성	(55)	98.2	1.8	96.4	3.6	100.0
	여성	(48)	93.8	6.3	85.4	14.6	100.0
■ 연 령 ■	20대	(36)	97.2	2.8	88.9	11.1	100.0
	30대	(34)	91.2	8.8	91.2	8.8	100.0
	40대 이상	(31)	100.0	0.0	93.5	6.5	100.0
	무응답	(2)	100.0	0.0	10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91.7	8.3	87.5	12.5	100.0
	신문기자	(29)	100.0	0.0	96.6	3.4	100.0
	출판사종사자	(25)	96.0	4.0	88.0	12.0	100.0
	국어교사	(25)	96.0	4.0	92.0	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6.2	3.8	92.5	7.5	100.0
	비언론인	(50)	96.0	4.0	90.0	1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5.5	4.5	90.9	9.1	100.0
	사회과학계열	(26)	100.0	0.0	92.3	7.7	100.0
	기타	(8)	87.5	12.5	87.5	12.5	100.0

9-10

①당샤오팡

②당샤오팡

[그림 4-76] ①당샤오팡 ②당샤오팡



[집단별 특성]

□ 당샤오팡 표기의 인지도에서는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만족도의 경우 30대가 94.1%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76] ①당샤오팡 ②당샤오팡 집단별 특성

구분	사례수	인지도	만족도		계
		당샤오팡	당샤오팡	당샤오팡	
■ 전 체 ■	(103)	100.0	98.1	1.9	100.0
□ 성 별 □	남성 (55)	100.0	98.2	1.8	100.0
	여성 (48)	100.0	97.9	2.1	100.0
□ 연 령 □	20대 (36)	100.0	100.0	0.0	100.0
	30대 (34)	100.0	94.1	5.9	100.0
	40대 이상 (31)	100.0	100.0	0.0	100.0
	무응답 (2)	100.0	10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00.0	95.8	4.2	100.0
	신문기자 (29)	100.0	100.0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100.0	96.0	4.0	100.0
	국어교사 (25)	100.0	100.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100.0	98.1	1.9	100.0
	비언론인 (50)	100.0	98.0	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100.0	98.5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100.0	100.0	0.0	100.0
	기타 (8)	100.0	87.5	12.5	100.0

v. 조사 결과
- 전문 인 규정 편 -

1-1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외래어(외국어 낱말)는 한글 맞춤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본 자모 24개와 이를 바탕으로 한 16개 자모 등 총 40개 자모로 적는다]

[그림 5-1] 일반규정 1



[집단별 특성]

□ 인지여부는 비언론인이 언론인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각각 94.0%, 79.2%), 이 규정에 대한 만족정도는 인문계열 전공자가 다른 전공계열에 전공자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5-1] 일반규정1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86.4	13.6	100.0
■ 성 별 ■	남성	(55)	81.8	18.2	100.0
	여성	(48)	91.7	8.3	100.0
■ 연 령 ■	20대	(36)	88.9	11.1	100.0
	30대	(34)	91.2	8.8	100.0
	40대 이상	(31)	77.4	22.6	100.0
	무응답	(2)	10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91.7	8.3	100.0
	신문기자	(29)	69.0	31.0	100.0
	출판사종사자	(25)	92.0	8.0	100.0
	국어교사	(25)	96.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9.2	20.8	100.0
	비언론인	(50)	94.0	6.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89.4	10.6	100.0
	사회과학계열	(26)	84.6	15.4	100.0
	기타	(8)	87.5	12.5	100.0

[표 5-2] 일반규정1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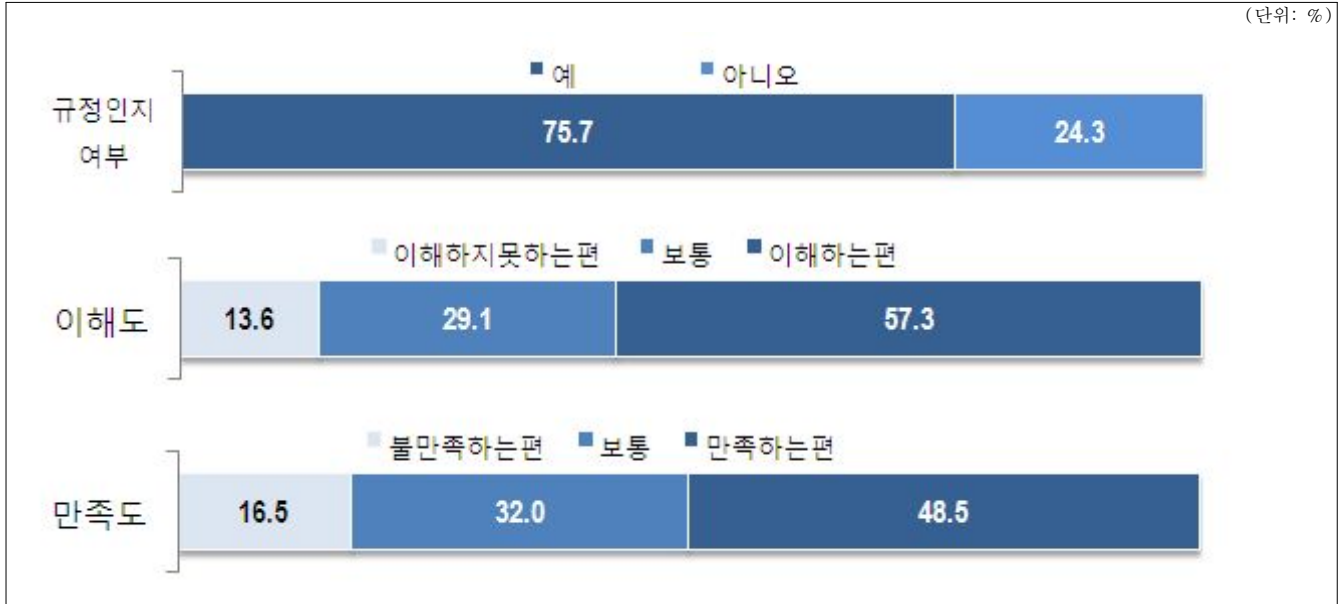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1.0	4.9	23.3	29.1	40.8	1.0	100.0
■ 성 별 ■	남성	(55)	1.8	5.5	23.6	27.3	40.0	1.8	100.0
	여성	(48)	0.0	4.2	22.9	31.3	41.7	0.0	100.0
■ 연 령 ■	20대	(36)	0.0	5.6	22.2	22.2	50.0	0.0	100.0
	30대	(34)	2.9	2.9	17.6	35.3	38.2	2.9	100.0
	40대 이상	(31)	0.0	6.5	29.0	29.0	35.5	0.0	100.0
	무응답	(2)	0.0	0.0	5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4.2	8.3	20.8	33.3	29.2	4.2	100.0
	신문기자	(29)	0.0	6.9	24.1	31.0	37.9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0.0	4.0	32.0	36.0	28.0	0.0	100.0
	국어교사	(25)	0.0	0.0	16.0	16.0	68.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1.9	7.5	22.6	32.1	34.0	1.9	100.0
	비언론인	(50)	0.0	2.0	24.0	26.0	48.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0.0	4.5	21.2	25.8	48.5	0.0	100.0
	사회과학계열	(26)	3.8	7.7	15.4	42.3	30.8	0.0	100.0
	기타	(8)	0.0	0.0	50.0	25.0	12.5	12.5	100.0

[표 5-3] 일반규정1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1.9	7.8	34.0	29.1	26.2	1.0	100.0
■ 성 별 ■	남성	(55)	3.6	7.3	40.0	25.5	23.6	0.0	100.0
	여성	(48)	0.0	8.3	27.1	33.3	29.2	2.1	100.0
■ 연 령 ■	20대	(36)	0.0	8.3	30.6	22.2	38.9	0.0	100.0
	30대	(34)	2.9	8.8	32.4	32.4	23.5	0.0	100.0
	40대 이상	(31)	3.2	6.5	35.5	35.5	16.1	3.2	100.0
	무응답	(2)	0.0	0.0	100.0	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	8.3	41.7	29.2	12.5	0.0	100.0
	신문기자	(29)	0.0	10.3	37.9	27.6	24.1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0.0	0.0	44.0	36.0	20.0	0.0	100.0
	국어교사	(25)	0.0	12.0	12.0	24.0	48.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8	9.4	39.6	28.3	18.9	0.0	100.0
	비언론인	(50)	0.0	6.0	28.0	30.0	34.0	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0.0	10.6	22.7	30.3	34.8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3.8	3.8	50.0	34.6	7.7	0.0	100.0
	기타	(8)	12.5	0.0	62.5	12.5	12.5	0.0	100.0

1-2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외래어는 변이음이 아닌 음소 단위를 한글로 적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림 5-2] 일반규정 2



[집단별 특성]

□ 인지 여부는 비언론인이 전체 평균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에 있어서 국어교사가 68.0% 다른 직업군보다 만족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5-4] 일반규정 2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75.7	24.3	100.0
■ 성 별 ■	남성	(55)	72.7	27.3	100.0
	여성	(48)	79.2	20.8	100.0
■ 연 령 ■	20대	(36)	83.3	16.7	100.0
	30대	(34)	73.5	26.5	100.0
	40대 이상	(31)	67.7	32.3	100.0
	무응답	(2)	10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79.2	20.8	100.0
	신문기자	(29)	58.6	41.4	100.0
	출판사종사자	(25)	72.0	28.0	100.0
	국어교사	(25)	96.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67.9	32.1	100.0
	비언론인	(50)	84.0	16.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78.8	21.2	100.0
	사회과학계열	(26)	76.9	23.1	100.0
	기타	(8)	62.5	37.5	100.0

[표 5-5] 일반규정 2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2.9	10.7	29.1	29.1	28.2	100.0
■ 성 별 ■	남성	(55)	3.6	7.3	34.5	23.6	30.9	100.0
	여성	(48)	2.1	14.6	22.9	35.4	25.0	100.0
■ 연 령 ■	20대	(36)	0.0	11.1	22.2	25.0	41.7	100.0
	30대	(34)	5.9	14.7	26.5	35.3	17.6	100.0
	40대 이상	(31)	3.2	6.5	35.5	29.0	25.8	100.0
	무응답	(2)	0.0	0.0	10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4.2	8.3	29.2	33.3	25.0	100.0
	신문기자	(29)	6.9	10.3	24.1	37.9	20.7	100.0
	출판사종사자	(25)	0.0	16.0	52.0	24.0	8.0	100.0
	국어교사	(25)	0.0	8.0	12.0	20.0	6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5.7	9.4	26.4	35.8	22.6	100.0
	비언론인	(50)	0.0	12.0	32.0	22.0	3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1.5	10.6	27.3	25.8	34.8	100.0
	사회과학계열	(26)	7.7	7.7	26.9	42.3	15.4	100.0
	기타	(8)	0.0	12.5	50.0	25.0	12.5	100.0

[표 5-6] 일반규정 2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3.9	12.6	32.0	27.2	21.4	2.9	100.0
■ 성 별 ■	남성	(55)	5.5	9.1	34.5	21.8	25.5	3.6	100.0
	여성	(48)	2.1	16.7	29.2	33.3	16.7	2.1	100.0
■ 연 령 ■	20대	(36)	0.0	19.4	22.2	25.0	33.3	0.0	100.0
	30대	(34)	2.9	11.8	38.2	32.4	11.8	2.9	100.0
	40대 이상	(31)	9.7	3.2	35.5	25.8	19.4	6.5	100.0
	무응답	(2)	0.0	50.0	50.0	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4.2	12.5	29.2	33.3	16.7	4.2	100.0
	신문기자	(29)	10.3	10.3	34.5	24.1	17.2	3.4	100.0
	출판사종사자	(25)	0.0	12.0	52.0	24.0	12.0	0.0	100.0
	국어교사	(25)	0.0	16.0	12.0	28.0	40.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5	11.3	32.1	28.3	17.0	3.8	100.0
	비언론인	(50)	0.0	14.0	32.0	26.0	26.0	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4.5	13.6	24.2	28.8	24.2	4.5	100.0
	사회과학계열	(26)	3.8	3.8	46.2	30.8	15.4	0.0	100.0
	기타	(8)	0.0	25.0	50.0	12.5	12.5	0.0	100.0

1-3 받침에는 ‘ㄱ, ㄴ, ㄷ,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그림 5-3] 일반규정 3



[집단별 특성]

□ 인문계열 전공자가 인지와 이해정도 및 만족도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됨.(각각89.4%, 80.3%, 62.1%)

[표 5-7] 일반규정 3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79.6	20.4	100.0
■ 성 별 ■	남성	(55)	78.2	21.8	100.0
	여성	(48)	81.3	18.8	100.0
■ 연 령 ■	20대	(36)	83.3	16.7	100.0
	30대	(34)	73.5	26.5	100.0
	40대 이상	(31)	83.9	16.1	100.0
	무응답	(2)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3	16.7	100.0
	신문기자	(29)	75.9	24.1	100.0
	출판사종사자	(25)	68.0	32.0	100.0
	국어교사	(25)	92.0	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9.2	20.8	100.0
	비언론인	(50)	80.0	2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89.4	10.6	100.0
	사회과학계열	(26)	69.2	30.8	100.0
	기타	(8)	50.0	50.0	100.0

[표 5-8] 일반규정 3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3.9	4.9	21.4	25.2	42.7	1.9	100.0
■ 성 별 ■	남성	(55)	7.3	5.5	18.2	23.6	41.8	3.6	100.0
	여성	(48)	0.0	4.2	25.0	27.1	43.8	0.0	100.0
■ 연 령 ■	20대	(36)	0.0	2.8	22.2	25.0	50.0	0.0	100.0
	30대	(34)	5.9	5.9	26.5	23.5	38.2	0.0	100.0
	40대 이상	(31)	6.5	6.5	12.9	25.8	41.9	6.5	100.0
	무응답	(2)	0.0	0.0	5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6.7	0.0	25.0	25.0	33.3	0.0	100.0
	신문기자	(29)	0.0	10.3	17.2	27.6	37.9	6.9	100.0
	출판사종사자	(25)	0.0	8.0	32.0	28.0	32.0	0.0	100.0
	국어교사	(25)	0.0	0.0	12.0	20.0	68.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5	5.7	20.8	26.4	35.8	3.8	100.0
	비언론인	(50)	0.0	4.0	22.0	24.0	50.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1.5	3.0	12.1	27.3	53.0	3.0	100.0
	사회과학계열	(26)	7.7	7.7	26.9	23.1	34.6	0.0	100.0
	기타	(8)	12.5	12.5	50.0	25.0	0.0	0.0	100.0

[표 5-9] 일반규정 3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3.9	7.8	35.0	26.2	26.2	1.0	100.0
■ 성 별 ■	남성	(55)	7.3	7.3	34.5	25.5	25.5	0.0	100.0
	여성	(48)	0.0	8.3	35.4	27.1	27.1	2.1	100.0
■ 연 령 ■	20대	(36)	0.0	11.1	44.4	11.1	33.3	0.0	100.0
	30대	(34)	5.9	5.9	41.2	29.4	17.6	0.0	100.0
	40대 이상	(31)	6.5	6.5	16.1	38.7	29.0	3.2	100.0
	무응답	(2)	0.0	0.0	5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	4.2	37.5	37.5	12.5	0.0	100.0
	신문기자	(29)	3.4	10.3	31.0	31.0	24.1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12.0	44.0	16.0	24.0	0.0	100.0
	국어교사	(25)	0.0	4.0	28.0	20.0	44.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5.7	7.5	34.0	34.0	18.9	0.0	100.0
	비언론인	(50)	2.0	8.0	36.0	18.0	34.0	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0	7.6	25.8	24.2	37.9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3.8	3.8	50.0	34.6	7.7	0.0	100.0
	기타	(8)	12.5	12.5	62.5	12.5	0.0	0.0	100.0

1-4 과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ㄱ/ㅋ/ㄲ, ㄷ/ㅌ/ㄸ, ㅂ/ㅃ/ㅍ과 같은 것을 과열음이라고 하며, 외래어 원음이 된소리처럼 들려도 된소리 글자로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림 5-4] 일반규정 4



[집단별 특성]

□ 인문계열 전공자가 인지와 이해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각각 90.9%, 75.8%), 이 규정의 만족도의 경우 20대가 22.2%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5-10] 일반규정 4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83.5	16.5	100.0
■ 성 별 ■	남성	(55)	81.8	18.2	100.0
	여성	(48)	85.4	14.6	100.0
■ 연 령 ■	20대	(36)	86.1	13.9	100.0
	30대	(34)	82.4	17.6	100.0
	40대 이상	(31)	80.6	19.4	100.0
	무응답	(2)	10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79.2	20.8	100.0
	신문기자	(29)	82.8	17.2	100.0
	출판사종사자	(25)	80.0	20.0	100.0
	국어교사	(25)	92.0	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81.1	18.9	100.0
	비언론인	(50)	86.0	1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0.9	9.1	100.0
	사회과학계열	(26)	76.9	23.1	100.0
	기타	(8)	50.0	50.0	100.0

[표 5-11] 일반규정 4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1.0	5.8	25.2	27.2	39.8	1.0	100.0
■ 성 별 ■	남성	(55)	1.8	3.6	29.1	29.1	34.5	1.8	100.0
	여성	(48)	0.0	8.3	20.8	25.0	45.8	0.0	100.0
■ 연 령 ■	20대	(36)	0.0	5.6	25.0	22.2	47.2	0.0	100.0
	30대	(34)	2.9	2.9	26.5	38.2	29.4	0.0	100.0
	40대 이상	(31)	0.0	9.7	22.6	22.6	41.9	3.2	100.0
	무응답	(2)	0.0	0.0	50.0	0.0	5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4.2	4.2	41.7	16.7	33.3	0.0	100.0
	신문기자	(29)	0.0	3.4	20.7	41.4	31.0	3.4	100.0
	출판사종사자	(25)	0.0	4.0	32.0	32.0	32.0	0.0	100.0
	국어교사	(25)	0.0	12.0	8.0	16.0	64.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1.9	3.8	30.2	30.2	32.1	1.9	100.0
	비언론인	(50)	0.0	8.0	20.0	24.0	48.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0.0	7.6	15.2	25.8	50.0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3.8	3.8	30.8	30.8	30.8	0.0	100.0
	기타	(8)	0.0	0.0	75.0	25.0	0.0	0.0	100.0

[표 5-12] 일반규정 4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9.7	15.5	35.0	25.2	13.6	1.0	100.0
■ 성 별 ■	남성	(55)	10.9	12.7	36.4	23.6	16.4	0.0	100.0
	여성	(48)	8.3	18.8	33.3	27.1	10.4	2.1	100.0
■ 연 령 ■	20대	(36)	19.4	16.7	41.7	13.9	8.3	0.0	100.0
	30대	(34)	2.9	14.7	38.2	35.3	8.8	0.0	100.0
	40대 이상	(31)	6.5	16.1	25.8	25.8	22.6	3.2	100.0
	무응답	(2)	0.0	0.0	0.0	50.0	5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4.2	12.5	41.7	25.0	16.7	0.0	100.0
	신문기자	(29)	6.9	20.7	31.0	31.0	10.3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8.0	12.0	48.0	24.0	8.0	0.0	100.0
	국어교사	(25)	20.0	16.0	20.0	20.0	20.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5.7	17.0	35.8	28.3	13.2	0.0	100.0
	비언론인	(50)	14.0	14.0	34.0	22.0	14.0	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13.6	12.1	33.3	22.7	16.7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3.8	26.9	26.9	30.8	11.5	0.0	100.0
	기타	(8)	0.0	0.0	75.0	25.0	0.0	0.0	100.0

1-5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그림 5-5] 일반규정 5



[집단별 특성]

□ 인지도 및 이해도는 전체 평균 비율과 비교해 뚜렷한 차이는 보이는 집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의 경우 남성이 58.2%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13] 일반규정 5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88.3	11.7	100.0
■ 성 별 ■	남성	(55)	89.1	10.9	100.0
	여성	(48)	87.5	12.5	100.0
■ 연 령 ■	20대	(36)	91.7	8.3	100.0
	30대	(34)	82.4	17.6	100.0
	40대 이상	(31)	90.3	9.7	100.0
	무응답	(2)	10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91.7	8.3	100.0
	신문기자	(29)	82.8	17.2	100.0
	출판사종사자	(25)	84.0	16.0	100.0
	국어교사	(25)	96.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86.8	13.2	100.0
	비언론인	(50)	90.0	1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0.9	9.1	100.0
	사회과학계열	(26)	88.5	11.5	100.0
	기타	(8)	75.0	25.0	100.0

[표 5-14] 일반규정 5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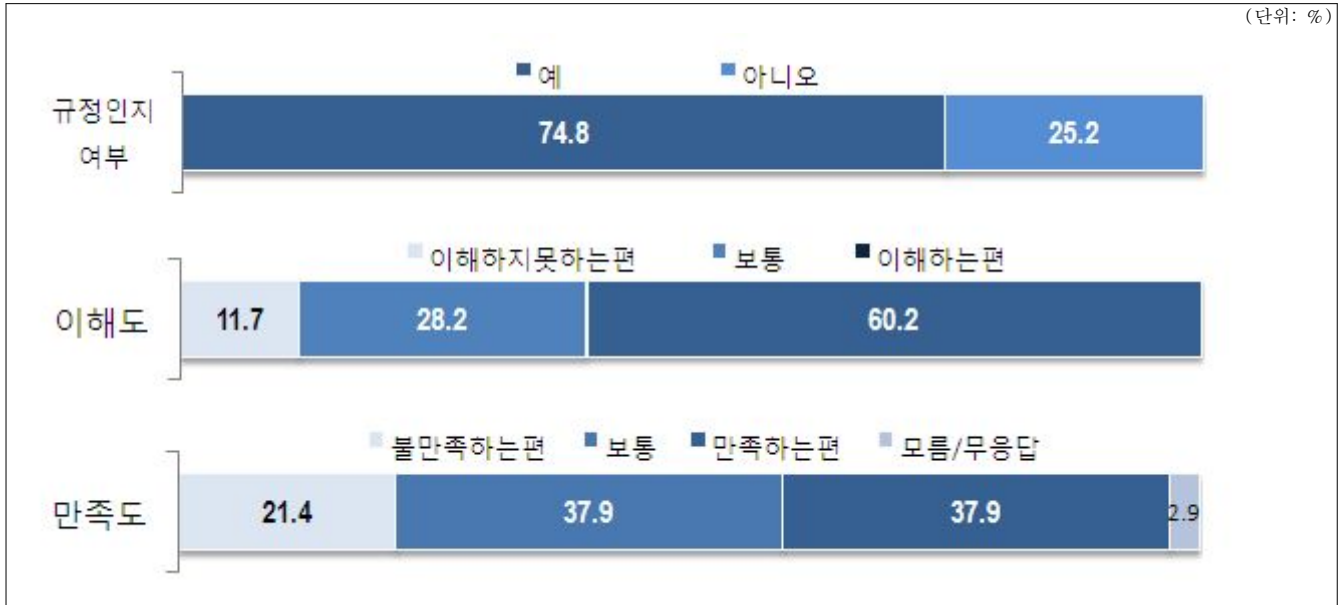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1.9	3.9	24.3	26.2	42.7	1.0	100.0
■ 성 별 ■	남성	(55)	3.6	3.6	21.8	29.1	41.8	0.0	100.0
	여성	(48)	0.0	4.2	27.1	22.9	43.8	2.1	100.0
■ 연 령 ■	20대	(36)	0.0	2.8	25.0	16.7	52.8	2.8	100.0
	30대	(34)	0.0	5.9	29.4	29.4	35.3	0.0	100.0
	40대 이상	(31)	6.5	3.2	16.1	35.5	38.7	0.0	100.0
	무응답	(2)	0.0	0.0	50.0	0.0	5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4.2	0.0	37.5	25.0	33.3	0.0	100.0
	신문기자	(29)	3.4	10.3	10.3	34.5	41.4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0.0	4.0	28.0	36.0	32.0	0.0	100.0
	국어교사	(25)	0.0	0.0	24.0	8.0	64.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8	5.7	22.6	30.2	37.7	0.0	100.0
	비언론인	(50)	0.0	2.0	26.0	22.0	48.0	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1.5	4.5	18.2	21.2	53.0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3.8	3.8	26.9	34.6	30.8	0.0	100.0
	기타	(8)	0.0	0.0	62.5	37.5	0.0	0.0	100.0

[표 5-15] 일반규정 5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3.9	11.7	32.0	28.2	22.3	1.9	100.0
■ 성 별 ■	남성	(55)	3.6	9.1	29.1	25.5	32.7	0.0	100.0
	여성	(48)	4.2	14.6	35.4	31.3	10.4	4.2	100.0
■ 연 령 ■	20대	(36)	2.8	16.7	38.9	25.0	13.9	2.8	100.0
	30대	(34)	2.9	8.8	38.2	29.4	20.6	0.0	100.0
	40대 이상	(31)	6.5	9.7	19.4	29.0	32.3	3.2	100.0
	무응답	(2)	0.0	0.0	0.0	50.0	5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4.2	8.3	37.5	25.0	25.0	0.0	100.0
	신문기자	(29)	3.4	17.2	20.7	27.6	31.0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8.0	40.0	28.0	20.0	0.0	100.0
	국어교사	(25)	4.0	12.0	32.0	32.0	12.0	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8	13.2	28.3	26.4	28.3	0.0	100.0
	비언론인	(50)	4.0	10.0	36.0	30.0	16.0	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4.5	15.2	25.8	24.2	27.3	3.0	100.0
	사회과학계열	(26)	3.8	7.7	34.6	38.5	15.4	0.0	100.0
	기타	(8)	0.0	0.0	62.5	37.5	0.0	0.0	100.0

2-1 어말의 [ʃ]는 '시'로 적는다.

[그림 5-6] 영어 규정 1



[집단별 특성]

□ 이 규정에 대한 인지율은 집단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문계열 전공자의 만족도 비율이 69.7%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16] 영어규정 1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74.8	25.2	100.0
■ 성 별 ■	남성	(55)	70.9	29.1	100.0
	여성	(48)	79.2	20.8	100.0
■ 연 령 ■	20대	(36)	72.2	27.8	100.0
	30대	(34)	73.5	26.5	100.0
	40대 이상	(31)	80.6	19.4	100.0
	무응답	(2)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62.5	37.5	100.0
	신문기자	(29)	86.2	13.8	100.0
	출판사종사자	(25)	68.0	32.0	100.0
	국어교사	(25)	80.0	2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5.5	24.5	100.0
	비언론인	(50)	74.0	26.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77.3	22.7	100.0
	사회과학계열	(26)	80.8	19.2	100.0
	기타	(8)	50.0	50.0	100.0

[표 5-17] 영어규정 1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2.9	8.7	28.2	26.2	34.0	100.0
■ 성 별 ■	남성	(55)	5.5	7.3	30.9	21.8	34.5	100.0
	여성	(48)	0.0	10.4	25.0	31.3	33.3	100.0
■ 연 령 ■	20대	(36)	0.0	11.1	25.0	19.4	44.4	100.0
	30대	(34)	2.9	2.9	35.3	38.2	20.6	100.0
	40대 이상	(31)	3.2	12.9	22.6	22.6	38.7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2.5	12.5	25.0	20.8	29.2	100.0
	신문기자	(29)	0.0	3.4	24.1	41.4	31.0	100.0
	출판사종사자	(25)	0.0	12.0	44.0	24.0	20.0	100.0
	국어교사	(25)	0.0	8.0	20.0	16.0	56.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5.7	7.5	24.5	32.1	30.2	100.0
	비언론인	(50)	0.0	10.0	32.0	20.0	3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0.0	9.1	21.2	27.3	42.4	100.0
	사회과학계열	(26)	11.5	3.8	38.5	19.2	26.9	100.0
	기타	(8)	0.0	12.5	50.0	37.5	0.0	100.0

[표 5-18] 영어규정 1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6.8	14.6	37.9	28.2	9.7	2.9	100.0
■ 성 별 ■	남성	(55)	9.1	14.5	32.7	27.3	14.5	1.8	100.0
	여성	(48)	4.2	14.6	43.8	29.2	4.2	4.2	100.0
■ 연 령 ■	20대	(36)	5.6	22.2	44.4	13.9	11.1	2.8	100.0
	30대	(34)	2.9	5.9	55.9	32.4	2.9	0.0	100.0
	40대 이상	(31)	12.9	12.9	12.9	41.9	16.1	3.2	100.0
	무응답	(2)	0.0	50.0	0.0	0.0	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0.0	16.7	41.7	25.0	12.5	4.2	100.0
	신문기자	(29)	13.8	13.8	27.6	31.0	13.8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12.0	52.0	28.0	4.0	0.0	100.0
	국어교사	(25)	8.0	16.0	32.0	28.0	8.0	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5	15.1	34.0	28.3	13.2	1.9	100.0
	비언론인	(50)	6.0	14.0	42.0	28.0	6.0	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7.6	12.1	33.3	33.3	12.1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3.8	19.2	42.3	19.2	7.7	7.7	100.0
	기타	(8)	0.0	12.5	75.0	12.5	0.0	0.0	100.0

2-2 둘 이상의 낱말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pick 픽 + up 업 → 픽업(0), 피컵(X)).

[그림 5-7] 영어규정 2



[집단별 특성]

□ 이 규정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자들에 있어서 전체 평균 비율과 비교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인문계열 전공자가 이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4.2%로 유의미하게 높았고, 만족도의 경우 20대에서 만족하는 정도가 높았음(41.7%).

[표 5-19] 영어규정 2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82.5	17.5	100.0
■ 성 별 ■	남성	(55)	78.2	21.8	100.0
	여성	(48)	87.5	12.5	100.0
■ 연 령 ■	20대	(36)	77.8	22.2	100.0
	30대	(34)	85.3	14.7	100.0
	40대 이상	(31)	87.1	12.9	100.0
	무응답	(2)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75.0	25.0	100.0
	신문기자	(29)	79.3	20.7	100.0
	출판사종사자	(25)	88.0	12.0	100.0
	국어교사	(25)	88.0	12.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7.4	22.6	100.0
	비언론인	(50)	88.0	1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84.8	15.2	100.0
	사회과학계열	(26)	84.6	15.4	100.0
	기타	(8)	62.5	37.5	100.0

[표 5-20] 영어규정 2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3.9	3.9	28.2	27.2	36.9	100.0
■ 성 별 ■	남성	(55)	5.5	3.6	30.9	23.6	36.4	100.0
	여성	(48)	2.1	4.2	25.0	31.3	37.5	100.0
■ 연 령 ■	20대	(36)	2.8	8.3	30.6	19.4	38.9	100.0
	30대	(34)	5.9	0.0	32.4	35.3	26.5	100.0
	40대 이상	(31)	0.0	3.2	19.4	29.0	48.4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6.7	4.2	33.3	16.7	29.2	100.0
	신문기자	(29)	0.0	3.4	20.7	34.5	41.4	100.0
	출판사종사자	(25)	0.0	4.0	40.0	36.0	20.0	100.0
	국어교사	(25)	0.0	4.0	20.0	20.0	56.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5	3.8	26.4	26.4	35.8	100.0
	비언론인	(50)	0.0	4.0	30.0	28.0	3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1.5	4.5	19.7	28.8	45.5	100.0
	사회과학계열	(26)	7.7	3.8	26.9	30.8	30.8	100.0
	기타	(8)	12.5	0.0	75.0	12.5	0.0	100.0

[표 5-21] 영어규정 2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1.9	5.8	30.1	37.9	22.3	1.9	100.0
■ 성 별 ■	남성	(55)	3.6	9.1	27.3	30.9	29.1	0.0	100.0
	여성	(48)	0.0	2.1	33.3	45.8	14.6	4.2	100.0
■ 연 령 ■	20대	(36)	0.0	5.6	41.7	25.0	25.0	2.8	100.0
	30대	(34)	0.0	2.9	38.2	47.1	11.8	0.0	100.0
	40대 이상	(31)	3.2	9.7	6.5	45.2	32.3	3.2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	8.3	37.5	25.0	20.8	0.0	100.0
	신문기자	(29)	0.0	10.3	10.3	51.7	27.6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0.0	4.0	40.0	40.0	16.0	0.0	100.0
	국어교사	(25)	0.0	0.0	36.0	32.0	24.0	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8	9.4	22.6	39.6	24.5	0.0	100.0
	비언론인	(50)	0.0	2.0	38.0	36.0	20.0	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0.0	6.1	25.8	37.9	28.8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7.7	7.7	23.1	42.3	15.4	3.8	100.0
	기타	(8)	0.0	0.0	75.0	25.0	0.0	0.0	100.0

2-3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그림 5-8] 영어규정 3



[집단별 특성]

□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과 이해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인문계열 전공자가 각각 72.7%, 59.1%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규정에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20대가 22.2%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5-22] 영어규정 3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65.0	35.0	100.0
■ 성 별 ■	남성	(55)	65.5	34.5	100.0
	여성	(48)	64.6	35.4	100.0
■ 연 령 ■	20대	(36)	69.4	30.6	100.0
	30대	(34)	58.8	41.2	100.0
	40대 이상	(31)	67.7	32.3	100.0
	무응답	(2)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62.5	37.5	100.0
	신문기자	(29)	58.6	41.4	100.0
	출판사종사자	(25)	60.0	40.0	100.0
	국어교사	(25)	80.0	2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60.4	39.6	100.0
	비언론인	(50)	70.0	3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72.7	27.3	100.0
	사회과학계열	(26)	53.8	46.2	100.0
	기타	(8)	50.0	50.0	100.0

[표 5-22] 영어규정 3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3.9	13.6	32.0	25.2	25.2	100.0
■ 성 별 ■	남성	(55)	7.3	12.7	29.1	29.1	21.8	100.0
	여성	(48)	0.0	14.6	35.4	20.8	29.2	100.0
■ 연 령 ■	20대	(36)	2.8	11.1	41.7	19.4	25.0	100.0
	30대	(34)	5.9	14.7	32.4	26.5	20.6	100.0
	40대 이상	(31)	3.2	16.1	19.4	29.0	32.3	100.0
	무응답	(2)	0.0	0.0	50.0	5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	20.8	25.0	29.2	16.7	100.0
	신문기자	(29)	0.0	20.7	24.1	27.6	27.6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8.0	48.0	28.0	12.0	100.0
	국어교사	(25)	4.0	4.0	32.0	16.0	4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8	20.8	24.5	28.3	22.6	100.0
	비언론인	(50)	4.0	6.0	40.0	22.0	2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0	7.6	30.3	27.3	31.8	100.0
	사회과학계열	(26)	3.8	30.8	26.9	19.2	19.2	100.0
	기타	(8)	0.0	12.5	62.5	25.0	0.0	100.0

[표 5-22] 영어규정 3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1.0	14.6	42.7	30.1	9.7	1.9	100.0
■ 성 별 ■	남성	(55)	1.8	14.5	38.2	30.9	14.5	0.0	100.0
	여성	(48)	0.0	14.6	47.9	29.2	4.2	4.2	100.0
■ 연 령 ■	20대	(36)	0.0	22.2	52.8	16.7	5.6	2.8	100.0
	30대	(34)	0.0	11.8	47.1	38.2	2.9	0.0	100.0
	40대 이상	(31)	3.2	9.7	25.8	35.5	22.6	3.2	100.0
	무응답	(2)	0.0	0.0	5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4.2	8.3	50.0	29.2	8.3	0.0	100.0
	신문기자	(29)	0.0	24.1	27.6	34.5	13.8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0.0	12.0	52.0	32.0	4.0	0.0	100.0
	국어교사	(25)	0.0	12.0	44.0	24.0	12.0	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1.9	17.0	37.7	32.1	11.3	0.0	100.0
	비언론인	(50)	0.0	12.0	48.0	28.0	8.0	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1.5	15.2	39.4	28.8	13.6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0.0	15.4	42.3	34.6	3.8	3.8	100.0
	기타	(8)	0.0	0.0	75.0	25.0	0.0	0.0	100.0

2-4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는다.

[그림 5-9] 영어규정 4



[집단별 특성]

□ 인지 여부의 경우 전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았으며, 특히, 언론인(67.9%), 사회과학계열 전공자에서 비인지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이해도의 경우 인문계열 전공자가 이해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는데 반해 사회과학 전공자의 경우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더 높았음.

[표 5-23] 영어규정 4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46.6	53.4	100.0
■ 성 별 ■	남성	(55)	40.0	60.0	100.0
	여성	(48)	54.2	45.8	100.0
■ 연 령 ■	20대	(36)	55.6	44.4	100.0
	30대	(34)	35.3	64.7	100.0
	40대 이상	(31)	48.4	51.6	100.0
	무응답	(2)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25.0	75.0	100.0
	신문기자	(29)	37.9	62.1	100.0
	출판사종사자	(25)	48.0	52.0	100.0
	국어교사	(25)	76.0	2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2.1	67.9	100.0
	비언론인	(50)	62.0	3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59.1	40.9	100.0
	사회과학계열	(26)	30.8	69.2	100.0
	기타	(8)	12.5	87.5	100.0

[표 5-24] 영어규정 4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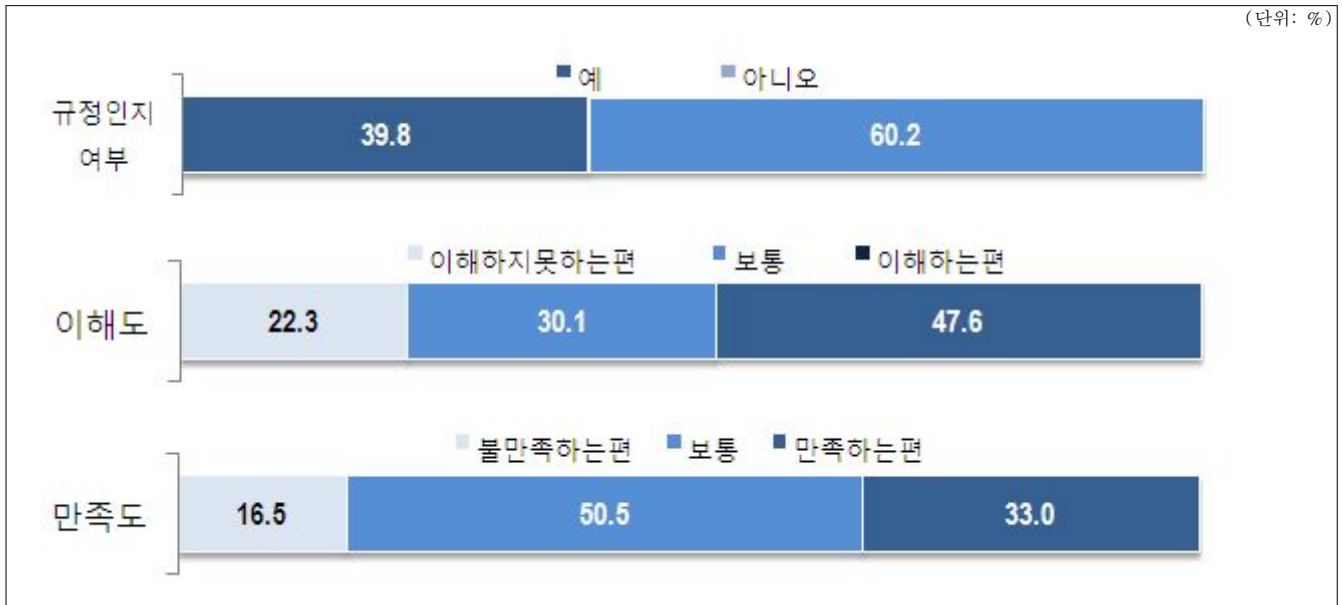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4.9	21.4	34.0	16.5	22.3	1.0	100.0
■ 성 별 ■	남성	(55)	9.1	27.3	27.3	14.5	21.8	0.0	100.0
	여성	(48)	0.0	14.6	41.7	18.8	22.9	2.1	100.0
■ 연 령 ■	20대	(36)	2.8	22.2	36.1	16.7	22.2	0.0	100.0
	30대	(34)	5.9	23.5	38.2	14.7	14.7	2.9	100.0
	40대 이상	(31)	3.2	19.4	29.0	16.1	32.3	0.0	100.0
	무응답	(2)	50.0	0.0	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	29.2	37.5	4.2	20.8	0.0	100.0
	신문기자	(29)	3.4	34.5	17.2	24.1	20.7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16.0	48.0	20.0	8.0	4.0	100.0
	국어교사	(25)	4.0	4.0	36.0	16.0	40.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5.7	32.1	26.4	15.1	20.8	0.0	100.0
	비언론인	(50)	4.0	10.0	42.0	18.0	24.0	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1.5	18.2	31.8	21.2	27.3	0.0	100.0
	사회과학계열	(26)	7.7	34.6	30.8	7.7	19.2	0.0	100.0
	기타	(8)	0.0	12.5	62.5	12.5	0.0	12.5	100.0

[표 5-25] 영어규정 4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6.8	22.3	42.7	18.4	6.8	2.9	100.0
■ 성 별 ■	남성	(55)	9.1	27.3	38.2	14.5	10.9	0.0	100.0
	여성	(48)	4.2	16.7	47.9	22.9	2.1	6.3	100.0
■ 연 령 ■	20대	(36)	8.3	27.8	41.7	19.4	0.0	2.8	100.0
	30대	(34)	0.0	14.7	58.8	17.6	5.9	2.9	100.0
	40대 이상	(31)	6.5	25.8	29.0	19.4	16.1	3.2	100.0
	무응답	(2)	100.0	0.0	0.0	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	16.7	54.2	8.3	12.5	0.0	100.0
	신문기자	(29)	6.9	37.9	31.0	20.7	3.4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20.0	48.0	20.0	4.0	4.0	100.0
	국어교사	(25)	8.0	12.0	40.0	24.0	8.0	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5	28.3	41.5	15.1	7.5	0.0	100.0
	비언론인	(50)	6.0	16.0	44.0	22.0	6.0	6.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7.6	19.7	39.4	24.2	7.6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7.7	26.9	46.2	7.7	7.7	3.8	100.0
	기타	(8)	0.0	12.5	62.5	12.5	0.0	12.5	100.0

3-1 [J]의 경우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는 ‘슈’로 적는다.

[그림 5-10] 독일어 규정 1



[집단별 특성]

□ 이 규정에 대해 모든 응답자군에서 비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인문계열 전공자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6%로 유의미하게 높았음. 또한 만족한다는 응답은 인문계열 전공자가 45.5%로 비교적 다른 전공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5-26] 독일어 규정 1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39.8	60.2	100.0
■ 성 별 ■	남성	(55)	34.5	65.5	100.0
	여성	(48)	45.8	54.2	100.0
■ 연 령 ■	20대	(36)	36.1	63.9	100.0
	30대	(34)	41.2	58.8	100.0
	40대 이상	(31)	41.9	58.1	100.0
	무응답	(2)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41.7	58.3	100.0
	신문기자	(29)	31.0	69.0	100.0
	출판사종사자	(25)	48.0	52.0	100.0
	국어교사	(25)	40.0	6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5.8	64.2	100.0
	비언론인	(50)	44.0	56.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42.4	57.6	100.0
	사회과학계열	(26)	46.2	53.8	100.0
	기타	(8)	12.5	87.5	100.0

[표 5-27] 독일어 규정 1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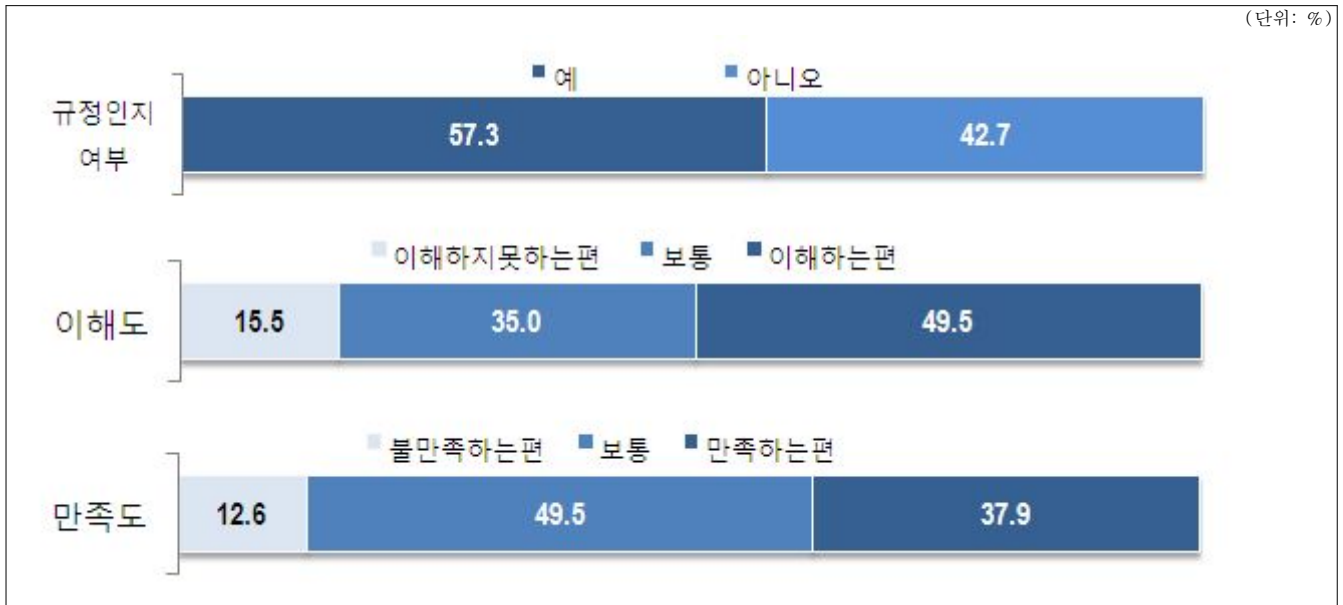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4.9	17.5	30.1	25.2	22.3	100.0
■ 성 별 ■	남성	(55)	7.3	20.0	30.9	23.6	18.2	100.0
	여성	(48)	2.1	14.6	29.2	27.1	27.1	100.0
■ 연 령 ■	20대	(36)	0.0	19.4	33.3	22.2	25.0	100.0
	30대	(34)	11.8	17.6	26.5	29.4	14.7	100.0
	40대 이상	(31)	0.0	16.1	29.0	25.8	29.0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	20.8	37.5	29.2	4.2	100.0
	신문기자	(29)	3.4	20.7	24.1	17.2	34.5	100.0
	출판사종사자	(25)	8.0	12.0	40.0	28.0	12.0	100.0
	국어교사	(25)	0.0	16.0	20.0	28.0	36.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5.7	20.8	30.2	22.6	20.8	100.0
	비언론인	(50)	4.0	14.0	30.0	28.0	2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1.5	18.2	19.7	28.8	31.8	100.0
	사회과학계열	(26)	11.5	15.4	42.3	23.1	7.7	100.0
	기타	(8)	0.0	25.0	62.5	12.5	0.0	100.0

[표 5-28] 독일어 규정 1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5.8	10.7	50.5	25.2	7.8	16.5	100.0
■ 성 별 ■	남성	(55)	7.3	12.7	43.6	25.5	10.9	20.0	100.0
	여성	(48)	4.2	8.3	58.3	25.0	4.2	12.5	100.0
■ 연 령 ■	20대	(36)	5.6	13.9	50.0	25.0	5.6		100.0
	30대	(34)	5.9	11.8	52.9	23.5	5.9		100.0
	40대 이상	(31)	3.2	6.5	48.4	29.0	12.9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4.2	16.7	54.2	20.8	4.2	20.8	100.0
	신문기자	(29)	3.4	13.8	44.8	20.7	17.2	17.2	100.0
	출판사종사자	(25)	8.0	8.0	52.0	28.0	4.0	16.0	100.0
	국어교사	(25)	8.0	4.0	52.0	32.0	4.0	12.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8	15.1	49.1	20.8	11.3	18.9	100.0
	비언론인	(50)	8.0	6.0	52.0	30.0	4.0	1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4.5	9.1	40.9	33.3	12.1	13.6	100.0
	사회과학계열	(26)	7.7	19.2	61.5	11.5	0.0	26.9	100.0
	기타	(8)	0.0	0.0	87.5	12.5	0.0	0.0	100.0

3-2 어말의 [r]와 ‘-er[r]’는 ‘어’로 적는다.

[그림 5-11] 독일어 규정 2



[집단별 특성]

□ 이 규정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서 집단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만족정도의 경우 신문기자가 55.2%로 만족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5-29] 독일어 규정2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57.3	42.7	100.0
■ 성 별 ■	남성	(55)	54.5	45.5	100.0
	여성	(48)	60.4	39.6	100.0
■ 연 령 ■	20대	(36)	50.0	50.0	100.0
	30대	(34)	55.9	44.1	100.0
	40대 이상	(31)	67.7	32.3	100.0
	무응답	(2)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62.5	37.5	100.0
	신문기자	(29)	65.5	34.5	100.0
	출판사종사자	(25)	60.0	40.0	100.0
	국어교사	(25)	40.0	6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64.2	35.8	100.0
	비언론인	(50)	50.0	5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54.5	45.5	100.0
	사회과학계열	(26)	73.1	26.9	100.0
	기타	(8)	37.5	62.5	100.0

[표 5-30] 독일어 규정2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5.8	9.7	35.0	31.1	18.4	100.0
■ 성 별 ■	남성	(55)	10.9	12.7	29.1	29.1	18.2	100.0
	여성	(48)	0.0	6.3	41.7	33.3	18.8	100.0
■ 연 령 ■	20대	(36)	2.8	8.3	38.9	22.2	27.8	100.0
	30대	(34)	11.8	14.7	26.5	44.1	2.9	100.0
	40대 이상	(31)	0.0	6.5	38.7	29.0	25.8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	12.5	41.7	29.2	8.3	100.0
	신문기자	(29)	0.0	13.8	27.6	31.0	27.6	100.0
	출판사종사자	(25)	12.0	8.0	40.0	32.0	8.0	100.0
	국어교사	(25)	4.0	4.0	32.0	32.0	2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8	13.2	34.0	30.2	18.9	100.0
	비언론인	(50)	8.0	6.0	36.0	32.0	1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0	7.6	33.3	30.3	25.8	100.0
	사회과학계열	(26)	11.5	11.5	34.6	34.6	7.7	100.0
	기타	(8)	0.0	25.0	50.0	25.0	0.0	100.0

[표 5-31] 독일어 규정2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4.9	7.8	49.5	31.1	6.8	100.0
■ 성 별 ■	남성	(55)	7.3	9.1	45.5	29.1	9.1	100.0
	여성	(48)	2.1	6.3	54.2	33.3	4.2	100.0
■ 연 령 ■	20대	(36)	2.8	11.1	52.8	27.8	5.6	100.0
	30대	(34)	8.8	8.8	47.1	32.4	2.9	100.0
	40대 이상	(31)	0.0	3.2	48.4	35.5	12.9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4.2	12.5	54.2	25.0	4.2	100.0
	신문기자	(29)	0.0	3.4	41.4	41.4	13.8	100.0
	출판사종사자	(25)	12.0	8.0	52.0	28.0	0.0	100.0
	국어교사	(25)	4.0	8.0	52.0	28.0	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1.9	7.5	47.2	34.0	9.4	100.0
	비언론인	(50)	8.0	8.0	52.0	28.0	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0	7.6	45.5	33.3	10.6	100.0
	사회과학계열	(26)	7.7	7.7	50.0	34.6	0.0	100.0
	기타	(8)	0.0	12.5	75.0	12.5	0.0	100.0

3-3 복합어 및 파생어의 선행 요소가 [r]로 끝나는 경우는 2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림 5-12] 독일어 규정 3



[집단별 특성]

□ 이 규정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에서 전체 평균과 비교해 뚜렷이 차이는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인문계열 전공자가 이해한다는 응답비율이(39.4%)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5-32] 독일어규정3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34.0	66.0	100.0
■ 성 별 ■	남성	(55)	30.9	69.1	100.0
	여성	(48)	37.5	62.5	100.0
■ 연 령 ■	20대	(36)	30.6	69.4	100.0
	30대	(34)	32.4	67.6	100.0
	40대 이상	(31)	41.9	58.1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33.3	66.7	100.0
	신문기자	(29)	41.4	58.6	100.0
	출판사종사자	(25)	32.0	68.0	100.0
	국어교사	(25)	28.0	72.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7.7	62.3	100.0
	비언론인	(50)	30.0	7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3.3	66.7	100.0
	사회과학계열	(26)	38.5	61.5	100.0
	기타	(8)	37.5	62.5	100.0

[표 5-33] 독일어규정3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5.8	19.4	41.7	20.4	10.7	1.9	100.0
■ 성 별 ■	남성	(55)	10.9	21.8	34.5	20.0	10.9	1.8	100.0
	여성	(48)	0.0	16.7	50.0	20.8	10.4	2.1	100.0
■ 연 령 ■	20대	(36)	2.8	13.9	47.2	22.2	13.9	0.0	100.0
	30대	(34)	8.8	29.4	41.2	14.7	2.9	2.9	100.0
	40대 이상	(31)	3.2	16.1	35.5	25.8	16.1	3.2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5.7	26.4	37.7	18.9	9.4	1.9	100.0
	신문기자	(29)	6.0	12.0	46.0	22.0	12.0	2.0	100.0
	출판사종사자	(25)	0.0	0.0	100.0	0.0	0.0	0.0	100.0
	국어교사	(25)	6.2	18.5	42.0	18.5	12.3	2.5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5.6	27.8	33.3	27.8	5.6	0.0	100.0
	비언론인	(50)	4.5	16.7	37.9	24.2	15.2	1.5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4.5	16.7	37.9	24.2	15.2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7.7	23.1	46.2	15.4	3.8	3.8	100.0
	기타	(8)	0.0	37.5	50.0	12.5	0.0	0.0	100.0

[표 5-34] 독일어규정3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5.8	11.7	54.4	22.3	4.9	1.0	100.0
■ 성 별 ■	남성	(55)	9.1	12.7	45.5	25.5	5.5	1.8	100.0
	여성	(48)	2.1	10.4	64.6	18.8	4.2	0.0	100.0
■ 연 령 ■	20대	(36)	2.8	13.9	58.3	22.2	2.8	0.0	100.0
	30대	(34)	5.9	14.7	58.8	14.7	2.9	2.9	100.0
	40대 이상	(31)	6.5	6.5	45.2	32.3	9.7	0.0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	12.5	54.2	16.7	4.2	4.2	100.0
	신문기자	(29)	3.4	13.8	41.4	34.5	6.9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8.0	4.0	68.0	20.0	0.0	0.0	100.0
	국어교사	(25)	4.0	16.0	56.0	16.0	8.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5.7	13.2	47.2	26.4	5.7	1.9	100.0
	비언론인	(50)	6.0	10.0	62.0	18.0	4.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6.1	10.6	50.0	25.8	7.6	0.0	100.0
	사회과학계열	(26)	3.8	11.5	61.5	19.2	0.0	3.8	100.0
	기타	(8)	0.0	25.0	75.0	0.0	0.0	0.0	100.0

3-4 다음 앞의 [r]는 ‘으’를 붙여 적는다.

[그림 5-13] 독일어 규정 4



[집단별 특성]

□ 이 규정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의 경우 전체 평균 비율과 비교해 뚜렷하게 차이나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인문계열 전공자가 이해정도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만족정도는 보통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표 5-35] 독일어 규정4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무응답	계
■ 전 체 ■		(103)	34.0	65.0	1.0	100.0
■ 성 별 ■	남성	(55)	32.7	67.3	0.0	100.0
	여성	(48)	35.4	62.5	2.1	100.0
■ 연 령 ■	20대	(36)	30.6	66.7	2.8	100.0
	30대	(34)	23.5	76.5	0.0	100.0
	40대 이상	(31)	51.6	48.4	0.0	100.0
	무응답	(2)	0.0	10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25.0	75.0	0.0	100.0
	신문기자	(29)	34.5	65.5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36.0	64.0	0.0	100.0
	국어교사	(25)	40.0	56.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0.2	69.8	0.0	100.0
	비언론인	(50)	38.0	60.0	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7.9	60.6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34.6	65.4	0.0	100.0
	기타	(8)	12.5	87.5	0.0	100.0

[표 5-36] 독일어 규정4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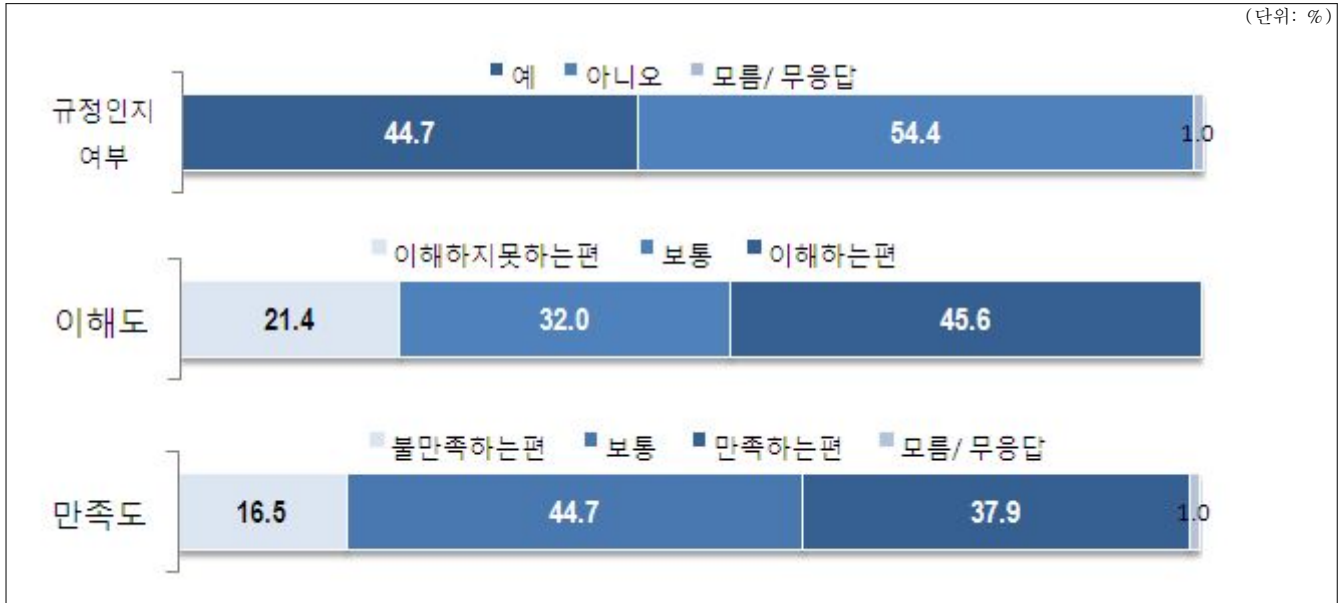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4.9	23.3	38.8	16.5	15.5	1.0	100.0
■ 성 별 ■	남성	(55)	9.1	23.6	40.0	12.7	14.5	0.0	100.0
	여성	(48)	0.0	22.9	37.5	20.8	16.7	2.1	100.0
■ 연 령 ■	20대	(36)	0.0	16.7	50.0	16.7	13.9	2.8	100.0
	30대	(34)	11.8	29.4	32.4	17.6	8.8	0.0	100.0
	40대 이상	(31)	0.0	25.8	32.3	16.1	25.8	0.0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	29.2	45.8	8.3	8.3	0.0	100.0
	신문기자	(29)	0.0	27.6	34.5	13.8	24.1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12.0	24.0	44.0	16.0	4.0	0.0	100.0
	국어교사	(25)	0.0	12.0	32.0	28.0	24.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8	28.3	39.6	11.3	17.0	0.0	100.0
	비언론인	(50)	6.0	18.0	38.0	22.0	14.0	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1.5	25.8	27.3	21.2	22.7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11.5	23.1	50.0	11.5	3.8	0.0	100.0
	기타	(8)	0.0	12.5	87.5	0.0	0.0	0.0	100.0

[표 5-37] 독일어 규정4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5.8	10.7	57.3	15.5	9.7	1.0	100.0
■ 성 별 ■	남성	(55)	7.3	10.9	52.7	16.4	12.7	0.0	100.0
	여성	(48)	4.2	10.4	62.5	14.6	6.3	2.1	100.0
■ 연 령 ■	20대	(36)	0.0	13.9	72.2	8.3	2.8	2.8	100.0
	30대	(34)	11.8	8.8	58.8	17.6	2.9	0.0	100.0
	40대 이상	(31)	3.2	9.7	38.7	22.6	25.8	0.0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2.5	12.5	54.2	12.5	8.3	0.0	100.0
	신문기자	(29)	3.4	6.9	51.7	20.7	17.2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8.0	16.0	68.0	8.0	0.0	0.0	100.0
	국어교사	(25)	0.0	8.0	56.0	20.0	12.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5	9.4	52.8	17.0	13.2	0.0	100.0
	비언론인	(50)	4.0	12.0	62.0	14.0	6.0	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4.5	10.6	50.0	18.2	15.2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7.7	11.5	69.2	11.5	0.0	0.0	100.0
	기타	(8)	0.0	12.5	87.5	0.0	0.0	0.0	100.0

3-5 [ㄹ]의 경우 그 밖의 모음 앞에서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쇼, 슈’ 등으로 적는다.

[그림 5-14] 독일어규정 5



[집단별 특성]

□ 이 규정 인지도의 경우 집단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인문계열 전공자가 이해하는 편이다(60.6%), 사회과학 전공자는 보통이라는 응답비율(50.0%)이 높았음. 만족도에서도 인문계열 전공자는 비교적 만족한다는 응답이(53.0%) 높았고, 사회과학 전공자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69.2%)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5-38] 독일어규정5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무응답	계
■ 전 체 ■		(103)	44.7	54.4	1.0	100.0
■ 성 별 ■	남성	(55)	43.6	56.4	0.0	100.0
	여성	(48)	45.8	52.1	2.1	100.0
■ 연 령 ■	20대	(36)	33.3	63.9	2.8	100.0
	30대	(34)	50.0	50.0	0.0	100.0
	40대 이상	(31)	51.6	48.4	0.0	100.0
	무응답	(2)	50.0	5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50.0	50.0	0.0	100.0
	신문기자	(29)	41.4	58.6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52.0	48.0	0.0	100.0
	국어교사	(25)	36.0	60.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45.3	54.7	0.0	100.0
	비언론인	(50)	44.0	54.0	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47.0	51.5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50.0	50.0	0.0	100.0
	기타	(8)	25.0	75.0	0.0	100.0

[표 5-39] 독일어규정5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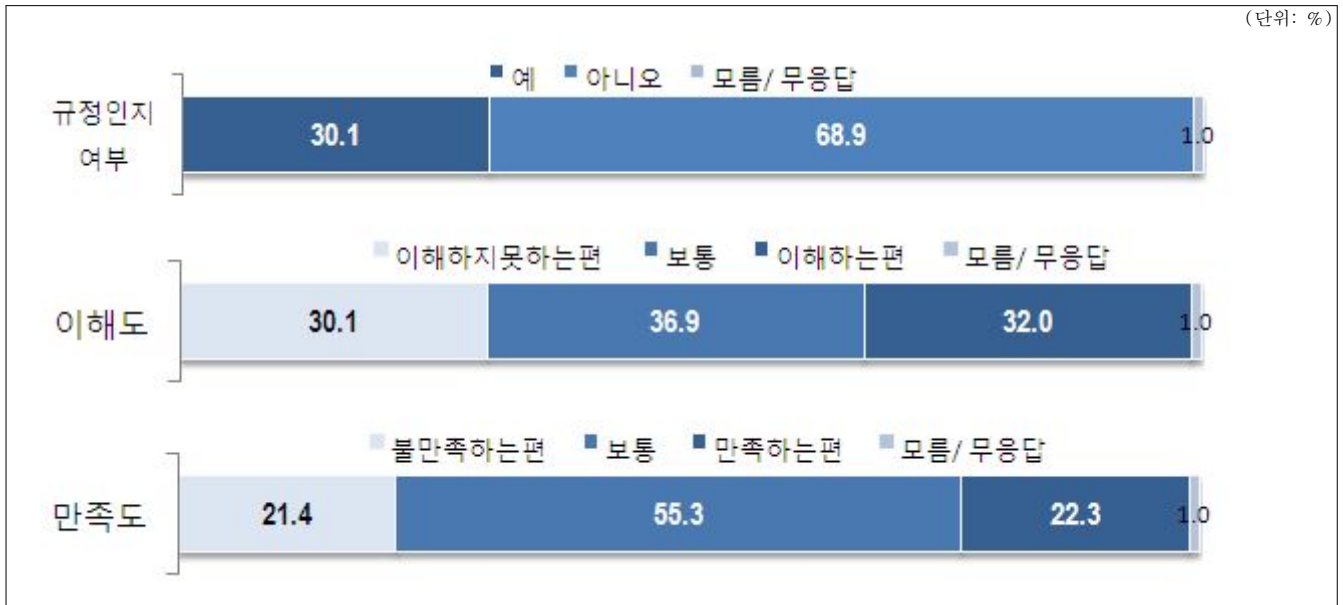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3.9	17.5	32.0	27.2	18.4	1.0	100.0
■ 성 별 ■	남성	(55)	5.5	21.8	29.1	23.6	20.0	0.0	100.0
	여성	(48)	2.1	12.5	35.4	31.3	16.7	2.1	100.0
■ 연 령 ■	20대	(36)	2.8	22.2	30.6	22.2	19.4	2.8	100.0
	30대	(34)	5.9	17.6	32.4	32.4	11.8	0.0	100.0
	40대 이상	(31)	3.2	12.9	29.0	29.0	25.8	0.0	100.0
	무응답	(2)	0.0	0.0	100.0	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	33.3	33.3	20.8	4.2	0.0	100.0
	신문기자	(29)	0.0	20.7	27.6	20.7	31.0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12.0	40.0	32.0	12.0	0.0	100.0
	국어교사	(25)	4.0	4.0	28.0	36.0	24.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8	26.4	30.2	20.8	18.9	0.0	100.0
	비언론인	(50)	4.0	8.0	34.0	34.0	18.0	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1.5	13.6	22.7	33.3	27.3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11.5	19.2	50.0	15.4	3.8	0.0	100.0
	기타	(8)	0.0	50.0	25.0	25.0	0.0	0.0	100.0

[표 5-40] 독일어규정5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4.9	11.7	44.7	27.2	10.7	1.0	100.0
■ 성 별 ■	남성	(55)	7.3	14.5	36.4	25.5	16.4	0.0	100.0
	여성	(48)	2.1	8.3	54.2	29.2	4.2	2.1	100.0
■ 연 령 ■	20대	(36)	5.6	11.1	47.2	25.0	8.3	2.8	100.0
	30대	(34)	5.9	8.8	52.9	26.5	5.9	0.0	100.0
	40대 이상	(31)	3.2	12.9	32.3	32.3	19.4	0.0	100.0
	무응답	(2)	0.0	50.0	50.0	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	20.8	50.0	16.7	4.2	0.0	100.0
	신문기자	(29)	0.0	10.3	48.3	17.2	24.1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8.0	4.0	48.0	32.0	8.0	0.0	100.0
	국어교사	(25)	4.0	12.0	32.0	44.0	4.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8	15.1	49.1	17.0	15.1	0.0	100.0
	비언론인	(50)	6.0	8.0	40.0	38.0	6.0	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1.5	9.1	34.8	36.4	16.7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7.7	15.4	69.2	7.7	0.0	0.0	100.0
	기타	(8)	12.5	12.5	50.0	25.0	0.0	0.0	100.0

3-6 [ʃ]의 경우 [y], [ø] 앞에서는 ‘ㅅ’으로 적는다.

[그림 5-15] 독일어규정 6



[집단별 특성]

□ 인지 여부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비인지한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언론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9.6%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표 5-41] 독일어규정6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무응답	계
■ 전 체 ■		(103)	30.1	68.9	1.0	100.0
■ 성 별 ■	남성	(55)	29.1	70.9	0.0	100.0
	여성	(48)	31.3	66.7	2.1	100.0
■ 연 령 ■	20대	(36)	22.2	75.0	2.8	100.0
	30대	(34)	29.4	70.6	0.0	100.0
	40대 이상	(31)	41.9	58.1	0.0	100.0
	무응답	(2)	0.0	10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37.5	62.5	0.0	100.0
	신문기자	(29)	34.5	65.5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32.0	68.0	0.0	100.0
	국어교사	(25)	16.0	80.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5.8	64.2	0.0	100.0
	비언론인	(50)	24.0	74.0	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28.8	69.7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38.5	61.5	0.0	100.0
	기타	(8)	25.0	75.0	0.0	100.0

[표 5-42] 독일어규정6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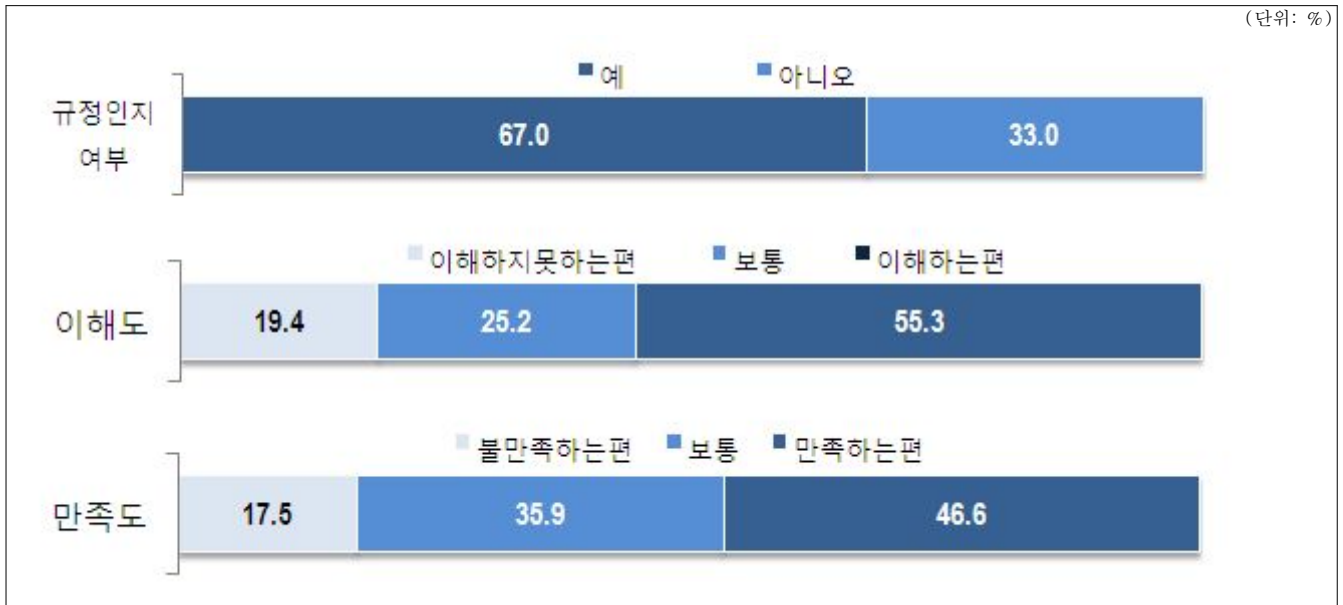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4.9	25.2	36.9	19.4	12.6	1.0	100.0
■ 성 별 ■	남성	(55)	7.3	30.9	34.5	14.5	12.7	0.0	100.0
	여성	(48)	2.1	18.8	39.6	25.0	12.5	2.1	100.0
■ 연 령 ■	20대	(36)	2.8	25.0	36.1	25.0	8.3	2.8	100.0
	30대	(34)	8.8	23.5	35.3	23.5	8.8	0.0	100.0
	40대 이상	(31)	3.2	25.8	38.7	9.7	22.6	0.0	100.0
	무응답	(2)	0.0	50.0	50.0	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	37.5	29.2	16.7	8.3	0.0	100.0
	신문기자	(29)	0.0	34.5	37.9	3.4	24.1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8.0	20.0	48.0	20.0	4.0	0.0	100.0
	국어교사	(25)	4.0	8.0	32.0	40.0	12.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8	35.8	34.0	9.4	17.0	0.0	100.0
	비언론인	(50)	6.0	14.0	40.0	30.0	8.0	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4.5	21.2	34.8	21.2	16.7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3.8	34.6	34.6	23.1	3.8	0.0	100.0
	기타	(8)	0.0	37.5	50.0	0.0	12.5	0.0	100.0

[표 5-43] 독일어규정6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4.9	16.5	55.3	17.5	4.9	1.0	100.0
■ 성 별 ■	남성	(55)	7.3	16.4	49.1	18.2	9.1	0.0	100.0
	여성	(48)	2.1	16.7	62.5	16.7	0.0	2.1	100.0
■ 연 령 ■	20대	(36)	2.8	19.4	61.1	13.9	0.0	2.8	100.0
	30대	(34)	5.9	8.8	58.8	23.5	2.9	0.0	100.0
	40대 이상	(31)	3.2	22.6	45.2	16.1	12.9	0.0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4.2	20.8	50.0	16.7	8.3	0.0	100.0
	신문기자	(29)	3.4	20.7	55.2	10.3	10.3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8.0	12.0	60.0	20.0	0.0	0.0	100.0
	국어교사	(25)	4.0	12.0	56.0	24.0	0.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8	20.8	52.8	13.2	9.4	0.0	100.0
	비언론인	(50)	6.0	12.0	58.0	22.0	0.0	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0	13.6	56.1	19.7	6.1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7.7	23.1	50.0	19.2	0.0	0.0	100.0
	기타	(8)	0.0	12.5	75.0	0.0	12.5	0.0	100.0

4-1 [R]이 [r], [l]과 음가가 다르지만 별도의 표기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르’로 표기한다.

[그림 5-16] 프랑스어규정 1



[집단별 특성]

□ 이 규정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남성이 76.4로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인문계열 전공자에서 이해하고 있다 및 이 규정에 만족한다는 응답 높게 나타남.

[표 5-44] 프랑스규정1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67.0	33.0	100.0
■ 성 별 ■	남성	(55)	76.4	23.6	100.0
	여성	(48)	56.3	43.8	100.0
■ 연 령 ■	20대	(36)	63.9	36.1	100.0
	30대	(34)	64.7	35.3	100.0
	40대 이상	(31)	71.0	29.0	100.0
	무응답	(2)	10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50.0	50.0	100.0
	신문기자	(29)	79.3	20.7	100.0
	출판사종사자	(25)	72.0	28.0	100.0
	국어교사	(25)	64.0	36.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66.0	34.0	100.0
	비언론인	(50)	68.0	3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66.7	33.3	100.0
	사회과학계열	(26)	73.1	26.9	100.0
	기타	(8)	50.0	50.0	100.0

[표 5-45] 프랑스규정1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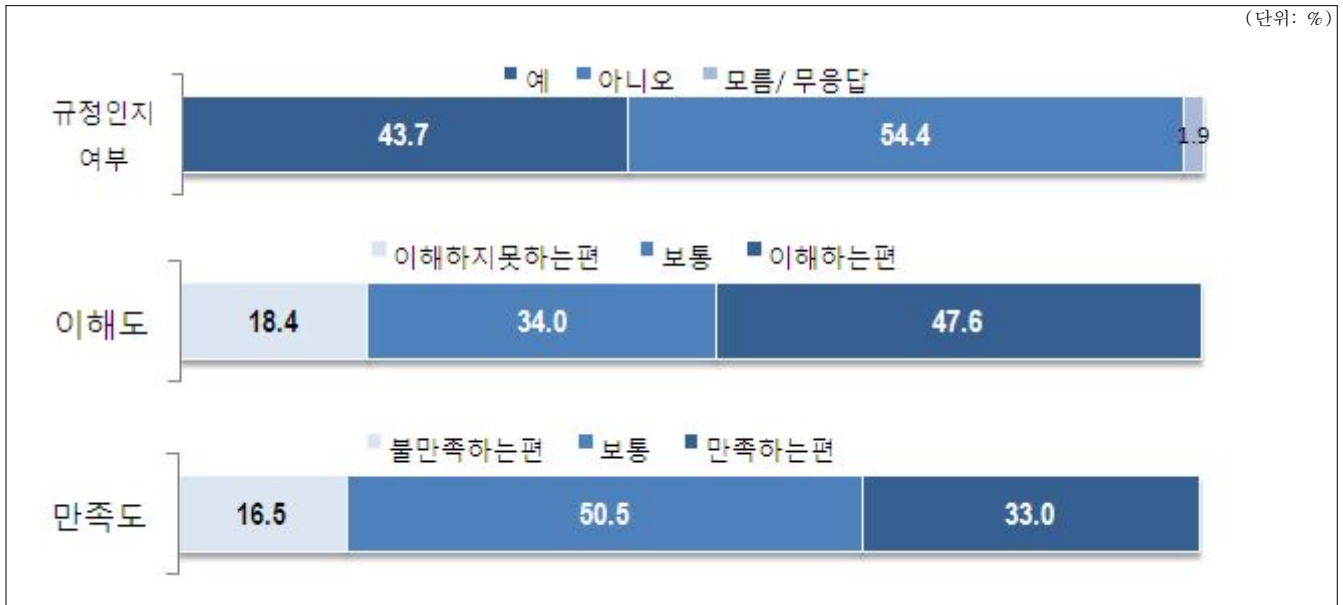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2.9	16.5	25.2	30.1	25.2	100.0
■ 성 별 ■	남성	(55)	3.6	12.7	25.5	30.9	27.3	100.0
	여성	(48)	2.1	20.8	25.0	29.2	22.9	100.0
■ 연 령 ■	20대	(36)	0.0	11.1	30.6	25.0	33.3	100.0
	30대	(34)	5.9	23.5	17.6	38.2	14.7	100.0
	40대 이상	(31)	3.2	16.1	22.6	29.0	29.0	100.0
	무응답	(2)	0.0	0.0	10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	37.5	33.3	12.5	8.3	100.0
	신문기자	(29)	0.0	10.3	13.8	44.8	31.0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16.0	36.0	28.0	16.0	100.0
	국어교사	(25)	0.0	4.0	20.0	32.0	4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8	22.6	22.6	30.2	20.8	100.0
	비언론인	(50)	2.0	10.0	28.0	30.0	3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0.0	13.6	18.2	33.3	34.8	100.0
	사회과학계열	(26)	11.5	23.1	30.8	26.9	7.7	100.0
	기타	(8)	0.0	25.0	50.0	25.0	0.0	100.0

[표 5-46] 프랑스규정1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3.9	13.6	35.9	30.1	16.5	100.0
■ 성 별 ■	남성	(55)	5.5	9.1	38.2	27.3	20.0	100.0
	여성	(48)	2.1	18.8	33.3	33.3	12.5	100.0
■ 연 령 ■	20대	(36)	2.8	11.1	41.7	25.0	19.4	100.0
	30대	(34)	2.9	11.8	38.2	35.3	11.8	100.0
	40대 이상	(31)	6.5	19.4	25.8	29.0	19.4	100.0
	무응답	(2)	0.0	0.0	50.0	5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4.2	29.2	41.7	16.7	8.3	100.0
	신문기자	(29)	3.4	10.3	20.7	41.4	24.1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4.0	56.0	28.0	8.0	100.0
	국어교사	(25)	4.0	12.0	28.0	32.0	2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8	18.9	30.2	30.2	17.0	100.0
	비언론인	(50)	4.0	8.0	42.0	30.0	16.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0	9.1	28.8	34.8	24.2	100.0
	사회과학계열	(26)	7.7	23.1	38.5	26.9	3.8	100.0
	기타	(8)	0.0	12.5	75.0	12.5	0.0	100.0

4-2 마찰음 [ʃ]와 [ʒ]는 어말과 자음 앞에 올 경우 ‘슈’나 ‘주’로 표기한다.

[그림 5-17] 프랑스어 규정 2



[집단별 특성]

□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이 규정을 비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인문계열 전공자가 이해하는 편 및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표 5-47] 프랑스어 규정2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무응답	계
■ 전 체 ■		(103)	43.7	54.4	1.9	100.0
■ 성 별 ■	남성	(55)	43.6	56.4	0.0	100.0
	여성	(48)	43.8	52.1	4.2	100.0
■ 연 령 ■	20대	(36)	36.1	63.9	0.0	100.0
	30대	(34)	41.2	55.9	2.9	100.0
	40대 이상	(31)	54.8	41.9	3.2	100.0
	무응답	(2)	50.0	5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37.5	62.5	0.0	100.0
	신문기자	(29)	51.7	48.3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48.0	48.0	4.0	100.0
	국어교사	(25)	36.0	60.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45.3	54.7	0.0	100.0
	비언론인	(50)	42.0	54.0	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43.9	53.0	3.0	100.0
	사회과학계열	(26)	50.0	50.0	0.0	100.0
	기타	(8)	25.0	75.0	0.0	100.0

[표 5-48] 프랑스어 규정2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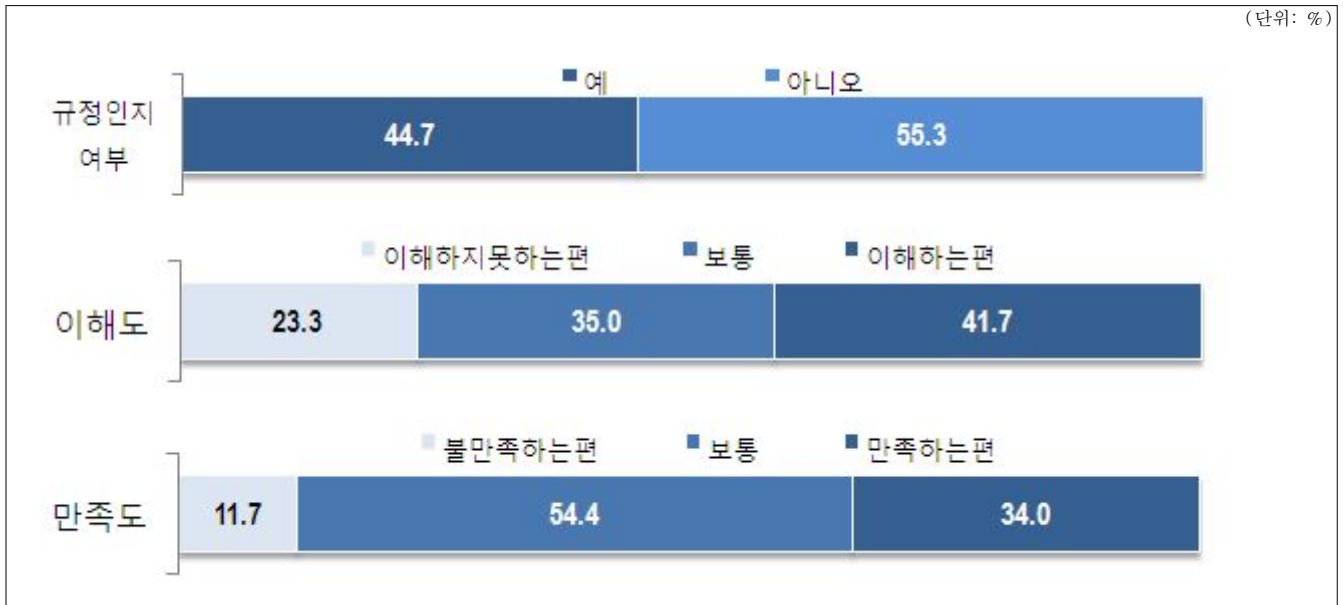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2.9	15.5	34.0	24.3	23.3	100.0
■ 성 별 ■	남성	(55)	3.6	20.0	32.7	21.8	21.8	100.0
	여성	(48)	2.1	10.4	35.4	27.1	25.0	100.0
■ 연 령 ■	20대	(36)	0.0	5.6	44.4	22.2	27.8	100.0
	30대	(34)	8.8	23.5	26.5	26.5	14.7	100.0
	40대 이상	(31)	0.0	19.4	25.8	25.8	29.0	100.0
	무응답	(2)	0.0	0.0	10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	33.3	29.2	16.7	12.5	100.0
	신문기자	(29)	0.0	13.8	31.0	20.7	34.5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8.0	48.0	28.0	12.0	100.0
	국어교사	(25)	0.0	8.0	28.0	32.0	32.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8	22.6	30.2	18.9	24.5	100.0
	비언론인	(50)	2.0	8.0	38.0	30.0	2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0.0	9.1	30.3	28.8	31.8	100.0
	사회과학계열	(26)	11.5	23.1	34.6	19.2	11.5	100.0
	기타	(8)	0.0	50.0	37.5	12.5	0.0	100.0

[표 5-49] 프랑스어 규정2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2.9	13.6	50.5	24.3	8.7	100.0
■ 성 별 ■	남성	(55)	5.5	14.5	47.3	18.2	14.5	100.0
	여성	(48)	0.0	12.5	54.2	31.3	2.1	100.0
■ 연 령 ■	20대	(36)	2.8	8.3	63.9	19.4	5.6	100.0
	30대	(34)	2.9	14.7	50.0	29.4	2.9	100.0
	40대 이상	(31)	3.2	19.4	32.3	25.8	19.4	100.0
	무응답	(2)	0.0	0.0	10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	12.5	58.3	12.5	8.3	100.0
	신문기자	(29)	0.0	13.8	44.8	24.1	17.2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12.0	52.0	28.0	4.0	100.0
	국어교사	(25)	0.0	16.0	48.0	32.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8	13.2	50.9	18.9	13.2	100.0
	비언론인	(50)	2.0	14.0	50.0	30.0	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1.5	10.6	45.5	30.3	12.1	100.0
	사회과학계열	(26)	3.8	19.2	61.5	11.5	3.8	100.0
	기타	(8)	12.5	12.5	62.5	12.5	0.0	100.0

4-3 반모음 [j]는 어말에 올 때에 ‘유’로 적는다,

[그림 5-18] 프랑스어 규정 3



[집단별 특성]

□ 비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국어 교사에서 높았고(80.0%), 인문계열 전공자가 비교적 이 규정을 이해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각각 51.5%, 41.4%).

[표 5-50] 프랑스어 규정3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44.7	55.3	100.0
■ 성 별 ■	남성	(55)	47.3	52.7	100.0
	여성	(48)	41.7	58.3	100.0
■ 연 령 ■	20대	(36)	33.3	66.7	100.0
	30대	(34)	44.1	55.9	100.0
	40대 이상	(31)	58.1	41.9	100.0
	무응답	(2)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50.0	50.0	100.0
	신문기자	(29)	51.7	48.3	100.0
	출판사종사자	(25)	56.0	44.0	100.0
	국어교사	(25)	20.0	8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50.9	49.1	100.0
	비언론인	(50)	38.0	6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43.9	56.1	100.0
	사회과학계열	(26)	46.2	53.8	100.0
	기타	(8)	50.0	50.0	100.0

[표 5-51] 프랑스어 규정3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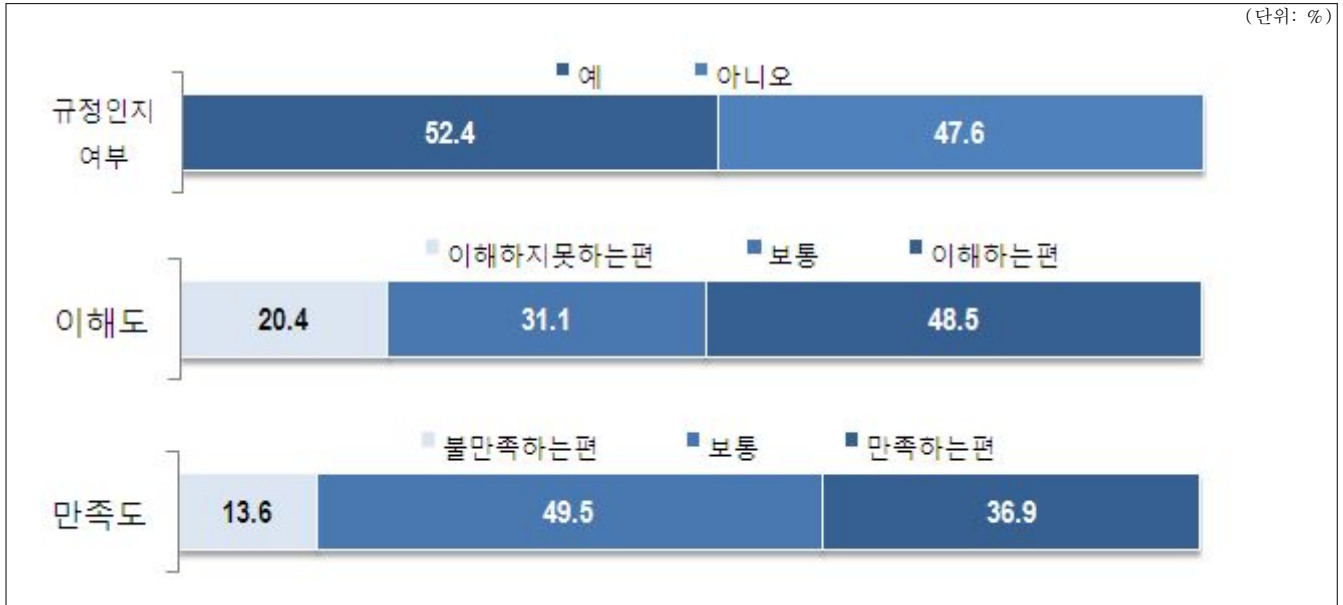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6.8	16.5	35.0	24.3	17.5	100.0
■ 성 별 ■	남성	(55)	10.9	20.0	29.1	25.5	14.5	100.0
	여성	(48)	2.1	12.5	41.7	22.9	20.8	100.0
■ 연 령 ■	20대	5.6	8.3	44.4	13.9	27.8	13.9	100.0
	30대	8.8	20.6	29.4	32.4	8.8	29.4	100.0
	40대 이상	6.5	19.4	29.0	29.0	16.1	25.8	100.0
	무응답	0.0	50.0	50.0	0.0	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20.8	29.2	29.2	16.7	4.2	100.0
	신문기자	(29)	0.0	17.2	34.5	24.1	24.1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12.0	44.0	32.0	8.0	100.0
	국어교사	(25)	4.0	8.0	32.0	24.0	32.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4	22.6	32.1	20.8	15.1	100.0
	비언론인	(50)	4.0	10.0	38.0	28.0	2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0	12.1	33.3	27.3	24.2	100.0
	사회과학계열	(26)	15.4	30.8	26.9	19.2	7.7	100.0
	기타	(8)	12.5	12.5	62.5	12.5	0.0	100.0

[표 5-52] 프랑스어 규정3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1.0	10.7	54.4	26.2	7.8	100.0
■ 성 별 ■	남성	(55)	1.8	12.7	54.5	18.2	12.7	100.0
	여성	(48)	0.0	8.3	54.2	35.4	2.1	100.0
■ 연 령 ■	20대	(36)	0.0	5.6	72.2	11.1	11.1	100.0
	30대	(34)	2.9	11.8	52.9	29.4	2.9	100.0
	40대 이상	(31)	0.0	12.9	35.5	41.9	9.7	100.0
	무응답	(2)	0.0	5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0.0	12.5	75.0	8.3	4.2	100.0
	신문기자	(29)	0.0	10.3	44.8	34.5	10.3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12.0	48.0	28.0	8.0	100.0
	국어교사	(25)	0.0	8.0	52.0	32.0	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0.0	11.3	58.5	22.6	7.5	100.0
	비언론인	(50)	2.0	10.0	50.0	30.0	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0.0	7.6	50.0	30.3	12.1	100.0
	사회과학계열	(26)	3.8	19.2	57.7	19.2	0.0	100.0
	기타	(8)	0.0	0.0	87.5	12.5	0.0	100.0

4-4 반모음 [w]는 ‘우’로 적는다.

[그림 5-19] 프랑스어 규정 4



[집단별 특성]

□ 이 규정에 관한 이해정도와 만족정도와 관련하여, 인문계열 전공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과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각각 63.6%, 45.5%).

[표 5-53] 프랑스어 규정4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52.4	47.6	100.0
■ 성 별 ■	남성	(55)	47.3	52.7	100.0
	여성	(48)	58.3	41.7	100.0
■ 연 령 ■	20대	(36)	50.0	50.0	100.0
	30대	(34)	44.1	55.9	100.0
	40대 이상	(31)	67.7	32.3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45.8	54.2	100.0
	신문기자	(29)	62.1	37.9	100.0
	출판사종사자	(25)	52.0	48.0	100.0
	국어교사	(25)	48.0	52.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54.7	45.3	100.0
	비언론인	(50)	50.0	5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54.5	45.5	100.0
	사회과학계열	(26)	53.8	46.2	100.0
	기타	(8)	37.5	62.5	100.0

[표 5-54] 프랑스어 규정4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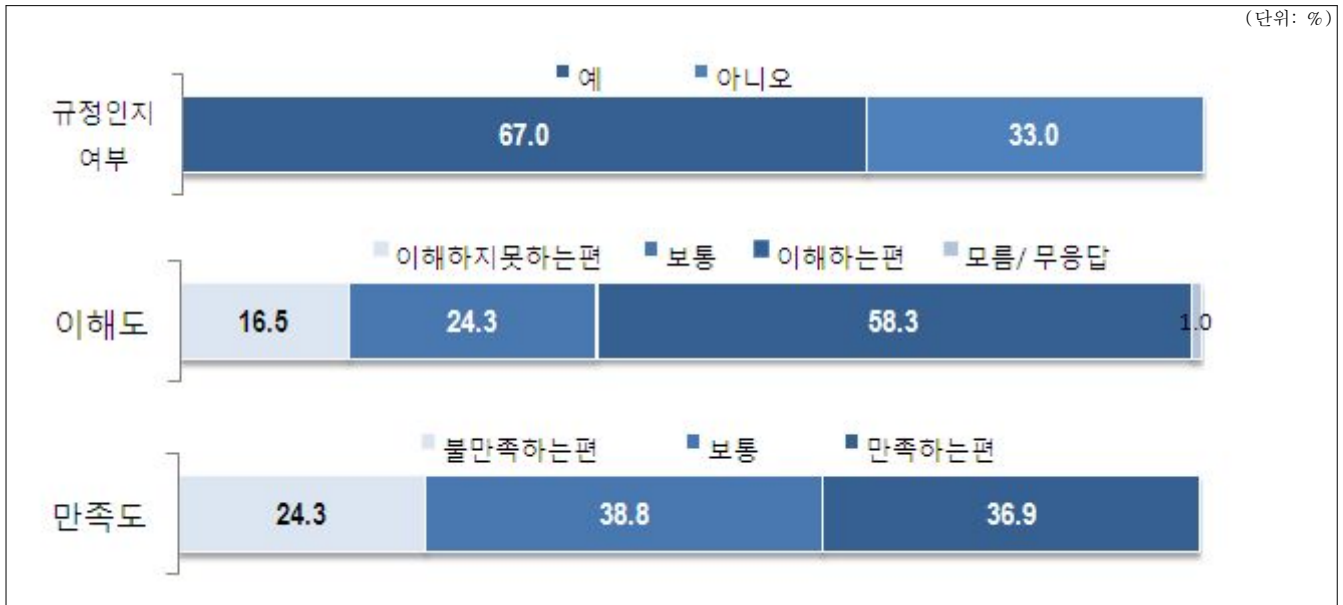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4.9	15.5	31.1	24.3	24.3	100.0
■ 성 별 ■	남성	(55)	7.3	21.8	23.6	25.5	21.8	100.0
	여성	(48)	2.1	8.3	39.6	22.9	27.1	100.0
■ 연 령 ■	20대	(36)	0.0	11.1	38.9	16.7	33.3	100.0
	30대	(34)	8.8	23.5	29.4	26.5	11.8	100.0
	40대 이상	(31)	3.2	12.9	22.6	32.3	29.0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6.7	25.0	37.5	12.5	8.3	100.0
	신문기자	(29)	0.0	17.2	13.8	37.9	31.0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12.0	44.0	24.0	16.0	100.0
	국어교사	(25)	0.0	8.0	32.0	20.0	4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5	20.8	24.5	26.4	20.8	100.0
	비언론인	(50)	2.0	10.0	38.0	22.0	2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0.0	10.6	25.8	28.8	34.8	100.0
	사회과학계열	(26)	19.2	26.9	26.9	19.2	7.7	100.0
	기타	(8)	0.0	25.0	62.5	12.5	0.0	100.0

[표 5-55] 프랑스어 규정4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4.9	8.7	49.5	26.2	10.7	100.0
■ 성 별 ■	남성	(55)	7.3	9.1	41.8	25.5	16.4	100.0
	여성	(48)	2.1	8.3	58.3	27.1	4.2	100.0
■ 연 령 ■	20대	(36)	0.0	11.1	58.3	22.2	8.3	100.0
	30대	(34)	5.9	5.9	58.8	23.5	5.9	100.0
	40대 이상	(31)	6.5	9.7	29.0	35.5	19.4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2.5	12.5	58.3	12.5	4.2	100.0
	신문기자	(29)	0.0	6.9	27.6	48.3	17.2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8.0	60.0	20.0	8.0	100.0
	국어교사	(25)	4.0	8.0	56.0	20.0	12.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5.7	9.4	41.5	32.1	11.3	100.0
	비언론인	(50)	4.0	8.0	58.0	20.0	1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0	4.5	47.0	28.8	16.7	100.0
	사회과학계열	(26)	11.5	15.4	50.0	23.1	0.0	100.0
	기타	(8)	0.0	12.5	75.0	12.5	0.0	100.0

4-5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5-20] 프랑스어 규정 5



[집단별 특성]

□ 전반적으로 이 규정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인문계열 전공자가 이해하는 편 및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았음(각각 72.7%, 47.0%).

[표 5-56] 프랑스어 규정5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67.0	33.0	100.0
■ 성 별 ■	남성	(55)	61.8	38.2	100.0
	여성	(48)	72.9	27.1	100.0
■ 연 령 ■	20대	(36)	72.2	27.8	100.0
	30대	(34)	64.7	35.3	100.0
	40대 이상	(31)	64.5	35.5	100.0
	무응답	(2)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58.3	41.7	100.0
	신문기자	(29)	69.0	31.0	100.0
	출판사종사자	(25)	76.0	24.0	100.0
	국어교사	(25)	64.0	36.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64.2	35.8	100.0
	비언론인	(50)	70.0	3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69.7	30.3	100.0
	사회과학계열	(26)	69.2	30.8	100.0
	기타	(8)	37.5	62.5	100.0

[표 5-57] 프랑스어 규정5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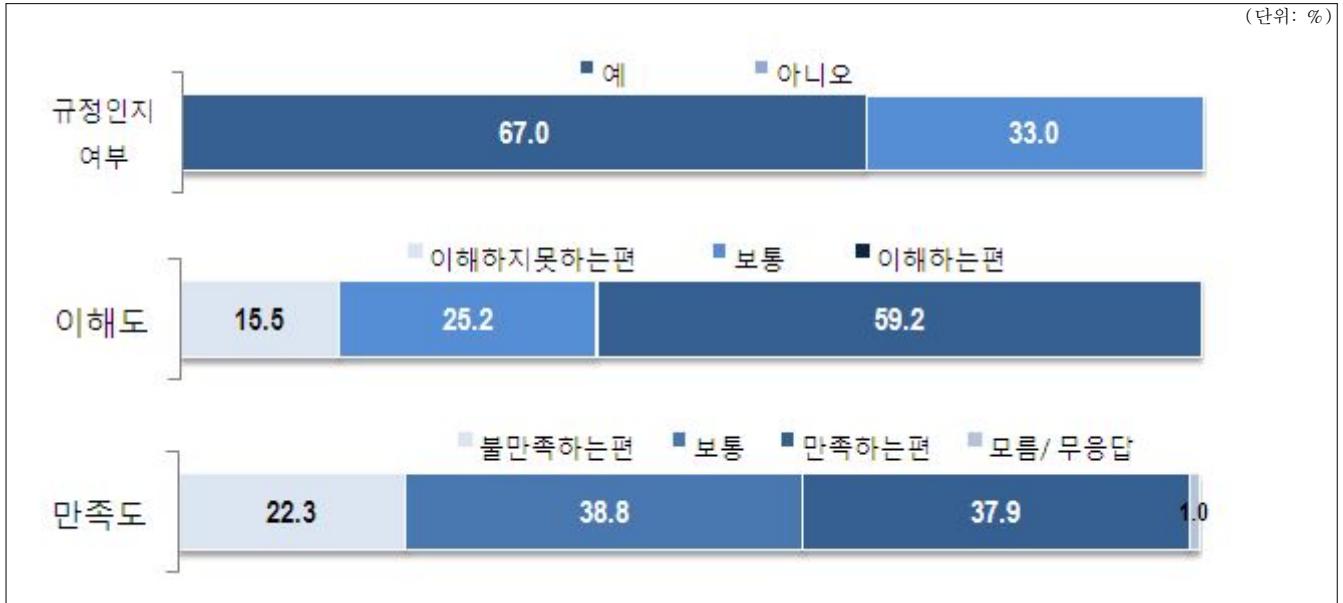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4.9	11.7	24.3	29.1	29.1	1.0	100.0
■ 성 별 ■	남성	(55)	5.5	18.2	23.6	23.6	29.1	0.0	100.0
	여성	(48)	4.2	4.2	25.0	35.4	29.2	2.1	100.0
■ 연 령 ■	20대	(36)	2.8	5.6	27.8	27.8	33.3	2.8	100.0
	30대	(34)	5.9	14.7	20.6	38.2	20.6	0.0	100.0
	40대 이상	(31)	3.2	16.1	22.6	22.6	35.5	0.0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2.5	16.7	37.5	16.7	16.7	0.0	100.0
	신문기자	(29)	3.4	13.8	17.2	27.6	37.9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0.0	4.0	28.0	48.0	16.0	4.0	100.0
	국어교사	(25)	4.0	12.0	16.0	24.0	44.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5	15.1	26.4	22.6	28.3	0.0	100.0
	비언론인	(50)	2.0	8.0	22.0	36.0	30.0	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0	10.6	12.1	34.8	37.9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11.5	15.4	34.6	23.1	15.4	0.0	100.0
	기타	(8)	0.0	12.5	75.0	12.5	0.0	0.0	100.0

[표 5-58] 프랑스어 규정5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7.8	16.5	38.8	27.2	9.7	100.0
■ 성 별 ■	남성	(55)	9.1	20.0	40.0	14.5	16.4	100.0
	여성	(48)	6.3	12.5	37.5	41.7	2.1	100.0
■ 연 령 ■	20대	(36)	11.1	22.2	33.3	30.6	2.8	100.0
	30대	(34)	0.0	11.8	50.0	32.4	5.9	100.0
	40대 이상	(31)	9.7	16.1	32.3	19.4	22.6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	16.7	54.2	8.3	12.5	100.0
	신문기자	(29)	10.3	27.6	24.1	24.1	13.8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4.0	44.0	44.0	4.0	100.0
	국어교사	(25)	8.0	16.0	36.0	32.0	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4	22.6	37.7	17.0	13.2	100.0
	비언론인	(50)	6.0	10.0	40.0	38.0	6.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10.6	12.1	30.3	33.3	13.6	100.0
	사회과학계열	(26)	3.8	26.9	46.2	19.2	3.8	100.0
	기타	(8)	0.0	25.0	75.0	0.0	0.0	100.0

5-1 파열음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5-21] 에스파냐어 규정 1



[집단별 특성]

□ 비언론인(국어 교사 및 출판사 교열 종사자)에서 이해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았고(72.7%), 인문계열 전공자에서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48.5%) 높게 나타남.

[표 5-59] 에스파냐어 규정1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67.0	33.0	100.0
■ 성 별 ■	남성	(55)	63.6	36.4	100.0
	여성	(48)	70.8	29.2	100.0
■ 연 령 ■	20대	(36)	66.7	33.3	100.0
	30대	(34)	70.6	29.4	100.0
	40대 이상	(31)	61.3	38.7	100.0
	무응답	(2)	10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70.8	29.2	100.0
	신문기자	(29)	62.1	37.9	100.0
	출판사종사자	(25)	68.0	32.0	100.0
	국어교사	(25)	68.0	32.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66.0	34.0	100.0
	비언론인	(50)	68.0	3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68.2	31.8	100.0
	사회과학계열	(26)	69.2	30.8	100.0
	기타	(8)	50.0	50.0	100.0

[표 5-60] 에스파냐어 규정1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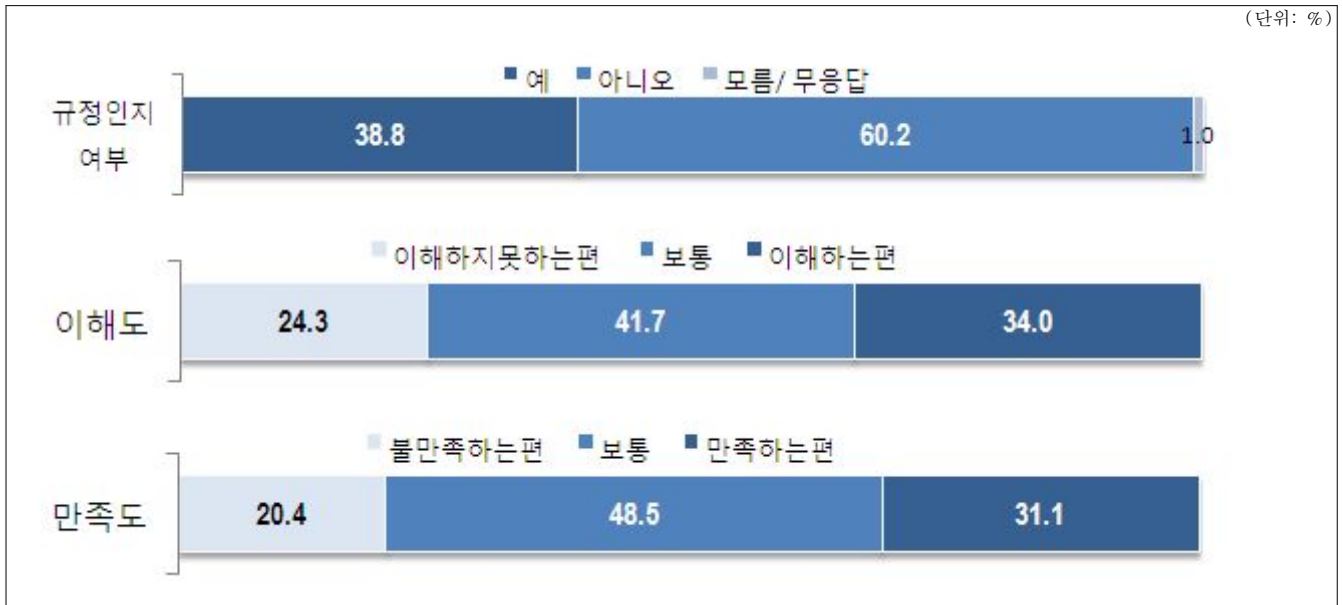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5.8	9.7	25.2	29.1	30.1	100.0
■ 성 별 ■	남성	(55)	7.3	18.2	20.0	27.3	27.3	100.0
	여성	(48)	4.2	0.0	31.3	31.3	33.3	100.0
■ 연 령 ■	20대	(36)	5.6	2.8	27.8	30.6	33.3	100.0
	30대	(34)	2.9	8.8	29.4	29.4	29.4	100.0
	40대 이상	(31)	6.5	19.4	16.1	29.0	29.0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6.7	16.7	29.2	16.7	20.8	100.0
	신문기자	(29)	3.4	13.8	24.1	27.6	31.0	100.0
	출판사종사자	(25)	0.0	4.0	28.0	44.0	24.0	100.0
	국어교사	(25)	4.0	4.0	20.0	28.0	4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4	15.1	26.4	22.6	26.4	100.0
	비언론인	(50)	2.0	4.0	24.0	36.0	3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0	7.6	16.7	34.8	37.9	100.0
	사회과학계열	(26)	11.5	15.4	26.9	26.9	19.2	100.0
	기타	(8)	12.5	12.5	75.0	0.0	0.0	100.0

[표 5-61] 에스파냐어 규정1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7.8	14.6	38.8	28.2	9.7	1.0	100.0
■ 성 별 ■	남성	(55)	9.1	18.2	34.5	21.8	14.5	1.8	100.0
	여성	(48)	6.3	10.4	43.8	35.4	4.2	0.0	100.0
■ 연 령 ■	20대	(36)	13.9	13.9	36.1	30.6	5.6	0.0	100.0
	30대	(34)	2.9	8.8	52.9	29.4	5.9	0.0	100.0
	40대 이상	(31)	6.5	19.4	25.8	25.8	19.4	3.2	100.0
	무응답	(2)	0.0	50.0	50.0	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4.2	25.0	41.7	20.8	8.3	0.0	100.0
	신문기자	(29)	10.3	24.1	34.5	17.2	13.8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8.0	0.0	48.0	36.0	8.0	0.0	100.0
	국어교사	(25)	8.0	8.0	32.0	40.0	8.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5	24.5	37.7	18.9	11.3	0.0	100.0
	비언론인	(50)	8.0	4.0	40.0	38.0	8.0	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10.6	9.1	30.3	34.8	13.6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0.0	26.9	46.2	23.1	3.8	0.0	100.0
	기타	(8)	12.5	12.5	75.0	0.0	0.0	0.0	100.0

5-2 ll, y, ñ, w의 '이, 니, 오, 우'는 다른 모음과 결합할 때 합쳐서 1 음절로 적는다.(예: 에스파냐 España)

[그림 5-22] 일반규정 1



[집단별 특성]

□ 비언론인에서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높았고(70.0%), 인문계열 전공자들이 이 규정을 이해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42.4%).

[표 5-62] 에스파냐어 규정2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무응답	계
■ 전 체 ■		(103)	38.8	60.2	1.0	100.0
■ 성 별 ■	남성	(55)	36.4	61.8	1.8	100.0
	여성	(48)	41.7	58.3	0.0	100.0
■ 연 령 ■	20대	(36)	30.6	69.4	0.0	100.0
	30대	(34)	41.2	58.8	0.0	100.0
	40대 이상	(31)	48.4	48.4	3.2	100.0
	무응답	(2)	0.0	10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37.5	58.3	4.2	100.0
	신문기자	(29)	55.2	44.8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32.0	68.0	0.0	100.0
	국어교사	(25)	28.0	72.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47.2	50.9	1.9	100.0
	비언론인	(50)	30.0	70.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40.9	57.6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42.3	57.7	0.0	100.0
	기타	(8)	25.0	75.0	0.0	100.0

[표 5-63] 에스파냐어 규정2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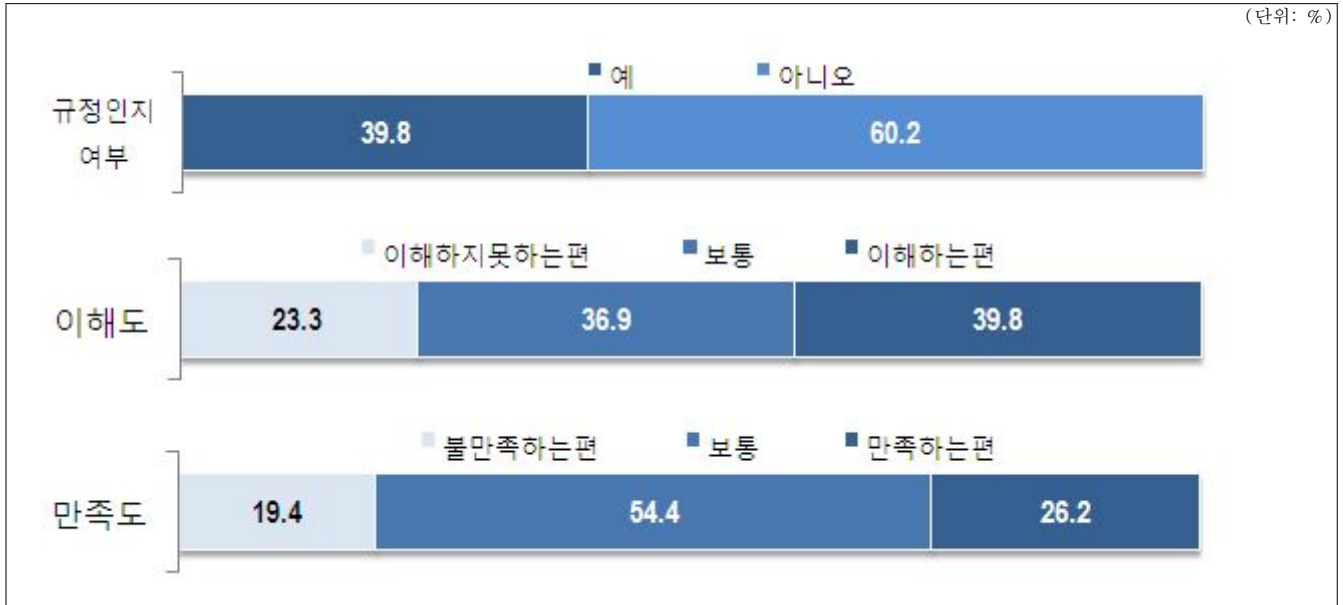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5.8	18.4	41.7	19.4	14.6	100.0
■ 성 별 ■	남성	(55)	9.1	27.3	32.7	20.0	10.9	100.0
	여성	(48)	2.1	8.3	52.1	18.8	18.8	100.0
■ 연 령 ■	20대	(36)	0.0	16.7	50.0	19.4	13.9	100.0
	30대	(34)	8.8	14.7	47.1	20.6	8.8	100.0
	40대 이상	(31)	6.5	25.8	25.8	19.4	22.6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2.5	29.2	41.7	8.3	8.3	100.0
	신문기자	(29)	3.4	24.1	27.6	20.7	24.1	100.0
	출판사종사자	(25)	8.0	12.0	48.0	24.0	8.0	100.0
	국어교사	(25)	0.0	8.0	52.0	24.0	16.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5	26.4	34.0	15.1	17.0	100.0
	비언론인	(50)	4.0	10.0	50.0	24.0	1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1.5	13.6	42.4	24.2	18.2	100.0
	사회과학계열	(26)	15.4	23.1	38.5	11.5	11.5	100.0
	기타	(8)	0.0	37.5	50.0	12.5	0.0	100.0

[표 5-64] 에스파냐어 규정2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3.9	16.5	48.5	20.4	10.7	100.0
■ 성 별 ■	남성	(55)	7.3	21.8	38.2	20.0	12.7	100.0
	여성	(48)	0.0	10.4	60.4	20.8	8.3	100.0
■ 연 령 ■	20대	(36)	2.8	16.7	55.6	13.9	11.1	100.0
	30대	(34)	2.9	8.8	58.8	23.5	5.9	100.0
	40대 이상	(31)	3.2	25.8	29.0	25.8	16.1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2.5	16.7	50.0	12.5	8.3	100.0
	신문기자	(29)	0.0	24.1	34.5	24.1	17.2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12.0	52.0	28.0	4.0	100.0
	국어교사	(25)	0.0	12.0	60.0	16.0	12.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5.7	20.8	41.5	18.9	13.2	100.0
	비언론인	(50)	2.0	12.0	56.0	22.0	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0	12.1	47.0	22.7	15.2	100.0
	사회과학계열	(26)	3.8	26.9	46.2	19.2	3.8	100.0
	기타	(8)	12.5	12.5	62.5	12.5	0.0	100.0

5-3 gu, qu는 i, e 앞에서는 각각 ‘ㄱ, ㅋ’으로 적는다.

[그림 5-23] 에스파냐어 규정 3



[집단별 특성]

□ 모든 집단에서 이 규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고, 인문계열 전공자에서 이해하고 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48.5%).

[표 5-65] 에스파냐어 규정3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39.8	60.2	100.0
■ 성 별 ■	남성	(55)	40.0	60.0	100.0
	여성	(48)	39.6	60.4	100.0
■ 연 령 ■	20대	(36)	33.3	66.7	100.0
	30대	(34)	41.2	58.8	100.0
	40대 이상	(31)	48.4	51.6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29.2	70.8	100.0
	신문기자	(29)	51.7	48.3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0	60.0	100.0
	국어교사	(25)	36.0	6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41.5	58.5	100.0
	비언론인	(50)	38.0	6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9.4	60.6	100.0
	사회과학계열	(26)	46.2	53.8	100.0
	기타	(8)	37.5	62.5	100.0

[표 5-66] 에스파냐어 규정3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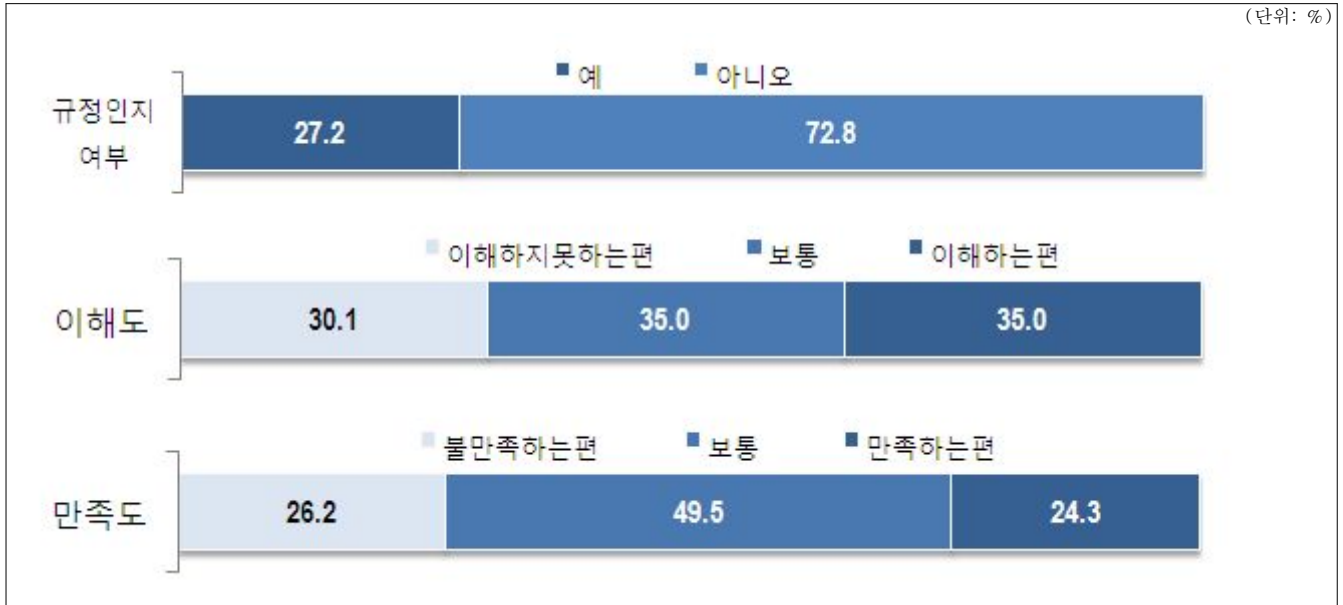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8.7	14.6	36.9	24.3	15.5	100.0
■ 성 별 ■	남성	(55)	12.7	18.2	29.1	29.1	10.9	100.0
	여성	(48)	4.2	10.4	45.8	18.8	20.8	100.0
■ 연 령 ■	20대	(36)	2.8	11.1	38.9	25.0	22.2	100.0
	30대	(34)	14.7	14.7	35.3	29.4	5.9	100.0
	40대 이상	(31)	6.5	19.4	35.5	19.4	19.4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6.7	29.2	29.2	16.7	8.3	100.0
	신문기자	(29)	6.9	13.8	37.9	17.2	24.1	100.0
	출판사종사자	(25)	12.0	4.0	48.0	32.0	4.0	100.0
	국어교사	(25)	0.0	12.0	32.0	32.0	2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11.3	20.8	34.0	17.0	17.0	100.0
	비언론인	(50)	6.0	8.0	40.0	32.0	1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0	12.1	36.4	28.8	19.7	100.0
	사회과학계열	(26)	19.2	19.2	30.8	19.2	11.5	100.0
	기타	(8)	12.5	25.0	50.0	12.5	0.0	100.0

[표 5-67] 에스파냐어 규정3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6.8	12.6	54.4	18.4	7.8	100.0
■ 성 별 ■	남성	(55)	9.1	18.2	41.8	20.0	10.9	100.0
	여성	(48)	4.2	6.3	68.8	16.7	4.2	100.0
■ 연 령 ■	20대	(36)	5.6	13.9	55.6	19.4	5.6	100.0
	30대	(34)	8.8	2.9	64.7	20.6	2.9	100.0
	40대 이상	(31)	3.2	22.6	41.9	16.1	16.1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	16.7	58.3	12.5	4.2	100.0
	신문기자	(29)	6.9	20.7	37.9	17.2	17.2	100.0
	출판사종사자	(25)	8.0	4.0	64.0	24.0	0.0	100.0
	국어교사	(25)	4.0	8.0	60.0	20.0	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5	18.9	47.2	15.1	11.3	100.0
	비언론인	(50)	6.0	6.0	62.0	22.0	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4.5	10.6	53.0	19.7	12.1	100.0
	사회과학계열	(26)	7.7	19.2	53.8	19.2	0.0	100.0
	기타	(8)	12.5	12.5	62.5	12.5	0.0	100.0

5-4 'z'는 'ㅈ'으로 표기한다.

[그림 5-24] 에스파냐어 규정 4



[집단별 특성]

□ 이 규정을 비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모든 집단군에서 높게 나타났고, 이해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인문계열 전공에서(43.9%), 만족 정도는 비언론인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됨(60.0%).

[표 5-68] 에스파냐어 규정4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27.2	72.8	100.0
■ 성 별 ■	남성	(55)	25.5	74.5	100.0
	여성	(48)	29.2	70.8	100.0
■ 연 령 ■	20대	(36)	22.2	77.8	100.0
	30대	(34)	26.5	73.5	100.0
	40대 이상	(31)	35.5	64.5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25.0	75.0	100.0
	신문기자	(29)	37.9	62.1	100.0
	출판사종사자	(25)	28.0	72.0	100.0
	국어교사	(25)	16.0	8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2.1	67.9	100.0
	비언론인	(50)	22.0	7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28.8	71.2	100.0
	사회과학계열	(26)	34.6	65.4	100.0
	기타	(8)	0.0	100.0	100.0

[표 5-69] 에스파냐어 규정4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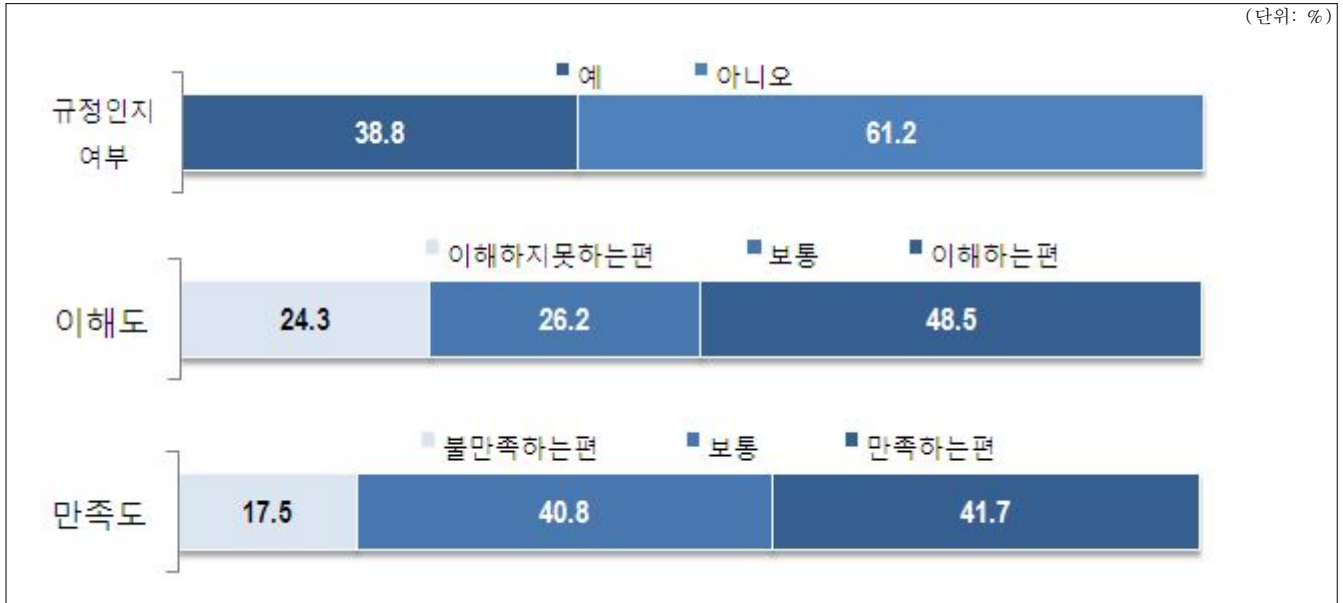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6.8	23.3	35.0	14.6	20.4	100.0
■ 성 별 ■	남성	(55)	9.1	27.3	30.9	16.4	16.4	100.0
	여성	(48)	4.2	18.8	39.6	12.5	25.0	100.0
■ 연 령 ■	20대	(36)	0.0	25.0	41.7	8.3	25.0	100.0
	30대	(34)	11.8	17.6	32.4	23.5	14.7	100.0
	40대 이상	(31)	6.5	29.0	29.0	12.9	22.6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2.5	37.5	29.2	12.5	8.3	100.0
	신문기자	(29)	6.9	17.2	27.6	17.2	31.0	100.0
	출판사종사자	(25)	8.0	12.0	56.0	16.0	8.0	100.0
	국어교사	(25)	0.0	28.0	28.0	12.0	32.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4	26.4	28.3	15.1	20.8	100.0
	비언론인	(50)	4.0	20.0	42.0	14.0	2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0	21.2	31.8	16.7	27.3	100.0
	사회과학계열	(26)	15.4	26.9	34.6	11.5	11.5	100.0
	기타	(8)	0.0	37.5	50.0	12.5	0.0	100.0

[표 5-70] 에프과냐어 규정4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6.8	19.4	49.5	13.6	10.7	100.0
■ 성 별 ■	남성	(55)	10.9	20.0	43.6	9.1	16.4	100.0
	여성	(48)	2.1	18.8	56.3	18.8	4.2	100.0
■ 연 령 ■	20대	(36)	0.0	25.0	52.8	11.1	11.1	100.0
	30대	(34)	5.9	14.7	58.8	14.7	5.9	100.0
	40대 이상	(31)	12.9	19.4	35.5	16.1	16.1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2.5	25.0	45.8	12.5	4.2	100.0
	신문기자	(29)	10.3	20.7	34.5	13.8	20.7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16.0	60.0	16.0	4.0	100.0
	국어교사	(25)	0.0	16.0	60.0	12.0	12.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11.3	22.6	39.6	13.2	13.2	100.0
	비언론인	(50)	2.0	16.0	60.0	14.0	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7.6	12.1	50.0	13.6	16.7	100.0
	사회과학계열	(26)	3.8	30.8	46.2	19.2	0.0	100.0
	기타	(8)	0.0	37.5	62.5	0.0	0.0	100.0

5-5 c와 g앞에 오는 n은 받침 ‘ㅇ’으로 적는다.(예:blanco 블랑코)

[그림 5-25] 에스파냐어 규정 5



[집단별 특성]

□ 인문계열 전공자에서 이해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57.6%),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신문기자 직종에서 높게 나타남.

[표 5-71] 에스파냐어 규정5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38.8	61.2	100.0
■ 성 별 ■	남성	(55)	34.5	65.5	100.0
	여성	(48)	43.8	56.3	100.0
■ 연 령 ■	20대	(36)	36.1	63.9	100.0
	30대	(34)	35.3	64.7	100.0
	40대 이상	(31)	48.4	51.6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33.3	66.7	100.0
	신문기자	(29)	41.4	58.6	100.0
	출판사종사자	(25)	48.0	52.0	100.0
	국어교사	(25)	32.0	6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7.7	62.3	100.0
	비언론인	(50)	40.0	6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40.9	59.1	100.0
	사회과학계열	(26)	50.0	50.0	100.0
	기타	(8)	0.0	100.0	100.0

[표 5-72] 에스파냐어 규정5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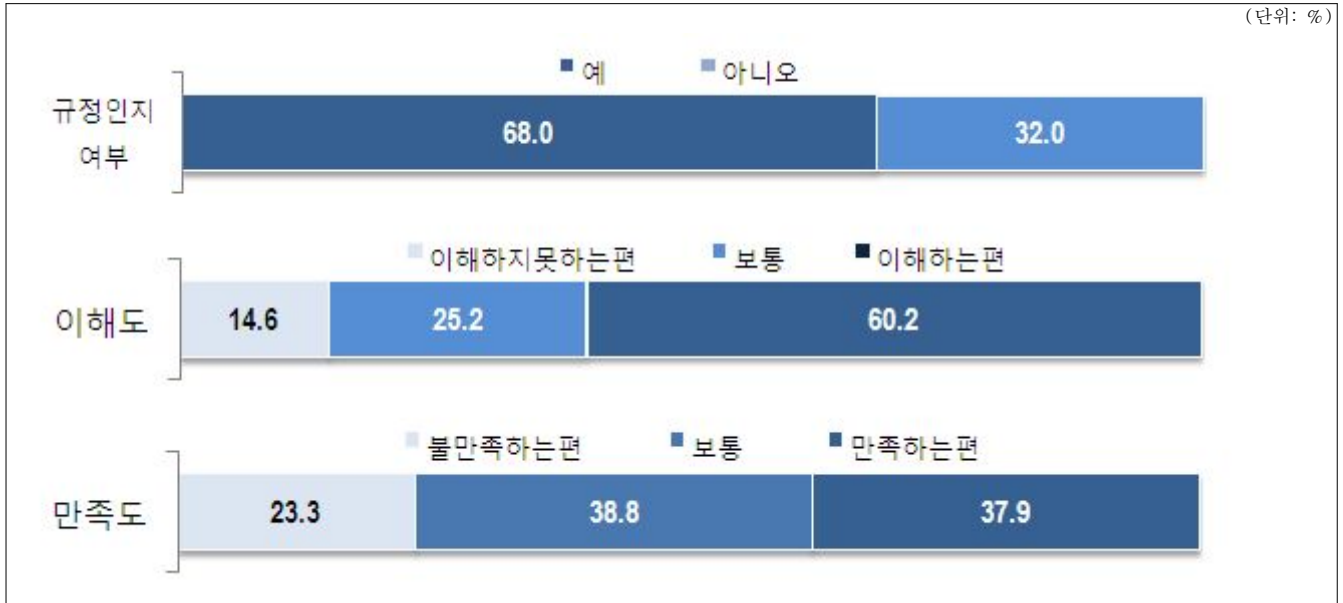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6.8	17.5	26.2	29.1	19.4	1.0	100.0
■ 성 별 ■	남성	(55)	10.9	18.2	21.8	30.9	16.4	1.8	100.0
	여성	(48)	2.1	16.7	31.3	27.1	22.9	0.0	100.0
■ 연 령 ■	20대	(36)	0.0	16.7	36.1	16.7	30.6	0.0	100.0
	30대	(34)	8.8	17.6	17.6	47.1	8.8	0.0	100.0
	40대 이상	(31)	9.7	19.4	22.6	25.8	19.4	3.2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6.7	33.3	20.8	20.8	8.3	0.0	100.0
	신문기자	(29)	3.4	20.7	17.2	31.0	24.1	3.4	100.0
	출판사종사자	(25)	8.0	4.0	40.0	40.0	8.0	0.0	100.0
	국어교사	(25)	0.0	12.0	28.0	24.0	36.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4	26.4	18.9	26.4	17.0	1.9	100.0
	비언론인	(50)	4.0	8.0	34.0	32.0	22.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1.5	15.2	25.8	31.8	25.8	0.0	100.0
	사회과학계열	(26)	23.1	19.2	15.4	30.8	11.5	0.0	100.0
	기타	(8)	0.0	37.5	50.0	12.5	0.0	0.0	100.0

[표 5-73] 에스파냐어 규정5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4.9	12.6	40.8	25.2	16.5	100.0
■ 성 별 ■	남성	(55)	7.3	14.5	36.4	21.8	20.0	100.0
	여성	(48)	2.1	10.4	45.8	29.2	12.5	100.0
■ 연 령 ■	20대	(36)	0.0	16.7	44.4	16.7	22.2	100.0
	30대	(34)	5.9	2.9	47.1	38.2	5.9	100.0
	40대 이상	(31)	6.5	16.1	32.3	22.6	22.6	100.0
	무응답	(2)	50.0	50.0	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	29.2	41.7	12.5	8.3	100.0
	신문기자	(29)	6.9	10.3	24.1	34.5	24.1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0.0	56.0	36.0	4.0	100.0
	국어교사	(25)	0.0	12.0	44.0	16.0	2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5	18.9	32.1	24.5	17.0	100.0
	비언론인	(50)	2.0	6.0	50.0	26.0	16.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0	10.6	37.9	24.2	24.2	100.0
	사회과학계열	(26)	7.7	19.2	38.5	30.8	3.8	100.0
	기타	(8)	0.0	12.5	62.5	25.0	0.0	100.0

6-1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5-26] 이탈리아어 규정 1



[집단별 특성]

□ 전반적으로 이 규정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고, 비언론인과 인문계열 전공자에서 이해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각각 70.0%, 69.7%).

[표 5-74] 이탈리아어 규정1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68.0	32.0	100.0
■ 성 별 ■	남성	(55)	67.3	32.7	100.0
	여성	(48)	68.8	31.3	100.0
■ 연 령 ■	20대	(36)	66.7	33.3	100.0
	30대	(34)	73.5	26.5	100.0
	40대 이상	(31)	64.5	35.5	100.0
	무응답	(2)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66.7	33.3	100.0
	신문기자	(29)	65.5	34.5	100.0
	출판사종사자	(25)	72.0	28.0	100.0
	국어교사	(25)	68.0	32.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66.0	34.0	100.0
	비언론인	(50)	70.0	3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69.7	30.3	100.0
	사회과학계열	(26)	69.2	30.8	100.0
	기타	(8)	50.0	50.0	100.0

[표 5-75] 이탈리아어 규정1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3.9	10.7	25.2	32.0	28.2	100.0
■ 성 별 ■	남성	(55)	5.5	16.4	20.0	32.7	25.5	100.0
	여성	(48)	2.1	4.2	31.3	31.3	31.3	100.0
■ 연 령 ■	20대	(36)	0.0	11.1	27.8	33.3	27.8	100.0
	30대	(34)	2.9	5.9	29.4	32.4	29.4	100.0
	40대 이상	(31)	9.7	16.1	16.1	29.0	29.0	100.0
	무응답	(2)	0.0	0.0	50.0	5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	25.0	25.0	20.8	20.8	100.0
	신문기자	(29)	6.9	10.3	24.1	34.5	24.1	100.0
	출판사종사자	(25)	0.0	4.0	32.0	36.0	28.0	100.0
	국어교사	(25)	0.0	4.0	20.0	36.0	4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5	17.0	24.5	28.3	22.6	100.0
	비언론인	(50)	0.0	4.0	26.0	36.0	3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1.5	9.1	19.7	33.3	36.4	100.0
	사회과학계열	(26)	11.5	11.5	30.8	30.8	15.4	100.0
	기타	(8)	0.0	25.0	37.5	37.5	0.0	100.0

[표 5-76] 일반규정1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7.8	15.5	38.8	28.2	9.7	100.0
■ 성 별 ■	남성	(55)	10.9	20.0	29.1	25.5	14.5	100.0
	여성	(48)	4.2	10.4	50.0	31.3	4.2	100.0
■ 연 령 ■	20대	(36)	11.1	16.7	36.1	30.6	5.6	100.0
	30대	(34)	2.9	8.8	55.9	29.4	2.9	100.0
	40대 이상	(31)	9.7	22.6	22.6	22.6	22.6	100.0
	무응답	(2)	0.0	0.0	50.0	5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4.2	25.0	37.5	20.8	12.5	100.0
	신문기자	(29)	13.8	20.7	31.0	24.1	10.3	100.0
	출판사종사자	(25)	0.0	4.0	60.0	28.0	8.0	100.0
	국어교사	(25)	12.0	12.0	28.0	40.0	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4	22.6	34.0	22.6	11.3	100.0
	비언론인	(50)	6.0	8.0	44.0	34.0	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1	12.1	34.8	31.8	12.1	100.0
	사회과학계열	(26)	7.7	26.9	38.5	19.2	7.7	100.0
	기타	(8)	0.0	12.5	62.5	25.0	0.0	100.0

6-2 'z'를 '츠'로 표기한다

[그림 5-27] 이탈리아어 규정 2



[집단별 특성]

□ 인문계열 전공자에서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과 이해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각각 65.2%, 63.6%), 만족정도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전반적으로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표 5-4] 이탈리아어 규정2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42.7	57.3	100.0
■ 성 별 ■	남성	(55)	40.0	60.0	100.0
	여성	(48)	45.8	54.2	100.0
■ 연 령 ■	20대	(36)	11.1	16.7	36.1
	30대	(34)	2.9	8.8	55.9
	40대 이상	(31)	9.7	22.6	22.6
	무응답	(2)	0.0	0.0	50.0
■ 직 업 ■	아나운서	(24)	50.0	50.0	100.0
	신문기자	(29)	44.8	55.2	100.0
	출판사종사자	(25)	52.0	48.0	100.0
	국어교사	(25)	24.0	76.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47.2	52.8	100.0
	비언론인	(50)	38.0	6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4.8	65.2	100.0
	사회과학계열	(26)	61.5	38.5	100.0
	기타	(8)	50.0	50.0	100.0

[표 5-78] 이탈리아어 규정2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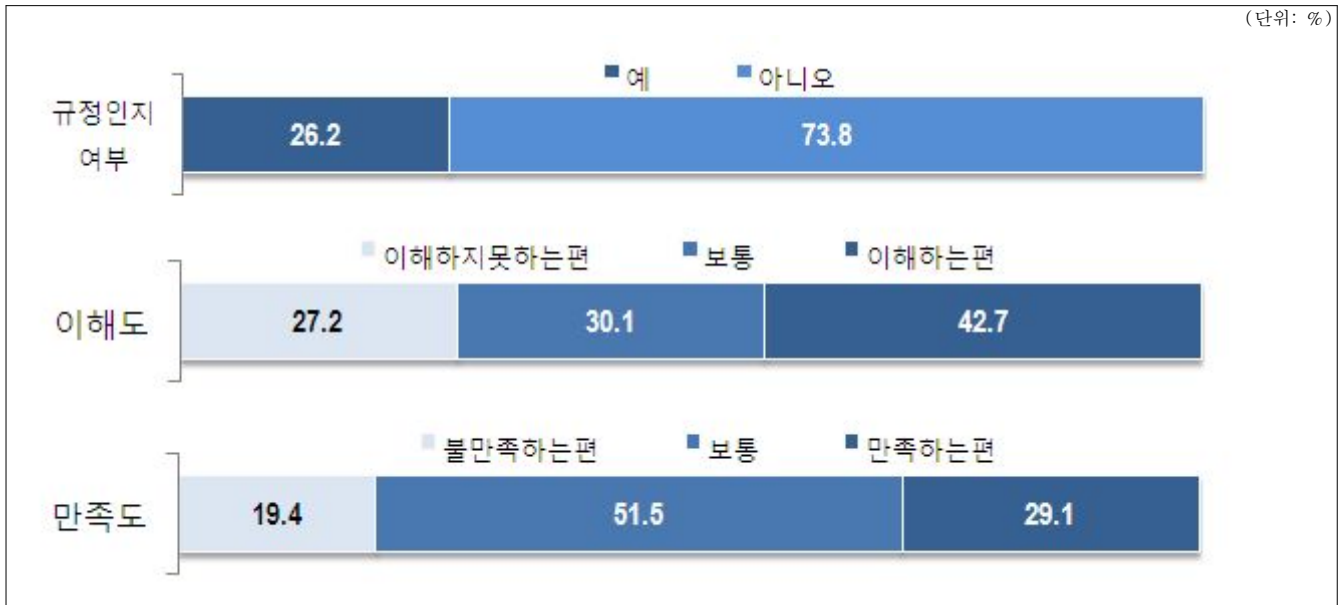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4.9	12.6	32.0	28.2	22.3	100.0
■ 성 별 ■	남성	(55)	5.5	18.2	30.9	25.5	20.0	100.0
	여성	(48)	4.2	6.3	33.3	31.3	25.0	100.0
■ 연 령 ■	20대	(36)	11.1	16.7	36.1	30.6	5.6	100.0
	30대	(34)	2.9	8.8	55.9	29.4	2.9	100.0
	40대 이상	(31)	9.7	22.6	22.6	22.6	22.6	100.0
	무응답	(2)	0.0	0.0	50.0	5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	16.7	41.7	16.7	16.7	100.0
	신문기자	(29)	6.9	17.2	20.7	34.5	20.7	100.0
	출판사종사자	(25)	0.0	8.0	44.0	28.0	20.0	100.0
	국어교사	(25)	4.0	8.0	24.0	32.0	32.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5	17.0	30.2	26.4	18.9	100.0
	비언론인	(50)	2.0	8.0	34.0	30.0	26.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0	7.6	25.8	34.8	28.8	100.0
	사회과학계열	(26)	11.5	19.2	38.5	15.4	15.4	100.0
	기타	(8)	0.0	37.5	37.5	25.0	0.0	100.0

[표 5-79] 이탈리아어 규정2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6.8	11.7	49.5	21.4	10.7	100.0
■ 성 별 ■	남성	(55)	9.1	10.9	47.3	14.5	18.2	100.0
	여성	(48)	4.2	12.5	52.1	29.2	2.1	100.0
■ 연 령 ■	20대	(36)	5.6	13.9	50.0	22.2	8.3	100.0
	30대	(34)	8.8	5.9	52.9	26.5	5.9	100.0
	40대 이상	(31)	6.5	16.1	41.9	16.1	19.4	100.0
	무응답	(2)	0.0	0.0	10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2.5	8.3	50.0	20.8	8.3	100.0
	신문기자	(29)	6.9	20.7	37.9	17.2	17.2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8.0	56.0	28.0	4.0	100.0
	국어교사	(25)	4.0	8.0	56.0	20.0	12.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4	15.1	43.4	18.9	13.2	100.0
	비언론인	(50)	4.0	8.0	56.0	24.0	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6.1	6.1	50.0	22.7	15.2	100.0
	사회과학계열	(26)	7.7	26.9	42.3	19.2	3.8	100.0
	기타	(8)	12.5	0.0	62.5	25.0	0.0	100.0

6-3 같은 자음이 겹쳤을 때에는 겹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적는다, 다만, -mm-, -nn-의 경우는 'ㅁㅁ', 'ㄴㄴ'으로 적는다.

[그림 5-28] 이탈리아어 규정 3



[집단별 특성]

□ 전반적으로 비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고, 이해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국어교사(64.0%)와 인문계열 전공자에서 높게 나타남. 만족도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50%내외였으며, 비언론인에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2.0%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5-80] 이탈리아어 규정3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26.2	73.8	100.0
■ 성 별 ■	남성	(55)	21.8	78.2	100.0
	여성	(48)	31.3	68.8	100.0
■ 연 령 ■	20대	(36)	19.4	80.6	100.0
	30대	(34)	26.5	73.5	100.0
	40대 이상	(31)	35.5	64.5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25.0	75.0	100.0
	신문기자	(29)	34.5	65.5	100.0
	출판사종사자	(25)	16.0	84.0	100.0
	국어교사	(25)	28.0	72.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0.2	69.8	100.0
	비언론인	(50)	22.0	7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28.8	71.2	100.0
	사회과학계열	(26)	23.1	76.9	100.0
	기타	(8)	25.0	75.0	100.0

[표 5-81] 이탈리아어 규정3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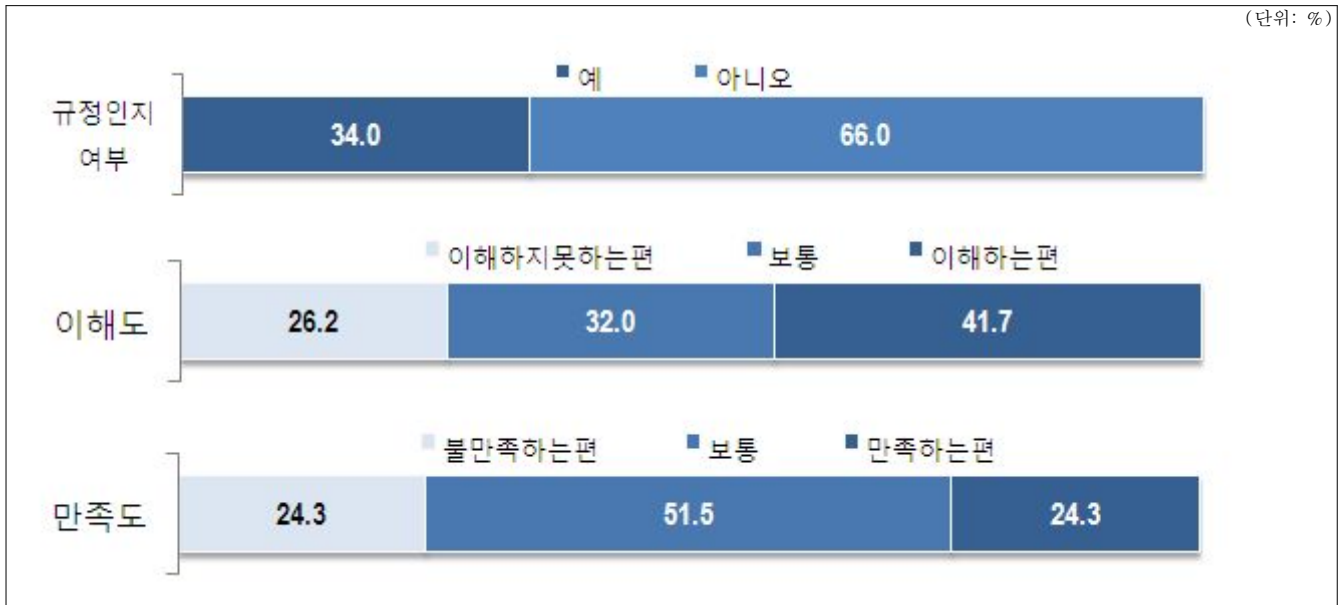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6.8	20.4	30.1	24.3	18.4	100.0
■ 성 별 ■	남성	(55)	10.9	30.9	18.2	23.6	16.4	100.0
	여성	(48)	2.1	8.3	43.8	25.0	20.8	100.0
■ 연 령 ■	20대	(36)	2.8	22.2	36.1	22.2	16.7	100.0
	30대	(34)	5.9	14.7	35.3	29.4	14.7	100.0
	40대 이상	(31)	9.7	25.8	16.1	22.6	25.8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6.7	29.2	25.0	16.7	12.5	100.0
	신문기자	(29)	3.4	27.6	13.8	34.5	20.7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16.0	60.0	12.0	8.0	100.0
	국어교사	(25)	4.0	8.0	24.0	32.0	32.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4	28.3	18.9	26.4	17.0	100.0
	비언론인	(50)	4.0	12.0	42.0	22.0	2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0	15.2	28.8	28.8	24.2	100.0
	사회과학계열	(26)	15.4	26.9	30.8	15.4	11.5	100.0
	기타	(8)	0.0	37.5	37.5	25.0	0.0	100.0

[표 5-82] 이탈리아어 규정3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5.8	13.6	51.5	16.5	12.6	100.0
■ 성 별 ■	남성	(55)	9.1	21.8	38.2	14.5	16.4	100.0
	여성	(48)	2.1	4.2	66.7	18.8	8.3	100.0
■ 연 령 ■	20대	(36)	2.8	11.1	66.7	11.1	8.3	100.0
	30대	(34)	8.8	8.8	50.0	20.6	11.8	100.0
	40대 이상	(31)	3.2	22.6	35.5	19.4	19.4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2.5	20.8	41.7	12.5	12.5	100.0
	신문기자	(29)	6.9	17.2	41.4	20.7	13.8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12.0	64.0	12.0	8.0	100.0
	국어교사	(25)	0.0	4.0	60.0	20.0	16.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4	18.9	41.5	17.0	13.2	100.0
	비언론인	(50)	2.0	8.0	62.0	16.0	1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1.5	9.1	54.5	18.2	16.7	100.0
	사회과학계열	(26)	11.5	23.1	46.2	11.5	7.7	100.0
	기타	(8)	12.5	12.5	50.0	25.0	0.0	100.0

6-4 c와 g 다음에 ia, io, iu가 올 때에는 각각 '차, 초, 추', '자, 조, 주'로 적는다.

[그림 5-29] 이탈리아어 규정 4



[집단별 특성]

□ 20대에서 비인지 비율이 높았고(77.8%), 인문계열 전공자가 이해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5-83] 이탈리아어 규정 4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34.0	66.0	100.0
■ 성 별 ■	남성	(55)	30.9	69.1	100.0
	여성	(48)	37.5	62.5	100.0
■ 연 령 ■	20대	(36)	22.2	77.8	100.0
	30대	(34)	38.2	61.8	100.0
	40대 이상	(31)	41.9	58.1	100.0
	무응답	(2)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37.5	62.5	100.0
	신문기자	(29)	34.5	65.5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0	60.0	100.0
	국어교사	(25)	24.0	76.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5.8	64.2	100.0
	비언론인	(50)	32.0	6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4.8	65.2	100.0
	사회과학계열	(26)	42.3	57.7	100.0
	기타	(8)	12.5	87.5	100.0

[표 5-84] 이탈리아어 규정 4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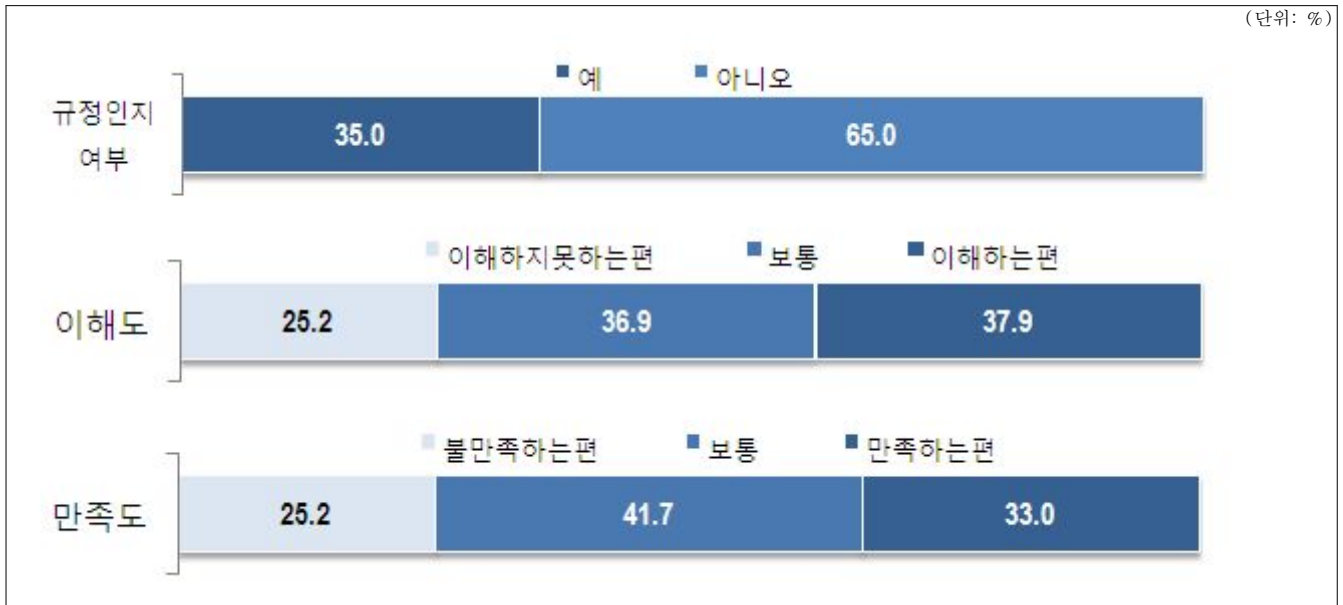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6.8	19.4	32.0	25.2	16.5	100.0
■ 성 별 ■	남성	(55)	9.1	29.1	23.6	25.5	12.7	100.0
	여성	(48)	4.2	8.3	41.7	25.0	20.8	100.0
■ 연 령 ■	20대	(36)	5.6	16.7	36.1	25.0	16.7	100.0
	30대	(34)	8.8	14.7	32.4	29.4	14.7	100.0
	40대 이상	(31)	6.5	25.8	25.8	22.6	19.4	100.0
	무응답	(2)	0.0	5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2.5	25.0	33.3	16.7	12.5	100.0
	신문기자	(29)	6.9	31.0	17.2	20.7	24.1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8.0	52.0	28.0	8.0	100.0
	국어교사	(25)	4.0	12.0	28.0	36.0	2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4	28.3	24.5	18.9	18.9	100.0
	비언론인	(50)	4.0	10.0	40.0	32.0	1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0	15.2	28.8	31.8	21.2	100.0
	사회과학계열	(26)	11.5	26.9	34.6	15.4	11.5	100.0
	기타	(8)	12.5	25.0	50.0	12.5	0.0	100.0

[표 5-85] 이탈리아어 규정 4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6.8	17.5	51.5	16.5	7.8	100.0
■ 성 별 ■	남성	(55)	10.9	25.5	38.2	16.4	9.1	100.0
	여성	(48)	2.1	8.3	66.7	16.7	6.3	100.0
■ 연 령 ■	20대	(36)	2.8	16.7	63.9	13.9	2.8	100.0
	30대	(34)	11.8	11.8	52.9	14.7	8.8	100.0
	40대 이상	(31)	6.5	22.6	35.5	22.6	12.9	100.0
	무응답	(2)	0.0	5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	20.8	50.0	12.5	8.3	100.0
	신문기자	(29)	10.3	31.0	31.0	17.2	10.3	100.0
	출판사종사자	(25)	8.0	8.0	64.0	16.0	4.0	100.0
	국어교사	(25)	0.0	8.0	64.0	20.0	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4	26.4	39.6	15.1	9.4	100.0
	비언론인	(50)	4.0	8.0	64.0	18.0	6.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4.5	10.6	54.5	19.7	10.6	100.0
	사회과학계열	(26)	7.7	30.8	42.3	15.4	3.8	100.0
	기타	(8)	12.5	25.0	62.5	0.0	0.0	100.0

6-5 이탈리아 내에서 쓰이는 낱말(이주민의 이름 등)이라도 원래 이탈리아어가 아니면 그것이 실제로 속하는 언어의 표기 원칙을 따른다.

[그림 5-30] 이탈리아어 규정 5



[집단별 특성]

□ 이 규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인지 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고, 이해정도에 있어서 보통이라는 응답은 여성이(50.0%), 만족정도에서 보통이라는 응답은 비언론인에서 높게 나타남.

[표 5-86] 이탈리아어 규정 5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35.0	65.0	100.0
■ 성 별 ■	남성	(55)	32.7	67.3	100.0
	여성	(48)	37.5	62.5	100.0
■ 연 령 ■	20대	(36)	2.8	16.7	63.9
	30대	(34)	11.8	11.8	52.9
	40대 이상	(31)	6.5	22.6	35.5
	무응답	(2)	0.0	50.0	50.0
■ 직 업 ■	아나운서	(24)	41.7	58.3	100.0
	신문기자	(29)	34.5	65.5	100.0
	출판사종사자	(25)	44.0	56.0	100.0
	국어교사	(25)	20.0	8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7.7	62.3	100.0
	비언론인	(50)	32.0	6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4.8	65.2	100.0
	사회과학계열	(26)	34.6	65.4	100.0
	기타	(8)	37.5	62.5	100.0

[표 5-87] 이탈리아어 규정 5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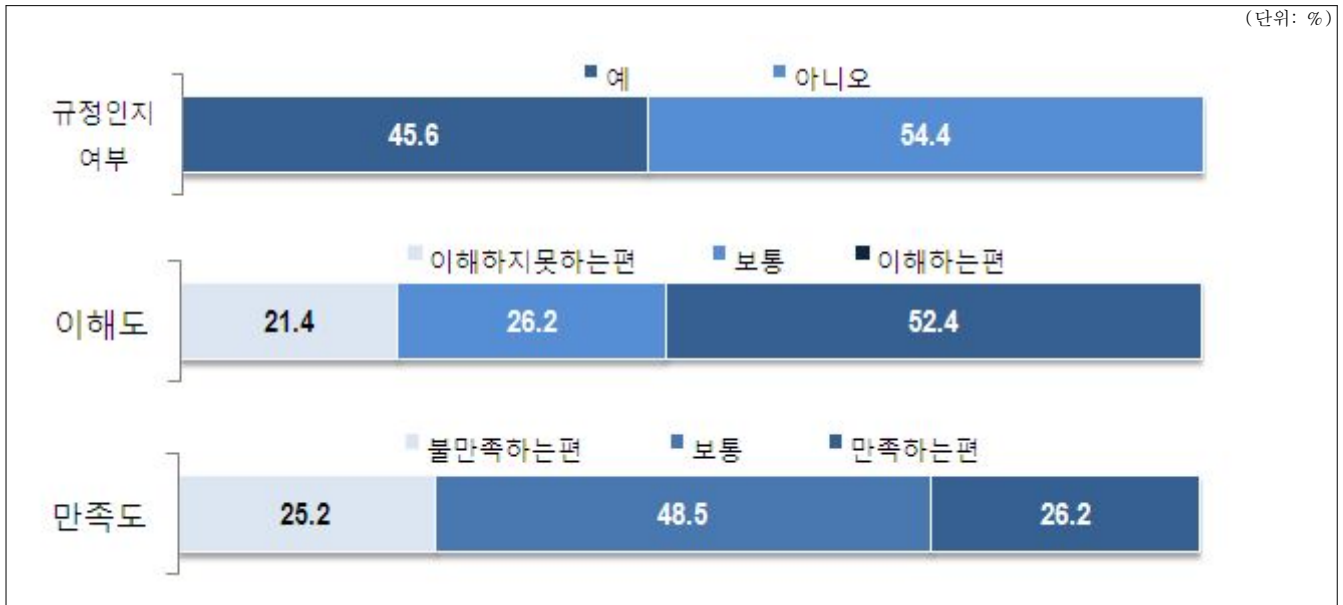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5.8	19.4	36.9	20.4	17.5	100.0
■ 성 별 ■	남성	(55)	7.3	32.7	25.5	20.0	14.5	100.0
	여성	(48)	4.2	4.2	50.0	20.8	20.8	100.0
■ 연 령 ■	20대	(36)	5.6	13.9	44.4	22.2	13.9	100.0
	30대	(34)	2.9	14.7	44.1	20.6	17.6	100.0
	40대 이상	(31)	9.7	29.0	19.4	19.4	22.6	100.0
	무응답	(2)	0.0	5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	33.3	25.0	16.7	16.7	100.0
	신문기자	(29)	10.3	24.1	31.0	20.7	13.8	100.0
	출판사종사자	(25)	0.0	12.0	56.0	16.0	16.0	100.0
	국어교사	(25)	4.0	8.0	36.0	28.0	2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4	28.3	28.3	18.9	15.1	100.0
	비언론인	(50)	2.0	10.0	46.0	22.0	2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0	13.6	36.4	25.8	21.2	100.0
	사회과학계열	(26)	11.5	26.9	34.6	11.5	15.4	100.0
	기타	(8)	12.5	37.5	37.5	12.5	0.0	100.0

[표 5-88] 이탈리아어 규정 5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8.7	16.5	41.7	21.4	11.7	100.0
■ 성 별 ■	남성	(55)	10.9	21.8	34.5	18.2	14.5	100.0
	여성	(48)	6.3	10.4	50.0	25.0	8.3	100.0
■ 연 령 ■	20대	(36)	5.6	19.4	52.8	13.9	8.3	100.0
	30대	(34)	11.8	8.8	41.2	32.4	5.9	100.0
	40대 이상	(31)	6.5	22.6	29.0	19.4	22.6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2.5	25.0	25.0	29.2	8.3	100.0
	신문기자	(29)	10.3	27.6	31.0	13.8	17.2	100.0
	출판사종사자	(25)	8.0	4.0	64.0	20.0	4.0	100.0
	국어교사	(25)	4.0	8.0	48.0	24.0	16.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11.3	26.4	28.3	20.8	13.2	100.0
	비언론인	(50)	6.0	6.0	56.0	22.0	1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4.5	15.2	40.9	22.7	16.7	100.0
	사회과학계열	(26)	15.4	15.4	42.3	23.1	3.8	100.0
	기타	(8)	12.5	25.0	50.0	12.5	0.0	100.0

7-1 일본어 어두의 유성과열음(가, ㄲ)과 무성과열음(카, ㅋ)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한국어 평음(가, 다)으로 표기한다.

[그림 5-31] 일본어 규정 1



[집단별 특성]

□ 이 규정에 대해 이해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인문계열 전공자가 62.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만족도의 경우 비언론인의 60%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언론인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5-90] 일본어 규정 1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45.6	54.4	100.0
■ 성 별 ■	남성	(55)	45.5	54.5	100.0
	여성	(48)	45.8	54.2	100.0
■ 연 령 ■	20대	(36)	41.7	58.3	100.0
	30대	(34)	50.0	50.0	100.0
	40대 이상	(31)	48.4	51.6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33.3	66.7	100.0
	신문기자	(29)	58.6	41.4	100.0
	출판사종사자	(25)	52.0	48.0	100.0
	국어교사	(25)	36.0	6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47.2	52.8	100.0
	비언론인	(50)	44.0	56.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48.5	5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46.2	53.8	100.0
	기타	(8)	25.0	75.0	100.0

[표 5-91] 일본어 규정 1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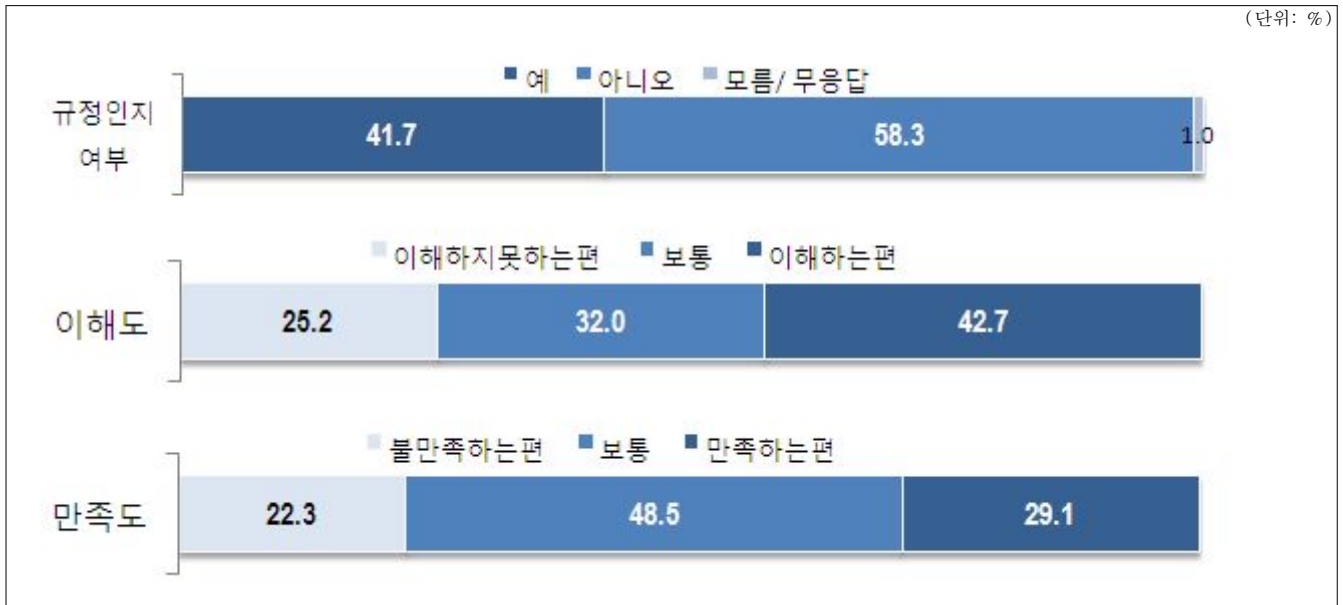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4.9	16.5	26.2	26.2	26.2	100.0
■ 성 별 ■	남성	(55)	9.1	20.0	21.8	27.3	21.8	100.0
	여성	(48)	0.0	12.5	31.3	25.0	31.3	100.0
■ 연 령 ■	20대	(36)	2.8	16.7	33.3	22.2	25.0	100.0
	30대	(34)	2.9	14.7	32.4	26.5	23.5	100.0
	40대 이상	(31)	9.7	16.1	9.7	32.3	32.3	100.0
	무응답	(2)	0.0	5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	37.5	16.7	20.8	16.7	100.0
	신문기자	(29)	6.9	10.3	20.7	27.6	34.5	100.0
	출판사종사자	(25)	0.0	16.0	48.0	20.0	16.0	100.0
	국어교사	(25)	4.0	4.0	20.0	36.0	36.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5	22.6	18.9	24.5	26.4	100.0
	비언론인	(50)	2.0	10.0	34.0	28.0	26.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4.5	10.6	22.7	28.8	33.3	100.0
	사회과학계열	(26)	7.7	30.8	23.1	19.2	19.2	100.0
	기타	(8)	0.0	25.0	50.0	25.0	0.0	100.0

[표 5-92] 일본어 규정 1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8.7	16.5	48.5	17.5	8.7	100.0
■ 성 별 ■	남성	(55)	10.9	18.2	41.8	18.2	10.9	100.0
	여성	(48)	6.3	14.6	56.3	16.7	6.3	100.0
■ 연 령 ■	20대	(36)	8.3	13.9	58.3	16.7	2.8	100.0
	30대	(34)	5.9	14.7	58.8	11.8	8.8	100.0
	40대 이상	(31)	12.9	19.4	25.8	25.8	16.1	100.0
	무응답	(2)	0.0	5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	25.0	41.7	12.5	12.5	100.0
	신문기자	(29)	10.3	27.6	34.5	20.7	6.9	100.0
	출판사종사자	(25)	8.0	8.0	72.0	8.0	4.0	100.0
	국어교사	(25)	8.0	4.0	48.0	28.0	12.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4	26.4	37.7	17.0	9.4	100.0
	비언론인	(50)	8.0	6.0	60.0	18.0	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10.6	9.1	50.0	21.2	9.1	100.0
	사회과학계열	(26)	7.7	38.5	34.6	7.7	11.5	100.0
	기타	(8)	0.0	12.5	62.5	25.0	0.0	100.0

7-2 일본어 ‘ジャ, ジュ, ジョ’를 ‘자, 주, 조’로, ‘チャ, チュ, チョ’를 ‘차, 추, 초’로 표기한다.

[그림 5-32] 일본어 규정 2



[집단별 특성]

□ 출판사 교열 관계자에서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고(64.0%), 이해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인문계열 전공자에서 51.5% 비교적 높게 나타남. 만족도의 경우 비언론인의 62.0%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다른 집단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5-93] 일본어 규정 2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41.7	58.3	100.0
■ 성 별 ■	남성	(55)	38.2	61.8	100.0
	여성	(48)	45.8	54.2	100.0
■ 연 령 ■	20대	(36)	33.3	66.7	100.0
	30대	(34)	55.9	44.1	100.0
	40대 이상	(31)	38.7	61.3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29.2	70.8	100.0
	신문기자	(29)	48.3	51.7	100.0
	출판사종사자	(25)	64.0	36.0	100.0
	국어교사	(25)	24.0	76.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9.6	60.4	100.0
	비언론인	(50)	44.0	56.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47.0	53.0	100.0
	사회과학계열	(26)	38.5	61.5	100.0
	기타	(8)	25.0	75.0	100.0

[표 5-94] 일본어 규정 2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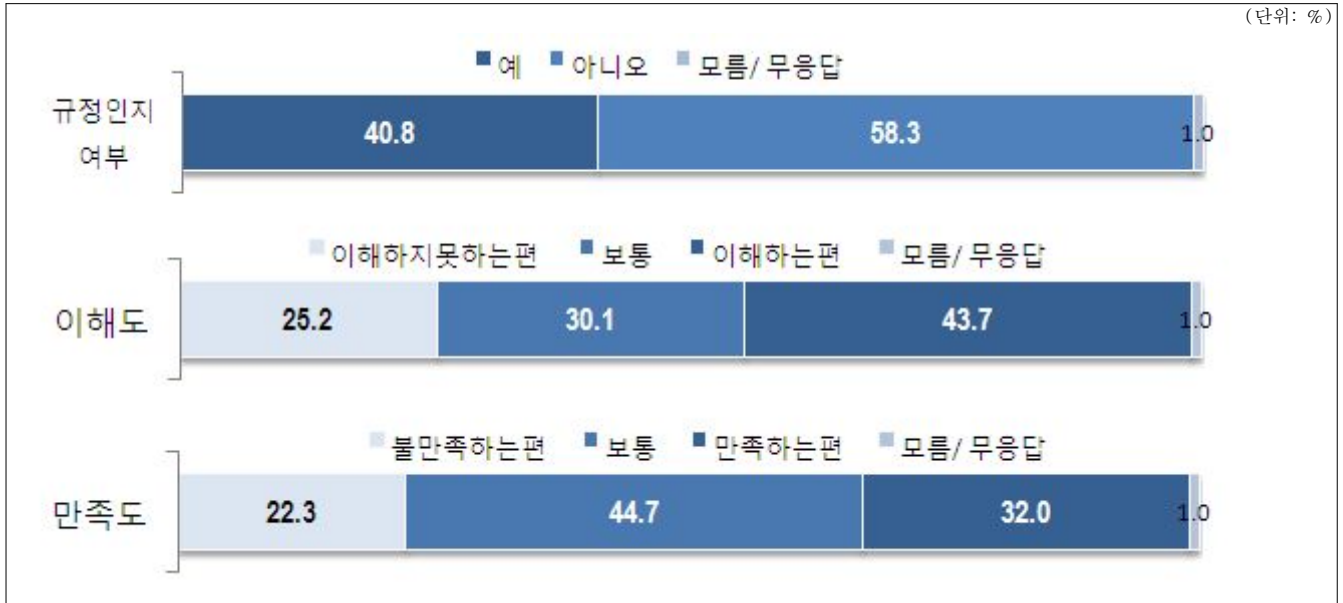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8.7	16.5	32.0	20.4	22.3	100.0
■ 성 별 ■	남성	(55)	12.7	20.0	29.1	16.4	21.8	100.0
	여성	(48)	4.2	12.5	35.4	25.0	22.9	100.0
■ 연 령 ■	20대	(36)	11.1	13.9	41.7	13.9	19.4	100.0
	30대	(34)	5.9	14.7	32.4	29.4	17.6	100.0
	40대 이상	(31)	6.5	22.6	19.4	19.4	32.3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2.5	41.7	20.8	8.3	16.7	100.0
	신문기자	(29)	6.9	10.3	20.7	27.6	34.5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12.0	52.0	20.0	12.0	100.0
	국어교사	(25)	12.0	4.0	36.0	24.0	2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4	24.5	20.8	18.9	26.4	100.0
	비언론인	(50)	8.0	8.0	44.0	22.0	1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6.1	10.6	31.8	22.7	28.8	100.0
	사회과학계열	(26)	11.5	30.8	26.9	15.4	15.4	100.0
	기타	(8)	12.5	25.0	37.5	25.0	0.0	100.0

[표 5-95] 일본어 규정 2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7.8	14.6	48.5	20.4	8.7	100.0
■ 성 별 ■	남성	(55)	14.5	18.2	34.5	21.8	10.9	100.0
	여성	(48)	0.0	10.4	64.6	18.8	6.3	100.0
■ 연 령 ■	20대	(36)	0.0	22.2	55.6	16.7	5.6	100.0
	30대	(34)	5.9	5.9	58.8	20.6	8.8	100.0
	40대 이상	(31)	16.1	16.1	29.0	25.8	12.9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2.5	25.0	37.5	12.5	12.5	100.0
	신문기자	(29)	13.8	13.8	34.5	27.6	10.3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12.0	64.0	12.0	8.0	100.0
	국어교사	(25)	0.0	8.0	60.0	28.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13.2	18.9	35.8	20.8	11.3	100.0
	비언론인	(50)	2.0	10.0	62.0	20.0	6.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7.6	9.1	48.5	24.2	10.6	100.0
	사회과학계열	(26)	11.5	26.9	42.3	11.5	7.7	100.0
	기타	(8)	0.0	25.0	50.0	25.0	0.0	100.0

7-3 일본어 ‘っ’를 ‘쓰’로 표기한다.

[그림 5-33] 일본어 규정 3



[집단별 특성]

□ 이해도 및 만족도와 관련하여 비언론인에서 보통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각각 42.0%, 60.0%)

[표 5-95] 일본어 규정 3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무응답	계
■ 전 체 ■		(103)	40.8	58.3	1.0	100.0
■ 성 별 ■	남성	(55)	40.0	58.2	1.8	100.0
	여성	(48)	41.7	58.3	0.0	100.0
■ 연 령 ■	20대	(36)	36.1	63.9	0.0	100.0
	30대	(34)	41.2	58.8	0.0	100.0
	40대 이상	(31)	48.4	48.4	3.2	100.0
	무응답	(2)	0.0	10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25.0	70.8	4.2	100.0
	신문기자	(29)	62.1	37.9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44.0	56.0	0.0	100.0
	국어교사	(25)	28.0	72.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45.3	52.8	1.9	100.0
	비언론인	(50)	36.0	64.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40.9	59.1	0.0	100.0
	사회과학계열	(26)	50.0	46.2	3.8	100.0
	기타	(8)	25.0	75.0	0.0	100.0

[표 5-96] 일본어 규정 3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8.7	16.5	30.1	23.3	20.4	1.0	100.0
■ 성 별 ■	남성	(55)	12.7	20.0	27.3	18.2	20.0	1.8	100.0
	여성	(48)	4.2	12.5	33.3	29.2	20.8	0.0	100.0
■ 연 령 ■	20대	(36)	11.1	16.7	33.3	25.0	13.9	0.0	100.0
	30대	(34)	5.9	20.6	32.4	20.6	20.6	0.0	100.0
	40대 이상	(31)	6.5	12.9	22.6	25.8	29.0	3.2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2.5	37.5	20.8	8.3	16.7	4.2	100.0
	신문기자	(29)	6.9	6.9	17.2	37.9	31.0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20.0	52.0	12.0	12.0	0.0	100.0
	국어교사	(25)	12.0	4.0	32.0	32.0	20.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4	20.8	18.9	24.5	24.5	1.9	100.0
	비언론인	(50)	8.0	12.0	42.0	22.0	16.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6.1	13.6	28.8	25.8	25.8	0.0	100.0
	사회과학계열	(26)	11.5	23.1	26.9	19.2	15.4	3.8	100.0
	기타	(8)	12.5	25.0	37.5	25.0	0.0	0.0	100.0

[표 5-97] 일본어 규정 3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5.8	16.5	44.7	22.3	9.7	1.0	100.0
■ 성 별 ■	남성	(55)	9.1	20.0	36.4	18.2	14.5	1.8	100.0
	여성	(48)	2.1	12.5	54.2	27.1	4.2	0.0	100.0
■ 연 령 ■	20대	(36)	2.8	22.2	50.0	22.2	2.8	0.0	100.0
	30대	(34)	2.9	8.8	52.9	23.5	11.8	0.0	100.0
	40대 이상	(31)	9.7	19.4	29.0	22.6	16.1	3.2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	29.2	33.3	8.3	16.7	4.2	100.0
	신문기자	(29)	10.3	17.2	27.6	34.5	10.3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12.0	60.0	20.0	4.0	0.0	100.0
	국어교사	(25)	0.0	8.0	60.0	24.0	8.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4	22.6	30.2	22.6	13.2	1.9	100.0
	비언론인	(50)	2.0	10.0	60.0	22.0	6.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4.5	13.6	45.5	25.8	10.6	0.0	100.0
	사회과학계열	(26)	11.5	23.1	38.5	15.4	7.7	3.8	100.0
	기타	(8)	0.0	25.0	50.0	12.5	12.5	0.0	100.0

7-4 일본어의 우(우)단음의 모음에 대해서 ‘う, く, む, ふ, む, る’는 ‘우, 구, 누, 후, 무, 루’처럼 ‘ㄱ’로 표기하고 ‘스, 즈, ツ’는 ‘스, 즈, 쓰’처럼 ‘ㄴ’로 표기한다.

[그림 5-34] 일본어 규정 4



[집단별 특성]

□ 전반적으로 비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이해도의 경우 비언론인의 보통이라는 응답이 48.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5-98] 일본어 규정 4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37.9	62.1	100.0
■ 성 별 ■	남성	(55)	30.9	69.1	100.0
	여성	(48)	45.8	54.2	100.0
■ 연 령 ■	20대	(36)	2.8	22.2	50.0
	30대	(34)	2.9	8.8	52.9
	40대 이상	(31)	9.7	19.4	29.0
	무응답	(2)	50.0	0.0	50.0
■ 직 업 ■	아나운서	(24)	25.0	75.0	100.0
	신문기자	(29)	55.2	44.8	100.0
	출판사종사자	(25)	48.0	52.0	100.0
	국어교사	(25)	20.0	8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41.5	58.5	100.0
	비언론인	(50)	34.0	66.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43.9	56.1	100.0
	사회과학계열	(26)	34.6	65.4	100.0
	기타	(8)	12.5	87.5	100.0

[표 5-99] 일본어 규정 4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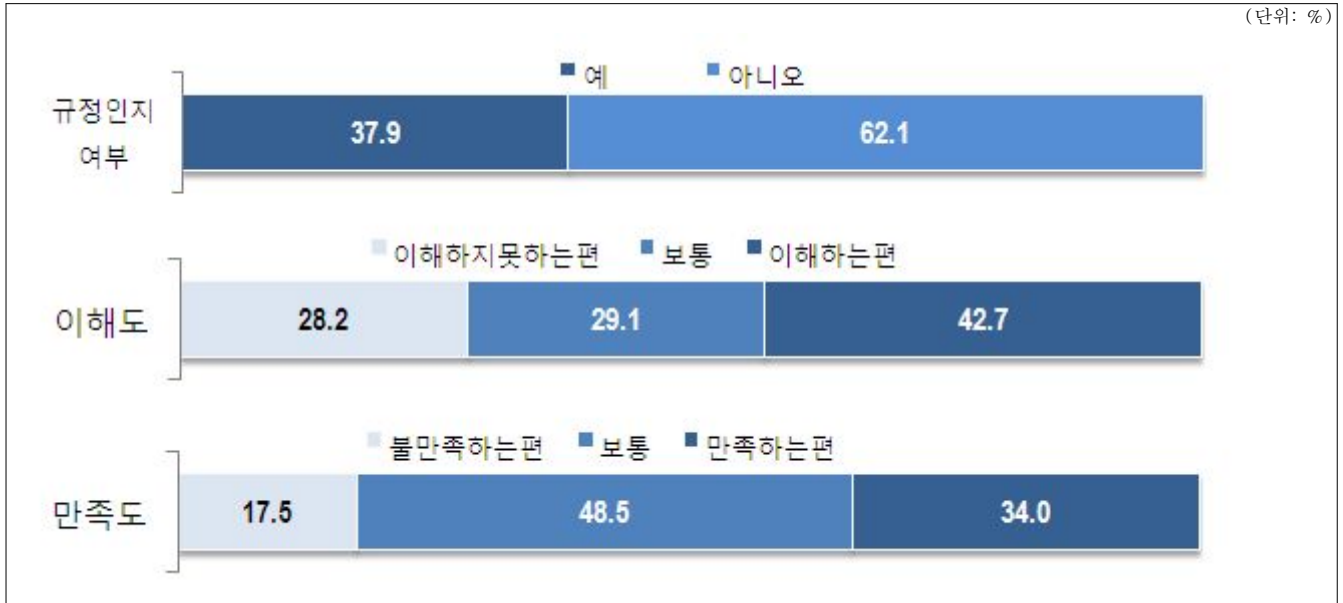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9.7	18.4	33.0	18.4	20.4	100.0
■ 성 별 ■	남성	(55)	14.5	23.6	29.1	10.9	21.8	100.0
	여성	(48)	4.2	12.5	37.5	27.1	18.8	100.0
■ 연 령 ■	20대	(36)	13.9	19.4	33.3	19.4	13.9	100.0
	30대	(34)	2.9	14.7	44.1	17.6	20.6	100.0
	40대 이상	(31)	9.7	22.6	19.4	19.4	29.0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20.8	33.3	20.8	4.2	20.8	100.0
	신문기자	(29)	6.9	13.8	17.2	31.0	31.0	100.0
	출판사종사자	(25)	0.0	12.0	60.0	16.0	12.0	100.0
	국어교사	(25)	12.0	16.0	36.0	20.0	16.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13.2	22.6	18.9	18.9	26.4	100.0
	비언론인	(50)	6.0	14.0	48.0	18.0	1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7.6	16.7	30.3	21.2	24.2	100.0
	사회과학계열	(26)	11.5	26.9	30.8	15.4	15.4	100.0
	기타	(8)	25.0	12.5	37.5	12.5	12.5	100.0

[표 5-100] 일본어 규정 4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5.8	10.7	50.5	19.4	13.6	100.0
■ 성 별 ■	남성	(55)	10.9	10.9	43.6	16.4	18.2	100.0
	여성	(48)	0.0	10.4	58.3	22.9	8.3	100.0
■ 연 령 ■	20대	(36)	2.8	13.9	58.3	16.7	8.3	100.0
	30대	(34)	2.9	8.8	58.8	17.6	11.8	100.0
	40대 이상	(31)	9.7	9.7	32.3	25.8	22.6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6.7	20.8	37.5	4.2	20.8	100.0
	신문기자	(29)	6.9	13.8	27.6	34.5	17.2	100.0
	출판사종사자	(25)	0.0	4.0	68.0	24.0	4.0	100.0
	국어교사	(25)	0.0	4.0	72.0	12.0	12.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11.3	17.0	32.1	20.8	18.9	100.0
	비언론인	(50)	0.0	4.0	70.0	18.0	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0	7.6	51.5	22.7	15.2	100.0
	사회과학계열	(26)	11.5	15.4	50.0	11.5	11.5	100.0
	기타	(8)	12.5	25.0	37.5	12.5	12.5	100.0

7-5 일본어 축음(ッ)은 받침 '스'으로, 발음(シ)은 받침 '니'으로 표기한다.

[그림 5-35] 일본어 규정 5



[집단별 특성]

□ 전반적으로 비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고, 만족정도의 경우 비언론인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5-101] 일본어 규정 5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37.9	62.1	100.0
■ 성 별 ■	남성	(55)	30.9	69.1	100.0
	여성	(48)	45.8	54.2	100.0
■ 연 령 ■	20대	(36)	30.6	69.4	100.0
	30대	(34)	44.1	55.9	100.0
	40대 이상	(31)	41.9	58.1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25.0	75.0	100.0
	신문기자	(29)	58.6	41.4	100.0
	출판사종사자	(25)	44.0	56.0	100.0
	국어교사	(25)	20.0	8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43.4	56.6	100.0
	비언론인	(50)	32.0	6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9.4	60.6	100.0
	사회과학계열	(26)	46.2	53.8	100.0
	기타	(8)	12.5	87.5	100.0

[표 5-102] 일본어 규정 5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8.7	19.4	29.1	24.3	18.4	100.0
■ 성 별 ■	남성	(55)	12.7	27.3	21.8	18.2	20.0	100.0
	여성	(48)	4.2	10.4	37.5	31.3	16.7	100.0
■ 연 령 ■	20대	(36)	11.1	22.2	30.6	22.2	13.9	100.0
	30대	(34)	5.9	17.6	32.4	26.5	17.6	100.0
	40대 이상	(31)	6.5	19.4	22.6	25.8	25.8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2.5	41.7	16.7	8.3	20.8	100.0
	신문기자	(29)	6.9	10.3	17.2	37.9	27.6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12.0	56.0	16.0	12.0	100.0
	국어교사	(25)	12.0	16.0	28.0	32.0	12.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4	24.5	17.0	24.5	24.5	100.0
	비언론인	(50)	8.0	14.0	42.0	24.0	1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6.1	18.2	25.8	28.8	21.2	100.0
	사회과학계열	(26)	11.5	23.1	26.9	23.1	15.4	100.0
	기타	(8)	12.5	25.0	50.0	0.0	12.5	100.0

[표 5-103] 일본어 규정 5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5.8	11.7	48.5	23.3	10.7	100.0
■ 성 별 ■	남성	(55)	10.9	12.7	40.0	21.8	14.5	100.0
	여성	(48)	0.0	10.4	58.3	25.0	6.3	100.0
■ 연 령 ■	20대	(36)	2.8	19.4	55.6	13.9	8.3	100.0
	30대	(34)	2.9	8.8	52.9	23.5	11.8	100.0
	40대 이상	(31)	9.7	6.5	35.5	35.5	12.9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6.7	20.8	29.2	12.5	20.8	100.0
	신문기자	(29)	6.9	6.9	34.5	41.4	10.3	100.0
	출판사종사자	(25)	0.0	8.0	72.0	12.0	8.0	100.0
	국어교사	(25)	0.0	12.0	60.0	24.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11.3	13.2	32.1	28.3	15.1	100.0
	비언론인	(50)	0.0	10.0	66.0	18.0	6.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0	10.6	50.0	25.8	10.6	100.0
	사회과학계열	(26)	11.5	15.4	38.5	23.1	11.5	100.0
	기타	(8)	12.5	12.5	62.5	0.0	12.5	100.0

7-6 일본어의 장모음을 표기하지 않는다.

[그림 5-36] 일본어 규정 6



[집단별 특성]

□ 아나운서 직종에서 비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고(62.5%), 인문계열 전공자에서 이해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60.6%).

[표 5-104] 일본어 규정 6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56.3	43.7	100.0
■ 성 별 ■	남성	(55)	49.1	50.9	100.0
	여성	(48)	64.6	35.4	100.0
■ 연 령 ■	20대	(36)	58.3	41.7	100.0
	30대	(34)	61.8	38.2	100.0
	40대 이상	(31)	51.6	48.4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37.5	62.5	100.0
	신문기자	(29)	62.1	37.9	100.0
	출판사종사자	(25)	76.0	24.0	100.0
	국어교사	(25)	48.0	52.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50.9	49.1	100.0
	비언론인	(50)	62.0	38.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62.1	37.9	100.0
	사회과학계열	(26)	53.8	46.2	100.0
	기타	(8)	25.0	75.0	100.0

[표 5-105] 일본어 규정 6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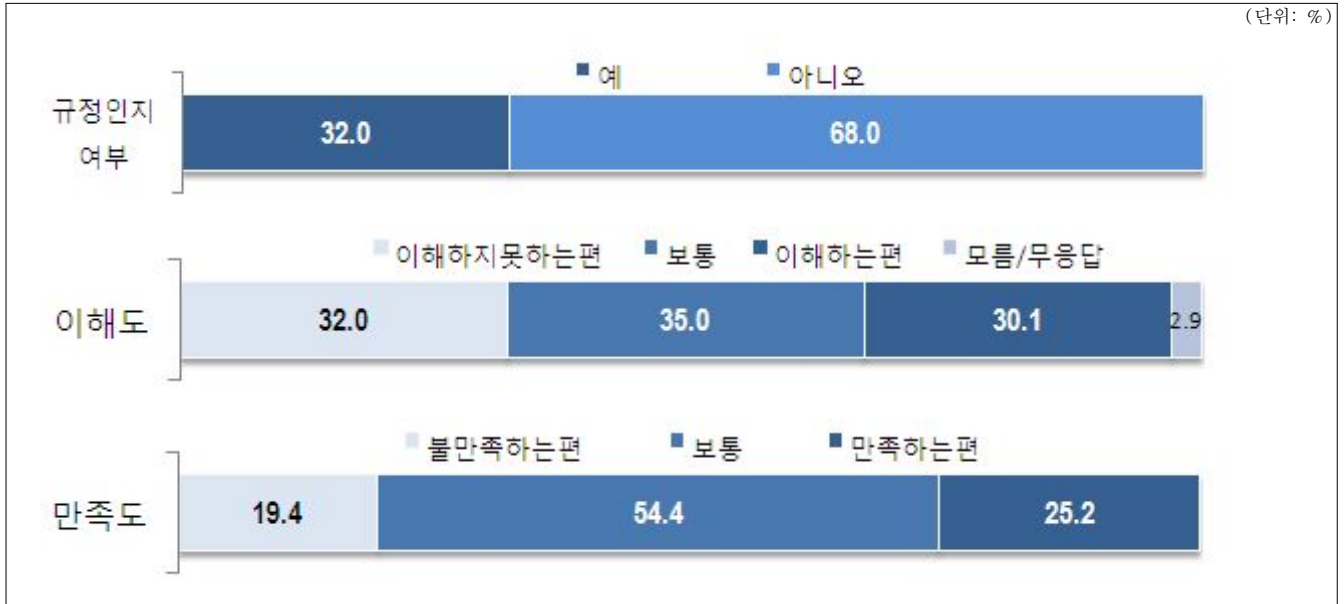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6.8	13.6	28.2	20.4	30.1	1.0	100.0
■ 성 별 ■	남성	(55)	10.9	20.0	25.5	14.5	27.3	1.8	100.0
	여성	(48)	2.1	6.3	31.3	27.1	33.3	0.0	100.0
■ 연 령 ■	20대	(36)	5.6	11.1	33.3	16.7	33.3	0.0	100.0
	30대	(34)	2.9	14.7	32.4	23.5	26.5	0.0	100.0
	40대 이상	(31)	9.7	16.1	16.1	22.6	32.3	3.2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20.8	20.8	20.8	12.5	25.0	0.0	100.0
	신문기자	(29)	6.9	13.8	17.2	31.0	27.6	3.4	100.0
	출판사종사자	(25)	0.0	12.0	56.0	20.0	12.0	0.0	100.0
	국어교사	(25)	0.0	8.0	20.0	16.0	56.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13.2	17.0	18.9	22.6	26.4	1.9	100.0
	비언론인	(50)	0.0	10.0	38.0	18.0	34.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4.5	9.1	24.2	21.2	39.4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11.5	23.1	26.9	23.1	15.4	0.0	100.0
	기타	(8)	12.5	25.0	37.5	12.5	12.5	0.0	100.0

[표 5-106] 일본어 규정 6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4.9	18.4	39.8	19.4	17.5	100.0
■ 성 별 ■	남성	(55)	7.3	23.6	32.7	12.7	23.6	100.0
	여성	(48)	2.1	12.5	47.9	27.1	10.4	100.0
■ 연 령 ■	20대	(36)	5.6	25.0	36.1	16.7	16.7	100.0
	30대	(34)	0.0	14.7	52.9	20.6	11.8	100.0
	40대 이상	(31)	6.5	16.1	29.0	22.6	25.8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8.3	25.0	33.3	12.5	20.8	100.0
	신문기자	(29)	6.9	17.2	34.5	24.1	17.2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20.0	52.0	20.0	4.0	100.0
	국어교사	(25)	0.0	12.0	40.0	20.0	28.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7.5	20.8	34.0	18.9	18.9	100.0
	비언론인	(50)	2.0	16.0	46.0	20.0	16.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0	18.2	36.4	19.7	22.7	100.0
	사회과학계열	(26)	7.7	19.2	46.2	19.2	7.7	100.0
	기타	(8)	12.5	12.5	50.0	12.5	12.5	100.0

8-1	대조표 (정보)	한어병음 자모		한글	
		j	sh[shi]	ㅈ	ㅅ[스]
		q	z[zi]	ㅊ	ㅆ[쯔]
		x	c[ci]	ㅅ	ㅊ[츠]
		zh[zhi]	s[si]	ㅈ[즈]	ㅆ[쯔]
		ch[chi]		ㅊ[츠]	

[그림 5-37] 중국어 규정 1



[집단별 특성]

□ 인문계열 전공자에서 이해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았고(37.9%), 만족도의 경우 비언론인 직업군에서 66.0%로 높게 나타남.

[표 5-107] 중국어 규정 1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32.0	68.0	100.0
■ 성 별 ■	남성	(55)	32.7	67.3	100.0
	여성	(48)	31.3	68.8	100.0
■ 연 령 ■	20대	(36)	36.1	63.9	100.0
	30대	(34)	26.5	73.5	100.0
	40대 이상	(31)	32.3	67.7	100.0
	무응답	(2)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20.8	79.2	100.0
	신문기자	(29)	44.8	55.2	100.0
	출판사종사자	(25)	36.0	64.0	100.0
	국어교사	(25)	24.0	76.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4.0	66.0	100.0
	비언론인	(50)	30.0	7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6.4	63.6	100.0
	사회과학계열	(26)	30.8	69.2	100.0
	기타	(8)	12.5	87.5	100.0

[표 5-108] 중국어 규정 1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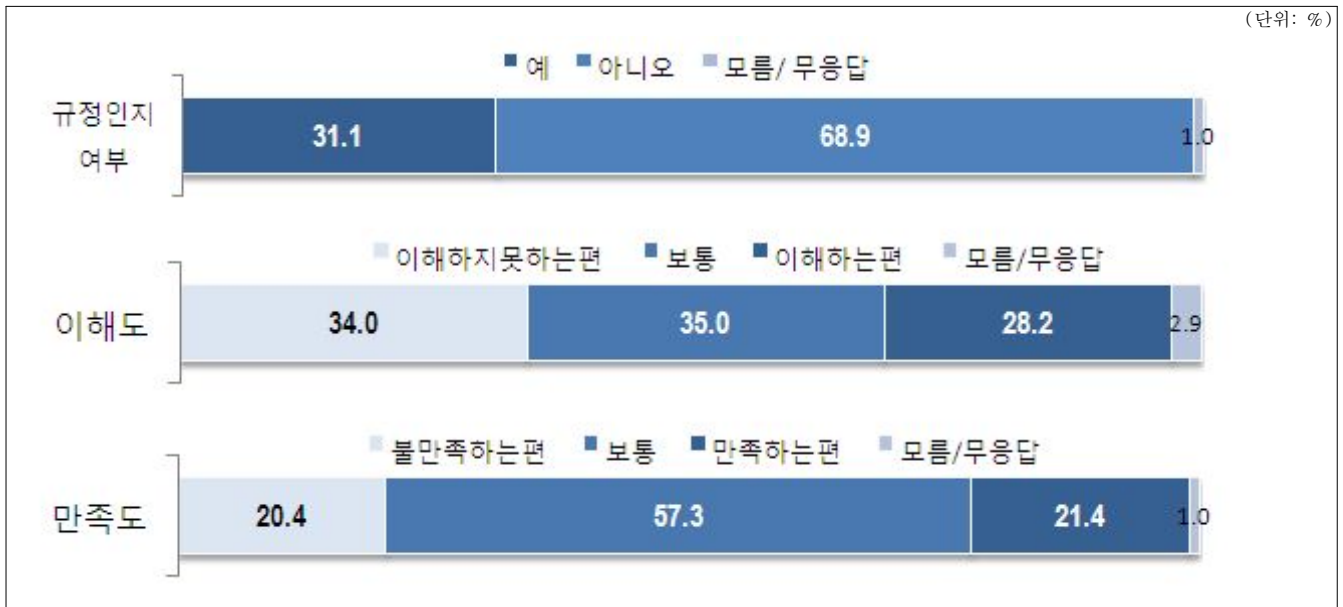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7.8	24.3	35.0	13.6	16.5	2.9	100.0
■ 성 별 ■	남성	(55)	10.9	25.5	25.5	18.2	14.5	5.5	100.0
	여성	(48)	4.2	22.9	45.8	8.3	18.8	0.0	100.0
■ 연 령 ■	20대	(36)	2.8	22.2	41.7	8.3	22.2	2.8	100.0
	30대	(34)	11.8	26.5	38.2	14.7	8.8	0.0	100.0
	40대 이상	(31)	9.7	25.8	19.4	19.4	19.4	6.5	100.0
	무응답	(2)	0.0	0.0	100.0	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6.7	33.3	33.3	4.2	8.3	4.2	100.0
	신문기자	(29)	6.9	17.2	31.0	20.7	17.2	6.9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28.0	48.0	8.0	12.0	0.0	100.0
	국어교사	(25)	4.0	20.0	28.0	20.0	28.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11.3	24.5	32.1	13.2	13.2	5.7	100.0
	비언론인	(50)	4.0	24.0	38.0	14.0	20.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4.5	21.2	31.8	15.2	22.7	4.5	100.0
	사회과학계열	(26)	19.2	26.9	34.6	11.5	7.7	0.0	100.0
	기타	(8)	0.0	50.0	50.0	0.0	0.0	0.0	100.0

[표 5-109] 중국어 규정 1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5.8	13.6	54.4	19.4	5.8	1.0	100.0
■ 성 별 ■	남성	(55)	9.1	18.2	38.2	23.6	9.1	1.8	100.0
	여성	(48)	2.1	8.3	72.9	14.6	2.1	0.0	100.0
■ 연 령 ■	20대	(36)	5.6	8.3	61.1	16.7	5.6	2.8	100.0
	30대	(34)	5.9	11.8	67.6	11.8	2.9	0.0	100.0
	40대 이상	(31)	6.5	19.4	32.3	32.3	9.7	0.0	100.0
	무응답	(2)	0.0	50.0	50.0	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6.7	20.8	45.8	8.3	8.3	0.0	100.0
	신문기자	(29)	6.9	13.8	41.4	27.6	6.9	3.4	100.0
	출판사종사자	(25)	0.0	12.0	76.0	8.0	4.0	0.0	100.0
	국어교사	(25)	0.0	8.0	56.0	32.0	4.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11.3	17.0	43.4	18.9	7.5	1.9	100.0
	비언론인	(50)	0.0	10.0	66.0	20.0	4.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1.5	9.1	54.5	25.8	7.6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11.5	23.1	53.8	7.7	3.8	0.0	100.0
	기타	(8)	25.0	12.5	62.5	0.0	0.0	0.0	100.0

8-2	대조표 (운모)	한어병음 자모		한글	
		단운모 e	yan(ian)	어	엔
		단운모 wu(u)	wei(ui)	우	웨이(우이)
		단운모 yu(u)	weng(ong)	위	윙(옹)
		ou	yuan(uan)	어우	위안
		ya(ia)		야	
		you(iu)		유	

[그림 5-38] 중국어 규정 2



[집단별 특성]

□ 전반적으로 이 규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만족도의 경우 비언론인 직업군에서 보통이라는 응답이 70.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5-110] 중국어 규정 2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31.1	68.9	100.0
■ 성 별 ■	남성	(55)	30.9	69.1	100.0
	여성	(48)	31.3	68.8	100.0
■ 연 령 ■	20대	(36)	33.3	66.7	100.0
	30대	(34)	26.5	73.5	100.0
	40대 이상	(31)	32.3	67.7	100.0
	무응답	(2)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29.2	70.8	100.0
	신문기자	(29)	41.4	58.6	100.0
	출판사종사자	(25)	32.0	68.0	100.0
	국어교사	(25)	20.0	8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5.8	64.2	100.0
	비언론인	(50)	26.0	7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6.4	63.6	100.0
	사회과학계열	(26)	26.9	73.1	100.0
	기타	(8)	12.5	87.5	100.0

[표 5-111] 중국어 규정 2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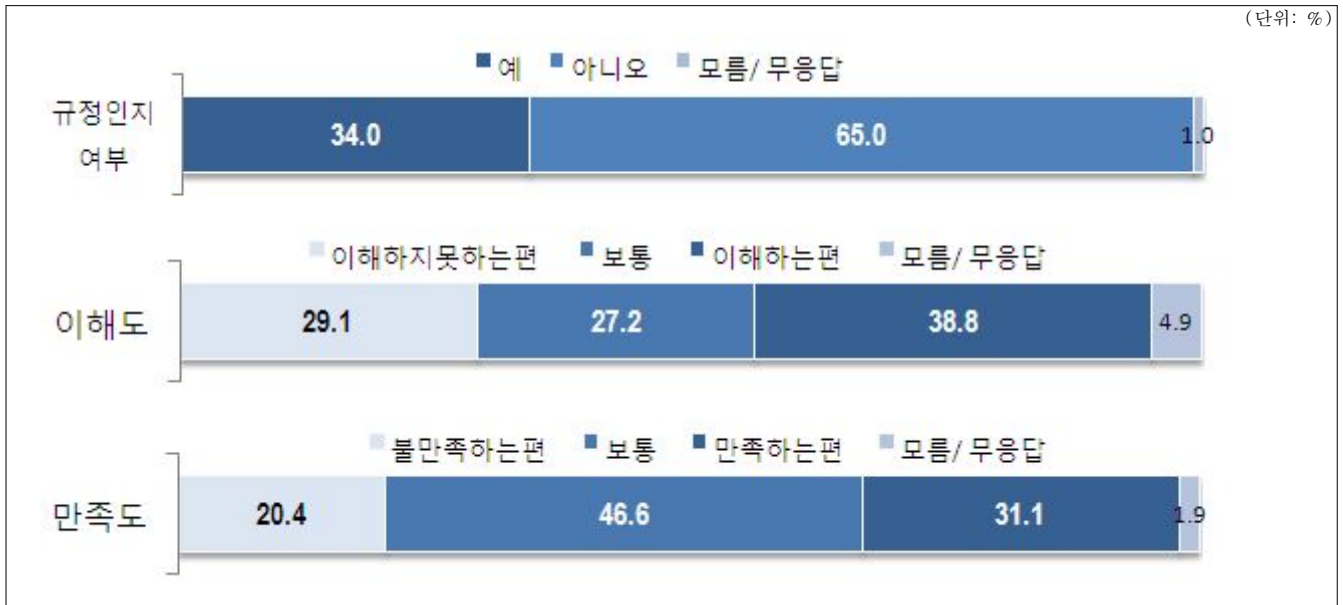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7.8	26.2	35.0	14.6	13.6	2.9	100.0
■ 성 별 ■	남성	(55)	10.9	29.1	21.8	20.0	12.7	5.5	100.0
	여성	(48)	4.2	22.9	50.0	8.3	14.6	0.0	100.0
■ 연 령 ■	20대	(36)	5.6	19.4	44.4	11.1	16.7	2.8	100.0
	30대	(34)	11.8	26.5	38.2	17.6	5.9	0.0	100.0
	40대 이상	(31)	6.5	35.5	19.4	12.9	19.4	6.5	100.0
	무응답	(2)	0.0	0.0	5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20.8	33.3	20.8	12.5	8.3	4.2	100.0
	신문기자	(29)	3.4	27.6	27.6	20.7	13.8	6.9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24.0	56.0	8.0	8.0	0.0	100.0
	국어교사	(25)	4.0	20.0	36.0	16.0	24.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11.3	30.2	24.5	17.0	11.3	5.7	100.0
	비언론인	(50)	4.0	22.0	46.0	12.0	16.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0	21.2	37.9	15.2	18.2	4.5	100.0
	사회과학계열	(26)	19.2	30.8	26.9	15.4	7.7	0.0	100.0
	기타	(8)	12.5	50.0	25.0	12.5	0.0	0.0	100.0

[표 5-112] 중국어 규정 2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4.9	15.5	57.3	16.5	4.9	1.0	100.0
■ 성 별 ■	남성	(55)	7.3	20.0	40.0	21.8	9.1	1.8	100.0
	여성	(48)	2.1	10.4	77.1	10.4	0.0	0.0	100.0
■ 연 령 ■	20대	(36)	5.6	13.9	63.9	13.9	0.0	2.8	100.0
	30대	(34)	5.9	8.8	70.6	11.8	2.9	0.0	100.0
	40대 이상	(31)	3.2	22.6	35.5	25.8	12.9	0.0	100.0
	무응답	(2)	0.0	50.0	50.0	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6.7	16.7	45.8	12.5	8.3	0.0	100.0
	신문기자	(29)	3.4	20.7	44.8	20.7	6.9	3.4	100.0
	출판사종사자	(25)	0.0	12.0	76.0	8.0	4.0	0.0	100.0
	국어교사	(25)	0.0	12.0	64.0	24.0	0.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4	18.9	45.3	17.0	7.5	1.9	100.0
	비언론인	(50)	0.0	12.0	70.0	16.0	2.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0.0	12.1	59.1	21.2	6.1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11.5	23.1	53.8	7.7	3.8	0.0	100.0
	기타	(8)	25.0	12.5	50.0	12.5	0.0	0.0	100.0

8-3 ㅈ, ㅉ, ㅊ'으로 표기되는 자음(j, zh, z, q, ch, c) 뒤의 'ㄱ, ㅋ, ㆁ' 음은 'ㄱ, ㅋ, ㆁ, ㄷ'로 적는다.

[그림 5-39] 중국어 규정 3



[집단별 특성]

□ 전반적으로 이 규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인문계열 전공자에서 이해하는 편이라는 응답과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각각 50.0%, 43.9%) 높게 나타남.

[표 5-113] 중국어 규정 3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무응답	계
■ 전 체 ■		(103)	34.0	65.0	1.0	100.0
■ 성 별 ■	남성	(55)	27.3	72.7	0.0	100.0
	여성	(48)	41.7	56.3	2.1	100.0
■ 연 령 ■	20대	(36)	38.9	61.1	0.0	100.0
	30대	(34)	26.5	73.5	0.0	100.0
	40대 이상	(31)	35.5	61.3	3.2	100.0
	무응답	(2)	50.0	5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29.2	70.8	0.0	100.0
	신문기자	(29)	34.5	62.1	3.4	100.0
	출판사종사자	(25)	36.0	64.0	0.0	100.0
	국어교사	(25)	36.0	64.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32.1	66.0	1.9	100.0
	비언론인	(50)	36.0	64.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9.4	60.6	0.0	100.0
	사회과학계열	(26)	30.8	65.4	3.8	100.0
	기타	(8)	12.5	87.5	0.0	100.0

[표 5-114] 중국어 규정 3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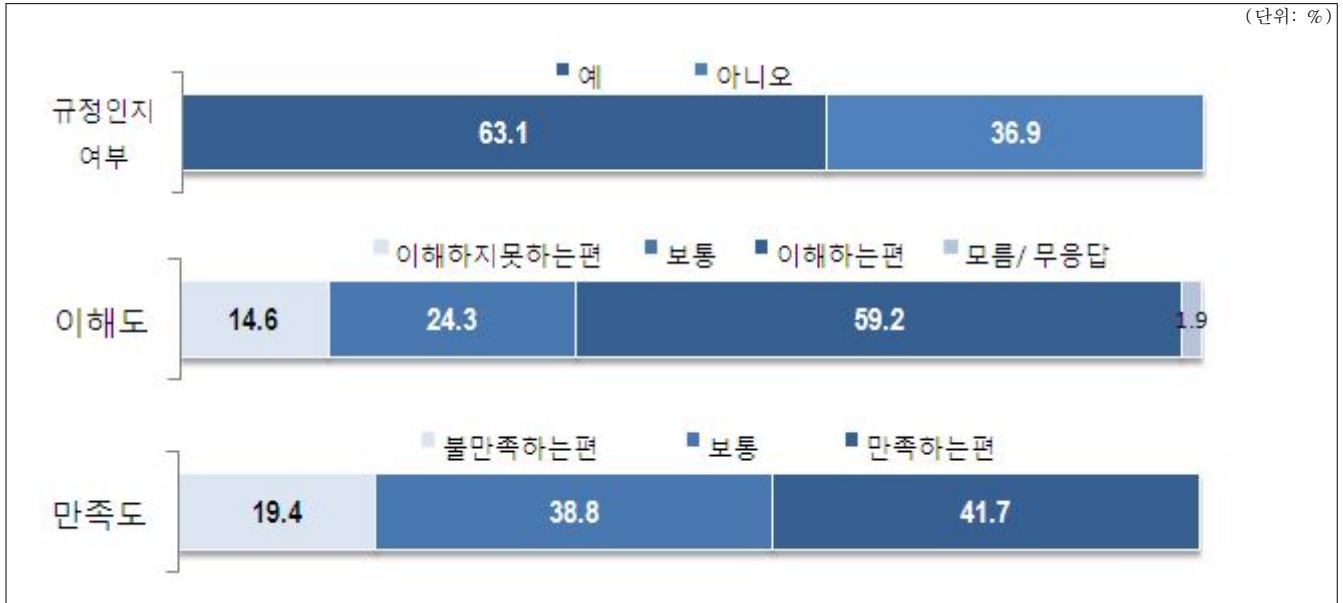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6.8	22.3	27.2	21.4	17.5	4.9	100.0
■ 성 별 ■	남성	(55)	9.1	29.1	16.4	20.0	20.0	5.5	100.0
	여성	(48)	4.2	14.6	39.6	22.9	14.6	4.2	100.0
■ 연 령 ■	20대	(36)	5.6	11.1	30.6	22.2	25.0	5.6	100.0
	30대	(34)	8.8	29.4	32.4	23.5	5.9	0.0	100.0
	40대 이상	(31)	6.5	25.8	19.4	16.1	22.6	9.7	100.0
	무응답	(2)	0.0	50.0	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25.0	29.2	12.5	16.7	12.5	4.2	100.0
	신문기자	(29)	3.4	20.7	31.0	20.7	13.8	10.3	100.0
	출판사종사자	(25)	0.0	32.0	44.0	16.0	8.0	0.0	100.0
	국어교사	(25)	0.0	8.0	20.0	32.0	36.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13.2	24.5	22.6	18.9	13.2	7.5	100.0
	비언론인	(50)	0.0	20.0	32.0	24.0	22.0	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0.0	21.2	22.7	25.8	24.2	6.1	100.0
	사회과학계열	(26)	19.2	19.2	30.8	19.2	7.7	3.8	100.0
	기타	(8)	25.0	50.0	25.0	0.0	0.0	0.0	100.0

[표 5-115] 중국어 규정 3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7.8	12.6	46.6	22.3	8.7	1.9	100.0
■ 성 별 ■	남성	(55)	12.7	16.4	38.2	21.8	10.9	0.0	100.0
	여성	(48)	2.1	8.3	56.3	22.9	6.3	4.2	100.0
■ 연 령 ■	20대	(36)	5.6	11.1	47.2	25.0	8.3	2.8	100.0
	30대	(34)	5.9	11.8	64.7	11.8	5.9	0.0	100.0
	40대 이상	(31)	12.9	12.9	25.8	32.3	12.9	3.2	100.0
	무응답	(2)	0.0	50.0	50.0	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20.8	12.5	45.8	8.3	12.5	0.0	100.0
	신문기자	(29)	10.3	17.2	34.5	31.0	3.4	3.4	100.0
	출판사종사자	(25)	0.0	12.0	72.0	12.0	4.0	0.0	100.0
	국어교사	(25)	0.0	8.0	36.0	36.0	16.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15.1	15.1	39.6	20.8	7.5	1.9	100.0
	비언론인	(50)	0.0	10.0	54.0	24.0	10.0	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4.5	12.1	37.9	33.3	10.6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11.5	11.5	61.5	3.8	7.7	3.8	100.0
	기타	(8)	25.0	12.5	62.5	0.0	0.0	0.0	100.0

8-4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그림 5-40] 중국어 규정 4



[집단별 특성]

□ 인문계열 전공자에서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71.2%로 높게 나타났고, 이해도와 만족도에서도 인문계열 전공자의 긍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5-116] 중국어 규정 4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63.1	36.9	100.0
■ 성 별 ■	남성	(55)	63.6	36.4	100.0
	여성	(48)	62.5	37.5	100.0
■ 연 령 ■	20대	(36)	75.0	25.0	100.0
	30대	(34)	50.0	50.0	100.0
	40대 이상	(31)	64.5	35.5	100.0
	무응답	(2)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54.2	45.8	100.0
	신문기자	(29)	65.5	34.5	100.0
	출판사종사자	(25)	68.0	32.0	100.0
	국어교사	(25)	64.0	36.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60.4	39.6	100.0
	비언론인	(50)	66.0	34.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71.2	28.8	100.0
	사회과학계열	(26)	53.8	46.2	100.0
	기타	(8)	25.0	75.0	100.0

[표 5-117] 중국어 규정 4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5.8	8.7	24.3	28.2	31.1	1.9	100.0
■ 성 별 ■	남성	(55)	7.3	12.7	16.4	27.3	32.7	3.6	100.0
	여성	(48)	4.2	4.2	33.3	29.2	29.2	0.0	100.0
■ 연 령 ■	20대	(36)	2.8	0.0	30.6	22.2	41.7	2.8	100.0
	30대	(34)	8.8	14.7	20.6	38.2	17.6	0.0	100.0
	40대 이상	(31)	6.5	12.9	16.1	25.8	35.5	3.2	100.0
	무응답	(2)	0.0	0.0	100.0	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6.7	20.8	20.8	25.0	16.7	0.0	100.0
	신문기자	(29)	6.9	6.9	17.2	31.0	31.0	6.9	100.0
	출판사종사자	(25)	0.0	4.0	48.0	32.0	16.0	0.0	100.0
	국어교사	(25)	0.0	4.0	12.0	24.0	60.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11.3	13.2	18.9	28.3	24.5	3.8	100.0
	비언론인	(50)	0.0	4.0	30.0	28.0	38.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0	4.5	21.2	28.8	39.4	3.0	100.0
	사회과학계열	(26)	11.5	19.2	23.1	26.9	19.2	0.0	100.0
	기타	(8)	12.5	12.5	37.5	37.5	0.0	0.0	100.0

[표 5-118] 중국어 규정 4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7.8	11.7	38.8	28.2	13.6	100.0
■ 성 별 ■	남성	(55)	10.9	10.9	25.5	32.7	20.0	100.0
	여성	(48)	4.2	12.5	54.2	22.9	6.3	100.0
■ 연 령 ■	20대	(36)	8.3	8.3	44.4	22.2	16.7	100.0
	30대	(34)	8.8	14.7	41.2	32.4	2.9	100.0
	40대 이상	(31)	6.5	9.7	29.0	32.3	22.6	100.0
	무응답	(2)	0.0	5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2.5	20.8	41.7	12.5	12.5	100.0
	신문기자	(29)	13.8	10.3	20.7	37.9	17.2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4.0	52.0	36.0	4.0	100.0
	국어교사	(25)	0.0	12.0	44.0	24.0	2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13.2	15.1	30.2	26.4	15.1	100.0
	비언론인	(50)	2.0	8.0	48.0	30.0	1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4.5	9.1	37.9	30.3	18.2	100.0
	사회과학계열	(26)	7.7	23.1	38.5	23.1	7.7	100.0
	기타	(8)	37.5	0.0	50.0	12.5	0.0	100.0

8-5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그림 5-41] 중국어 규정 5



[집단별 특성]

□ 인문계열 전공자가 인지하는 편,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각각 74.2%, 45.5%).

[표 5-119] 중국어 규정 5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66.0	34.0	100.0
■ 성 별 ■	남성	(55)	63.6	36.4	100.0
	여성	(48)	68.8	31.3	100.0
■ 연 령 ■	20대	(36)	75.0	25.0	100.0
	30대	(34)	52.9	47.1	100.0
	40대 이상	(31)	71.0	29.0	100.0
	무응답	(2)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62.5	37.5	100.0
	신문기자	(29)	72.4	27.6	100.0
	출판사종사자	(25)	64.0	36.0	100.0
	국어교사	(25)	64.0	36.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67.9	32.1	100.0
	비언론인	(50)	64.0	36.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74.2	25.8	100.0
	사회과학계열	(26)	57.7	42.3	100.0
	기타	(8)	25.0	75.0	100.0

[표 5-120] 중국어 규정 5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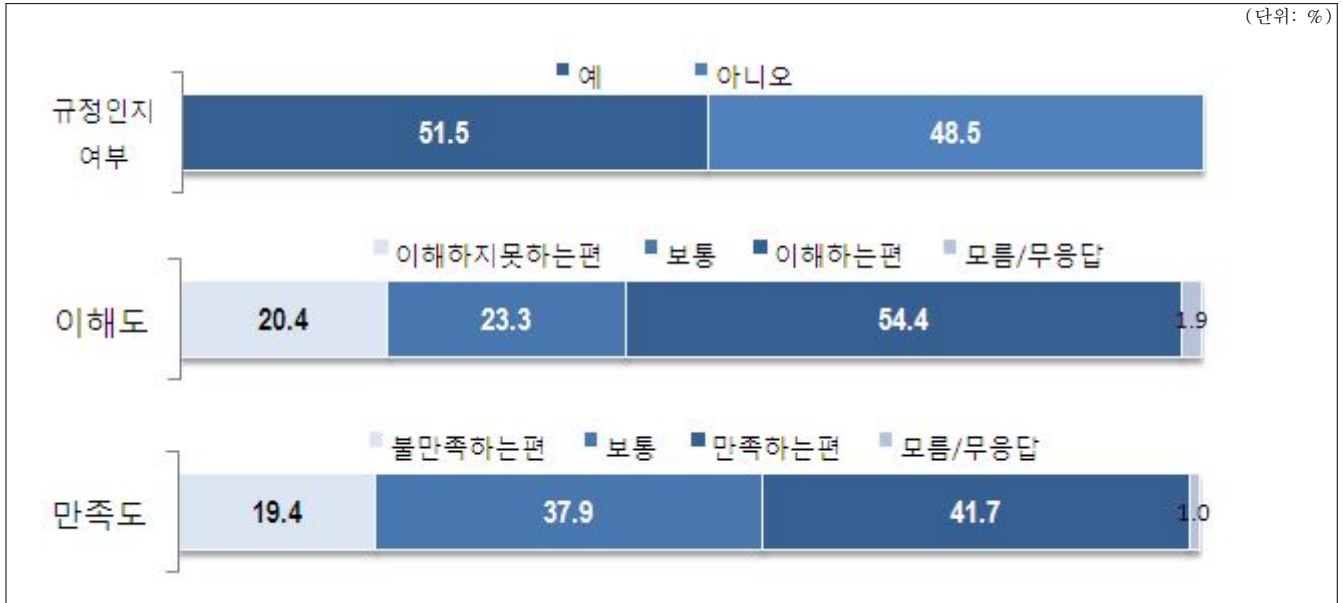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4.9	7.8	22.3	33.0	29.1	2.9	100.0
■ 성 별 ■	남성	(55)	9.1	10.9	12.7	32.7	30.9	3.6	100.0
	여성	(48)	0.0	4.2	33.3	33.3	27.1	2.1	100.0
■ 연 령 ■	20대	(36)	2.8	0.0	27.8	27.8	36.1	5.6	100.0
	30대	(34)	5.9	14.7	23.5	35.3	20.6	0.0	100.0
	40대 이상	(31)	6.5	9.7	9.7	38.7	32.3	3.2	100.0
	무응답	(2)	0.0	0.0	100.0	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6.7	12.5	16.7	37.5	16.7	0.0	100.0
	신문기자	(29)	3.4	10.3	13.8	37.9	27.6	6.9	100.0
	출판사종사자	(25)	0.0	4.0	44.0	32.0	20.0	0.0	100.0
	국어교사	(25)	0.0	4.0	16.0	24.0	52.0	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4	11.3	15.1	37.7	22.6	3.8	100.0
	비언론인	(50)	0.0	4.0	30.0	28.0	36.0	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0	1.5	21.2	33.3	36.4	4.5	100.0
	사회과학계열	(26)	7.7	19.2	19.2	34.6	19.2	0.0	100.0
	기타	(8)	12.5	25.0	25.0	37.5	0.0	0.0	100.0

[표 5-121] 중국어 규정 5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103)	10.7	15.5	35.0	24.3	14.6	100.0
■ 성 별 ■	남성	(55)	12.7	16.4	21.8	29.1	20.0	100.0
	여성	(48)	8.3	14.6	50.0	18.8	8.3	100.0
■ 연 령 ■	20대	(36)	13.9	11.1	38.9	22.2	13.9	100.0
	30대	(34)	8.8	20.6	44.1	17.6	8.8	100.0
	40대 이상	(31)	9.7	12.9	19.4	35.5	22.6	100.0
	무응답	(2)	0.0	5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6.7	20.8	37.5	12.5	12.5	100.0
	신문기자	(29)	10.3	24.1	17.2	34.5	13.8	100.0
	출판사종사자	(25)	12.0	0.0	52.0	28.0	8.0	100.0
	국어교사	(25)	4.0	16.0	36.0	20.0	24.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13.2	22.6	26.4	24.5	13.2	100.0
	비언론인	(50)	8.0	8.0	44.0	24.0	16.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9.1	12.1	33.3	27.3	18.2	100.0
	사회과학계열	(26)	7.7	30.8	30.8	23.1	7.7	100.0
	기타	(8)	37.5	0.0	62.5	0.0	0.0	100.0

8-6 한자 사용 지역(일본, 중국)의 지명이 하나의 한자로 되어 있을 경우, ‘강’, ‘산’, ‘호’, ‘섬’ 등은 겹쳐 적는다.

[그림 5-42] 일반규정 1



[집단별 특성]

□ 국어교사가 이해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76.0%), 만족도는 인문계열 전공자가 높았음(51.5%).

[표 5-122] 일반규정1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51.5	48.5	100.0
■ 성 별 ■	남성	(55)	50.9	49.1	100.0
	여성	(48)	52.1	47.9	100.0
■ 연 령 ■	20대	(36)	55.6	44.4	100.0
	30대	(34)	44.1	55.9	100.0
	40대 이상	(31)	54.8	45.2	100.0
	무응답	(2)	50.0	5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41.7	58.3	100.0
	신문기자	(29)	62.1	37.9	100.0
	출판사종사자	(25)	52.0	48.0	100.0
	국어교사	(25)	48.0	52.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52.8	47.2	100.0
	비언론인	(50)	50.0	5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57.6	42.4	100.0
	사회과학계열	(26)	50.0	50.0	100.0
	기타	(8)	25.0	75.0	100.0

[표 5-123] 일반규정1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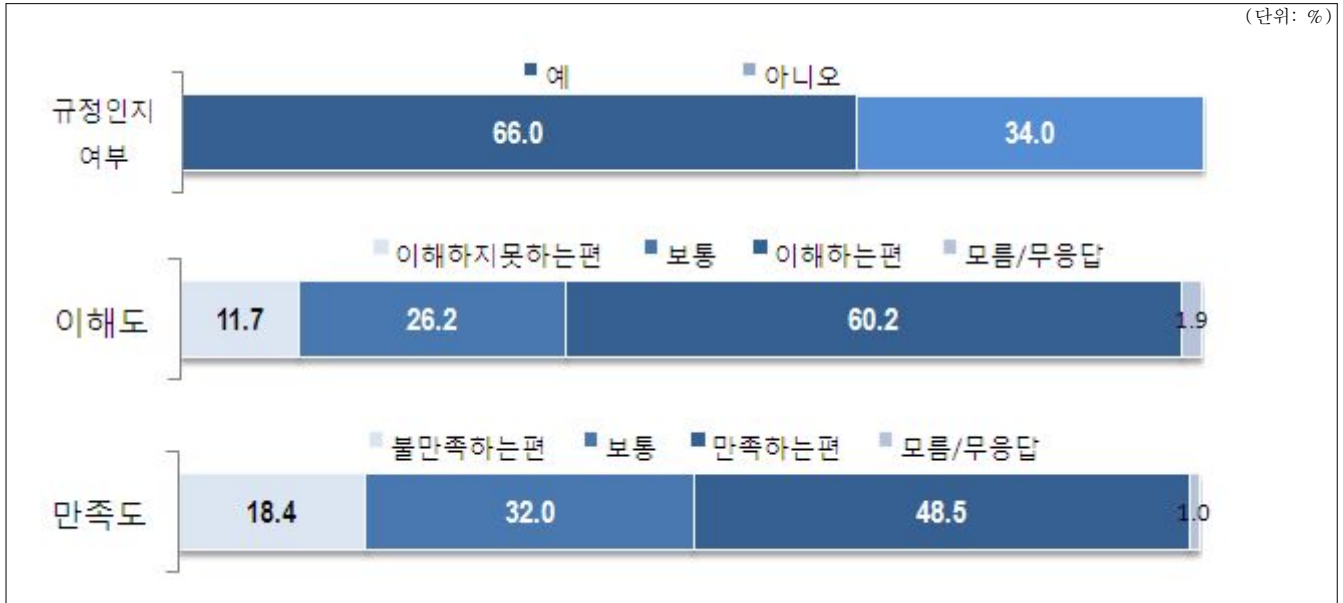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8.7	11.7	23.3	29.1	25.2	1.9	100.0
■ 성 별 ■	남성	(55)	10.9	10.9	21.8	29.1	23.6	3.6	100.0
	여성	(48)	6.3	12.5	25.0	29.2	27.1	0.0	100.0
■ 연 령 ■	20대	(36)	8.3	5.6	27.8	27.8	27.8	2.8	100.0
	30대	(34)	11.8	14.7	23.5	35.3	14.7	0.0	100.0
	40대 이상	(31)	6.5	16.1	12.9	25.8	35.5	3.2	100.0
	무응답	(2)	0.0	0.0	100.0	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20.8	16.7	25.0	25.0	12.5	0.0	100.0
	신문기자	(29)	6.9	6.9	17.2	34.5	27.6	6.9	100.0
	출판사종사자	(25)	4.0	20.0	36.0	24.0	16.0	0.0	100.0
	국어교사	(25)	4.0	4.0	16.0	32.0	44.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13.2	11.3	20.8	30.2	20.8	3.8	100.0
	비언론인	(50)	4.0	12.0	26.0	28.0	30.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4.5	9.1	21.2	28.8	33.3	3.0	100.0
	사회과학계열	(26)	15.4	15.4	15.4	38.5	15.4	0.0	100.0
	기타	(8)	25.0	25.0	37.5	12.5	0.0	0.0	100.0

[표 5-124] 일반규정1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8.7	10.7	37.9	29.1	12.6	1.0	100.0
■ 성 별 ■	남성	(55)	10.9	10.9	32.7	29.1	16.4	0.0	100.0
	여성	(48)	6.3	10.4	43.8	29.2	8.3	2.1	100.0
■ 연 령 ■	20대	(36)	11.1	8.3	38.9	27.8	11.1	2.8	100.0
	30대	(34)	8.8	14.7	47.1	26.5	2.9	0.0	100.0
	40대 이상	(31)	6.5	9.7	22.6	35.5	25.8	0.0	100.0
	무응답	(2)	0.0	0.0	100.0	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6.7	12.5	45.8	16.7	8.3	0.0	100.0
	신문기자	(29)	6.9	13.8	24.1	37.9	17.2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12.0	8.0	48.0	20.0	8.0	4.0	100.0
	국어교사	(25)	0.0	8.0	36.0	40.0	16.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11.3	13.2	34.0	28.3	13.2	0.0	100.0
	비언론인	(50)	6.0	8.0	42.0	30.0	12.0	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7.6	9.1	31.8	33.3	18.2	0.0	100.0
	사회과학계열	(26)	7.7	15.4	46.2	26.9	3.8	0.0	100.0
	기타	(8)	25.0	0.0	50.0	12.5	0.0	12.5	100.0

8-7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

[그림 5-43] 중국어 규정 7



[집단별 특성]

□ 전반적으로 이 규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인문계열 전공자가 이해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8.2%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5-125] 중국어 규정 7 인지 여부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전 체 ■		(103)	66.0	34.0	100.0
■ 성 별 ■	남성	(55)	63.6	36.4	100.0
	여성	(48)	68.8	31.3	100.0
■ 연 령 ■	20대	(36)	77.8	22.2	100.0
	30대	(34)	52.9	47.1	100.0
	40대 이상	(31)	64.5	35.5	100.0
	무응답	(2)	10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62.5	37.5	100.0
	신문기자	(29)	65.5	34.5	100.0
	출판사종사자	(25)	72.0	28.0	100.0
	국어교사	(25)	64.0	36.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64.2	35.8	100.0
	비언론인	(50)	68.0	3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71.2	28.8	100.0
	사회과학계열	(26)	61.5	38.5	100.0
	기타	(8)	37.5	62.5	100.0

[표 5-126] 중국어 규정 7 이해 정도 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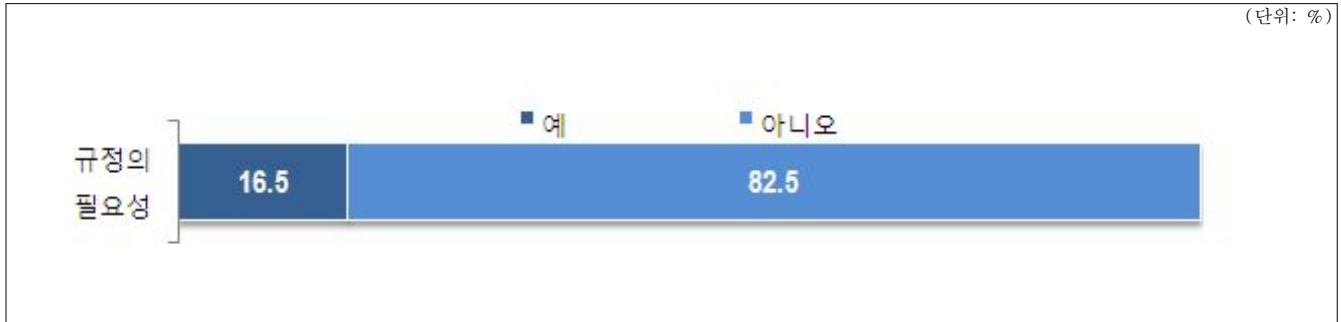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4.9	6.8	26.2	32.0	28.2	1.9	100.0
■ 성 별 ■	남성	(55)	5.5	12.7	20.0	32.7	25.5	3.6	100.0
	여성	(48)	4.2	0.0	33.3	31.3	31.3	0.0	100.0
■ 연 령 ■	20대	(36)	2.8	0.0	27.8	27.8	38.9	2.8	100.0
	30대	(34)	5.9	11.8	32.4	29.4	20.6	0.0	100.0
	40대 이상	(31)	6.5	9.7	16.1	38.7	25.8	3.2	100.0
	무응답	(2)	0.0	0.0	5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2.5	12.5	29.2	33.3	12.5	0.0	100.0
	신문기자	(29)	6.9	6.9	20.7	31.0	27.6	6.9	100.0
	출판사종사자	(25)	0.0	4.0	40.0	36.0	20.0	0.0	100.0
	국어교사	(25)	0.0	4.0	16.0	28.0	52.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4	9.4	24.5	32.1	20.8	3.8	100.0
	비언론인	(50)	0.0	4.0	28.0	32.0	36.0	0.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3.0	3.0	22.7	31.8	36.4	3.0	100.0
	사회과학계열	(26)	7.7	15.4	23.1	38.5	15.4	0.0	100.0
	기타	(8)	12.5	12.5	50.0	25.0	0.0	0.0	100.0

[표 5-127] 중국어 규정 7 만족도 집단별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103)	7.8	10.7	32.0	29.1	19.4	1.0	100.0
■ 성 별 ■	남성	(55)	7.3	12.7	25.5	32.7	21.8	0.0	100.0
	여성	(48)	8.3	8.3	39.6	25.0	16.7	2.1	100.0
■ 연 령 ■	20대	(36)	13.9	2.8	36.1	16.7	27.8	2.8	100.0
	30대	(34)	5.9	20.6	38.2	23.5	11.8	0.0	100.0
	40대 이상	(31)	3.2	9.7	19.4	48.4	19.4	0.0	100.0
	무응답	(2)	0.0	0.0	50.0	5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12.5	16.7	37.5	25.0	8.3	0.0	100.0
	신문기자	(29)	6.9	13.8	20.7	41.4	17.2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12.0	4.0	40.0	28.0	12.0	4.0	100.0
	국어교사	(25)	0.0	8.0	32.0	20.0	40.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9.4	15.1	28.3	34.0	13.2	0.0	100.0
	비언론인	(50)	6.0	6.0	36.0	24.0	26.0	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6.1	10.6	27.3	27.3	27.3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3.8	11.5	38.5	42.3	3.8	0.0	100.0
	기타	(8)	37.5	0.0	50.0	12.5	0.0	0.0	100.0

9 f, v 등 국어에 없는 주요 외국어 음성을 적을 수 있는 한글 자모를 만들어서 실제로 외래어의 표기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예: file '폰 ㅏ 일' violin '바이올린' 등)

[그림 5-44] 규정관련제안



[집단별 특성]

□ 규정 관련 제안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82.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아나운서의 경우 66.7%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5-128] 규정관련제안에 대한 집단별 특성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무응답	계
■ 전 체 ■		(103)	16.5	82.5	1.0	100.0
■ 성 별 ■	남성	(55)	20.0	78.2	1.8	100.0
	여성	(48)	12.5	87.5	0.0	100.0
■ 연 령 ■	20대	(36)	19.4	80.6	0.0	100.0
	30대	(34)	8.8	88.2	2.9	100.0
	40대 이상	(31)	16.1	83.9	0.0	100.0
	무응답	(2)	100.0	0.0	0.0	100.0
■ 직 업 ■	아나운서	(24)	33.3	66.7	0.0	100.0
	신문기자	(29)	13.8	86.2	0.0	100.0
	출판사종사자	(25)	12.0	84.0	4.0	100.0
	국어교사	(25)	8.0	92.0	0.0	100.0
■ 직업(대분류) ■	언론인	(53)	22.6	77.4	0.0	100.0
	비언론인	(50)	10.0	88.0	2.0	100.0
■ 전 공 ■	인문계열	(66)	13.6	84.8	1.5	100.0
	사회과학계열	(26)	23.1	76.9	0.0	100.0
	기타	(8)	25.0	75.0	0.0	100.0

연구 책임자 : 구본관(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공동 연구원 : 박한상(홍익대 영어교육과 교수)
이진희(영산대 유럽지역통상학과 교수)
박동열(서울대 불어교육과 교수)
이만기(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조문환(한국외대 이탈리아 통번역학과 교수)
민광준(건국대 일어교육과 교수)
손남호(인천대 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오현아(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연구원)
보조 연구원 : 권지영, 이미옥, 김요한, 박미진, 박혜숙,
김소정, 송아람, 노은정, 강순행, 엄현석,
고은숙, 이호수, 박선영, 이지영, 조진수

외래어 표기 규범 영향 평가

발 행 인 유인촌

발 행 처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 화 : 02-3704-9110 팩스 : 02-3704-9154

인 쇄 일 2010년 12월 23일

발 행 일 2010년 12월 23일

인 쇄 가람 문화사